Collections of Data on Gaya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Ⅲ

가야 자료 총서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Ⅲ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Ⅲ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III

발간사

가야는 옛 기록이 많지 않아 온전한 모습을 밝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고분을 중심으로 가야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한국 고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문헌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가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지속되어 왔고 그에 따른 수많은 자료가 축적되었으나 이를 한 곳에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이번에 발간하는 『가야 자료 총서 1~7권』은 지금까지 축적된 가야에 대한 자료 가운데 문헌사료, 일제강점기자료, 발굴조사자료와 국내에서 발표된 논저도 함께 집성하였습니다.

「가야 문헌 사료편」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국내 문헌 및 일본서기, 삼국지 등 국외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904개의 사료를 주요 표제로 묶고, 이 표제를 연도순으로 편집하였습니다. 가야의 주요 역사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은 1907년 김해 회현리패총을 시작으로 1939년 고령 지산동 고분군 39호분(현 5호분) 조사까지 영남지역에서 행하여졌던 가야 관련 유적을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총 8개 시·군의 33개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유적 조사 현황과 조사내용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또 김해, 양산 등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엽서나 야장 내용을 통해 조사 당시의 구체적인 모습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은 목관묘 단계에서부터 6세기 중엽까지 경남, 경북 고령, 호남 동부지역의 38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638개 유적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영·호남뿐만 아니라 서울, 충청, 강원지역에서 가야 유물이 출토된 유적 90개소도 함께 소개하여 국내 가야의 조사 정보를 총망라하였습니다. 특히 유적의 좌표를 기반으로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나타내어 학술자료뿐만 아니라 정비·보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발간하였습니다.

「가야 논저 목록편」은 고대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가야와 관련된 문헌자료, 금석문자료, 지표·발굴조사보고서, 도록 등 기초자료와 주제별 논저자료를 모아 총 5,164건을 수록하였습니다. 또 저자별, 지역별, 각 가야별 색인을 부록으로 붙여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도 일본 내 가야 유적·유물 자료, 국외에서 발표된 논저목록 등을 정리한 총서를 추가 발간하고 자료의 최신화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가야 역사문화자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통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가야 관련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자료 총서가 가야사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라며, 대중적으로도 가야사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많은 회의에 참석하시어 총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자문위원님, 바쁘신 와중에도 원고 집필과 수차례에 걸친 교정을 흔쾌히 맡아주신 집필위원님, 그동안 가야사 규명을 위해 현장에서 모은 소중한 자료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국·공·사립·대학박물관과 조사·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김 삼 기

일러두기

1. 이 책은 『가야 자료 총서 3~6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으로, 가야 관련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유적을 수록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목관묘 단계에서부터 6세기 중엽까지의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적인 범위는 경남, 경북 고령, 호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대상지역에는 경남 양산, 부산, 대구 달성, 경북 성주, 호남 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의 가야 유적 여부는 1차적으로 발굴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판단하였다. 이밖의 지역에서 가야 유물이 출토된 유적은 '가야 유물 출토유적'으로 별도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가야 유적은 총 38개 시 · 군 · 구에 소재한 473건 638개소이며, 가야 유물 출토유적은 총 32개 시 · 군 · 구 90개소이다.

2. 이 책은 자문회의와 편집회의를 거쳐 수록 대상 유적 선정, 집필진 구성, 편집 방향 등을 설정하였다. 자문위원과 지역별 · 유형별 집필진은 다음과 같다.

   자문위원(가나다 순)
   곽장근(군산대학교), 나동욱(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박천수(경북대학교), 배성혁(대동문화재연구원), 이동희(인제대학교), 조근우(마한문화연구원),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하승철(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홍보식(공주대학교)

   집필자(목차 순)
   박천수(경북대학교, 개요, 강원 · 경북 가야 유물 출토유적),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 함안 · 창녕 무덤유적), 이해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 양산 · 의령 · 거제 생활유적), 심종훈(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 창원 · 함안 · 의령 정치 · 국방 · 교통 · 통신유적), 이성훈(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 무덤유적), 강석범(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부산 생활유적), 권종호(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양산 · 밀양 · 창원 · 의령 · 거제 무덤유적), 권귀향(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밀양 · 창원 · 함안 · 창녕 생활유적), 이세영(부경문물연구원, 진주 무덤유적), 김주호(부경문물연구원, 진주 생활유적), 장상갑(현대문화재연구원, 합천 · 산청 · 거창 · 함양 · 하동), 공봉석(부경문물연구원, 고성), 유은식(부경문물연구원, 통영 · 남해), 김진철(부경문물연구원, 사천), 배성혁(대동문화재연구원, 고령 · 달성 · 성주), 박성배(순천대학교박물관, 전남), 곽장근(군산대학교, 전북 · 호남 가야 유물 출토유적), 조명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 유영춘(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 강원종(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전북), 전상학(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전북), 홍보식(공주대학교, 서울 · 충북 · 충남 가야 유물 출토유적)

3. 이 책에 수록된 사진 · 도면 제공기관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가경고고학연구소, 가온문화재연구원, 강산문화연구원, 경남대학교박물관, 경남문화재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경북과학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경북대학교박물관, 경상대학교박물관, 경상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경성대학교박물관, 계명대학교박물관, 고령군,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고령문화원, 관동대학교박물관, 국강고고학연구소,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국보학술문화연구원,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군산대

학교박물관, 극동문화재연구원, 김해시, 나라문화연구원, 남도문화재연구원, 다온문화재연구원,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대구보건대학교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대동문화재연구원,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대한문화재연구원, 덕난문화유산연구원, 동북아지석묘연구소, 동서문물연구원, 동신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의대학교박물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동양대학교박물관, 동양문물연구원, 두류문화연구원, 마한문화연구원, 목포대학교박물관, 복천박물관, 부경대학교박물관, 부경문물연구원,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부산대학교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불교문화재연구소, 삼강문화재연구원, 삼도문화재연구원, 삼한문화재연구원, 서울대학교박물관,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성림문화재연구원, 순천대학교박물관, 신라대학교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영남문화재연구원, 우리문화재연구원, 울산대학교박물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남대학교박물관, 전남문화재연구원,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북문화재연구원,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조선대학교박물관, 중앙문화재연구원, 창원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통도사성보박물관, 한겨레문화재연구원,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한국문물연구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재연구원, 한반도문화재연구원, 한성문화재연구원, 한신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한화문물연구원, 해동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호암미술관

4. 유적은 지역별(Ⅰ권: 경남 동부 · 부산지역, Ⅱ권: 경남 중 · 서부지역, Ⅲ권: 경남 북부 · 경북 · 대구지역, Ⅳ권: 경남 남해안 · 전남 · 전북지역), 유형별(무덤유적, 생활유적, 산업 · 생산유적, 정치 · 국방유적, 교통 · 통신유적, 제의유적), 문화재지정별(사적, 시도유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문화재자료, 비지정), 행정구역별의 순서로 분류하였다. 단, 마산 진동유적과 같이 가야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지정문화재(가야 유물 출토유적 포함)는 비지정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한 유적에서 2개 이상의 유형이 확인된 경우,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고, 부록에는 해당되는 유형을 함께 표기하였다.

5. 유적은 문화재청 발굴조사 허가 건을 기준으로, 해방 이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유적을 대상으로 집필하였다. 보고서가 미발간되었지만, 유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하였다.

6.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같이, 유적이 연차적으로 발굴된 경우는 전체 유적의 조사 현황을 개요로 설명한 뒤, 각 발굴조사 건별로 세부 조사내용을 수록하였다.

7. 유적의 주요 항목은 유적명, 소재지, 조사기관, 조사기간, 주요 유적 · 유물, 조사내용, 유적 위치도, 관련 도면 · 사진,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하였다. 유적명은 발굴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되, 일부 유적의 경우는 유적명을 알기 쉽게 수정하였다. 소재지, 조사기관명도 발굴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8. 각 지역별 개별 유적의 분포는 유적번호와 함께 위성사진에 표시하였다.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1권 가야 문헌 사료편

개요 가야의 기록에 대한 이해

사료
사료 표제
연도별 사료

부록 사료 목록

2권 가야 일제강점기 자료편

개요 일제강점기의 '조선고적조사'와 가야 유적

조사 자료
Ⅰ. 김해
Ⅱ. 양산
Ⅲ. 함안
Ⅳ. 진주
Ⅴ. 창녕
Ⅵ. 고령
Ⅶ. 성주
Ⅷ. 고성

부록 조사 연표

3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Ⅰ

개요 고고학으로 본 가야

경남동부·부산지역
Ⅰ. 김해
Ⅱ. 부산
Ⅲ. 양산
Ⅳ. 밀양
경남동부·부산지역 가야 유적 목록

4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Ⅱ

경남중부·서부지역
Ⅰ. 창원
Ⅱ. 함안
Ⅲ. 의령
Ⅳ. 진주
경남중부·서부지역 가야 유적 목록

5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Ⅲ

경남북부·경북·대구지역
Ⅰ. 창녕
Ⅱ. 합천
Ⅲ. 산청
Ⅳ. 거창
Ⅴ. 함양
Ⅵ. 고령
Ⅶ. 달성
Ⅷ. 성주
경남북부·경북·대구지역 가야 유적 목록

6권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Ⅳ

경남남해안·전남·전북지역
Ⅰ. 고성
Ⅱ. 통영
Ⅲ. 거제
Ⅳ. 사천
Ⅴ. 남해
Ⅵ. 하동
Ⅶ. 전남
Ⅷ. 전북
경남남해안·전남·전북지역 가야 유적 목록

가야 유물 출토 유적
Ⅰ. 영남
Ⅱ. 호남
Ⅲ. 서울·충청·강원
가야 유물 출토 유적 목록

부록 가야 유적과 유물 출토 유적 목록

7권 가야 논저 목록편

Ⅰ. 기초 자료편
1. 문헌 자료
2. 금석문 자료
3. 지표·발굴조사 보고서
4. 도록

Ⅱ. 논저편
1. 정치·군사
2. 사회
3. 문화
4. 경제
5. 외교
6. 지리·교통
7. 종교·사상
8. 유적
9. 유물
10. 고고이론·분석
11. 민속·신화
12. 어문
13. 기타

부록 색인

Contents

경남북부 경북 대구지역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Ⅲ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Ⅲ

경남북부
경북
대구지역

Ⅰ. 창녕

Ⅱ. 합천

Ⅲ. 산청

Ⅳ. 거창

Ⅴ.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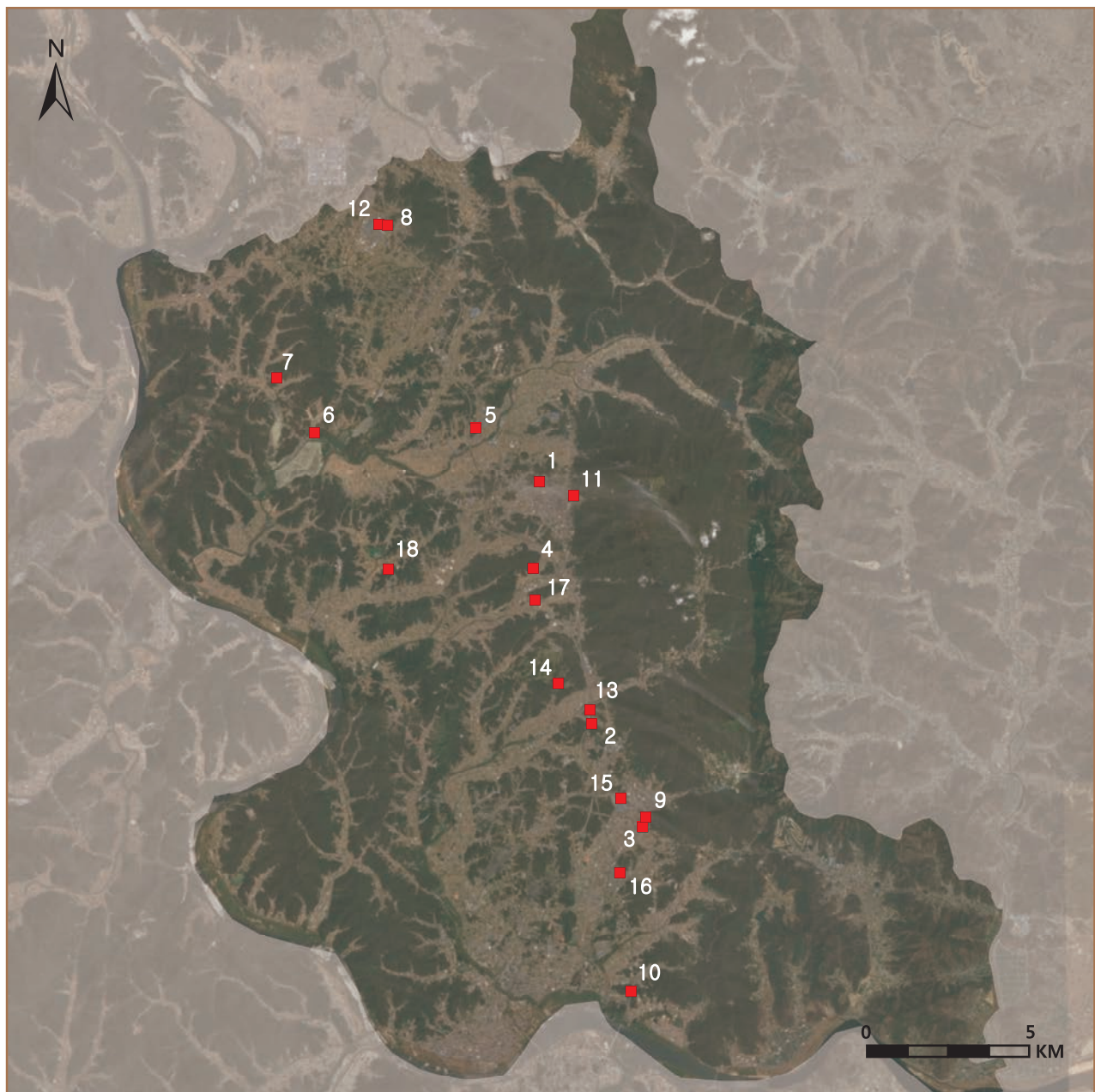
Ⅵ. 고령

Ⅶ. 달성

Ⅷ. 성주

경남북부·경북·대구지역 가야 유적 목록

琵瑟山
晟項山
大峙
蘆川
榆南山
太白山
內野
火王山
淸道
貫珠山
水王山
漏浦
牛項山
梨旨浦
仰津
兎川
於山
桂城
靈鷲山
高老峙
德岩山
芍藥山
件峴

Ⅰ. 창녕

01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昌寧 校洞과 松峴洞古墳群

|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산 5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현재까지 사적으로 지정된 구역의 면적은 456,998㎡이다. 고분군은 북서쪽의 토평천을 통해 서쪽으로 낙동강을 통해 합천과 고령 등지와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청도를 통해 밀양과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하며, 화왕산 서쪽 사면의 창녕읍이 한눈에 조망되는 구릉 사면부와 서쪽으로 뻗은 지능선 상부의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2012년 정밀지표조사 결과, 봉토분 101기와 봉토가 남아 있지 않은 고분 116기 등 총 217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제강점기 작성된 분포도에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 확인되지 않는 80기와 최근 Ⅱ군 3호분 북동편 미정비구역에서 조사된 20여 기의 고분 등을 합하면 고분군이 조성될 당시에 320여 기 이상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1917년 이마니시 류今西龍에 의해 현황조사를 시작으로 1918년에서 1931년에 걸쳐 7·21·31·89호분 등 Ⅰ군과 Ⅱ군의 주요 고분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사되었으나 정식보고되지 않았다. 해방 이후 1992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한 Ⅱ군 1~5호분의 조사가 일제강점기 조사 이후 60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들어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조사법인 중심으로 봉토분을 위주로 복원·정비를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5~6세기에 조성된 비화가야 지배자층의 무덤으로 매장주체부의 형태는 수혈식석곽묘, 횡구식·횡혈식석실묘가 중심이며, 수혈식석곽묘→횡구식석실묘→횡혈식석실묘로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다. 중심묘제로 채용된 세장방형 횡구식석실묘는 가야 고유 묘제인 수혈식석곽묘를 축조집단의 매장문화 및 고분군이 조성된 지형에 맞게 변형하여 창조한 독특한 묘제로 평가된다. 묘역의 선정 단계부터 봉분을 쌓을 때 공간을 구획하는 등 철저한 기획에 의해 축조되었으며 다양한 재료와 축조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물 중 토기류는 창녕양식으로 불리는 유개이단투창고배를 비롯해 장경호, 기대, 파수부완 등이 대표적인 기종이다. 창녕양식 토기는 5세기 중반 이후 합천 옥전고분군, 함안 오곡리고분군, 부산 가달고분군, 김해 안양리고분군 등 서부경남과 낙동강 하류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금동관, 관모장식, 대금구, 금동신발 등 다양한 위세품과 무기류, 마구류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신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금동관은 Ⅰ군 7호분, Ⅲ군 8·10호분에서 출토되었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조사를 통해 비화가야-신라-왜 등 한반도 안팎의 문화교류 양상을 복원할 수 있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2, 『大正七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19, 『朝鮮彙報』 大正8年8月號.

小川顯夫, 1932, 「古墳發掘漫談」, 『朝鮮』 第205號.

穴澤和光·馬目順一, 「昌寧校洞古墳群-梅原考古資料を中心とした谷井濟一氏發掘資料の研究-」, 考古學雜誌 60-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

국립김해박물관, 2015, 『창녕 교동7호분』, 일제강점기자료 조사보고18집.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창녕 교동고분군	동아대학교박물관	1992.2.~1992.6.	창녕교동고분군(1992)
2	창녕 송현동고분군 6·7호분	경남문화재연구원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시굴 2001.12.~2002.4. 발굴 1차 2003.11.~2004.2. 2차 2004.4.~2006.3.	창녕 송현동고분군–2·5호분 시굴조사 및 6·7호분 발굴조사(2006) 창녕 송현동고분군Ⅰ–6·7호분 발굴조사보고(2011)
3	창녕 교리 유적 –창녕 문화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2004.8.~2005.2.	창녕 문화공원조성부지 내 창녕 교리 유적(2007)
4	창녕 송현동고분군 15~17호분	국립가야문화재 연구소	2006.5.~2008.4.	창녕 송현동고분군Ⅱ–15~17호분 발굴조사보고(2012)
5	창녕 교동고분군 –주차장조성부지 내 유적	국립가야문화재 연구소	2009.10.~2010.5.	창녕 교동고분군–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2013)
6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Ⅰ군 7호분 및 주변고분	우리문화재연구원	2011.6.~2012.9.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제Ⅰ군7호분 및 주변고분(2014) 창녕 교동7호분–일제강점기자료조사보고18집(2015)
7	창녕 교동 신라묘군 –창녕박물관 증축부지 내 유적	삼강문화재연구원	2011.9.~2011.11.	창녕 교동 신라묘군–창녕박물관 증축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2013)
8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Ⅰ군 수습조사구간 내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13.7.~2013.10.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2–제Ⅰ군 수습조사구간(2015)
9	창녕 교동 88호분	국립가야문화재 연구소	2013.9.~2014.3.	창녕 교동88호분 발굴조사보고서(2015)
10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Ⅱ군 39호분 및 주변고분	국립가야문화재 연구소	2014.4.~현재	2014~2015년도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현장설명회 자료집(2015)
11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Ⅲ군 1–1호분·8호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5.11.~2015.12.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제Ⅲ군1–1호분·8호분(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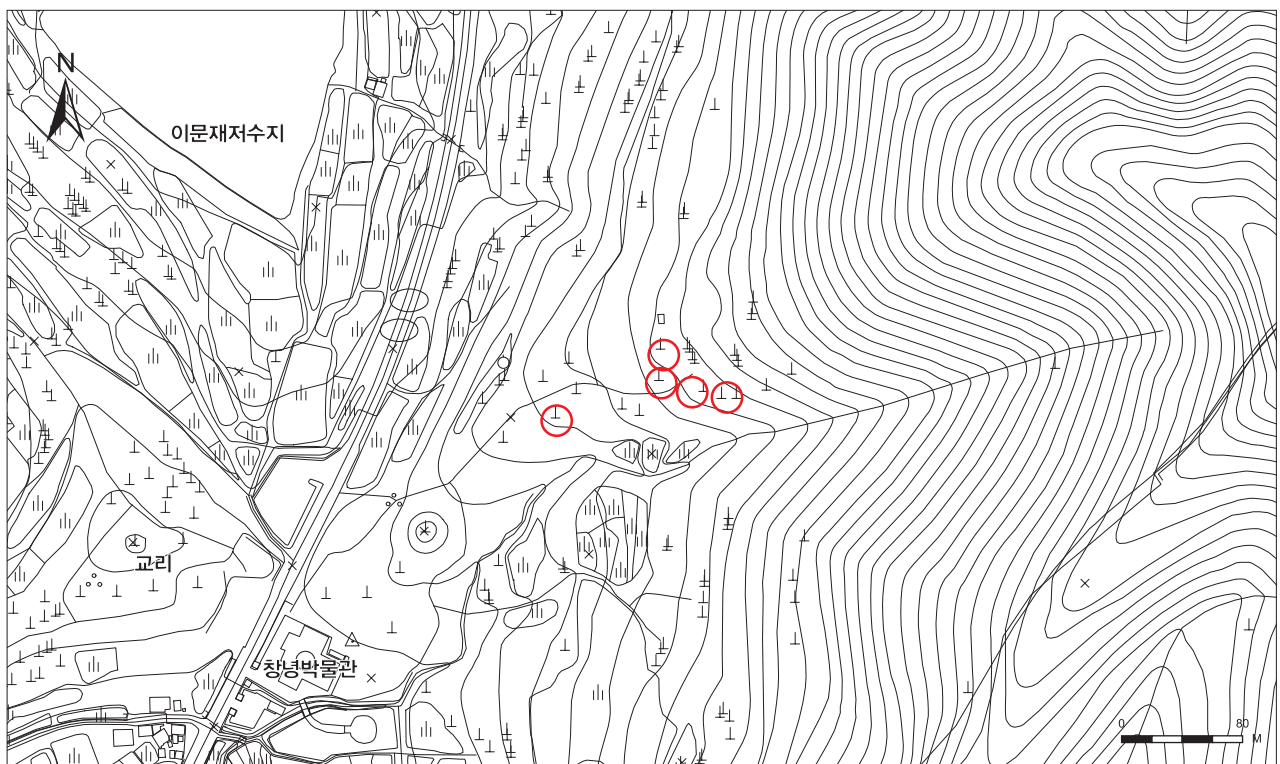
01-1 창녕 교동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산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92.2.~1992.6.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횡구식석실묘
/유개고배, 개배,
연질옹, 대부파수부완,
발형기대, 은제조익형
입식, 은제과대,
철제관모, 심엽형대금
구, 대도, 성시구,
판갑, 찰갑

Ⅱ군 동쪽 끝부분에 해당하는 봉토분 5기에 대해 1992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였다. 광복 이후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최초의 발굴조사로 고분군 복원정비를 위한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발굴조사 대상유구는 1~4(東1~4)호분과 8(東5)호분이다.

그 중 1호분은 원형봉토분으로 동고서저의 가파른 경사면에 축조되었다. 경사도가 급한 서쪽은 흑갈색점토와 산토를 교대로 다져 유사판축하였고, 동쪽은 할석과 산토를 섞어 조잡하게 축조한 특징을 보인다. 봉분은 중심에서 방사상으로 16등분하여 구획성토하였고 호석은 천석과 할석으로 축조하였으며 호석에 접하여 주혈이 둘러져 있다. 호석의 직경은 22.5m이다. 매장주체부는 세장방형 횡구식석실로 북서쪽에 입구를 마련하였다. 입구부는 단벽 전체를 이용한 구조이다. 바닥에는 관대가 시설되어 있으며 주인공 이외에 3인의 순장자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실의 규모는 7.1m, 너비 1.2m, 높이

유적 위치도

11.4m이다. 출토유물은 다량의 토기류를 비롯해 은제조익형입식, 경식, 금제이식, 은제과대, 심엽형대금구, 대도, 도자, 철모, 물미, 성시구, 철촉, 철부, 보습, 등자, 운주, 행엽, 재갈, 토제령, 삼환령, 꺾쇠 등이 출토되었다. 경식, 금제이식, 토자 등은 순장자 착장유물로 파악된다. 1호분은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며 창녕지역 최상위 계층의 무덤으로 평가된다.

3호분은 조사된 5기의 고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봉토분이다. 봉분의 축조방법은 1호분과 대동소이하며, 호석에 접해서 주혈이 36개소 조사되었다. 매장주체부는 세장방형 횡구식석실이며, 규모는 길이 7.2m, 너비 1.3m, 높이 2.2m로 1호분에 비해 높이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석실의 축조에 있어 목주를 벽체와 상면 6곳에 끼워 축조하였는데 바닥에도 양 벽체와 연결된 목주를 배치했으며 그 사이에 2~3겹으로 자갈을 깔아 상면을 마련한 특이한 구조이다. 최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2지구 2호묘에서 동일한 수법의 분묘가 조사되었다. 꺾쇠가 출토되어 목관(곽)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횡구부는 북쪽 단벽 1.2m 상부에 설치하였다. 묘도부 바닥과 석실 상면에는 순장으로 추정되는 인골 편이 출토되었으며 호석과 묘도부 접속부분에는 표시석을 시설하여 횡구부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출토유물은 토기류 외에 대도, 검, 철모, 물미, 판갑, 찰갑, 등자,

1호분 조사모습

1호분 개석 노출모습

3호분 조사전 전경

3호분 봉토 축조모습

유자이기, 철제관모, 은제과대, 금제이식 등이 출토되었으며 축조연대는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이 3호분은 가장 이른시기의 횡구식석실의 하나라고 평가된다.

1992년 동아대박물관의 조사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묘제와 다양한 출토유물을 통해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의 창녕지역 지배자층의 고분문화를 복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연구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1992, 『창녕교동고분군』.

3호분 매장주체부

4호분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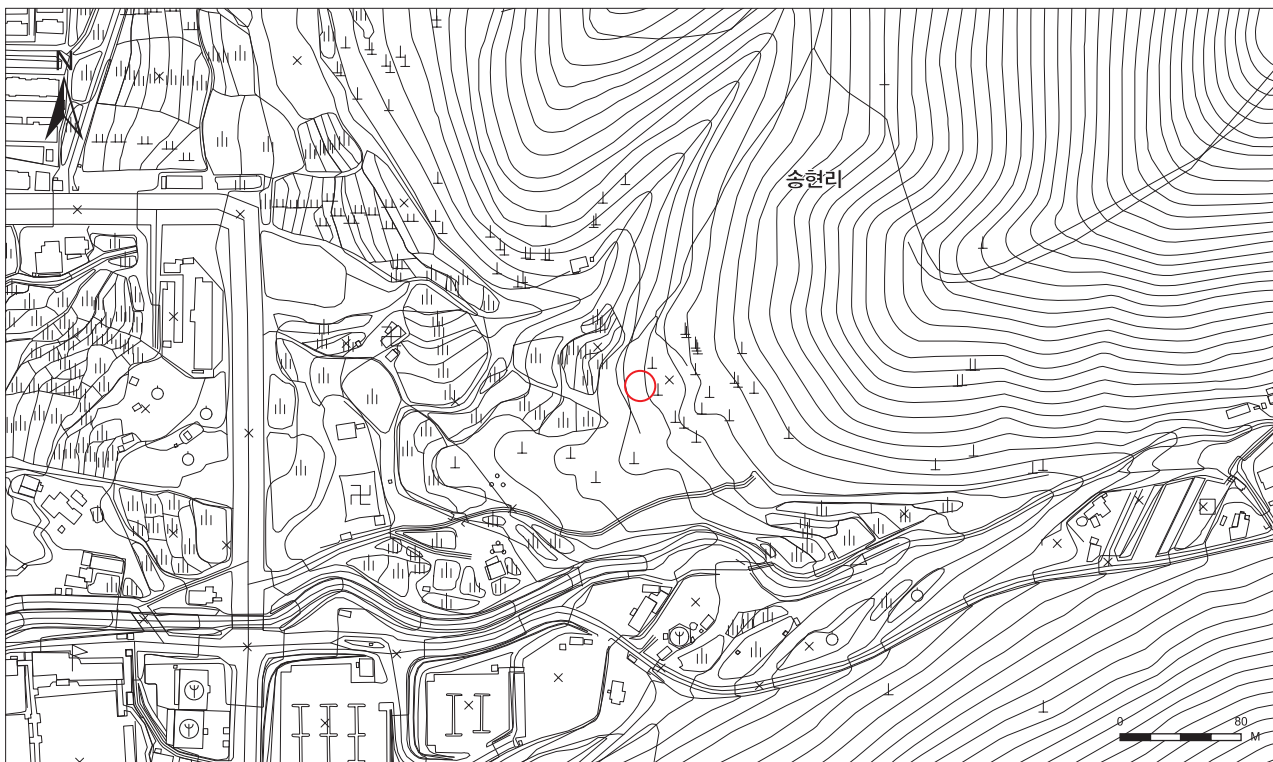
01-2 창녕 송현동고분군 6·7호분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산9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시굴 2001.12.~2002.4.
발굴 2003.11.~2004.2.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1차 2003.11.~2004.2.
2차 2004.4.~2006.3.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횡구식석실묘 / 유개고배, 유개파수부옹, 대부장경호, 단경호, 삼엽문환두대도, 재갈, 등자, 금동투조안교, 심엽형행엽, 운주, 금제세환이식, 은제과대식금구, 목심흑칠안교, 목심안교, 좌목, 목제대부배, 목제방형합, 국자형칠기, 봉상칠기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Ⅲ군에서 속하는 송현동 6·7호분은 사적 제514호로 통합되기 전 사적 제81호 송현동고분군으로 명칭되어 왔다. 창녕군에서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훼손을 방지하고 역사교육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밀 지표조사를 2000년에 실시하였고(경남문화재연구원 2004) 이후, 정비복원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송현동 2~7호분에 대한 시굴조사(경남문화재연구원 2006)를 거쳐 봉토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6·7호분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6·7호분의 발굴조사는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봉토 일부를 발굴한 시점에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로 발굴조사 담당 기관이 변경되어 진행되었다. 송현동 6·7호분은 축조시기의 선후가 뚜렷한 표형분으로 일제강점기 이래 송현동고분군에서 이루어진 첫 정식 발굴조사이다.

송현동 6호분은 1호분에 남동쪽으로 약 14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7호분과 연접해서 표형분을 이루고 있다. 봉토는 직경 약 22m, 높이 약 8.5m의 평면 원형이다. 축

유적 위치도

조공정은 묘역 정지-매장주체부 축조-매장주체부 밀봉-평탄면 조성-봉분 완성의 5단계로 구분되며, 각 공정은 여러 개의 성토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매장주체부는 북쪽에 입구부를 마련한 횡구식이고, 평면 세장방형, 단면 사다리꼴로 규모는 길이 8.5m, 너비 1.4~1.6m, 높이 2.2~2.6m이다. 벽석은 풍화암반층을 'L'자상으로 굴착하고 장방형 할석을 이용하여 80㎝ 높이까지는 횡평적하고, 그 상부는 세로방향의 구간을 설정하여 쌓은 것으로 보인다. 장벽을 개석 끝부분에서 2m 정도 밖으로 연장하여 횡구부를 조성하였다. 폐쇄는 석실 바닥에서 1.2m 높이까지는 내부에서 할석의 면을 맞췄으며, 상부는 바깥쪽에서 폐쇄하였다. 석실에는 적색과 흑갈색의 안료가 도포되어 있으며 횡구부는 점토를 벽석에 덧바른 후 흑갈색의 안료를 칠하였다. 상면에는 관대와 함께 각재를 이용한 바닥시설이 확인되었다. 주로 할석을 사용한 관대는 남단벽에서 1.2m 떨어져 있으며 장축면은 양 장벽과 연접해 있다. 유물은 남단벽과 관대 사이 구간에서 토기류, 관대 상부에서 칠 편과 농공구류, 마구류 등의 금속유물, 관대와 횡구부 사이 구간에서 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목제유물은 사선방향으로 놓인 각재 및 관대와 횡구부 사이 구간의 중심부에서 목재 편 등이 출토되었다 폐쇄석과 가장 가까운 유개고배군 근처에서 안교 편이 출토되었다.

7호분은 6호분과 봉분이 연접하여 표형분을 이루고 있으며, 6호분의 봉분을 파괴하고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봉분은 직경 약 20m, 높이 약 5.6m로 동서로 긴 평면 장타원형이다. 봉분은 북서-남동 방향의 대기준선을 기준으로 약 20개 이상의 구획면이 확인되며, 다각형의 호석을 통해 구획성토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장주체부는 북쪽에 입

유적 전경

구부를 마련한 횡구식으로 평면 세장방형, 단면 사다리꼴로 규모는 길이 8.4m, 너비 1.8m, 높이 2.3~2.6m이다. 횡구부는 장벽에서 연결시켜 조성하였는데, 동장벽은 풍화암반면을 이용하고 서장벽은 벽석보다 작은 할석을 쌓아 축조하였다. 바닥에는 일부 풍화암반 편이 다량 혼입된 사질점토를 깔아 상면을 정지하였으며, 오벽奧壁에서 약 1m 이격된 지점에 할석으로 축조한 관대를 마련하였다. 관대 위에는 녹나무제의 반원형 목관을 안치하였으며, 목관을 안치하기 위해 고임돌을 놓았다. 이 녹나무제 목관은 국내에서 처음 출토된 것으로 목선을 전용하여 관으로 제작한 것이다. 관대와 북쪽 횡구부 사에에는 사선방향으로 12매의 각재를 깔았다. 유물은 목관과 오벽 사이에 토기류를 중심으로 철부, 도자, 목제절판세트, 국자형칠기, 봉상칠기 등이 부장되었고, 목관 동편과 서편에는 토기류, 봉상칠기, 철기류 등이 부장되었으며, 목관과 횡구부 사이에는 각종 토기류와 인골, 목기류, 철부 등이 부장되었다.

송현동 6·7호분은 유구의 선후관계는 뚜렷하지만 출토된 유물의 시기차는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축조연대는 5세기 후반~6세기 초에 해당한다. 송현동 6·7호분에서 출토된 금속유물이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등 신라고분 출토품과 대부분 유사하여 창녕지역이 신라화 되어 가는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학술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6, 『창녕 송현동고분군 – 2·5호분 시굴조사 및 6·7호분 발굴조사-』.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창녕 송현동고분군 – 6·7호분 발굴조사 개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창녕 송현동고분군Ⅰ – 6·7호분발굴조사보고-』.

6호분 봉토 축조모습

6·7호분 연접부

7호분 봉토 축조모습

7호분 입구부

7호분 목관 노출모습

7호분 목관 수습 후 유물 노출모습

출토유물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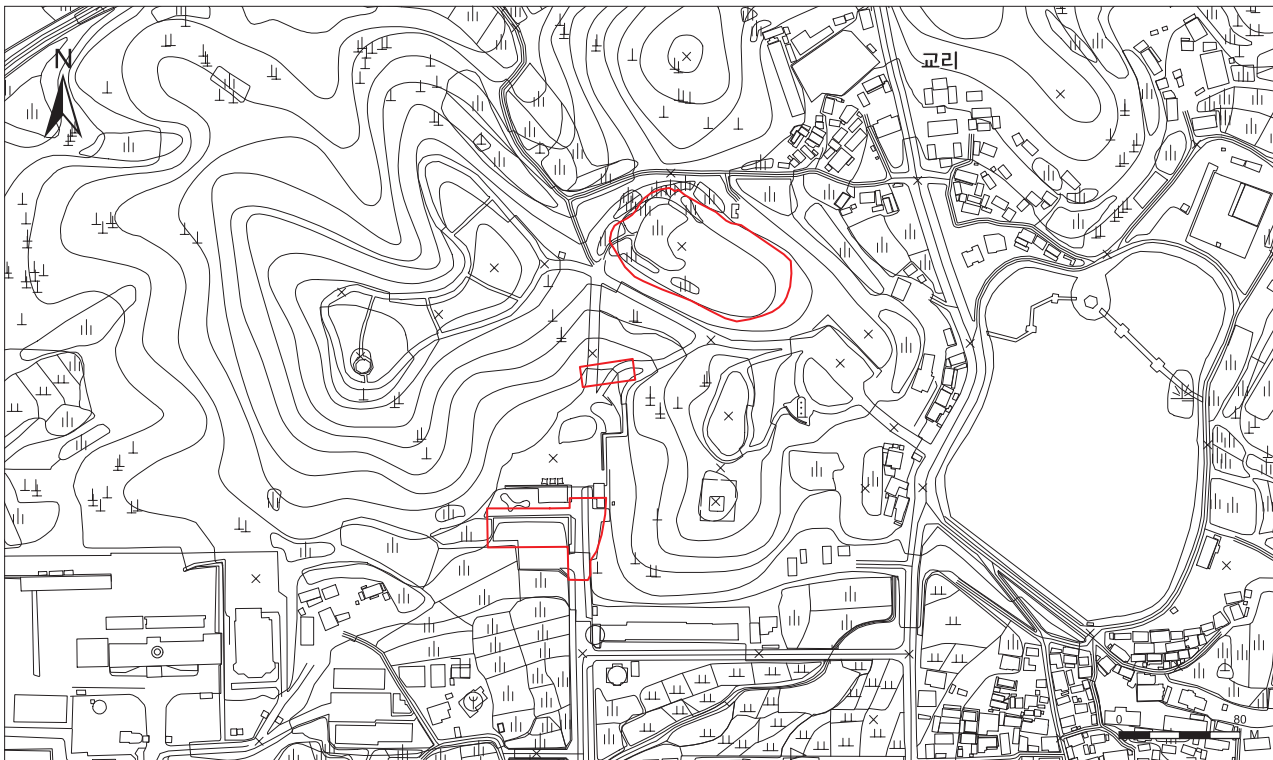
창녕 교리유적 _ 창녕 문화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346-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4.8.~20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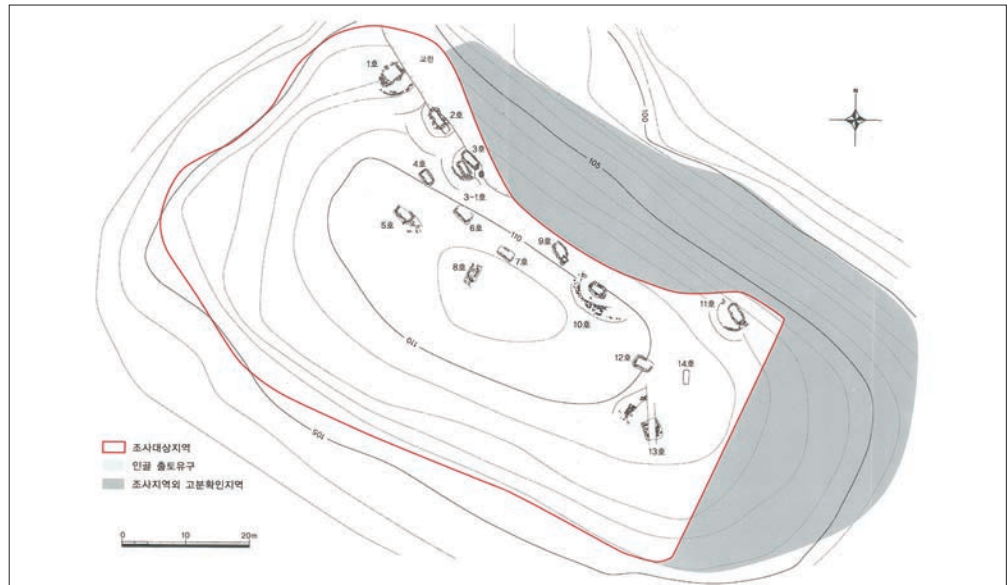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횡구식석실묘 / 유개고배, 대부완, 장경호, 도자

창녕 교리유적은 화왕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구릉부와 그 사면에 무덤이 분포하고 있으며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끝자락에 해당한다. 창녕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앞서 유적을 발굴조사하게 되었다. 조사는 3개 지구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는데 조사 결과, A지구에서 고분 13기와 민묘 1기, B지구에서 배수로, 삼가마 1기, 구하도, C지구에서 폐와무지, 구상유구 1기, 조선시대 건물지 2동, 불명유구 1기, 구하도가 조사되었다.

A지구에서 조사된 고분은 교동고분군의 서쪽 범위 끝지점에 해당된다. 대부분 횡구식석실묘로 등고선과 나란하게 축조되었고 대부분 세장방형 또는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띤다. 입구는 구릉의 경사면 아래인 남동쪽에 두고, 횡구부단벽의 상부 전면을 주로 사용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유개고배, 대부완, 장경호 등의 토기류가 대부분이며, 금속기는 도자, 청동과대의 교구 1점 등 상당히 빈약하다. 고분군의 조영시기는 고분의 구조와 출토된 유물로 볼 때, 6세기 후반~7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된다.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창녕문화공원 조성부지내
창녕 교리유적』.

교리유적의 조사를 통해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범위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중소형묘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며 창녕지역 중소형묘의 신라화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A지구 유구 배치도

A지구 1호분

A지구 9·10호분

A지구 10호분 인골 매납공간

출토유물

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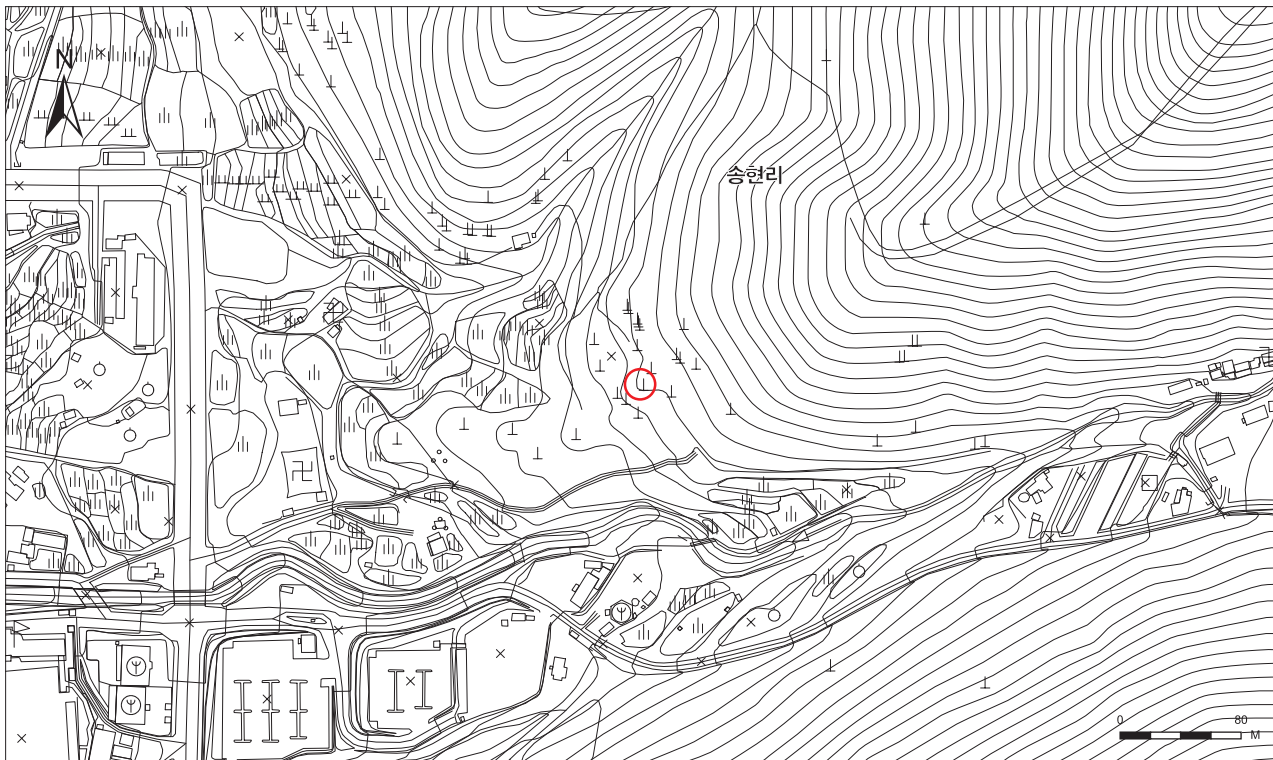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산9-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2006.5.~2008.4.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횡구식석실묘
/ 유개고배, 대부완,
파수부옹, 장경호,
재갈, 안교, 행엽, 입주
부운주, 금동관, 금제
지환, 금제세환이식,
은제과대식금구

창녕 송현동고분군 15~17호분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Ⅲ군에서 속하는 송현동 15~17호분은 사적 제514호로 통합되기 전 사적 제81호 송현동고분군으로 명칭되어 왔다. 송현동 15~17호분 및 주변지역의 발굴조사는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송현동고분군의 제Ⅰ군에는 직경이 20m 이상인 대형 봉토분이 11기 분포하며 능선 경사면 아래쪽의 1호분을 시작으로 경사면 위쪽으로 고분의 분포가 선형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15~17호분은 이 선형배열의 마지막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대형 봉토분인 15·16호분, 중형 봉토분으로 추정되는 17호분 등 봉토분 3기와 주변의 중소형 석곽묘 7기, 매납유구 2기 및 15·16호분 축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3단의 석축시설이 확인되었다. 15·16호분은 봉토가 남북으로 연결된 연접분이며, 17호분은 훼손으로 15·16호분과 명확한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봉분의 조사는 잔존상태가 양호한 15호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5호분 봉분의 규모는 직경 22.4m, 잔존높이 4.37m이며, 축조과정에서 분할성토

유적 위치도

와 기저부에 방사상석축시설로 평탄면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공법이 사용되었다. 봉분 서쪽으로 3단의 석축단 시설이 조사되었는데, 고분 축조 이후의 묘역관리 기능을 하였던 시설로 추정되고 있다. 매장주체부는 북쪽 단벽에 횡구부를 마련한 횡구식석실로 횡구 외부 연장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약 12m, 너비 4.9m이고, 석실의 규모는 길이 8.56m, 너비 1.7m, 높이 2.25m이다. 석실 내부에는 주피장자를 위한 부석시설이 마련되었고, 천정, 벽면 바닥 모두에 회를 칠했던 양상이 확인되었다. 석실의 개석 상부에 다양한 크기의 할석으로 적석하고, 그 위를 점토로 밀봉하여 매장주체부를 보호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신라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주피장장와 함께 4인의 순장자가 안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순장인골 중 상태가 양호한 인골을 중심으로 '가야사람 복원연구'인 이른바 '송현이(4호 인골)'의 복원연구를 진행하였다. 출토유물은 유개고배, 대부완, 파수부옹, 장경호, 대부장경호 등의 토기류와 재갈, 안교, 심엽형행엽, 편원어미형행엽, 입주부운주 등의 마구류, 금동관, 금제지환, 금제세환이식, 금제태환, 은제과대식금구, 금은제빈구슬(경식), 구슬 등의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16호분 봉분의 규모는 직경 20.5m, 잔존높이 4.87m이며, 매장주체부의 외형적 구조, 호석의 잔존상태, 봉토 축조방법이 연접한 15·17호분과 동일하여 유구 보호를 위해 매장주체부 내부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17호분은 훼손이 심한 상태로 매장주체부의 구조 정도만 이해할 수 있었다. 적석

유적 전경

시설은 15호분에 비해 두께가 얇고 점토밀봉시설도 확인되지 않았다. 개석상부와 단벽 외부를 동일한 적석시설로 보호하고 있는 구조이다. 매장주체부는 횡구식석실이며 석실의 단면은 사다리꼴로 천정석은 7매 잔존한다. 석실 바닥면을 기준으로 규모는 길이 6.09m, 너비 1.28m, 높이 2.09m이다.

15~17호분 및 주변유적의 조성연대는 대략 5세기 4/4분기에서 6세기 1/4분기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현동 15~17호분 조사는 송현동 6·7호분과 함께 고대 창녕지역의 고분 축조기법과 매장의례를 복원할 수 있었으며, 특히 15호분 4호 인골의 학제융합 고대 인골 복원을 통해 고대 창녕인의 모습을 복원하는 등 창녕지역 고대문화 규명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2, 『창녕 송현동고분군 II -15~17호분 발굴조사보고』.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1500해앞 16살 여성의 삶과 죽음-창녕 송현동 15호분 순장인골의 복원연구-』.

15·16호분

15·16호분 서편 석축단시설

15호분 밀봉부

15호분 석실

17호분

15-1·2·3호 석곽묘

15호분 매장주체부

15호분 순장인골 복원모습

장신구류 · 마구류

토기류

01-5

창녕 교동고분군 _ 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97-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2009.10.~2010.5.

주요 유구 / 유물
횡구식석실묘 /
유개대부 장경호, 유개
파수부완, 유개고배,
삼엽문환두대도, 대도,
삼지모, 성시구, 은제과
대금구, 은제요패장식,
안교, 등자, 운주, 'U'자
형삽날

유적은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Ⅰ군 중 20·24국도로 단절된 서편에 위치하며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교동 89·91호분이 동편에 입지한다. 북쪽으로는 완만한 경사면에 Ⅰ군 15~20호분이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교동고분군 주차장 내 배수로 조성을 위한 입회조사에서 고분의 개석 및 벽석 일부가 노출되어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횡구식석실묘 1기와 조선시대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횡구식석실묘는 개석 상부봉토는 대부분 유실되었지만 내부는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아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었다. 봉분은 호석 등을 통해 직경 19m로 추정된다. 호석은 이중으로 조성되었고 호석 앞쪽으로는 주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구획성토 양상도 확인되었다. 횡구식석실묘는 묘역정지-호석과 매장주체부 조성-석실 상부 밀봉-봉토조성의 4단계의 공정으로 축조되었다. 매장주체부의 주축방향은 동-서로 등고선과 평행하며 규모는 길이 6.5m, 너비 1.4m, 높이 1.7m의 세장방형이다. 개석은 총 9매로 이루어

유적 위치도

졌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입구쪽 1매는 결실되었다. 입구부는 서쪽으로 벽면 전체를 이용하였으며 묘도는 3.2m 가량 잔존한다. 묘도는 벽과 바닥 모두 별도 시설 없이 조성하였다. 폐쇄는 밖에서 안으로 석재를 이용하여 입구를 막고 흑갈색사질점토로 묘도부 전체를 채운 후 상부에 봉토를 성토하였다. 토층에서 추가장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유물의 부장공간은 6개의 공간, 즉 머리부측 부장공간-주피장자 안치공간-발치부 부장공간-순장공간-입구 부장공간-관(또는 곽)의 상부 부장공간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 특히 발치부 부장공간과의 경계에는 벽석 크기의 석재를 열상으로 놓아 구획하였고 발치부와 입구부 부장공간 사이에는 바닥에 회를 깐 흔적과 순장인골 편도 확인되었다. 부장유물 중 토기류는 머리부측 부장공간, 발치부 부장공간, 입구 부장공간의 3곳에서만 확인되며, 주피장 안치공간에는 은제과대 및 장식, 삼엽문환두대도 및 장식, 관옥, 화살촉, 은제띠장식, 'U'자형 삽날 등이 부장되고, 등자, 안교, 경판, 운주 등의 마구류는 머리측 부장공간에서 출토되었다. 순장공간에서는 인골 편과 대도, 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로 볼 때, 주자장 조성부지 내 횡구식석실묘는 5세기 중후반 어느 시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3, 『창녕교동고분군-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

유적 전경

호석 축조모습

유물 출토모습

은제과대 노출모습

토기 부장공간 상단

토기 부장공간 하단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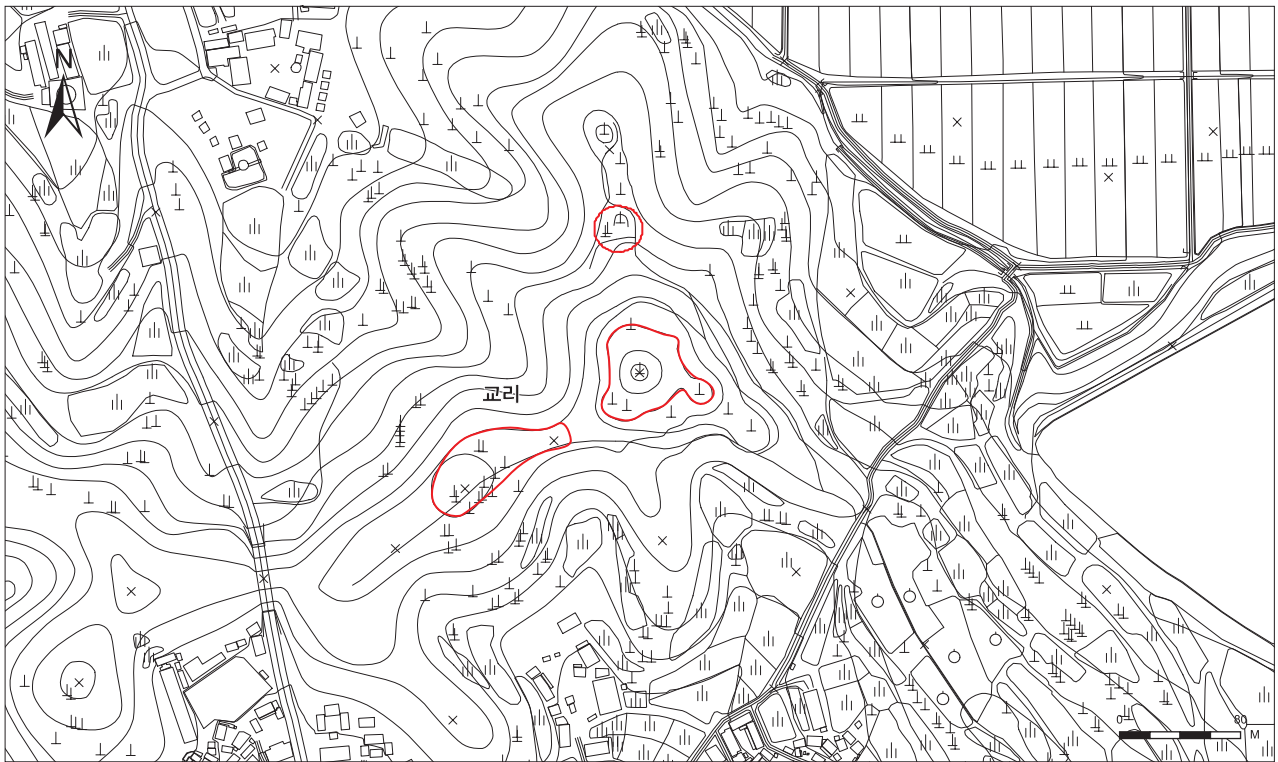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_ 제I군 7호분 및 주변 고분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492-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11.6.~2012.9.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수혈식석곽묘
/ 유개고배, 유개파수
부옹, 단경호, 금·은·청
동제천, 세환이식, 금·
은제지륜, 금동관 편,
금동제령, 금동장식구,
금동투조안교, 과대
금구, 청동합, 청동다
리미, 청동각배, 유리
옥, 절자옥, 관옥

교동 7호분의 조사는 복원·정비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7호분의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앞서 제Ⅰ군 주변의 봉토분 대부분이 도굴과 후대삭평으로 심한 훼손 상태임을 확인하고 1·6·8·9·12호분에 대한 추가 조사(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5호분 주변에서 추가로 석곽묘 2기가 조사되었다.

7호분은 1918~1919년 야쓰이 세이이쓰谷井濟一가 5~8호, 10~12호, 제Ⅱ군 10(89)호, 11(91)호 등과 함께 발굴조사한 봉토분이다. 당시 발굴조사 내용은 정식보고 되지 않았고, 1920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대정6년도고적조사보고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에서 단 한 줄로 기술된 것이 전부였다. 1975년 우메하라가 남긴 자료를 토대로 야스이의 조사내용을 정리·보고한 논문(穴澤咊光·馬目順一 1975)이 공표되고 난 이후, 당시 촬영된 유리원판 사진이 공개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정밀학술조사 보고서(우리문화재연구원 2014)서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국립김해박물관 2015)에 수록되어 있다.

유적 위치도

7호분의 축조공정은 크게 정지공정-매장주체부 축조공정-봉토부 축조공정으로 구분된다. 정지공정은 고분이 위치한 장소의 자연경사면 높이에 따라, 낮은 쪽에 해당하는 동쪽과 북쪽에는 암갈색실트층과 암반 편, 점토가 블록상으로 포함된 층을 정지토로 이용한 반면, 높은 서쪽에는 암갈색실트층만 일부 사용하거나 정지토가 확인되지 않는다. 호석은 석축처럼 정연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층의 끝부분에 놓는 방식을 이용하여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매장주체부 축조공정은 매장주체부 축조-밀봉의 2공정으로 세분된다. 매장주체부는 1단계 정지면을 굴착하여 묘광을 마련하고 화강암을 사용하여 벽석을 축조하였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8.85m, 너비 1.68m이다. 묘광을 보강하기 위한 외부벽석과 같은 새로운 축조기법이 확인되었으며 한쪽 단벽을 입구형태로 만드는 독특한 형식의 묘제가 확인된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묘광을 연장해서 만든 수혈에서 축조당시에 매납된 동물유체가 확인되어 당시의 장송의례의 일단을 보여주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매장주체부를 완성한 뒤에는 9매의 개석을 덮고 개석의 틈 사이를 중력~거력급 화강암으로 채우고 점토를 바른 후 여러 차례(4단계)의 밀봉과정을 거쳐 마무리 하였다. 밀봉과정에서 초본류로 엮은 발을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봉토 축조공정은 3가지 공정으로 세분되는데, 1공정은 개석을 중심으로 좌우 분할성토 단계이며, 2공정은 수평 내지는 내경성토법을 이용해 성토하는 단계이고, 3공정은 내경성토법으로 인해 생긴 중앙부의 칼데라상 부분을 채워 넣고 봉토축조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7호분에서는 다양한 봉토 축조방식을 확인하였는데, 암반이 많은 흙과 점성이 강한 흙을 교

유적 전경

대로 쌓는 교차성토법을 기초로 외사향성토와 내사향성토를 높이와 위치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였다. 또한 지형을 고려해서 낮은 곳을 먼저 성토하고 이후 높은 곳을 성토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고랑과 이랑형성토, 제방형성토와 배수를 위한 석열이 확인된 것은 향후 봉토축조 기술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7호분은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내에서 최대 규모이며, 금동관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당시 창녕 일대를 지배했던 인물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7호분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파편 상태로 원위치에서 이탈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대부분의 유물이 일제강점기 조사에서 반출되었으며, 이때 출토된 유물은 총 700여 점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은 133건 197점이며 2015년 국립김해박물관의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18집에 수록되어 있다. 토기는 유개고배, 고배, 단경호, 유개파수부옹 등이 출토되었고, 금속류는 금·은·청동제천, 세환이식, 금은제지륜, 금동관 편, 금동제령, 금동장식구, 금동투조안교, 과대금구, 청동합, 청동다리미, 청동각배, 유리옥과 절자옥 및 관옥 등의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 7호분의 축조시기는 토기편년에 의해 대략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주변고분의 시굴조사에서는 1호분의 경우, 창녕지역에서 처음으로 석실묘를 채용한 봉토분이 조사되어 향후 6세기 중반 이후 창녕의 묘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확보되었고, 12호분의 경우는 일제강점기 조사 이래, 묘제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적석목곽묘라는 경주지역의 독특한 묘제로 밝혀졌다.

참고문헌

조선총독부, 1920, 『대정6년 도고적조사보고』.

穴澤和光·馬目順一, 「昌寧校洞古墳群-梅原考古資料を中心とした谷井濟一氏發掘資料の研究-」, 『考古學雜誌』 60-4.

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종합학술 연구 보고서-』.

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제 I 군 7호분 및 주변 고분-』

국립김해박물관, 2015, 『창녕 교동 7호분』.

7호분

7호분 봉토 축조모습

7호분 매장주체부 내부

7호분 입구부

출토유물

01-7 창녕 교동 신라묘군 _ 창녕박물관 증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50-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삼강문화재연구원 /
2011.9.~20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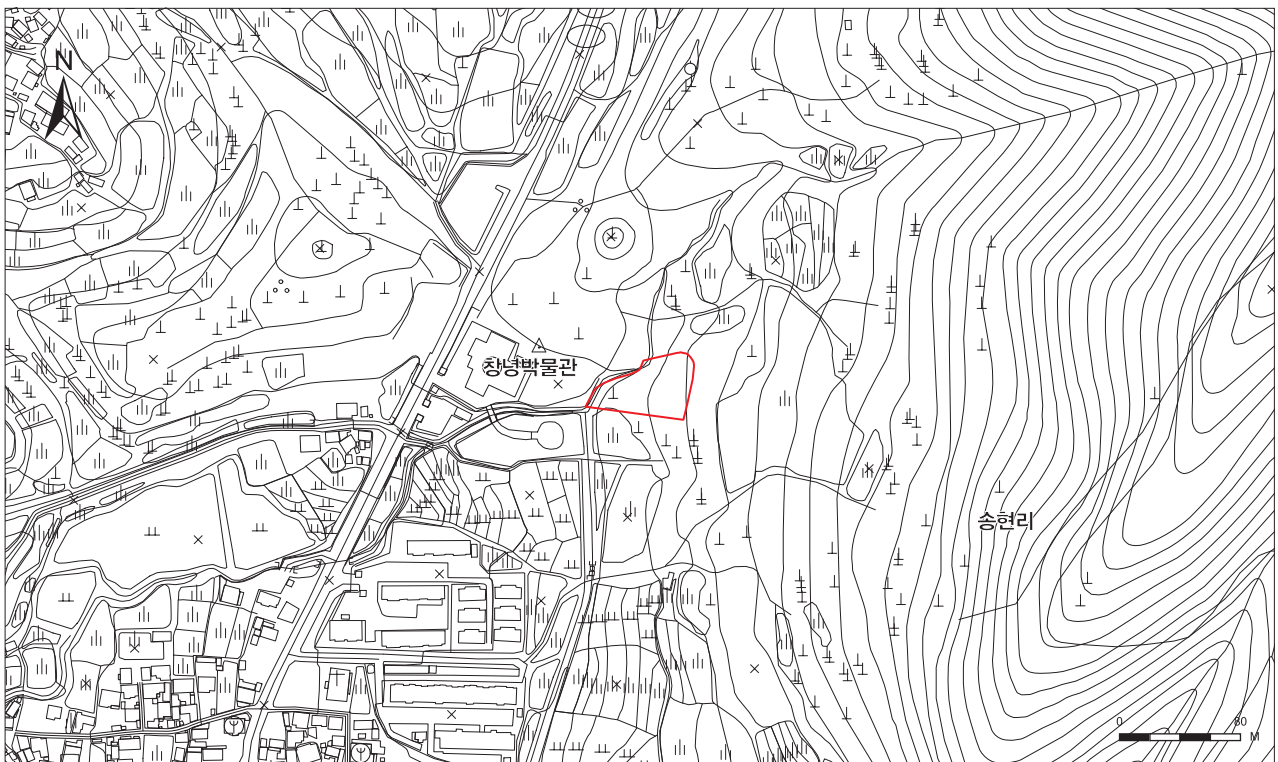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횡구식석곽묘 /
유개고배, 연질유개옹,
대부완, 장경호,
대부장경호

창녕박물관 증축부지 내 유적은 교동고분군과 송현동고분군 사이에 해당하며 2014년 정밀분포조사(우리문화재연구원 2014)에 의하면 Ⅱ군에 속한다. 화왕산 구릉 말단부에 해당되는 곳으로 등고선의 간격이 완만해 지는 곳이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횡구식석곽묘 15기·횡구식석실묘 2기·구 1기, 조선시대 건물지 2동·주거지 1동·암거시설 1기·수혈 5기·구 3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석곽묘는 석곽의 잔존 깊이가 얕아 횡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단벽의 벽석이 엉성하게 구축되어 있어 횡구식의 석곽으로 판단하고 있다. 횡구식석곽묘의 석곽 규모는 2.95~4.36m, 너비는 1.31~1.82m 정도의 중소형급으로 조사구역의 북동쪽에 주로 배치되어 있다. 횡구식석곽묘는 격벽을 시설하여 부장공간과 시상공간을 구분하였으며, 8기의 분묘에서는 시신을 덮는 장치 즉,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석금石衾이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 유물은 토기류 위주로 부장되었으며, 기종은 유개고배,

유적 위치도

대부완, 연질유개옹, 장경호, 대부장경호이다. 그 외 철지동장세환이식과 도자, 철겸 등의 금속류가 극히 일부 부장되었다.

축조시기는 6세기대로 편년되며, 창녕지역의 중소형급 무덤에서 신라화의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유적이다.

참고문헌

삼강문화재연구원, 2013, 『창녕 교동 신라묘군-창녕박물관 증축부지 내 시·발굴조사-』.

유적 전경

2호 석곽묘

2호 석곽묘 출토유물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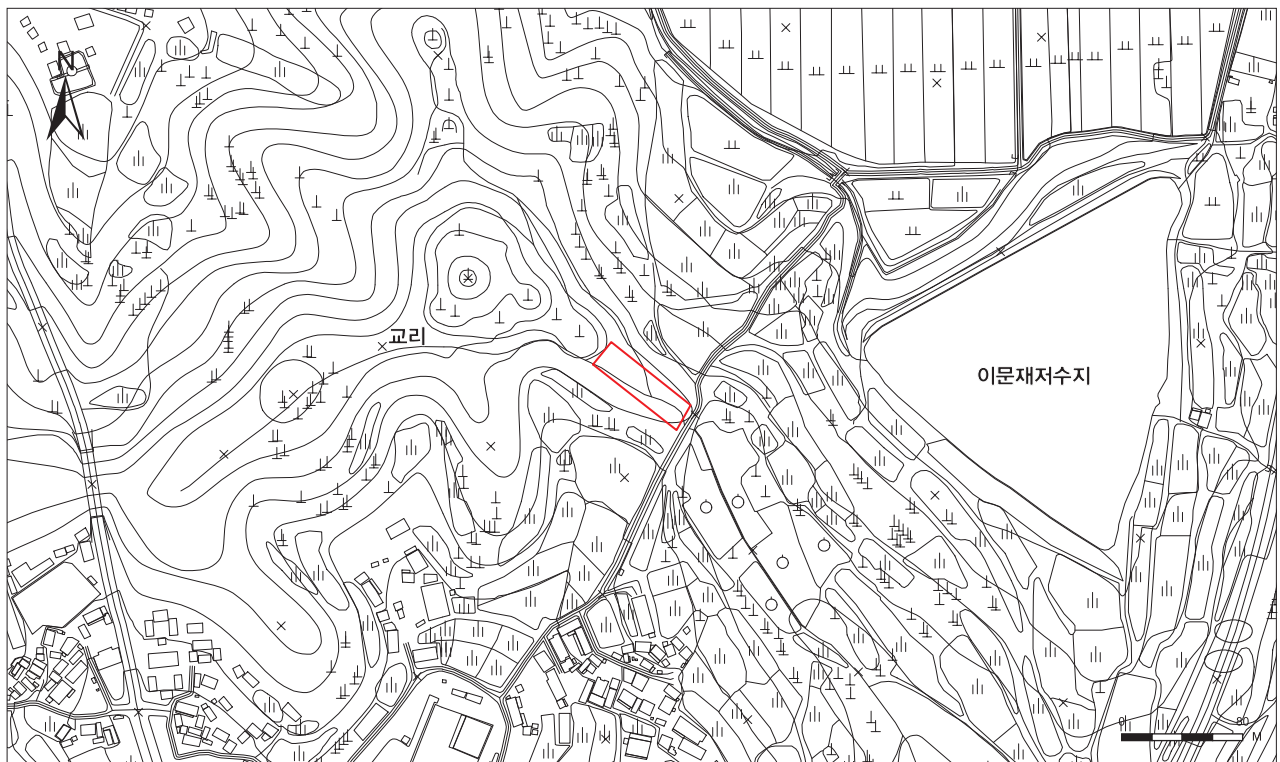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_ 제Ⅰ군 수습조사구간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50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13.7.~2013.10.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 고배, 대부장경호, 대부완, 삼엽환두대도, 철촉, 도자, 패제운주 편, 심엽형행엽, 좌목선교구, 세환이식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Ⅰ군 7호분 및 주변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봉토분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의 실시과정에서 중장비의 출입로로 활용될 지역이 일제강점기 작성된 분포도상에 13·14호분이 위치하고, 이 일대로 봉분이 잔존하지 않는 다수의 고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2013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긴급조사한 28호묘 1기를 포함하여 삼국시대 분묘 20기, 호석으로 추정되는 석열 2기 등 2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총 19기가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 조사구역 서쪽의 능선 위에 조영된 2기는 대형의 석곽으로 일제강점기 분포도에 제시된 13·14호분으로 추정된다. 대형에 속하는 13호분과 14호분은 묘형이 유사하며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호분은 묘광 길이 6.73m, 너비 2.8, 석곽 길이 4.47m, 너비 1.2m, 잔존높이 0.75m이다. 장단비는 2.4:1로 세장방형을 띤다. 동단벽쪽 묘광의 평면형태가 '凸'자 형태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로 돌출시킨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태는 교동 7호분과도 매우 흡사하며, 14호분에서도 확인된다. 매장주체부는 시상석의 종류에 의해 2개의 부분으로 구분되며, 14호분은 4개의 부분으로 구분된다. 13호분은 유물의 출토양상으로 다시 3부분(동쪽-중앙-서쪽)으로 구분되는데, 마구류와 토기-피장자 착장품-토기류와 마구류의 부장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토유물은 고배, 대부장경호, 대부완의 토기류와 철촉, 도자, 패제운주 편, 심엽형행엽, 좌목선교구 등과 같은 마루류 외에 금박제세환이식 1쌍, 심엽형과판의 절제대금구와 섭자, 삼엽환두대도 등이 출토되었다. 13호분과 14호분은 6세기 초~전반으로 편년되며, 제Ⅰ군 수습조사구간에서 조사된 분묘들의 축조연대는 5세기 후반~6세기 중반까지로 추정된다.

제Ⅰ군 수습조사구간의 조사를 통해 기존에 유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13·14호분의 재발견과 중소형 분묘자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조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5,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2 -제Ⅰ군 수습조사구간-』.

유적 전경

13호묘

심엽형행엽

이식

환두대도

01-9 창녕 교동 88호분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84-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2013.9.~2014.3.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횡구식석실묘 / 유개고배, 장경호, 대부장경호, 유개연질옹, 성시구, 심엽형행엽, 재갈

88호분은 목마산성 남서편 구릉 말단부의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Ⅱ군에 속하며, 개석이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보존·관리를 위해 「가야문화권 주요유적 학술조사연구」의 일환으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88호분은 일제강점기 조사된 89호분의 북서편으로 약 4m 이격되어 위치한다. 88호분의 봉분은 유실이 많이 되었는데, 매장주체부 주변으로 일부 잔존한다. 88호분의 조성 과정은 크게 묘역정지-석실 하단부 등 고분 기저부를 조성한 1차 성토-석실 상단부와 주변 봉토를 조성한 2차 성토-개석 및 동편 호석설치-개석상부봉토 조성의 5단계로 구분된다. 조사 결과 봉분의 규모는 직경 남북 17.6m, 동서 12.5m로 남북으로 긴 타원형이다. 매장주체부는 횡구식석실묘로 규모는 길이 6.7m, 너비 1.3m, 높이 2.0m이며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띤다. 개석은 화강암제를 사용하였으며 총 9매이다. 바닥에는 남·북에 시상대를 2곳 마련하였다. 북편 시상대는 입구부에서 40㎝ 떨어져 있으며 꺾쇠와 다

유적 위치도

수의 철기 편, 토기류와 철모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순장자의 공간일 가능성이 있다. 주피장자 공간은 남편 시상대로 3벌의 시상을 깔았으며, 남벽으로부터 1.1m 구간은 유물 부장공간으로 이용하였다. 남단벽의 남동모서리를 중심으로 다량의 토기류를 부장하였고, 은제장식, 행엽 등 금속유물은 토기류의 북편으로 부장하였다. 출토유물은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유개대부파수부완과 대도, 철모, 철촉, 재갈, 심엽형행엽, 성시구, 좌목선교구, 철지은장금구, 등자 등 다수의 금속기류가 출토되었다. 출토유물로 볼 때, 88호분의 축조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 어느 시점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5, 『창녕 교동88호분 발굴조사보고서』.

유적 전경

입구부

봉토 축조모습

중앙부 유물 출토모습

석실 축조모습

남단벽 유물 출토모습

토기류

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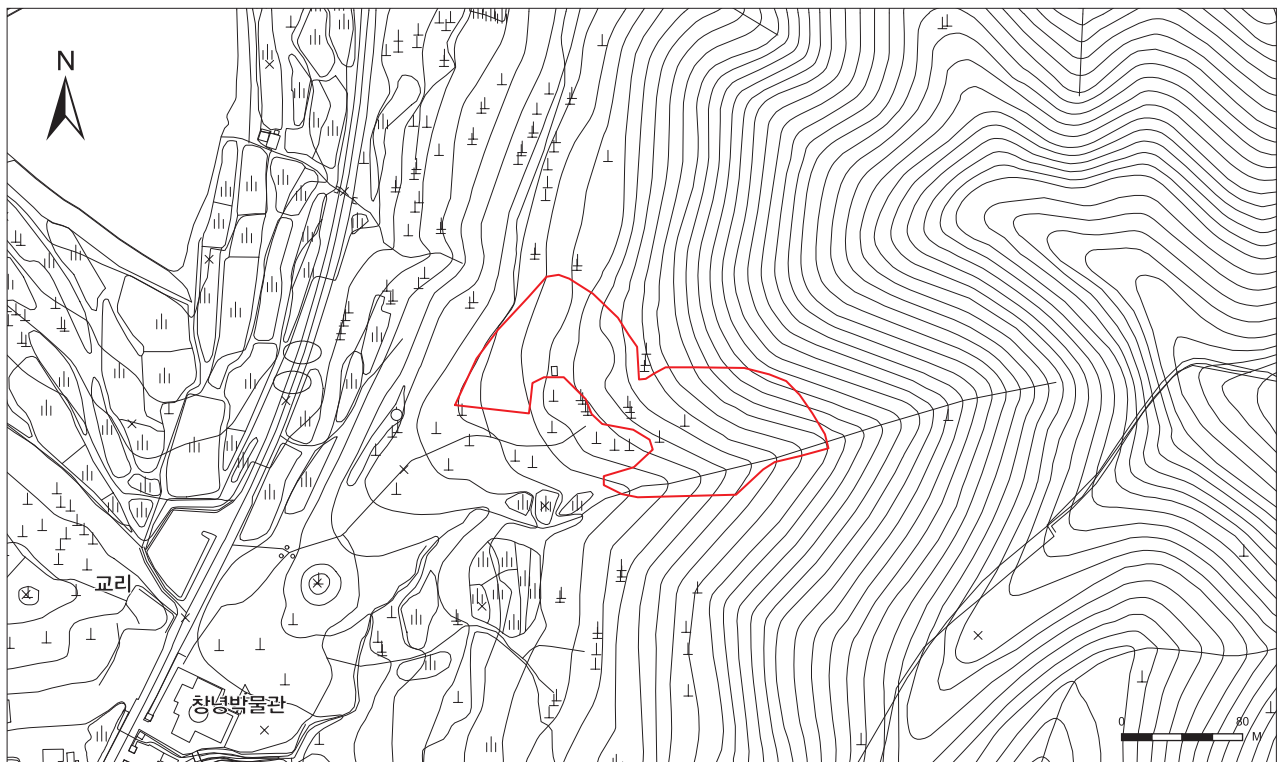
1-10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_ 제II군 39호분 및 주변 고분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산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2014.4.~현재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횡구식석실묘, 수혈식석곽묘 / 유개고배, 파배, 기대, 환두대도, 재갈, 행엽, 운주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39호분은 제Ⅱ군에 속하며, 최동단에 위치한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내 미정비지역(제Ⅱ군)의 고분 분포확인과 봉토분 조사를 통한 복원·정비와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2014년도부터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발굴조사는 2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는데, 1지구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Ⅱ군의 최동단에 위치하며 39호분(직경 21.5m)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며, 2지구는 제Ⅱ군-3호분(동아대박물관 조사)의 북편과 서편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1지구는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중이며 2지구는 조사가 완료되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2지구에서 봉토분 9기, 석곽묘 15기 등 삼국시대 고분 24기 및 고려시대 토광묘 4기가 확인되었다. 봉토분에서 개석이 잔존하는 것은 8기, 호석이 잔존하는 것은 5기, 봉분 상단에 주구가 확인된 것은 4기가 조사되었다. 주구는 모두 지형이 높은 동쪽에서만 확인되고 형태는 눈썹형이다. 2호묘의 경우 주구 바닥을 박석하고 일정

유적 위치도

공간을 구획하여 축조하였다. 봉토분 중 2호묘를 제외하면 모두 수혈식석곽묘으로 추정된다. 중소형석곽묘는 모두 수혈식석곽묘이며 시상석은 중앙에 설치하는 형태가 많다.

2호묘는 호석 및 봉토 양상을 볼 때, 장축 11m, 단축 9.6m로 남북으로 약간 긴 타원형을 띈다. 축조공정은 묘역선정-묘역정지-묘광굴착-매장주체부 하단 축조-매장주체부 상단 축조·호석축조·하부봉토 성토-시신안치·유물부장/복개·밀봉-입구부 폐쇄-상부봉토 성토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매장주체부는 횡구식석실묘로 북벽을 입구부로 사용하였다. 벽석의 축조는 횡평적하였고 목주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약 1.2m의 등간격으로 4개씩 양 장벽마다 설치되었다. (동)3호분에서도 조사된 바 있으며 2호묘에서는 바닥에는 목주흔이 확인되지 않아 (동)3호분과 차이를 보인다.

출토유물로 유개고배, 파배, 호, 기대의 토기류, 환두대도, 대도, 철촉 등의 무기류와 재갈, 행엽, 운주 등의 마구류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볼 때, 유적의 조성시기는 5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된다.

39호분 주변지역 2지구의 발굴조사에서 석곽 벽면의 나무 기둥을 세우고 돌을 쌓은 기법과 봉분 가장 자리에 눈썹형 주구를 조성한 방식, 기존 봉분에 덧대어 축조한 연접방식 등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이 처음 조성되는 이른 시기의 고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참고문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5, 「2014~15년도 발굴조사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현장설명회 자료집」.

유적 전경

48호묘

48호묘 유물 출토모습

2호묘

52·54호분

출토유물

01-11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_ 제Ⅲ군 1-1호분·8호분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08·
산9-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5.11.~2015.12.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횡구식석실묘
/ 유개고배, 개, 고배,
배, 유개연질파수부옹,
장경호, 금동관 편,
환두대도, 철모, 철촉,
재갈, 운주

제Ⅲ군 1-1호분과 8호분의 발굴조사는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복원 및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사하였으며, 위치는 제Ⅲ군 고분군의 가장자리에 해당한다. 봉토분 2기(1-1, 8호)와 석곽묘(1-2호) 1기가 조사되었다.

제Ⅲ군 1-1호분은 현재 복원되어 있는 1호분의 서쪽에서 확인되었으며 2호분에서 서쪽으로 30m 정도 떨어져 위치한다. 1919년과 1931년 일제강점기 분포도와 2001년 경남문화재연구원의 시굴조사 등에서 1호분 동쪽에 연접된 고분이 확인되었고, 2015년 1-1호분의 조사를 통해, 1호분 동쪽과 서쪽에 각각 1기의 봉토분이 연접되어 3기의 고분이 연접된 형태로 밝혀졌다. 봉분은 부분적으로 극히 일부분만 잔존하며, 매장주체부의 절반 정도가 유실되어 원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횡구식석실일 가능성이 크다. 석실의 잔존 규모는 길이 4.34m, 너비 1.25m이며 입구는 서단벽으로, 송현동고분군의 다른 석실과 차이를 보이는데, 1호분에 연접하면서 지형과 봉분 연접상태를 고려한 결과로

유적 위치도

판단된다. 동단벽에서 대호 3점을 빼면 대부분의 유물이 매몰토에서 출토되었다. 매몰토에서 출토된 유물중 개, 고배, 배, 완, 단경호, 장경호, 방추차 1점이 1호분에 부장된 유물로 파악된다. 출토된 유물은 6세기 1/4분기로 편년된다. 1-1호분의 봉토에 축조된 소형묘는 출토유물로 볼 때, 1-1호분과 동시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8호분은 송현동 6·7호분에서 서쪽으로 약 50m 이격되어 있으며 북쪽 곡부로 이어지는 사면부에 독립적으로 위치한다. 1917년 일제강점기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작성한 분포도에 위치만 표시되어 있으며 1919년과 1931년 분포도에 28호분으로 명기된 고분이다. 봉분은 직경 11m, 높이 2.9m로 경사가 급한 서사면에 호석과 함께 점성이 강한 봉토를 5단계의 공정으로 축조하였다. 매장주체부는 반지하식의 횡구식석실이며, 북단벽쪽에 입구를 시설하였다. 현실의 규모는 길이 5.6m, 너비 1.3m로 세장방형이다. 송현동 6·7호분과 15~17호분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유물은 전벽(북단벽)과 후벽(남단벽) 근처에 부장하였으며 특히 후벽에 많은 토기류를 상하로 중첩하여 부장하였다. 바닥에서 금동관 편이 출토되었으나 교란과 도굴로 정확한 출토 정황은 확인하기 어렵다. 출토유물로 보아 대략 6세기 2/4분기로 편년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Ⅲ군1-1호분·8호분』.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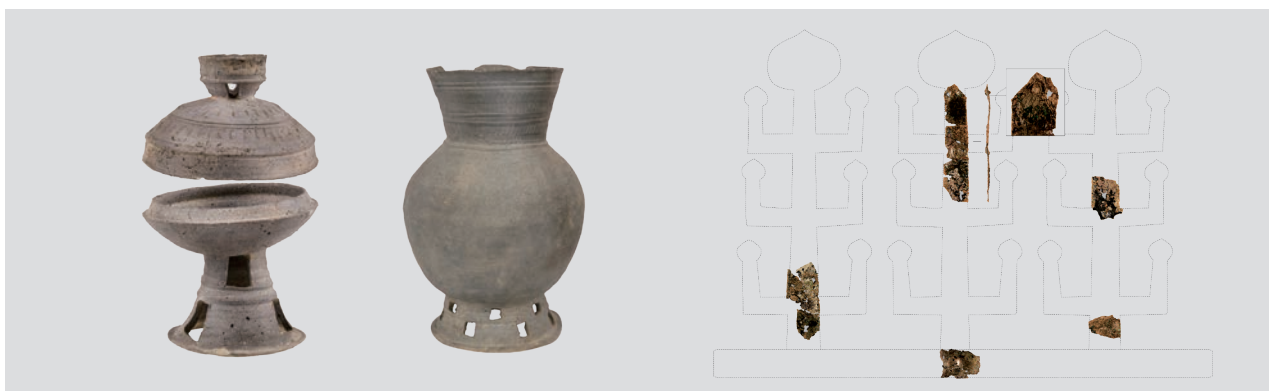
1-1호분

1-1호분 매장주체부

8호분

8호분 매장주체부

토기류 · 금동관

02

창녕 계성고분군
昌寧 桂城古墳群

| 경상남도기념물 제3호

창녕 계성고분군은 경상남도 계성면 계성리 일대에 위치하는데, 영취산의 서쪽 사면에 해당되는 곳이다. 1974년 2월 16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된 계성고분군은 그간 조사된 계남리고분군(문화재관리국 1967, 영남대학교 1967·1968), 계성고분군 A·B·C지구(경상남도 1976, 부산대학교 1995), 계성고분군 Ⅰ~Ⅳ지구(경남고고학연구소 2001, 호암미술관 2000), 사리고분군, 명리고분군을 통칭한다.

계성고분군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이마니시 류今西龍에 의해 분포도가 작성된 바 있으나, 최초의 발굴조사는 1967년 문화재관리국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그 후 1968년과 1969년 2차에 걸쳐 계남리 1호분과 4호분이 영남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하였으며, 1976년 대구-마산간 고속도로, 1998년에서 1999년까지 국도 5호선 확장구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2012년 계성고분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대책 수립과 사적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위한 정밀 분포현황조사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이 조사를 통해 계성면 일대에 261기의 봉토분들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분의 분포와 기존 조사된 고분군의 축조시기를 고려하여 고분군을 Ⅰ~Ⅳ군으로 구분하였다. 계성고분군은 구릉 정선부에 규모가 큰 봉토분들이 밀집하고 구릉 사면부에는 중소형분들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며, 시기에 따라 고분군의 조성 범위가 변동하는 것이 파악되었다. 이후 창녕군에서는 계성고분군의 성격을 규명하고, 봉분의 훼손이 심각한 대형 봉토분들을 복원 정비하고자 중장기적인 복원·정비계획의 일환으로 2013년 계성고분군 2·3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는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담당하였다.

계성고분군의 묘제는 목곽묘(4~5세기 전반)→석곽묘(5세기)→장방형 횡구식석실묘(6세기 전·중엽)→방형 횡구식석실묘(6세기 후엽 이후)로 이행한다. 계성고분군은 늦어도 4세기부터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교동·송현동고분군은 5세기대에 새롭게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계성고분군은 4세기대의 목곽묘들이 혼재하는 속에서 점차 대형 목곽묘가 등장하였을 것이고 5세기 중엽에는 고총이 축조되게 된다. 고분군의 규모, 고총의 밀집도로 보아 4세기와 5세기 전반 창녕의 중심은 계성고분군 집단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동지구는 5세기대에 새롭게 수장층의 묘역으로 등장하였다고 보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 계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신라의 영향력이 작동한 것으로 이해된다. 계성고분군의 묘제를 통해 가야문화의 등장과 소멸, 가야에서 신라로 이행하는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창녕 계성리 계남 북5호분	문화재관리국	1967.11.	창녕계성리계남북5호분(1998)
2	창녕 계성리고분군 −계남1·4호분	영남대학교박물관	1968.8.~1969.10.	창녕 계성리고분군−계남1·4호분(1991)
3	창녕 계성고분군 −구마고속도로 공사구간 내 유적	한성여자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1976.8.~1976.9.	창녕 계성고분군 발굴조사보고(1977)
4	창녕 계성고분군 −구마고속도로 확장구간 내 유적	부산대학교박물관	1994.3.~1994.7.	창녕 계성고분군(1995)
5	창녕 계성고분군 −국도 5호선 확장 구간(Ⅱ·Ⅳ지구) 내 유적	호암미술관	1998.7.~1999.2.	창녕 계성고분군(2000)
6	창녕 계성 신라고총군 −국도 5호선 확장구간 (Ⅰ·Ⅲ지구) 내 유적	경남고고학연구소	1998.7.~1999.2.	창녕 계성 신라고총군(2001)
7	창녕 계성고분군 2·3호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1차 2013.4.~2013.6. 2차 2014.9.~2015.3.	창녕 계성고분군 2·3호분(2017)
8	창녕 계성리고분군 −창녕 계성리 주택·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두류문화연구원	2015.7.~2015.11.	창녕 계성리고분군−창녕 계성리 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창녕 계성리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2017)
9	창녕 명리고분군 −창녕 명리 371−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두류문화연구원	2015.9.~2015.10.	창녕 명리고분군−창녕 명리(371−1)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2017)
10	창녕 계성고분군 3호분 진입로부지 내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2.~2017.4.	창녕 계성고분군 3호분 진입로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2017)

02-1

창녕 계성리 계남 북5호분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산12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문화재관리국 / 1967.11.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 환두대도, 금동관 편, 금제태환이식, 은제과대, 청동합

창녕 계성리 계남 북5호분은 계남리 부락의 바로 북후측에 동서로 뻗은 능선의 6기 고분 중 서북의 능선 말단부에서 2번째 고분이다. 봉분이 입지한 능선의 남북 양측이 급사면으로 바로 이어져 봉분의 높이는 실제보다 더 거대하게 보인다. 2012년 정밀 분포조사의 의하면 Ⅱ군에 속한다. 1967년 도굴피해 수습을 위해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계남 북5호분 봉분의 규모는 직경 27.7m, 높이 5.5m로 평면원형의 대형 봉토분이다. 봉분의 표토 아래의 90㎝부터 4m까지 자갈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층의 1.5~2m 깊이에서부터 판상석의 적석층이 나타나는데, 적석층은 석실의 외벽으로부터 외측을 향해 방사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고자는 이를 '적석골근積石骨筋'으로 명칭하였으며 모두 1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계남 북5호분 이후 창녕 교동고분군 등 가야고지의 봉토분에서 밝혀진 구획석렬로 파악된다. 석열의 너비는 0.5~2.2m, 높이 약 1m로 매장주체부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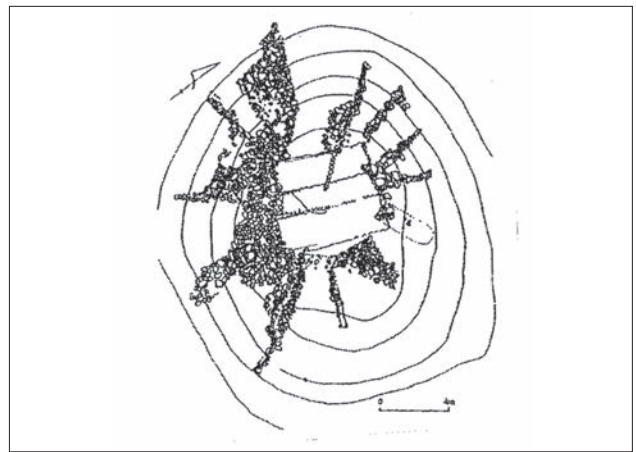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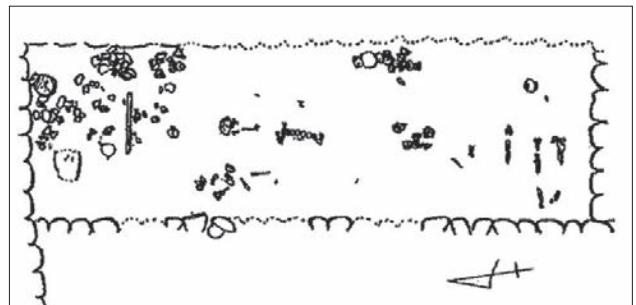
벽체를 안정하게 유지하고, 봉토의 유실을 방지하며 작업구간을 표시하는 기능과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장주체부에 대해 보고자는 방형의 횡구식석실로 보고하고 있다. 석실은 지상식이며 봉분 중앙에서 서반부에 편재되어 있어 또 하나의 석실(석곽)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동벽이 서벽에 비해 약 1.6m 길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한변이 5m 이상이면서 방형의 석실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특수한 구조로 설명한다. 이 보고 이후에 매장주체부의 구조에 대한 여러 견해가 나왔으며 최근의 조사사례를 참고하여 연구자들은 병렬식의 주·부곽식 석곽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주·부곽식의 석곽으로 보면, 동쪽의 주석곽은 길이 7.1m, 너비 2.3m, 높이 2.8m이며, 서쪽의 부곽은 길이 5.5m, 너비 2m, 높이 2.8m가 된다. 주피장자는 주석곽의 중앙부 위치에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남쪽 발치쪽에 추가로 2인, 부곽에 추가로 3인이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매장주체부를 석실로 판단하고 한 분구 내에 합장한 가족묘로 보고하고 있지만, 주·부곽식석곽묘로 이해하면 추가된 5인은 순장묘로 볼 수 있다. 유물은 주곽에서 주피장자 주변으로 금동관 편 및 곡옥, 금제태환이식, 은제과대 등이 출토되었고, 환두대도 및 철도자 등 무기류와 안교 편 등 마구류 등이 확인되었다. 부곽에는 북편에 토기군을 위주로 배치하고 순장자 주변으로 금제태환이식, 청동합, 운주, 철제재갈 등이 출토되었다. 축조연대는 대략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의 어느 시기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강인구, 1998, 「창녕 계성리 계남 북5호분」, 『청계사학』 1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청계사학회.

창녕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2, 『계성고분군 사적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유적 전경

봉토 및 매장주체부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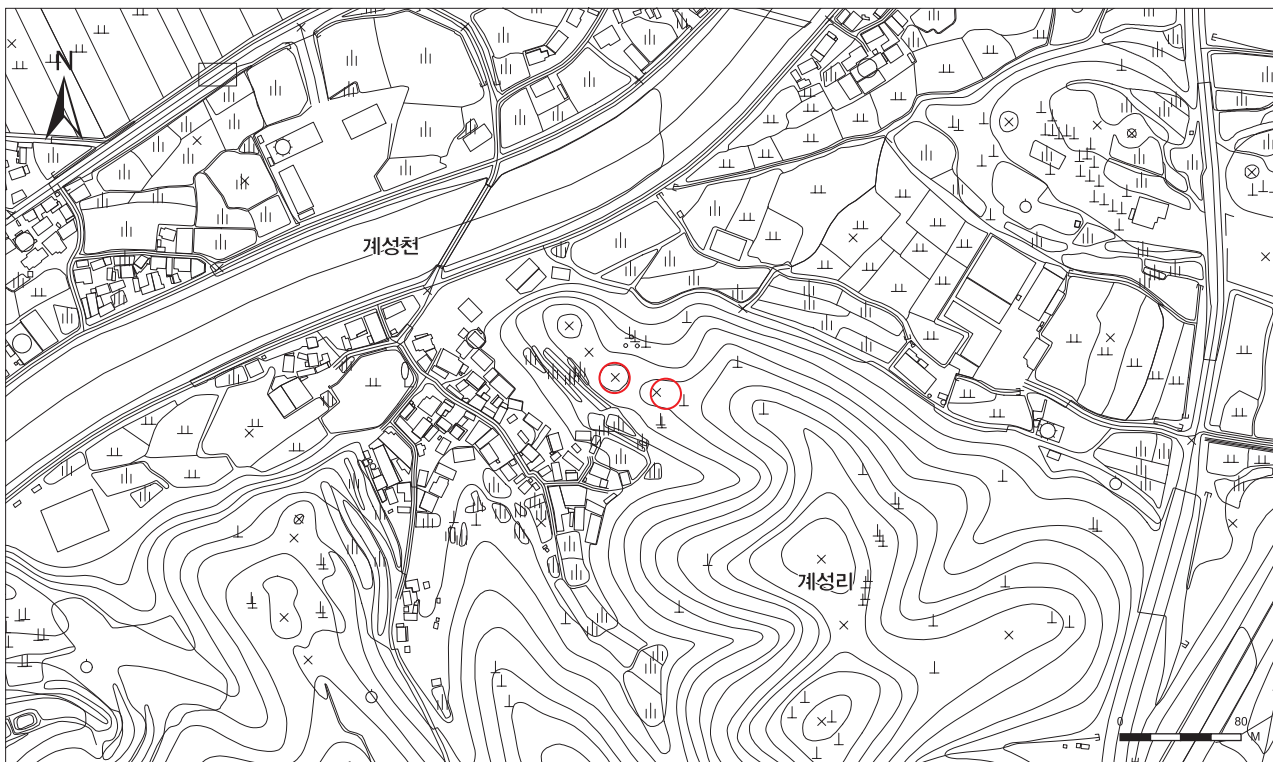
02-2 창녕 계성리고분군 _ 계남 1·4호분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명리 산6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영남대학교박물관 /
1차 1968.8.
2차 1969.8.~1969.10.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수혈식석곽묘 / 고배, 유개고배, 개배, 대부장경호, 영배, 통형기대, 금동제관식, 은제과대, 금제이식, 살포, 철부, 철촉, 철모, 대도, 유자이기, 행엽, 등자, 재갈

1968년과 1969년 조사된 계남 1·4호분은 계성고분군 Ⅰ군에 속한다. 계성고분군 Ⅰ군은 구릉 정상부의 고총을 중심으로 구릉 사면에 중소형분들이 밀집한다. 봉분 직경 20m 이상이 7기가 존재하는데, 계남리 1호분과 4호분은 20m 이상의 대형급에 속한다.

1호분은 계남마을 뒤쪽의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은 작은 구릉 정상부 가까이에 위치한다. 고분은 구릉 능선의 돌출된 지점을 이용하여 원형의 봉분을 축조하였는데, 보고서상에는 직경 47m, 높이 5.5m에 달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지만, 2012년 계성고분군 정밀분포현황조사에서는 32.8m로 확인되었다. 봉분은 청석과 흙을 위주로 성토하였는데 봉분축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토방식, 호석의 설치유무 등은 불명확하다. 매장주체부는 천석으로 축조한 지상식의 수혈식석곽묘로 내측길이 10.8m, 너비 2.6m, 높이 2.3m이다. 석곽은 격벽에 의해 주곽과 부곽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주곽의 규모가 훨씬 크다. 주곽은 내측 길이 6m이며 부곽은 내측 길이가 4m이다. 주곽에서 꺾쇠

유적 위치도

등의 출토로 보아 석곽 내에 목곽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며 부곽은 목곽을 시설하지 않았다. 석곽의 벽면에는 목개를 시설하는 턱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물은 주곽에서 고배를 비롯한 토기류, 금동제관과 관식을 비롯한 장신구류, 철제이기류, 이형철기를 비롯한 금속유물 등 180여 점이 출토되었고, 부곽에서도 유개고배 등의 토기류, 철제이기류, 금동제행엽 및 등자 등의 마구류 등 180여 점이 출토되었다.

4호분은 계남마을 뒤쪽의 구릉 능선의 돌출된 지점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봉분의 직경은 21m, 높이 3.5m이다. 봉분은 원지반인 청석과 흙을 교대로 쌓아올렸고, 봉토 내에 부분적으로 석열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구획성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주체부는 천석을 이용하여 지상에 축조한 주·부곽식의 수혈식석곽묘이다. 주곽부에 목곽을 설치하고 이에 잇대어 벽석을 축조하였고, 여기에 부곽을 이어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곽은 내측 길이 6.1m, 너비 2.4m, 높이 2m의 종장방형이고, 부곽은 길이 2m, 너비 3.3m의 횡장방형으로 주·부곽의 배치는 'T'자상이다. 시상은 네 벽을 따라 약간의 간격을 두고 그 안쪽에 납작한 돌을 깔았는데, 너비 15㎝ 정도의 간격을 두고 깔아 시상 전체는 3등분으로 구분된 상태이다. 유물은 주곽에서 유개고배를 비롯한 토기류와 곡옥과 경식을 비롯한 장신구류, 철제이기류와 행엽을 비롯한 마구류 등 총 70점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부곽에서도 토기류와 철제이기류, 마구류 등 80여 점이 출토되었다. 계남 1·4호분의 축조시기는 대략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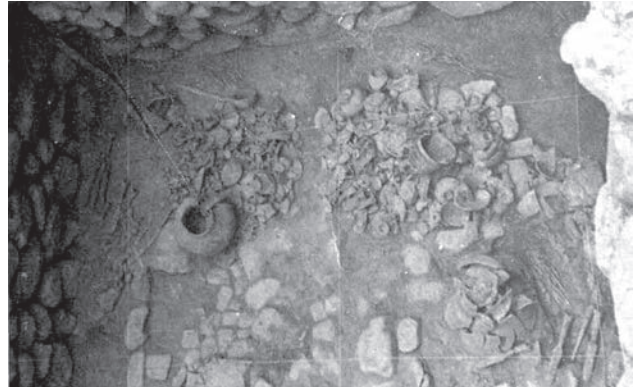
계남 1·4호분 모두 봉분과 매장주체부의 규모 및 출토유물로 볼 때, 계성고분군에서 최고 수장층에 해당하는 분묘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영남대학교박물관, 1991, 『창녕 계성리 고분군-계남1·4호분-』.

창녕군·경남발전연구원, 2012, 『계성고분군 사적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유적 전경

1호분 매장주체부

1호분 유물 출토모습

4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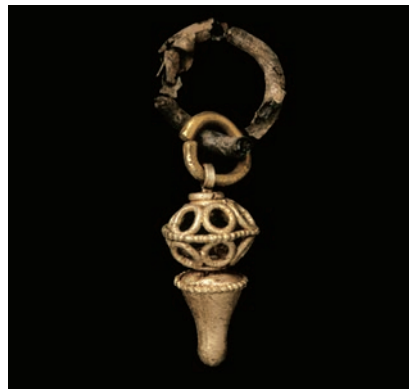
4호분 매장주체부 1

4호분 매장주체부 2

토기류

이식

철기류

02-3

소재지
A지구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합리 일대
B·C지구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명리 산6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성여자대학교박물관·동아대학교박물관 / 1976.8.~1976.9.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 개배, 철촉, 대도, 금제태환이식, 금·은제천, 곡옥, 금동관 편, 금제수식

창녕 계성고분군 _ 구마고속도로 공사구간 내 유적

1976년에 경상남도에서 조사한 창녕 계성고분군은 구마고속도로공사구간(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 포함된 사리고분군의 일부에 해당된다. 당시 한국도로공사측에서 경상남도에 발굴조사를 긴급요청하고,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경남에 소재하는 사람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A~C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A·B지구는 일부분만 조사되었고 C지구는 유적 전체가 조사되었다.

A지구는 3개 지구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고분군이며 영취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나온 능선의 하단부에 해당하며, 마산과 대구를 잇는 5번 국도의 동쪽 연변에 위치한다. A지구에서는 수혈식석곽묘 5기, 횡구식석실묘 4기, 옹관묘 1기 등 총 10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횡구식석실묘는 모두 단곽식이며 수혈식석곽묘는 다곽묘도 일부 조사되었다.

B지구는 A지구에서 남으로 약 200m 이격되어 있으며, C지구는 B지구에서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B지구는 남북으로 향하는 산줄기에서 서쪽을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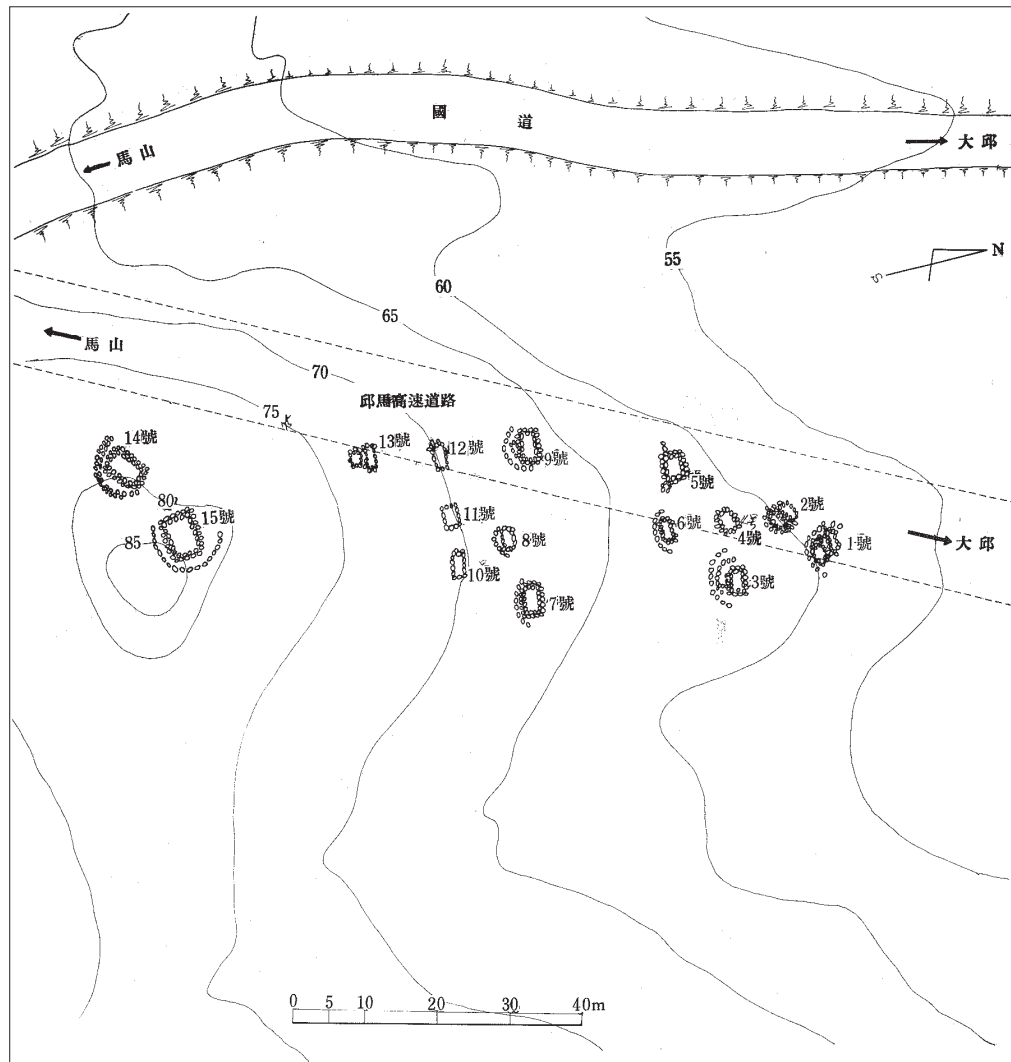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하여 뻗은 세 개의 구릉에서 중간에 해당하며 이 구릉 전체에 고분이 분포한다. 33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C지구는 세 개 지구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다. 야산 구릉의 사면에 15기의 대소 고분이 정상부와 중간, 하단부로 구분되어 3개의 고분군을 형성하고 있다. 수혈식석곽묘가 11기, 횡구식석실묘가 4기이다. 15기중에서 6기가 한 봉분에 2기 이상이 축조된 다곽식이다. 유물은 토기류가 주를 이루며 금속기류는 소수이다. 토기는 인화문토기가 주종이며, 3호분에서 귀면문청동령이 출토되었다.

세 개 지구로 조사된 계성고분군의 축조연대는 각 지구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A지구의 1호분이 5세기 후반대로 시기가 가장 이르며, 전체적으로 7세기대까지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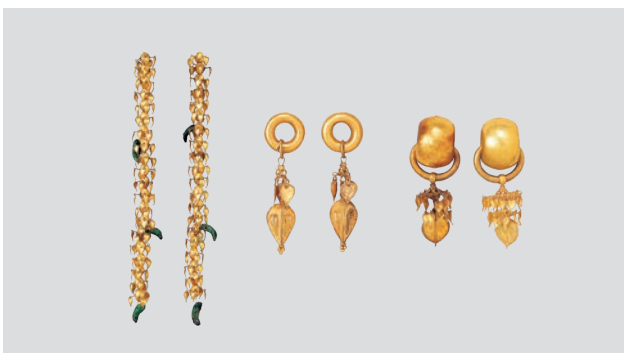
경상남도, 1977, 『창녕 계성 고분군 발굴조사보고』.

C지구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B지구 6호분

B지구 13호분

토기류

토기류

장신구류

토기류

02-4 창녕 계성고분군 _ 구마고속도로 확장구간 내 유적

소재지
A지구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합리 1145 일대
B지구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명리 37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대학교박물관 / 1994.3.~1994.7.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수혈식석곽묘, / 고배, 개, 개배, 완, 대부장경호, 망치, 집게, 철겸, 철촉, 철탁, 철제과대금구

유적은 경상남도에서 1976년도 조사한 A·B지구의 일부분에 해당하며, 구마고속도로 확장구간 내에 포함되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유적은 해발 613.5m의 영취산 정상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어 나온 능선의 하단 끝부분에 해당하는 낮은 구릉에 입지한다.

A지구에서는 1976년도에 9기의 고분이 조사되었고, 1994년도 조사에서 장방형 또는 방형의 석실을 매장주체부로 하는 원형 봉토분 6기와 조선시대 기와가마 1기 및 이와 관련된 구 3기가 조사되었다. A지구에서 조사된 봉토분은 모두 하나의 봉토 내에 하나의 매장시설만 존재하는 단독분이다. A지구는 구릉의 중심고분군으로 1976년 조사된 1호분과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중소형분과의 배치상태가 특징적인데, 조사된 단곽의 석실들은 대형봉토분인 1호분의 배장곽일 가능성이 있다. A지구의 삼국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125점이 출토되었는데, 고배 등의 토기류와 철부와 도자 외 철제망치와 집게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유적 위치도

A지구 전경

B지구에서는 1976년도에 25기의 고분이 조사되었고, 1994년도 조사에서 장방형 또는 방형의 석실을 매장주체부로 하는 원형봉토분 18기를 조사되어 모두 33기의 고분이 분포한다. B지구에서 조사된 봉토분은 A지구와 다르게 하나의 봉토 내에 동시 또는 추가장 형태로 축조된 다곽식구조를 보인다. 또한 A지구에 비해 봉분의 판축상태가 정교하지 못한 점, 특출한 대형 봉토분이 부재하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봉분의 밀집도는 A지구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B지구에서는 총 692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고배, 대부장경호 등의 토기류, 철촉, 철부, 철겸 외에 철탁, 철제과대금구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계성고분군 A·B지구의 축조시기는 출토된 유물로 보아 6세기 전엽~7세기 전반대까지로 추정되며, A지구와 B지구의 시기차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계성고분군 A·B지구의 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늦은 시기의 창녕지역 고분문화의 세부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창녕지역 수장층의 패권 추이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참고문헌

부산대학교박물관, 1995, 『창녕계성고분군』.

창녕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2, 『계성고분군 사적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B지구 전경

A지구 15호분

B지구 26-1호

B지구 28호분

B지구 26호분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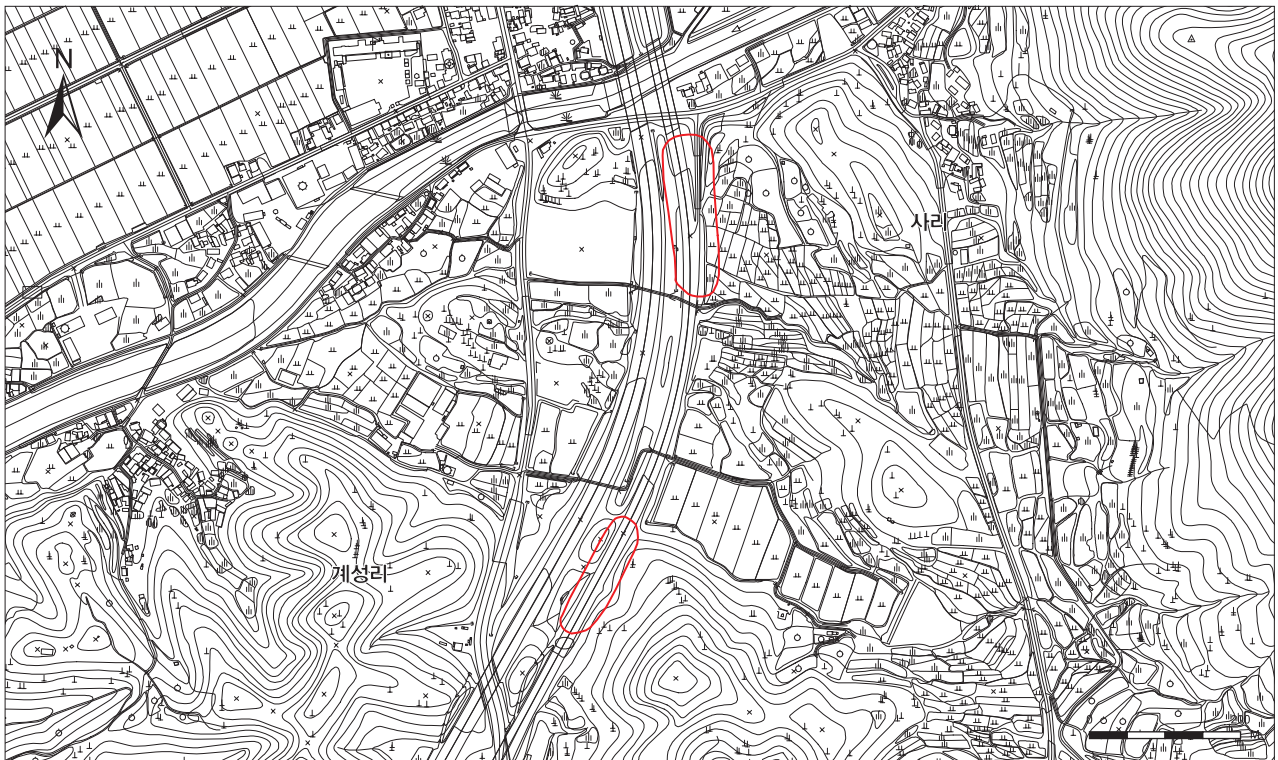
창녕 계성고분군 _ 국도 5호선 확장구간(II·IV지구)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명리 368-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호암미술관 /
1998.7.~1999.2.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횡구식석실묘, /
유개고배, 발형기대,
금제태환이식, 은제천,
유리장식은제모자소도자

계성고분군은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확장으로 인해 1976년 경상남도, 1994년 부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되었으며, 국도 5호선의 확장으로 인해 호암미술관과 경남고고학연구소에 의해 또다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국도 5호선 확장으로 인한 발굴조사는 4개 지구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호암미술관이 Ⅱ·Ⅳ지구, 경남고고학연구소가 Ⅰ·Ⅲ지구를 담당하였다. 호암미술관에서 조사한 Ⅱ·Ⅳ지구는 2012년 정밀분포조사에서 구분한 구역에 따르면 각각 Ⅲ군과 Ⅴ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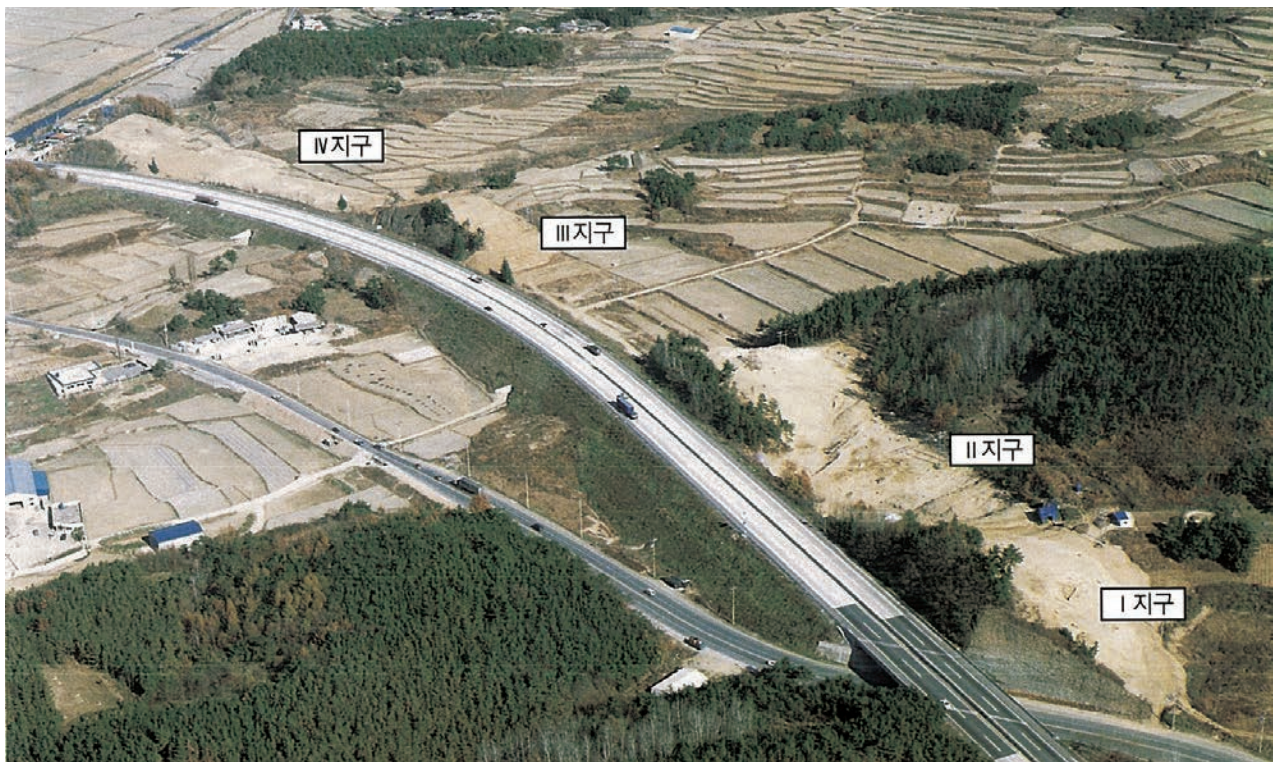
Ⅱ지구는 능선이 짧고 경사가 심한 편이며 1976년(경상남도)과 1994년(부산대학교) 발굴조사에서 B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Ⅳ지구는 계성천의 남쪽 해발 55~75m 높이의 구릉에 위치한다. Ⅱ지구에서는 삼국시대 분묘 44기와 고려~조선시대 분묘 4기가 조사되었고, Ⅳ지구에서는 횡구식석실묘 2기와 주구 2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분묘는 대부분 횡구식석실묘이며 배장묘 일부는 석곽(관)묘로 축조된 경우가 있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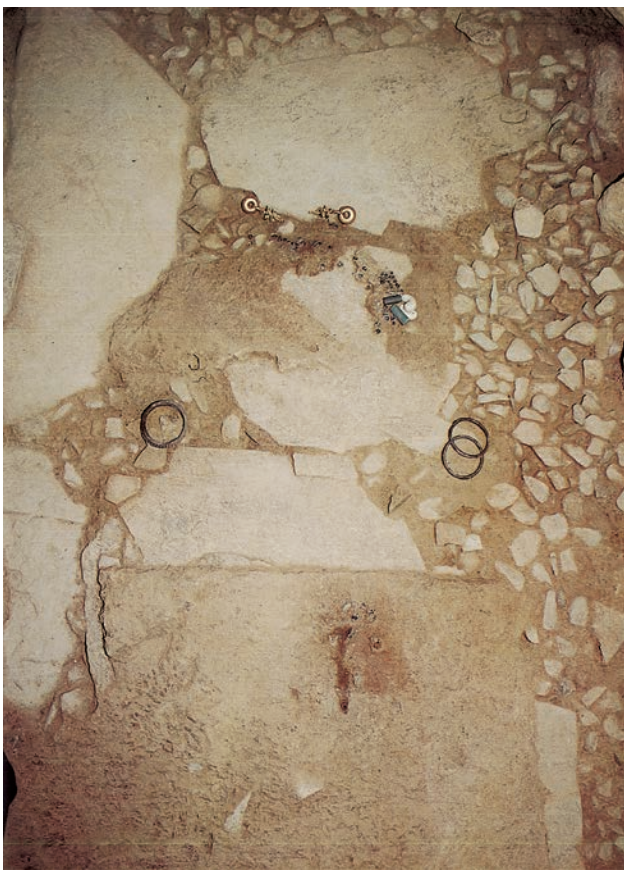
다. 횡구식석실묘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된 것과 직교하는 것이 혼재하는데, 평행하는 것이 다소 선행한다. Ⅱ지구에서 가장 양호하게 잔존하며 규모도 최대급인 1호분의 조사가 주목된다.

1호분은 직경 11~12m의 원형이며 소형 할석을 3~7단을 축조한 호석을 갖춘 횡구식석실묘이다. 매장주체부는 동-서향이며 화강암제개석 4매가 시설되었다. 봉분은 모두 12방향으로 구획하여 성토하였으며, 개석 상부는 석재와 점성이 강한 백색과 적색의 점토를 발라 밀봉하였다. 입구는 서쪽이며, 시상은 모두 4차에 걸쳐 보강하면서 추가장이 이루어졌다. 묘도는 높이 1.8m, 너비 1.1m이며 석실은 길이 3.95m, 너비 2.3m, 높이 2m이다. 석실의 측벽은 하단 3~5단으로 수직으로 쌓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내경하게 축조하였다. 벽면에는 점토 및 짚과 같은 초본류를 섞어 발라 마감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1차 시상대에서 금제태환이식 1쌍, 은제천 2쌍, 유리제경식 일괄, 유리장식은제모자소도자, 금제세환이식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태환이식에는 지름 1.5~2㎜ 정도의 소형청색유리제구슬을 감입한 펜촉형수하식이 국내 처음으로 출토되어 주목되는데, 신라의 왕릉급 무덤에서 출토되는 금속 및 유리제품의 기술 수준과 동일한 점으로 보아 경주에서 이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된 삼국시대 분묘의 연대는 6세기대로 편년된다.

참고문헌

호암미술관, 2000, 『창녕 계성 고분군』 상·하.

창녕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2, 『계성고분군 사적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유적 전경

II 지구 1호

II 지구 1호 유물 출토모습

II 지구 1호 출토 태환이식

IV 지구 2호 석실

02-6 창녕 계성 신라고총군 _ 국도 5호선 확장구간(Ⅰ·Ⅲ지구)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명리·합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고고학연구소 / 1998.7.~1999.2.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횡구식석실묘 / 유개고배, 유개발, 대부장경호, 철촉, 철부, 금제이식, 은제천, 은제과대금구, 재갈, 호등, 행엽, 운주, 방두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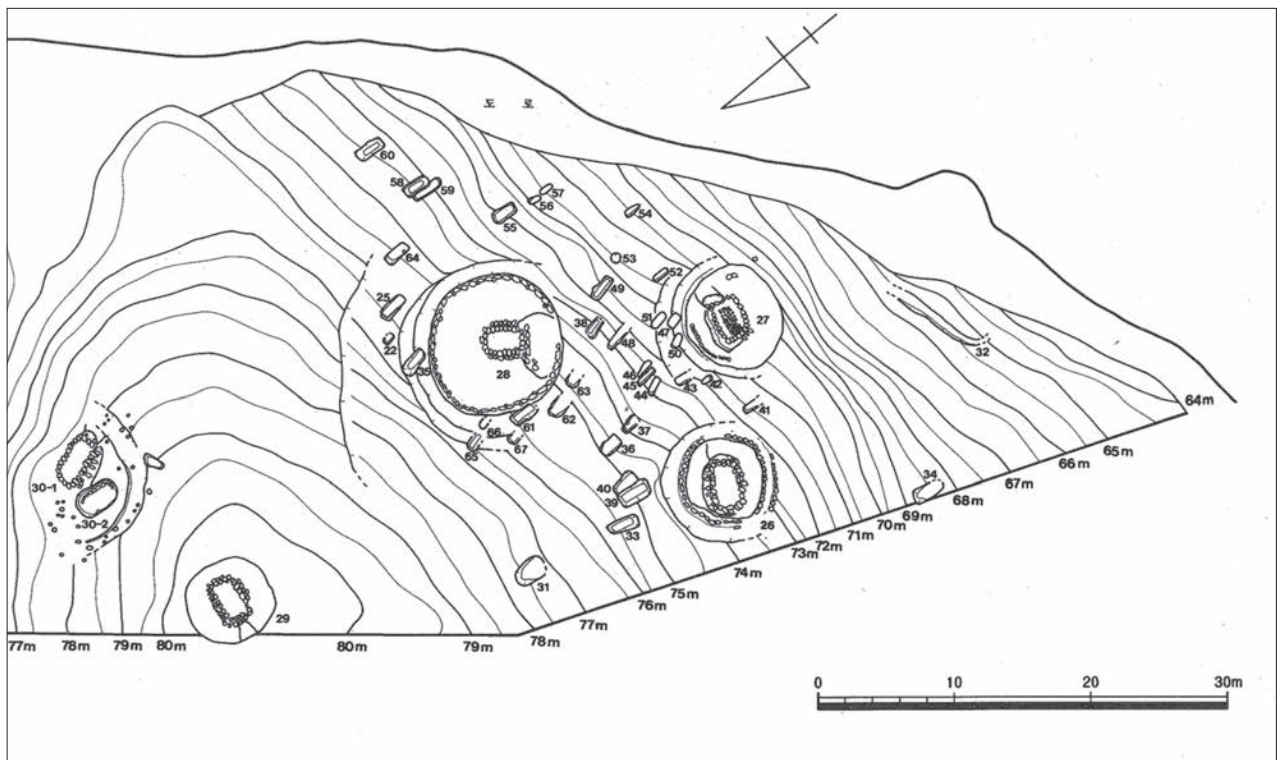
계성고분군은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과 확장으로 인해 1976년 경상남도, 1994년 부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되었으며, 국도 5호선의 확장으로 인해 호암미술관과 경남고고학연구소에 의해 또다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국도 5호선 확장으로 인한 발굴조사는 4개 지구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경남고고학연구소가 Ⅰ·Ⅲ지구, 호암미술관이 Ⅱ·Ⅳ지구를 담당하였다.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조사한 Ⅰ·Ⅲ지구는 2012년 정밀분포조사에서 구분한 구역에 따르면 각각 Ⅲ군과 Ⅳ군에 해당한다.

Ⅰ지구는 기존에 조사가 실시된 C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남구릉과 북구릉의 2개의 구릉으로 구분되는데, 삼국시대 분묘 26기와 고상건물지 1동, 조선시대 분묘 43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분묘는 20호분의 배장묘 2기(석곽묘)를 제외하면 모두 횡구식석실묘이다. Ⅰ지구에서는 2개의 중형분 군집과 2개의 소형분 군집이 관찰되는데, 남구

유적 위치도

릉 정상부에 축조된 29호분과 C-14·15호분, 남사면에 축조된 26~28호분 등은 3기의 중형분이 소군을 형성하는 유형으로 계성고분군 내 정형화된 패턴으로 볼 수 있다. Ⅰ지구에서는 주로 중형분이 입지하며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 26호분은 봉토를 축조한 후에 묘광을 파고 석실을 축조한 형태로 호석 또한 봉토축조 후에 가장자리를 삭토하고 시설하였으며, 28호분은 원형 봉토분으로 석실의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고 벽석은 내경이 심해 궁륭형에 가깝다. 횡구부는 남벽의 일부만을 이용하였으며 문지방석이 있다. 봉토 내에서 개뼈가 출토되었다.

Ⅲ지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동고서저의 구릉인데, 정선부와 사면에 많은 무덤이 축조되었다. Ⅲ지구에서는 삼국시대 분묘 24기, 조선시대 기와가마 4기·건물지 1동·분묘 1기·수혈주거지 4동이 조사되었다. Ⅲ지구에서는 구릉 정상부에 축조된 2기의 대형 봉토분을 중심으로 여러 중소형분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상기Ⅰ지구의 배치유형과 조금은 차이를 보이며, 호암미술관에서 조사한 Ⅱ지구의 배치유형과 동일하다. 따라서 계성고분군에서는 크게 2가지 유형의 배치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Ⅲ지구에서 가장 대형분인 Ⅲ-1호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타원형 호석이 있는 봉토분으로 봉분은 풍화암반편이 혼입된 황갈색계사질토와 점성이 있는 갈색부식토를 판축하였다. 봉분의 규모는 직경 16.4~18m, 높이 5.78m이다. 호석은 일주하지는 않지만 석축의 형태에 따라 6개의 구간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구획성토의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일부분은 단과 같은 형태를 띠는데 이는 의례행위를 위한 제단의 기능으로 추정된다. 매

유구 배치도

장주체부는 세장방형의 횡구식석실로 묘광은 풍화암반 기반층을 굴착하였는데, 묘광의 규모는 길이 7.3m, 너비 4.3m, 깊이 0.94m이며 석실은 길이 4.55m, 너비 1.85m, 높이 2.1m이다. 남단벽에 횡구부가 마련되었으며 여기에 덧대어 묘도가 시설되었으며 규모는 길이 4m, 너비 2m, 높이 1.8m이며 묘도벽석이 축조되어 있다. 바닥 전면에는 시상을 깔고 그 위에 인두대 크기의 천석을 2열 놓아 관대를 마련한 형태로 수혈식석곽묘의 전통이 일부 확인된다. 대부분의 유물은 시상석 위의 관대 주변과 관대의 북편에서 출토되었는데, 특이하게 시상석 아래에서 대도와 물미가 출토되었다. 이는 석실 축조시에 의례 행위의 과정에서 매납된 것으로 파악된다.

창녕 계성고분군에서 축조된 횡구식석실묘는 수혈식석곽묘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횡혈식석실묘의 여러 가지 요소를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삼국시대 신라 토기가 창녕지역에 정착되는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며 축조연대는 6~7세기로 편년된다. 계성고분군은 창녕지역이 가야에서 신라로 변화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경남고고학연구소, 2001, 『창녕 계성 신라고총군』.

창녕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2, 『계성고분군 사적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Ⅰ지구 26호분

Ⅲ지구 1호분

출토유물

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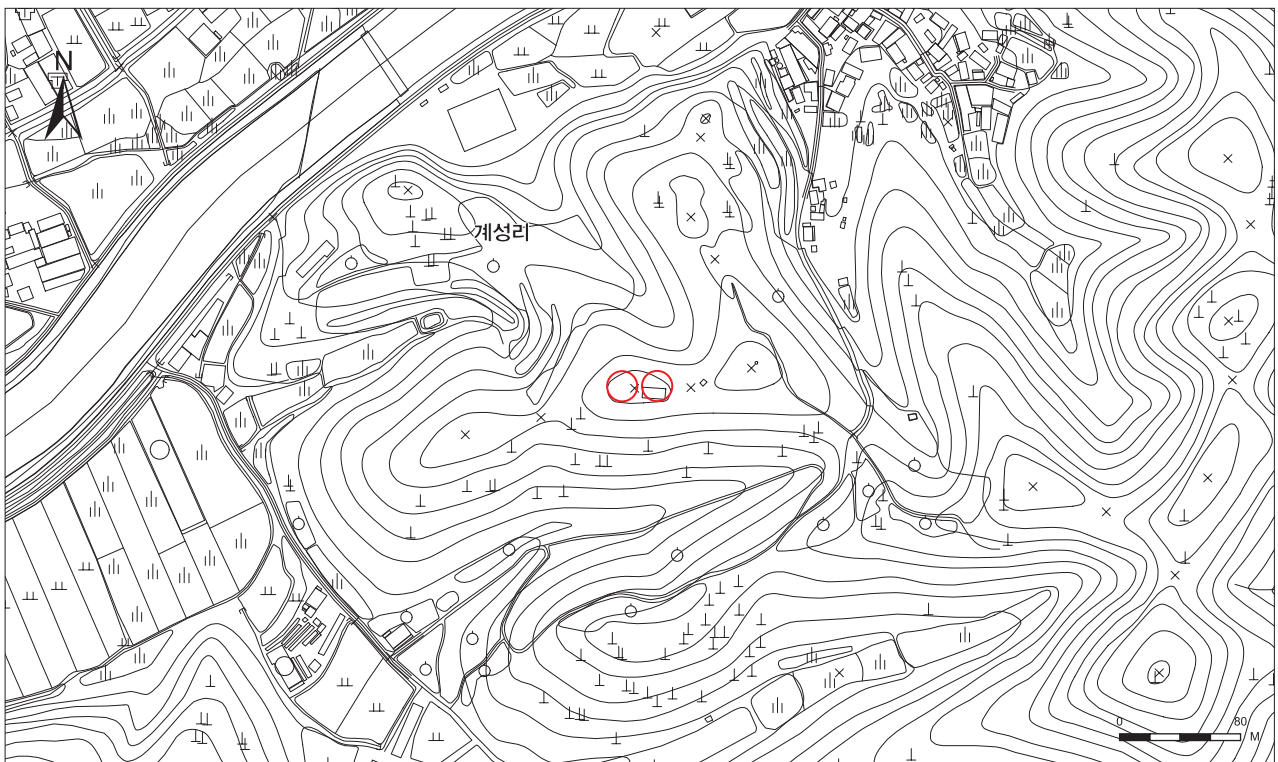
창녕 계성고분군 2·3호분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산104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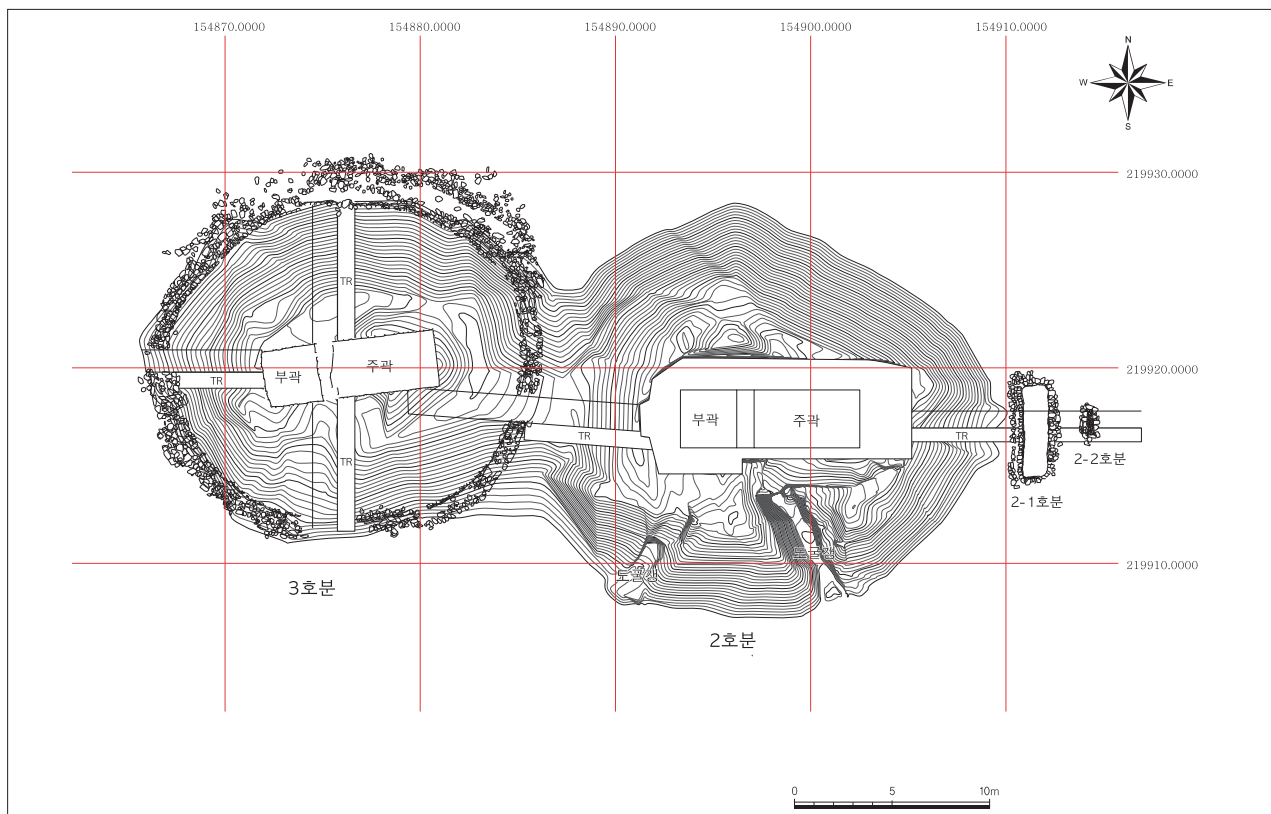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1차 2013.4.~2013.6.
2차 2014.9.~2015.3.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석곽묘 / 연질유개발, 개배, 유개고배, 기대, 대도, 철모, 철촉, 은제쌍룡문요패장식구, 재갈, 등자, 안교, 행엽, 운주

계성고분군 2·3호분이 발굴조사는 복원정비를 목적으로 진행된 학술조사이다. 2·3호분은 계성고분군 전체 범위 내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고분군 밀집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2012년 분포현황조사에서 구분한 지역으로는 I군에 속한다. 2·3호분은 봉분을 의도적으로 나란하게 배치한 것으로 보아 피장자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호분을 먼저 축조하고 3호분을 연접하여 축조하였으며 연접부에 점질토를 보강하여 고분을 완성하였다. 3호분은 봉분을 축조한 후 외곽을 따라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봉분을 더욱 고대하고 웅장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2호분은 복원을 전제로 전면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봉분과 매장주체부의 일부분만 조사하였다. 봉분 직경 36.4m, 높이 7.5m로 계성고분군 내 최대 규모이다. 봉분 가장자리에서 추가 연접된 석곽 5기가 확인되었지만 동측 가장자리에 축조된 2기(2-1·2-2호분)의 석곽만 조사되었다. 봉분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축조하였다. 1단계는 봉분 가장

유적 위치도

자리에 1차 호석과 적석을 축조하여 묘역을 정지하고, 동시에 석곽의 하단부 벽석을 축조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지상으로 올라온 석곽의 벽석축조와 봉분성토를 동시에 진행하며 2차 호석을 축조한 단계이다. 3단계는 매장완료 후에 목개를 덮고 봉분을 완성하는 단계로 구획성토와 구획석렬이 확인된다. 매장주체부는 격벽으로 분리된 반지상식의 주·부곽식석곽묘이며 규모는 길이 9.8m, 너비 3.1m, 높이 2.0~2.5m이다. 주곽은 길이 5.7m, 너비 3.1m이고, 부곽은 길이 3.1m, 너비 3.1m이다. 격벽의 폭은 1m이다. 주곽의 내부만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곽 내에서 유물의 배치상태는 토기류는 동단벽쪽에, 무기류와 마구류, 은제쌍룡문요패장식구 등은 바닥 중앙에서 출토되었다. 쌍룡문요패장식구의 위치로 보아 피장자의 두향은 서쪽으로 추정된다. 은제쌍룡문요패장식은 황남대총 남분, 금관총, 서봉총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2호분 출토품이 가장 사실적으로 용머리·발 및 꼬리 등이 묘사되어 있다. 토기는 연질유개발, 유개고배, 개, 고배, 개배, 장경호 등이며 철기류는 도자, 대도, 철정, 철모, 철겸, 철촉 등이다.

3호분은 2호분의 서쪽에 연접되어 있으며 봉분의 직경은 30.2m, 높이는 5.1m이다. 3호분에는 추가 조성한 석곽이 확인되지 않았다. 봉분은 총 4단계에 걸쳐 축조되었다. 1단계는 묘광굴착 및 묘역 가장자리에 1차 호석을 설치하고 호석 바깥 경사면에 적석하여 보강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지상화 된 벽석과 봉분성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단계로 봉분 가장자리에 2차 호석이 설치된다. 3단계는 벽석상단부 축조와 동시에 주변을

유구 배치도

성토하고, 매장완료 이후 목개로 밀봉하고 난 후에 매장주체부 중심부를 성토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묘역 전체를 감싸듯 성토하는 단계로 성토층과 다른 갈색점질토의 성토재를 사용하여 봉분을 밀봉하듯 피복하는 단계이다. 매장주체부는 주·부곽식의 석곽묘로 전체 규모는 길이 8.9m, 너비 2.8m, 높이 2.0m이며 주곽은 길이 5.2m, 너비 2.8m, 부곽은 길이 2.8m, 너비 2.8m, 격벽의 너비는 0.9m이다. 주곽 바닥에는 벽석과 시상석 사이의 홈이 관찰되며 꺾쇠도 출토되어 주곽 내에는 목곽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곽에는 유물의 출토양상을 통해 볼 때, 목곽을 시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유물은 주곽의 경우, 도굴로 위세품과 장신구가 거의 출토되지 않았으며 부곽에는 주로 토기류를 집중 부장하였다. 특히, 부곽 중앙에 대형의 철부를 다량 부장한 것이 특징이다. 출토된 유물은 주곽에서 유개고배, 개, 고배, 기대, 호, 환두대도, 살포, 철정, 철모, 유자이기, 철겸, 철촉, 도자, 경식이 출토되었고, 부곽에서는 개, 고배, 호와, 철촉, 대형과 소형 철부, 행엽, 재갈, 안교, 등자, 마탁, 교구, 찰갑, 'U'자형삽날 등이 출토되었다. 2·3호분의 축조연대는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 『창녕 계성고분군 2·3호분』.

2호분 부곽

2-1호분

2-2호분

2·3호분 연접부

3호분

3호분 격벽 축조모습

3호분 주·부곽

출토유물

02-8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40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연구원 / 1차 2015.7. 2차 2015.10.~2015.11.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 개, 고배, 기대, 대부완, 대부장경호, 도자, 철부, 철촉, 재갈

창녕 계성리고분군 _ 창녕 계성리 주택·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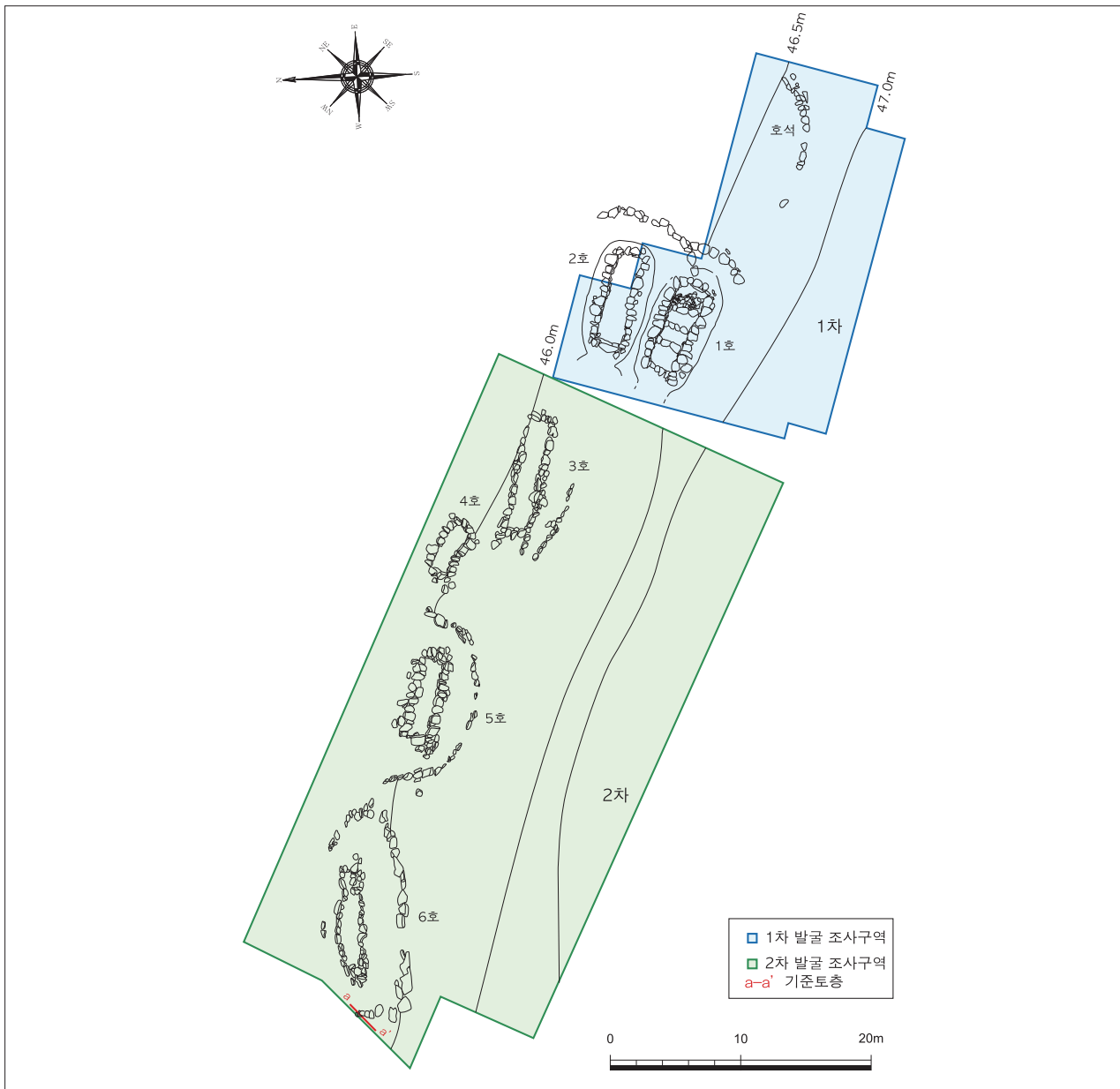
조사대상지역 주변으로 해발 60~90m 가량의 독립구릉이 존재하며, 조사구역은 구릉사면 말단부 및 곡부와 연결되는 저지대에 위치하며 삼국시대 분묘는 구릉의 사면 말단부에 조성되어 있다. 1·2차 발굴조사에서 수혈식석곽묘 1기, 횡구식석실묘 5기 등 삼국시대 분묘 6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분묘는 기본적으로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며, 횡구식석실묘의 경우 입구는 공통적으로 서쪽으로 두고 있다. 횡구식석실묘는 벽석의 일부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봉토와 함께 축조되는 반지하식의 구조이다. 장폭비는 1:3 이상의 세장방형이며 횡구부는 단벽 상면 전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바닥에는 관대석을 시설하거나 시상을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깐 다양한 형태가 확인된다. 유물은 개, 고배, 파배, 호류의 토기류와 방추차 등의 토제품, 도자, 철촉 등의 철기류와 이식 등의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 조사된 삼국시대 분묘의 축조시기는 대략 5세기 중후반대로 편년된다.

참고문헌

두류문화연구원, 2017, 『창녕 계성리 고분군-창녕 계성리 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창녕 계성리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유적 위치도

46.5m
47.0m
호석
2호
1호
1차
46.0m
3호
4호
5호
2차
6호
1차 발굴 조사구역
2차 발굴 조사구역
a–a' 기준토층
0 10 20m

유구 배치도

1호 횡구식석실묘

5호 횡구식석실묘

02-9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명리 37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연구원 / 2015.9.~2015.10.

주요 유구 / 유물
횡구식석실묘 / 개, 대부장경호

창녕 명리고분군 _ 창녕 명리 371-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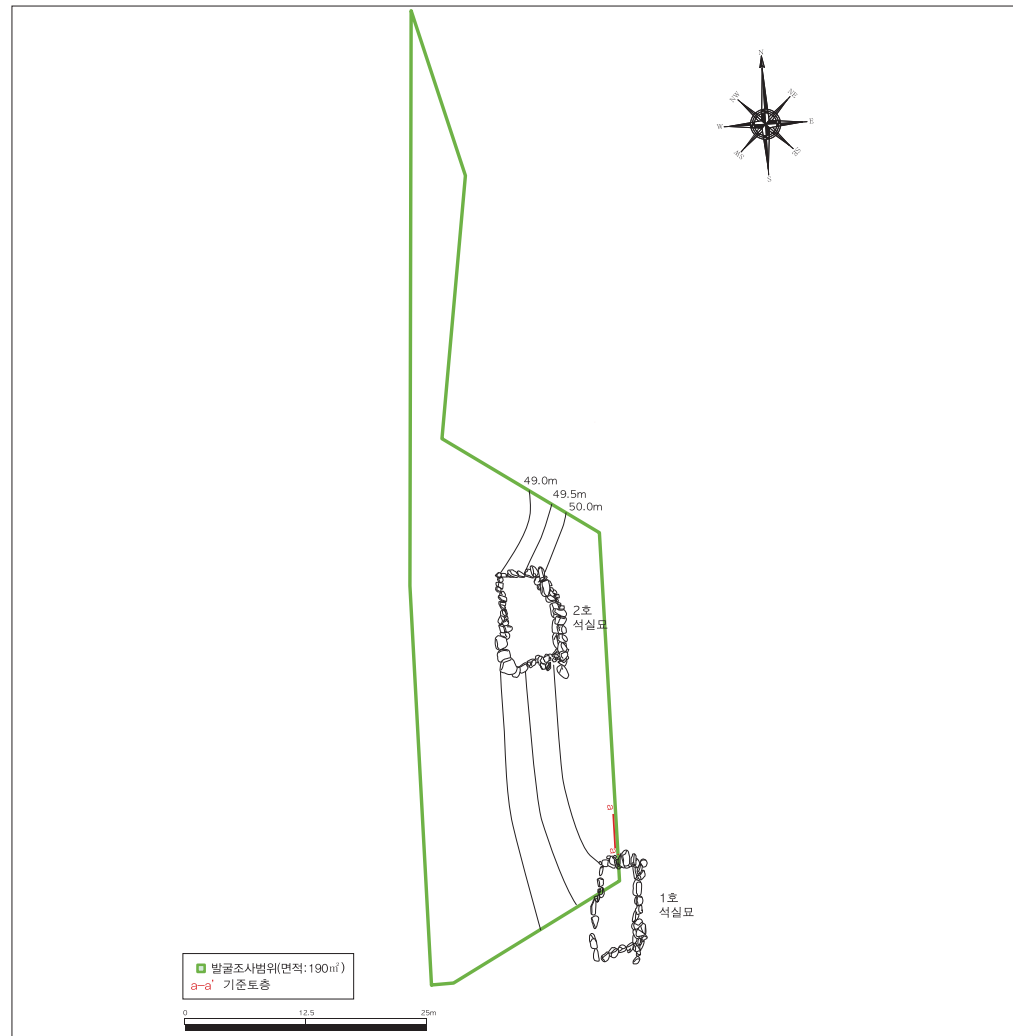
명리고분군은 1994년 부산대박물관에서 조사한 계성고분군 B지구에서 이어지는 구릉의 서쪽 말단부에 위치한다. 이곳의 서쪽으로 5번 국도가 지나며, 건너편에 인접하여 두류문화연구원에서 조사한 계성리 1·2차 유적이 각각 동일한 구릉상에 조성되어 있어 행정명으로는 명리 고분군이지만, 계성 고분군에 포함되는 유적이다. 발굴조사에서 횡구식석실묘 2기가 조사되었다.

횡구식석실묘는 기본적으로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며, 경사면을 'ㄴ'자상으로 굴착하고 자연암반 일부를 장벽으로 사용하였다. 평면형태는 장폭비 1:2 정도의 방형이고 횡구부는 단벽 상면 일부를 사용하였다. 바닥에는 전면에 할석을 깔아 시상을 마련한 구조이다. 규모는 1호 석실의 경우, 묘광은 길이 4m, 너비 2.3m, 깊이 0.9m이고, 석실은 길이 3.2m, 너비 1.7m, 높이 0.85m이다. 2호 석실의 묘광은 길이 3.95m, 너비 3.3m, 깊이 0.8m, 석실은 길이 3.25m, 너비 2.4m, 높이 0.8m이다. 유물은 후대 교란과 훼손으

유적 위치도

참고문헌

두류문화연구원, 2017, 『창녕 명리 고분군-창녕 명리(371-1)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로 1호 석실에서 개 1점, 2호 석실에서 고배 1점과 대부호 1점만 출토되었다. 석실의 축조연대는 6세기 초중반으로 추정된다.

유구 배치도

1호 횡구식석실묘

2호 횡구식석실묘

02-10 창녕 계성고분군 3호분 진입로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산103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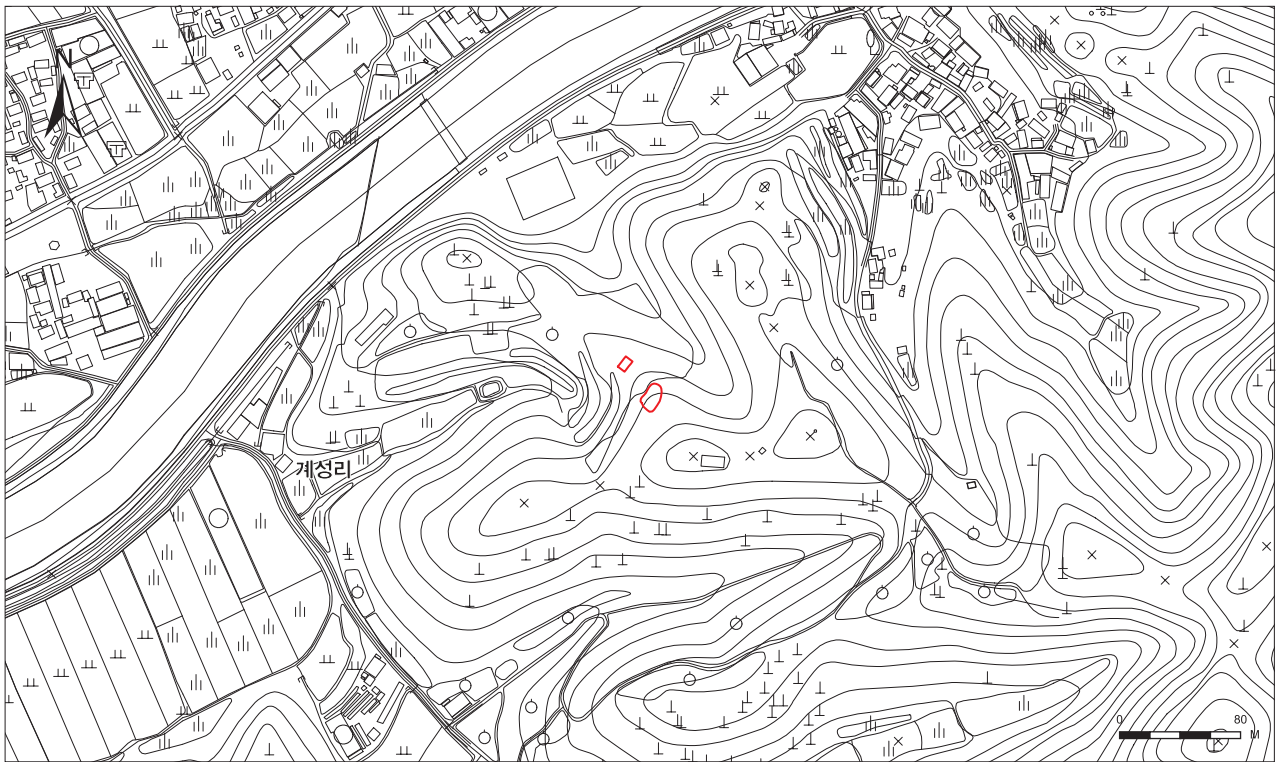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7.2.~2017.4.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 유개고배, 파수부고배, 단경호, 대부장경호, 대도, 교구

조사대상지역 계성고분군 3호분 복원공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부지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1구역에서 삼국시대 고분 1기가 확인되었다. 1구역에서 확인된 유구는 2012년 분포 확인조사에서 156호분으로 파악된 삼국시대 고분으로 후대 삭평 및 교란으로 봉토 및 매장주체부의 벽석이 많이 유실된 상태였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되었는데, 경사면에 해당하는 북장벽은 대부분 유실되고 남장벽 및 동서단벽 최하단석 1~3단 정도가 남아있다. 장축방향은 동-서향에 가깝고, 해발 57.7~59.5m 사이에 위치한다. 묘광은 길이 4.5m, 잔존너비 1.8m, 잔존깊이 0.2m이고, 석곽의 규모는 길이 4.2m, 잔존너비 1.68m, 잔존높이 0.7m 정도이다. 156호분의 동단벽에 접하여 타원형의 부장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1단 높이의 할석을 원형에 가깝게 돌려놓은 형태이다. 규모는 너비 0.9~1m, 깊이 0.2m 정도이다. 주곽 내부에도 시상석의 높이 차이를 두어 평면 세장방형의 부장공간을 별도로

유적 위치도

마련하였다. 유물은 타원형 부장공간에서 단경호 2점, 파수부고배 1점, 교구 2점이 출토되었고, 주곽 내부에서는 대부장경호 1점, 파부수고배 1점, 유개고배 3점, 대도 1점, 불명철기 3점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볼 때, 156호분의 축조시기는 5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 「창녕 계성고분군 3호분 진입로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156호분 전경

156호분 유물 출토모습

03

창녕 영산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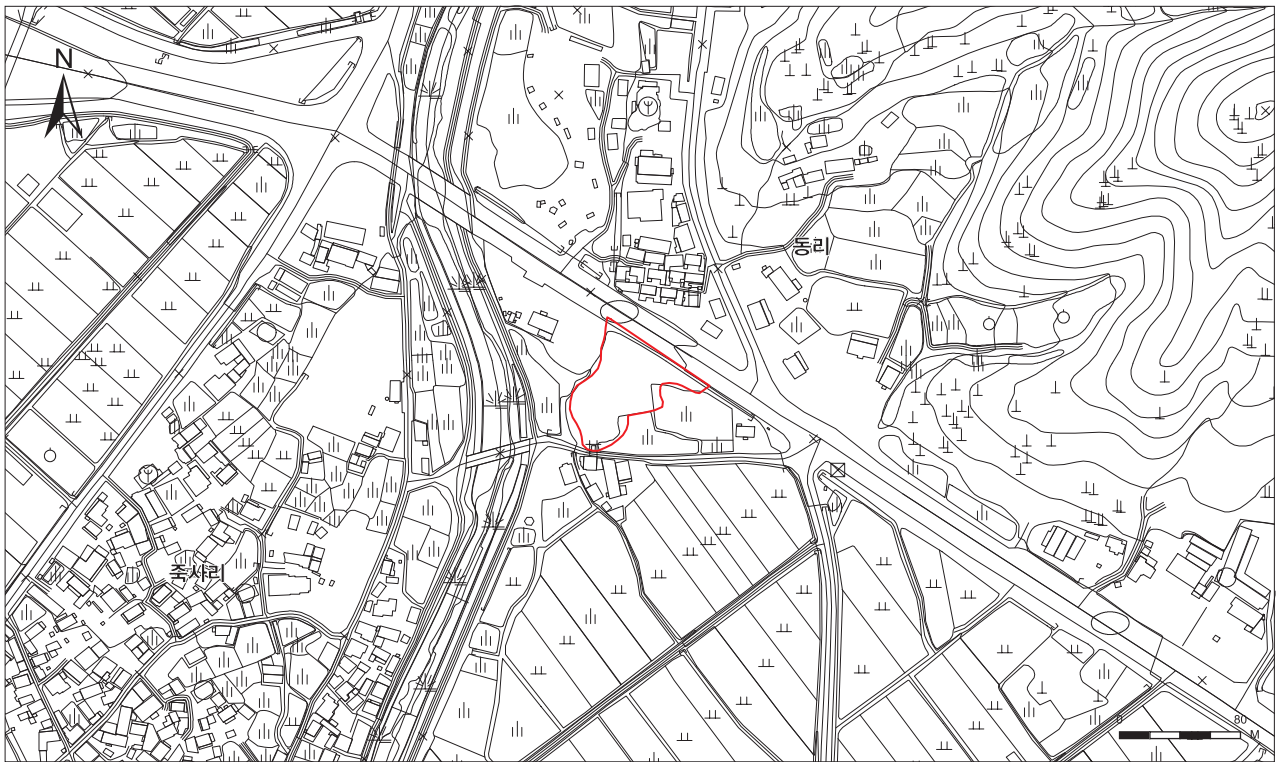
| 경상남도기념물 제168호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동리 242-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2010.6.~2011.7.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횡구식석실묘 / 고배, 개, 기대, 영배, 재갈, 금제세환이식, 심엽형행엽, 철모, 유자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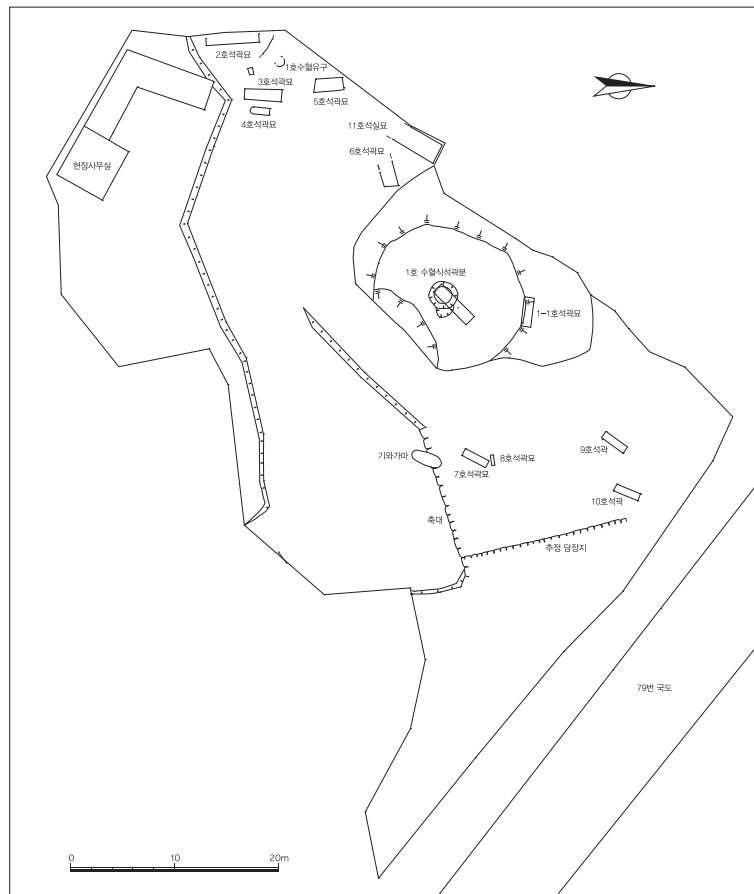
창녕 영산고분군은 영산면 동리 및 죽사리 일대에 분포하며 영산면 동쪽에 있는 함박산 해발 501m의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에 위치한다. 창녕군에서 「영산고분군 유적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국도 79호선에 의해 단절되고 경작으로 훼손된 폐고분 1기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시굴 및 발굴조사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하게 되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중형 봉토분(석곽분) 1기와 주변으로 봉분이 남아 있지 않은 석곽묘 10기, 횡구식석실묘 1기, 수혈유구 1기, 고려시대 기와가마 1기, 조선시대 축대 1기와 추정 담장지가 조사되었다.

영산고분군이 처음 알려진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 이마니시류今西龍에 의해 실시된 8기의 고분분포 및 현황조사에 의해서이다. 당시에는 영산읍남고분군으로 명명하여 총 8기의 고분의 현황을 소개하였고 조사된 폐고분은 당시 7호분으로 추정되며, 최근 지표조사에서 41호분으로 명명된 고분이다.

유적 위치도

1호 석곽분은 직경 15m의 평면 타원형의 봉토분으로, 석곽은 길이 4.5m, 폭 1.2m, 높이 1.6m이다. 봉분은 4단계의 축조공정으로 조성되었으며, 성토과정에서 많은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창녕지역에서 처음으로 점토괴를 이용한 구획성토가 확인되는 성과를 얻었다. 1관2곽의 묘제형식, 상·하단 벽석의 축조기법 차이, 사선방향의 순장 등 석곽묘에서 횡구식석실묘로 이행하는 과정의 다양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유구이다. 1호 석곽분 주변으로 10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는데, 석곽은 대체로 길이가 1.2~4.5m로 다양하며, 일부는 호석도 확인되어 축조 당시에는 중형 봉토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기의 횡구식석실묘(11호)에서는 추가장 된 인골이 양호하게 출토되었는데, DNA분석 결과 65세 전후의 여성으로 추정되었다. 인골 주변으로 일정 간격 잘려진 조류의 뼈가 다수 조사되어 당시 매장의례의 일면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출토된 토기의 편년을 통해 조사된 석곽분과 횡구식석실분은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후반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산고분군 봉토분 1기와 주변 석곽 및 석실의 조사를 통해 창녕의 중심고분군인 교동고분군 및 송현동고분군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아울러, 조사된 지역이 영산고분군의 최남단에 해당되어, 영산고분군 시간적인 조영범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창녕 영산고분군』.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호 석곽묘

2호 석곽묘

3호 석곽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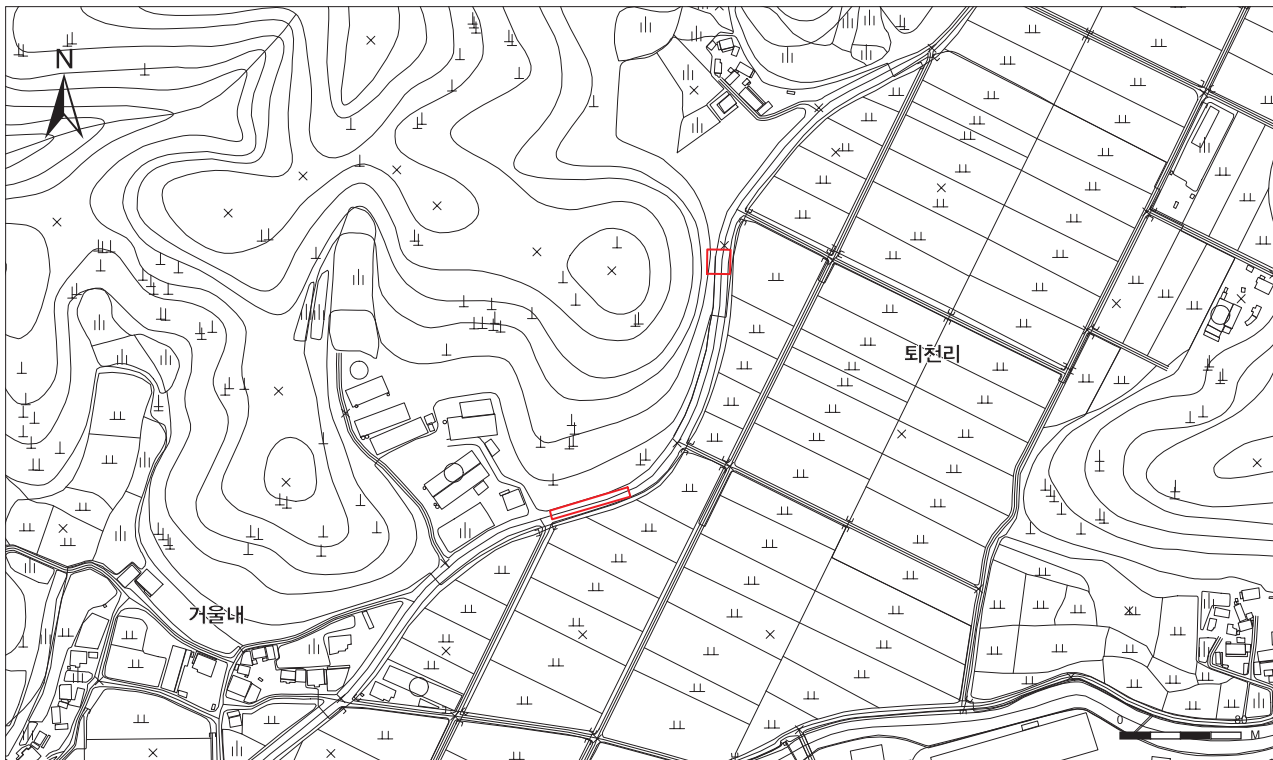
04 창녕 퇴천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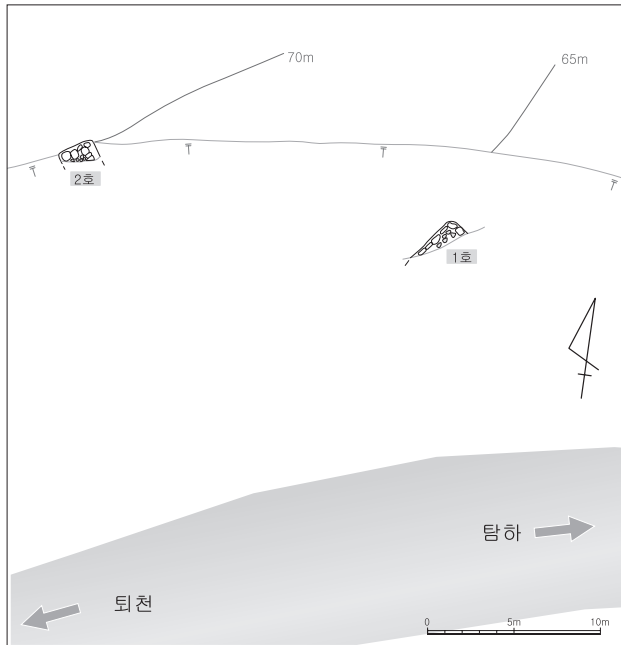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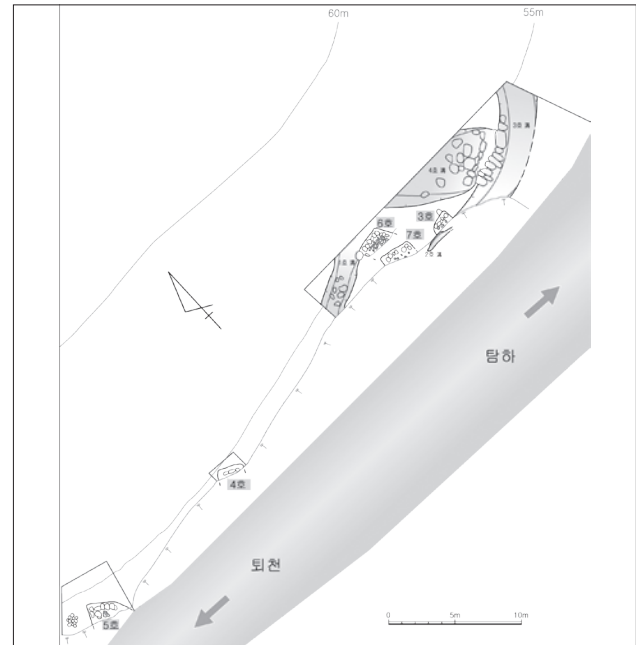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산6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6.12.~2007.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고배,
개, 대부파수부완,
도자

창녕 퇴천리고분군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 거우내 마을 뒤편의 해발 100m 내외의 산 정선부와 남사면에 분포하는 '퇴천리 우징기고분군'의 일부분으로 퇴천~탐하간 도로공사에서 발견되어 긴급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퇴천리고분군 주변으로는 거우내 고분군Ⅰ·Ⅱ, 퇴천리토기요지, 우징기토기요지 등 삼국시대 고분군과 생산유적이 밀집분포하며 퇴천리 우징기고분군에는 지표상 직경 10m 내외의 봉토분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어 이 일대에는 대규모 고분군이 조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긴급발굴조사된 곳은 도로와 인접한 단애면 일부분에 국한된다.

조사는 구릉 남서 사면 말단부의 도로 단애면인 가구간과 동일 능선상의 남동사면 도로 단애면의 나구간으로 구분되며, 가구간에서 석곽묘 2기, 나구간에서 석곽묘 4기, 석실묘 1기, 주구 4기가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유구가 상당부분 훼손되어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석곽묘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고, 할석을 사용하여 벽을 축

유적 위치도

조하였으나 나구간 5호 석곽묘는 암반을 벽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석실묘는 반지상식의 횡구식석실묘로 2차에 걸친 추가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주로 토기류로 고배, 개, 대부장경호, 대부파수부완이며, 6호 석실묘에서 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조사된 퇴천리고분군은 기원후 5세기 중엽에서 7세기

가구간 유구 배치도

나구간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가1호 석곽묘

가2호 석곽묘

출토유물

전엽까지의 조영시기를 보이며, 주변에서 지표수습된 유물은 이보다 이른 5세기 전반대까지 소급할 수 있다. 퇴천리고분군은 창녕지역 내에서 중소형고분군에 해당되며, 가야묘제에서 신라묘제로의 계기적인 변천을 파악할 수 있는 고분군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09, 『창녕 퇴천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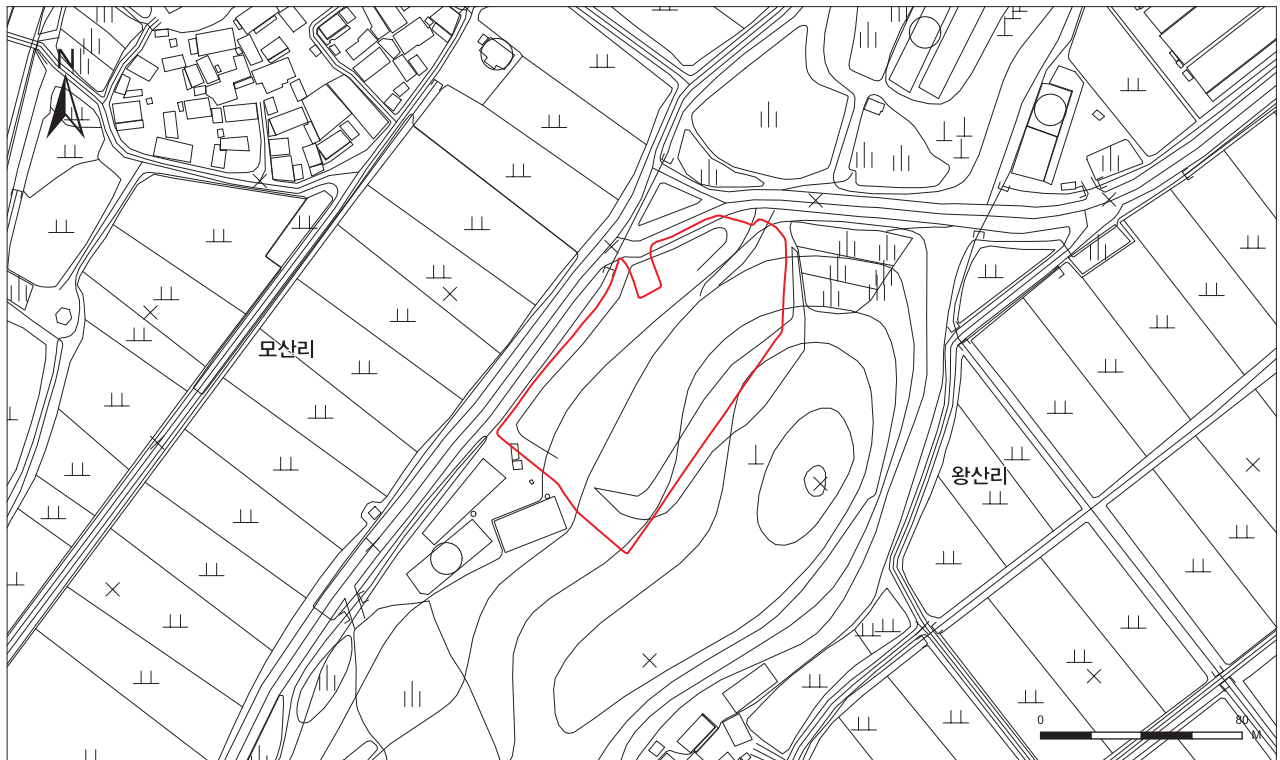
05 창녕 왕산리유적 _ 창녕 왕산리 근린시설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왕산리 35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1.6.~20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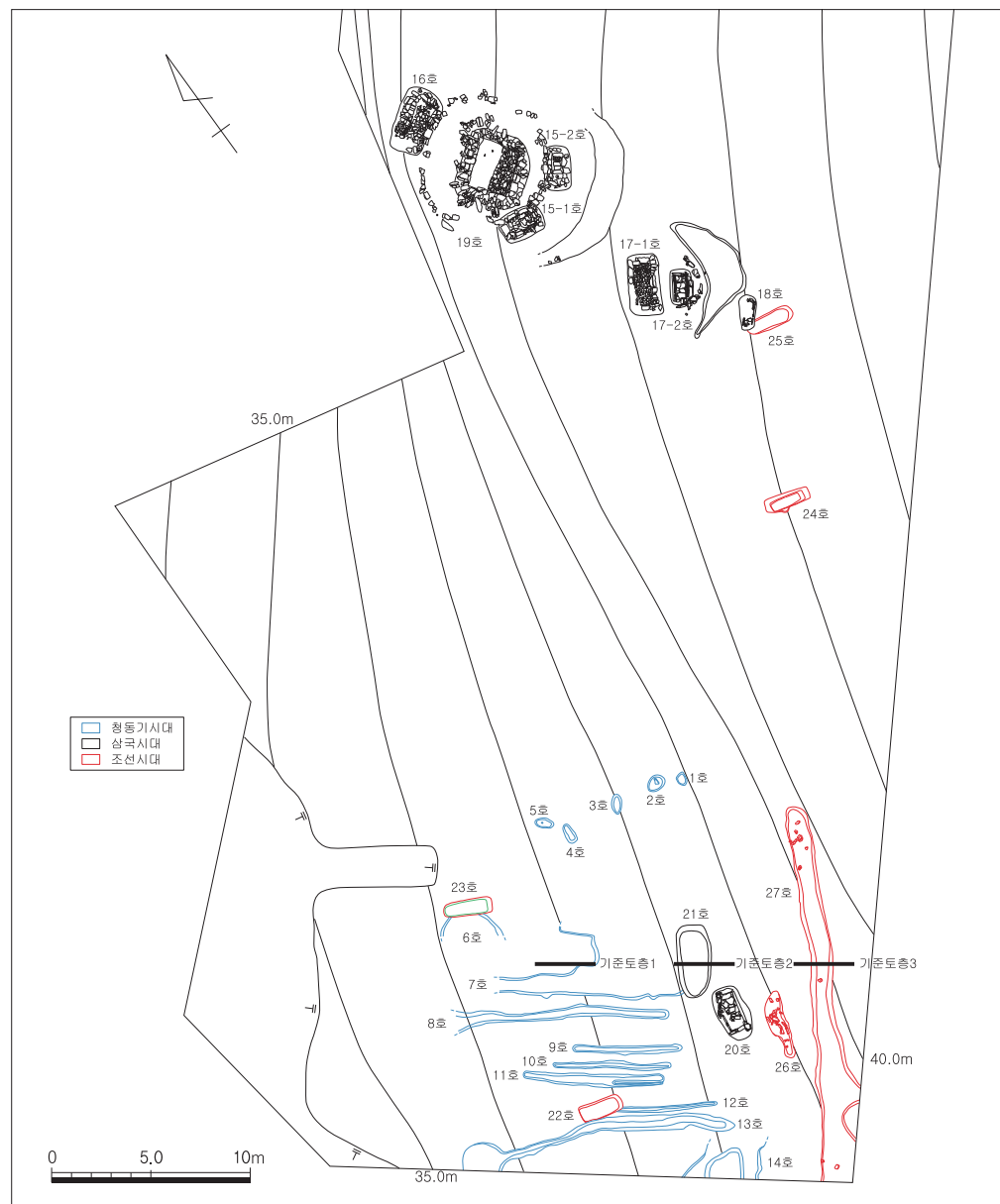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 유개고배, 완, 단경호, 병, 모루, 집게

창녕 왕산리유적은 토평천에 인접한 단독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릉의 남쪽 정상부에는 삼국시대 후기에서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봉토분이 분포하는 왕미마을고분군이 입지한다. 근린시설부지로 지정되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 6기·구 8기, 삼국시대 석곽묘 7기·석실묘 1기·수혈 1기, 조선시대 분묘 4기·수혈 1기·구 1기가 조사되었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무덤은 왕미마을고분군의 일부분 해당한다.

발굴조사된 삼국시대 석곽묘는 모두 7기로, 규모는 길이 135~312㎝로 다양하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중복관계로 보아 석곽묘는 1기 조사된 19호 석실묘 보다 선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곽 내부에서 유개고배, 고배, 대부장경호, 대부완, 소형 옹, 병 등이 출토되었다. 석실묘는 벽석의 상부가 많이 유실되어 입구부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호석이 잔존한다. 호석은 봉토의 가장자리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호석의 규모를 통

유적 위치도

해 봉토의 규모는 직경 670㎝ 정도로 추정된다. 석실은 길이 367㎝, 잔존너비 328㎝로 방형의 평면형태를 띤다. 유물은 유개고배, 개, 고배, 기대 등의 토기류와 철제집게, 철부, 철겸, 철도자, 청동방울 등이 출토되었다. 석실묘에서 단야구인 철제집게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석곽묘와 석실묘에서 출토된 토기의 편년에 의하면 발굴조사된 삼국시대 분묘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 센터, 2013, 『창녕 왕산리 근린시설부지 내 창녕 왕산리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6호 석곽묘

19호 석실분

토기류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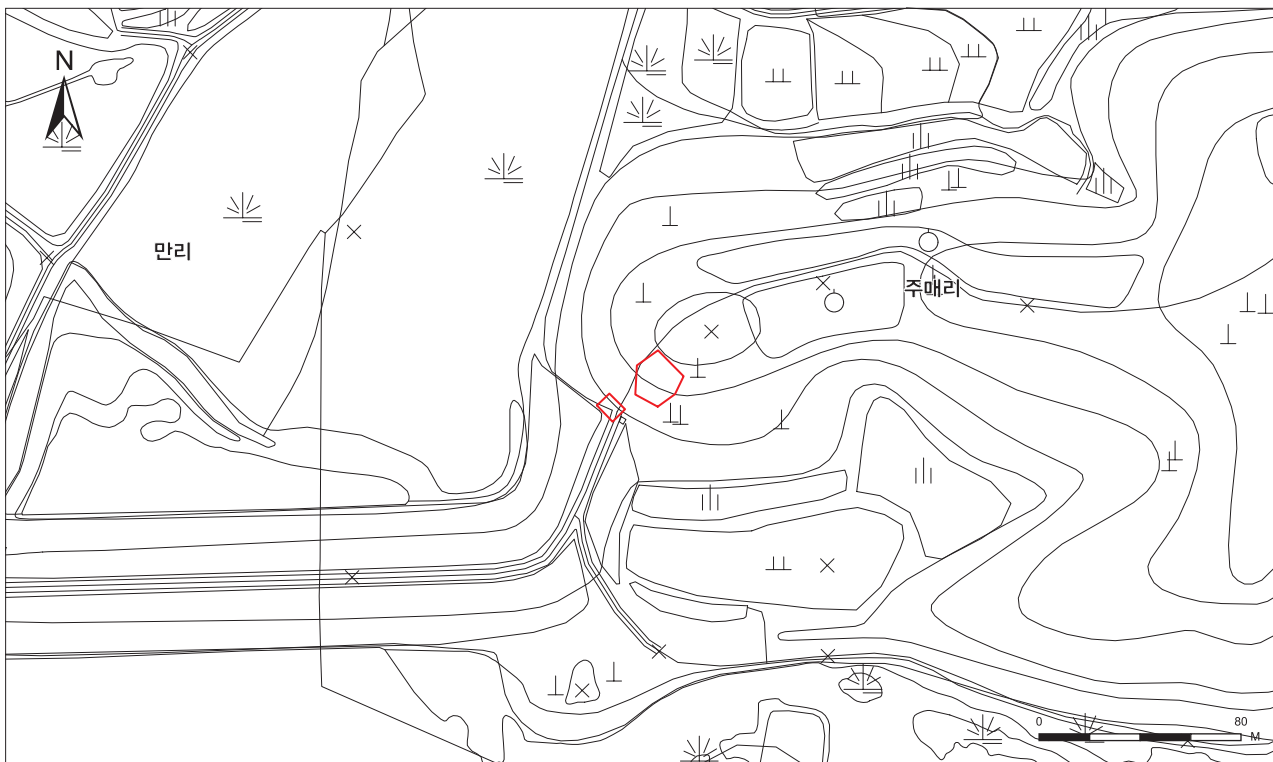
창녕 대합면 주매리 마산터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 614-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18.5.~2018.6.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 유개고배, 대부완, 대부장경호, 대도, 단야구, 세환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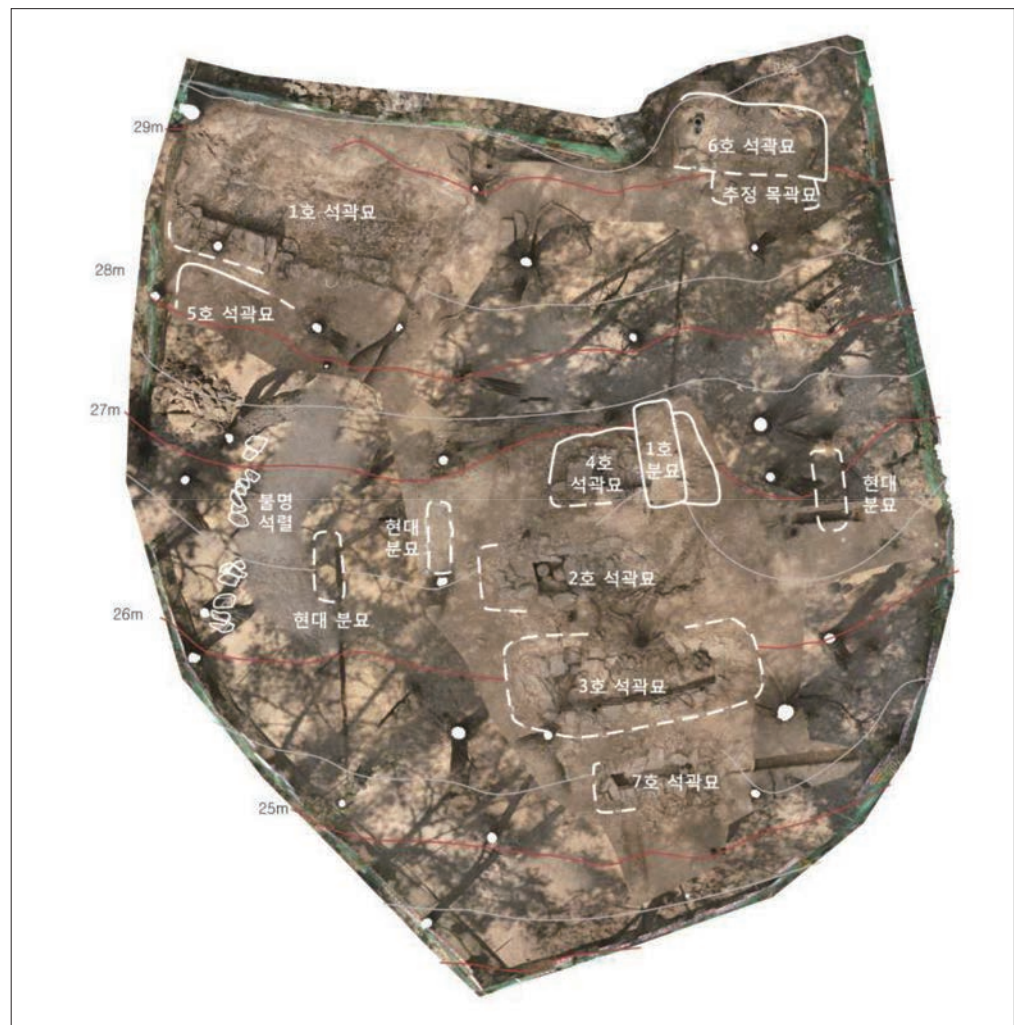
창녕 주매리 마산터고분군은 우포늪 북쪽 해발 33m 내외의 침식성 저구릉 정상부에서 사면부에 걸쳐 위치한다. 창녕 주매리 마산터 고분군은 근년에 지표조사(창원대학교박물관 2010)를 통해 이 일대에서 최초로 확인된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계성고분군 등 창녕지역 중심고분군의 하위 집단 정도의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봉토분도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도굴된 석곽묘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는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학술 가치를 밝히기 위한 학술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추정)목곽묘 1기, 수혈식석곽묘 8기, 근현대 분묘 5기, 불명석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1구역의 동쪽에서 확인된 (추정)목곽묘는 잔존깊이 약 0.1m 내외로 극히 일부만 잔존하는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향이며, 잔존규모는 길이 3.15m, 너비 0.78m로 평면 장방형이다. 도치된 개 1점과 고배 1점이 출토되었다.

유적 위치도

수혈식석곽묘는 총 8기가 조사되었는데, 1호는 대형에 가깝고, 2·3·6·8호는 중소형분, 4·7호는 소형분에 해당한다. 기반암을 굴착하고 조성되었으며 시상대는 기반암 편을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부장공간은 시상대와 단차를 두고 조성하였으며, 부장공간에서는 대부장경호, 유개고배, 대부완, 단경호, 연질유개옹 등의 토기류가 주로 출토되었다. 시상대에서는 대도, 철겸, 철도자, 철촉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는데, 1호 석곽묘에서 수식부 세환이식 1쌍, 단야구, 철모, 철도자 등과 함께 은으로 장식된 행엽 3점이 함께 출토되어 주목된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추정)목곽묘는 5세기, 석곽묘는 6세기 전반~중반 정도로 판단된다. 4호 석곽묘에서는 부가구연대부장경호를 비롯한 다수의 유물이 신라양식이며 함께 출토된 일부 유물이 창녕양식이 유지되고 있어, 신라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창녕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주매리 마산터고분군의 축조집단은 우포늪 일대를 다스리던 집단의 무덤군으로 창녕지역 중심세력 이외의 정치적 집단의 규모와 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창원대학교박물관, 2010, 「창녕 우포늪 생명길 일원 문화재 지표조사」.

우리문화재연구원, 2018,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 마산터고분군 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1구역 유구 배치도

1호 석곽묘 및 유물 출토모습

6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1호 석곽묘 출토유물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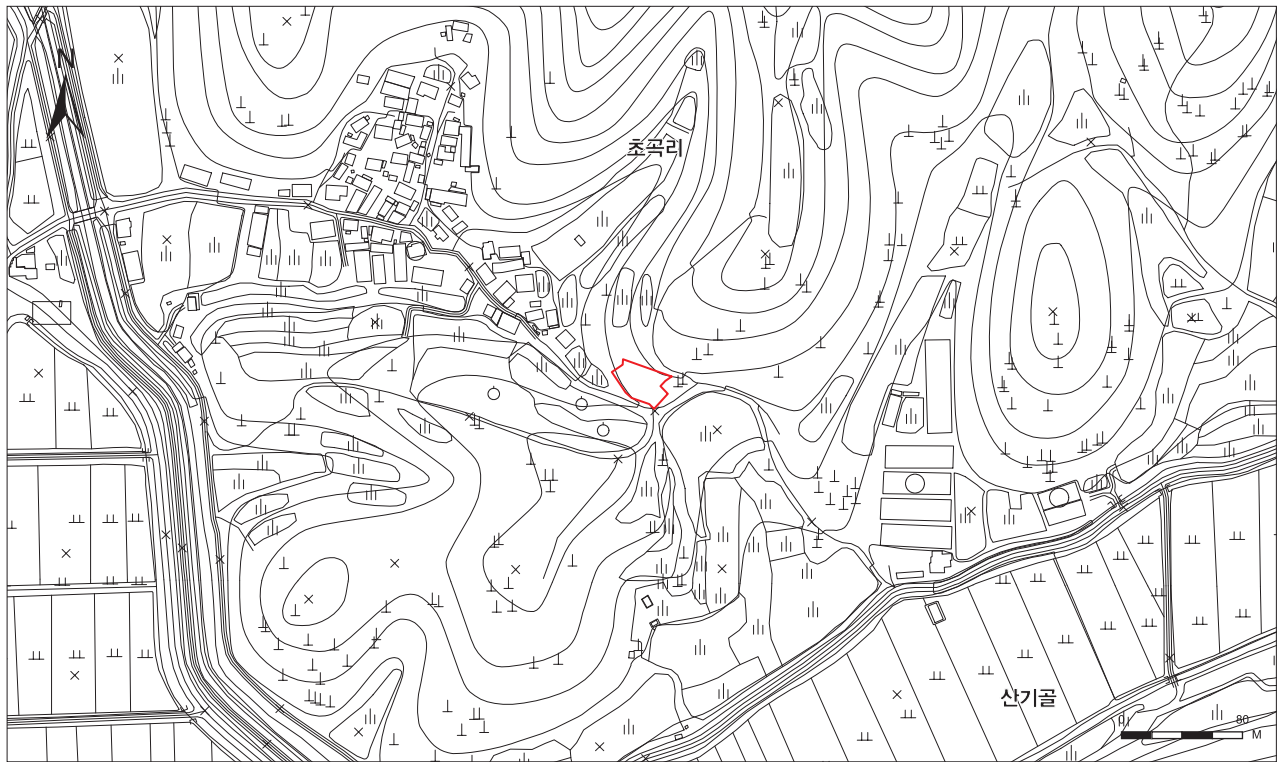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초곡리 100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화재재단 / 2017.10.~2017.1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단경호, 철모, 철촉, 철제집게, 철제망치

창녕 초곡리 1002번지 농·어업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창녕 초곡리 1002번지 유적은 농·어업시설 신축을 위한 소규모 국비지원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유적은 북동쪽에 위치한 구룡산(해발 208m)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남쪽 사면부(해발 31~35m)에 해당하며, 초곡면 소장미마을 고분군 분포 범위 내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 300m 정도 떨어져 초곡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초곡천은 낙동강 지류인 토평천과 합류하여 낙동강으로 흐르고 있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10기, 옹관묘 2기, 수혈식석곽묘 14기, 주구 1기, 구상유구 2기 등 총 29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주요 유구인 목곽묘와 석곽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곽묘는 목곽묘 간의 중복 조성과 수혈식석곽묘의 후축으로 인해 많이 파괴된 상태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묘광은 길이 2.27~4.06m, 너비 0.71~1.56m이고, 목곽은 길이 1.88~3.48m, 너비 0.71~1.11m 정도이다. 주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며, 유물은 와질제호, 유사승석문이 시문된 단경호와 장신형철모, 역자형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 위치도

축조시기는 대략 3세기 중반~4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며, 창녕지역에서 최초로 조사된 원삼국시대 목곽묘로 학술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

석곽묘는 주구와 배장묘 등과 함께 확인되거나 상호 연접조성되어 있는 등 4개의 군을 이루고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며, 축조수법은 바닥을 정지한 후 홈을 파서 벽석을 세워서 쌓은 것과 홈을 파서 벽석을 먼저 세워쌓은 후 바닥을 정지한 것으로 대별된다. 유물은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도자, 철겸, 철촉 외에 4호 석곽묘에서 철제 망치와 집게 등 단야구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석곽묘의 조성시기는 대략 5세기 중반~6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창녕 초곡리 1002번지 유적은 3세기 중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성된 고분군으로 그동안 지표조사로만 알려진 소장미마을 고분군의 실체를 일부나마 확인하였다. 아울러 창녕지역에서 조사된 바 없는 3~4세기의 이른시기 목곽묘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창녕지역 묘제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문화재재단, 2017,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창녕 초곡리 1002번지 농·어업시설 신축 부지 내 문화유적」.

유적 전경

토기류 · 무기류

단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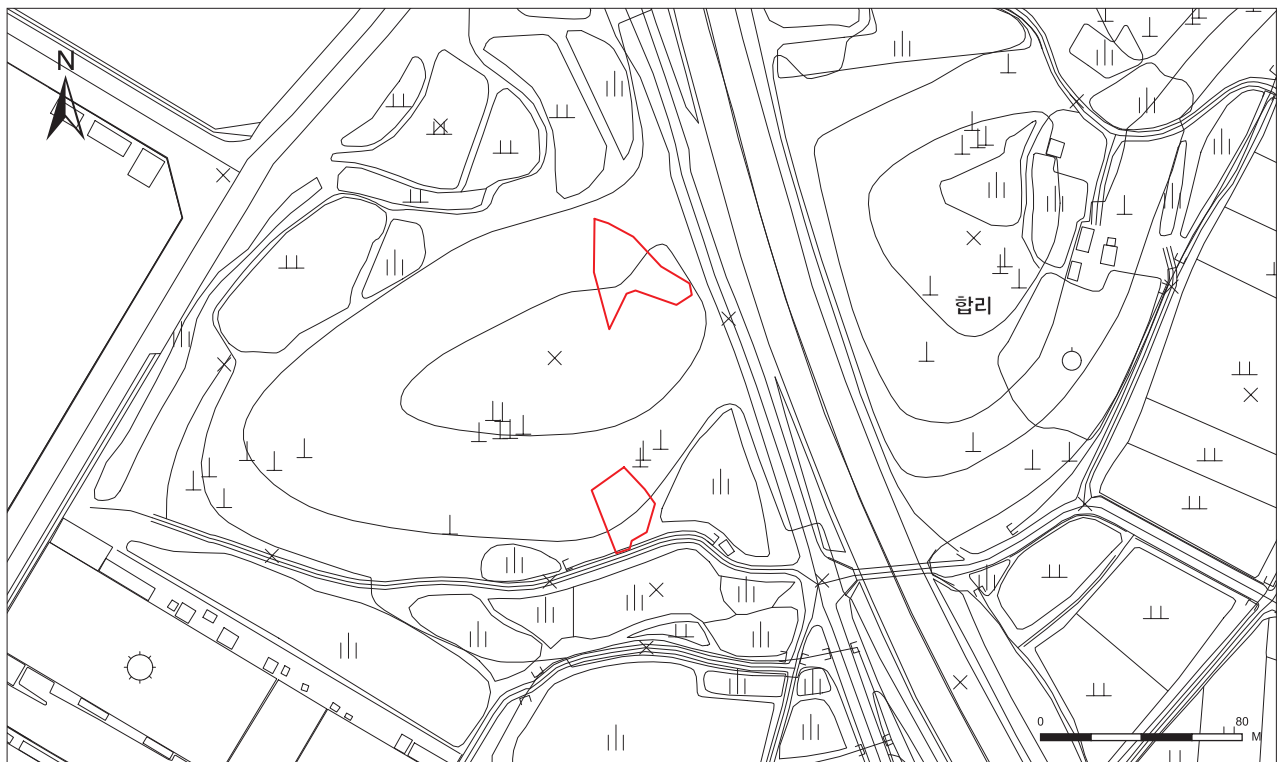
08 창녕 합리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합리 800-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연구원 / 2017.4.~2017.6.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철촉, 도자, 철정

조사대상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은 태백산(해발 284.5m)의 서쪽 말단부에 발달한 해발 29~42m 내외의 저구릉지에 해당하며, 삼국시대의 고분군인 '합리고분군'의 분포범위 가운데 남서쪽 말단부에 포함되어있다. 동쪽으로는 경남 중부지역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접한 곳이다. 발굴조사는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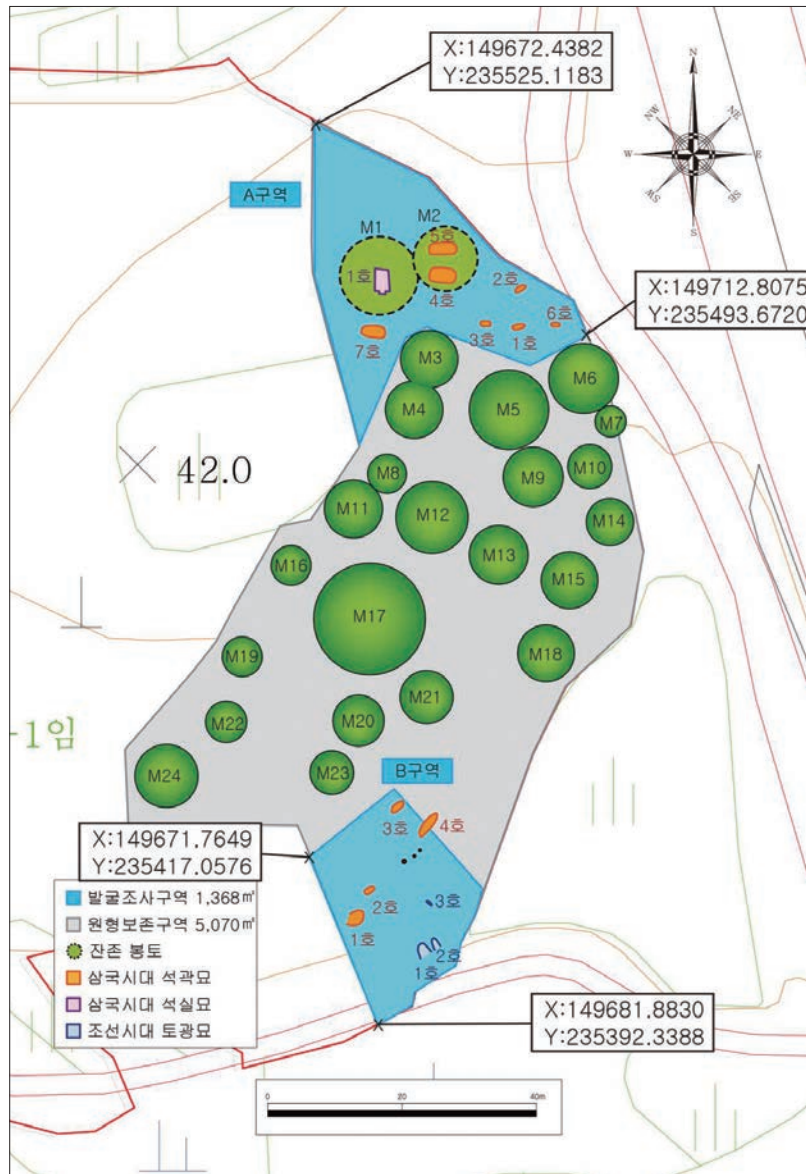
먼저 A구역에서는 M1호와 M2호, 2기의 봉토분을 비롯하여 수혈식석곽묘 6기 등 모두 8기의 삼국시대 매장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M1호의 경우는 매장주체부가 횡구식석실묘로 확인되었다. M1호분을 제외한 봉토분은 후대의 교란 및 삭평으로 인하여 봉토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M2호 내에서는 4·5호 석곽묘가 확인되었으며, 후대의 삭평으로 인하여 봉토는 대부분 유실되어 있었다. 봉토의 범위는 매장주체부의 배치로 추정 가능하나 명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A구역 내에서 확인된 수혈

유적 위치도

식석곽묘들은 묘광을 굴착하고 벽석은 셰일암반을 판석형태로 치석하여 최하단석은 수적하고 2단 이상은 평적하는 등 대부분 동일한 축조수법을 사용하였다.

B구역은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3호 석곽묘를 비롯하여 3기의 석곽묘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남쪽으로 3기의 근현대 분묘와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이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등의 토기류이며, 방추차 2점 및 철도자와 철촉, 철정 등의 금속류가 일부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의 기종이 많지 않고, 훼손 정도가 심한편이다. 유구의 축조 방식이나 특징, 출토 유물의 기종 등으로 미루어 살펴볼 때 유적의 중심 연대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두류문화연구원, 2017, 「창녕 합리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결과약보고서」.

유구 배치도

A구역 전경

B구역 전경

M1호

B구역 3호 석곽묘

B구역 3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09

창녕 동리유적 _ 창녕 군립도서관 건립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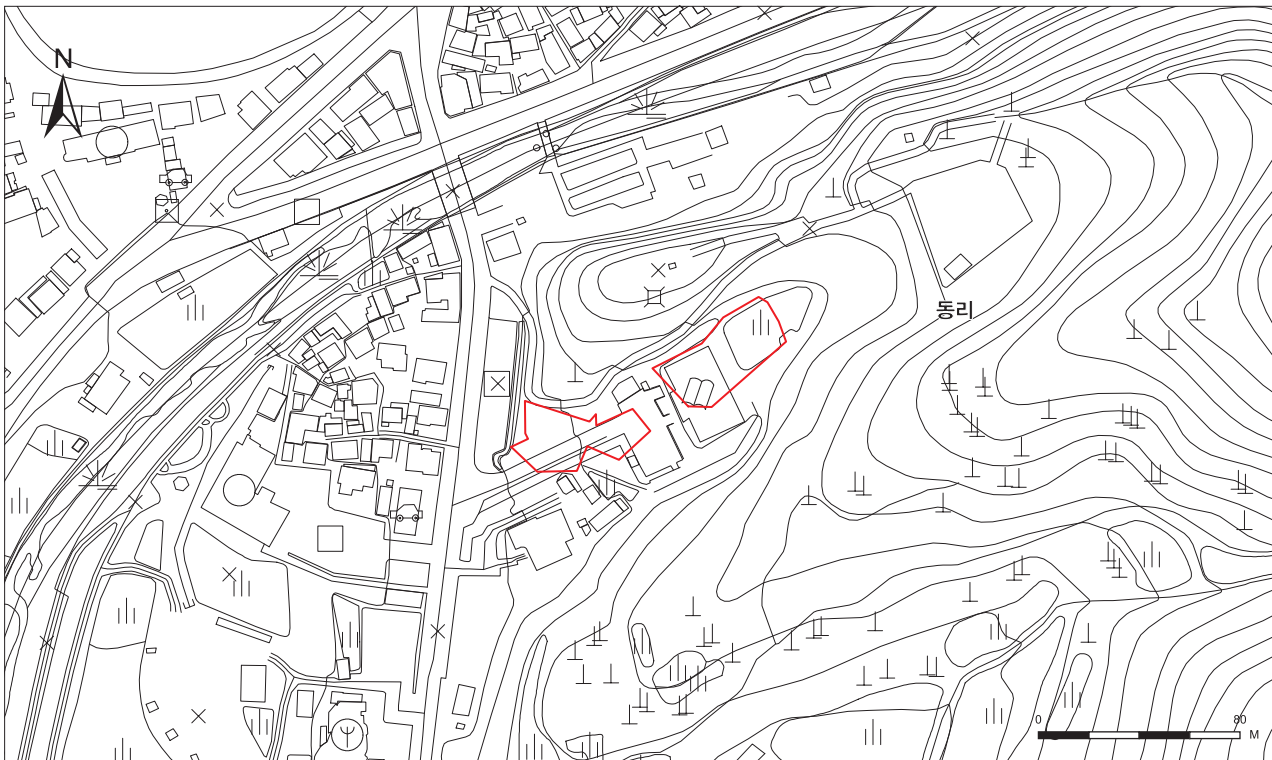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동리 271-2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겨레문화재연구원
/ 2010.1.~2010.3.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수혈식석곽묘
/ 유개고배, 파배, 발형
가대, 단경호, 철모,
철부, 철겸

창녕 동리유적은 동리고분군이 분포범위에서 북쪽 사면 말단부와 곡부를 포함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동리고분군은 영산고분군과 동일 고분군으로 파악되고 있어, 동리유적 또한 영산고분군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적은 2개 지구(Ⅰ·Ⅱ)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분묘로는 목곽묘 6기, 수혈식석곽묘 5기 등 총 11기가 확인되었는데, Ⅰ지구에서 7기, Ⅱ지구에서 4기가 조사되었다. 그 외 시대미상 수혈 3기·소성유구 1기 등 총 15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분묘는 곡부 평탄면에 입지하며, 석곽묘는 모두 Ⅰ지구에서 분포하고, 목곽묘는 Ⅰ지구에서 2기가 위치하고 나머지 4기는 Ⅱ지구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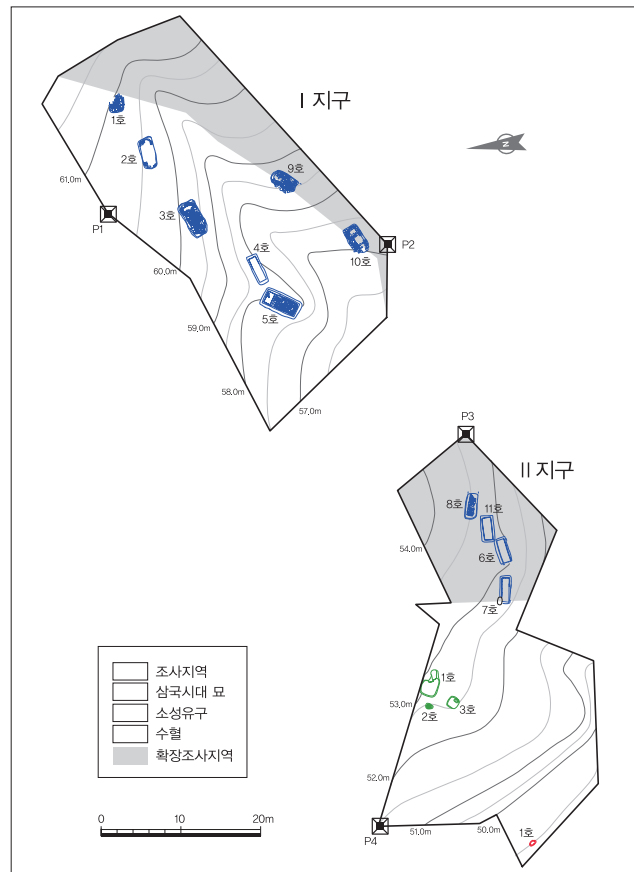
목곽묘는 구릉 하단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에 가깝다. 유물은 주로 서단벽에 주부장공간을 두고 있어 석곽묘와 상반된다. 5호 목곽묘는 동혈 주·부곽식이며 나머지는 단곽식이다. 5호 목곽묘는 목곽묘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유적 위치도

석곽묘 유물부장 방식을 채용한 목곽묘에서 석곽묘의 이행단계에 축조된 예로 출토유물도 무구류와 마구류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고총 축조단계 이전의 지배집단의 무덤으로 파악된다. 5호 목곽묘에서는 주·부곽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고배, 대부완, 파수부배 등의 토기류와 유자이기, 성시구, 경갑, 찰갑, 재갈, 안교, 행엽, 등자, 교구 등의 위세용 철기류가 다량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평면 장방형이며, 잔존상태가 양호한 3호 석곽묘의 경우, 규모는 길이 3.4m, 너비 1.22m 정도로 중협급에 속한다. 석곽내에는 관대석과 보강석의 존재를 통해 목관을 안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물부장은 동단벽 쪽에 주부장 공간을 두고 있으며, 개석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목개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석곽묘에서는 주로 토기류 위주의 부장양상을 보이는데, 유개고배, 연질옹, 파배, 발형기대, 단경호 등이며 철기는 철모, 철부, 철겸 정도의 소량만 출토되었다. 묘형과 출토유물로 볼 때 동리유적의 삼국시대 분묘는 저구릉상에서 묘가 먼저 조영되고, 이후 구릉 정상부 쪽으로 조영지역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축조시기는 유물을 통해 볼 때,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말로 편년된다.

동리유적에서 조사된 4세기 중반~5세기 중반의 목곽묘는 창녕지역에서 조사된 예가 드문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높으며 석곽묘 또한 이른 시기의 유구로 창녕지역 묘제변화 양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4, 『창녕 동리 유적Ⅰ-창녕 군립 도서관 건립부지 내 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3호 석곽묘

10호 석곽묘

5호 목곽묘

마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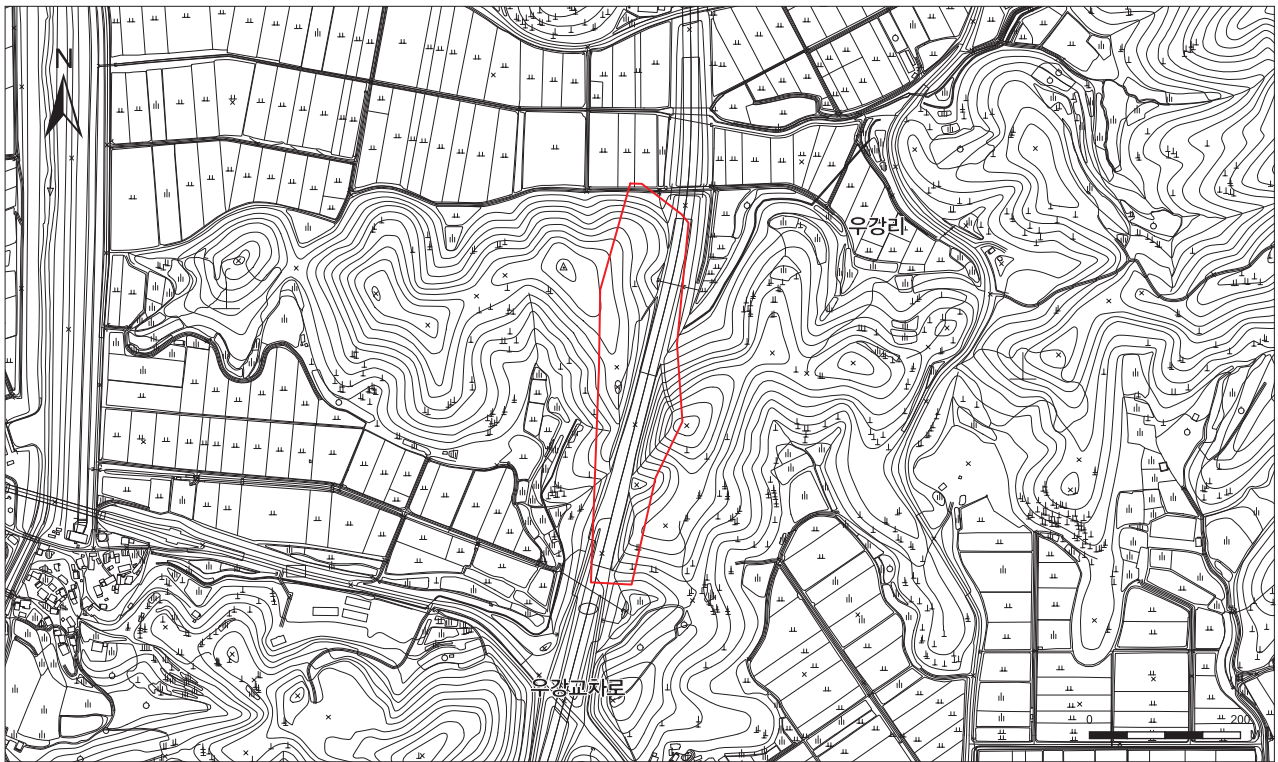
10 창녕 우강리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산172-2 일대

조사기관/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1.4.~20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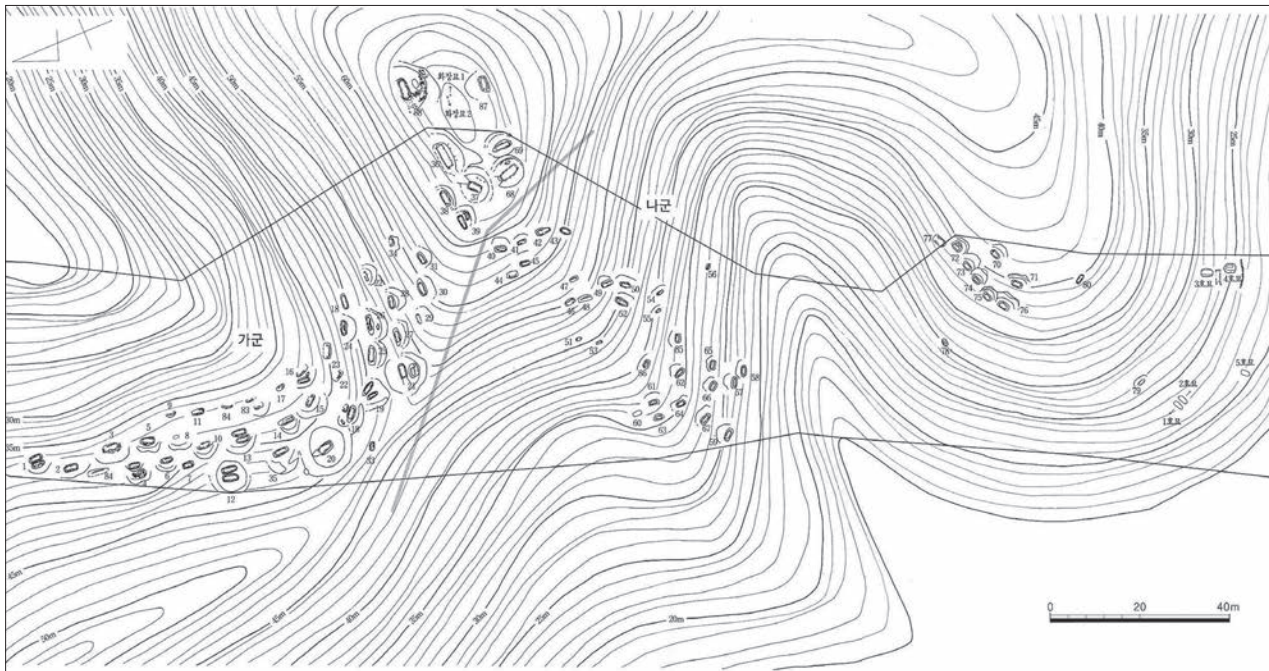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식석곽묘, 횡구식
석실묘 / 고배, 호, 옹,
환두도, 철촉

창녕 우강리고분군은 창녕군과 함안군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하며, 석천산石泉山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어 내려오는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발굴조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남지-영산간 국도 확장공사에 편입되면서 실시되었다.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석관묘 3기, 삼국시대 석곽묘 73기·옹관묘 1기·횡구식석실묘 12기·화장묘 2기, 고려시대 분묘 5기, 조선시대 분묘 3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무덤은 봉분의 축조, 묘역의 조성상태, 벽석 축조, 유물의 부장양상에 의해 2개의 군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석곽묘는 세장방형, 석곽의 봉토 내 추가 설치, 최하단석의 긴모눕혀쌓기 기법 등 가야후기 석곽묘 축조전통을 고수하고 있지만, 토기류는 창녕계 토기에서 경주계 토기로 급격한 전환이 보인다. 횡구식석실묘는 세장방형의 평면형태, 저시상대, 단벽 전체 입구부 활용, 짧은 묘도, 1~2차의 추가장을 특징으로 하는 창녕 교동고분군과 계성고분군의 횡구식석실묘와 동일 구조이다. 일부 횡구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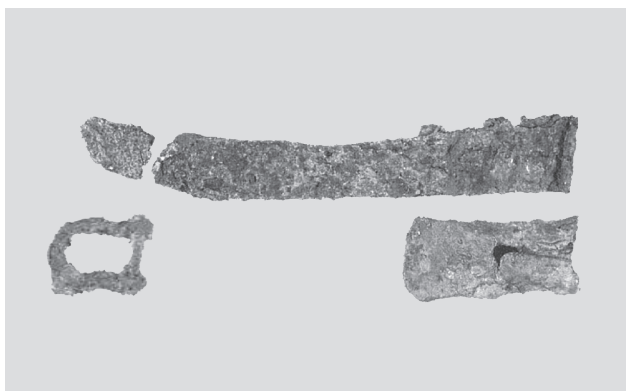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 『창녕 우강리고분군』.

식석실묘에서는 횡혈식석실묘의 축조기법도 보이고 있다. 유물의 편년을 통해 볼 때, 우강리고분군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가군 4호 석곽묘

가군 24호 횡구식석곽묘

철기류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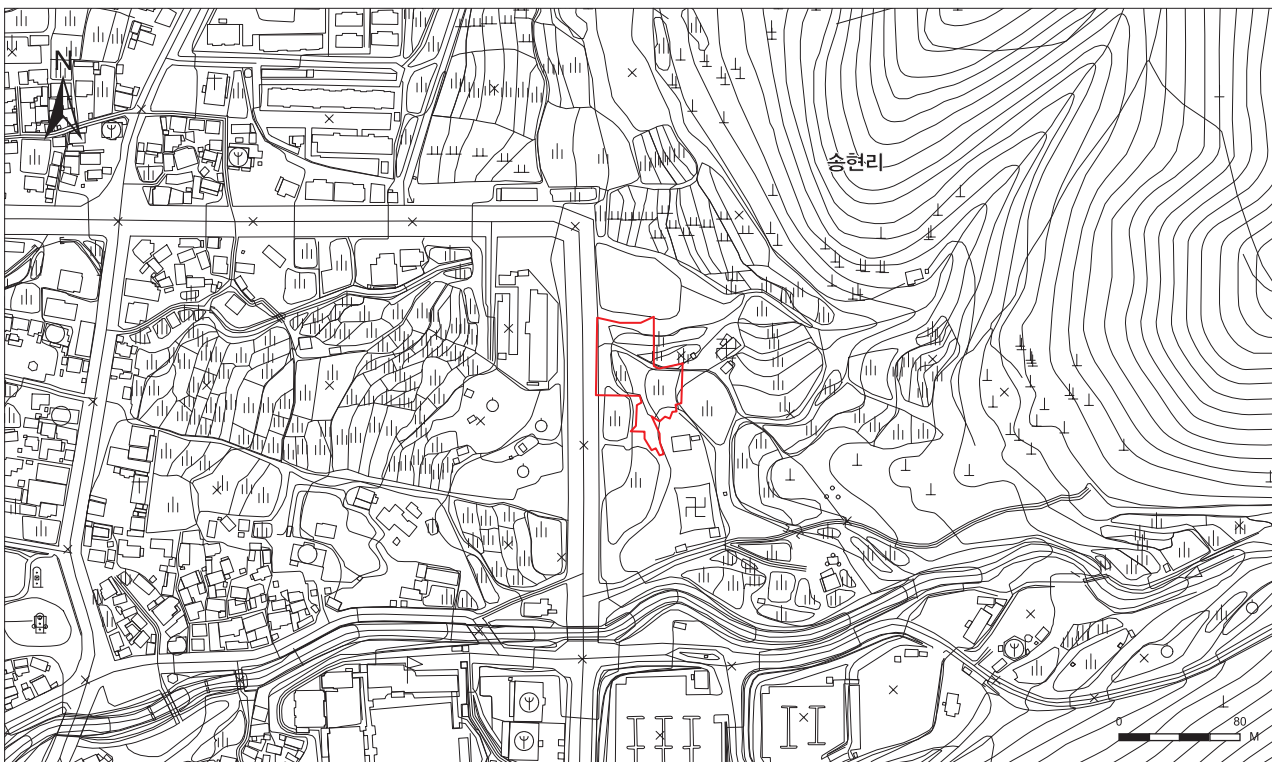
11 창녕 교리 송현역사문화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115-2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7.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 배, 고배, 대부
파수부완, 호, 연질옹,
원형토구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115-29 일대에 소재한 삼국·고려·조선시대 생활유적이다. 창녕군에서는 교동·송현동고분군 전체에 대한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와 연계하여 창녕군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송현역사문화공원 조성부지에 해당된다. 송현역사문화공원 조성부지는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2015년도에 조사한 교동·송현동고분군 Ⅲ군 1호분 및 8호분과 인접해 위치한다. 특히 1호분과는 불과 4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고분군이 조성된 구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같은 지형대에 속한다. 따라서 지표조사에서 고분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고분 및 이와 관련된 유구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2017년 7월 시굴조사, 동년 11월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 수혈 2기, 고려시대 건물지 1동, 석렬 1기, 조선시대 건물지 1동, 배수시설 1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창녕 교동·송현동고분군의 서쪽에 위치하는데, 화왕산 줄기에서 서쪽으

유적 위치도

유적 전경

로 뻗어 내린 구릉의 사면 말단부에 해당된다. 조사지역의 서쪽에는 남-북 방향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북쪽에 송현저수지가 바로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 화왕산 창화사라는 사찰이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구릉의 상·하단부에 2개로 이격되어 분포하며 삼국시대 유구는 구릉 하단부에 입지한다.

수혈은 등고선과 평행하게 중복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단면형태는 'U'자상이다. 규모는 길이 528~630㎝, 너비 145~167㎝, 깊이 47~53㎝ 이고, 내부토에는 다량의 목탄과 소토알갱이 및 할석이 일부 포함되었다. 유물은 배, 고배 배신부 편, 대부파수부완, 호 동체부 편, 연질토기 저부 편, 연질옹 구연부 편, 원형토구가 출토되었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 「창녕 교리 시·군창의사업(송현역사문화공원 조성부지) 문화재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12

창녕 합리유적 _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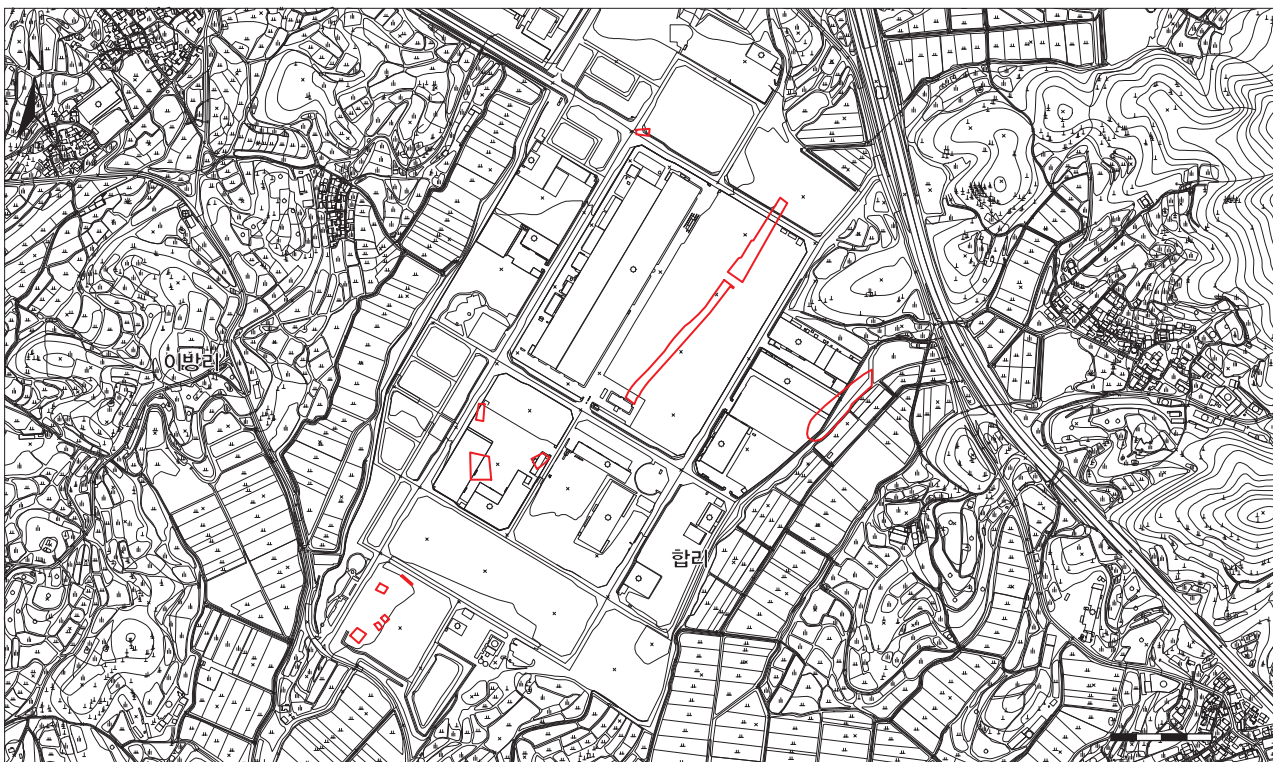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합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10.11.~2011.3.

주요 유구 / 유물
고상건물지, 수혈 /
단경호, 양이부단경호,
노형토기

유적 소재지인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은 창녕군과 청도군의 지형적 경계가 되는 해발 600m 전후의 산지에서 서쪽으로 오면서 급격히 낮아지는 침식성 저구릉과 평야가 평원을 이루는 곳이다. 조사지역은 해발 30m 전후의 저구릉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며 그 구릉 사이에는 협소한 곡저평야가 발달되어 있는 지형으로 삼국시대 유구는 대부분 구릉 말단부에 입지한다. 조사지역은 1~6구역으로 명명되었으며 12개 구간으로 이격되어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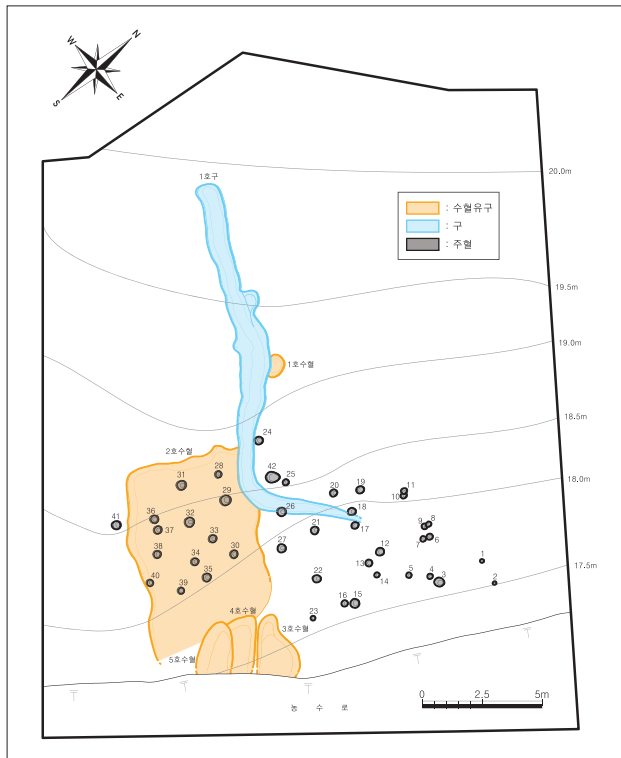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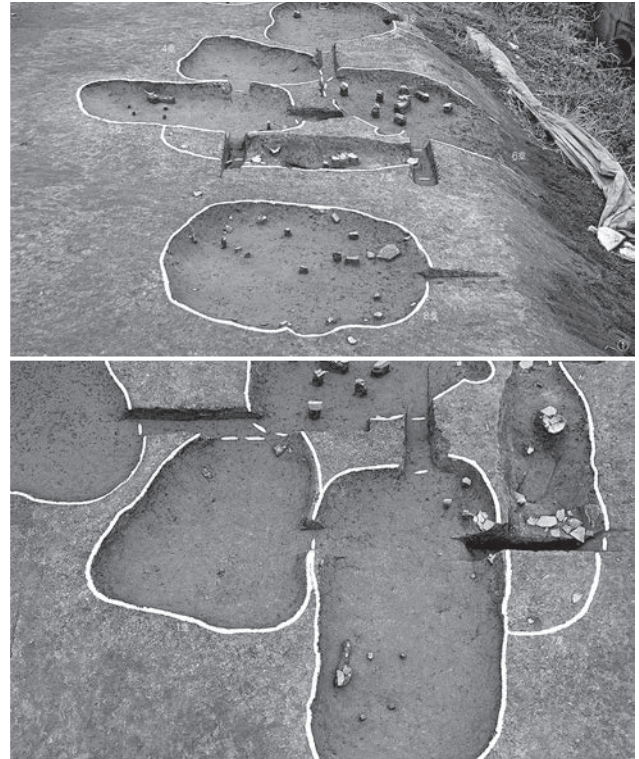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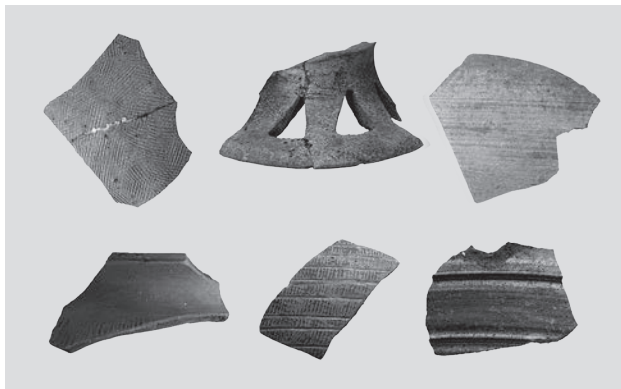
본 유적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확인·조사되었는데, 2006년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삼국시대와 고려·조선시대의 유물산포지가 보고되어, 2009~2010년 동일 기관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삼국시대 고상건물지는 4구역에서만 조사되었는데, 모두 정면 2칸×측면 2칸의 구조로서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다. 건물지간 중복양상은 없으며, 등고선을 따라 열상으

유적 위치도

로 배치되었다. 수혈은 1·3·4·5구역에 고루 분포하는데 이 중 1·3구역에 조성된 수혈은 중복이 심한 편이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장방형, 부정형으로 다양하며 규모도 일정하지 않다. 수혈의 내부에서는 별다른 시설이 조사되지 않았다. 건물지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으나 수혈과 구에서 단경호, 양이부단경호, 노형기대 등이 출토되어 유적의 조성시기는 가야시대로 판단된다.

삼국시대 고상건물지가 조사된 주거유적으로서 창녕지역 생활유적의 다양성을 확보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3,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창녕 합리 유적』.

1-1구역 유구 배치도

3구역 수혈군

3구역 8호 수혈 출토유물

4-2구역 1호 수혈 출토유물

13 창녕 사리 1119번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사리 111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재연구원 /
2014.11.

주요 유구 / 유물
수로 / 고배 대각부
편, 완, 호 동체부 편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사리 1119에 소재한 삼국·조선시대 생활유적으로 건축주가 추진하는 창고 및 사무실 신축 부지이다. 두류문화재연구원에서 시·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 수로시설 1기, 조선시대 수로시설이 1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은 동쪽에 위치한 석대산(해발 564m), 영취산(해발 779m), 병봉(해발 673m)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연결된 산지로 둘러 싸여 있는 산지와 충적지의 점이지대이다. 이곳은 주변 산지에서 공급된 퇴적물이 쌓인 선상지이며, 조사지역 역시 배후산지에서 흘러내린 퇴적물이 서쪽의 계성천 쪽으로 퇴적되면서 형성된 선상지성 곡간 충적지에 해당한다. 조사지역 일대에는 해발고도 60~90m 미만의 독립구릉이 형성되어 있으며 인근에 위치하는 계성천 방향이 현재는 인공적으로 유로가 고정된 상태이나 과거에는 계성천의 유로가 조사지역 일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지역은 과거 계단식 논으로 조성하여 경작되다가 조사 착수 시점에는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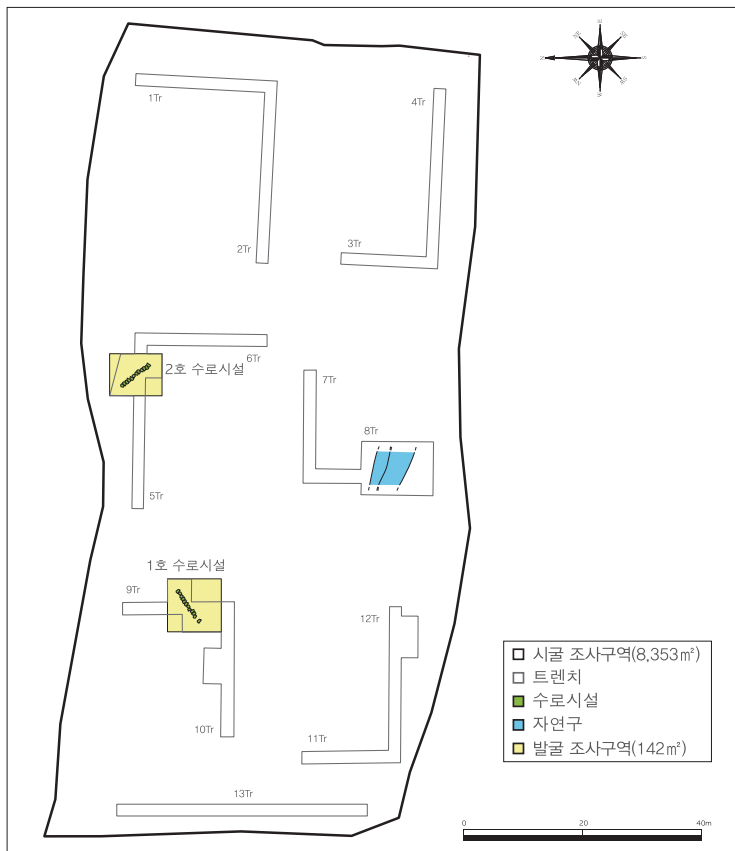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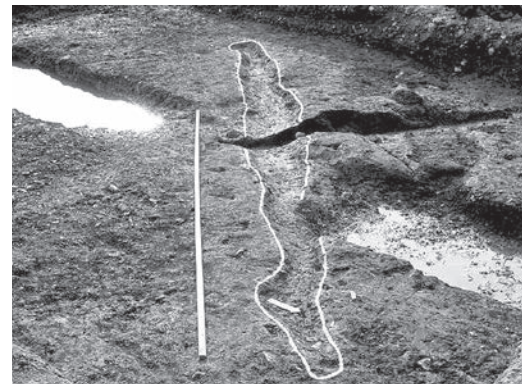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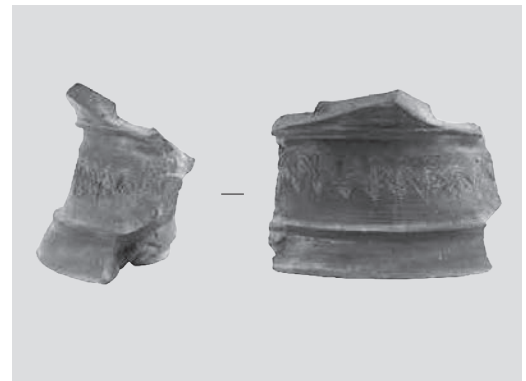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삼국시대 수로시설의 진행방향은 경사가 높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연경사를 따라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자형, 단면형태는 'U'자형, 잔존규모는 길이 750㎝, 너비 80㎝ 내외이다. 수로시설은 내부퇴적이 이루어지면서 수로의 기능이 상실되자 10~30㎝ 크기의 할석을 다량으로 채워 넣었다.

수로시설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고배 대각부 편, 완, 호 동체부 편 등으로 기존 연구 성과를 참조할 때 유구의 조성시기는 6세기대로 파악된다.

본 유적의 조사 결과, 창녕 계성지역의 생활상 규명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참고문헌

두류문화재연구원, 2016, 『창녕 사리 1119번지 내 유적-창녕 사리 창고 및 사무실 신축 부지 내 유적』.

유구 배치도

1호 수로시설

1호 수로시설 출토유물

14

창녕 계성리유적 _ 창녕 골프장 예정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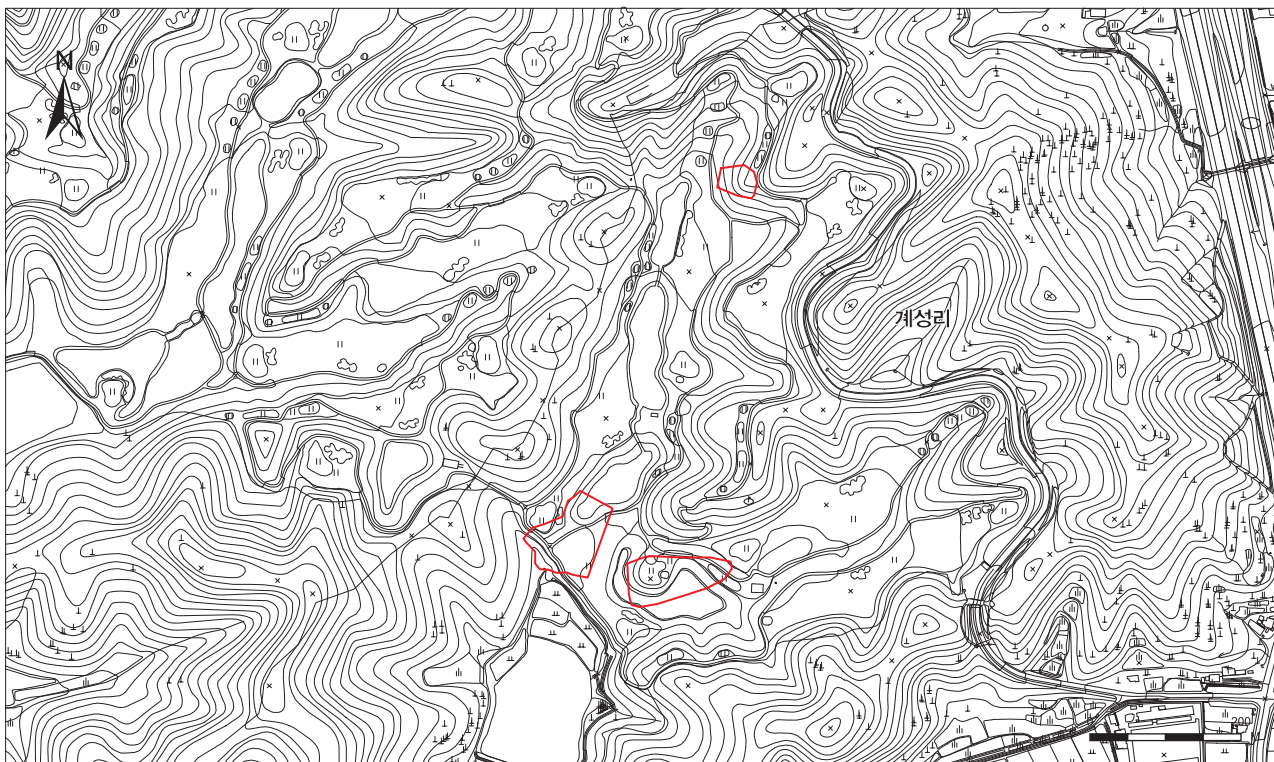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초곡리와
계성면 계성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5.8.~2006.3.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 고배,
광구소호, 발형기대,
주구토기, 이중구연호

유적 소재지인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은 남-북 방향으로 자리 잡은 창녕읍과 영산면의 가운데에 속한 곳으로 화왕산에서 발원한 계성천이 구현산(서)과 영취산(동) 사이의 좁은 곡간부를 따라 계성면을 가로질러 낙동강으로 이어진다.

조사지역은 전술한 곡간부에 형성된 충적대지와 구릉부에 입지하고 있는데, 큰골유적, 봉황골Ⅰ·Ⅱ유적으로 명명된 3개 구간으로 이격되어 분포한다.

2004년 동아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삼국시대~근대에 이르는 유물산포지가 보고되었으며, 2005년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시굴조사를 거쳐 동일 기관에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생활유적과 통일신라시대 생산유적, 고려~조선시대의 무덤·생산유적이 함께 조사되었는데, 중심이 되는 유구는 삼국시대 수혈주거지이다. 입지적으로 삼국시대 생활유적은 비교적 구릉 말단부와 가까운 고지에 조성된 반면 통일신라시대~조선시대 생산유적은 사질퇴적층이 확인되는 저지에 분포하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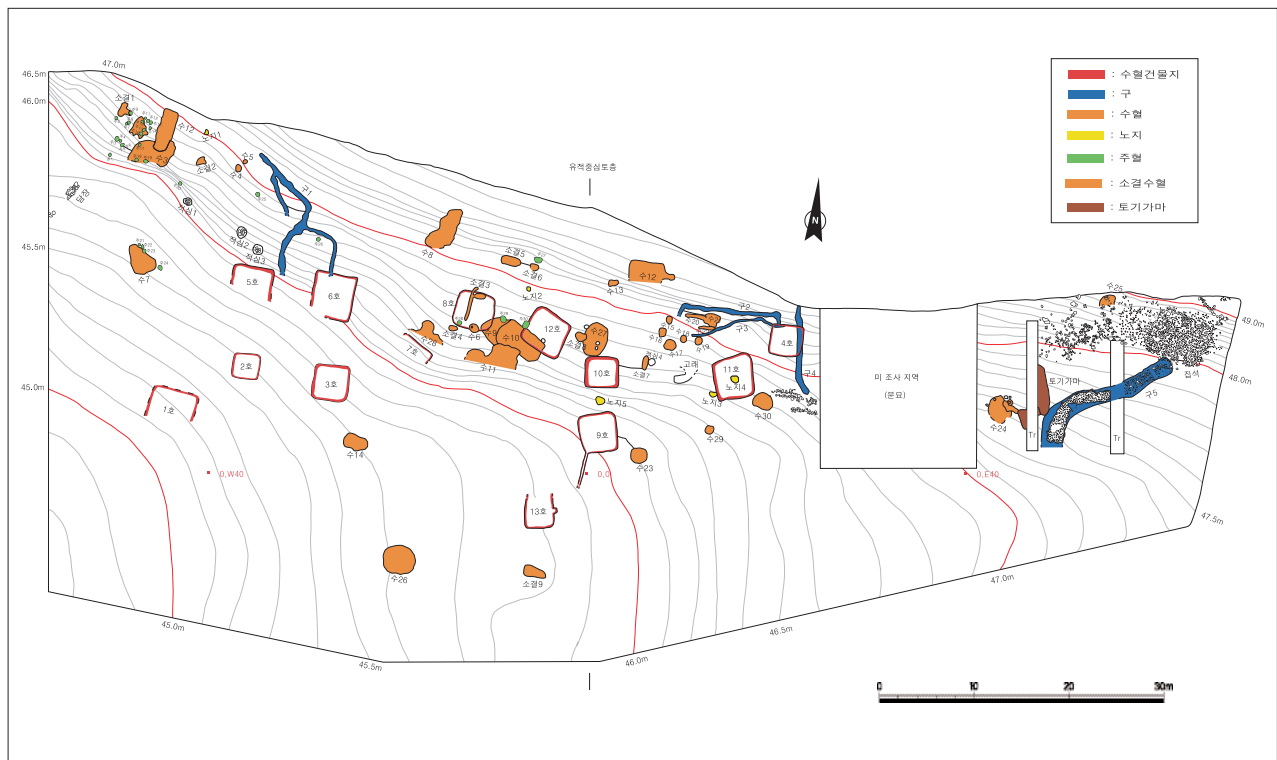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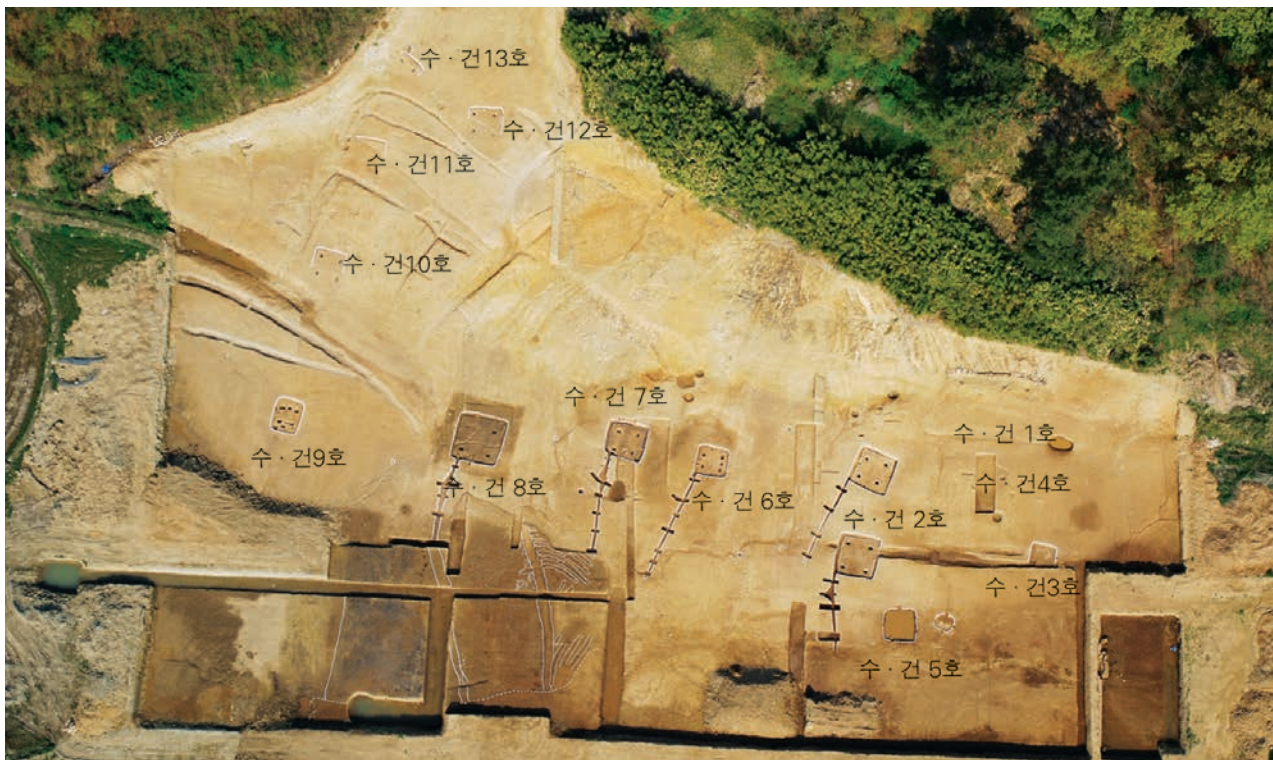
고 있으며 무덤유적은 구릉 사면부에서 일부 조사되어 시대와 유구의 성격에 따라 입지의 차이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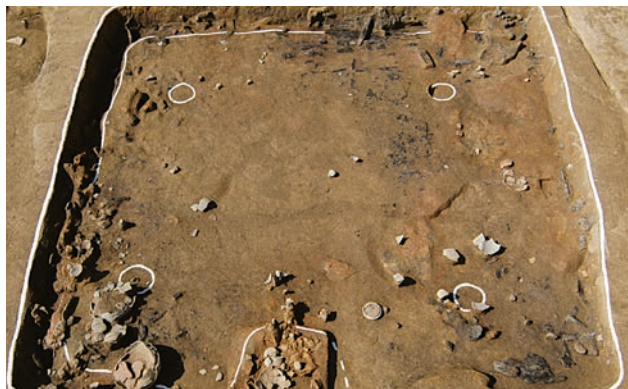
삼국시대 수혈주거지의 배치양상은 일정 간격을 두고 중복관계 없이 조성되었으며 모두 화재의 흔적이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이며 규모는 최소 6.7㎡~최대 18.5㎡로 차이가 있다. 내부시설로는 4주식 주혈, 부뚜막, 노지, 벽구, 외부돌출구 등이 조사되었는데 외부돌출구에서는 의례와 관련된 유물매납 행위가 조사되었다. 한편, 주거지와 인접하여 토기가마가 1기 조사되었으며 이는 수혈주거지 형성 시 자급자족적 성격으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야외노지와 성격불명의 수혈, 집석 등이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옹, 완, 주구토기, 시루 등의 연질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고배, 파배, 광구소호, 소형기대, 발형기대, 단경호, 이중구연호, 대호 등이 출토되었다.

계성리유적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수혈주거지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입지면에서 매우 협소한 곡간지대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 둘째, 수혈주거지의 형태나 출토유물 등에 마한지역의 영향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 셋째, 대부분의 수혈주거지에서 화재가 발생되었고 중복유구가 미확인 되어 동시기에 존재했던 유적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창녕지역의 고고학적 조사는 주로 5세기 중반 이후의 고분군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5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생활유적이 조사됨으로서 폭넓은 시기의 고고학 자료가 축적된 것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08, 『창녕 골프장 예정부지 내 창녕 계성리 유적』.

큰골 유구 배치도

큰골 2차 유적 전경

큰골 4호 수혈주거지

봉화골 8호 수혈주거지

토기류

15

창녕 영산 서리조선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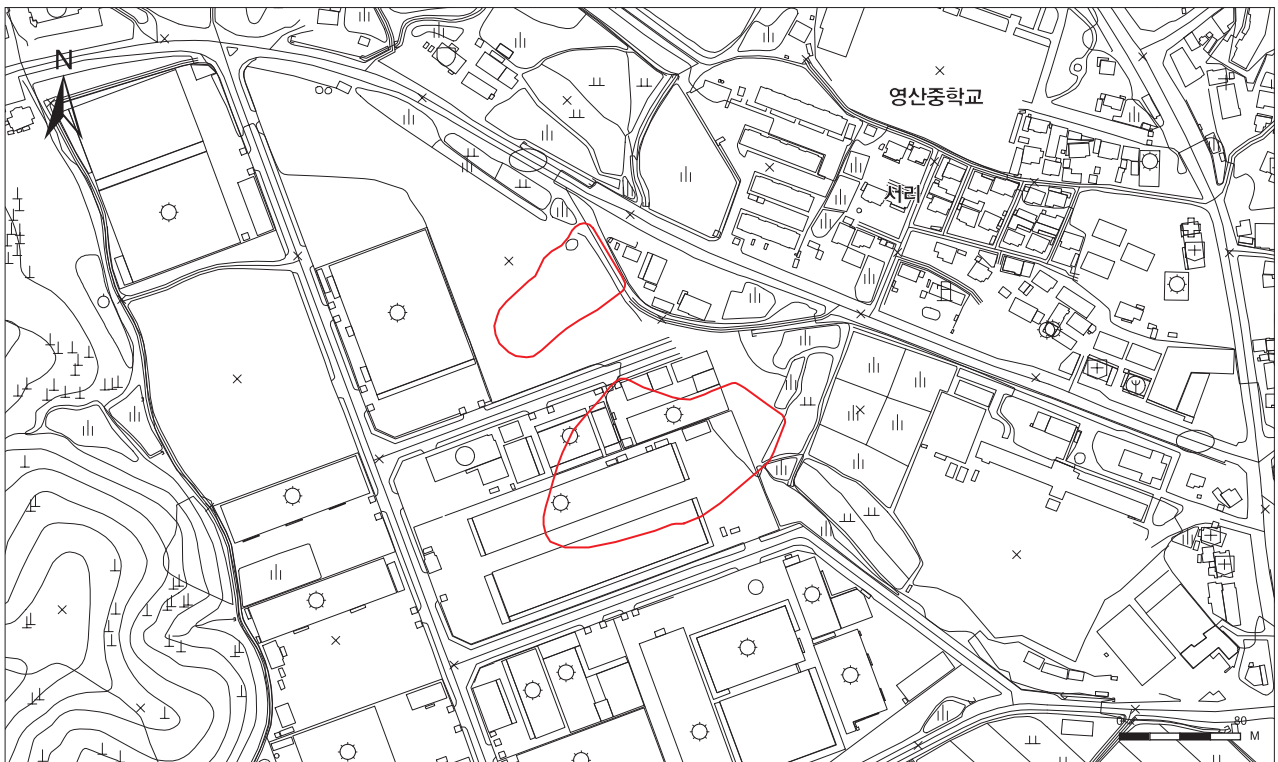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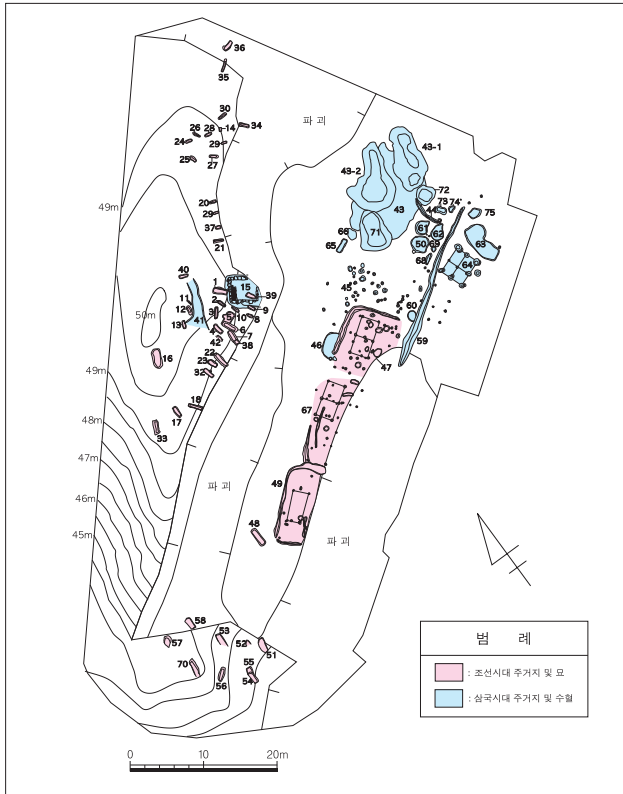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서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삼강문화재연구원 /
1차 2010.5.~2010.7.
2차 2010.11.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수혈, 석실묘 /
고배, 완, 파배, 파수부호, 단경호, 대호, 장동옹, 시루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서리 일대에 소재한 삼국·조선시대 생활·무덤유적으로 창녕군의 실시하는 창녕 영산서리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에 해당된다. 2008년 삼강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이후 동일기관에서 2010년에 시굴·표본·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3동, 고상건물지 3동, 수혈 18기, 구 3기, 석실묘 1기,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1동, 건물지 2동, 수혈 42기, 구 4기, 분묘 914기, 주혈군 1기, 근대의 수혈 1기와 분묘 20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인 서리 일대는 영산읍내의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영산면 소재지에서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곡저평야의 입구에 위치하여 경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부근으로는 크고 작은 연못이 발달해 있다. 유적은 (구)영산고등학교 서쪽에 있는 2개의 저지성 구릉과 곡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2개의 조사구간으로 이격 분포한다.

삼국시대 유구는 곡간지에 입지하며 유구의 잔존상태는 불량하다. 수혈주거지는 일

유적 위치도

서구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부만 잔존하지만 장방형 3기, 타원형 1기로 구분된다. 장방형 주거지의 규모가 타원형 주거지보다 크고 장방형주거지 내부에서는 주혈, 구, 외부구 등의 시설이 조사되었다. 고상건물지는 1×1칸이 2동, 2×2칸이 1동으로 구분되며 평면형태는 각각 방형, 장방형이다. 수혈은 유구간 중복이 심한 편이며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장방형, 부정형으로 구분된다. 수혈의 성격은 명확하지 않으나 폐기장과 주거지로 추정되거나 고상건물지와 인접하고 내부에서 피열흔과 목탄이 노출되어 노시설로 판단되었다. 석실묘는 입구부가 유실된 상태로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주구로 추정되는 구가 인접하여 조사되었다. 벽석은 1~4단이 잔존하며 시상이 마련되었다. 석실묘의 규모는 길이 550㎝, 너비 480㎝, 깊이 80~90㎝이다.

유물은 고배, 완, 파배, 단경호, 파수부호, 연질파수 편, 기대 편, 대각 편, 소옹, 장동옹, 어망추 등이 출토되었다.

참고문헌

삼강문화재연구원, 2012, 『창녕 영산 서리 조선묘군 –창녕 영산 서리 농공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

16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일리 341-3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화재재단 /
2016.8.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주혈 / 단각고배,
완, 호, 파수

창녕 일리 341-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일리 341-3번지에 소재한 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 건축주가 추진하는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대한 국비지원 발굴조사에 해당된다. 2016년 5월 대동문화재연구원에서 입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한국문화재단에서 2016년 8월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수혈 1기, 주혈군 1개소(주혈 27개), 주혈 1기가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창녕군의 남부에 위치한 도천군 일리의 중앙을 남-북으로 지나는 국도 5호선의 서쪽에 위치하는데, 지형적으로는 해발 50m 정도의 구릉 남서쪽 완사면(해발 29.4~30.4m)에 해당한다. 조상대상지는 평탄화되어 경작지로 활용되었으며, 서쪽은 도로, 남쪽은 경작지로 조성되면서 절토되어 단애면을 이루고 있다. 동쪽 경계부에는 배수구가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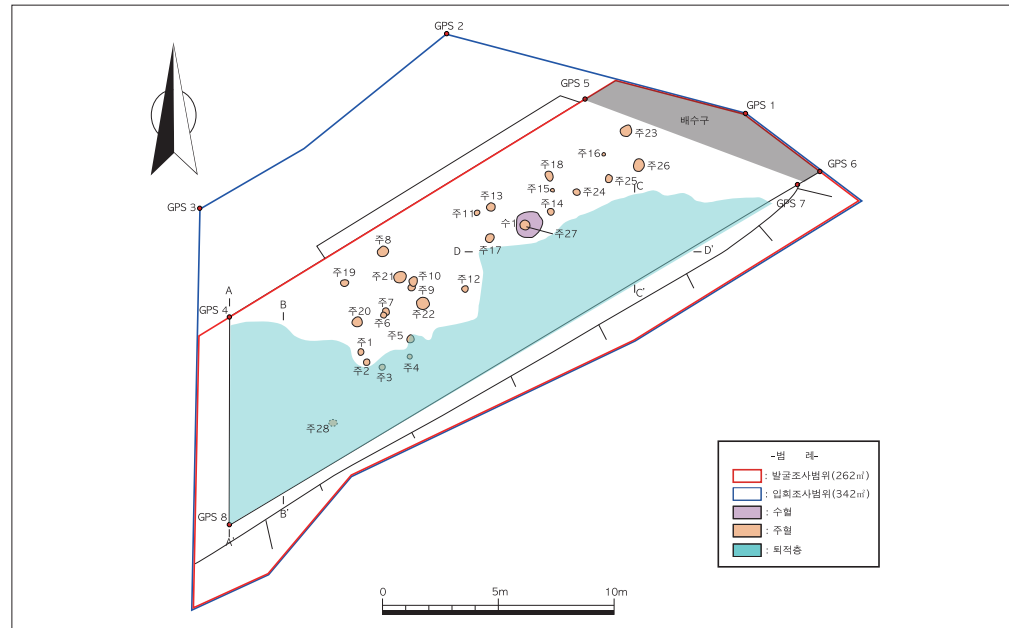
조사된 수혈은 평면형태 원형, 단면형태 'U'자형으로 규모는 직경 112㎝, 깊이 53㎝

유적 위치도

이며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혈은 일부 배치에서 관련성이 보이나 정확한 성격 및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목주흔이 잔존한다. 유물은 주혈 4호에서 격자문타날토기 편과 퇴적층에서 경질토기 잔 편들이 소량 출토되어 유적의 조성시기는 삼국시대로 추정된다.

유구의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유적의 성격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4~5세기 생활유적이 확인된 '창녕 일리유적'이 인접하고 있어 본 유적 일대로 삼국시대 생활 관련 유구가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문화재단, 2016,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 보고서-창녕 일리 341-3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문화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7 창녕 여초리토기가마터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724·81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진주박물관 /
1차 1991.10.~1991.12.
2차 1992.3.
3차 1993.11.~1994.1.

주요 유구 / 유물
토기가마 / 대호, 단경호, 노형기대, 개, 고배, 파배, 시루, 내박자, 도지미

경상남도 창녕군 여초리 724(B지구)·816(A지구)번지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산업생산 유적이다. 1990년 5월경 여초리 일대에서 실시된 경지정리사업 과정에서 처음으로 가마의 존재가 확인되어 국립진주박물관에서 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초 확인된 가마에 대해서는 1990년 12월~1991년 1월에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15세기대의 기와가마가 조사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진행된 지표조사에서 삼국시대 토기가마가 새롭게 발견되었다. 가마는 위치에 따라 A~C지구로 명명하였으며 A·B지구에 대해서는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지역인 여초리 일대는 창녕읍의 남단에 위치하며 동편의 쌍교산에서 흘러내린 낮은 구릉과 비교적 넓은 구릉간 평야가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다. A지구는 여초리와 남쪽으로 인접한 장마면 초곡리와의 경계를 이루며 동-서향으로 가로놓인 야산의 음개골 봉우리에서 북서쪽으로 완만하게 뻗어 내린 구릉 중위의 서남사면에 구축되어 있다. B지구는

유적 위치도

창락초등학교의 동편에 가로놓인 칠봉산 남사면에 형성되어 있는데, A지구와는 화전들을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 약 620m 떨어져 있고, 또 섬마마을의 진입로 좌측에 자리한 농협창고로부터는 동쪽으로 약 60m 지점에 위치한다. 유적은 낮고 완만한 구릉사면, 점토의 채취가 용이한 주변의 넓은 충적지, 인접한 하천 등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토기가마는 매우 세장한 평면형태로 축조된 무단식 등요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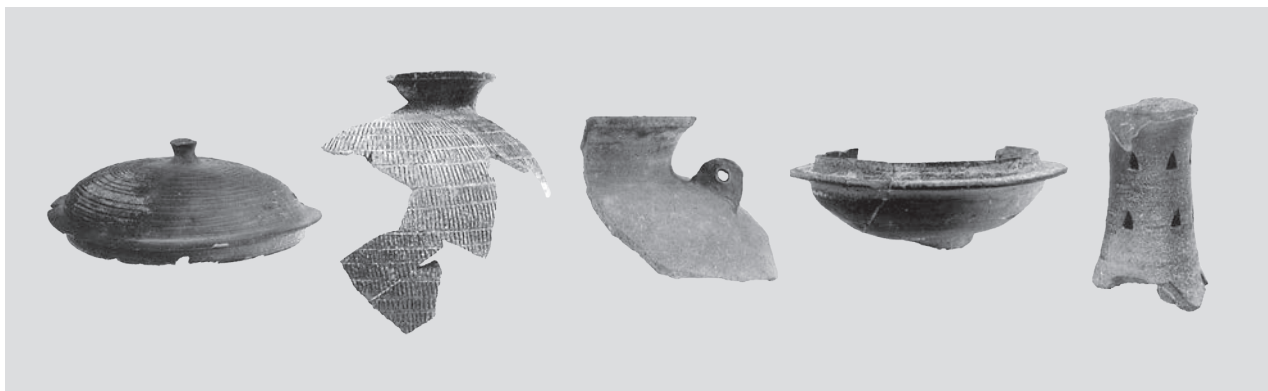
A지구의 토기가마는 지하식이며 주축방향은 N-23°-E이고 연도를 제외한 가마의 길이는 약 13m, 최대너비는 1.6m 내외이다. 구조적으로 평탄한 전반부와 경사진 후반부로 양분되는데 후반부의 경사각도는 18°내외이다.

B지구의 토기가마는 반지하식으로 추정된다. 천정부가 대부분 유실되고 화구와 연도부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주축방향은 N-15°-W, 소성실의 경사각도는 11°으로 추정되며, 잔존규모는 길이 1.22m, 최대너비 1.9m 가량이다. 소성실과 연소실의 벽체 단면 상태를 볼 때 최소한 3회 이상의 보수가 있었으나 상면에서는 수리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출토되는 토기를 살펴보면, A지구 토기가마는 대호를 중심으로 한 중대형품을 번조한 것과 달리, B지구 토기가마에서는 고배, 파배, 단경호, 노형기대, 시루 등 여러 기종

유적 원경

B지구 가마 유물 출토모습

B지구 가마

출토유물

이 출토되어 다양한 토기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유물의 편년을 통해 본 유적의 조업시기는 A지구는 4세기 후반대, B지구는 4세기 후엽~5세기 초에 해당되며,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B지구의 동쪽으로 180m 가량 떨어진 구릉에 위치한 C지구 가마는 6세기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초리토기가마터를 통해 당시에 상대적으로 조사가 미진했던 산업생산유적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창녕지역 토기문화의 성격을 규명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조사 성과가 있다.

참고문헌

국립진주박물관, 1992, 『창녕 여초리 토기가마터(Ⅰ)』.

국립진주박물관, 1995, 『창녕 여초리 토기가마터(Ⅱ)』.

18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 13-1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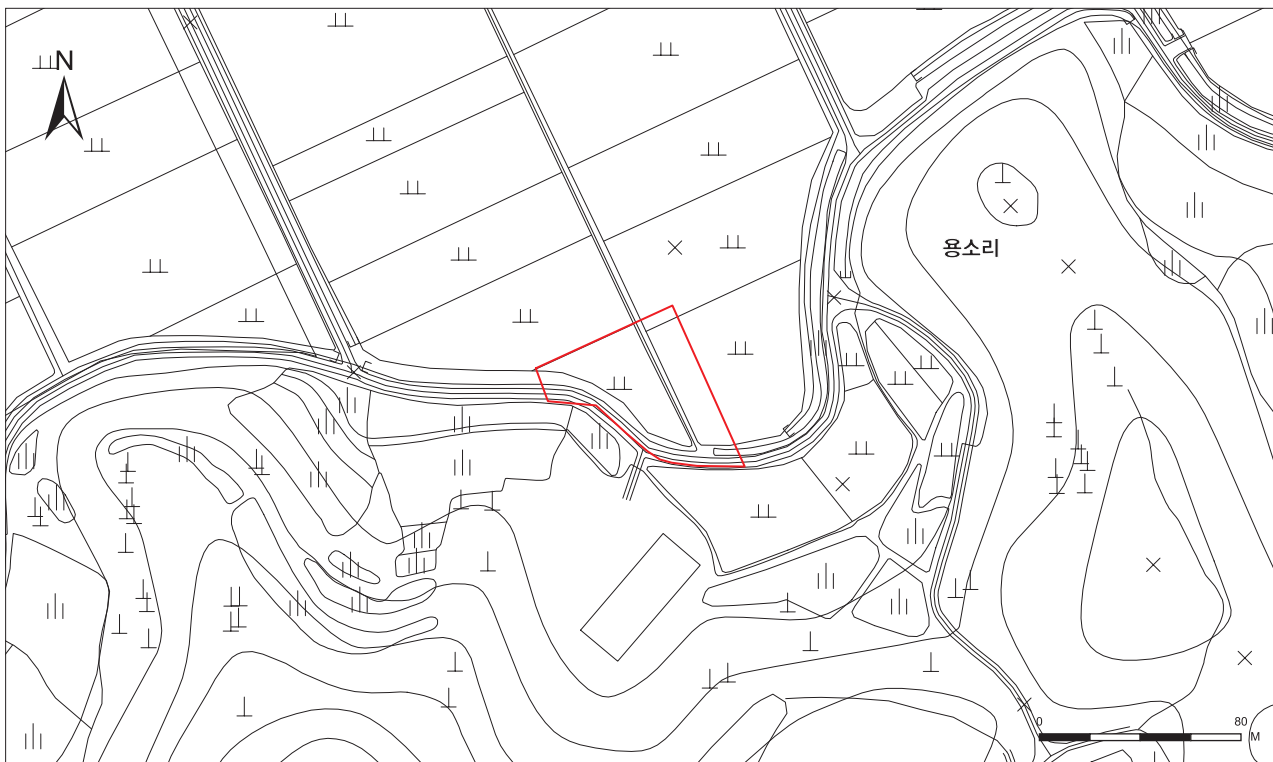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경문물연구원 / 2010.12.~2011.3.

주요 유구 / 유물
탄요 / 호 저부 편

창녕 용소리유적 _ 창녕 사몰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지구 내 유적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 13-11 일대에 소재한 삼국시대 산업생산유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몰포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부지에 해당된다. 2010년 동양문물연구원에서 현장확인조사 실시 후, 동년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분포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부경문물연구원에서 담당하였으며 조사 결과, 삼국시대 탄요 1기만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은 용소리의 서편에 있는 세거리마을의 동쪽에 위치한 삼학산에서 북서쪽으로 형성된 저산성 구릉의 말단부 및 구릉 사이의 곡부이며, 북쪽으로는 이전 사몰포 늪지를 메워 만든 '사몰포들'이 펼쳐져 있다. 현재 조사지역은 이전의 경지정리로 인하여 원지형이 상당부분 삭평되었으며, 농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조사된 탄요는 소성실의 길이가 비교적 짧고 폭이 넓은 구조이며 측구 수가 5개인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탄요 분류안에 대입해 보면, 대부분 가장 늦은 단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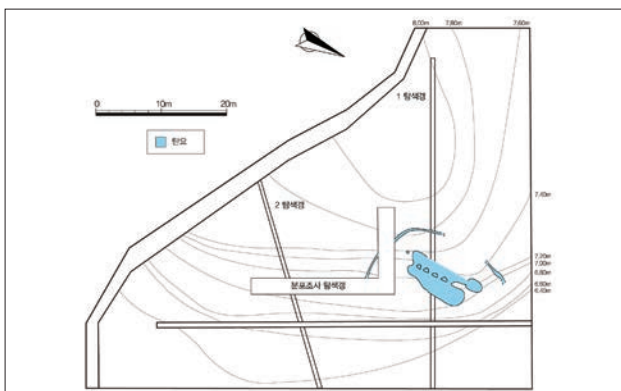
계로 편년되고, 이에 따라 5세기 후반이나 6세기 전반경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측구부 탄요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경남 서부지역에서의 조사 사례가 드문 점과 용소리탄요의 조성시기 및 창녕의 신라권 편입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용소리유적 탄요는 창녕지역이 신라에 편입된 후, 다양한 신라문화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유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탄요 1기만 조사되어 유적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창녕지역의 신라문화유입과 관련된 연구에 일조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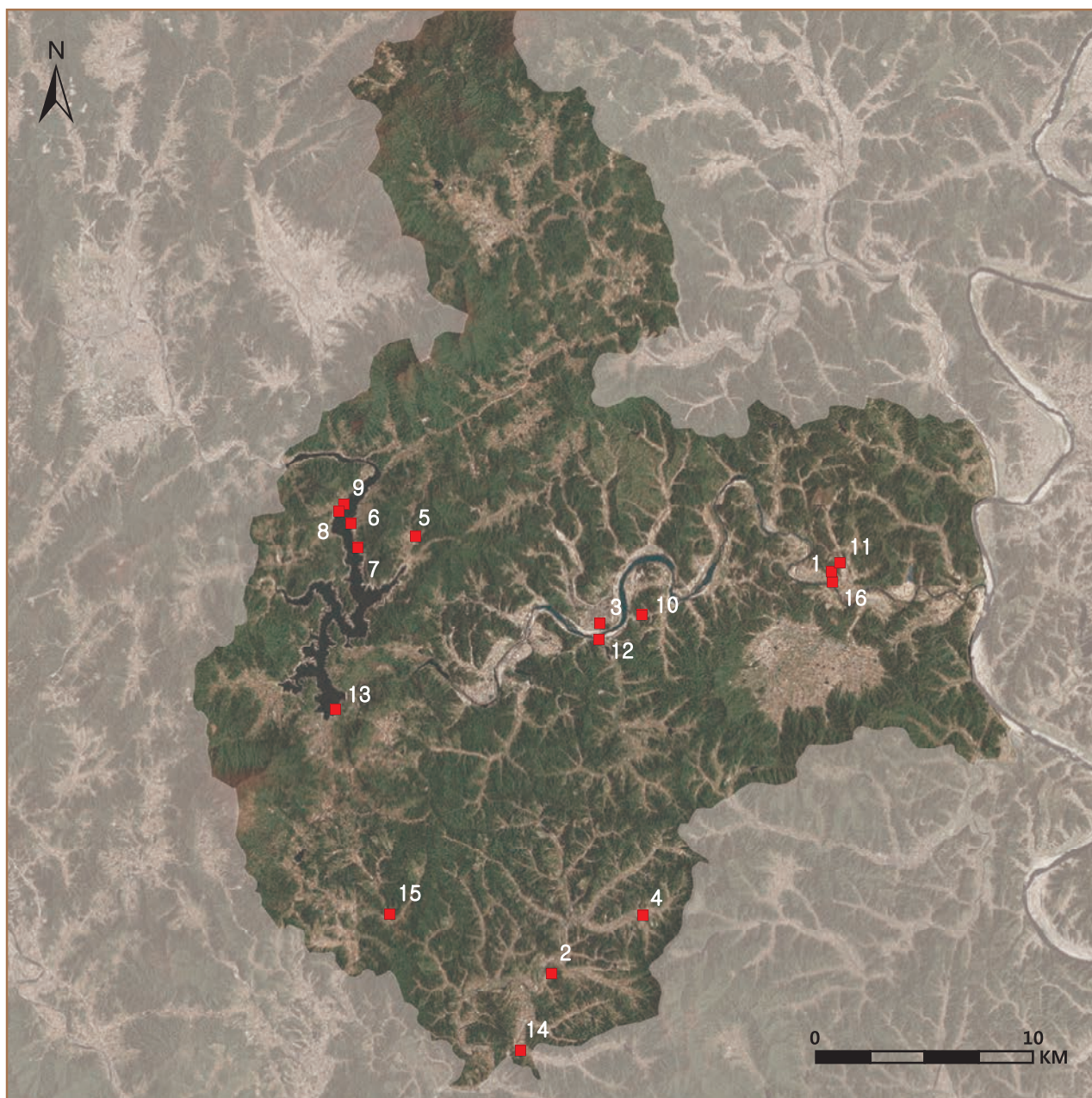
부경문물연구원, 2013, 『창녕 사몰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지구 내 창녕 용소리 유적』.

유적 원경

유구 배치도

탄요

吾道山
月光寺
冶爐
頭毛山
烏頭山
金陽
北山
陝川
澄心川
蛇頭山
黃花江
樂鶴山
淸溪山
台岩山
金城山
岳堅山
虎窟山
阿斗峴
葛項
新繁
弘道峴
馬莊山

Ⅱ. 합천

01

합천 옥전고분군

陜川 玉田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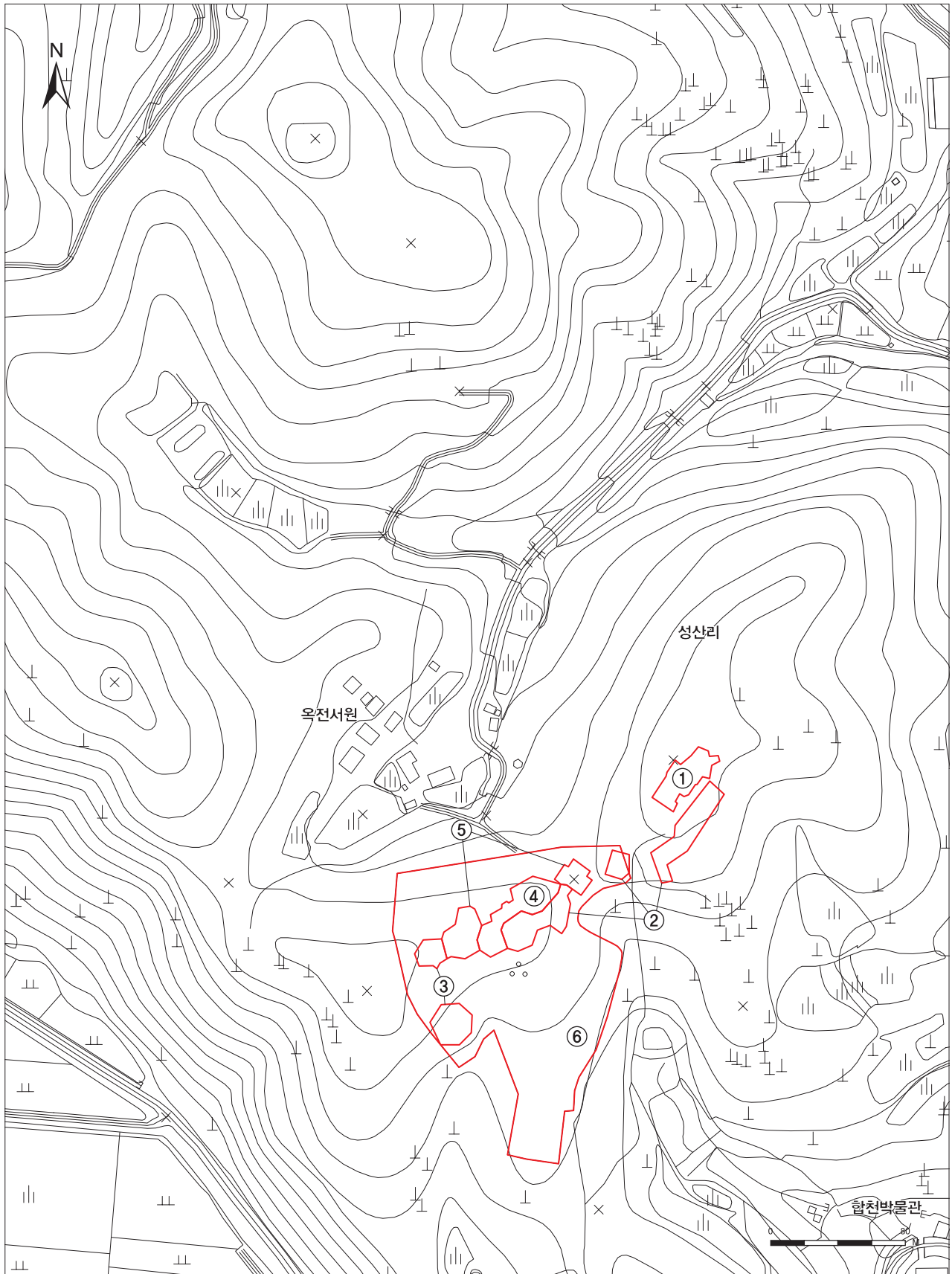
| 사적 제326호

합천군 동부의 성산리 옥전골의 서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시리봉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에 분포한다. 동쪽으로는 성산천이 흐르면서 곡간평야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황강이 곡류하면서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황강 건너 남서쪽으로는 초계분지가 넓게 발달하여 있으며, 동쪽으로 6.6㎞ 거리에서 황강이 낙동강에 합류하여 외부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이다. 남쪽으로는 다라국의 도성인 성산리성지가 위치하며, 북동쪽의 성산리 332번지 유적에는 원삼국시대의 목관묘와 목곽묘로 구성된 무덤유적이 분포한다.

1985년부터 6년간 경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5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역사서에 단편적으로 기록된 다라국 최고지배자집단의 묘역임이 확인되어 사적 제326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 동안의 발굴조사로 목곽묘 60기, 석곽묘 42기, 봉토분 9기가 조사되었으며, 봉토분은 주·부곽식의 목곽묘, 석곽묘, 횡구식석실묘, 횡혈식석실묘 등을 매장주체부로 하고 있다. 유물로는 용봉문환두대도를 비롯하여 금동관모, 금동관, 유리잔, 갑주, 장식마구, 장신구 등 2,000여 점이 출토되어 가야고분 연구에 있어서 표지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옥전고분군의 형성은 4세기 전반대로 추정되며, 5세기 전반대까지의 주묘제는 목곽묘이고, 5세기 말까지 지속된다. 4세기대 목곽묘는 장방형의 얕은 묘광에 목곽을 설치하며, 길이 4m, 너비 2m 미만의 소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4세기 후반대에는 54호분과 같이 중·대형의 위석식목곽묘가 출현한다. 부장된 유물은 토기가 중심이며, 와질토기의 영향을 받은 유개고배, 대부호, 문양개와 함께 양이부통형배가 많이 제작되는 특징을 보인다.

5세기 전반대가 되면 목곽묘는 대형화되며, 바닥에는 관대나 시상이 채용된다. 유개고배와 장경호, 발형기대와 같은 새로운 기종이 출현하며, 금속유물에 있어서도 앞 시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갑주와 마구, 이식 등이 확인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에 있어서 주목되는 고분은 23호분이며, 묘광은 길이 7.2m 너비 4.6m 정도로 장방형이고, 깊이도 1.2m로 훨씬 깊어진다. 목곽과 묘광 사이에 할석을 채우고, 바닥에는 할석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부장유물도 동시기의 다른 고분보다 월등하며, 금동장관모, 금동장투구, 금동장마구, 마주 등이 확인되어 다라국 최초의 수장묘로 인식되고 있다.

옥전고분군은 5세기 중엽이 되면, 기존의 대형 목곽묘가 조영되던 구릉에서 서쪽으로 묘역이 이동되어 거대한 봉토분이 조영되기 시작한다. 특히 M1호분의 경우 거대한 봉분의 채용, 격벽에 의해 주·부곽이 분리된 목곽묘, 순장곽의 배치, 무기와 무구, 마구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합천 옥전고분군 -1차 발굴조사 유적	경상대학교박물관	1985.11.~1986.1.	합천 옥전 고분군 1차 발굴조사개보(1986) 합천 옥전 고분군Ⅰ-목곽묘(1988) 합천 옥전 고분군Ⅵ-23·28호분(1997) 합천 옥전 고분군Ⅶ-12·20·24호분(1998) 합천 옥전 고분군Ⅷ-5·7·35호분(1999)
2	합천 옥전고분군 -2차 발굴조사 유적	경상대학교박물관	1987.11.~1988.2.	합천 옥전 고분군Ⅰ-목곽묘(1988) 합천 옥전 고분군Ⅱ-M3호분(1990) 합천 옥전 고분군Ⅲ-M1·M2호분(1992) 합천 옥전 고분군Ⅸ-67-A·B, 73~76호분(2000)
3	합천 옥전고분군 -3차 발굴조사 유적	경상대학교박물관	1989.4.~1989.6.	합천 옥전 고분군Ⅴ-M10·M11·M18호분(1995)
4	합천 옥전고분군 -4차 발굴조사 유적	경상대학교박물관	1991.7.~1991.10.	합천 옥전 고분군Ⅲ-M1·M2호분(1992) 합천 옥전 고분군Ⅳ-M4·M6·M7호분(1993) 합천 옥전 고분군Ⅸ-67-A·B, 73~76호분(2000)
5	합천 옥전고분군 -5차 발굴조사 유적	경상대학교박물관	1991.12.~1992.2.	합천 옥전 고분군Ⅳ-M4·M6·M7호분(1993) 합천 옥전 고분군Ⅹ-88~102호분(2003)
6	합천 옥전고분군 -시굴조사 유적	경상대학교박물관	1994.3.~1994.4.	합천 옥전 고분군Ⅹ-88~102호분(2003)

의 다량 부장 등 새로운 모습이 보인다. 활발한 대외교류를 보여주는 창녕계 토기와 신라계의 마구, 유리잔(Roman-glass) 등도 부장되고 있다. 이처럼 M1호분을 중심으로 이 시기에 보이는 변화는 옥전고분군의 축조집단이 이전 시기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5세기 후엽부터 6세기 초가 되면 다라국의 최전성기를 대변하는 M3호분을 비롯하여 M4, M7호분 등이 조영된다. 5세기 후엽의 M3호분은 전대의 묘제를 계승하면서도 121매의 주조철부를 관대로 사용하거나 극히 화려한 용봉문환두대도를 4자루나 매납하는 등 당시의 한반도 내의 어떤 왕릉급 고분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보여준다. 그리고 6세기 초가 되면 M7호분과 같이 전대의 묘제 전통이 지속되는 한편, 비교적 중형급의 봉토분인 M4호분과 같이 대가야식의 세장방형 석곽이 채용된다. 토기를 비롯한 대가야계 유물이 다수 부장되며, 이는 옥전고분군 축조집단의 독자성이 쇠퇴하면서 대가야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은 결과로 이해된다.

이후 6세기 전반대에는 M6호분과 횡구식석실묘를 매장주체부로 하는 M10호분이 조영된다. M6호분은 M4호분과 같은 석곽묘인데, 대가야식 토기를 중심으로 신라계의 파수부배와 출자형금동관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또한 M10호분에서 확인되는 횡구식석실의 구조와 박장은 신라지역에서 유행한 특징적인 묘제와 장법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현상은 대가야와 신라의 친연관계를 배경으로 대가야의 영향 아래에 있던 옥전고분군에 신라계의 문물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가야가 멸망하는 562년 직전에 축조된 M11

호분은 연도가 오른쪽에 있는 횡혈식석실묘이며, 금제이식, 은제마구, 금동장관정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연화문의 관장식과 금동장관못은 백제의 웅진시기 고분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백제고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축조된 고분으로 판단된다. 이후 지배자급의 대형 봉토분은 더 이상 축조되지 않고, 다라국의 멸망과 함께 고분군의 중심묘역에서 이격된 위치에 M28호분과 같이 신라의 횡혈식석실묘가 축조되고 있다.

합천 옥전고분군은 가야의 대표적인 중심고분군으로 연차 발굴조사를 통해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가야사 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역사서에 부분적으로 기록된 다라국의 실체를 규명하게 되었고, 4세기대부터 가야 멸망까지 성장과 발전, 쇠퇴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다.

01-1 합천 옥전고분군 _ 1차 발굴조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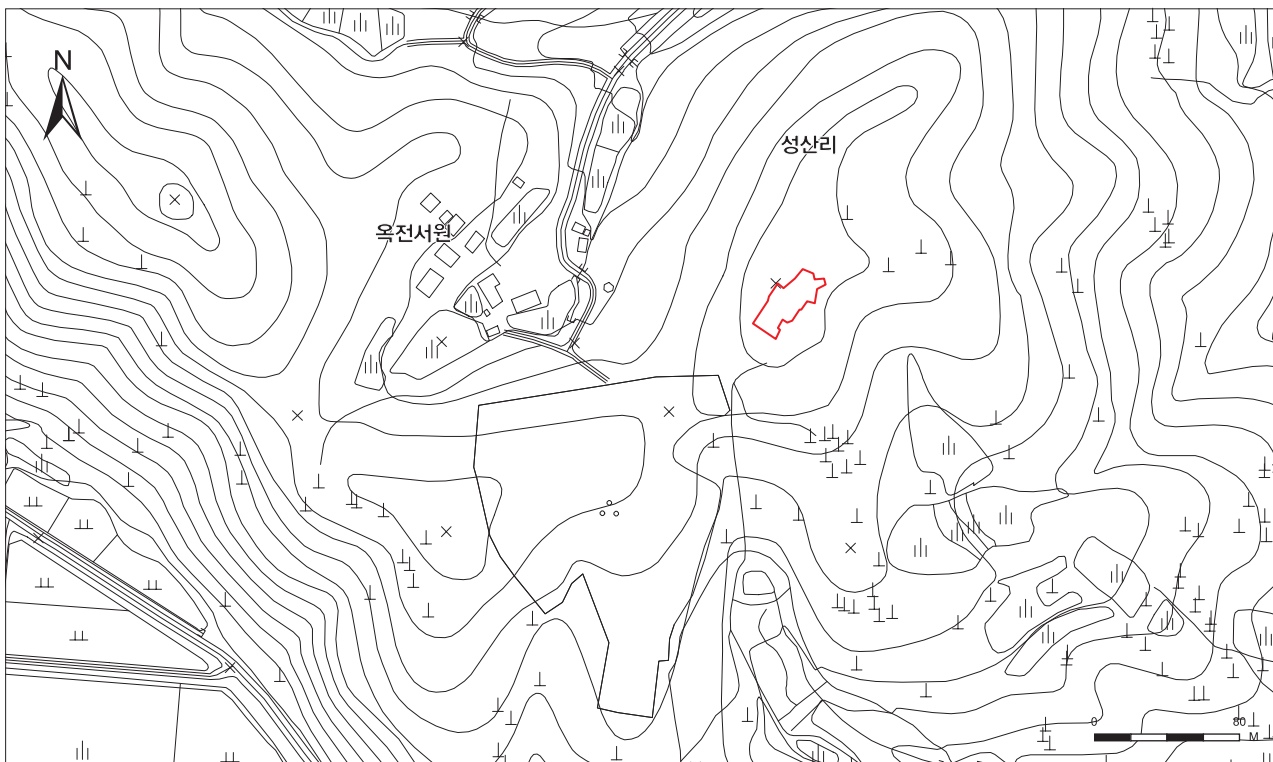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9·2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1985.11.~1986.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금동장관모, 금동장주, 장식대도, 마주, 마갑, 이식

옥전고분군은 1985년 여름에 황강 하류역에 대한 지표조사 중에 경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해 겨울에 1차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는 봉토분이 군집되어 있는 구릉의 북동쪽 구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조사 결과, 1~48호분으로 명명된 목곽묘 36기, 석곽묘 12기, 옹관묘 2기 등 모두 50여 기가 확인되었다. 각종 토기를 비롯하여 금동장관모, 금동장주, 찰갑, 장식대도, 마주, 마갑 등 760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25호분은 4세기대 고식도질토기를 부장하고 있는 길이 4m 정도의 중형급 목곽묘로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목곽묘는 5세기 이후 축조된 대형 목곽묘에 의해 파괴된 상태이다. 2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남동쪽 사면 아래의 동시기 목곽묘와 같이 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영되어 있으며, 고배와 무파수노형기대, 단경호 등을 주로 부장하고, 철겸이나 철부와 같은 농공구가 일부 확인된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고분은 23호분이며, 5세기 전반대에 다라국 수장급에 해당

유적 위치도

되는 대형 목곽묘이다. 봉분은 잔존하지 않으나, 목곽 내 함몰 양상을 보아 적어도 높이 1.3m 이상의 봉분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주체부는 길이 685㎝, 너비 450㎝ 정도의 묘광을 굴착한 후, 내부에 길이 530㎝, 너비 180㎝의 목곽을 설치하였다. 바닥에는 납작한 할석을 이용하여 목관의 범위보다 약간 넓게 시상을 마련했다. 유물은 토기, 무기, 갑주, 마구,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는데, 피장자 부근에서 금동장관모, 금제이식, 도검이 출토하였으며, 머리 쪽에는 성시구, 철촉, 마구, 발치 쪽에는 토기를 각각 부장하였다. 4세기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대와 비교하여 고분의 규모나 구조, 부장유물에서 획기적인 특징이 간취되며, 23호분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정치집단이 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5세기 전반대의 23호분 남쪽으로도 중대형의 목곽묘가 5세기 후반대까지 조영되고 있으며, 특히 28호분이나 35호분에서는 장식대도와 갑주, 마주, 마갑 등 다량의 무기 부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1차 발굴조사를 통해서 옥전고분군은 4세기 무렵부터 가야가 멸망하는 562년까지 약 250년 동안에 조영된 서부경남 최대의 고분군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각종 토기와 금동장관모와 투구, 마주 등 희귀한 자료가 출토됨으로서 가야고분 연구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강력한 세력을 가진 가야의 정치집단에 의해 조영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막연히 합천 일대로 비정되고 있던 다라국의 유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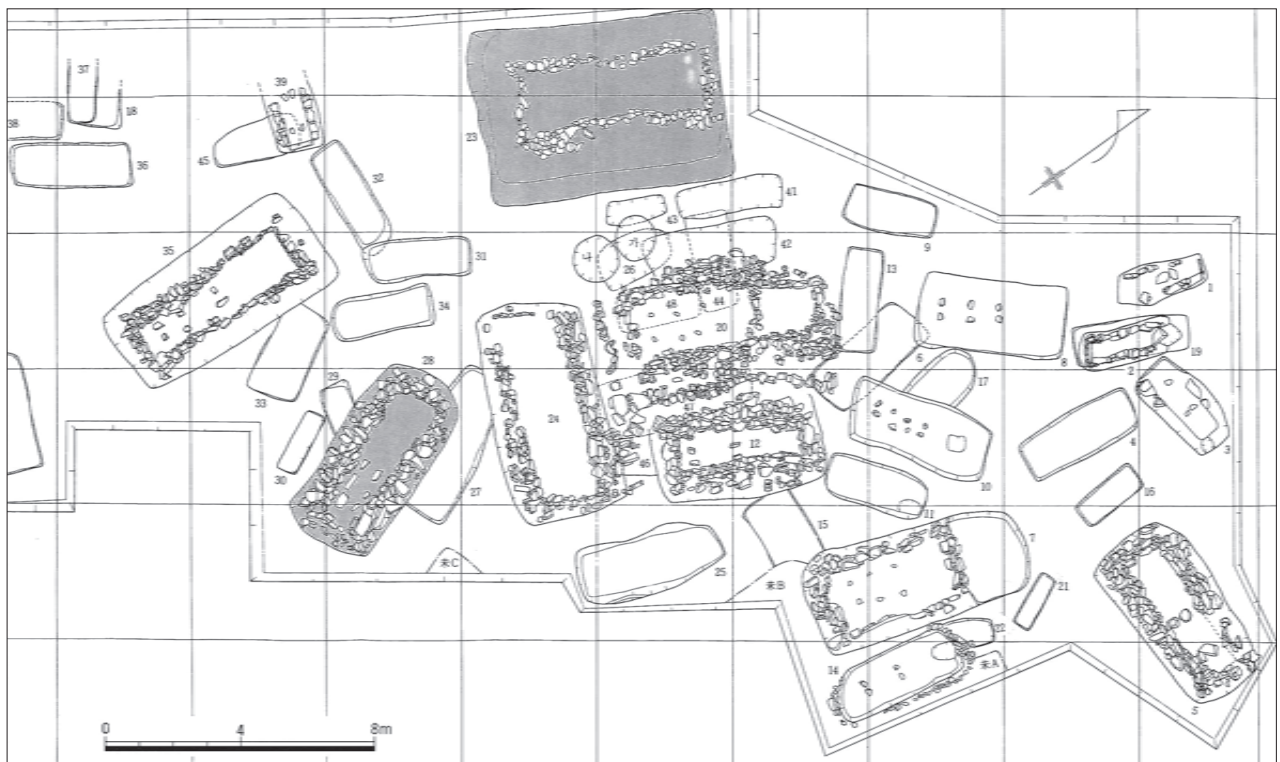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1986, 『합천 옥전 고분군 1차 발굴 조사 개보』.

경상대학교박물관, 1988, 『합천 옥전 고분군 Ⅰ –목곽묘–』.

경상대학교박물관, 1997, 『합천 옥전 고분군Ⅵ –23·28호분–』.

경상대학교박물관, 1998, 『합천 옥전 고분군Ⅶ –12·20·24호분–』.

경상대학교박물관, 1999, 『합천 옥전 고분군Ⅷ –5·7·35호분–』.

유구 배치도

23호분

23호분 출토 금동장관모

23호분 출토 금동제투구

23호분 출토 성시구

35호분

35호분 출토 이식

35호분 출토 환두대도 · 유자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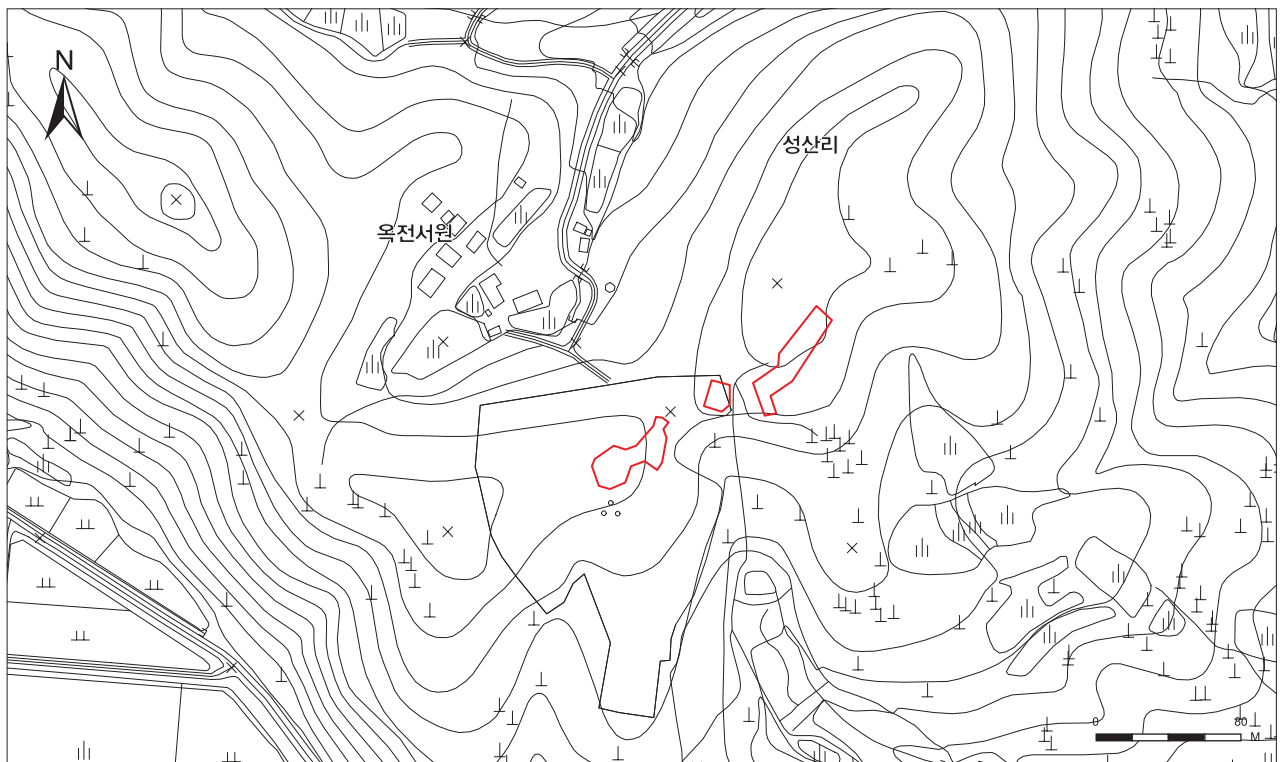
01-2 합천 옥전고분군 _ 2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9·2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1987.11.~1988.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봉토분 / 용봉문환두대도, 금동장주, 금동장 마구, 마주

2차 발굴조사는 북동쪽에 분포하는 대형 목곽묘와 남서쪽에 분포하는 대형 봉토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1987~1988년에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대형 봉토분이 밀집하고 있는 구릉의 서쪽에 분포하는 M2·M3·M18호분 등 3기의 봉토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시에 양 구릉 사이를 연결하는 사면부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주·부곽식의 대형 목곽을 매장주체부로 하는 봉토분과 함께 49~72호분으로 명명된 목곽묘 20기, 석곽묘 7기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로는 M3호분에서 출토된 다량의 용봉문환두대도와 갑주, 마구, 장신구 등을 포함하여 882점이다.

조사에서 1차 발굴조사 구역의 남서쪽 사면부에서 열상으로 조영된 4세기대 중소형 목곽묘가 다수 확인되었다. 49호분은 세장한 형태의 목곽묘로 전형적인 옥전고분군의 4세기대 토기가 부장되고 있으며, 54호분은 다량의 석재로 보강한 4세기대의 장방형 목곽묘로 5세기대에 중심을 이루는 대형 목곽묘의 초현기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5세기

유적 위치도

전반대에 해당하는 67-A호분과 67-B호분은 사면 아래쪽에 서로 나란하게 병렬 조영되어 있으며, 상감대도를 비롯하여 갑주나 마구를 다량으로 부장하는 계층이 더욱더 확산되었음이 밝혀졌다.

대형 봉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봉분의 직경이 20m 정도에 달하는 옥전 최대의 고분인 M3호분이 조사되었다. 타원형의 봉분 가장자리에는 호석이 설치되었고, M3호분의 순장곽으로 추정되는 소형의 석곽묘가 인접하고 있다. 매장주체부는 위석식의 목곽묘로 격벽을 설치하여 주곽과 부곽을 구분하였으며, 길이 10.6m, 너비 2.7m, 높이 1.6m 정도이다. 출토된 유물로는 가야고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양상이며, 4자루의 용봉문환두대도와 함께 4세트의 금동장마구, 철제의 갑옷과 투구, 마주 등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곽의 중앙에는 주조철부 121점을 깔아 관대로 사용하였으며, 부곽에는 전형적인 대가야양식의 유개고배, 유개장경호, 발형기대와 함께 순록과 같은 큰 사슴이 부장되었다.

4세기대 이후 옥전고분군의 변천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다라국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M3호분에 대한 조사로 주목을 받았다. 4자루가 출토된 용봉문환두대도는 옥전고분군은 물론 다른 가야지역의 왕릉급 고분과 비교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반영하며,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와의 관계 등 여러 가야 정치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1988, 『합천 옥전 고분군 I -목곽묘-』.

경상대학교박물관, 1990, 『합천 옥전 고분군 II -M3호분-』.

경상대학교박물관, 1992, 『합천 옥전 고분군 III -M1·M2호분-』.

경상대학교박물관, 1995, 『합천 옥전 고분군 -M10·M11·M18호분-』.

경상대학교박물관, 2000, 『합천 옥전 고분군 IX -67-A·B, 73~76호분-』.

유적 전경

M2호분

M2호분 출토 이식

M2호분 출토 경식

M3호분

M3호분 유물 출토모습

M3호분 이식 출토모습

M3호분 용봉문환두대도 출토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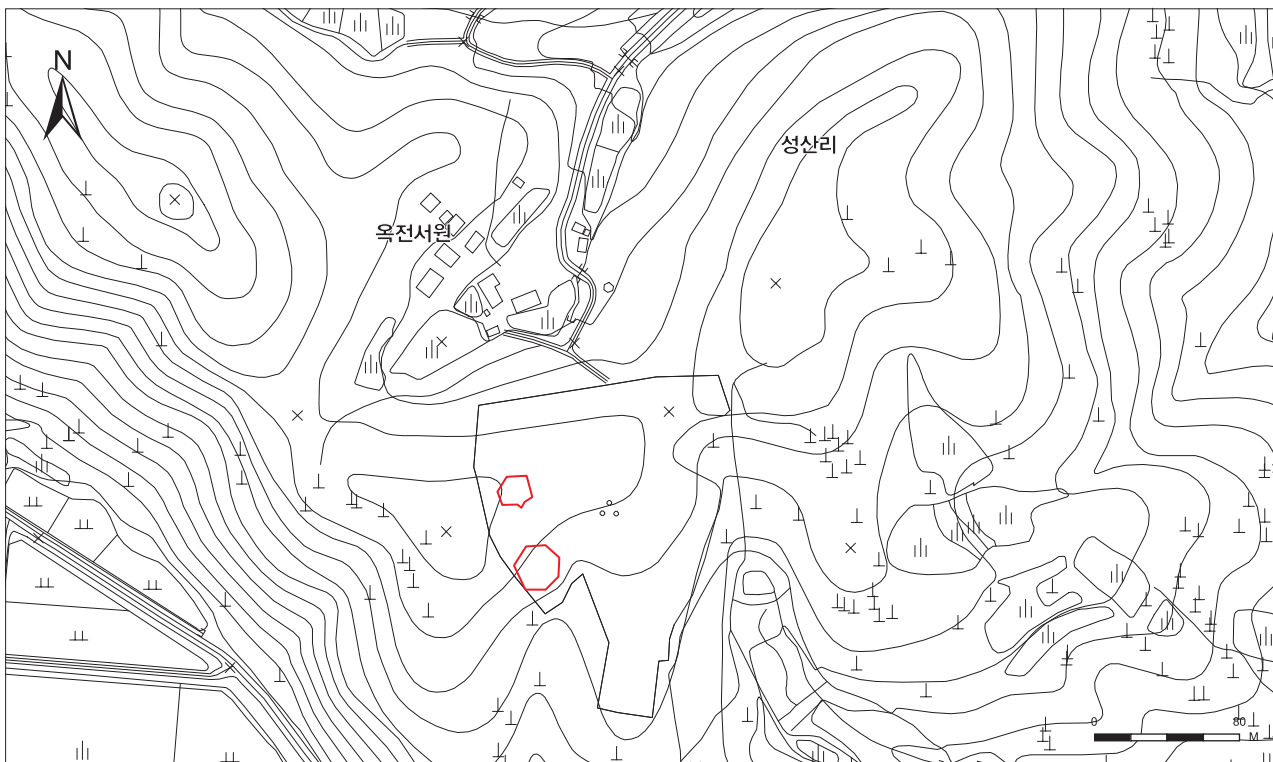
01-3 합천 옥전고분군 _ 3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9·2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1989.4.~1989.6.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 고배, 대금구, 수하부이식, 연화문 관장식구, 금장관정

1988년에 옥전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1989년에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3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고분군의 서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M10·M11호분 등 2기의 봉토분을 대상으로 하였고, 인접하여 조영된 3기의 소형 석곽묘도 조사되었으며, 대금구, 수하부이식, 연화문관장식구, 금장관못 등 54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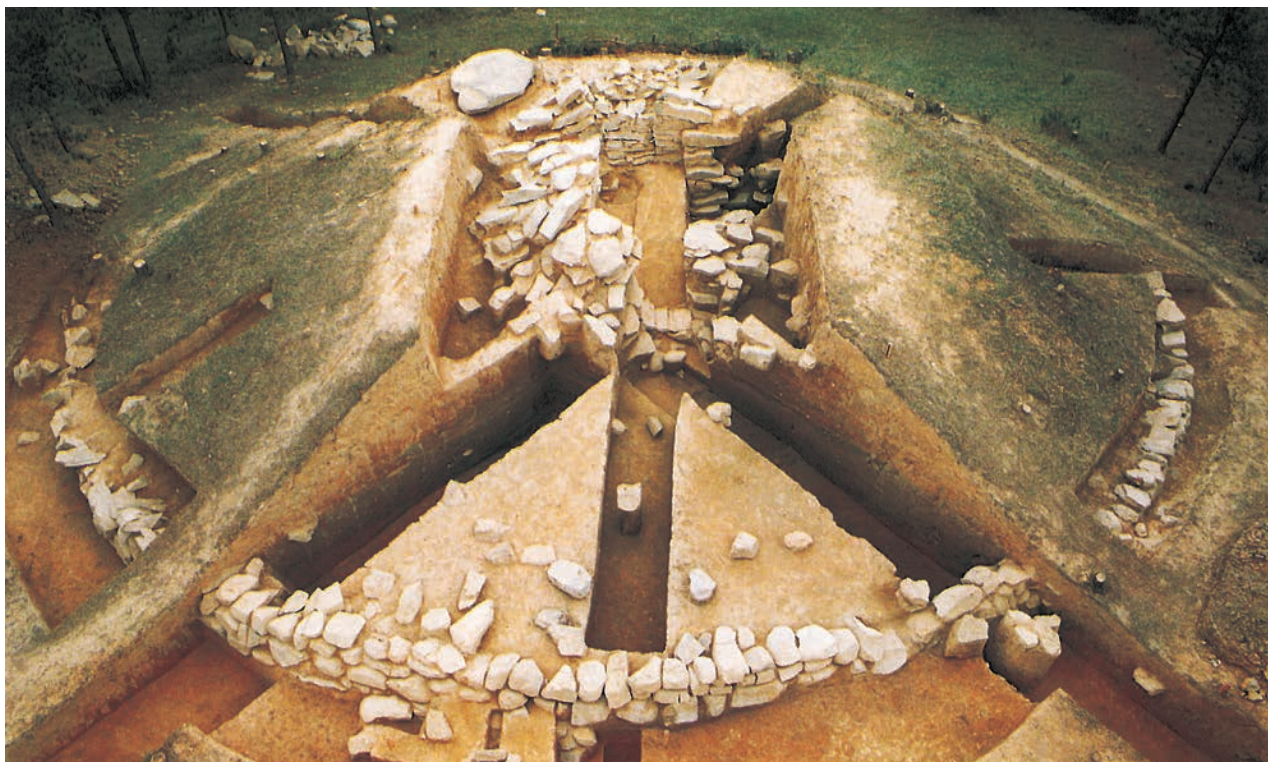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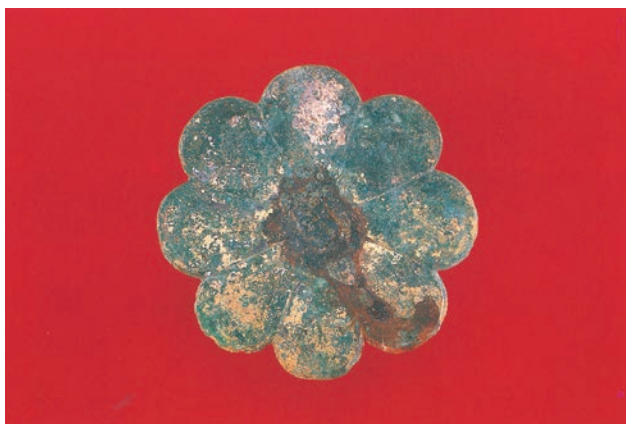
M10호분은 횡구식석실묘이며, M11호분은 횡혈식석실묘로 선행 조사에서 확인된 목곽묘나 석곽묘와는 전혀 다른 묘제가 확인되었다. M10호분은 직경 12.4m 정도의 중형급 봉토분으로 묘도가 부채꼴처럼 벌어지는 지상식의 횡구식석실묘이다. 일반적으로 석실을 구축하는 요소인 천장석이 사용되지 않고, 목개를 사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물은 대가야양식의 고배를 비롯한 토기나 이형유자이기가 출토되는 등 박장의 양상이 뚜렷하다.

유적 위치도

M11호분의 봉분은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가장자리의 낮은 쪽은 6~7단, 높은 쪽은 3~4단 정도로 호석이 돌아가며, 다른 봉토분에 비해 호석이 정연하게 쌓여 있다. 호석의 직경은 18m로 원형을 이루며, 연도가 오른쪽에 달린 횡혈식석실로 현실은 길이 3.7m, 너비 1.9m, 높이 2.3m로 장방형을 이룬다. 현실의 바닥에는 작은 역석을 전체적으로 깔아서 시상을 마련하였다. 유물은 현실 내부에서 토기를 비롯하여 금동식리 편, 은제대금구, 수하부이식과 함께 은판을 덮은 운주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목관의 장식에 사용된 38점의 관못과 연화문장식구 등이 출토되었으며, 못머리를 금판으로 덮어씌운 점은 백제의 왕릉이나 최상위계층의 고분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다라국과 백제의 관계를 반영한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서 6세기 중엽의 묘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행 조사에 확인되지 않았던 횡구식과 횡혈식석실묘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로써 전체적인 옥전고분군의 축조 방향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라국 후기에 백제나 신라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1995, 『합천 옥전 고분군Ⅴ－M10·M11·M18호분－』.

M10호분

M11호분

M11호분 출토유물

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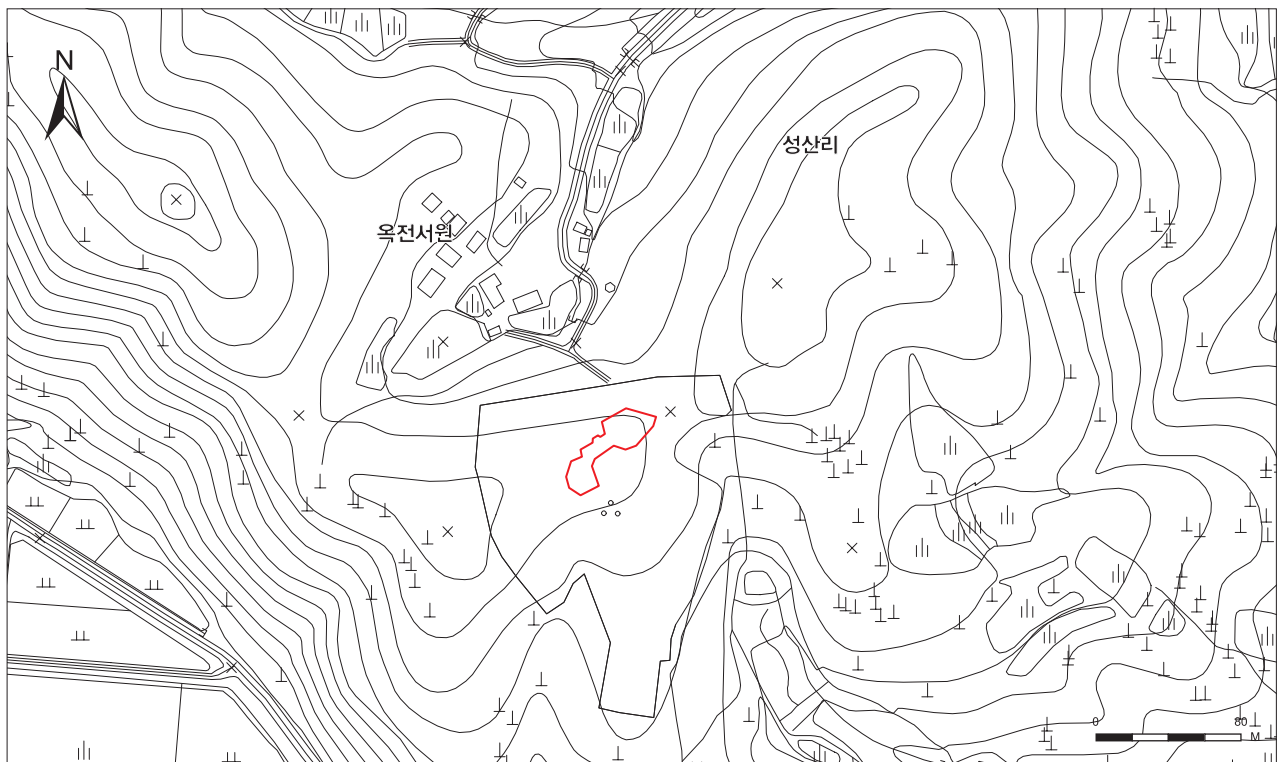
합천 옥전고분군 _ 4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9·2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1991.7.~1991.10.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봉토분 / 유리잔, 단봉문환두대도, 철모, 재갈, 안장

4차 발굴조사는 고분군에 대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에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2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다라국의 왕묘인 M3호분의 북서쪽에 인접하여 분포하는 M1호분과 M4호분을 대상으로 하였다. 2기의 봉토분과 함께 주변에서 73~84호분, 87호분에 해당하는 석곽묘 15기가 확인하였고, 유리잔, 단봉문환두대도, 철모, 마구 등 354점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M1호분의 봉분은 동서 19.5m, 남북 21.4m로 타원형을 이루며, 봉분의 가장자리에는 호석을 설치하고 3기의 순장곽을 배치하였다. 매장주체부는 위석식의 목곽묘로 격벽을 설치하여 주곽과 부곽을 구분하였으며, 길이는 7.5m, 너비는 1.85m이다. 출토된 유물은 창녕지역과 유사한 양식의 유개고배를 비롯하여 11자루의 환두대도와 대도, 10점의 철모와 물미, 300여 점에 이르는 철촉, 3세트의 마구가 다량으로 부장되었다. 출토유물에 있어서 창녕 혹은 신라계 유물이 집중적으로 부장되고 있어 주목되며, 특히 로만글

유적 위치도

라스로 불리는 유리잔은 한반도에서 신라의 경주지역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확인된 자료이다. M1호분은 옥전고분군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봉토분으로 거대 봉분의 축조, 격벽에 의한 분리된 주부곽의 목곽묘, 순장의 시행, 유물의 복수부장 등을 특징으로 한다.

M4호분은 M3호분의 서쪽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봉분의 직경은 15m 정도로 중형급에 해당한다. 봉분의 가장자리를 따라 호석을 설치되었으며, 매장주체부는 길이 9.5m, 너비 1.45m 정도로 평면 세장방형을 띠는 석곽이다. 기존의 대형 봉토분 매장주체부와 달리 비교적 반듯한 할석을 이용하여 측벽을 정교하게 쌓았고, 피장자가 안치된 부분에는 납작한 판석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석곽의 개석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봉토분과 마찬가지로 목개를 사용하는 전통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시상을 설치하여 피장자가 안치된 부분에서는 단봉문환두대도 2점과 철촉, 성시구, 장식마구, 금제이식 등이 출토되었으며, 서단벽 쪽의 부장공간에는 대가야양식의 단경호와 장경호, 기대 등의 대형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6세기 전반대로 편년되는 봉토분으로 석곽의 형태가 고령지역 석곽과 같은 세장방형으로 변화하고, 대가야계 유물이 집중적으로 부장되는 점에서 대가야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는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의 조사에서 다라국 최전성기의 모습을 웅변하고 있는 M3호분과 관련하여 전후 시기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점은 주목된다. 특히 대가야의 영향력이 미치기 전인 M1호분 단계에는 유리잔이나 편원어미형행엽으로 대표되는 신라계 유물은 창녕지역을 매개로 한 신라와의 관계에서 다라국의 성장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1992, 『합천 옥전 고분군Ⅲ－M1·M2호분－』.

경상대학교박물관, 1993, 『합천 옥전 고분군Ⅳ－M4·M6·M7호분－』.

경상대학교박물관, 2000, 『합천 옥전 고분군Ⅸ－67－A·B, 73~76호분－』.

M1호분

M4호분

M1호분 출토 유리잔

M1호분 출토 마구

M4호분 출토 환두대도

M4호분 출토이식

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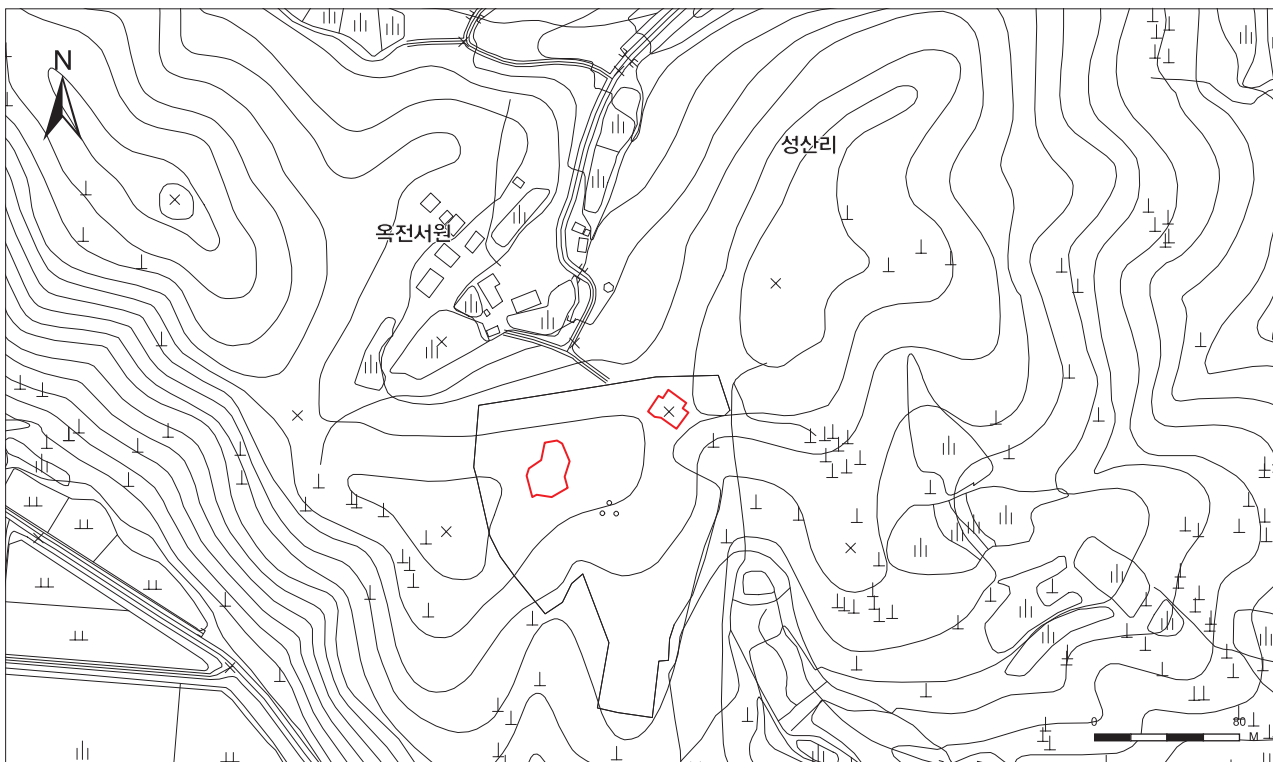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9·2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1991.12.~1992.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봉토분 / 금동관, 용봉
문환두대도, 상감대도,
등자

합천 옥전고분군 _ 5차 발굴조사 유적

사적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미조사된 봉토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5차 발굴조사는 1994년에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는 봉토분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쪽의 M4호분과 M10호분 사이에 분포하는 M6·M7호분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동서 구릉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M1호분의 동쪽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봉토분 2기와 85·86·88~98호분에 해당하는 중대형의 목곽묘 3기, 석곽묘 11기가 조사되었고, 금동관, 단봉문환두대도, 상감대도를 비롯하여 380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M6호분은 직경 10m 정도의 소형급 봉토분으로 봉분의 가장자리를 따라 호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장주체부는 길이 575㎝, 너비 125㎝ 정도의 세장방형 석곽묘이다. 측벽은 비교적 반듯한 할석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쌓았고, 바닥에는 피장자가 안치된 부분을 중심으로 납작한 할석을 놓아 관대를 마련하였다. 개석은 확인되지 않으며, 내부 함

유적 위치도

몰토의 양상으로 볼 때 가야의 일반적인 석곽과 달리 나무를 이용하여 덮은 다음 그 위에 크고 작은 판석과 할석을 얹어서 밀폐한 구조로 판단된다. 유물은 피장자를 중심으로 머리 쪽에서 3점의 보관이 출토되었으며, 왼쪽 손 부근에서 단봉문환두대도, 발치 쪽에서는 철촉과 마구를 부장하였다. 서단벽 쪽의 부장공간에는 유개고배, 개배, 장경호, 단경호, 발형기대 등 전형적인 6세기 전반대의 대가야양식 토기를 부장하고 있다. 토기의 부장에서 대가야와의 밀접한 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나, 신라계 토기와 함께 출토된 출出자형 금동관은 다양한 다라국의 다양한 관계망을 반영하고 있다.

M7호분은 M3호분에 후행하는 직경 18m 정도의 대형급 봉토분으로 격벽으로 주·부곽이 구분되는 위석식목곽묘를 매장주체부로 하고 있다. 도굴에 의해 주곽의 대부분은 유실된 상태이며, 발치 쪽에서 다량의 철모와 물미가 확인되었고, 마구와 주조철부가 일부 확인되었다. 부곽에서는 대가야양식의 발형기대에 유개단경호가 놓여 다량으로 매납되어 있다. 6세기 전반대로 편년되는 대형 봉토분이며, 옥전고분군에서 5세기 중엽 이후 M1호분, M3호분을 거쳐 주·부곽식목곽묘를 매장주체부로 하는 대형 봉토분이 지속적으로 조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6세기대의 봉토분 조사를 통해서 다라국을 둘러싸고 대가야나 신라와 관련성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M1호분의 동쪽에서는 91호분을 중심으로 10기 정도의 목곽묘와 석곽묘가 조사되었는데, 91호분에서는 마갑을 포함하여 재갈과 등자 등 마구가 다수 확인되고, 95호분에서는 당초문이 상감된 이엽환

M6호분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1993, 『합천 옥전 고분군Ⅳ－M4·M6·M7호분－』.

경상대학교박물관, 2003, 『합천 옥전 고분군Ⅹ－88~102호분－』.

두대도와 마구가 부장되고 있다. 대형 봉토분이나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형 목곽묘 외에도 주변 사면에 분포하고 있는 중형급의 목곽묘에서도 탁월한 무기 부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M7호분

M6호분 출토 금동관

M6호분 출토 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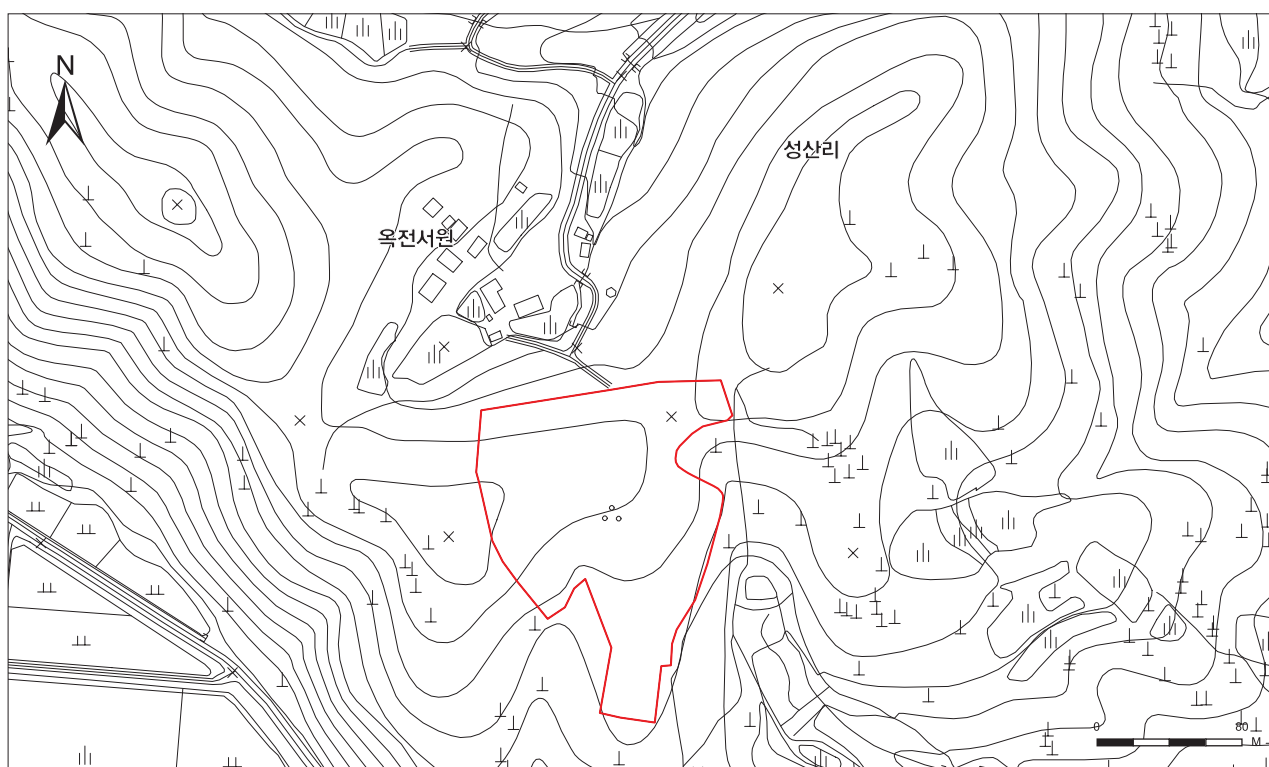
01-6 합천 옥전고분군 _ 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9·2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1994.3.~1994.4.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유개고배,
유개합, 주형토기,
유자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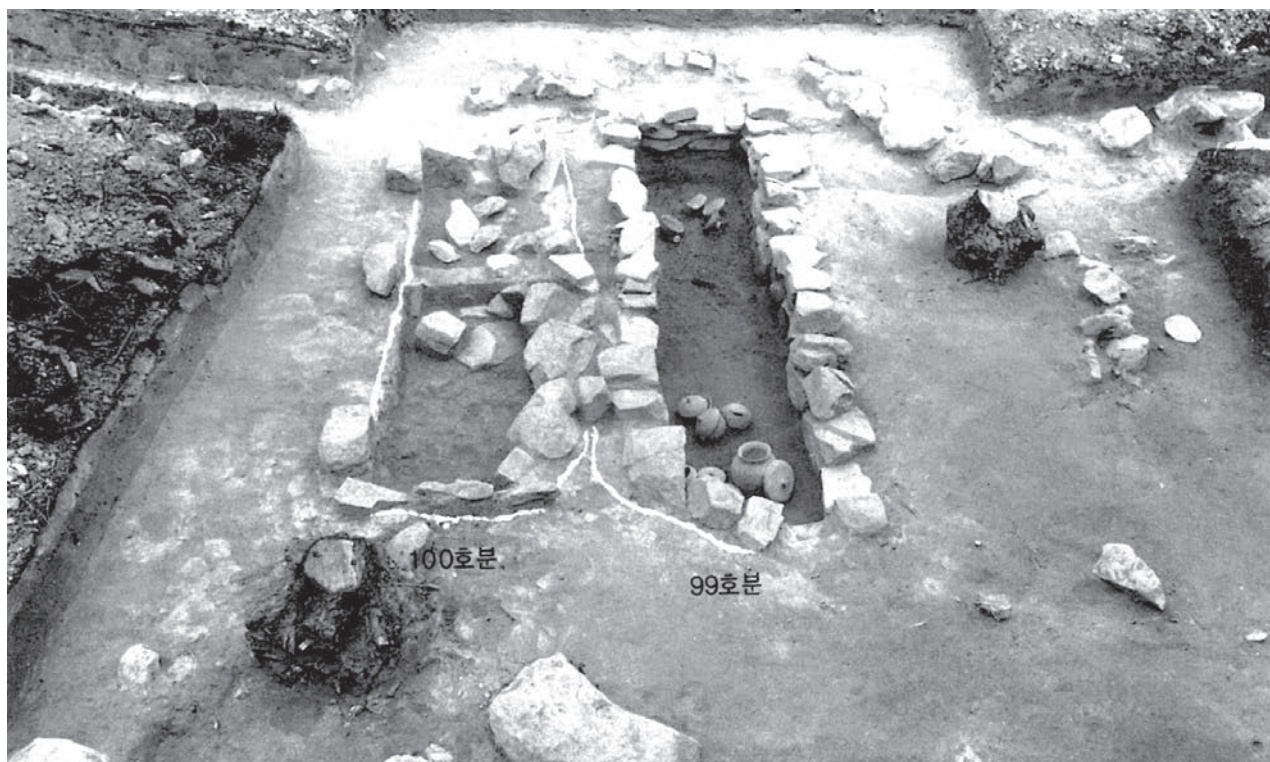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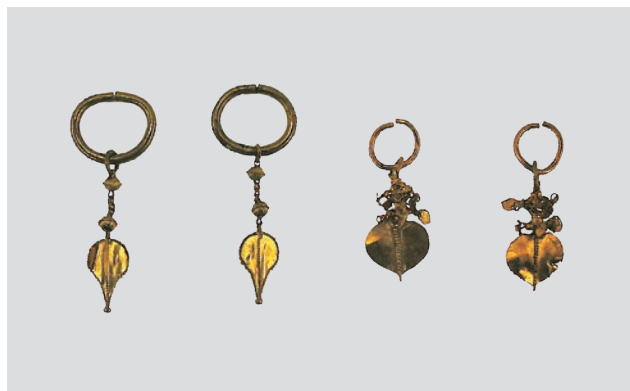
옥전고분군의 사적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미조사된 봉토분에 대한 복원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1994년에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미조사된 봉토분의 호석 또는 봉분의 범위를 확인하였으며,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봉토분 1기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99~102호분에 해당하는 석곽묘 4기가 수습 발굴조사되었으며, 16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99호와 100호분은 M13호분과 M14호분 사이에 위치하며, 99호분은 길이 500㎝, 너비 350㎝ 정도인 타원형의 호석이 돌아간다. 석곽은 길이 270㎝, 너비 60㎝ 정도이며, 토광을 굴착한 후 상부에 측벽을 축조한 구조이다. 발치 쪽인 서단벽 쪽에 유개고배, 유개합, 장경호 등 다소 많은 토기를 부장하고, 머리맡인 동단벽 쪽에서는 주형토기 2점과 유개합 2점이 출토되었다. 100호분은 99호분 북장벽에 연해서 호석을 일부 파괴하고 나란하게 중복되어 있으며, 내부에서는 이형유자이기 1점이 출토되었다. 102호분은 M24호

유적 위치도

분의 봉분 남쪽에 중복되어 축조되었으며, 최하단을 판석상의 할석을 세워 쌓고, 그 상단부터 눕혀 쌓는 방식으로 축조되었다. 동단벽 쪽에 1매의 할석을 세워 부장공간을 구분하였으며, 유개고배와 철겸, 철촉 등을 부장하였다.

사적으로 지정된 옥전고분군에 대한 정비복원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남쪽 사면부의 봉토분 주변에서 소형의 석곽묘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고분군의 분포양상과 시기적인 변천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2003, 『합천 옥전 고분군Ⅹ-88~102호분-』.

99·100호분

99호분 이식

99호분 출토 주형토기

02

합천 삼가고분군
陜川 三嘉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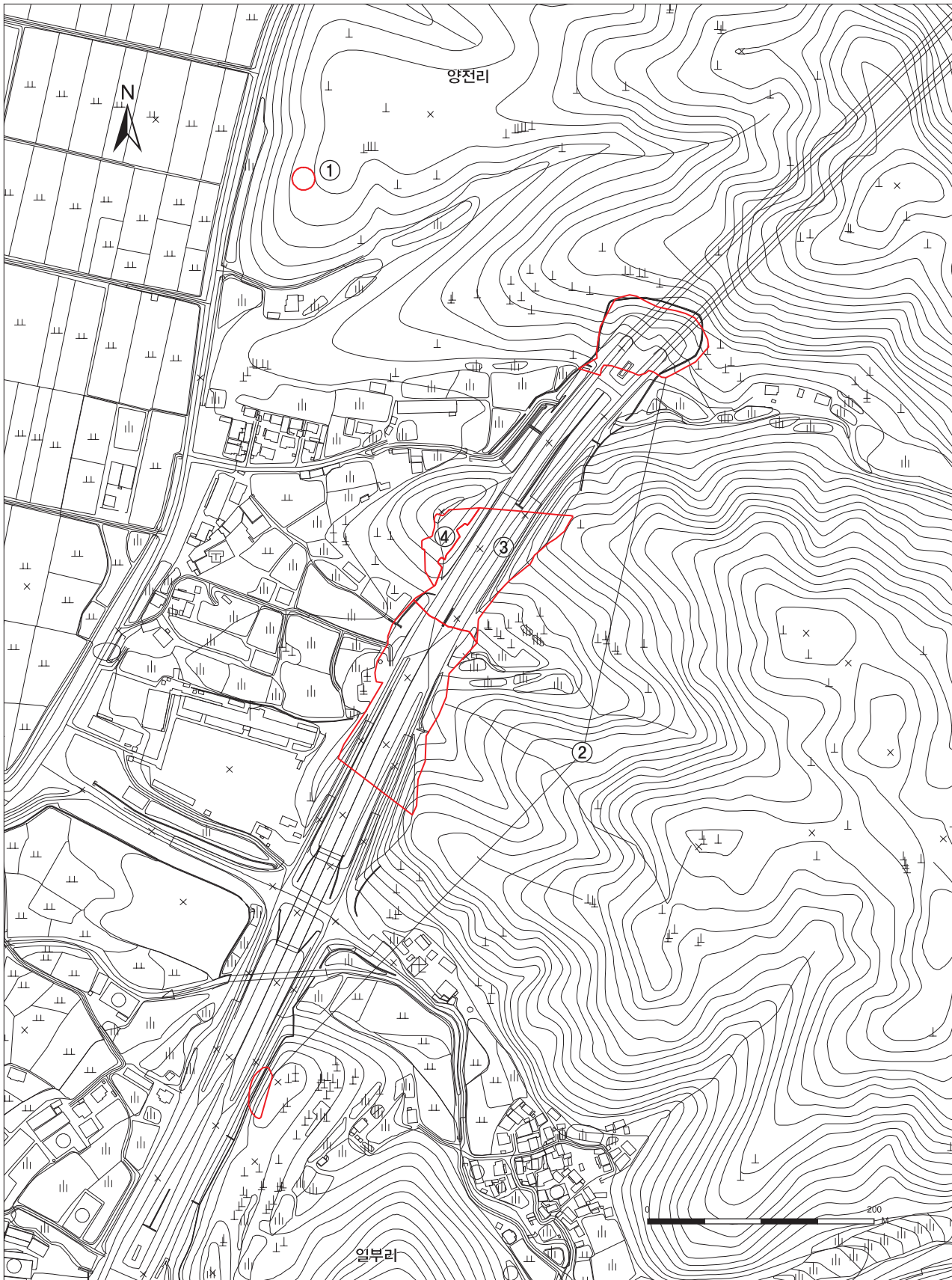
| 경상남도기념물 제8호

합천군 남부의 삼가면소재지 북동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한우산(해발 835m)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말단의 구릉에 분포한다. 유적의 주변 동-서로는 비교적 높은 산지가 둘러싸여 있으며, 남-북으로는 남강 수계인 양천강이 흐르면서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합천읍을 통해서 황강 유역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남서쪽으로는 양천강을 따라서 산청 남부지역과 교통하기에 유리한 입지이다.

경상남도기념물 제8호로 지정된 삼가고분군에 대한 최초의 발굴조사는 1981년에 진주~합천 국도확장 공사로 인하여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서쪽으로 개석된 곡간부를 경계로 북쪽 구릉에 분포하고 있는 7기와 남쪽 구릉에 있는 5호분과 6호분 등 모두 9기의 봉토분이 조사되었다.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토기문화권의 범위를 확인하였으며, 연속적으로 조영된 다곽분을 통해서 가야 멸망 전후의 사회변화를 파악하는데 유효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후 2009~2011년에는 생비량~쌍백 도로확장공사가 예정되면서, 삼가고분군과 남쪽의 일부리고분군을 관통하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삼가고분군에서 남쪽의 곡간부를 경계로 서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정선부와 남쪽 사면부에 해당하는 Ⅱ지구는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원삼국시대 목관묘 3기, 삼국시대 목곽묘 17기, 석곽묘 23기, 봉토분 15기 등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다곽분의 구체적인 축조방식과 함께 묘역의 확장을 규명하게 되었고, 5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대형 목곽묘가 확인하여 고분군의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서문물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담당한 Ⅰ지구에서도 삼국시대 목곽묘 21기, 옹관묘 2기, 석곽묘 59기, 봉토분 12기가 확인되었으며,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다곽분이 밀집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Ⅲ지구에서는 원삼국시대 목관묘 8기, 삼국시대 목곽묘 5기, 석곽묘 35기가 조사되었으며, Ⅳ지구에서는 대형 석곽묘를 둘러싸고 3기의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단계부터 고분군의 변화와 분포를 보다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2013~2014년에는 Ⅱ지구의 서쪽 경계부에서 지층 균열과 침하가 진행되어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추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삼국시대 목곽묘 4기, 석곽묘 1기, 봉토분 4기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고분군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가 확보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가야의 유력한 정치체로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기적으로도 원삼국시대의 목관묘부터 다곽식의 대형 봉토분을 주체로 하는 특징적인 묘제가 확인되었고, 소가야양식 토기를 주체로 이후 대가야양식 토기의 확산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합천 삼가고분군	동아대학교박물관	1981.6.~1981.8.	합천 삼가고분군(1982)
2	합천 삼가고분군 -합천 생비량~쌍백 도로확장구간(Ⅰ·Ⅲ·Ⅳ지구) 내 유적	동서문물연구원	2009.10.~2011.3.	합천 삼가고분군Ⅰ~Ⅳ-생비량~쌍백 도로확장구간 내(2014)
3	합천 삼가고분군 -합천 생비량~쌍백 도로확장구간(Ⅱ지구) 내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10.~2011.2.	합천 삼가고분군 (Ⅱ지구)-생비량~쌍백간 도로확장구간 내(2013)
4	합천 삼가고분군 -생비량~쌍백 도로확장구간 (Ⅱ지구 2차) 내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11.~2014.1.	합천 삼가고분군 (Ⅱ지구) 2차-생비량~쌍백간 도로확장구간 내(2016)

02-1

합천 삼가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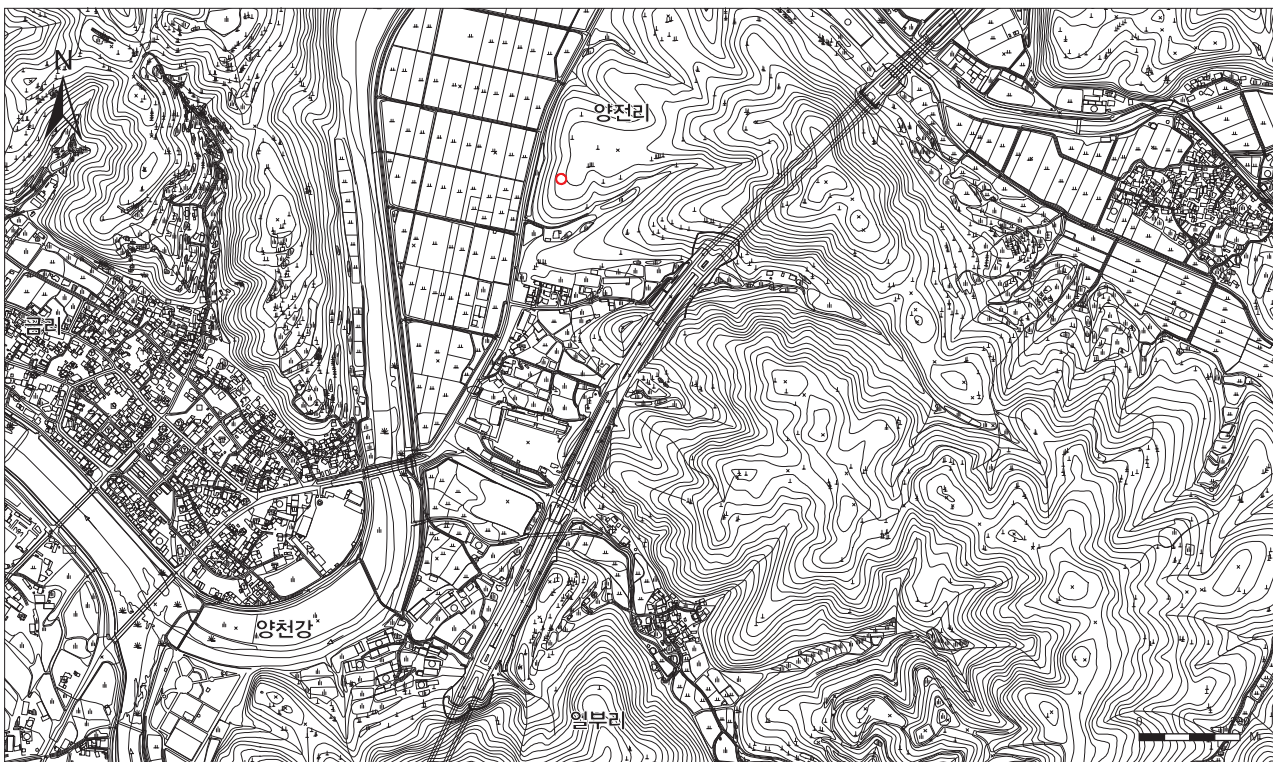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산7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81.6.~1981.8.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유개
고배, 개배, 장경호,
기대, 관고리

조사구역은 고분군 내 북서쪽 구릉 말단부에 해당하며, 1981년에 진주~합천 국도확장 공사로 인하여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쪽으로 개석된 곡간부를 경계로 북쪽 구릉에 분포하고 있는 7기와 남쪽 구릉에 있는 5호분과 6호분 등 모두 9기의 봉토분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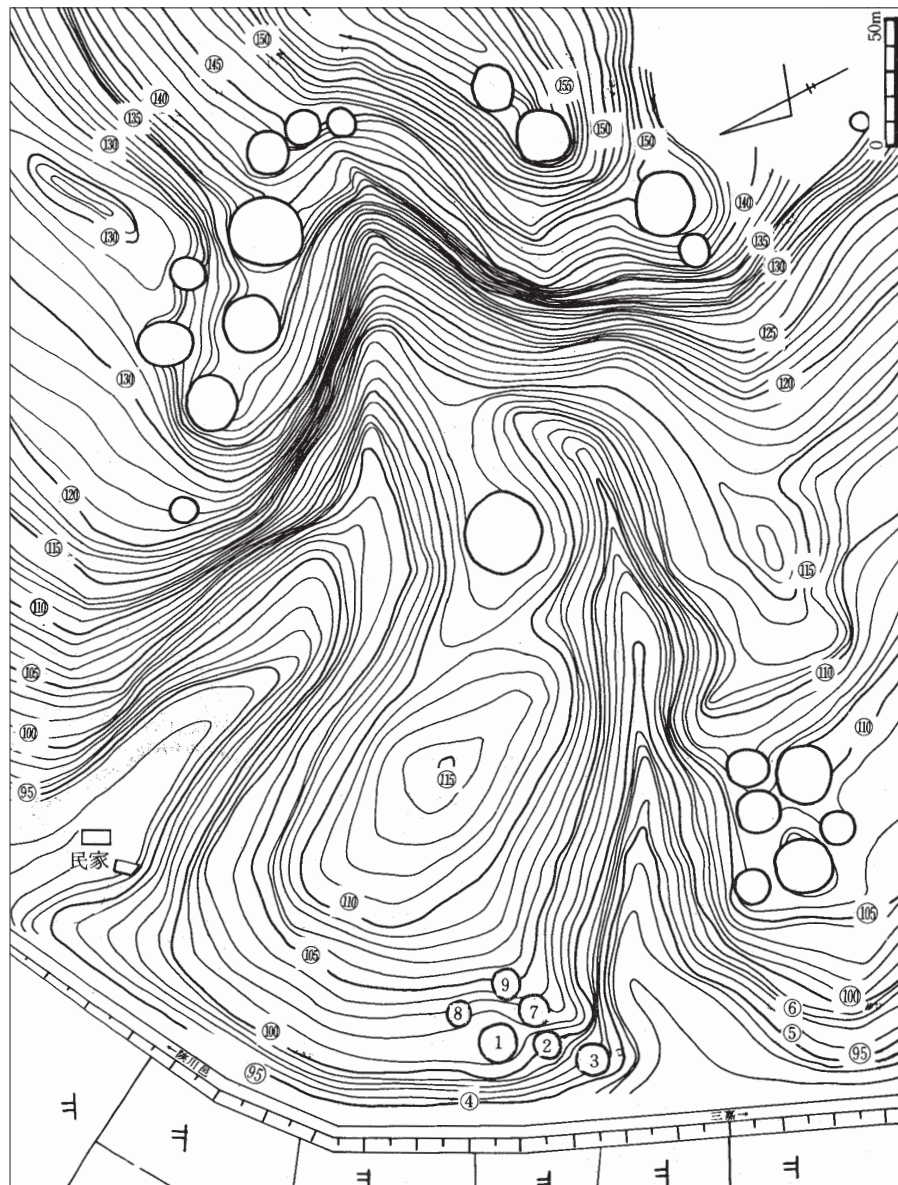
봉토분은 대부분 여러 기의 매장주체부로 구성된 다곽분의 구조이며, 대표적으로 봉분의 직경이 17m 정도인 1호분은 6기의 석곽으로 구성된 다곽분이다. 기반암을 굴착하여 지하식으로 A석곽을 먼저 축조하였으며, 길이는 4.7m, 너비 1.1m 정도이다. 이후 5기의 석곽이 봉분의 상부에 연이어 축조되었으며, A석곽에 비해 규모는 다소 소형이다. 출토된 토기는 대가야 종말기에 해당하는 개배, 파수부완, 발형기대 등이 확인된다.

공반하고 있는 유물로 보아 다곽분을 구성하는 매장주체부는 시기적인 변천을 보이며, 남쪽 구릉에 있는 소형급의 5호와 6호분은 단곽 혹은 2기의 석곽으로 구성되어 있

유적 위치도

으며, 유개고배와 개배, 장경호 등이 대가야양식 토기를 부장되고 있다. 이에 비해 조사 구역 내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1호와 2호분은 5기 이상의 세장한 석곽이 배치된 형태로 대가야양식 토기를 부장하고, 신라 후기양식 토기가 일부 혼재되어 있다. 이에 비해 3호분과 9호분은 장방형의 횡구식석실묘가 연접하여 조영되어 있으며, 이후 소형의 석곽묘가 후축되고, 부장된 토기는 신라 후기양식 일색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조사는 삼가고분군을 비롯하여 합천지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가야고분 발굴조사이다.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토기 문화권의 범위를 확인하였으며, 연속적으로 조영된 다곽분을 통해서 가야 멸망 전후의 사회변화를 파악하는데 유효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1982, 『합천 삼가고분군』.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제1호분

제 3호분 F유구

철기류

토기류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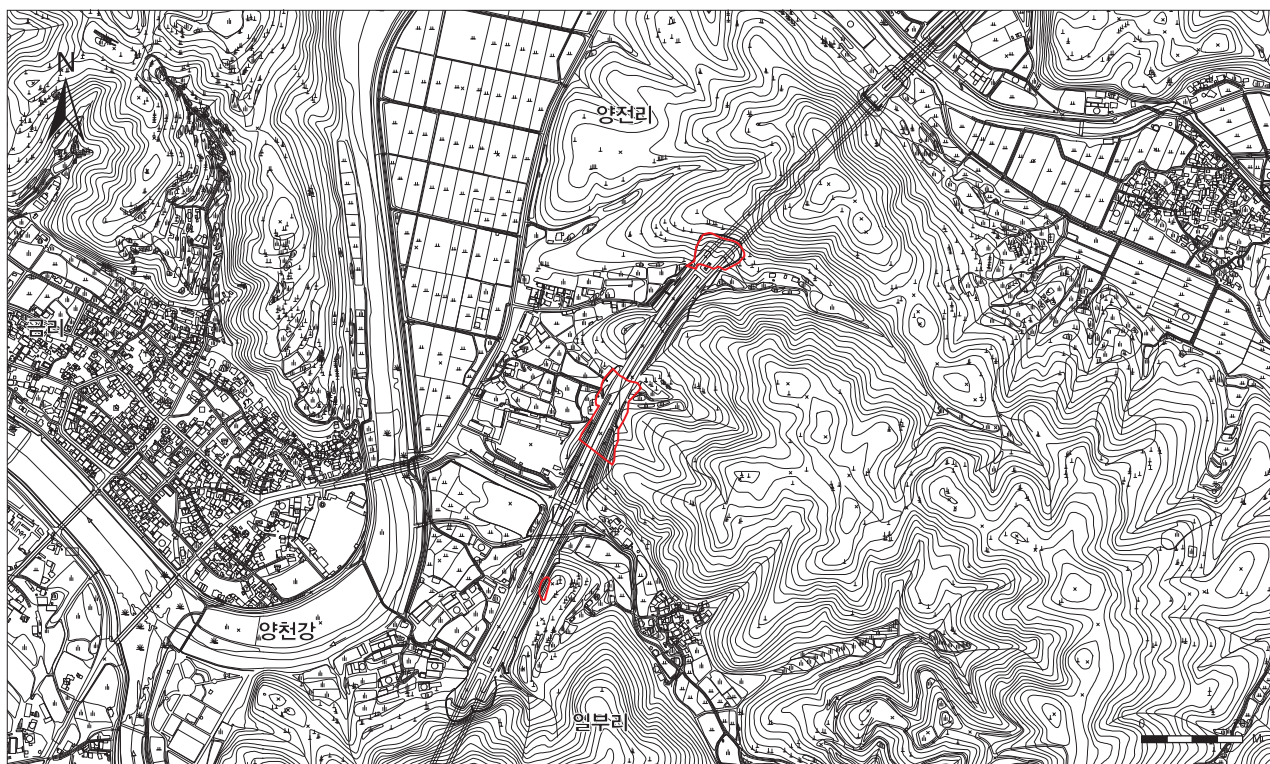
합천 삼가고분군 _ 생비량~쌍백 도로확장구간(Ⅰ·Ⅲ·Ⅳ지구)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산90-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9.10.~2011.3.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봉토분 / 고배, 기대,
재갈, 조형장의기

조사구역은 크게 구릉에 따라 3지구로 구분되며, 2009~2011년에 생비량~쌍백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동서문물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Ⅰ지구는 삼가고분군의 남쪽에 해당하는 구릉의 사면부에 해당하고, Ⅲ지구는 일부리고분군에 해당하는 구릉과 곡간부이며, Ⅳ지구는 가장 남쪽에 돌출된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조사 결과 Ⅰ지구의 구릉 사면부에서는 봉토분 12기가 확인되었으며, 곡간부에서 삼국시대 목곽묘 21기, 옹관묘 2기, 석곽묘 59기가 조사되었다. Ⅲ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석관묘 4기, 원삼국시대 목관묘 8기, 삼국시대 목곽묘 5기, 석곽묘 35기가 조사되었으며, Ⅳ지구에서는 대형 석곽묘를 둘러싼 주구 내에서 3기의 석곽묘와 1기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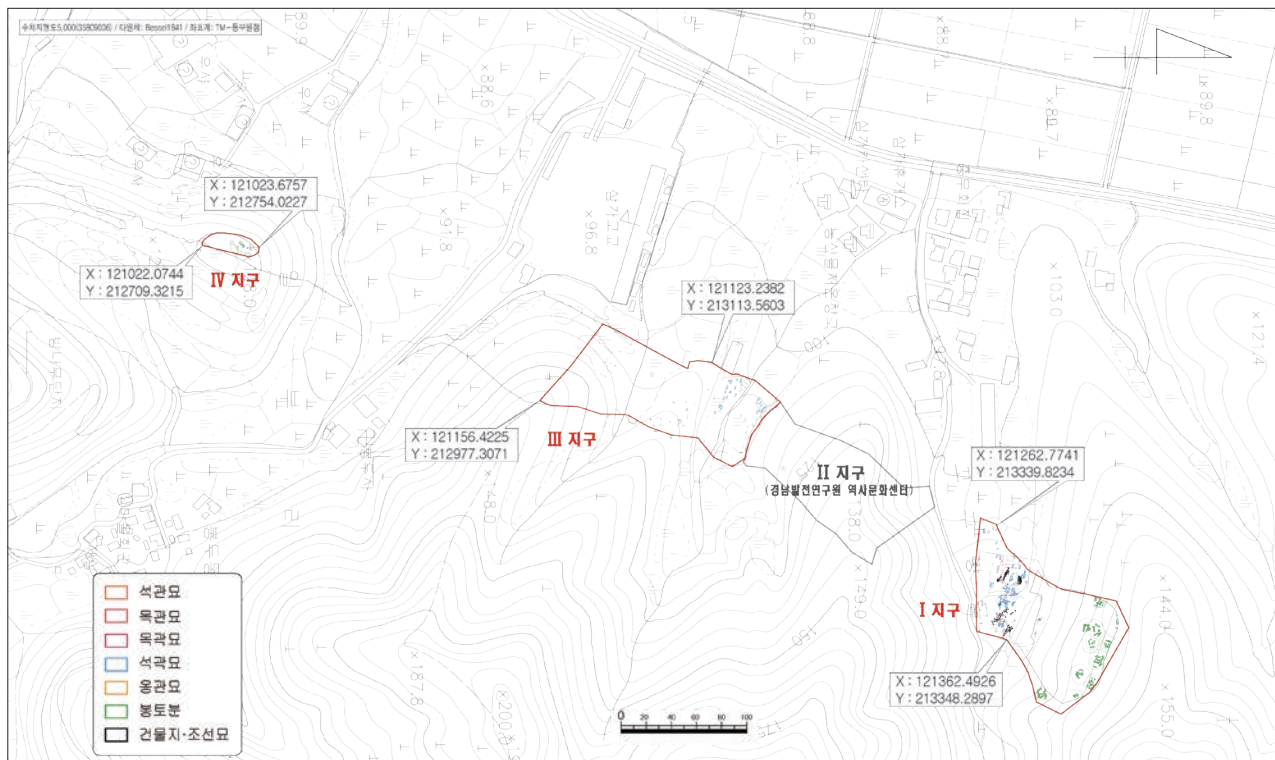
원삼국시대 목관묘는 Ⅱ지구와 Ⅲ지구 구릉 사이의 곡간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장동호와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등 출토유물로 보아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전반에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목곽묘는 Ⅰ지구 곡부와 Ⅲ지구 구릉 말단부를 중심으로 축조

유적 위치도

가 지속되며, 특히 Ⅰ지구 곡간부에 분포하는 목곽묘는 석곽묘가 파괴하면서 중복되고 있다. Ⅰ지구 곡간부에 이른 시기의 석곽묘가 다수 조영되고, 이후 Ⅱ지구와 Ⅲ지구의 구릉에 단독의 석곽묘가 분포한다.

봉토분은 구릉 정상부의 남쪽 사면부을 중심으로 밀집하여 분포하며, 5m 이상의 대형 석곽묘를 중심에 두고 소형의 석곽묘가 배치되는 다곽식구조이다. 사면부의 낮은 지형에 분포하는 봉토분은 주구를 굴착하면서 지속적으로 묘역을 확장하며,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봉토를 완성하였다. 출토된 유물에 있어서 곡간부의 석곽묘와 마찬가지로 소가야양식의 고배와 아라가야, 대가야 등 다양한 가야양식의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또한 Ⅰ지구의 M2호분과 M4호분에서는 아라가야양식의 토기와 더불어 마구와 조형장의기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석곽 내부에서는 소가야 토기가 주류를 점하면서, 제의에 행해진 토기는 대가야양식의 기대가 사용되고 있다. 6세기 전반대 합천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변지역과의 교류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로 판단되는 Ⅰ지구의 M11호분과 M12호분은 횡혈식석실분으로 신라 토기로 전환되고 있다.

이상 합천 삼가고분군은 청동기시대부터 이 지역을 점유한 집단에 의해 축조되었으며, 원삼국시대 변한의 소국을 거쳐 대가야와 구분되는 새로운 정치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천강을 따라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는 삼가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가야 유력 정치체의 중심 고분군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4, 『합천 삼가 고분군 Ⅰ~Ⅳ-생비량~쌍백 도로확장구간 내-』.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M1호분

M3호분

유자이기 · 등자

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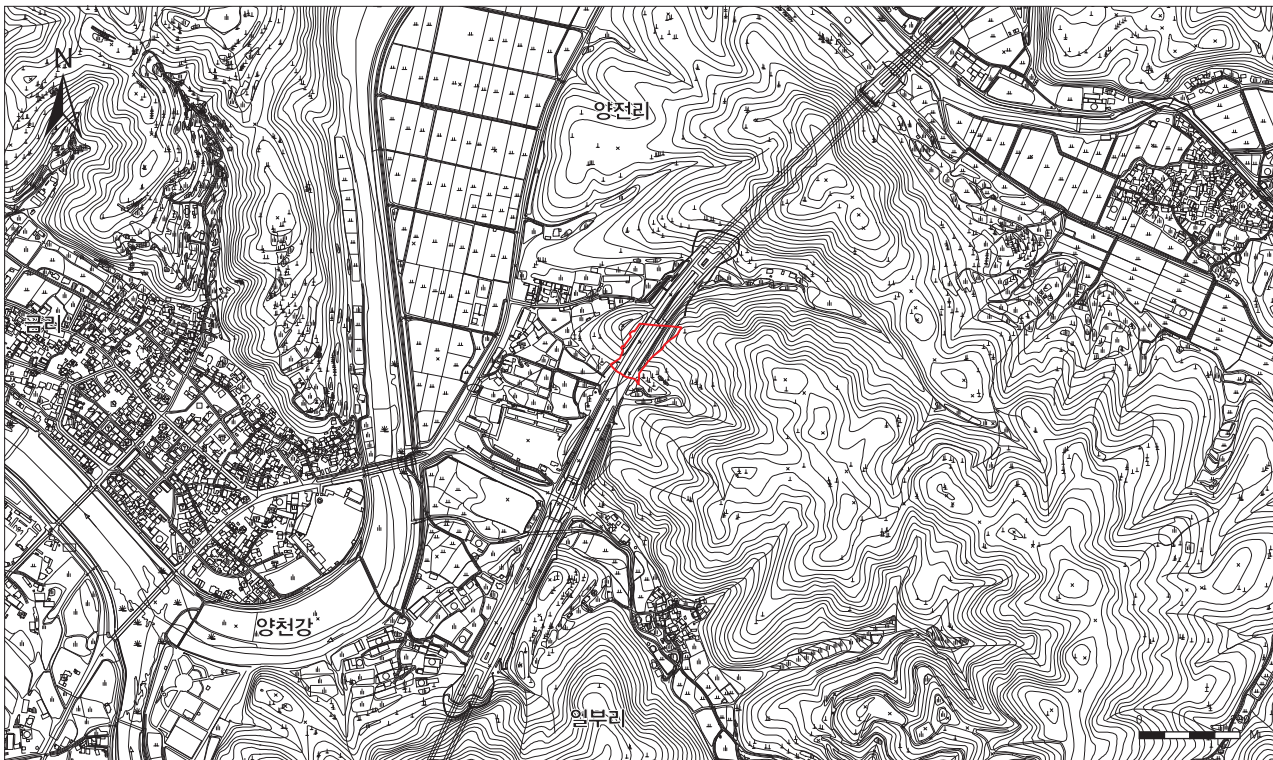
합천 삼가고분군 _ 생비량~쌍백간 도로확장구간(II지구)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9.10.~2011.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봉토분 / 고배, 수평구연호, 장경호, 기대, 재갈

조사구역은 기존에 알려진 삼가고분군에서 남쪽의 곡간부를 경계로 서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정선부와 남쪽 사면부에 해당한다. 2009~2011년에 생비량~쌍백 도로확장공사에 포함된 조사범위의 Ⅱ지구로 일부리고분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석관묘 2기, 원삼국시대 목관묘 3기, 삼국시대 목곽묘 17기, 석곽묘 23기, 봉토분 15기 등이 확인되었다.

목곽묘와 석곽묘는 구릉의 사면 말단부에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조영되어 있으며, 구릉 정선부와 상부에 조영된 봉토분과 입지를 달리한다. 목곽묘는 해발 100~130m 정도에 밀집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목곽묘는 4m이하의 중소형급에 해당한다. 8호 목곽묘는 길이 689㎝, 너비 287㎝ 정도로 대형급으로 바닥에는 전면에 할석을 깔았으며, 기대를 포함한 각종 토기와 철모, 철촉 등 무기와 재갈 등이 출토되어 다른 목곽묘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출토된 토기로 보아 5세기 전반대에 해당하는 삼가고분군의 유력자로 판단된다.

유적 위치도

석곽묘는 해발 130m 아래의 구릉 하단부와 곡간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세장방형의 묘광에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최하단석은 길이 방향으로 세워쌓기 하거나 눕혀 쌓은 경우가 많으며, 석곽의 구조, 평면형태, 관 보강석 등 소가야지역 석곽묘와 유사한 구조이다. 봉토분은 15기 중 11기는 동일한 봉토내에 다수의 석곽이 축조되는 다곽식 구조이다. M10호분의 경우 7기의 석곽이 축조되어 있으며, 3차례에 걸쳐 봉토가 확장되면서 주구의 설치와 묘역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다곽분은 주곽과 부곽의 피장자 사이에 위계가 반영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다곽분의 형식은 대가야권과는 차별되는 정치체의 성격으로 규정하기도 하며, 축조집단은 소가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출토된 토기에 있어서도 4세기대 고식도질토기부터 5~6세기대 소가야양식과 대가야양식의 토기가 혼재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목곽묘는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전엽으로 편년되며, 삼각투창고배, 수평구연호 등 소가야 토기는 5세기대부터 6세기 전반까지 석곽묘와 봉토분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가야 토기는 봉토분에서 출토되는 특징을 보이며, 6세기 전반대에 집중되고 있다. 철기 가운데서는 환두대도와 목병도, 철모, 철촉 등 무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삼가고분군 주변의 남쪽으로도 동일한 성격의 고분군이 밀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고분군의 규모와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후기가야의 성립과정을 반영하는 5세기 전반대의 대형 목곽묘를 확인한 점은 조사의 큰 성과이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 『합천 삼가 고분군(Ⅱ지구)-생비량~쌍백간 도로확장구간 내-』.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M2호분

M4호분

출토유물

02-4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산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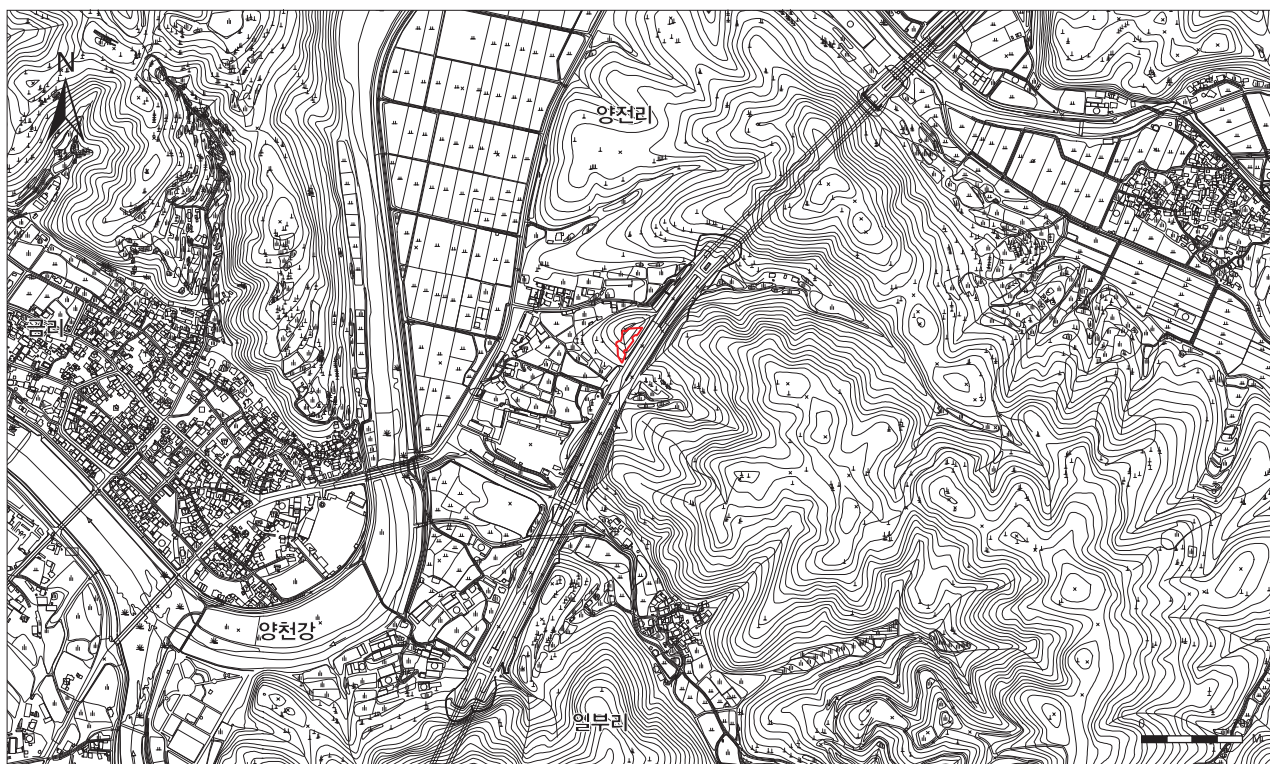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3.11.~2014.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봉토분
/ 고배, 대부호, 수평구
연호, 환두대도

합천 삼가고분군 _ 생비량~쌍백간 도로확장구간(Ⅱ지구 2차) 내 유적

조사구역은 기존에 알려진 삼가고분군의 남쪽 구릉의 정선부와 사면부에 해당하며, 생비량~쌍백 도로확장 공사 과정에서 지층 균열과 침하가 진행되어 2013~2014년에 Ⅱ지구와 연결되는 서쪽 범위를 확장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4기, 석곽묘 1기, 봉토분 4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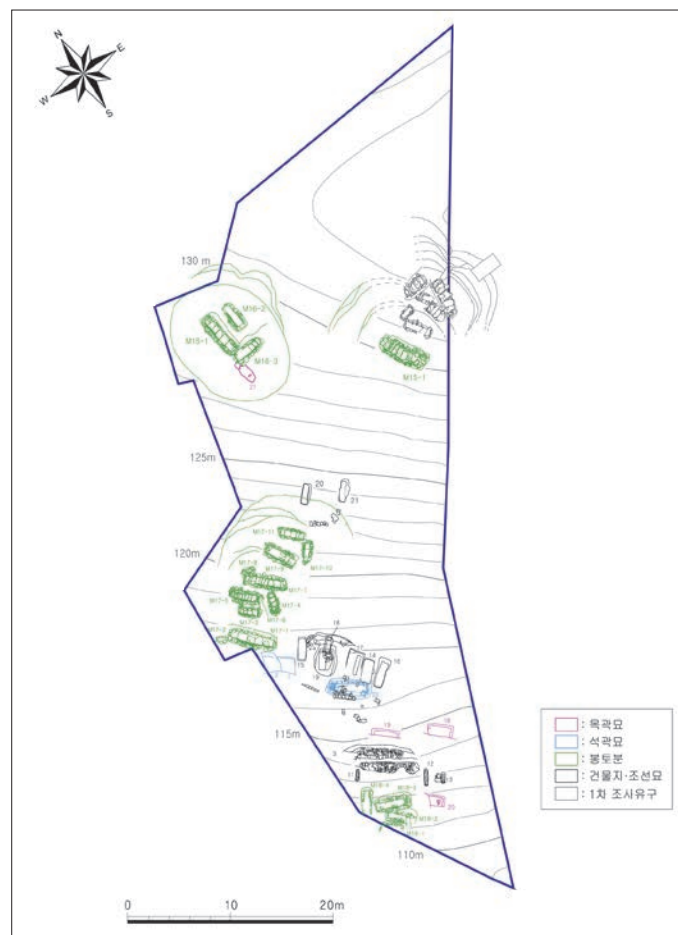
목곽묘는 해발 110~120m 사이의 경사면에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후행하는 석곽묘에 의해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규모에 있어서 대부분 중소형급에 해당하며, 21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고식도질토기는 4세기 중엽에 해당한다. 이후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소가야양식 토기가 부장된 20호 목곽묘까지 연속적으로 조영되고 있다. 단독으로 조영된 23호 석곽묘 역시 소가야양식 토기가 주로 부장되고 있으며, 견부에 파상문이 시문된 단경호는 제작수법이 다소 이질적이다.

봉토분은 모두 다곽식의 구조를 보이며, M17호분에서는 모두 11기의 석곽이 배치되

유적 위치도

어 있다. M15호분은 선행 조사에서 6기의 석곽이 조사되었으며, 사면 아래쪽에서 주곽으로 판단되는 M15-1호분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출토되는 토기에 있어서도 고분의 입지와 차이가 있으며, 비교적 낮은 사면부에 있는 M18호분에는 대부분 소가야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이에 비해 사면 중간에 분포하는 M17호분의 주곽에서는 소가야 토기의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이후 추가로 조영된 석곽묘에서는 대부분 대가야 토기를 부장하고 있다. 그리고 구릉의 상부에 위치하는 M16호분에는 대부분 대가야 토기를 부장하는 양상이다. 묘역의 확장에 있어서도 M16호분과 M18호분은 뚜렷하지 않지만, 다수의 석곽으로 구성된 M15호분과 M17호분은 주구를 반복적으로 설치하면서 묘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M17호분은 다소 규모가 큰 M17-1호분과 M17-7호분을 중심으로 각각 4기, 3기의 석곽이 결합되고 있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서 선행 조사된 삼가고분군 내 Ⅱ지구의 분포범위가 더욱더 명확해졌으며, 다양한 토기양식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남강 수계의 양천강을 통해 일찍부터 산청 중촌리고분군 등 소가야 집단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집단이 성장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6, 『합천 삼가고분군(Ⅱ지구) 2차-생비량~쌍백간 도로확장구간 내-』.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M15호분

M16호분

출토유물

03

합천 합천리유적

陜川 陜川里遺蹟

합천군 중부의 합천읍소재지 남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북서쪽의 산지에서 이어지는 해발 95m 정도의 취적산 구릉의 사면부에 분포한다. 유적은 경상남도기념물 제133호로 지정된 대야성의 주변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낙동강 수계의 황강과 접하고 있다. 동서로는 황강을 따라 거창과 창녕지역을 연결하며, 남북으로는 산지 사이의 곡간을 따라 고령과 진주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한다.

발굴조사는 2009년에 합천 대야성 정비복원을 위한 학술조사의 일환으로 동양문물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된 고분은 석곽묘 6기, 횡구식석실묘 1기, 토광묘 1기이며, 출토된 유물은 18점으로 토기만 확인되었다. 2m 정도의 세장방형의 석곽묘는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축조되었으며, 종말기 해당하는 대가야양식의 토기를 부장하고 있다. 횡구식석실묘인 8호분은 장방형의 소형급으로 중앙에 시상을 마련한 구조로 출토된 유물은 없다.

이후 2013년에 합천 호국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대야성의 북쪽 구릉 사면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해발 47~55m 정도에서 삼국시대 석곽묘 30기, 석곽옹관묘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대부분 단곽식으로 구릉의 등고선과 나란하게 분포하며, 중형급의 석곽묘 주변으로 소형 석곽묘가 인접하여 있다. 유물은 토기 212점, 철기 38점, 옥석 17점으로 267점이 출토되었다. 합천 문림리유적에서 확인된 횡목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토기의 양식에 있어서는 대가야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합천지역의 재지적 속성을 보이는 토기도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2014년에 합천 충혼탑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대야성의 서쪽 구릉 사면말단부에 대해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목곽묘로 추정되는 묘 1기에서 토기 4점, 철기 14점 등 18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목곽묘의 평면은 장방형으로 소형급에 해당하며, 남단벽에 연해서 토기가 부장되고, 중앙에서는 철기가 확인된다. 대가야양식의 장경호와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지역색이 강한 무개식장경호가 고배를 대신하여 부장되고 있으며, 농공구와 함께 10점의 철촉이 군으로 출토되었다. 토기의 형식으로 보아 목곽묘의 축조는 6세기 전반대로 편년된다.

이상의 연속된 조사를 통해서 대야성이 분포하는 취적산 구릉의 서북쪽으로 비교적 넓게 고분군이 형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대체로 6세기 전반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체성 외곽에 구분되어 있는 점과 함께 가야성으로 논란이 있는 대야성과의 관계에서 주목된다. 또한 대가야의 확장 과정에서 소지역 단위의 특색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으로 향후 주변 일대의 동시기 가야고분군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합천 대야성 정비복원 부지 유적	동양문물연구원	2009.6.~2009.8.	합천 대야성-정비·복원을 위한 학술조사(2011)
2	합천 합천리 218번지 유적	경상문화재연구원	2013.8.~2013.10.	합천 합천리 218번지 유적(2016)
3	합천 합천리 산16-2번지 유적	경상문화재연구원	2014.4.~2014.4.	합천 합천리 산16-2번지 유적-합천「대야성 실체화사업」 충혼탑 진입도로 개설구간 내 문화재 발굴조사(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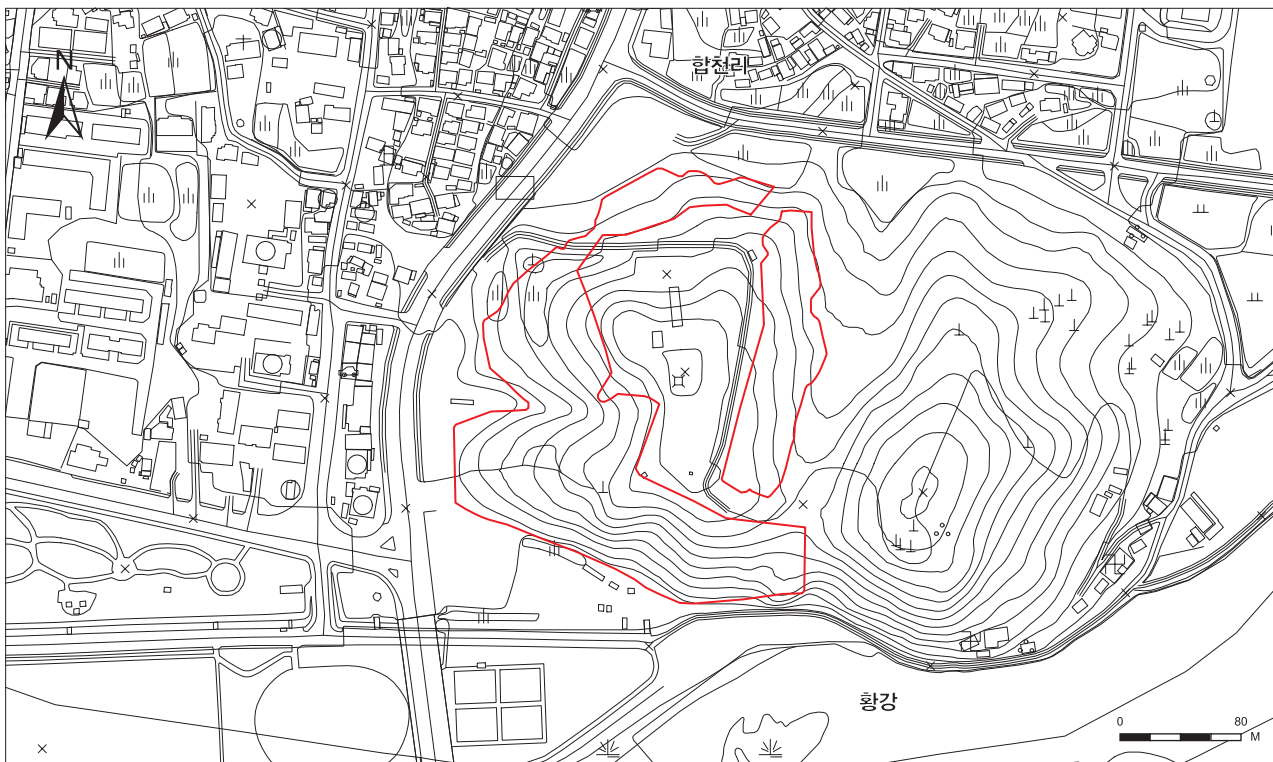
03-1 합천 대야성 정비복원 부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산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양문물연구원 /
2009.6.~2009.8.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개, 장경호,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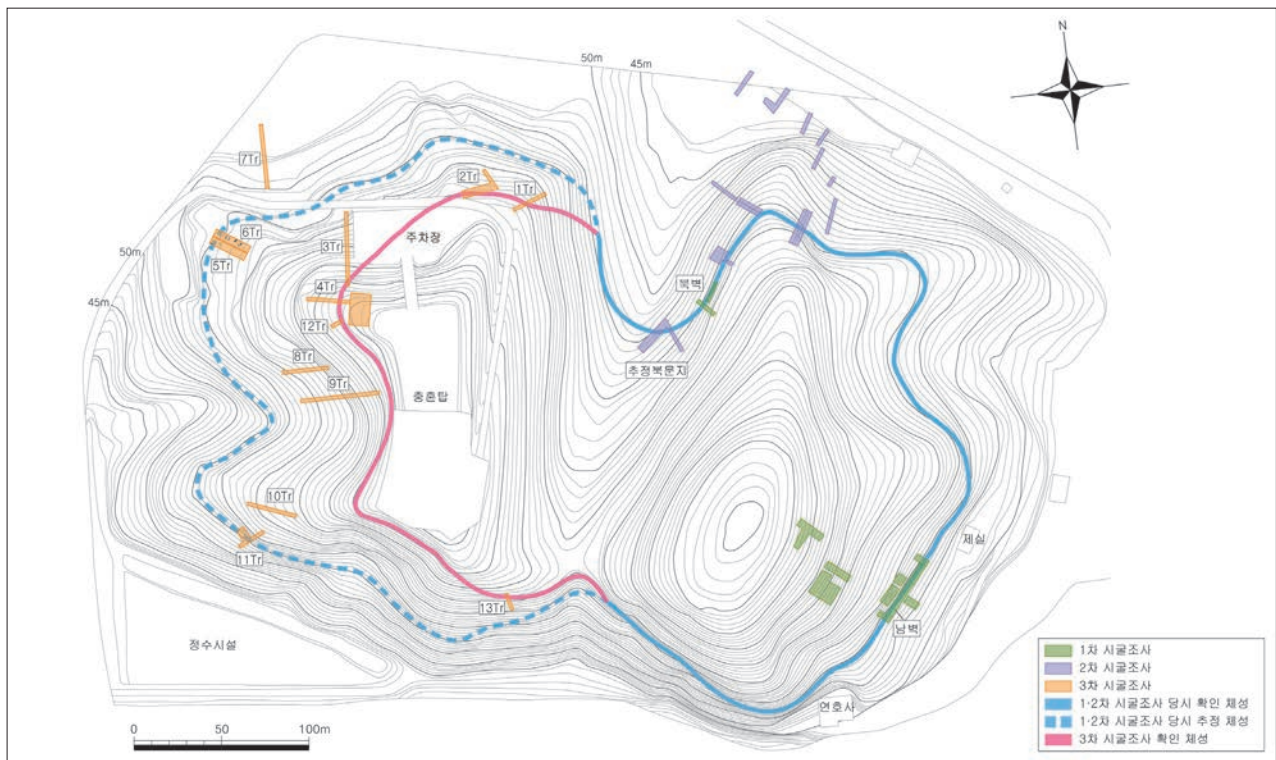
조사구역은 대야성의 서쪽 구릉에 해당하며, 발굴조사는 2009년에 합천 대야성 정비복원을 위한 학술조사의 일환으로 동양문물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대야성의 북서쪽 체성, 성내 건물지를 비롯하여 체성 외곽에서 삼국시대 고분군이 확인되었다. 고분의 분포는 취적산 서쪽으로 돌출된 해발 60~70m 정도의 구릉 정선부인 5·6번 트렌치에서 6기, 남쪽 사면부인 11번 트렌치에서 2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된 고분은 석곽묘 6기, 횡구식석실묘 1기, 토광묘 1기이며, 출토된 유물은 18점으로 토기만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축조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석곽의 길이는 2m 정도로 소형급에 해당한다. 측벽은 할석을 이용하여 눕혀 쌓는 형식과 세워 쌓은 형식이 혼재하며, 전면에 시상을 마련한 2호 석곽묘를 제외하면 바닥은 기반암을 정지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모두 토기이며, 종말기 대가야양식에 해당하는 유두형꼭지가 있는 개, 장경호와 병이 출토되었다. 8호분은 횡구식석실묘로 현실

유적위치도

의 크기는 길이 187㎝, 너비 120㎝ 정도로 장방형의 소형급이다. 중앙에 시상을 마련하였으며, 횡구부의 형태도 파악하기 힘들고, 출토된 유물도 없다.

이상의 조사에서 신라와 백제의 치열한 각축장으로 일찍이 주목받은 대야성과 관련하여 주변 일대에서 6세기 중엽의 가야고분군이 확인되었다. 부분적인 발굴조사에 한정되어 있으나, 합천 중심의 취적산을 둘러싸고 고분군과 대야성의 관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확보된데 조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동양문물연구원, 2011, 『합천 대야성–정비·복원을 위한 학술조사–』.

유구 배치도

3호분 전경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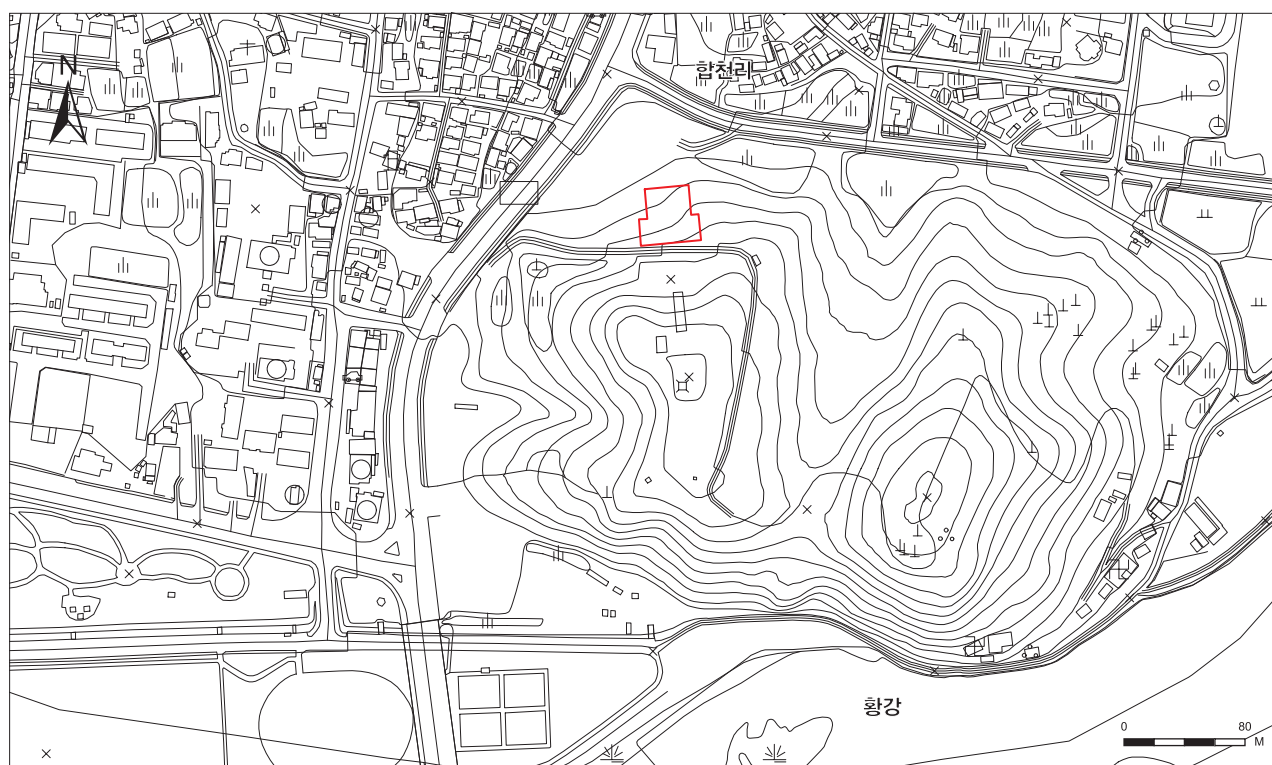
03-2 합천 합천리 218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21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2013.8.~2013.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개배, 장경호, 대도, 철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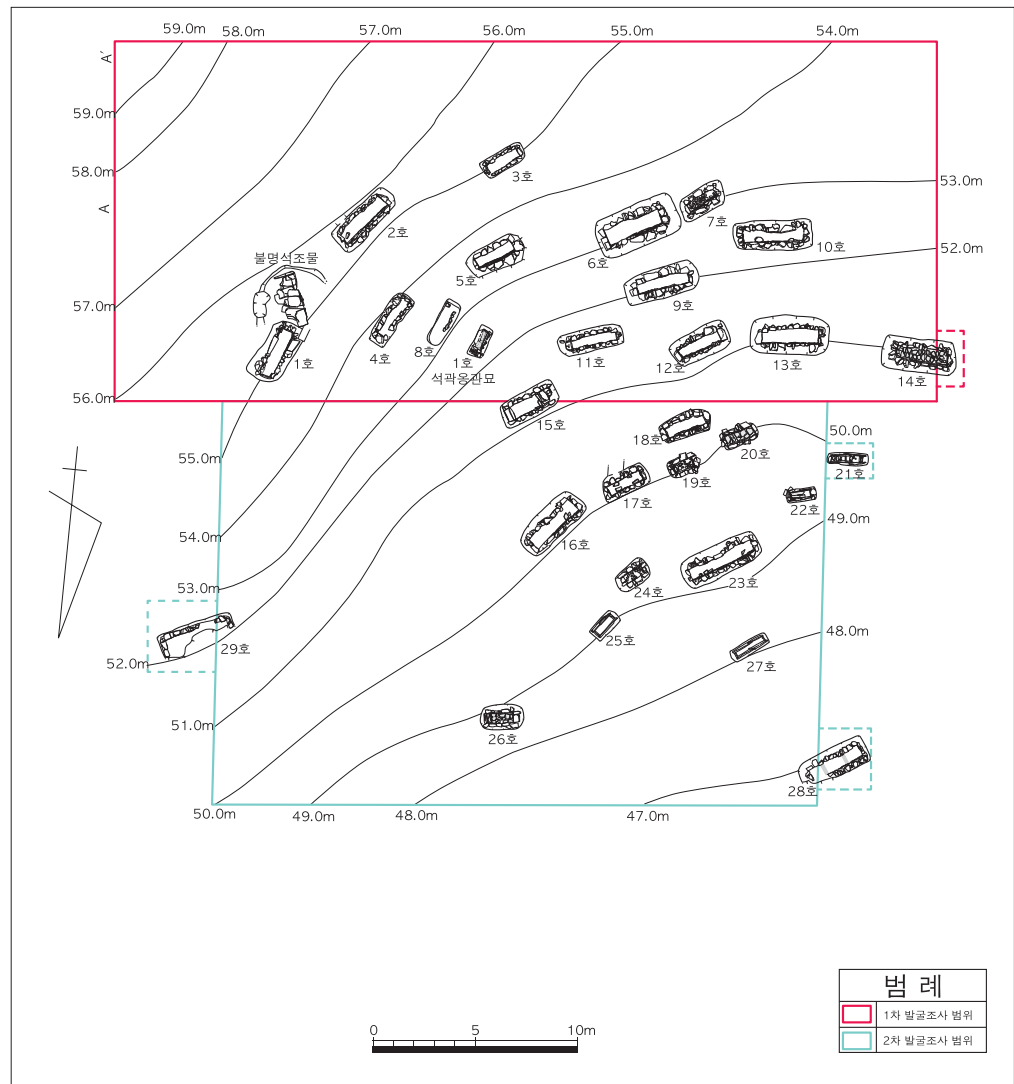
조사구역은 대야성의 북쪽 구릉의 사면부에 해당하며, 발굴조사는 2013년에 합천 호국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해발 47~55m 정도의 구릉 북사면부에서 삼국시대 석곽묘 30기, 석곽옹관묘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대부분 단곽식으로 구릉의 등고선과 나란하게 분포하며, 중형급의 석곽묘 주변으로 소형 석곽묘가 인접하여 있다. 유물은 토기 212점, 철기 38점, 옥석 17점으로 267점이 출토되었다.

한정된 범위에 있는 석곽묘는 서로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 구분된다. 측벽은 대부분 할석과 판석을 최하단부터 눕혀쌓아 축조하였으며, 소형급의 석곽묘에서는 세워쌓는 경우도 확인된다. 내부시설로는 양 단벽 부근에 따로 유물 부장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격벽을 설치하기도 한다. 그리고 인접한 합천 문림리 유적에서 확인된 석곽 내부의 횡목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28호 석곽묘는

유적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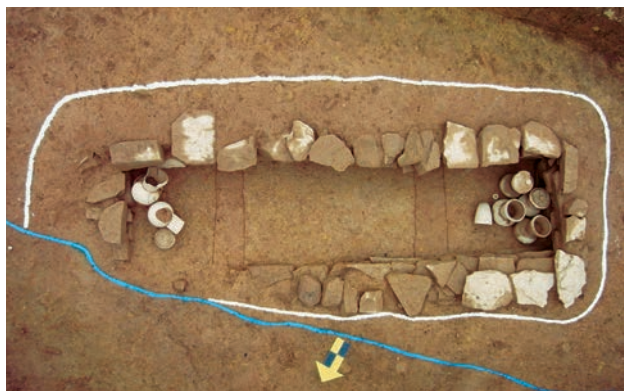
양 단벽 부근의 최하단에 장벽과 직교되게 횡목이 설치되어 있다. 토기는 주로 양 단벽 부근에 부장하고, 철기는 중앙에서 확인되며, 고배나 개배는 피장자의 머리맡에 부장하거나 장경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토기의 양식에 있어서는 대가야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합천지역의 재지적 속성을 보이는 토기도 혼재되어 있다. 기종에 있어서는 가장 일반적인 고배의 부장 비율은 낮은 편이고, 경부가 넓은 벌어진 형태의 지역색이 강한 장경호가 다수 확인된다. 16호 석곽묘에서는 대도, 29호 석곽묘에서는 철모가 확인되는데, 철제무기의 부장은 한정되고, 농공구가 일반적으로 출토된다.

기존에 취적산 구릉 서쪽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된 가야고분군에 더하여 대야성의 북쪽 외곽 사면부에서도 비교적 밀집된 고분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합천 동부의 옥전고분군, 서부의 반계제고분군을 필두로 하는 합천댐 수몰지구 내 고분군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특징이 보이며, 향후 대야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6, 『합천 합천리 218번지 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14호 석곽묘

28호 석곽묘

토기류

03-3 합천 합천리 산16-2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산16-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2014.4.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개, 장경호, 철겸, 철촉

조사구역은 대야성의 서쪽 구릉 사면 말단부에 해당하며, 발굴조사는 2014년에 합천 충혼탑 진입도로 개설로 인하여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1, 2번 트렌치에서 삼국시대 목곽묘로 추정되는 묘 1기와 석렬유구 2기가 확인되었으며, 토기 4점, 철기 14점 등 18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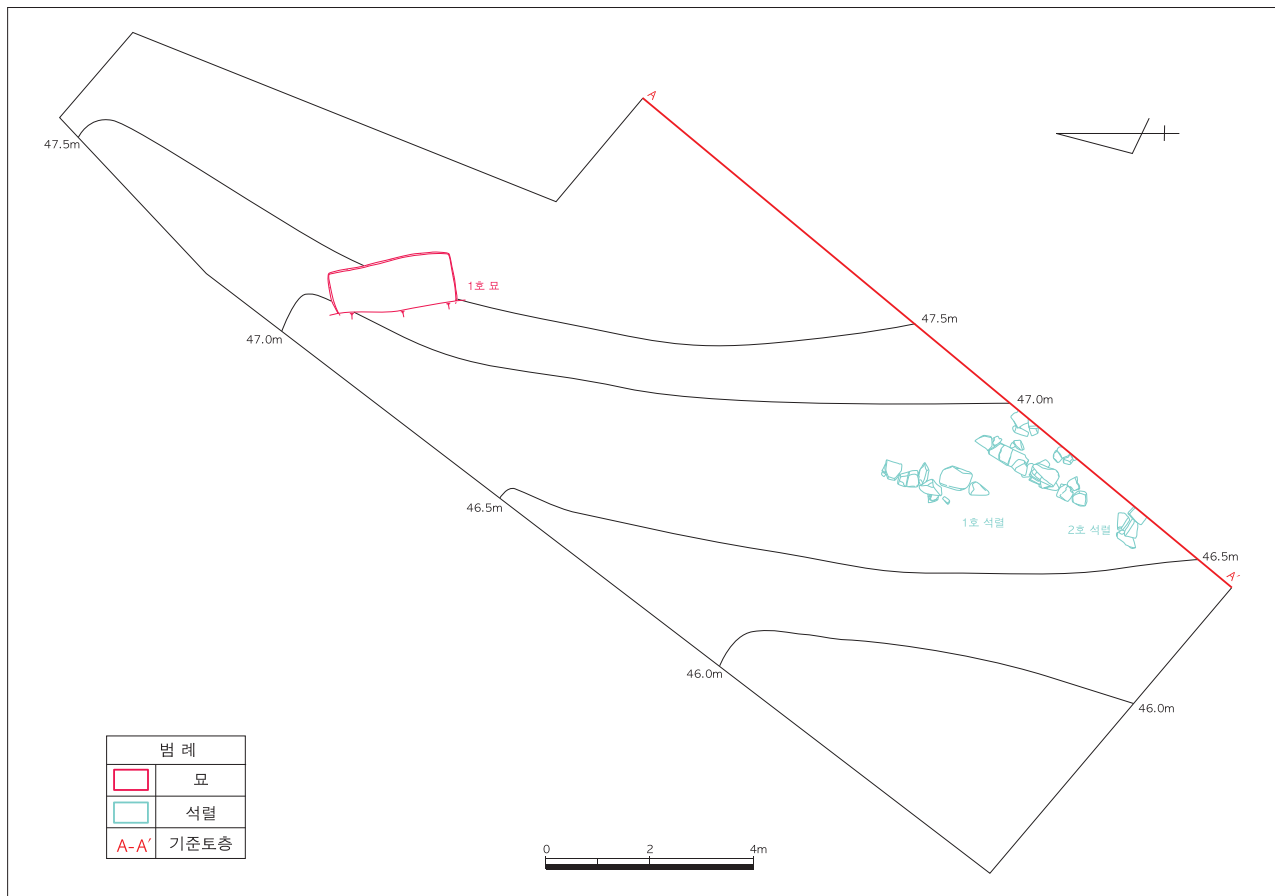
목곽묘는 해발 47m 상에서 등고선과 평행한 남-북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묘광의 길이는 240㎝, 잔존너비 100㎝, 잔존깊이 25㎝ 정도의 장방형의 소형급에 해당한다. 내부토는 거의 유실되었고, 석재로 이루어진 벽석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아 목곽묘로 추정된다. 유물의 부장에 있어서는 남단벽에 연해서 토기가 부장되고, 중앙에서 철기가 확인된다. 토기 가운데 무개식장경호는 구경부가 외반하고, 구연단이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3조의 돌대가 돌리고 그 안에 12치구의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대가야의 고령지역에서는 곡선적인 형태의 구경부를 가진 장경호가 유행하는데 비해 이렇게 직선적

유적위치도

으로 구경이 넓게 벌어지는 장경호는 합천지역의 특징적인 형태로 선행조사에서도 다수 알려져 있다. 철기에 있어서는 철겸과 도자 등 농공구와 함께 철촉이 10점 군으로 출토되었으며, 토기의 형식으로 보아 목곽묘의 축조는 6세기 전반대로 편년된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서 대야성을 둘러싸고 있는 고분군의 분포가 더욱더 명확해졌으며, 특히 선행 조사에서 확인된 석곽묘와 횡구식석실묘에 더해 목곽묘가 늦은 시기까지 유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가야의 확장 과정에서 소지역 단위의 특색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으로 향후 주변 일대의 동시기 고분군과 비교 자료로서 기대된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6, 『합천 합천리 산16-2번지 유적 - 합천「대야성 실체화사업」충혼탑 진입도로 개설구간 내 문화재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

1호묘

1호묘 출토유물

04

합천 안계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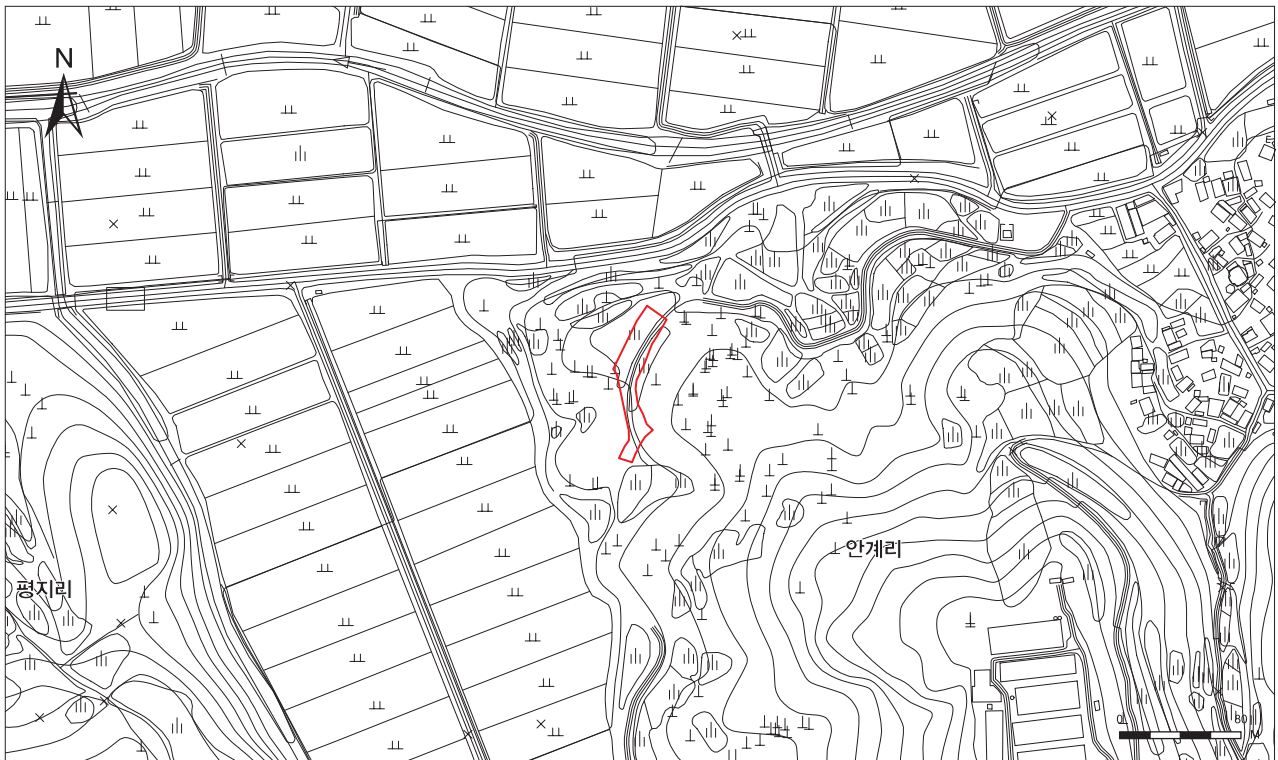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안계리 산17-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해동문화재연구원 /
2009.6.~2009.9.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장경호,
기대, 대부완, 환두대도,
철모

합천군 남부의 안계리 안동마을 서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산성산(해발 741m)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말단의 구릉부에 분포한다. 유적의 북쪽으로는 남강 수계인 양천강의 지류인 대현천이 흐르면서 곡간평야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남서쪽으로 합천 남부의 유력한 가야 고분군인 삼가고분군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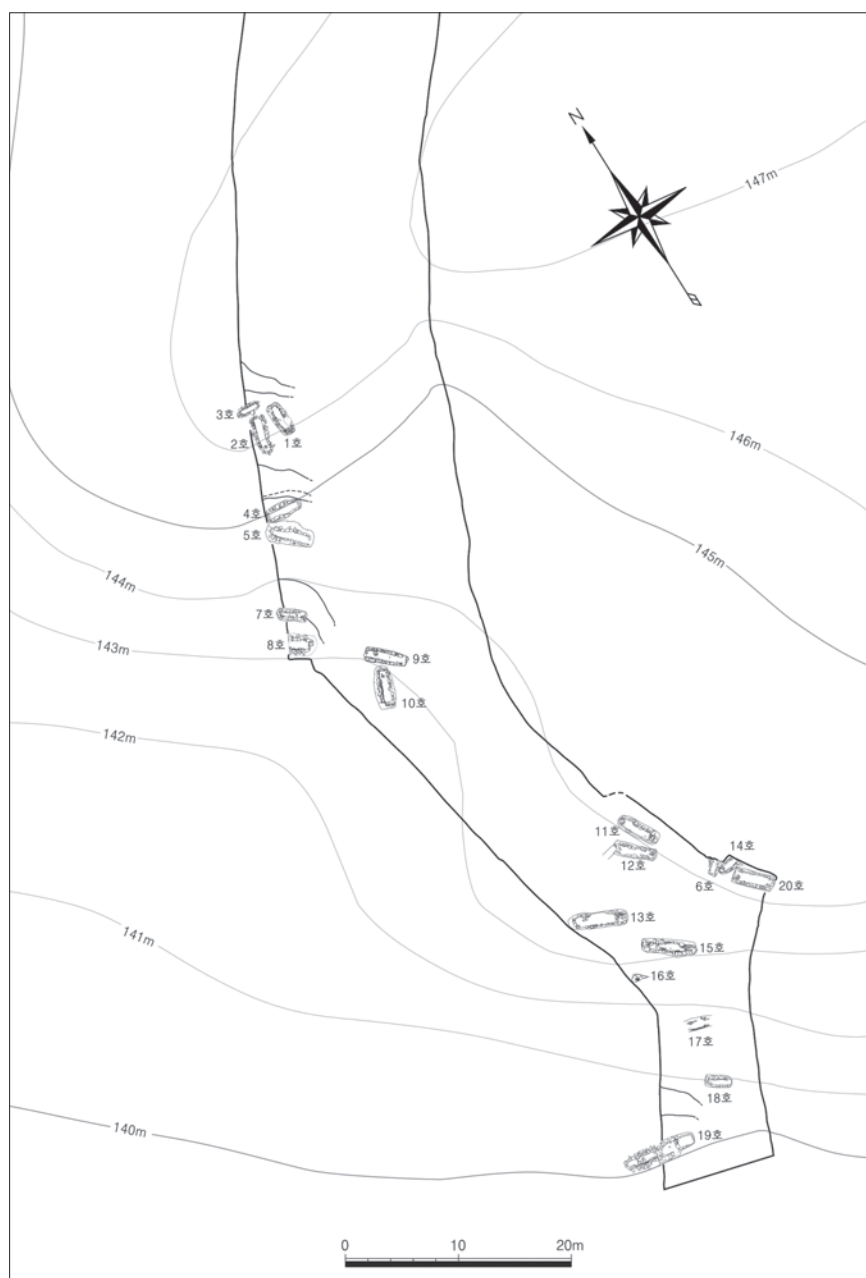
2009년에 합천 안계리 용수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동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삼국시대 석곽묘 20기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 153점, 철기 30점, 기타 2점 등 185점이다. 석곽묘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어 있으며, 일부 단곽식도 확인되나 대부분 동일 주구 내에 2~3기의 석곽이 군집을 이루는 다곽식 구조를 보이고 있다. 석곽의 길이가 4m 이상으로 비교적 대형급에 13·15·19호 석곽묘는 단곽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19호 석곽묘는 동단벽 쪽에 격벽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출토된 유물은 주로 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중 고배의 출토량이 높은 편이

유적 위치도

다. 토기의 양식은 대부분 대가야양식의 유개고배와 장경호이며, 세부 형식으로 보아 중심연대는 6세기 전반대로 편년된다. 철기는 철겸이나 철부 등 농공구와 함께 환두대도, 철모, 철촉 등 무기류의 부장이 확인된다. 특히 4호와 15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대도와 환두대도는 고분군 내 상위계층으로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안계리고분군의 한정된 범위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주변 일대의 대표적인 고분군인 삼가고분군 축조집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향후 권역 내 중심 집단과 단위집단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해동문화재연구원, 2011, 『합천 안계리 고분군-합천 안계리 용수로 개발사업지구 내-』.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2·3호 석곽묘

4·5호 석곽묘

토기류

철기류

05 합천 저포리유적
陜川 苧浦里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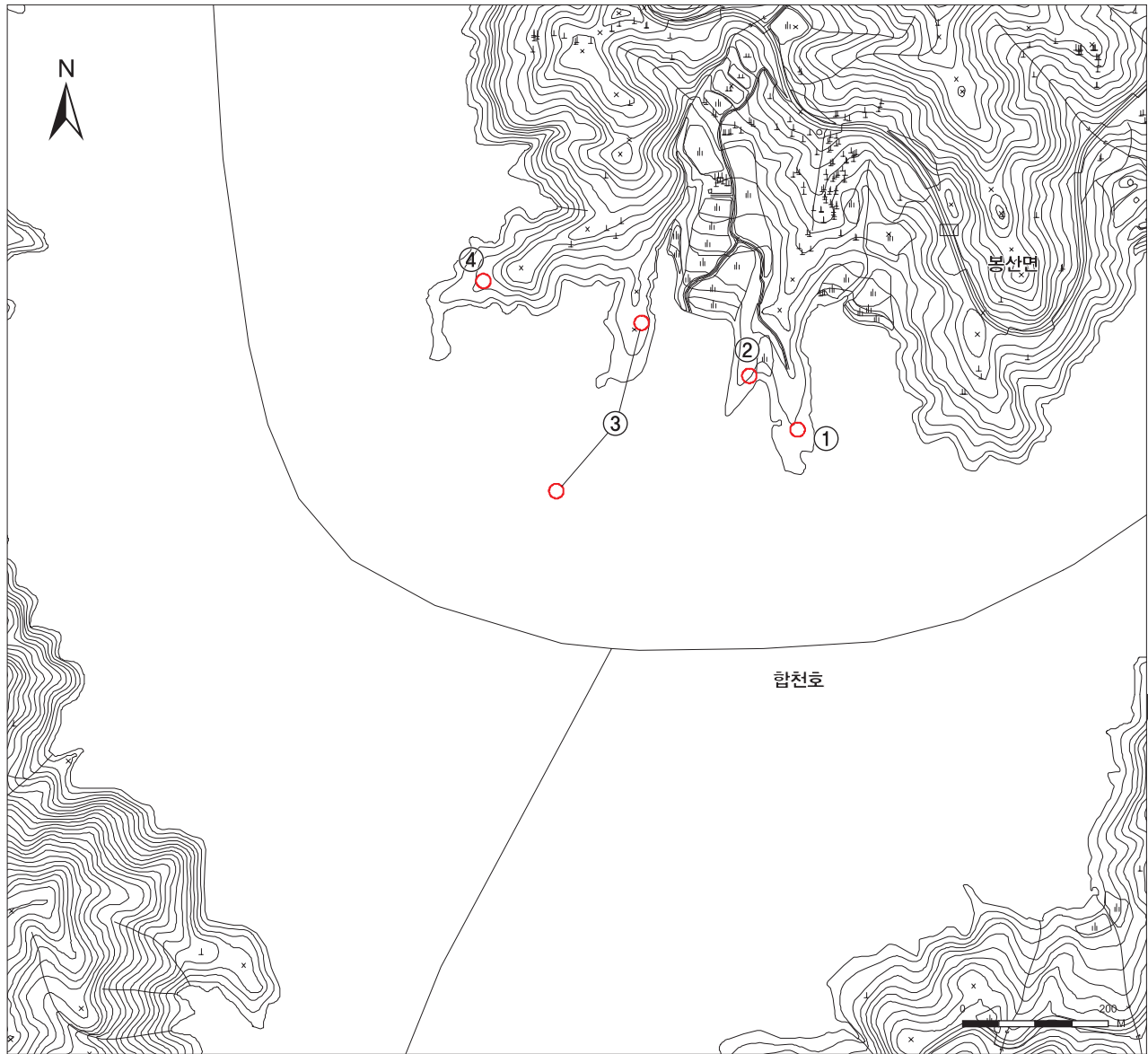
합천군 서부의 저포리 저포마을 서쪽에 있었던 생활유적과 무덤유적이며, 강덕산(해발 563m)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말단의 구릉부에 분포한다. 남쪽으로는 낙동강 수계의 황강이 곡류하고, 동쪽에서 논덕천이 합류하면서 비교적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주변으로는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황강 주변으로 형성된 곡간을 이용하여 합천과 거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한다.

1986~1987년에 합천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5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황강을 마주하는 2개의 구릉에 집중된다. 세부적으로 중앙에 곡간부를 경계로 동쪽으로 B지구, A지구가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남쪽의 C지구, 북쪽의 D지구, 서쪽의 A지구로 구분된다.

A지구는 영남대학교박물관에서 담당하였으며, 조사 결과 원삼국~삼국시대 목곽묘 43기와 석곽묘 5기, 옹관묘 3기와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동이 확인되었다. 퇴화된 형태의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가 공반하는 41호 목곽묘로 보아 2세기 후반부터 조영되기 시작하여 후기와질토기단계의 유적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후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대에 집중적으로 목곽묘가 조영되며, 석곽묘가 유행하는 5세기 후반까지 지속되고 있다. 황강 유역을 비롯하여 서북부 경남지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후기와질토기단계의 유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B지구는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담당하였으며, 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23기, 옹관묘 1기가 확인되었다. 목곽묘 가운데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는 중대형급의 6호 목곽묘에서는 유개고배, 발형기대와 함께 이형토기인 투조잔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20호 목곽묘에서는 관상어망추 198개 확인되었는데, 그물을 이용하여 시신을 덮거나 감싸 장례를 치른 것으로 추정되는 예이다. 전반적으로 4세기대 고식도질토기를 중심으로 편년되며, 일부 5세기 전반대에 해당되는 목곽묘가 분포한다.

C·D지구는 효성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 담당하였으며, 조사 결과 C지구에서는 생활유적인 수혈주거지가 3군으로 중복되어 10여 동 확인되었다. 원형과 방형계주거지로 구분되는데, 파수부옹, 시루와 같은 생활토기와 함께 기대, 단경호 등 4세기대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동쪽의 A·B지구에 형성된 고분군과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C지구에서 석곽묘 4기, 횡구식석실묘 1기, 횡혈식석실묘 5기가 확인되었고, D지구 남쪽에서는 석곽묘 3기, 횡혈식석실묘 1기가 조사되었으며, 가야 멸망을 전후하여 조영된 고분군으로 D·E지구 고분보다 선행한다.

D지구는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에서 담당하였으며, 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합천 저포리 고분군(A지구)	영남대학교박물관	1986.10.~1987.4.	합천 저포리 고분군(A지구)(1987)
2	합천 저포리B고분군	창원대학교박물관	1987.5.~1987.6.	합천 저포리 B고분군(1988)
3	합천 저포리 C·D지구 유적	효성여자대학교박물관	1986.10.~1987.1.	합천 저포리 C·D지구 유적(1987)
	합천 저포리 D지구 유적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1986.11.~1987.5.	합천 저포리 D지구 유적(1987)
4	합천 저포리 E지구 유적	부산대학교박물관	1986.11.~1987.8.	합천 저포리 E지구 유적(1987)

43기, 석실묘 2기, 옹관묘 3기가 확인되었다. 주목되는 고분으로는 좌편수식으로 대가야지역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횡혈식석실묘인 1호분이며, 봉분의 가장자리를 따라 3기의 석곽이 배치되어 있는 다곽식 구조이다. 종말기 대가야양식의 유개고배, 발형기대 등과 함께 동완과 은으로 장식한 관정 등이 출토되었다.

E지구는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였으며, 대부분 가야 멸망 이후의 석곽묘 9기, 횡구식석실묘 11기, 횡혈식석실묘 18기, 옹관묘 1기 등 모두 39기가 조사되었다. 조사구역 내 가장 이른 시기의 4호분은 3기의 횡구식석실묘가 배치된 다곽식 구조이며, 대가야양식의 토기와 함께 신라 토기가 출토된다. 특히 호석 좌측 상단에서 출토된 단경호에는 '하부사리리下部思利利'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매우 희귀한 가야의 문자로서 주목되었다.

이상의 합천 저포리유적은 원삼국기의 후기와질토기 단계인 2세기 후반부터 가야가 멸망하여 신라에 편입된 이후 7세기대까지 지속적으로 조영된 고분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단위지역 내 집단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한정된 자료이지만 수혈주거지를 비롯하여 생활유적이 무덤유적과 입지를 달리하여 분포하는 양상은 당시 가야인의 공간활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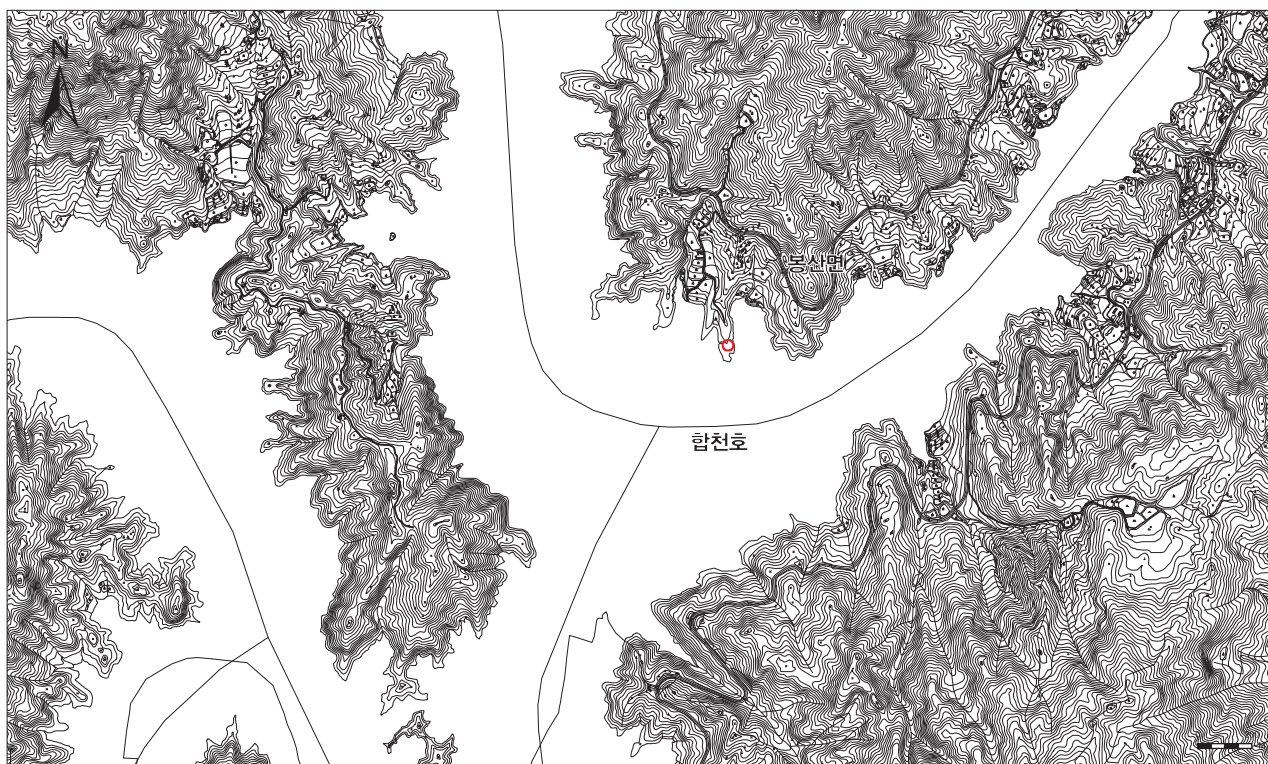
합천 저포리 고분군(A지구)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16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영남대학교박물관 / 1986.10.~1987.4.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목곽묘, 석곽묘 / 고배, 기대, 수평구연호, 철검, 철모

조사구역은 저포리유적 동쪽의 남쪽으로 돌출된 구릉에 해당하며, 1986~1987년에 합천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영남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쪽으로 인접한 소구릉에 저포리 B지구가 위치하며, 그 서쪽으로 곡간부를 사이에 두고 구릉에 C·D·E지구가 위치한다. 조사는 구릉을 3구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원삼국~삼국시대 목곽묘 43기와 석곽묘 5기, 옹관묘 3기와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동이 확인되었다.

목곽묘는 묘광을 판 후 목곽을 설치하였으며, 평면비가 1:2.5~4.1 정도의 세장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나 원삼국기에 해당하는 42호 목곽묘는 1:1.9 정도로 장방형을 띤다. 묘광의 규모 역시 42호 목곽묘가 길이 450㎝, 너비 260㎝로 대형급에 해당하며, 대부분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축조되었다. 목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후기와질토기와 고식도질토기 등 다양한 토기와 함께 철검·철모 등 무기, 경식과 금동이식 등의 장신구가 확인된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는 후기와질토기가 부장되며, 이후에는 도질토기가 주류를

유적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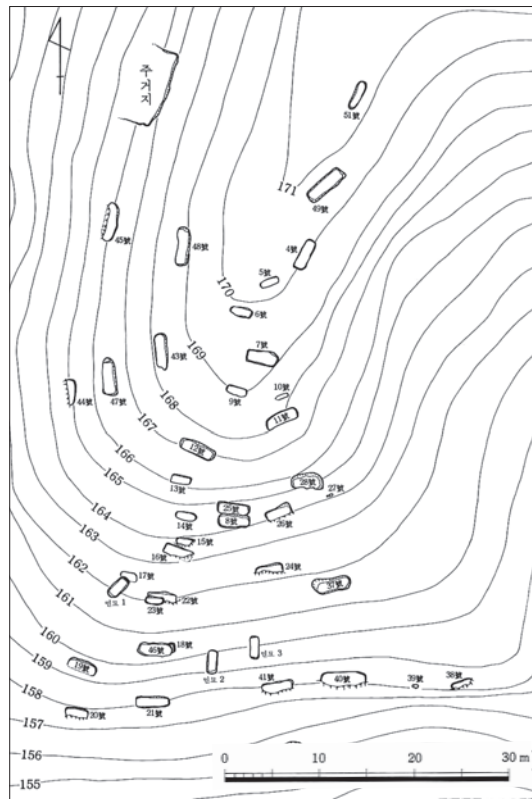
이루는 특징이 있다.

석곽묘는 대부분 도굴되었으나 구조를 알 수 있는 1호 석곽묘는 네 벽을 할석을 이용해 눕혀쌓고, 바닥에 편평한 할석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5세기 후반대의 전형적인 소가야양식 토기인 무개식삼각투창고배와 수평구연호가 확인되며, 철검과 철촉 등 무기가 다량으로 부장되어 있다.

단편적인 자료이지만, Ⅱ지구의 서쪽 사면부에는 장방형의 수혈주거지 1동이 확인되며, 길이가 8m 정도에 달하는 대형급이다. 동장벽의 중앙에 부뚜막으로 추정되는 소토가 확인되며, 중앙에는 사면 아래쪽으로 너비 5~34㎝ 정도의 구가 설치되어 있다. 출토된 유물은 연질옹, 시루 등 일상의 생활토기와 함께 개, 파수부완, 장경호 등 6세기 전반대 대가야양식의 토기가 공반하고 있다. 동일한 구릉에 분포하는 고분과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고, 서쪽의 C·D지구의 고분과 대응되는 생활유적이며, 본 조사구역의 고분과 대응되는 생활유적은 C지구에서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

저포리 A지구에서 확인된 고분은 퇴화된 형태의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가 공반하는 41호 목곽묘로 보아 2세기 후반부터 조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대에 집중적으로 목곽묘가 조영되며, 석곽묘가 유행하는 5세기 후반까지 지속되고 있다. 황강유역을 비롯하여 경남 서북부지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후기와질토기단계의 유적으로 주목되며, 저포리유적의 성장과정을 파악하는데 유효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영남대학교박물관, 1987, 『합천 저포리 고분군(A지구)』.

유구 배치도

유적 근경

31호 목곽묘

1호 석곽묘

출토유물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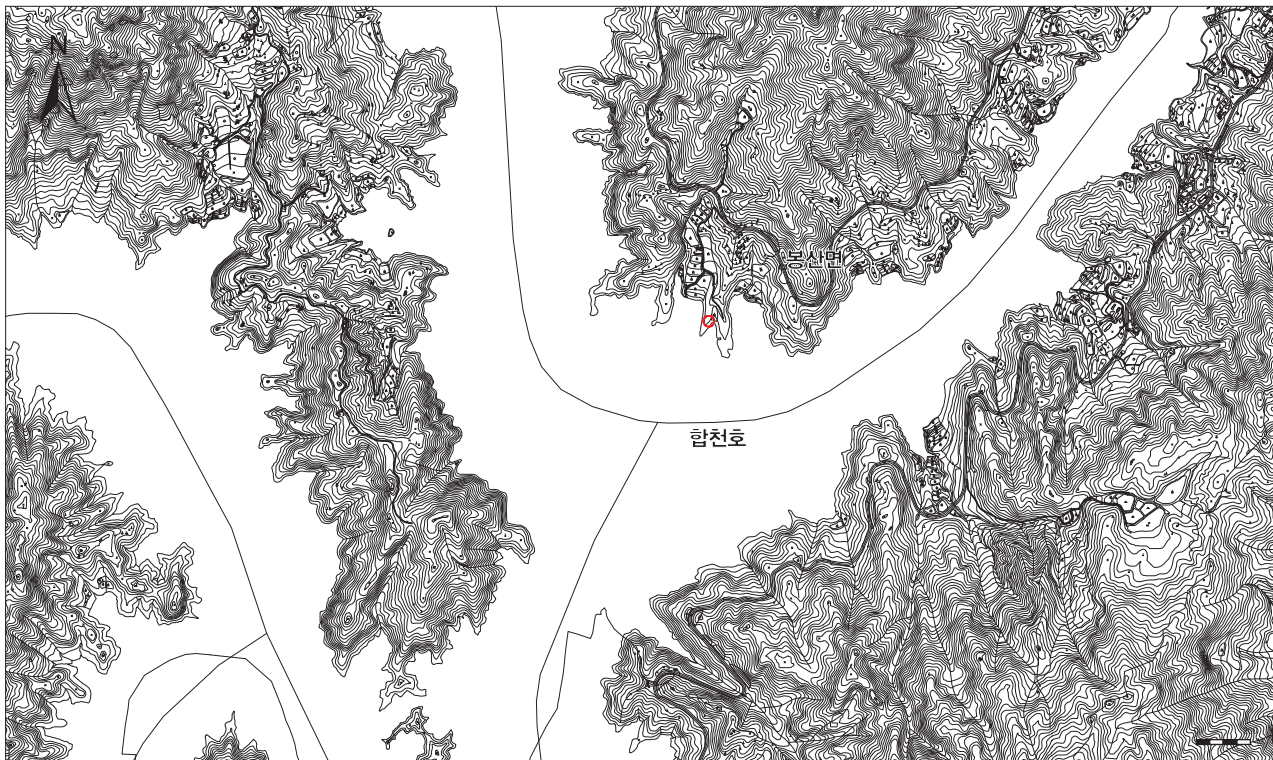
합천 저포리B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16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창원대학교박물관 / 1987.5.~1987.6.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고배, 기대, 이중구연호, 이형토기, 어망추, 철모, 철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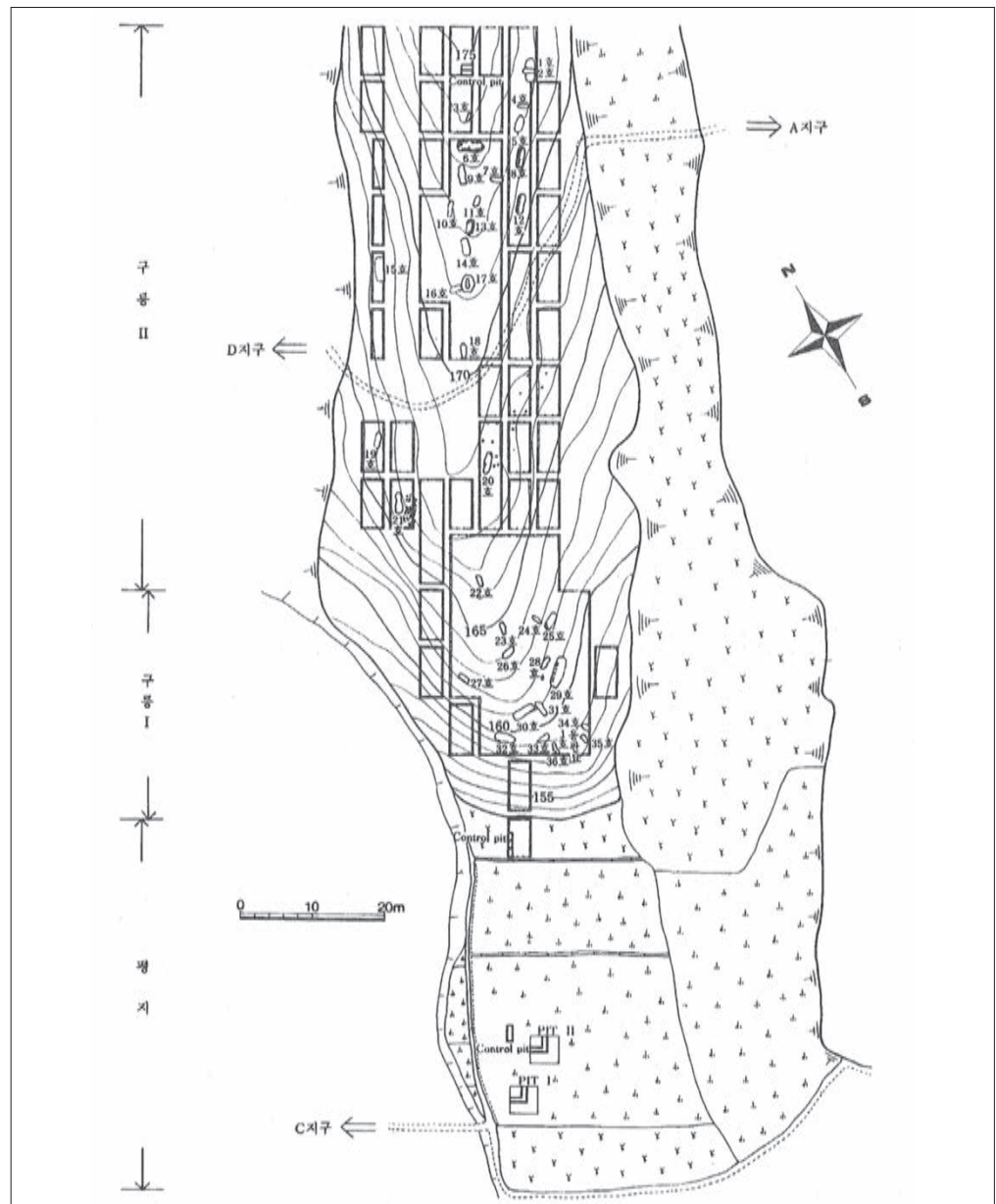
조사구역은 저포리유적 동쪽 구릉의 서쪽에 위치하는 소구릉에 해당하며, 1987년에 합천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창원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쪽으로 인접한 구릉에 저포리 A지구가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곡간부를 사이에 두고 구릉에 C·D·E지구가 위치한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23기, 옹관묘 1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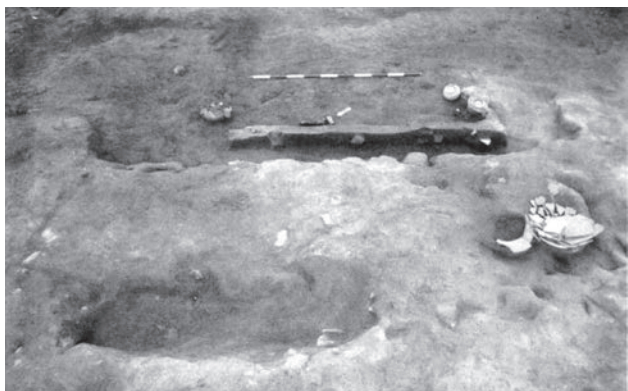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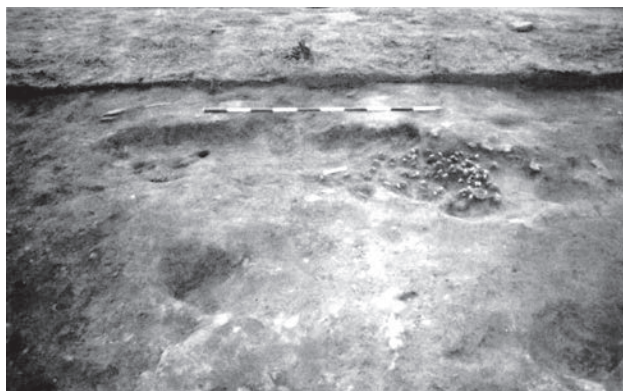
목곽묘는 대부분 상부가 삭평되었으며,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조영되었다. 목곽묘 간의 중복 없이 구릉의 정선부를 따라 열상으로 분포한다.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는 6호 목곽묘는 묘광이 4m 이상인 중대형급으로 유개고배, 발형기대 등 다량의 토기와 함께 이형토기인 투조잔이 출토되었다. 투조잔은 파배 외부에 평저를 가진 호의 동체부에 삼각형투창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20호 목곽묘의 바닥의 절반 범위에는 관상어망추 198개와 슬래그가 함께 출토되고 있다. 그물을 이용하여 시신을 덮거나 감싸 장례를 치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9호 목곽묘는 묘광의 길이가 512㎝에 이르는 대형급으로 목

유적위치도

탄이 쌓여져 ‘ㄱ’자형으로 남은 목곽 흔적이 확인된다. 출토된 판상의 철모 5점은 자작나무로 만든 포 위에 각각 마포로 포장한 후 3겹으로 쌓아 매납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대외교류와 관련하여 32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이중구연호는 서울 가락동·공주 남산리·부여 소사리유적 등에서 보이는 백제계 토기이다.

이상의 조사자료는 저포리유적의 변천과정을 파악하는데 유효하며, 특히 4세기대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집단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양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황강 상류역에서 고식도질토기단계의 대표적인 유적이며, 이후 후기가야의 성장 기반을 파악하는데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창원대학교박물관, 1988, 『합천저포리B고분군』.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28·29호 토광묘

20호 토광묘

20호 목곽묘 유물 출토모습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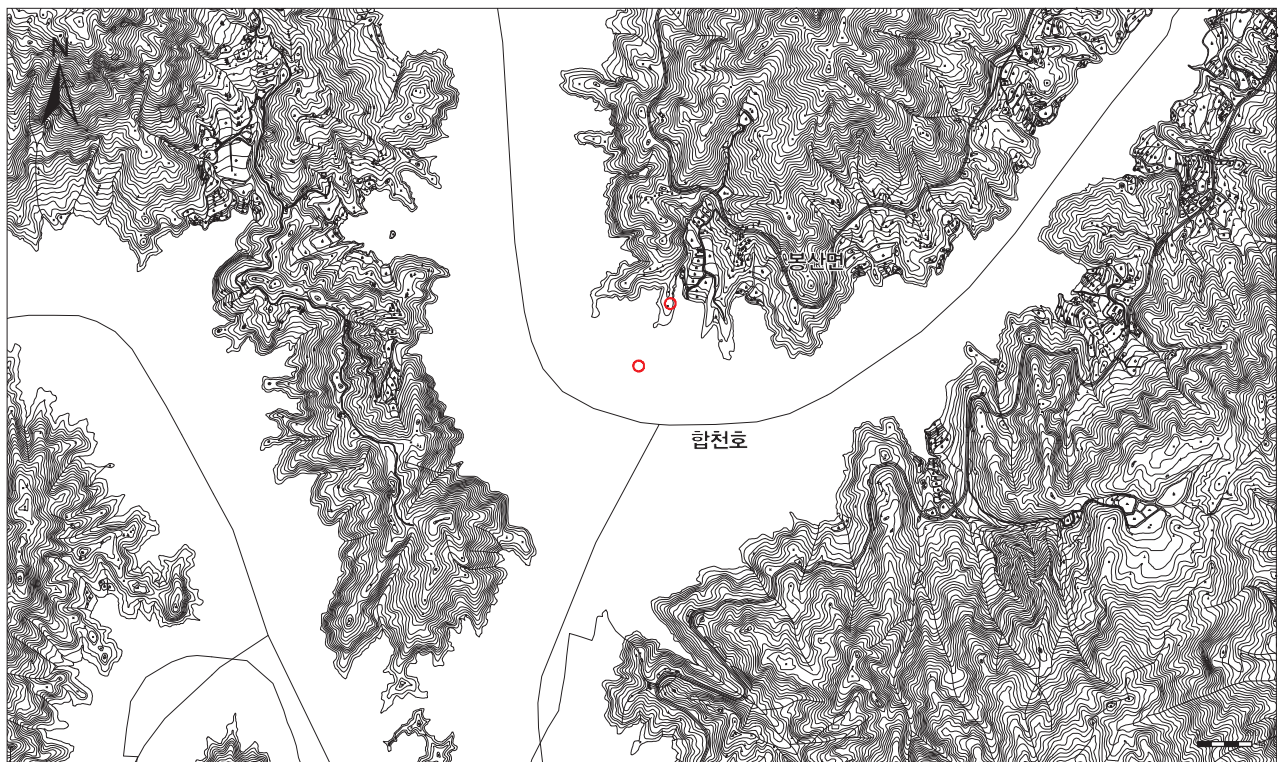
05-3 합천 저포리 C·D지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16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효성여자대학교박물관 / 1986.10.~1987.1.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 1986.11.~19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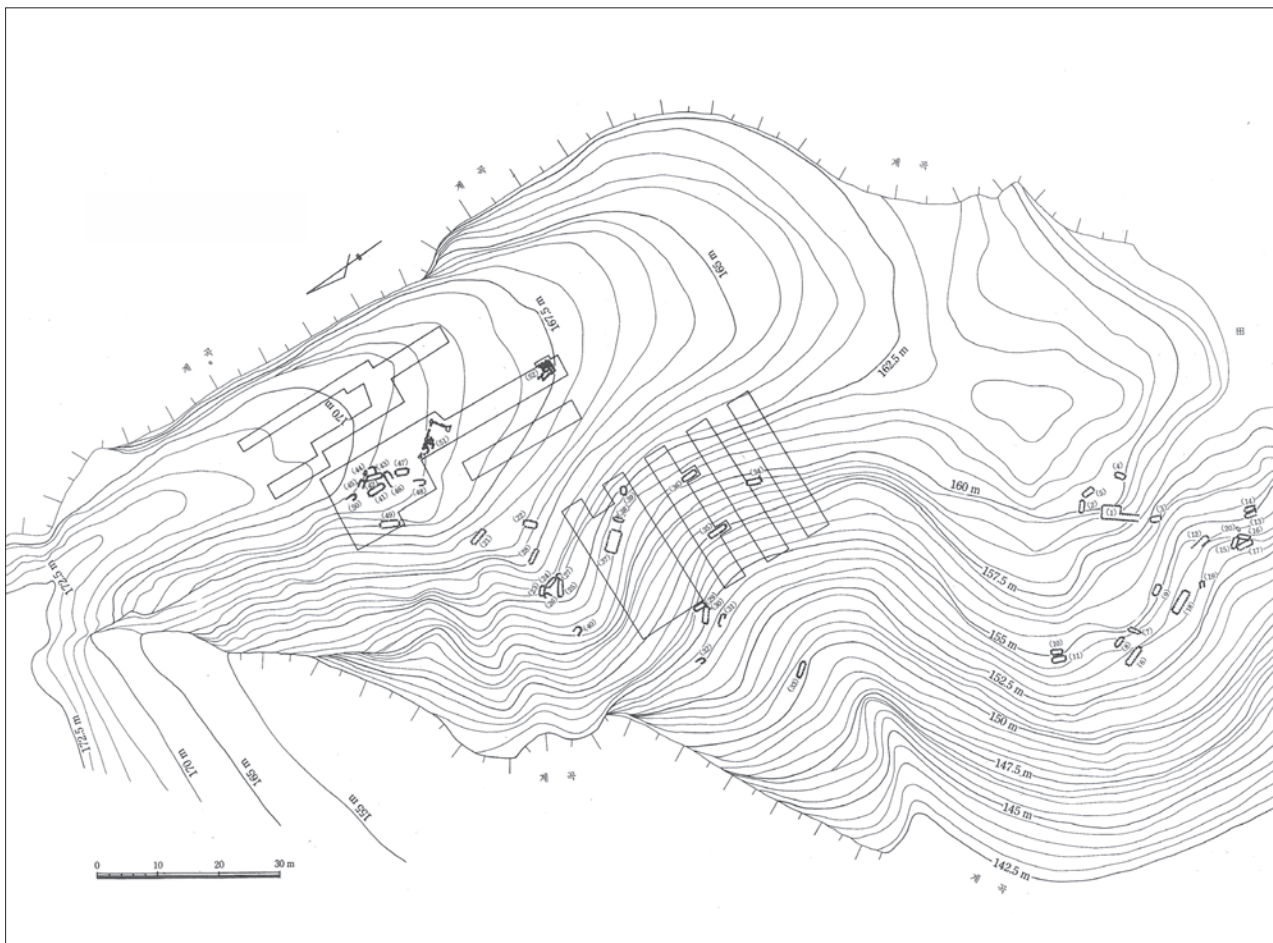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주거지 / 개배, 고배, 장경호, 기대, 동완, 은장관정

조사구역은 저포리유적 중앙의 남쪽으로 돌출된 구릉에 해당하며, 1986~1987년에 합천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C지구와 D지구 일부를 효성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 D지구를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생활유적인 수혈주거지는 C지구에서 3군으로 군집을 이루며, 사면 아래쪽의 제2지구에서는 원형계의 수혈주거지 1~2동이 확인되고, 주변으로 수혈유구가 중복되었다. 수혈의 벽면을 따라 점토가 덧발라져 있으며, 부뚜막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사면 위쪽의 제1지구에서는 부정형에 가까우나 장방형을 띠는 주거지가 10여 동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군으로 군집되어 상하로 중복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1호 주거지에는 바닥에 소토와 목탄이 잔존하는 화재주거지 일 가능성이 높다. 출토된 유물은 파수부옹과 시루 등 생활토기와 함께 기대, 단경호가 확인된다. 또한 방추차, 숫돌, 어망추와 함께 보리, 밀, 팥 등의 곡물류가 소량 검토되었다. 취락의 동쪽의 A·B지구에 형성된 고분군과 병행

유적위치도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4세기대 생활유적와 무덤유적이 구릉을 달리하여 공간적으로 분할된 양상을 보여준다.

무덤유적은 C지구에서 석곽묘 4기, 횡구식석실묘 1기, 횡혈식석실묘 5기 및 소형의 석곽과 옹관석곽이 확인되었고, D지구 남쪽의 효성여자대학교박물관 조사지역에는 석곽묘 3기, 횡혈식석실묘 1기가 확인되었다. C지구 1호와 2호, D지구 4호 석실묘는 호석으로 둘러진 하나의 봉분에 횡구식이나 횡혈식의 석실을 중앙에 조영하고, 그 가장자리에 2~3기 정도의 소형석곽이나 옹관석곽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C지구 1호분은 장방형의 석실에 짧은 좌편수연도를 설치하였으며, 대가야양식과 신라 토기가 함께 출토되어 주목된다. 대가야 멸망을 전후하여 1차 매장과 추가장이 이루어졌으며, 저포리 C·D·E지구에서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조사지역은 3구역으로 나눠지는데 Ⅰ구역은 가장 남쪽 구릉에 위치하며, 석곽묘 17기, 석실묘 1기, 옹관묘 2기가, 주 구릉에서 서쪽으로 짧게 돌출된 사면에 해당하는 Ⅱ구역에서 석곽묘 18기, 석실묘 1기가 확인되었다. 구릉 북쪽의 고위면인 Ⅲ구역에서는 석곽묘 8기와 옹관묘 1기가 분포하고 있다.

유구 배치도

석곽묘는 조사구역의 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확인되고 있으며, 단곽식과 함께 2기의 석곽이 나란히 조성되거나, 2~6기의 석곽이 군집을 이루는 다곽식 구조도 다수 확인된다. 특히 구릉 정상부인 Ⅲ구역의 중앙에는 6기의 석곽과 옹관이 집중하는 구조이며, 대가야양식 토기와 신라토기가 부장되는 것으로 보아 가야 멸망을 전후하여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대부분의 석곽묘에 부장된 토기는 개배와 고배, 장경호 등 6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대가야양식이다.

석실묘인 Ⅰ-1호분은 구릉 정선부의 평탄면에서 남서쪽으로 돌출된 지점에 위치하며, 길이 310㎝, 너비 210㎝, 높이 280㎝ 정도인 현실의 왼쪽에 연도가 딸린 횡혈식석실묘로 D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현실의 우측 장벽에 접하여 길이 240㎝, 너비 790㎝, 높이 10㎝의 관대 1기가 마련되어 있고, 현실과 연도의 입구에 폐쇄석과 연도 밖으로 빠지는 배수구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봉분 가장자리를 따라 3기의 석곽이 배치되어 있으며, 남동쪽에서는 대옹 속에 4점의 유개고배를 넣고 발형기대로 덮은 매납유구가 확인되었다. 종말기 대가야양식 토기인 유개고배, 발형기대 등과 함께 동완과 은으로 장식한 관정 등이 출토되었다.

저포리 D지구에서 확인된 무덤은 대가야의 발전과 멸망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합천지역에서 다수 확인되는 다곽식구조의 석곽묘와 함께 전형적인 대가야계 석실묘의 구조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서쪽의 저포리 E지구에서 확인되는 석실묘와 함께 가야 후기의 묘제변천을 파악하는데 유효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효성여자대학교박물관, 1987, 『합천저포리 C. D지구 유적』.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1987, 『합천저포리 D지구 유적』.

Ⅱ-3~7호 석곽묘

Ⅰ-14~16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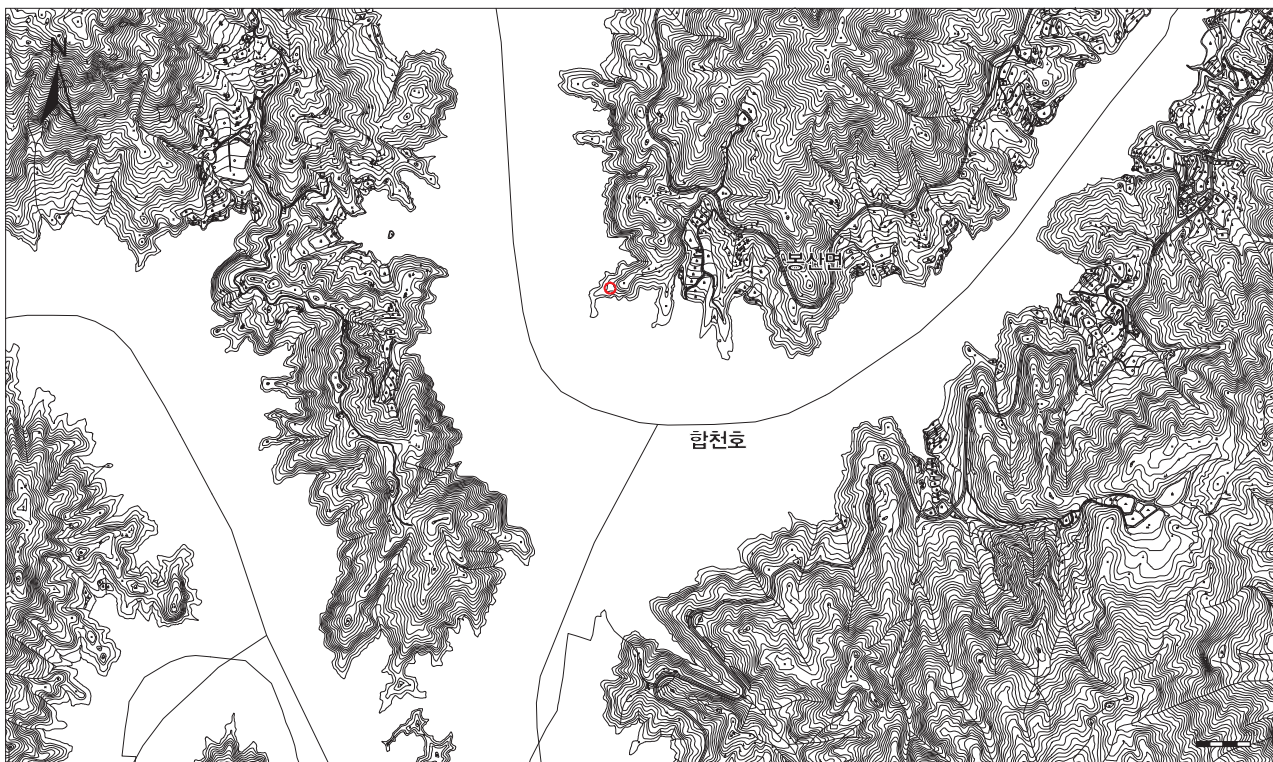
05-4 합천 저포리 E지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16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대학교박물관 /
1986.11.~1987.8.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고배,
단경호, 대부장경호,
유자이기, 대금구

조사구역은 저포리유적의 서쪽 구릉의 남쪽 사면부에 해당하며, 1986~1987년에 합천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쪽으로 저포리 C·D지구와 인접하고 있으며, 그 동쪽으로 곡간부를 사이에 두고 저포리 A·B지구가 구릉에 위치한다. 조사는 동쪽의 구릉을 가구역, 서쪽의 넓은 구릉을 나구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삼국시대 석곽묘 9기, 횡구식석실묘 11기, 횡혈식석실묘 18기, 옹관묘 1기 등 모두 39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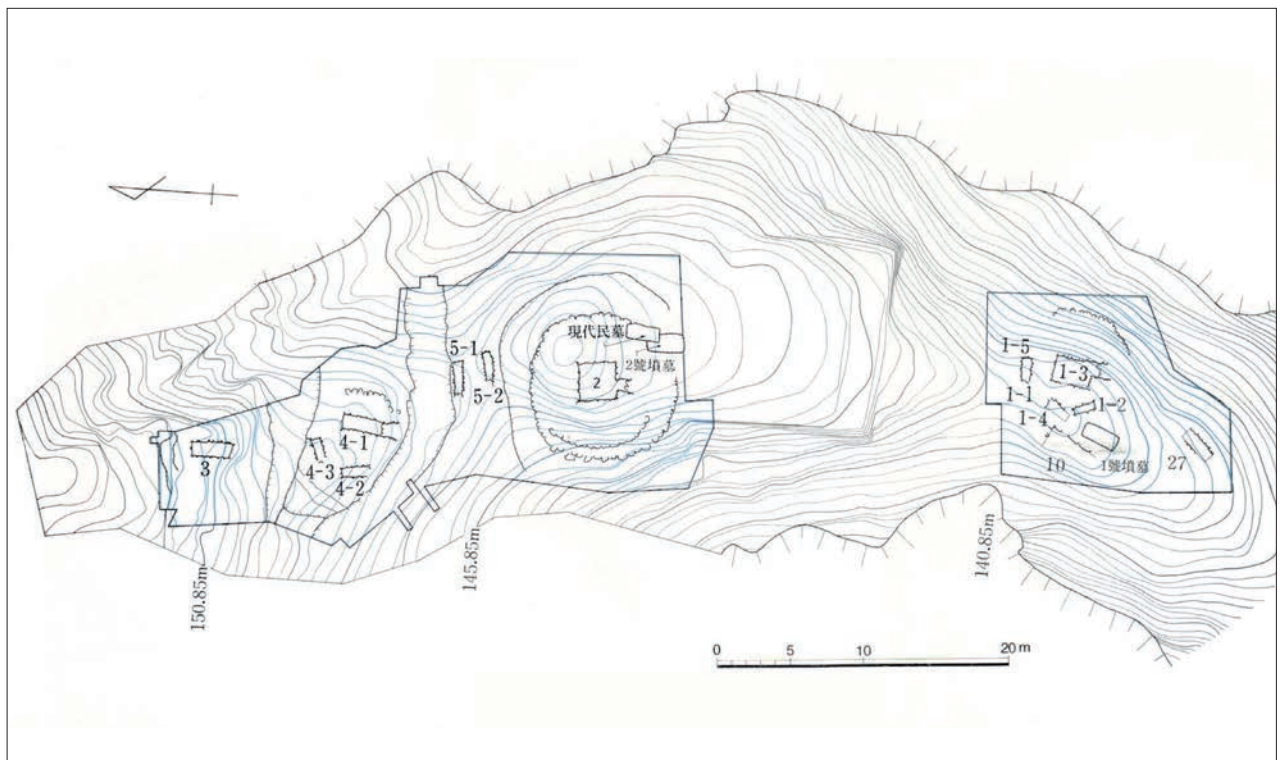
고분은 대부분 가야 멸망과 함께 신라에 편입된 이후에 조영되었으며, 봉토의 지름은 대부분 6~8m 정도인 소형급이며 2, 4, 11, 14호분와 같이 10m 정도의 중형급도 확인된다. 주묘제는 대부분 횡구식 또는 횡혈식의 석실묘이며, 석곽묘는 대부분 봉토의 가장자리에 딸린 배장묘의 성격을 보인다. 석실묘는 평면형태에 따라 장방형과 방형이 있는데, 장방형의 석실묘는 한쪽 단벽의 전면에 입구가 있는 4-1호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적위치도

단벽의 한쪽으로 연도가 설치된 편수식이며, 시상은 주로 한쪽 장벽에 붙여 마련하였다. 이에 비해 방형계열의 석실묘는 양수식과 편수식이 있으며, 시상은 대부분 후벽에 연해서 설치하였다.

E지구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고분은 3기의 횡구식석실묘가 배치된 다곽식 구조의 4호분이며, 대가야양식의 토기와 함께 신라 토기가 출토된다. 특히 4-1호분의 좌측 호석 상단에서 출토된 단경호에는 '하부사리리下部思利利'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매우 희귀한 가야의 문자로서 주목되었다. 이를 통해 멸망 무렵의 가야에서도 고구려나 백제 같이 '하부下部'라는 부명을 사용한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 외 대부분의 석실묘는 가야 멸망 이후에 해당하며, 출토된 유물은 단각고배, 대부장경호 등 토기와 철겸, 도자와 같은 농공구가 주류를 이루고, 유자이기, 과대금구 등도 확인된다. 유자이기는 합천 옥전고분군의 부장품을 계승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철제무기의 출토는 극히 드문 반면에 과대금구 등이 출토되어 신라에 편입된 이후 연속적인 지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저포리 E지구 고분군은 가야 멸망 직전인 6세기 중엽에 조영되며, 이후 신라에 편입되어 7세기 후반까지로 지속적으로 고분이 축조되고 있다. 저포리 C·D지구와 연속선 상에서 가야의 멸망과 이후의 가야사회의 재편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된다.

참고문헌

부산대학교박물관, 1987, 『합천 저포리 E지구 유적』.

가지구 유구 배치도

나지구 전경

4호분 전경

4-1호분

4-2호분

4호분 출토 '하부사리리'명 단경호

06 합천 반계제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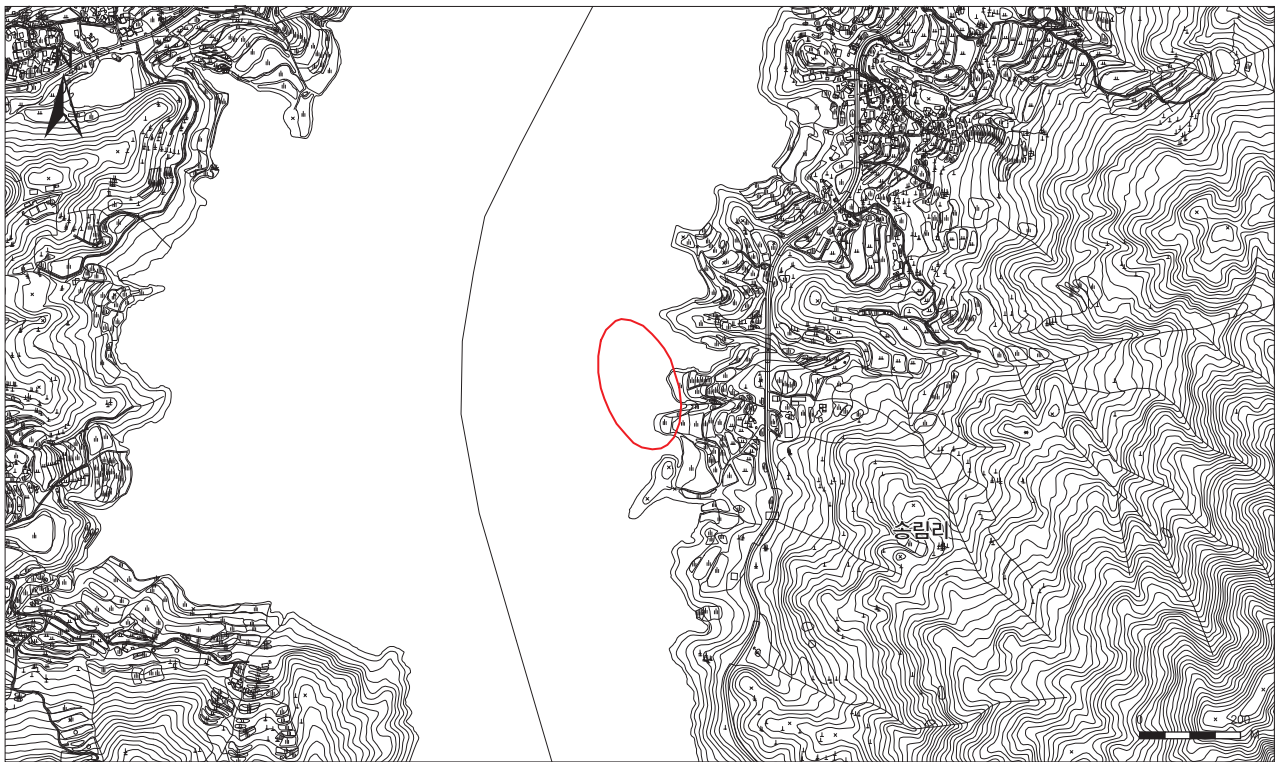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송림리 11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진주박물관 /
1986.10.~1987.4.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석곽묘 / 고배,
유개장경호, 기대,
소찰주, 재갈, 등자

합천군 서부의 송림리 송림마을 남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강덕산(해발 563m)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말단의 구릉 정선부에 분포한다. 서쪽으로는 낙동강 수계의 황강이 곡류하면서 비교적 넓은 곡간평야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서로는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황강 주변으로 형성된 곡간을 이용하여 합천과 거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상에 위치한다.

1986~1987년에 합천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편의상 3지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대형 봉토분 6기와 중소형석 곽묘 100여 기가 조사되었으며, 특히 봉분의 직경이 15m 정도 되는 대형 봉토분은 소규모 구릉의 정상부 중에서도 돌출한 지점에 분포하고 있다.

봉토분들은 타원형의 호석을 돌렸으며, 매장주체부는 길이 5~6m 정도인 석곽이다. 길이 2m 정도의 소형 석곽이 주곽에 덧붙여 조영되어 있으며, 유물부장을 위한 부곽과는 다른 성격이다. 대부분의 봉토분에서 의례유구가 확인되며, 호석 외곽의 한쪽 편에 대옹이나

유적 위치도

통형기대 등을 파쇄하여 매납하였다. 고분군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봉토분인 가-A호분은 봉분의 직경이 장축 16m, 단축 13m 정도 되는 타원형이며, 그 중앙에 주곽이 반지하식으로 축조되었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640㎝, 너비 130㎝, 깊이 170㎝이며, 석곽의 서쪽 편에 치우쳐 바닥돌을 깔아 시상을 만들었다. 피장자는 동침을 하였으며, 머리맡에 토기 위주로 유물을 부장하고, 발치쪽에는 마구나 투구 등을 부장하였다. 주곽의 북쪽으로는 길이 200㎝, 너비 50㎝ 정도의 소형 석곽이 나란하게 조영되어 있다.

출토된 유물 가운데 가-A호분의 투구는 방형철판을 가죽끈으로 결합하여 제작한 소찰주로서, 두정부에 금동제내관 모양의 복발이 있는 형식이다. 다-A호분에서는 사행상철기 및 타원형경판비와 등자 등 마구가 일괄로 출토되었다. 부장유물은 고령의 대가야지역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과 매우 유사하며, 고령 지산동 44·45호분 단계와 병행하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쳐 고분군이 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규모가 큰 봉토분과 중소형급의 석곽묘로 이루어진 고분군으로서 합천지역 최대의 고총 고분군인 옥전고분군과 더불어 황강유역의 대표적인 가야고분이다. 특히 주변 일대에서는 합천 봉계리고분군, 중반계분묘군 등 단위집단의 고분군이 다수 조사되어, 이를 통해 권역 내에 집단 간의 위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다.

참고문헌

국립진주박물관, 1987, 『합천 반계제 고분군』.

가지구 유구 배치도

가A호분

투구 장식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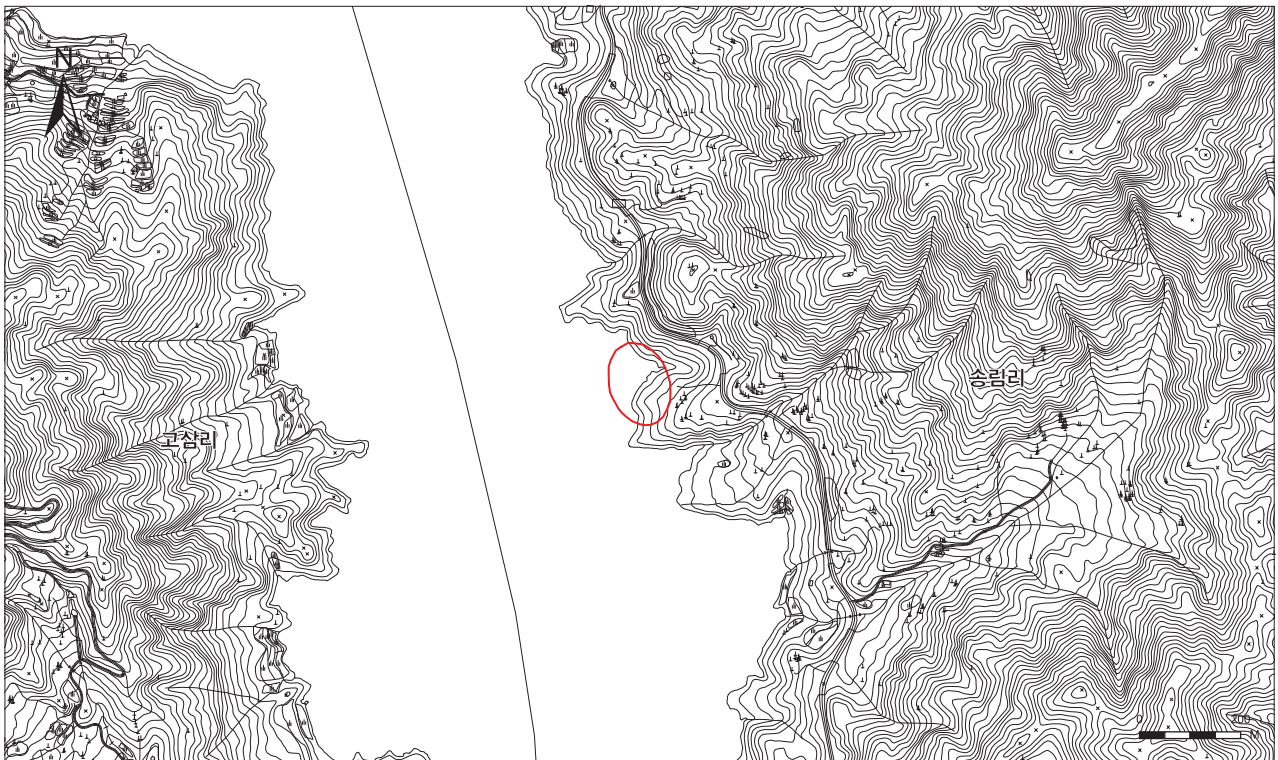
합천 중반계분묘군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송림리 산17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1986.11.~1986.1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개배, 대부장
경호, 철겸, 이식

합천군 서부의 송림리 중반계마을 남쪽에 있었던 무덤유적이며, 강덕산(해발 563m)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구릉 말단의 남서쪽 사면부에 분포한다. 서쪽으로는 낙동강 수계의 황강이 곡류하면서 곡간평야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서로는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황강 주변으로 형성된 곡간을 이용하여 합천과 거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반계제고분군, 남쪽으로는 저포리유적과 인접한다.

1986년에 합천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기의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등고선과 나란한 동-서 방향으로 분포하며, 대부분은 단곽식의 열상배치를 보인다. 다만, 13호 석곽묘는 사면 위쪽으로 12·20호 석곽묘가 둘러싸듯이 배치된 다곽식구조로 판단되며, 3호와 8호 석곽묘의 주변으로도 소형의 석곽묘가 1기씩 인접하여 있다. 석곽의 축조는 하단을 납작한 돌을 세우거나 눕히고 그 위에 할석으로 쌓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바닥은 잔자갈을 시상을 마련한 2호

유적 위치도

분 이외에는 기반암을 정지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토기가 석곽의 한 쪽 단벽에 치우쳐 부장되어 있고, 철기는 중앙에 부장되어 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 60점, 철기 18점, 청동피금제이식 4점, 방추차 1점 등 모두 83점이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기는 대가야양식의 개배, 단경호, 장경호, 대부장경호, 연질옹 등이며, 철기는 철겸과 도자 등 농공구로 구성되어 있다.

석곽의 축조방식과 출토유물로 보아 고분군은 6세기 전반대에 조영되었으며, 고분군의 규모로 보아 북쪽 1㎞ 거리에 위치하는 합천 반계제고분군의 하위 단위집단의 묘역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1987, 『합천 중반계 분묘군』.

유적 전경

12호분

유물 출토모습

08

합천 봉계리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봉계리 7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85.12.~1986.5.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봉토분 / 고배, 유개장경호, 기대, 재갈, 청동제천

합천군 서부의 봉계리 봉계마을 남동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황강의 서안에 형성된 충적지에 분포한다. 서쪽으로는 월현산(해발 618m)을 중심으로 높은 산지가 이어져 있으며, 동쪽으로는 황강 넘어 반계제고분군과 마주하고 있다. 남북으로는 낙동강 수계의 황강이 곡류하면서 넓은 곡간평야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요한 교통로로 이용된다.

1985~1986년에 합천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2개 지점에 이루어졌다. 북쪽의 구릉부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봉계리 대형분 1기와 함께 남쪽의 오림동 마을 서쪽의 충적지에 분포하는 지점에서 목곽묘 21기, 석곽묘 201기, 옹관묘 5기가 조사되었다.

봉계리 대형분은 봉토 내부에 2개의 석곽이 배치된 다곽식이며, 주곽의 측벽은 할석으로 쌓았고, 그 사이에는 점토로 메웠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800㎝, 너비 150㎝, 높이 160㎝이며, 유물은 북동 단벽과 중앙에서 유개고배, 발형기대, 청동제천 등이 출토되

유적 위치도

었고, 축조 연대는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주곽과 나란히 배치된 소형 석곽은 판석을 세우고, 그 위에 할석으로 쌓아 축조한 형태이다. 석곽 규모는 길이 160㎝, 너비 70㎝로 소형이며, 유물은 도굴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오림동 충적지에 분포하고 있는 소형분은 목곽묘와 석곽묘가 중심이며, 목곽묘의 주축은 동-서 방향이고 대부분 바닥에 잔자갈을 깔았으나,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것과 판석을 깐 것 등도 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00㎝, 너비 70㎝ 이하의 소형급에 해당하며, 출토된 토기로 보아 5세기대가 중심연대이다. 석곽묘는 2~4매의 판석을 세워 측벽을 만들고, 판석을 덮은 소형급이 일부 있으며, 대부분 할석과 천석으로 눕혀쌓기 한 중소형급이 주류를 이룬다. 출토된 유물은 대가야양식 토기와 함께 삼각투창고배, 수평구연호와 같은 소가야양식 토기가 혼재되어 있으며, 20호 석곽묘에서 일본 고분시대의 스에키 고배가 확인되고 있다. 토기의 형식으로 보아 5~6세기에 걸쳐서 장기간에 고분군이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합천 반계제고분군으로 대표되는 권역 내에서 단위집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목곽묘에서 석곽묘로 이행되는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으며, 다양한 양식의 토기를 통해서 대가야와 소가야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1986, 『합천 봉계리 고분군』.

유적 전경

고분군 전경

대형분

토기류

토기류 및 이식

철기류

09

합천 봉계리 8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봉계리 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7.3.~2017.4.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석곽묘 /
고배, 유개장경호,
이식

합천군 서부의 봉계리 봉계마을 동쪽에 있는 생활유적과 무덤유적이며, 망일산(해발 620m)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남쪽 사면부에 분포한다. 비교적 높은 산지를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 황강을 통해서 합천과 거창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남서쪽으로 200m 거리의 구릉에는 1985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봉계리대형분이 있다. 남쪽으로 0.7㎞ 거리의 황강변 충적지에서 봉계리고분군이 분포하며, 황강 건너에는 남동쪽에서는 반계제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2017년에 합천댐 수위가 낮아져 고분이 노출되어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혈주거지 2동, 석곽묘 8기,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주거지는 조사구역의 서쪽 해발 163m 지점의 호석렬의 하부에서 2동이 확인되었는데, 후대 경작에 의해 상당부분이 파괴되었다. 주거지의 벽면과 바닥은 굴착면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2호 주거지의 동쪽에서는 벽면에서 약 30㎝ 이격되어 부뚜막이 설치되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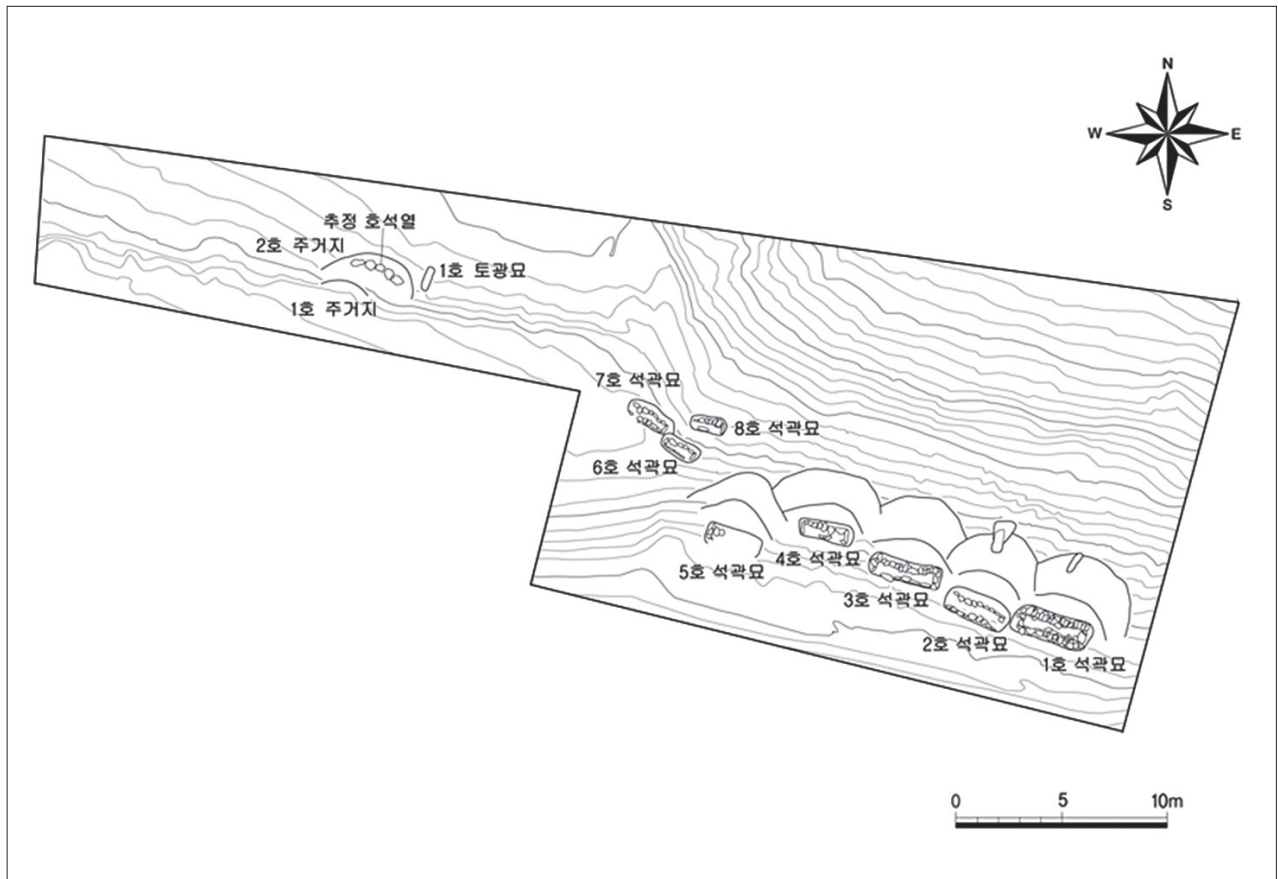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며, 서쪽으로 고래가 연결된다. 유물은 주거지 바닥에서 타날된 경질호, 부뚜막에서 연질호가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조사지역 남쪽 사면부인 해발 160m 정도의 위치에 등고선을 따라 열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일정한 묘역을 가지고 있고 사면 위쪽으로는 주구가 조성되어 있으며, 최하단은 판석을 세워 쌓고, 그 상단부터는 할석을 눕혀 쌓았다. 1호 석곽묘의 주구에서는 목탄과 함께 파쇄된 토기가 출토되어 제의행위가 유추된다. 석곽묘는 중복관계를 통해 구릉 사면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점차 조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출토된 토기는 대가야양식으로 개배와 유개식장경호, 단경호, 연질발 등이며, 6세기 전반대에 고분군이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선행 조사된 합천댐 수몰지구의 봉계리대형분, 봉계리 오림동고분군, 반계제고분군 등과 동일한 성격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또한 단편적으로 수혈주거지를 통해 생활유적의 존재를 확인한 점은 향후 고분군과 생활유적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 「합천 봉계리 8번지 유적 긴급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호 석곽묘

2호 석곽묘

출토유물

10

합천 문림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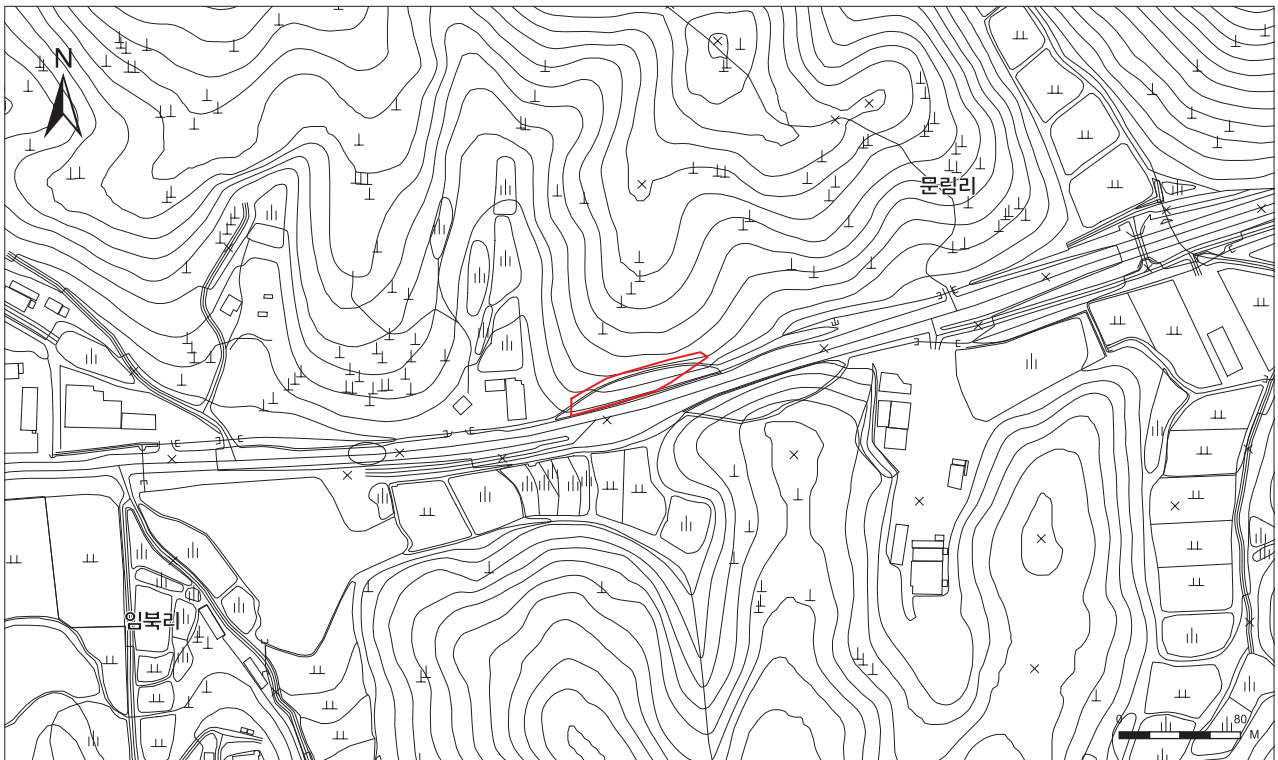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산16-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3.2.~2013.6.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개, 장경호,
토제품, 대도, 재갈

합천군 중부의 문림리 문림마을 서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대야성산(해발 267m)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남쪽 사면 말단부에 분포한다. 남북으로는 비교적 높은 산지를 이루고 있으며, 산지 사이를 개석한 곡간부를 통해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한다. 북쪽으로는 낙동강 수계의 황강이 곡류하며, 동쪽으로는 본천천이 황강으로 합류하면서 곡간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2013년에 합천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로 인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4구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으며, Ⅳ구역에서 삼국시대 석곽묘 22기와 구상유구 1기, 수혈주거지 1동이 확인되었는데, 수혈주거지와 구상유구는 가야 멸망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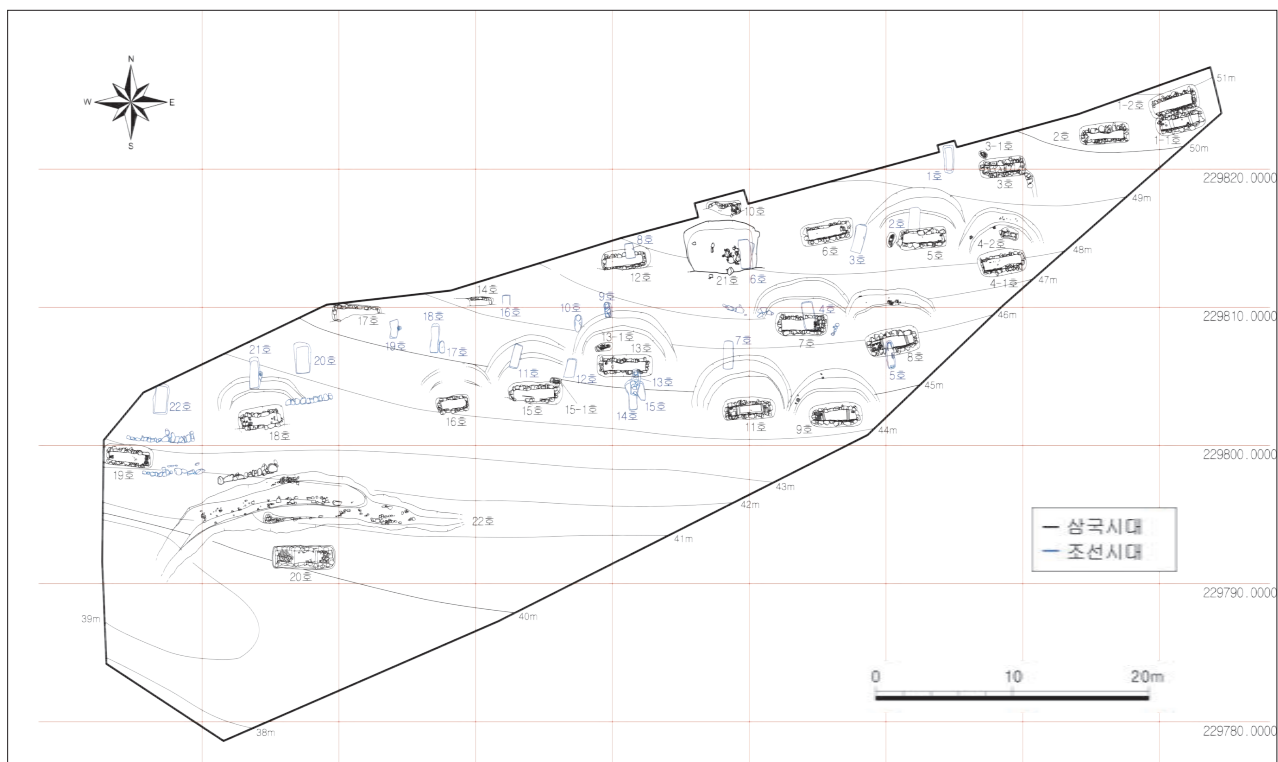
석곽묘의 봉분은 대부분 삭평되었고, 사면 위쪽에 주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구의 규모로 보아 봉분의 직경은 10m 이하의 소형급이다. 석곽은 대부분 단곽식이며, 1호와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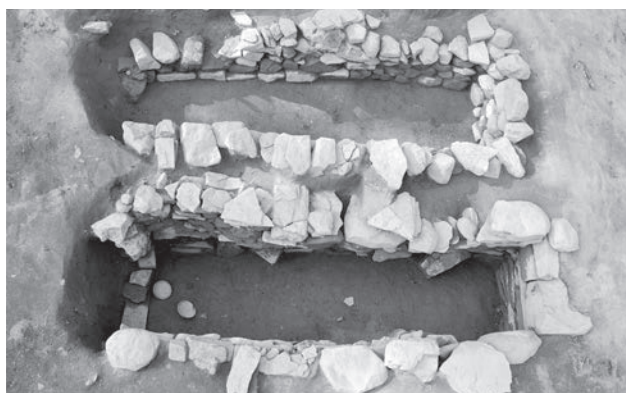
4호분은 2기의 석곽이 병행하는 다곽식구조로 4기의 고분에는 옹관묘가 추가로 조영되어 있다. 석곽의 규모는 대부분 4m 이하의 중소형급이며, 규모가 가장 큰 20호분은 구릉의 가장 아래쪽에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문림리유적에서 특징적인 석곽묘의 구조는 바닥에 횡목을 설치한 점으로 22기 가운데 10기의 석곽묘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횡목은 가야지역 고분에서는 사례가 없으며, 원삼국시대 거창 정장리 3지구 89호 목곽묘에서 일부 확인되고, 신라나 백제지역의 고분에서 보이는 구조이다.

출토된 유물은 303점으로 토기 가운데 개가 65점, 장경호가 44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장경호는 대부분 대가야양식에 해당하지만, 세부적으로 고령지역과는 차이가 있으며, 고배나 소형토기를 대신하여 장경호가 고분에 다수 부장된다. 또한 합천지역의 장경호와 함께 특징적으로 종형의 개가 부장되고 있으며, 문림리고분군에서는 6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주목되는 유물로는 구멍이 뚫린 직사각형의 토제품이 확인되며, 서수 또는 말 등을 형상화한 그림과 가야금 혹은 집모양이 새겨져 있으며, 다른 면에는 격자문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금속유물의 부장은 6기의 석곽묘에서 확인되며, 고분군 내 가장 규모가 큰 20호 석곽묘에서는 내만타원형판비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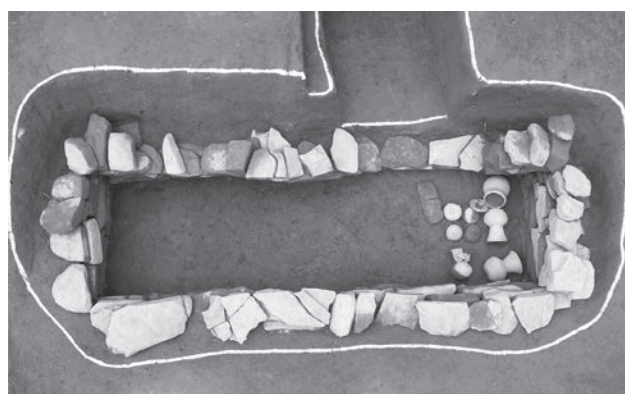
기존에 합천 동부의 옥전고분군과 서부의 합천댐 수몰지구의 가야고분을 연결하는 합천 중부지역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합천 남부의 삼가고분군, 북쪽의 고령지역과 비교하여 보다 세밀한 관계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5, 『합천 문림리 유적-합천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4구역 유구 배치도

4구역 유적 전경

1호분

3호분

4호분

7호분

11

합천 성산리 332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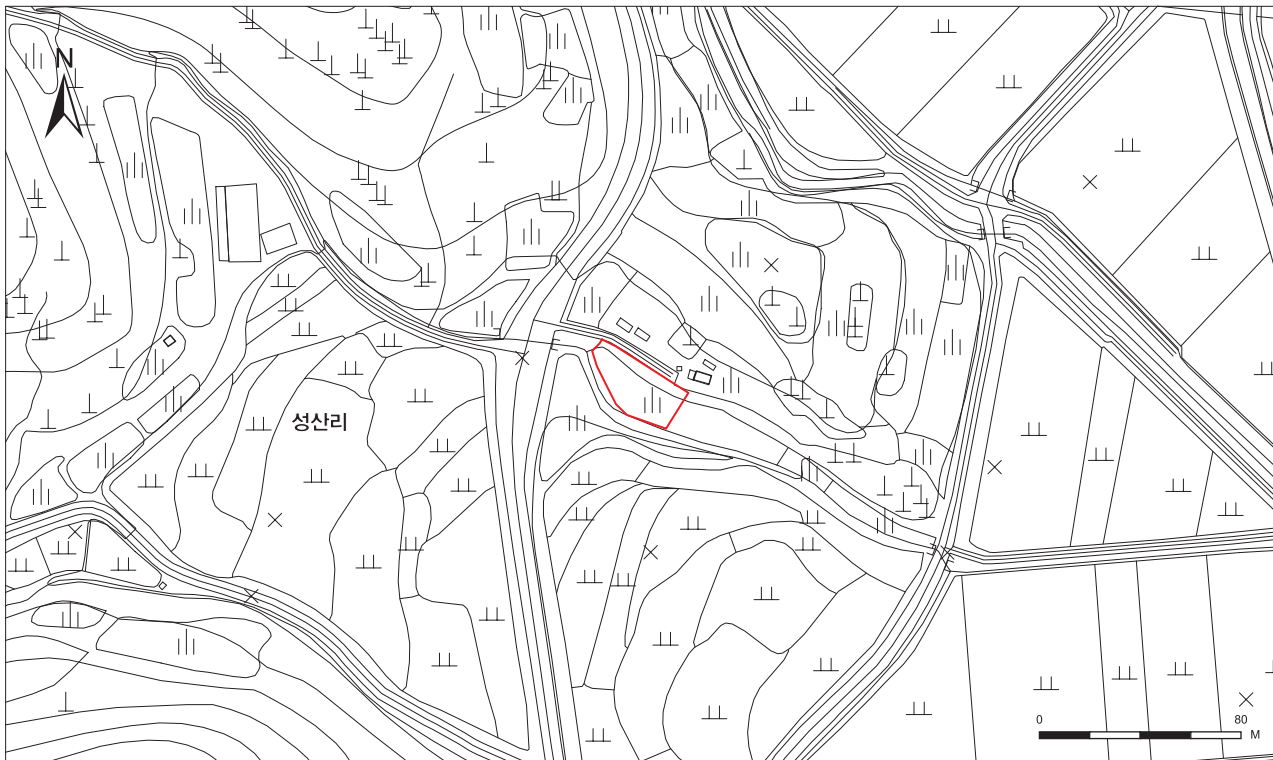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332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화재재단 /
2015.1.~2015.9.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목곽묘, 석곽묘
/ 고배, 장경호, 기대,
대도, 철모, 재갈

합천군 동부의 성산리 쌍책면 북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시리봉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구릉 말단의 해발 20~33m 정도인 남쪽 사면부에 분포한다. 동쪽으로 300m 거리에 황강의 지류인 성산천이 흐르면서 비교적 넓은 곡간평야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삼국시대 다라국의 중심묘역인 옥전고분군과 도성인 성산리성지가 위치하고 있다.

2015년에 주택 신축으로 인하여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소규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한정된 면적에서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3동, 원삼국~삼국시대 목관묘 15기, 목곽묘 24기, 석곽묘 23기, 옹관묘 4기, 수혈유구 24기 등 93기가 조사되었으며, 673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원삼국시대 목관묘는 등고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조성되었으며, 목관의 형태는 판재식이 확인되었고, 출토된 유물로 보아 목관묘는 기원전 1세기 중후반에서 2세기 전반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후기와질토기가 부장되는 장방형의 목곽묘는 1·3·24호 등 모

유적 위치도

두 6기가 확인되며, 대부광구호와 대부직구호, 양이부첨저호 등이 부장되고 있다. 2세기 중엽~3세기 전엽으로 편년되며, 합천 옥전고분군에 대한 선행 조사에서 확인된 바 없는 원삼국시대 목관묘와 목곽묘가 입지를 달리하여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점은 큰 조사 성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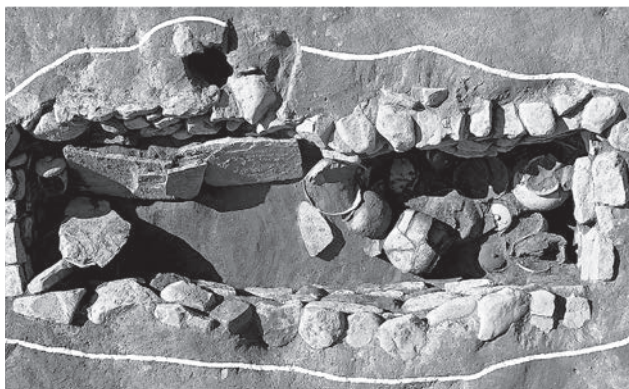
또한 목곽묘 가운데 세장방형을 띠는 형태는 4세기대의 고식도질토기를 부장하고 있는 형식이며, 지역색이 뚜렷한 대가야양식 토기를 부장하는 5세기 중후반까지 지속되고 있다. 초기의 석곽묘는 목곽묘와 일정 기간 공존하다가 5세기 후반 대가야양식 토기만 부장하기 시작하면서 주묘제로 전환하게 되고, 단각고배와 소형기대 등이 6세기 전반대까지 이어진다.

이상과 같이 본 유적은 다라국의 중심묘역인 옥전고분군 북쪽의 구릉에 위치하며, 한정된 면적에 무덤유적이 밀집하고 있다. 다라국을 구성하는 단위집단의 묘역으로서 주목되며, 특히 다라국의 성장과 관련하여 기존에 불명확하였던 원삼국시대의 자료를 확인한 점은 향후 다라국 성립과 관련된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한국문화재재단, 2017, 「합천 성산리 332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I-경남3-』.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4호 석곽묘

1호 석곽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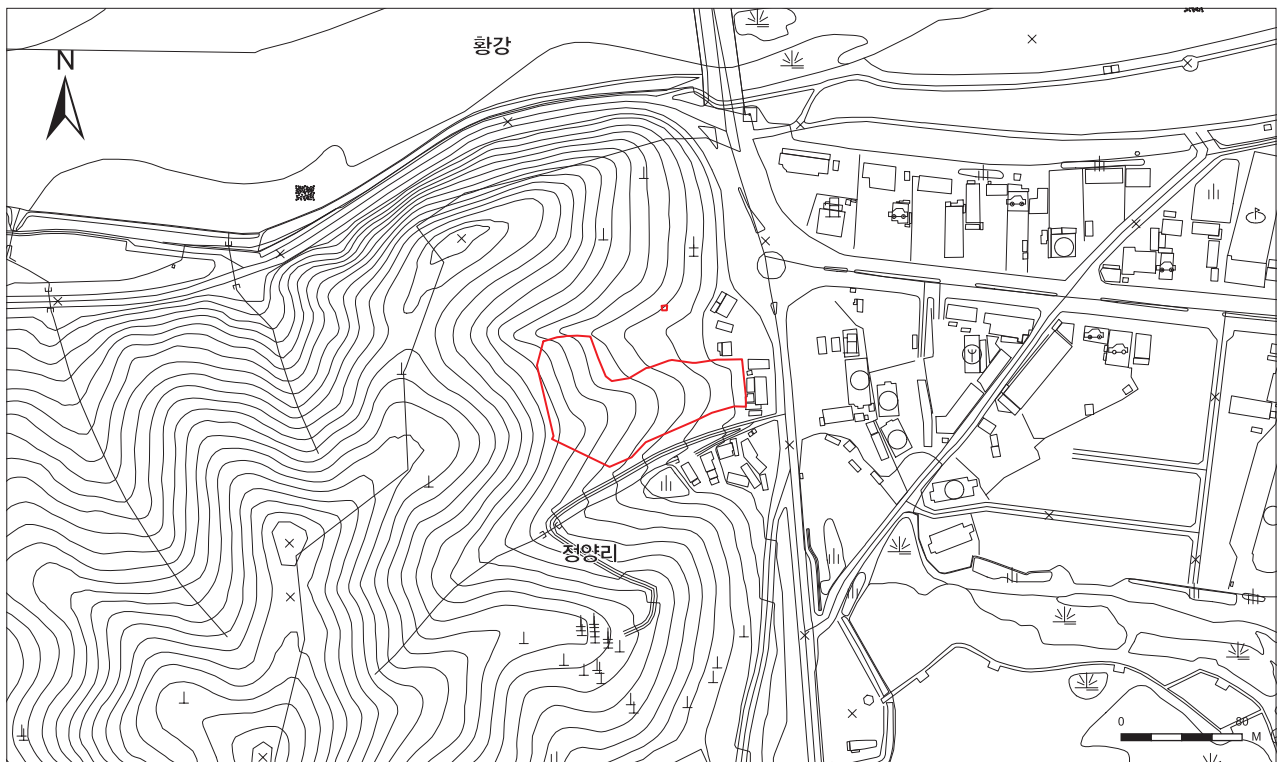
12 합천 정양 관광농원 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산37-2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14.12.~2015.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봉토분 / 없음

합천군 중부의 정양리 강가마을 서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수리봉(해발 258m)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황강과 접하는 구릉 동쪽 사면부에 분포한다. 북쪽으로는 황강이 활주하며 급경사면을 이루고, 강 건너 넓은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낙동강 수계의 황강으로 합류하는 아천에 남에서 북으로 흐르면서 곡간평야를 이루고 있다. 합천군 소재지를 조망하는 위치에 해당하며, 남부의 삼가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상에 입지한다.

2014~2015년에 합천 정양 관광농원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중앙의 곡간부를 경계로 3구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남쪽 구릉부에서는 13개소의 트렌치 가운데 10개소에서 삼국시대 석곽묘 또는 석실묘가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다. 또한 중앙의 사면 위쪽 곡두부에서는 소형급의 원형봉토분이 확인되고, 그 아래의 곡간부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북쪽 구릉의

유적 위치도

남쪽 사면부에서도 3개소의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급경사면으로 이루면서 유구가 분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소형 봉토분 9기, 석곽묘 혹은 석실묘 24기, 조선시대 분묘 6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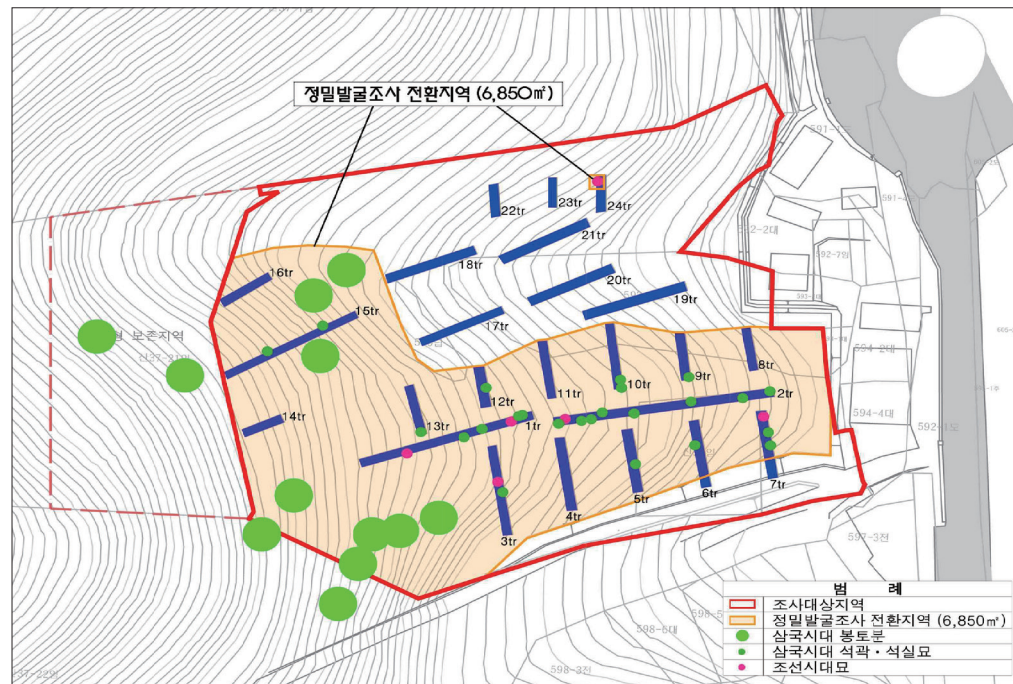
이상의 시굴조사를 통해서 남쪽 구릉을 중심으로 사면 위쪽의 정선부까지 삼국시대 석곽묘와 석실묘를 중심으로 하는 무덤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서 유적의 성격이 구체화될 것이며, 황강과 아천이 합류하여 사방이 산지와 하천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지형에 입지하는 단위집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15, 「합천 정양 관광농원(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결과약보고」.

유구 배치도

1트렌치출토유구

2트렌치출토유구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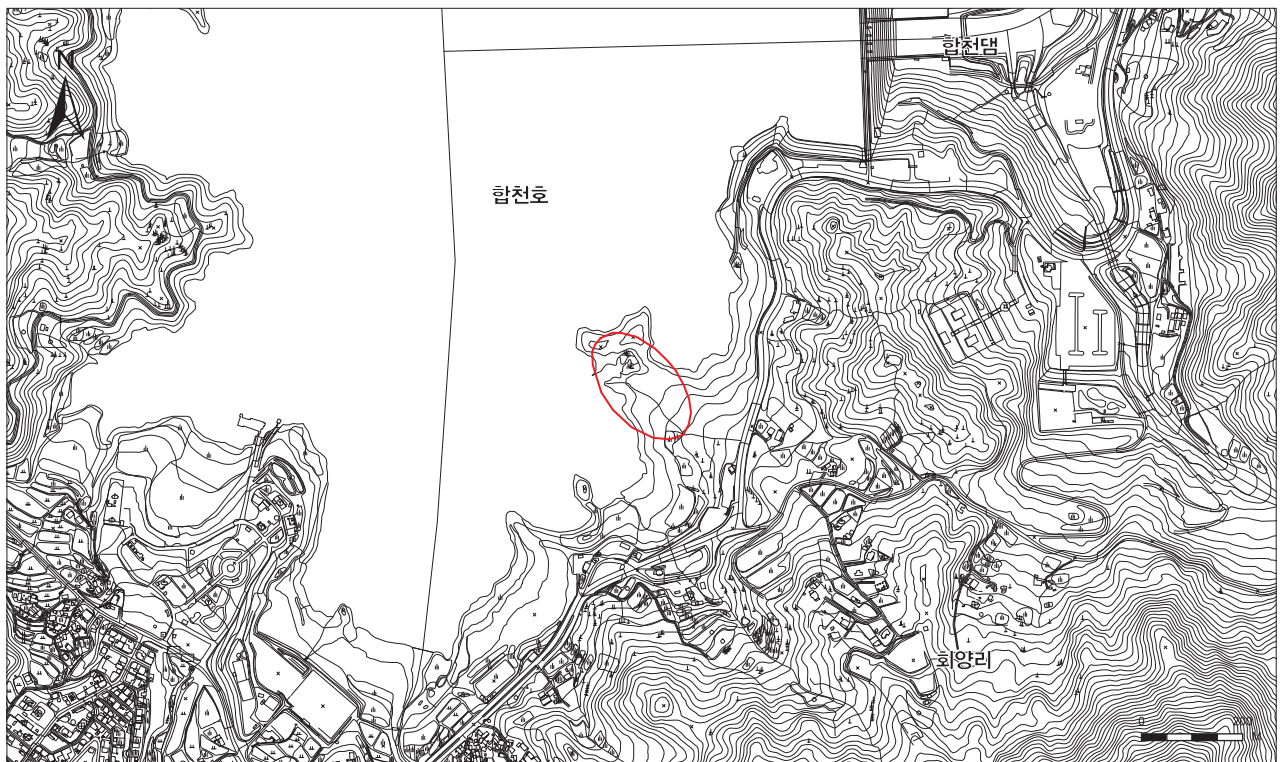
합천 창리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창리 산4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86.10.~1987.6.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개배, 장경호, 병, 환두대도, 철모

합천군 서부의 대병면소재지 북동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금성산(해발 592m)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말단의 구릉부에 분포한다. 북쪽으로는 낙동강 수계의 황강이 곡류하면서 곡간평야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황매산에서 허굴산으로 이어지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남강 수계의 양천강으로 합류하는 신등천 유역으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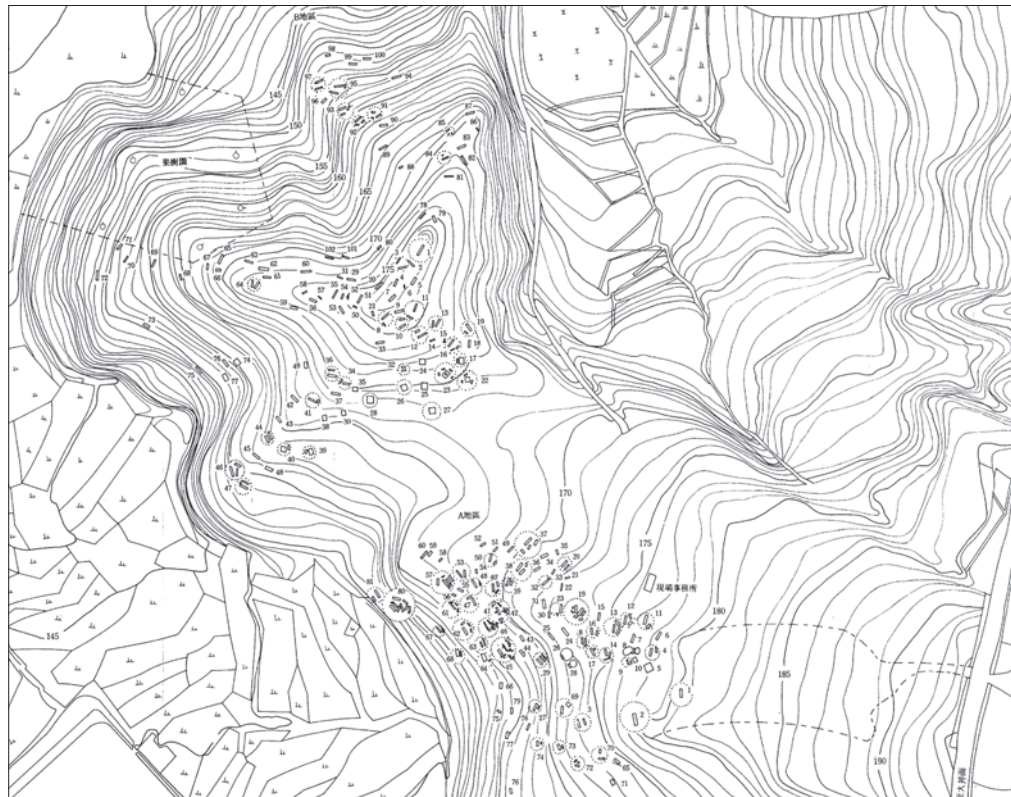
1986~1987년에 합천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연 지형상으로 2지구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남쪽의 구릉 서쪽 사면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A지구에서는 81기의 고분이 분포하며, 북쪽의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사면부에는 102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매장주체부는 312기로 대부분 석곽묘와 횡구식석실묘이며, 단곽식과 함께 하나의 봉토에 여러 기가 배치된 다곽식구조가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며, A80호분은 석곽묘 8기와 옹관묘 1기가 배치되어 있다.

유적 위치도

봉토는 대부분 유실되었으나, A2호분, B2호분과 같이 일부 잔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교적 대형급에 해당하며, 구릉이 돌출된 지형에 입지한다. 봉분의 규모는 A2호분이 직경 15m 정도이고, B1호분은 직경 12m 정도이며, 석곽의 길이도 4m 이상으로 중대형에 속한다. 석곽묘는 기본적으로 세장방형을 띠고, 규모에 따른 부장양상에서 현저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횡구식석실묘는 모두 22기로 이 중 다곽식은 9기 정도이다. 횡구식석실이 채용된 다곽식은 중심에 석실을 구축하고, 주변에는 석곽묘를 배치하고 있다. 현실은 대부분 방형이며, 장방형은 극소수이고, 횡구부는 벽체 중앙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 출토된 토기의 형식으로 보면 장방형이 시기적으로 약간 앞서는 경향이다.

유물의 부장은 전반적으로 박장이며, 석곽묘에서 개배, 장경호 등 대가야양식의 토기가 주로 확인되며, 횡구식석실묘에서는 단각고배, 부가구연장경호, 병 등 신라토기의 영향이 강하다. 철기는 철겸, 철부 등 농공구와 함께 삼엽환두대도, 철모 등 무기류가 제한적으로 확인된다. 장신구 역시 금동제세환이식과 경식이 대부분이며, A80호분에서는 백제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삼족배가 대가야양식의 개의 공반하여 출토되어 주목받고 있다.

석곽묘의 축조는 6세기대가 중심이며, 횡구식석실묘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로 추정된다. 경남 서부내륙을 동-서로 관통하는 황강 수계의 대표적인 중하위 집단에 의해 조영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가야 멸망 이후 신라로의 편입과정에서 단위집단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1987, 『합천 창리 고분군』.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A-2호 유구

A-41호 유구

출토유물

14

합천 어전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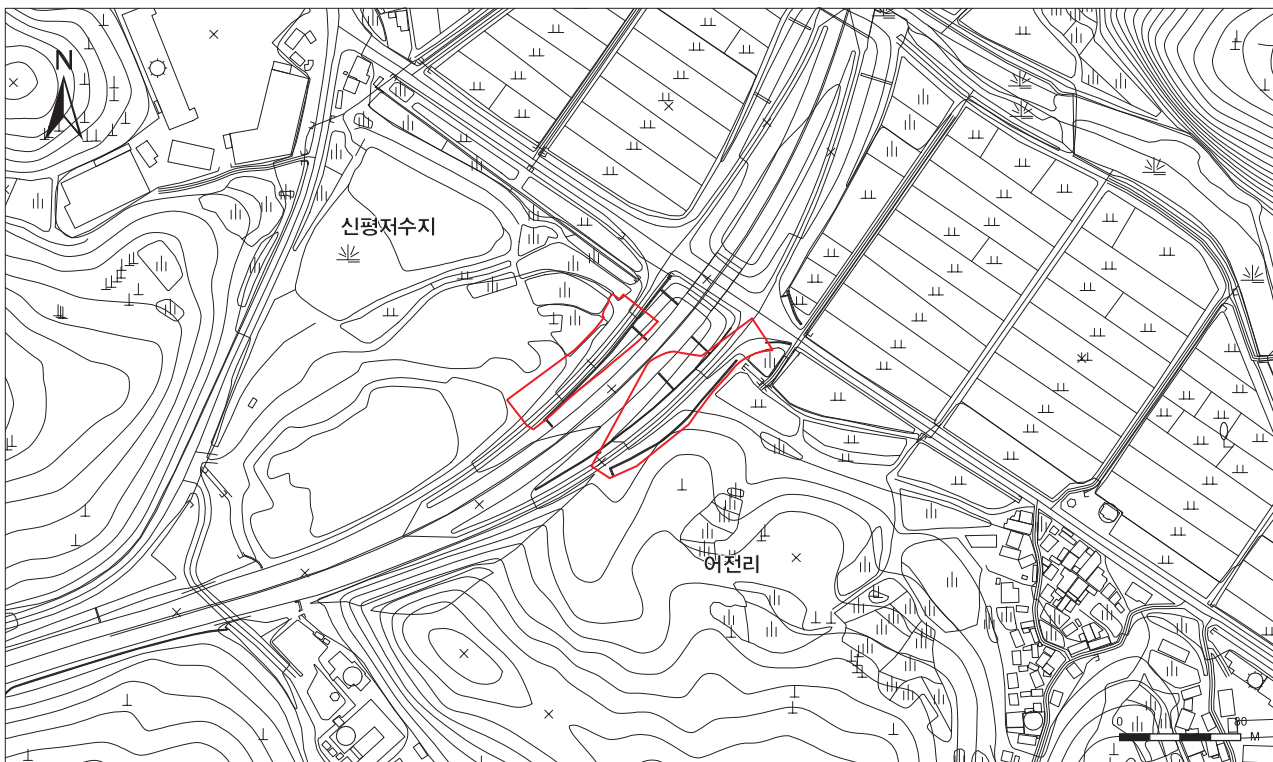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산
105-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6.11.~2007.10.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수혈유구
/ 고배, 파배, 기대,
장동옹

합천군 남부의 어전리 신평마을 북서쪽에 있는 생활유적이며, 자굴산(해발 897m)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해발 113m 정도의 구릉 서쪽 사면부에 분포한다. 북쪽으로는 남강 수계의 양천강으로 합류하는 신전천이 곡류하면서 곡간의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고개를 넘어 의령 대의면을 통해서 산청과 진주지역으로 교통이 유리한 입지에 위치한다.

2006~2007년에 합천 국도 33호선 생비량~쌍백 확장공사로 인하여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지구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으며, I 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석관묘 1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8동, 수혈 29기, 우물 2기, 구상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고배, 기대, 장동옹 등 259점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수혈주거지는 사면의 중위와 하위로 구분되어 군집하고 있으며, 상하 중복을 이루면서 집중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타원형 혹은 원형을 띠고 있으며, 주축방향은 등

유적 위치도

고선과 직교한다. 10호 주거지에서는 내부에 부뚜막과 고래가 확인되는데, 아궁이는 경사가 낮은 북서쪽에 위치하며, 벽면으로 따라 남서쪽으로 고래가 돌아간다. 고래 내부는 바닥을 얕게 굴착하고, 아궁이의 바닥에도 목탄이 다량으로 확인된다. 6·8·9호 주거지의 남동쪽 단벽에서는 소토가 다량으로 잔존하며, 화재나 이주 등으로 인해 자연폐기 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의 중복관계에 있어서 구릉 상부는 수혈주거지를 파괴하고 소성유구, 수혈 등이 조성되어 있고, 수혈 내에서는 소성불량의 토기 편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폐기장 등 생산 관련 시설로 추정된다. 구릉 하부는 수혈유구를 파괴하고 수혈주거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수혈은 수혈주거지와 인접하여 생활토기가 다수 출토되는 양상이다. 출토된 유물은 통형고배, 노형기대, 피배, 광구소호 등 4세기대 고식도질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합천 삼가고분군 등 삼국시대 고분군을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권역 내에서 생활유적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4세기 후반대를 중심으로 하는 취락유적과 함께 동쪽의 곡간부에 분리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와의 관계가 주목되고, 인접한 권역 내 진주 안간리유적, 의령 마쌍리유적의 생활유적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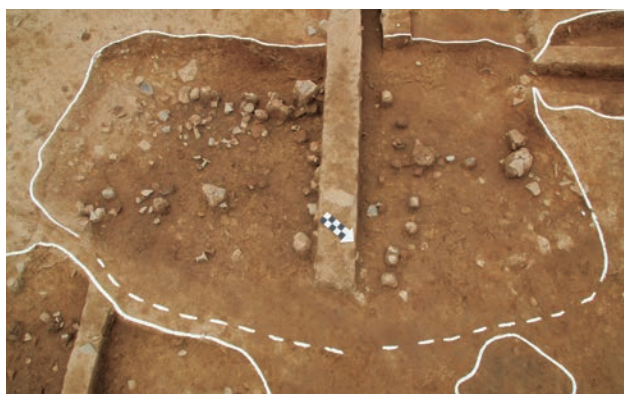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9, 『합천 어전리 유적-합천 국도 33호선(생비량~쌍백) 확장구간 내-』.

유적 전경

I지구 상단부 전경

I지구 하단부 전경

I지구 수혈건물지 10호

I지구 수혈 6호 전경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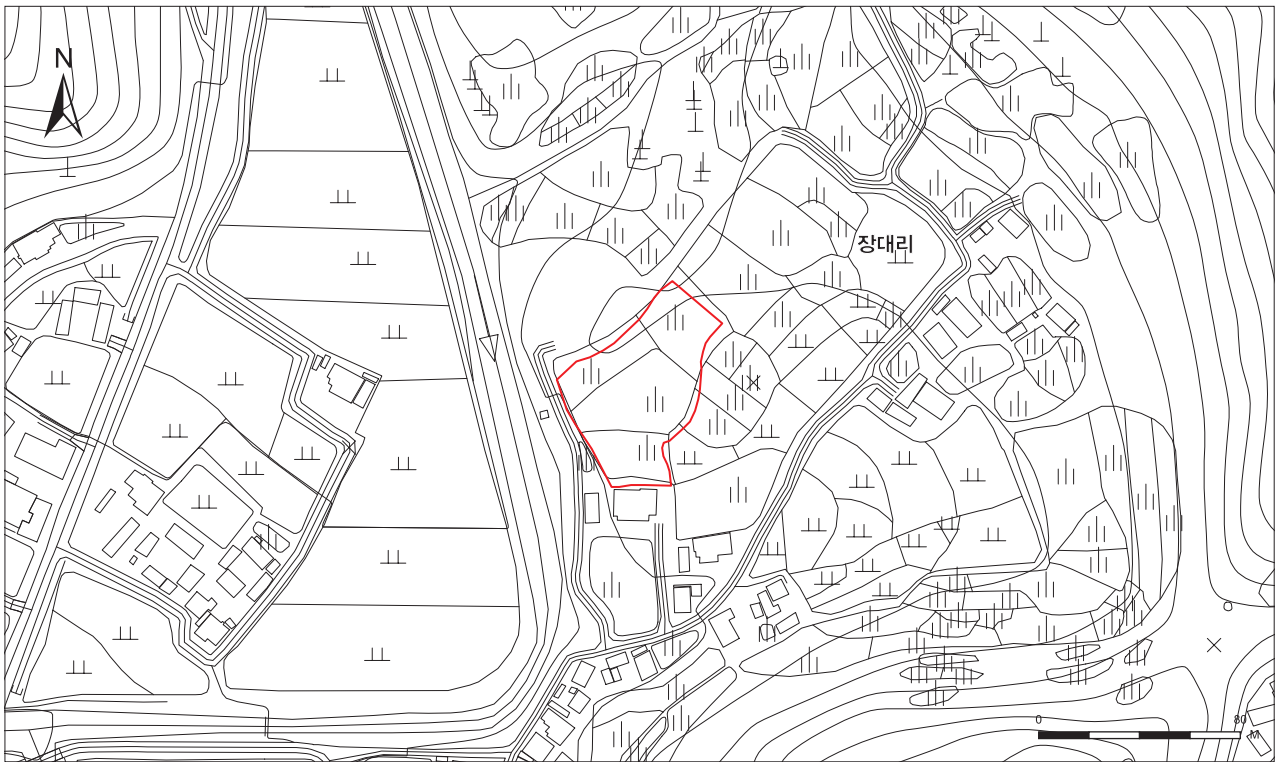
15 합천 장대리도요지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 1096-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9.12.~2010.7.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유구 / 고배, 파배, 단경호, 대부호, 파수부호, 장동옹, 시루

합천군 서부의 장대리 장대마을 북쪽에 있는 생활유적이며, 매봉산(해발 479m)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해발 138m 정도의 사면 말단부에 분포한다. 서쪽으로는 남강수계의 양천강으로 합류하는 신등천에 의해 곡간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북쪽으로는 황매산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산지에 의해 황강 수계와 구분된다. 남쪽으로는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곡간을 이용하여 산청지역으로 교통일 유리한 입지에 위치한다.

2009~2010년에 조선시대 중품 자기소에 대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동서문물연구원에서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조선시대 분청사기 가마 동쪽에서 조선시대 구상유구 및 수혈유구와 중복되어 삼국시대 수혈유구 11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유구는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을 띠고 있으며, 1·2·4·5·7·8호 수혈유구의 길이가 2~4m 정도로 비교적 대형에 속하며, 사면 위쪽에 호상으로 돌아간다. 그 안쪽에 2m 이하의 소형 수혈유구가 불규칙하게 집중하고 있다.

유적 위치도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이며, 특히 2호 수혈유구에는 완형의 대부호가 출토되었고, 4호와 8호 수혈유구에서는 장동옹, 시루, 파수부호 등 생활토기가 확인된다. 대부분의 유구에서는 고배, 파배, 기대 등 4세기대 고식도질토기와 일상의 생활토기가 출토되고 있으며, 11호 수혈유구에서만 7세기대 신라 후기양식 토기인 완과 대부완이 확인된다.

한정된 범위에 대한 발굴조사로 유적의 성격은 명확하지 않으나, 출토된 유물을 통해 4세기대 생활유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양천강의 신등천 수계에서 확인된 최초의 가야 관련 생활유적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권역을 달리하여 주변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 생활유적과의 관계에서 주목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2, 『합천 장대리 도요지』.

유적 전경

2호 수혈 출토유물

8호 수혈 출토유물

16

합천 성산리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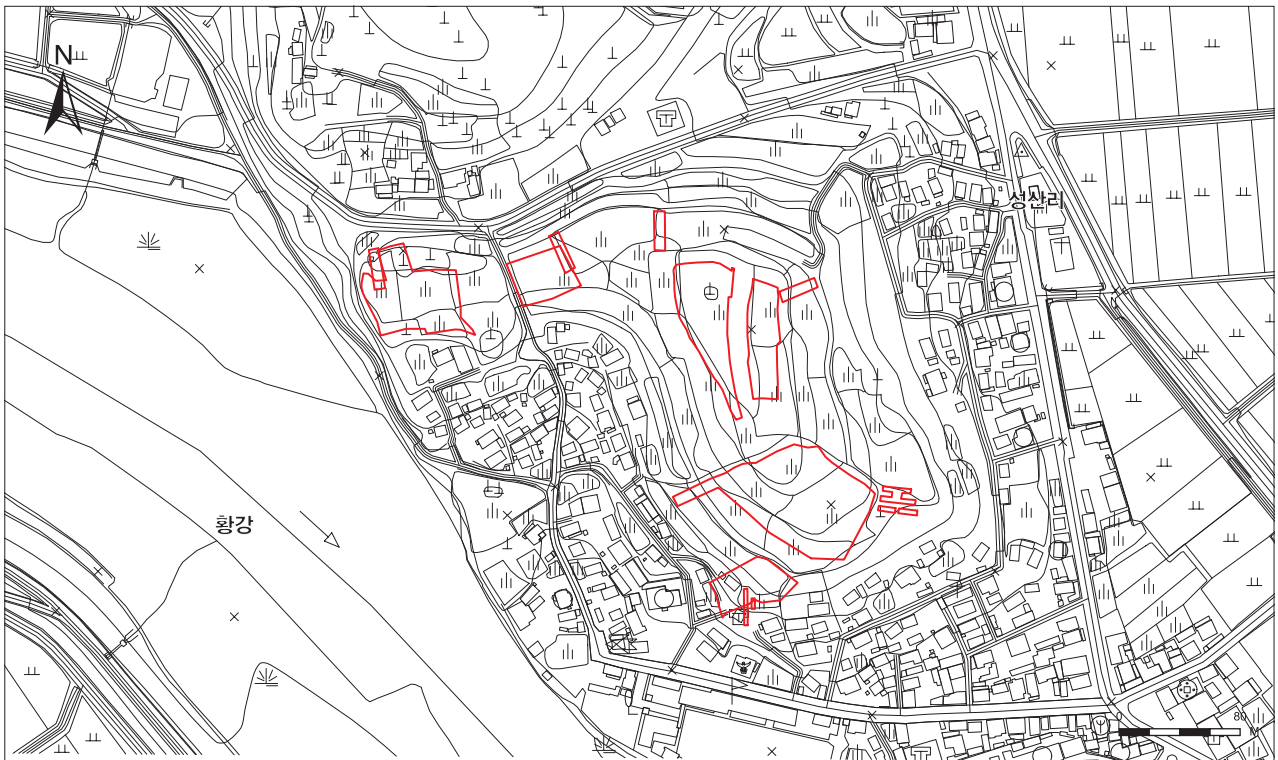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18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2009.2.~2009.3.
동서문물연구원
1차 2013.1.~2013.4.
2차 2015.6.~2016.3.

주요 유구 / 유물
토성, 석성, 건물지,
제사유구 / 개, 고배,
기대, 토우

합천군 동부의 성산리 쌍책면 북쪽에 있는 정치 국방유적이며, 북서쪽의 낮은 산지에서 이어지는 해발 53m 정도의 독립구릉에 분포한다. 남쪽으로는 황강이 곡류하면서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황강 건너 서쪽으로는 초계분지가 넓게 발달되어 있다. 동쪽으로 6.6㎞ 거리에서 황강이 낙동강에 합류하며, 외부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이다. 북쪽으로 인접한 구릉에는 다라국의 중심 묘역인 합천 옥전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북쪽으로 해발 200m 정도의 산지 사이의 고개를 통해 고령지역과 접근이 용이하다.

현재 성산토성의 규모는 남-북 약 285m, 동-서 약 155m, 총 둘레 1,050m이다. 토성은 쌍책면을 둘러싸고 있는 구릉의 가장자리를 따라 축조되어 있으며, 북-동향은 폐쇄적으로 막혀있고, 황강과 접하는 남-서향은 성안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입지를 가진다.

발굴조사는 가야 도성 복원 및 다라국 역사지구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성산리성지

유적 위치도

의 복원 및 정비를 계획이 수립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1차 발굴조사는 2009년 2월 11일부터 동년 3월 19일까지 동서문물연구원과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토성과 성벽, 생활유적으로 추정되는 3지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삼국시대 가야 토성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또한 토성을 인식하고 증축한 석성도 일부 확인되었으며, 성지 내부에서는 점토대토기단계의 수혈주거지 1동도 조사되었다.

이후 2차 발굴조사는 2013년 1월 4일부터 동년 4월 11일까지 동서문물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토성 북쪽의 성벽 5지점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기저부 정지부터 토루의 성토까지 크게 4단계의 공정으로 토성이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고, 구릉 정상부에서는 5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되는 5동 정도의 대벽건물지와 구상유구가 확인되었다.

3차 발굴조사는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3월 23일까지 동서문물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는 4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토성 북쪽에 해당하는 가·나구역에서는 성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혈 및 제사유구가 확인되었다. 다구역에서는 대벽건물지와 함께 다수의 수혈 등이 확인되었고, 라구역은 석성의 진행방향과 양상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토성의 범위는 황강변을 포함하는 공간까지 추정되었으며, 토성의 구조에 있어서 내부에 석축렬이 존재하는 점을 확인되었다. 토성의 축조는 4단계의 공정으로 이루어졌고, 토성 내부에는 대벽건물지와 제사유구 등이 확인되는 성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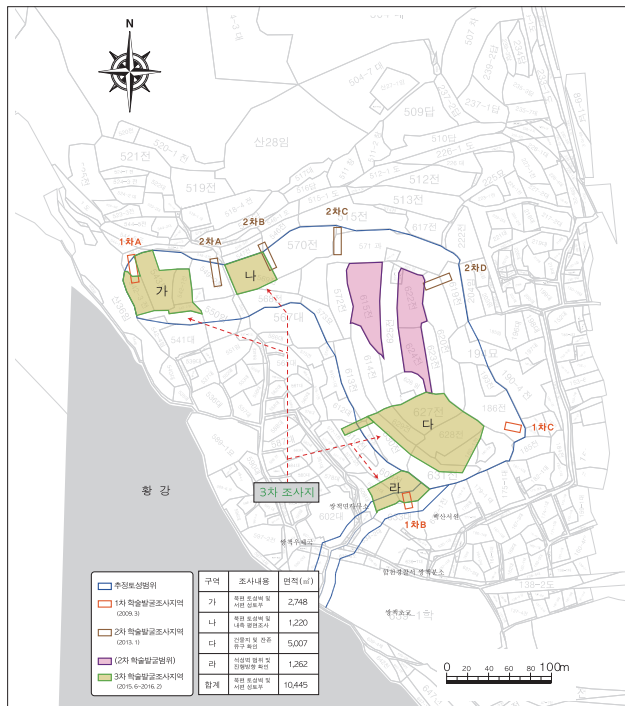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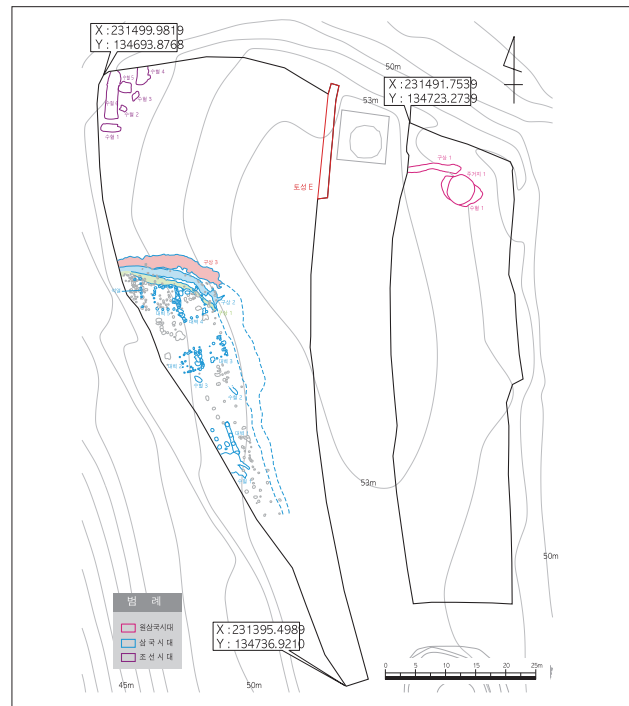
성산리성지는 합천 옥전고분군과 동시기에 형성된 다라국의 대표적인 유적이며, 황강변의 구릉을 거점으로 축조되어 있다. 성 내부에서 대벽건물이 포함된 대규모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성벽은 5세기 중엽경의 토성이 먼저 축조되고 이후에 강변 쪽으로는 석성을 보강하여 증축한 다라국의 도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2011, 『합천 성산리 성지』.

동서문물연구원, 2015, 『합천 성산리 성지(2013년)-합천 성산리 토성 발굴조사-』.

동서문물연구원, 2018, 『합천 성산리 성지(2015년)-합천 성산리 토성 발굴조사-』.

구역	조사내용	면적(㎡)
가		2,748
나		1,220
다		5,007
라		1,262
합계		10,445

조사구역 위치도

2차 조사지역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B지점 토성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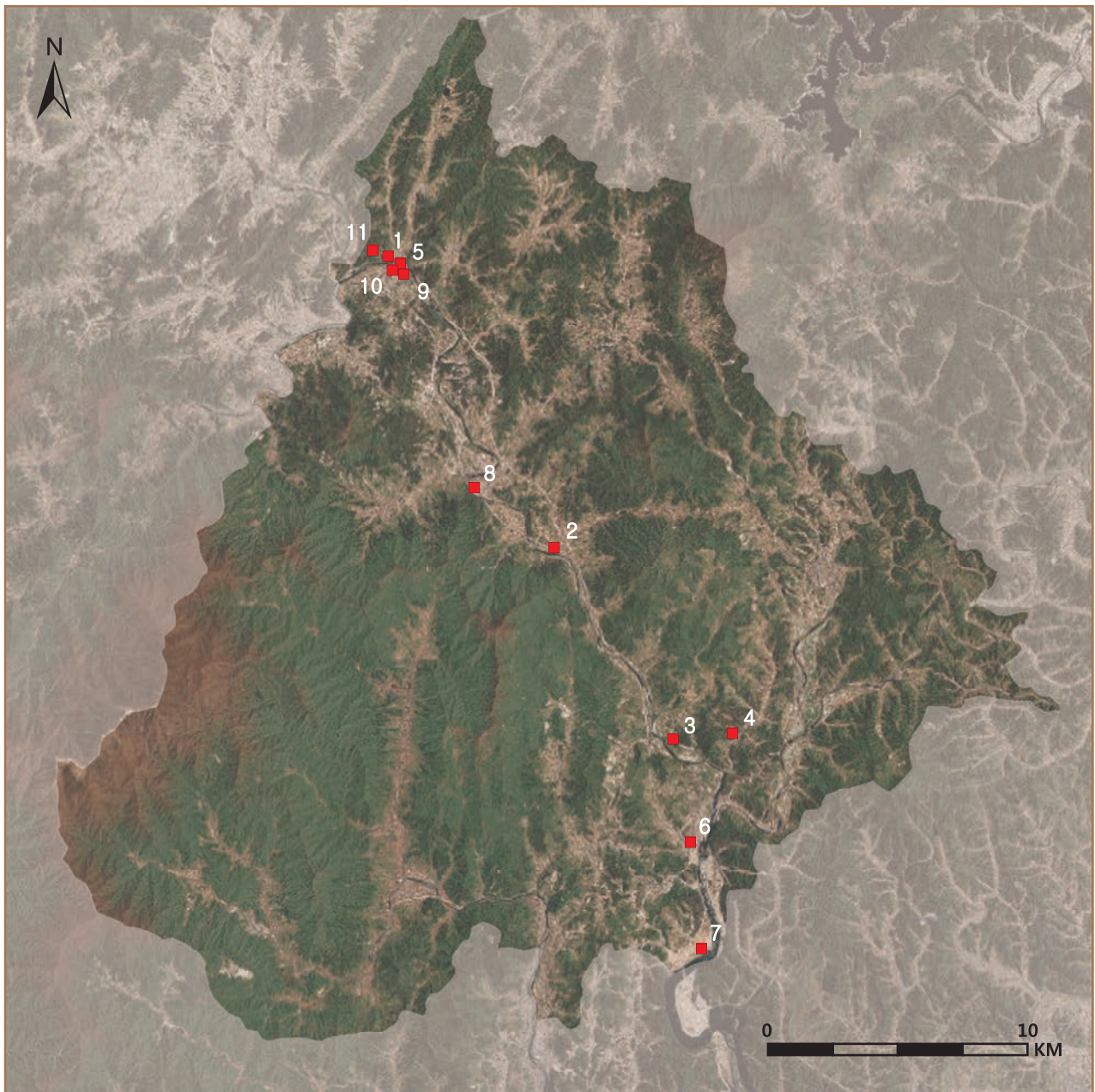
1호 대벽건물지

3차 나구역 제사유구

제사유구 출토유물

蛇岩山
藍溪
吉邑
沙斤
本通峙
王山
西吉邑
白也峴
馬淵山
會稽山
嚴川
文殊
三壯山
東山
山淸
安養山
雞鳴山
楡山
栗峴
新峴
烏鳥店
白馬城
赤壁
新安
尼丘山
丹城
斷俗山
德山洞
薩川
青岩山
德川
西村

Ⅲ. 산청

01

산청 생초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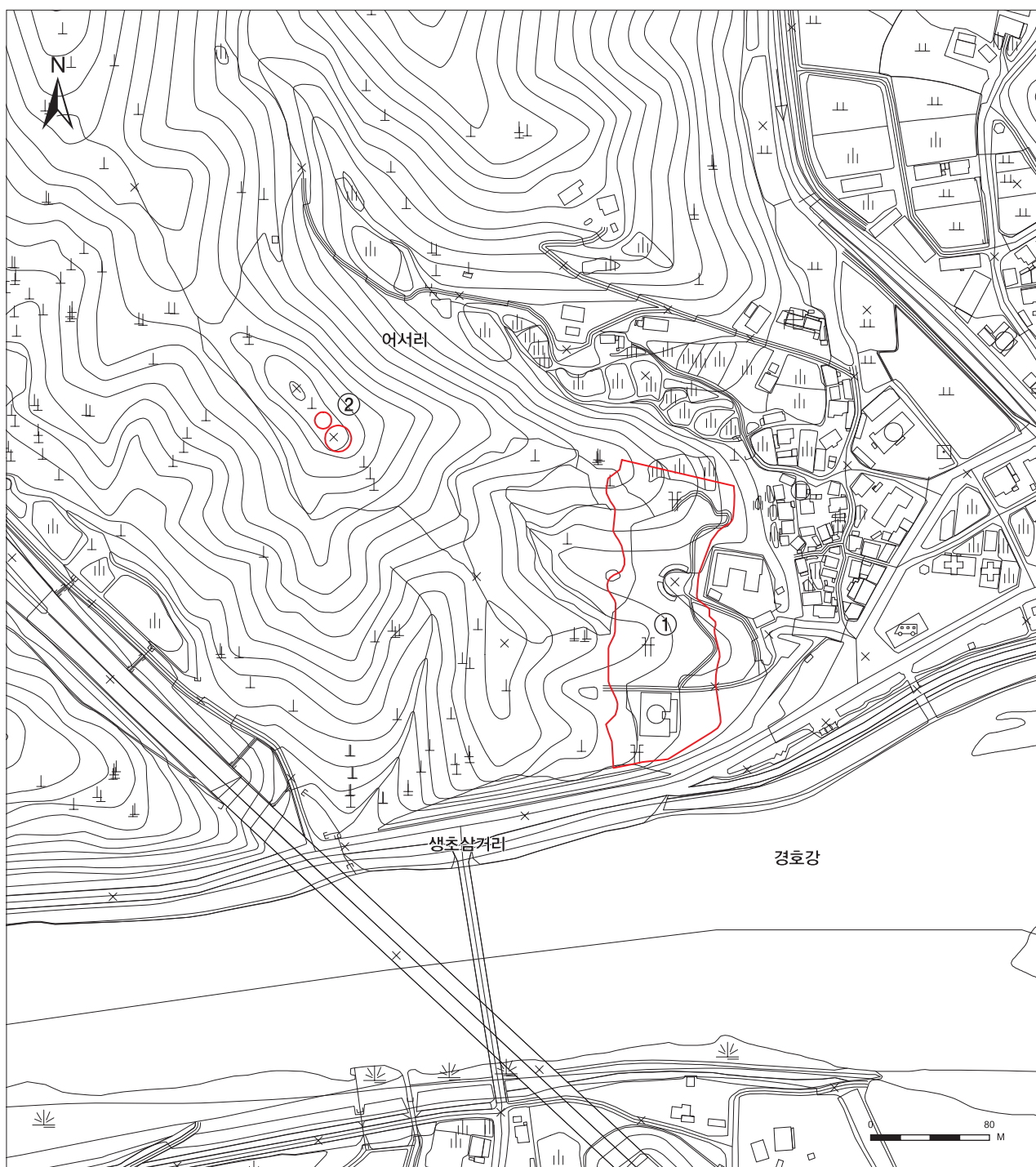
山淸 生草古墳群

| 경상남도기념물 제7호

산청군 북부의 어서리 생초면소재지 북서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태봉산(해발 368m)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에 분포한다. 남쪽은 남강 수계의 경호강이 곡류하는 공격 사면부에 해당하며, 북쪽으로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경호강 사이의 하중도에는 무덤유적인 평촌리유적, 강 건너 남쪽에는 생활유적인 갈전리유적과 하촌리유적이 있으며, 서쪽 곡간부에는 토기 생산유적인 어서리유적이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다. 경상남도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24기의 봉토분과 다수의 석곽묘로 구성된 대규모 가야 고분군이다.

발굴조사는 2002년에 야외조각공원이 조성되면서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22호 봉토분을 비롯하여 중소형의 석곽묘 80기와 고려시대 묘 11기 등 모두 91기가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사면 위쪽으로 눈썹상의 주구를 돌린 고분과 함께 한 봉토 내에 2~5기의 석곽으로 축조된 다곽분도 일부 확인된다. 석곽의 내부에는 부식된 목관의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예가 많으며, 출토된 토기는 대가야양식의 유개식장경호, 고배, 기대가 중심을 이룬다. 그 외에도 소가야양식 토기, 백제계, 왜계 토기 등 여러 지역의 토기가 혼재되어 있으며, 9호분에서는 일본 고분시대의 고배와 개배 등 스에키와 함께 왜계의 동경인 주문경이 출토되어 가야와 왜의 교류관계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구릉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는 고총군에 대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2004년에 M12 ·M13호분에 대해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M13호분은 봉분의 직경이 23m 정도로 대형급에 해당하며, 주곽과 부곽이 '11'자 모양으로 배치된 대가야의 무덤 형식을 따르고 있다. 출토된 유물에 있어서도 최상위계층의 전유물인 용봉문환두대도와 함께 금동으로 장식된 'f'자형판비, 검릉형행엽 등이 확인된다. 또한 은장식이 베풀어진 공부다각형철모와 물미, 도자형장경식철촉와 함께 대가야지역에서 유행하는 형식이 확인되며, 부곽에서도 대가야의 특징적인 축소모형철기가 흩어진 상태로 다수 출토되었다.

고분군의 규모 및 고분의 구조 및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5~6세기에 조성된 지역의 중심고분군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가야의 중심고분군과 동일한 구조를 보이는 대형 봉토분을 통해서 대가야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가야양식 토기와 혼재되어 있는 주변의 평촌고분군, 손곡리고분군을 포괄하는 산청 북부의 중심고분군이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산청 생초고분군 -조각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경상대학교박물관	2002.2.~2002.7.	산청 생초 고분군(2006)
2	산청 생초 M12·M13호분	경상대학교박물관	2004.10.~2004.12.	산청 생초 M12·M13호분(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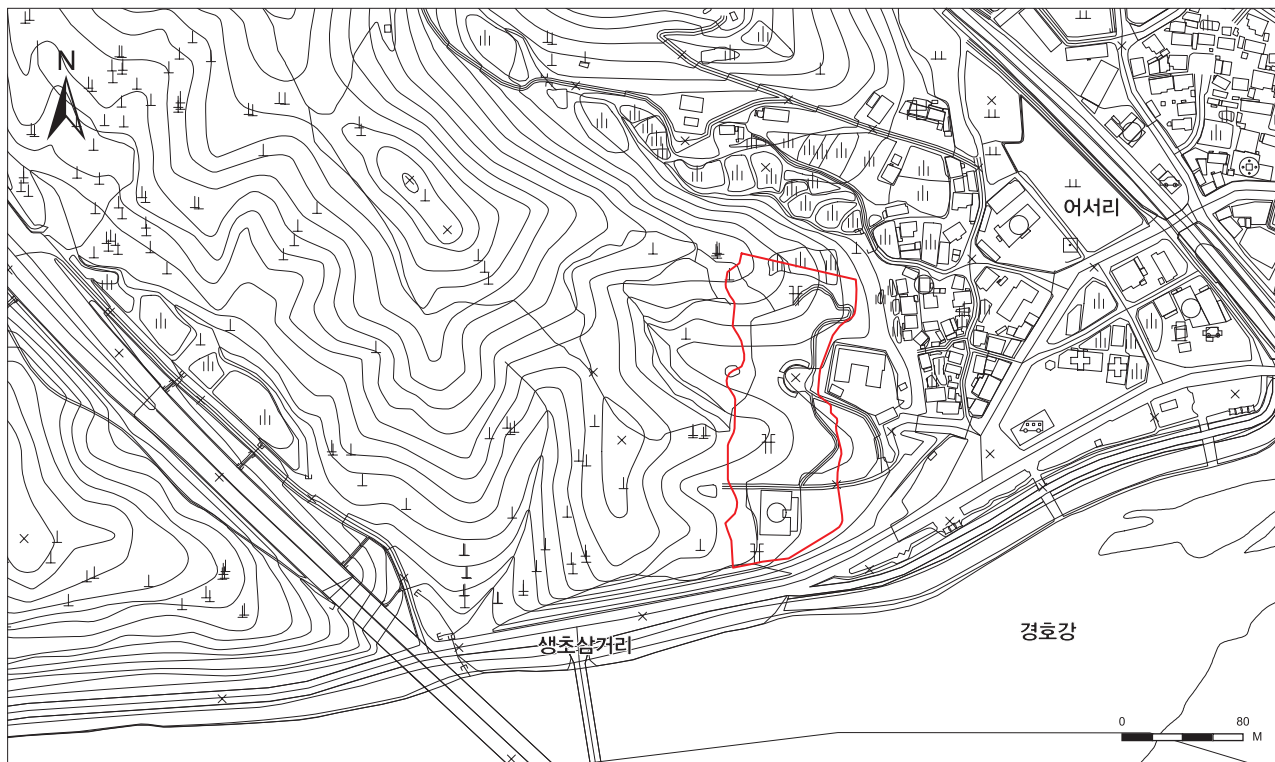
01-1 산청 생초고분군 _ 조각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산93-1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2002.2.~2002.7.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개배, 장경호, 기대, 스에키, 대도, 재갈, 동경

조사구역은 생초고분군의 동쪽 구릉 말단부에 해당하며, 2002년 조각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남쪽으로 이어지는 주구릉 상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리는 3갈래의 가지 능선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80기의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대부분 단곽식으로 사면 위쪽으로 눈썹상의 주구를 돌린 고분은 11기이며, 한 봉토 내에 2~5기의 석곽으로 축조된 다곽분도 7기 확인된다. 석곽의 평면은 모두 세장방형이며, 측벽은 할석과 천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석곽의 바닥은 기반암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시상이나 관대를 설치한 예도 일부 확인되며, 유물 받침대나 관 보강석 등의 시설물도 확인된다. 석곽의 바닥에는 목탄 또는 목관 내부로 함몰된 토층이 확인되거나 부식된 목관의 흔적이 잔존하고 있어, 석곽의 내부에 목관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4호분에서는 길이 215㎝, 너비 55㎝ 크기의 목관의 범위가

유적 위치도

유적 전경

뚜렷하게 잔존하고 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가 대부분이며, 소량의 철기와 장신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토기는 고배, 개배, 장경호, 단경호, 기대 등 5~6세기대로 편년되는 형식이 확인되며, 대가야양식의 유개식장경호, 고배, 기대를 중심으로 소가야양식 토기, 백제계, 왜계 토기 등 여러 지역의 토기가 혼재되어 있다. 철기는 철겸, 철부 등 농공구와 함께 대도, 철모, 철촉 등이 확인되며, 9호분에서는 복환판비와 같은 특이한 형태의 재갈이 출토되었다. 또한 9호분에서는 일본 고분시대의 고배와 개배 등 스에키와 함께 왜계의 동경인 주문경이 출토되어 가야와 왜의 교류관계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6호분의 소형발형기대, M22-3호분의 유공대부호, 48-3호분의 자라병 등은 영산강유역의 토기문화와 관계가 깊은 자료이다.

이상과 같이 생초고분군 내 조각공원 조성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석곽 내부의 목관 흔적을 통해 석곽의 구조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확인하였다. 또한 대가야식의 묘제와 함께 대가야양식 토기가 중심을 이루며, 생초고분군이 대가야의 영향 아래 형성된 고분군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아울러 6호분에서 출토된 백제계 토기와 9호분에서 출토된 왜계의 주문경과 스에키는 가야와 백제, 왜 사이의 관계와 해명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2006, 『산청 생초 고분군』.

9호분

15호분

출토유물

01-2 산청 생초 M12·M13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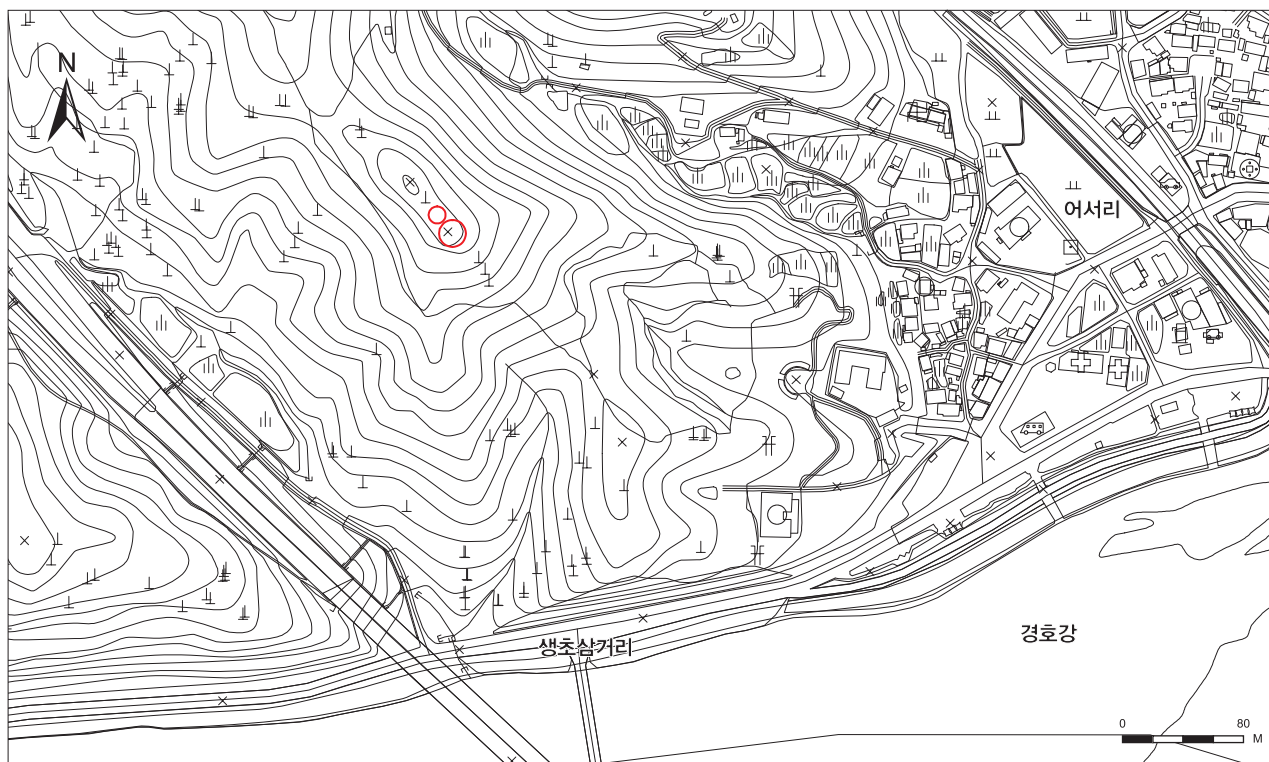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산93-1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2004.10.~2004.1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단경호, 장경호, 장식대도, 철모, 재갈, 행엽

조사구역은 생초고분군 내 대형 봉토분이 집중하고 있는 구릉의 정상부이며, 비교적 완만한 정상에서 사면으로 이어지는 위치에 해당한다. 2004년에 고분군에 대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가야식의 매장주체부를 가진 대형급인 M13호분과 중형급의 M12호분이 확인되었다.

M12호분은 M13호분 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봉분 직경 8m 정도이다. 유구의 선후관계를 파악되지 않으나 M13호분의 배묘로 추정된다. 매장주체부는 단독의 석곽묘이며, 측벽은 모두 할석을 이용하여 눕혀쌓기를 하였고, 장대석을 개석으로 사용하였다. 내부는 완전히 도굴된 상태로 대가야양식의 유개단경호와 함께 철겸, 철부 등이 확인되었고, 가야고분에서 출토 예가 많지 않은 은제천 1쌍과 구슬 목걸이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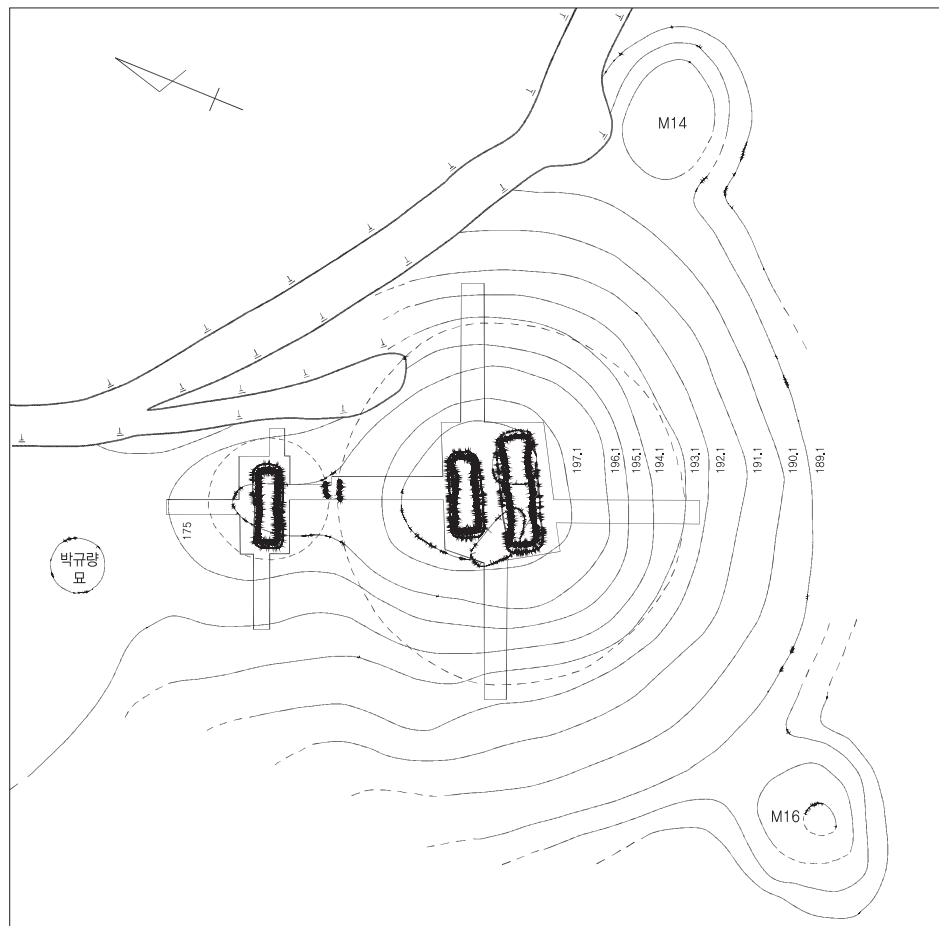
M13호분은 봉분의 직경이 23m 정도인 대형급이며, 구릉 정상부의 돌출된 위치에 입지하여 사면과 연결되어 보다 거대한 규모를 보인다. 매장주체부는 할석으로 축조한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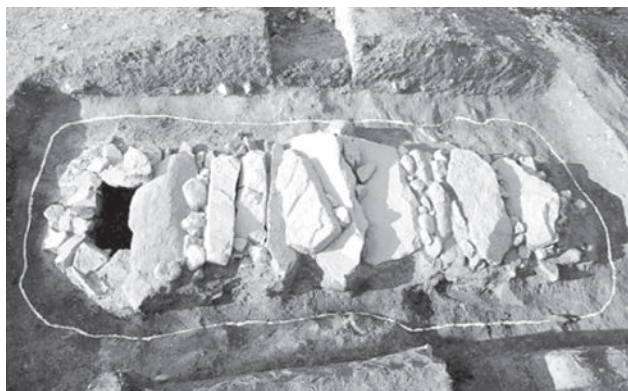
석곽묘로 주곽과 부곽이 '11'자 모양으로 배치된 대가야의 무덤 형식을 따르고 있다. 주곽의 길이는 680㎝, 너비는 135㎝ 정도이며, 11매의 개석으로 밀봉하였다. 석곽 내부의 부장품은 머리쪽인 서단벽에 개배와 고배 등 소형토기를 부장하고, 발치쪽인 동단벽에 발형기대와 유개장경호를 매납하며, 피장자의 우측에는 용봉문환두대도가 놓여 있다. 또한 마구는 금동으로 장식된 'f'자형판비, 검릉형행엽 등이 확인되며, 은장식이 베풀어진 공부다각형철모와 물미, 도자형 장경식철촉와 함께 대가야지역에서 유행하는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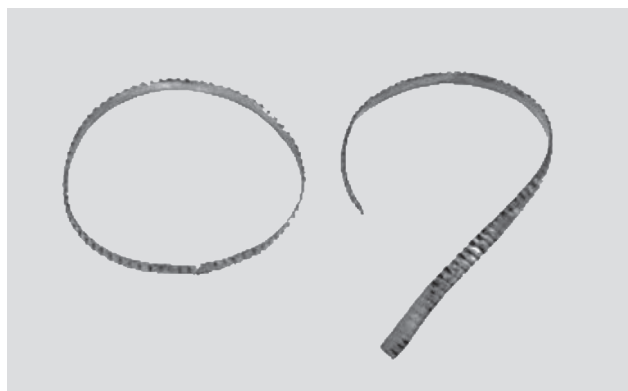
부곽은 주곽의 북쪽에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길이 450㎝, 너비 106㎝ 정도로 내부의 동쪽으로는 유개단경호, 서쪽으로는 발형기대에 놓인 유개장경호로 채워져 있으며, 상부에는 대가야의 특징적인 축소모형철기가 다수 흩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상과 같이 M13호분은 구릉 정상부라는 탁월한 입지와 함께 고분의 구조 및 출토유물로 보아 대가야권역 내에서 최상위의 위계를 보이고 있다. 인접한 함양 백천리 1-3호분에 비해 월등한 부장양상을 보이며, 산청 서북부지역을 포함하여 함양 일대를 관할하는 광역의 지배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경호강을 따라 남하하는 대가야가 이 지역을 전진기지로 적극 후원한 결과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2009,
『산청 생초 M12·M13호분』.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M12호분

M13호분

은제천

환두대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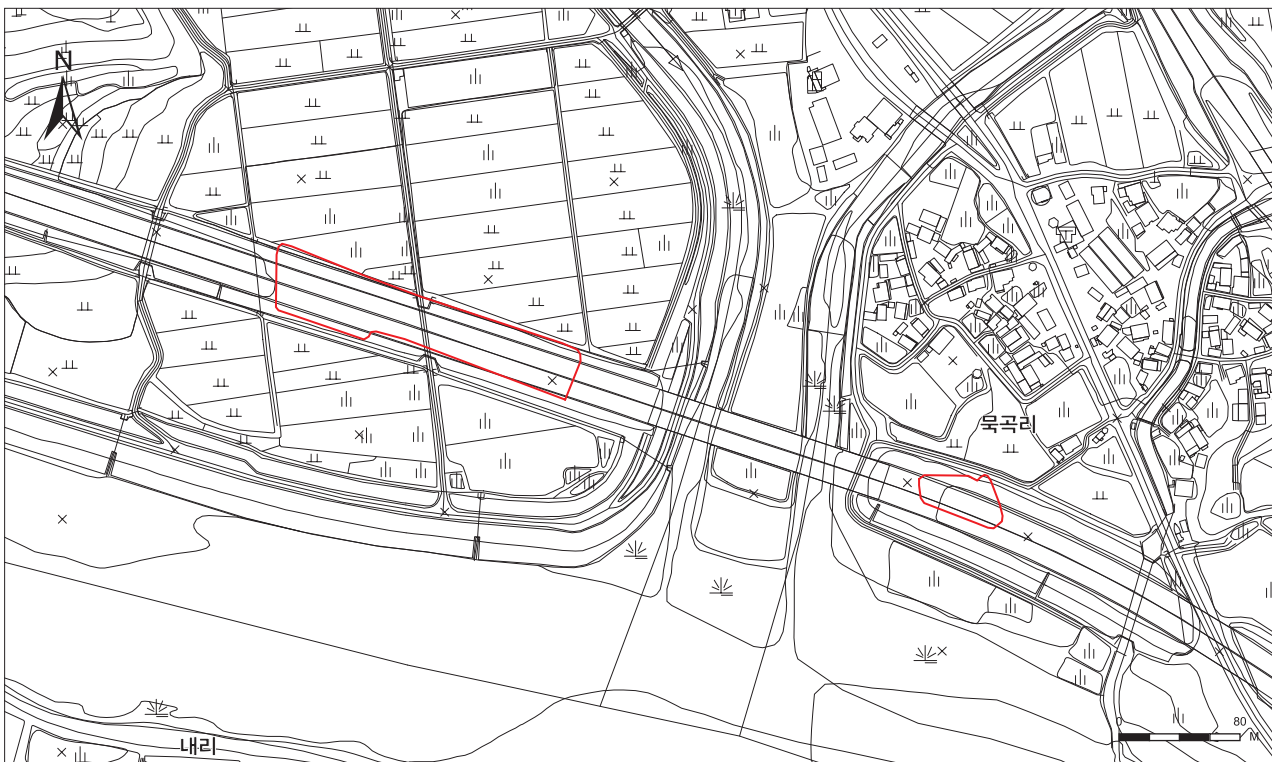
산청 묵곡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묵곡리 397 일대

조사기관/ 조사기간
경남대학교박물관 / 1996.3.~1996.10.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 고배, 장경호, 발형기대, 환두대도

산청군 중부의 묵곡리 자신마을 남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둔철산(해발 823m)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말단부에 분포한다. 유적의 서쪽으로는 정곡천과 척지천이 경호강으로 합류하면서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서부 경남의 관통하는 남강 수계에 해당하며, 경호강에 의해 형성된 곡간평지를 통해서 함양과 진주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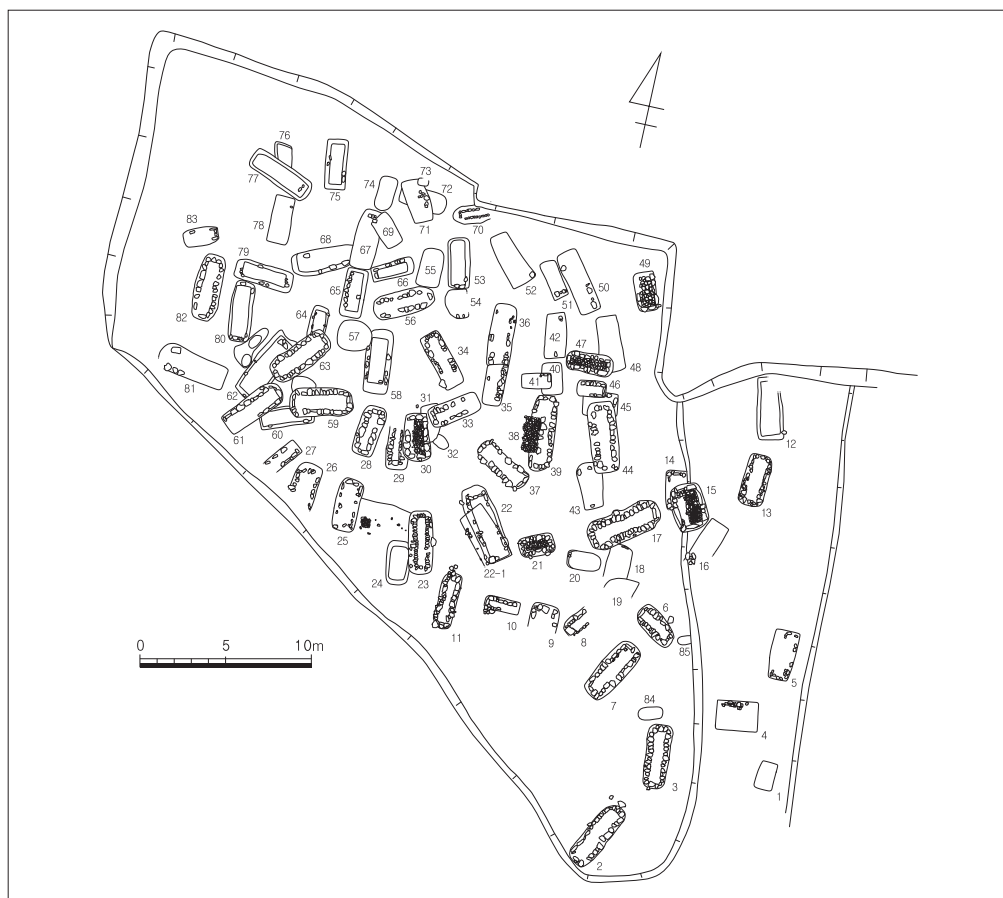
1996년에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경남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7동, 고상건물지 9동, 야외노지 1기, 청동기~삼국시대의 의례용 구상유구, 삼국시대 고분 87기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고분은 2지구에 밀집되어 있으며, 목곽묘 53기, 석곽묘 25기, 석실묘 4기, 옹관묘 2기, 성격미상의 유구 3기이다. 대체로 구릉의 위쪽에 목곽묘가 조성되고, 구릉 아래쪽으로 석곽묘와 석실묘가 축조되어 있으며, 양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유적 위치도

목곽묘의 규모는 길이 2~4m, 너비 1~1.5m이며, 길이 2m 이내의 소형급은 8기이다. 목곽의 장단비는 3.5:1 정도로 세장한 형태이며, 묘광과 목곽 사이에는 보강토나 보강석을 채웠다. 출토된 유물은 고배, 수평구연호, 광구소호 등이 있으며, 철기는 철부, 철겸, 철촉, 도자가 있다. 토기는 대부분 소가야양식이 주류를 이루며, 일부 백제계로 보이는 토기도 포함되어 있다.

석곽묘는 평면 세장방형으로 천석을 이용하여 네 벽을 축조하였다. 최하단에는 판석상의 천석을 세우고 그 위에는 천석을 눕혀 쌓는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유물은 주로 양단벽에 부장되었는데, 바닥 전체에 혹은 유물 부장공간에 판석을 깐 경우도 있다. 출토된 토기는 소가야양식과 대가야양식이 공존하며, 대가야 토기가 많은 편이다. 그 외에 철겸, 철부, 철촉 등이 있으며, 삼엽환두대도와 소환두대도가 출토되었다.

백제계와 소가야양식의 토기는 5세기대, 대가야양식의 토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대 고분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다. 또 대가야 토기는 고령 등 대가야 중심지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것과 함께 이 지역에서 제작한 모방품도 확인된다. 고분군의 축조집단은 소가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초기에는 백제와의 교류에 주력하다가 5세기 말부터는 대가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경남대학교박물관, 2013, 『산청 묵곡리 유적』.

2지구 유구 배치도

2지구 유적 전경

13호 목곽묘

22호 목곽묘

출토유물

03 산청 명동유적
山淸 明洞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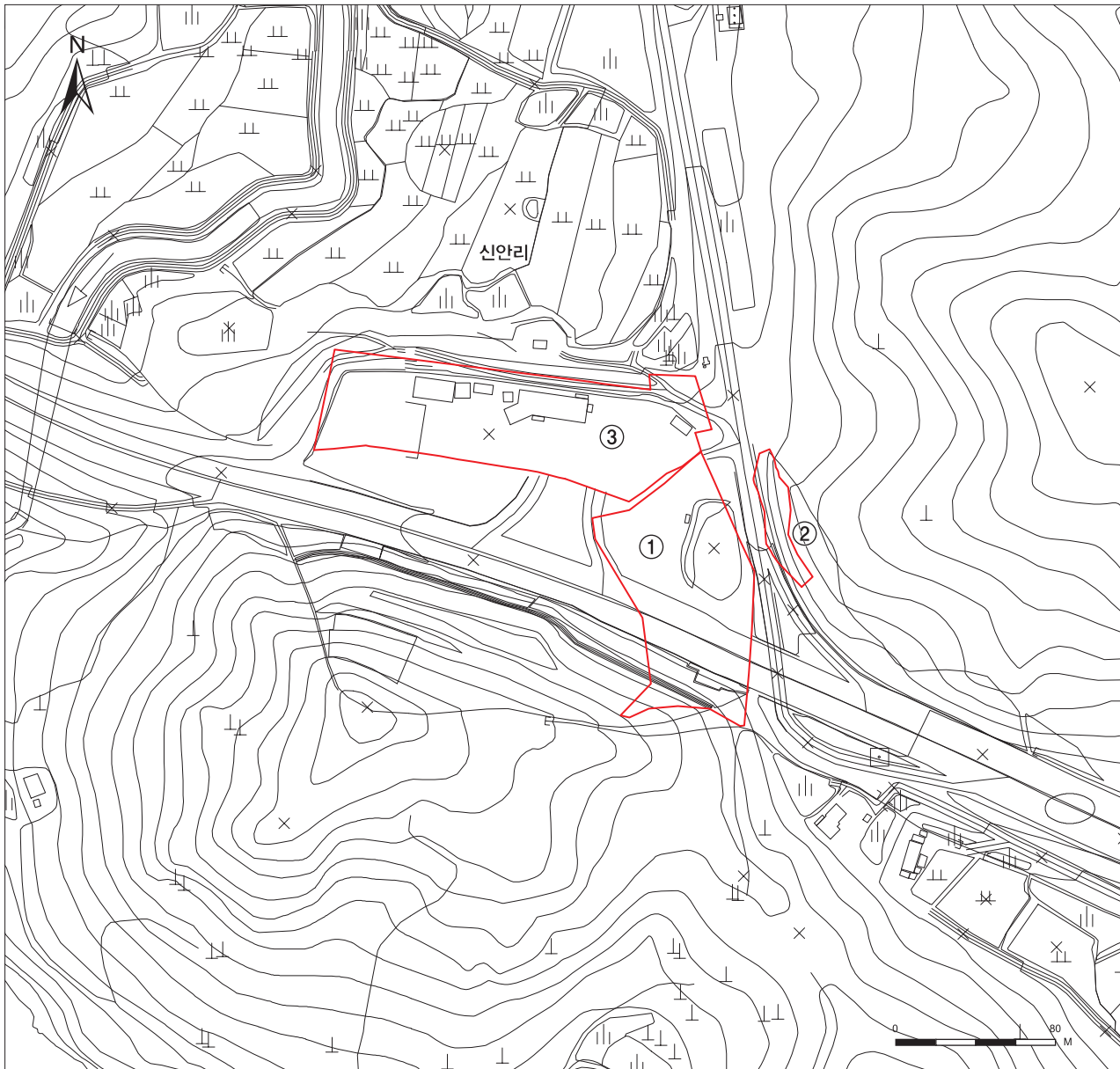
산청군 남부의 신안리 명동마을 북쪽에 있는 생활유적과 무덤유적이며, 왁대고개와 접한 구릉의 양쪽 사면부에 분포한다. 유적의 북동쪽은 둔철산(해발 823m)과 월명산(해발 320m)으로 이어지는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서쪽으로 남강 수계의 경호강이 곡류하며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산청과 진주지역을 연결하는 주요한 교통로 상에 해당한다.

2001~2002년에 단성~산청간 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왁대고개 서쪽의 Ⅰ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석관묘 2기, 삼국시대 고분 88기, 수혈주거지 4기, 수혈 7기가 확인되었다. 이후 왁대고개 동쪽으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된 Ⅱ지구를 대상으로 추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삼국시대 고분 22기와 조선시대 묘 6기가 확인되었다. 명동 유적 Ⅰ·Ⅱ지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451점이며, 철기는 161점이고, 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이후 2007년에는 신안리 관광휴게시설 신축공사로 인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행 조사된 Ⅰ지구의 북쪽에서 삼국시대 고분 47기, 조선시대 분묘 3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모두 198점이며, 토기 167점, 철기 31점이다.

조사된 고분은 반지상식의 석곽묘를 주체로 하는 중소형의 고분이며, 다곽분과 함께 단곽식이 연접되는 배치를 보인다. 벽면의 축조기법과 주구의 설치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첫째는 최하단을 판석상의 할석을 이용하여 세워 쌓고, 그 위에 할석을 눕혀 쌓은 후 개석을 덮어 봉분을 완성한 유형이다. 사면 위쪽으로 눈썹형의 주구를 설치하였으며,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된다. 두 번째 유형은 할석을 이용하여 최하단부터 눕혀 쌓는 형태로 주구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물은 토기를 중심으로 부장하였고, 철기와 장신구는 적은 편이다. 토기는 이른바 소가야양식의 일단장방형투창고배를 중심으로 삼각투창고배, 이단교호투창고배, 수평구연호, 컵형토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변지역에서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대가야와 아라가야, 신라양식 토기, 일본 열도의 스에키도 혼재되어 있으나 그 양은 적은 편이다.

명동유적은 고분의 규모나 출토유물로 보아 소가야권의 중하위집단에 의해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중심연대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대로 편년된다. 특히 소가야권의 유력한 중심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산청 중촌리고분군에 인접하며, 권역 내에서 중심고분군과 단위고분군의 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유적이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산청 명동유적 -단성~산청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I지구) 내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1.12.~2002.6.	산청 명동 유적I-단성~산청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2004) 산청 명동 유적II-단성~산청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2004)
2	산청 명동유적 -단성~산청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II지구) 내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2.9.~2002.11.	산청 명동 유적II-단성~산청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2004)
3	산청 명동유적 -산청 신안리 휴게소 건립부지 내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7.2.~2007.3.	산청 명동 유적III-산청 신안리 휴게소 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2009)

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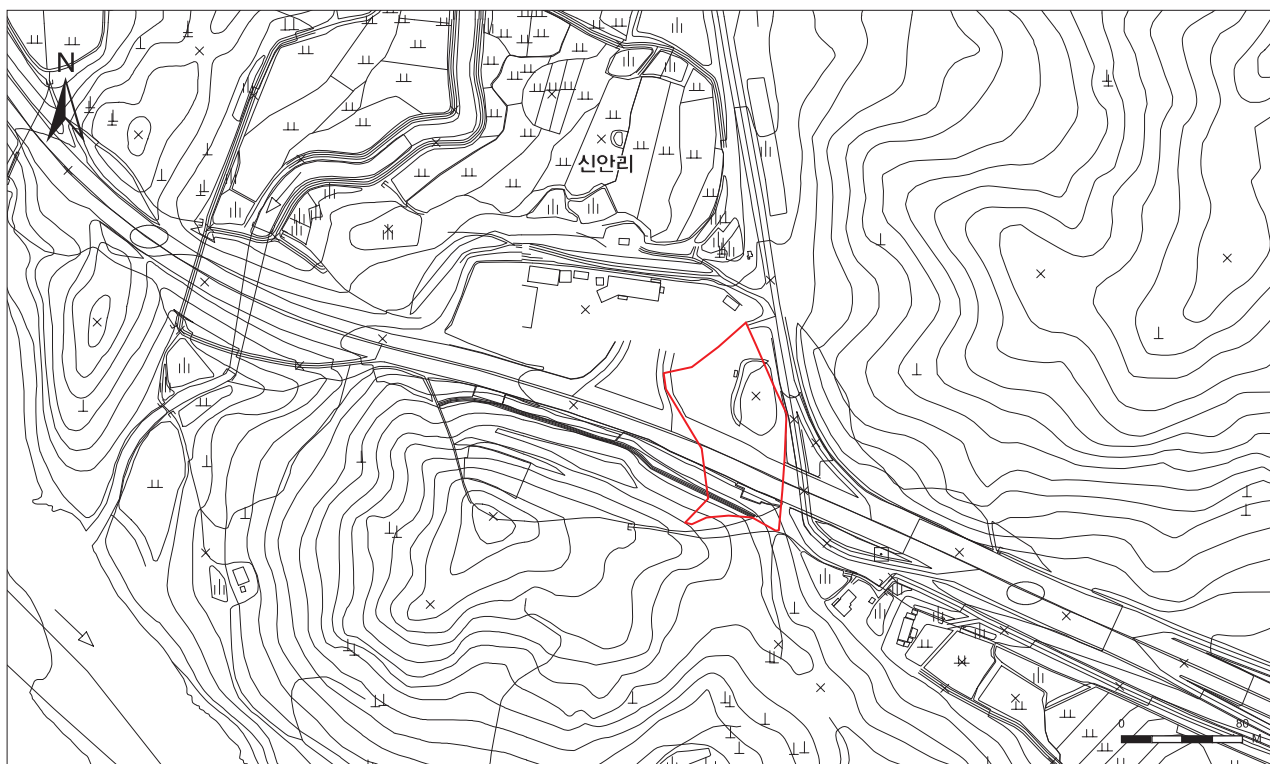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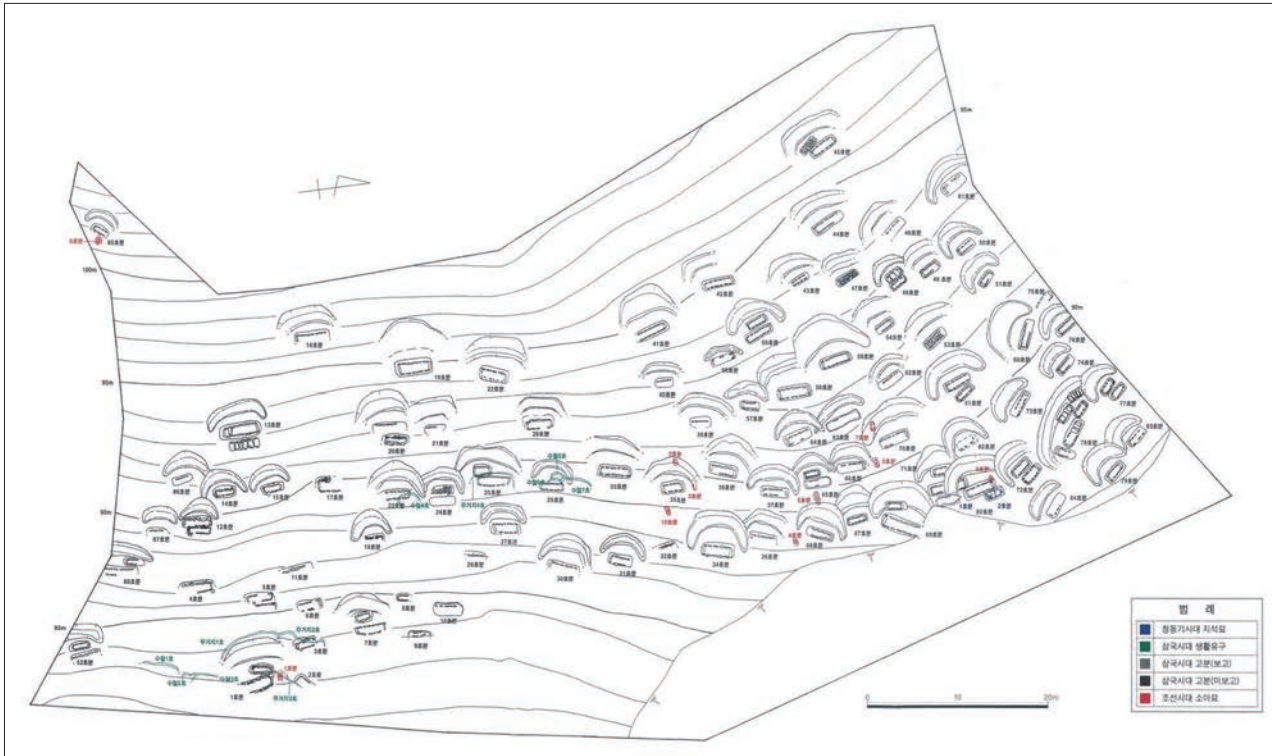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산85-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1.12.~2002.6.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석곽묘 /
장동옹, 시루, 고배, 수
평구연호, 대도, 이식

산청 명동유적 _ 단성~산청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Ⅰ지구) 내 유적

조사구역은 왁대고개와 접한 서쪽 구릉의 동쪽 사면부에 분포하며, 2001~2002년에 단성~산청간 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적은 해발 82~105m 상에 위치하며,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석관묘 2기, 삼국시대 고분 88기, 수혈주거지 4동, 수혈 7기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고분은 조사지역의 전역에 걸쳐서 분포하며, 북쪽의 사면부에 다소 밀집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및 수혈유구와 같은 생활유적은 남쪽의 사면 말단부에서 확인되고 있다.

고분은 사면 위쪽으로 눈썹모양의 주구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석곽묘가 단곽식으로 연접되는 배치를 보인다. 동일한 주구 내에서 2~5기의 석곽묘가 다곽분도 확인되며, 특히 78호분은 5기의 석곽묘가 동일한 주구 내에 축조되어 있다. 석곽묘는 최하단을 판석상의 할석을 이용하여 세워 쌓고, 그 위에 할석을 눕혀 쌓아 석곽을 만든 뒤 개석으로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덮는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이며, 철기의 부장량은 빈약한 편이다. 토기는 대부분 소가야양식의 일단장방형투창고배, 수평구연호, 광구호 등이며, 부분적으로 외래계 토기가 확인된다. 1-1호 석곽묘에서는 대가야양식의 유개고배가 2점 확인되고, 1-2호 석곽묘에서는 아라가야양식의 고배, 파배가 출토되었다. 또한 27호분에서는 신라양식의 대부장경호가 보이며, 22호분과 68호분에서는 일본 고분시대 스에키 개배가 확인되어 토기문화의 다양한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유적의 형성은 5세기 중엽 이후 시작되어 이후 6세기 전반대를 중심으로 다수의 석곽묘가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Ⅰ지구에서 확인되는 수혈주거지는 4동이며, 대부분 고분에 의해 파괴된 양상을 보인다. 또한 1~3호 주거지는 인접하여 서로 중복되는 양상이다. 내부에서 출토된 토기는 원저의 장동옹과 시루가 있으며, 대부분 평행타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5세기대가 중심연대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 『산청 명동 유적Ⅰ – 단성~산청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 『산청 명동 유적Ⅱ – 단성~산청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45호분

13호분

48호분

1-2호분

출토유물

03-2

산청 명동유적 _ 단성~산청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II지구)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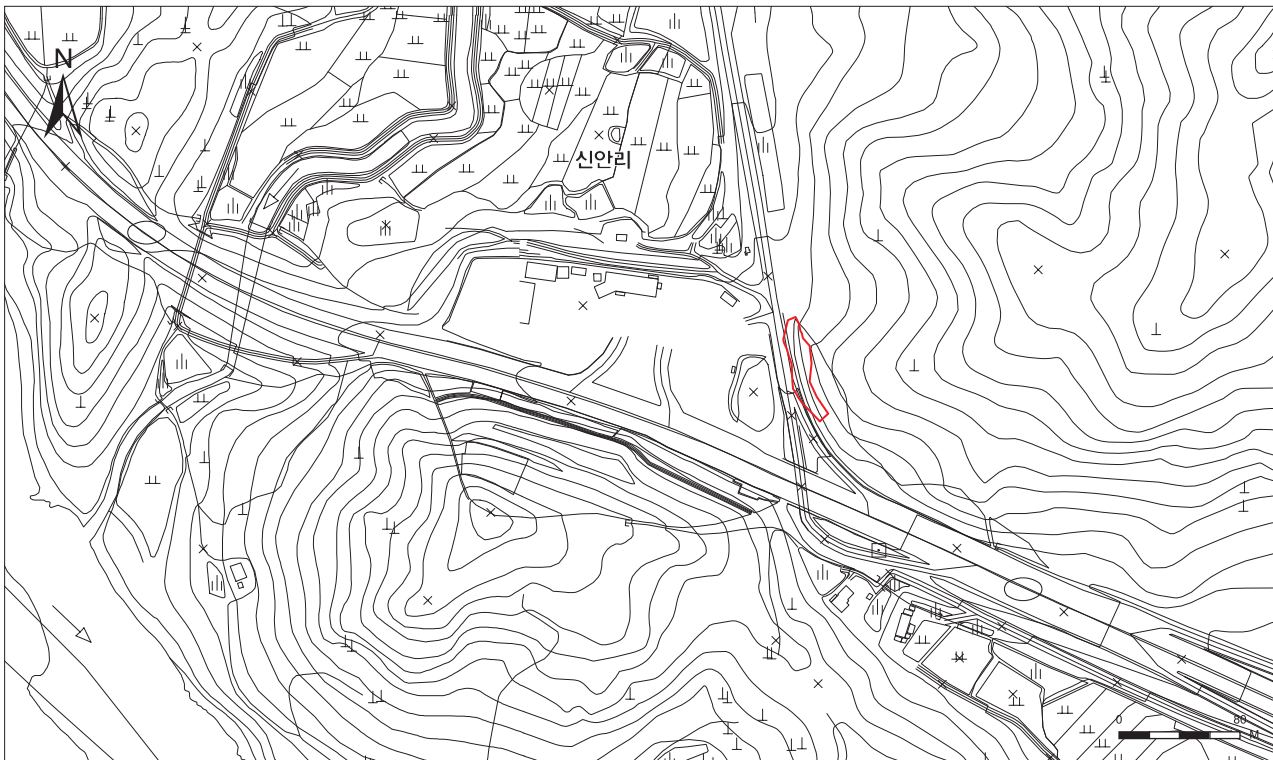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산109-1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2.9.~2002.1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유공광구소호, 수평구연호, 발형기대, 철촉

조사구역은 왁대고개 동쪽 구릉의 서쪽 사면부에 분포하며, 2001~2002년에 단성~산청간 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적은 해발 88~96m 상에 위치한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고분 22기와 조선시대 묘 6기가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 고분은 조사지역의 전역에서 확인되는데, 북서쪽 사면부에 밀집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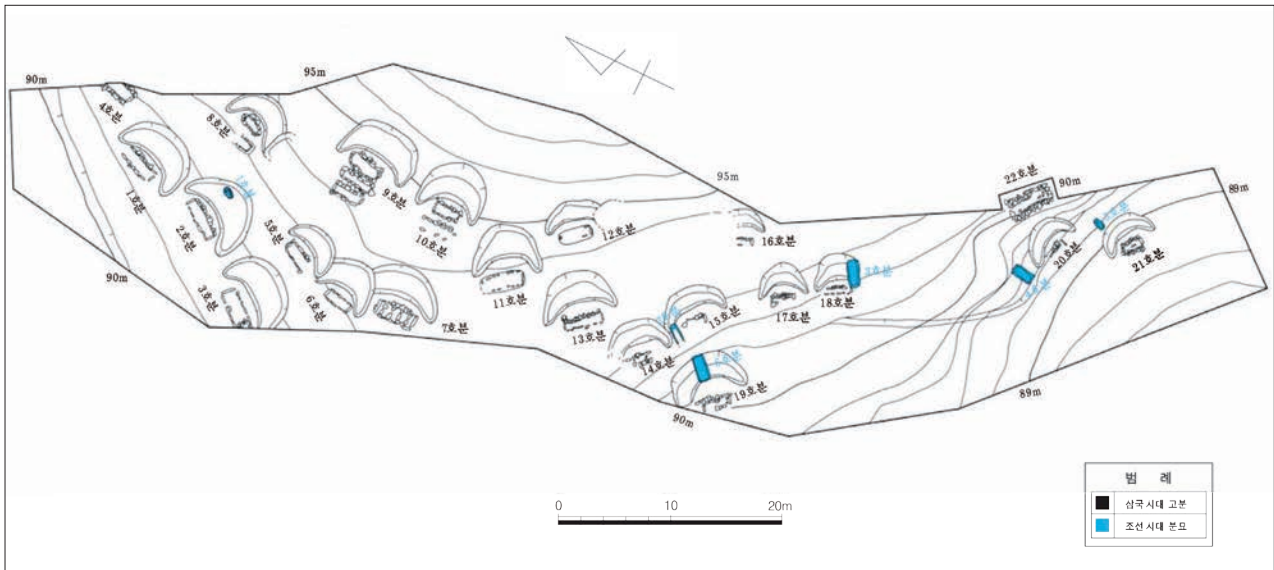
고분은 사면 위쪽으로 주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곽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곽분은 3기가 확인되는데, 9호분은 상하로 3기의 석곽묘가 연접하며, 8호와 10호분은 2기가 나란하게 배치된 양상을 보인다. 석곽묘의 최하단은 판석상의 할석을 세워 쌓고, 그 위에 할석을 눕혀 쌓는 형태가 주류이며, 바닥은 기반층을 정지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이며, 명동유적에서 비교적 이른 단계에 해당하는 5세기

유적 위치도

중엽대의 석곽묘가 밀집하고 있다. 토기는 대부분 소가야양식의 삼각투창고배, 일단장방형투창고배, 수평구연호가 주류를 이룬다. 8-2호분에서는 스에키 배, 14호분에서는 유공광구소호가 출토되어 주변 지역과 교류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된다.

산청과 진주지역을 연결하는 주요한 교통로에 해당하는 왁대고개를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유적 내 비교적 선행하는 고분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명동유적의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4,『산청 명동 유적Ⅱ－단성~산청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II지구 8호분

II 지구 9호분

출토유물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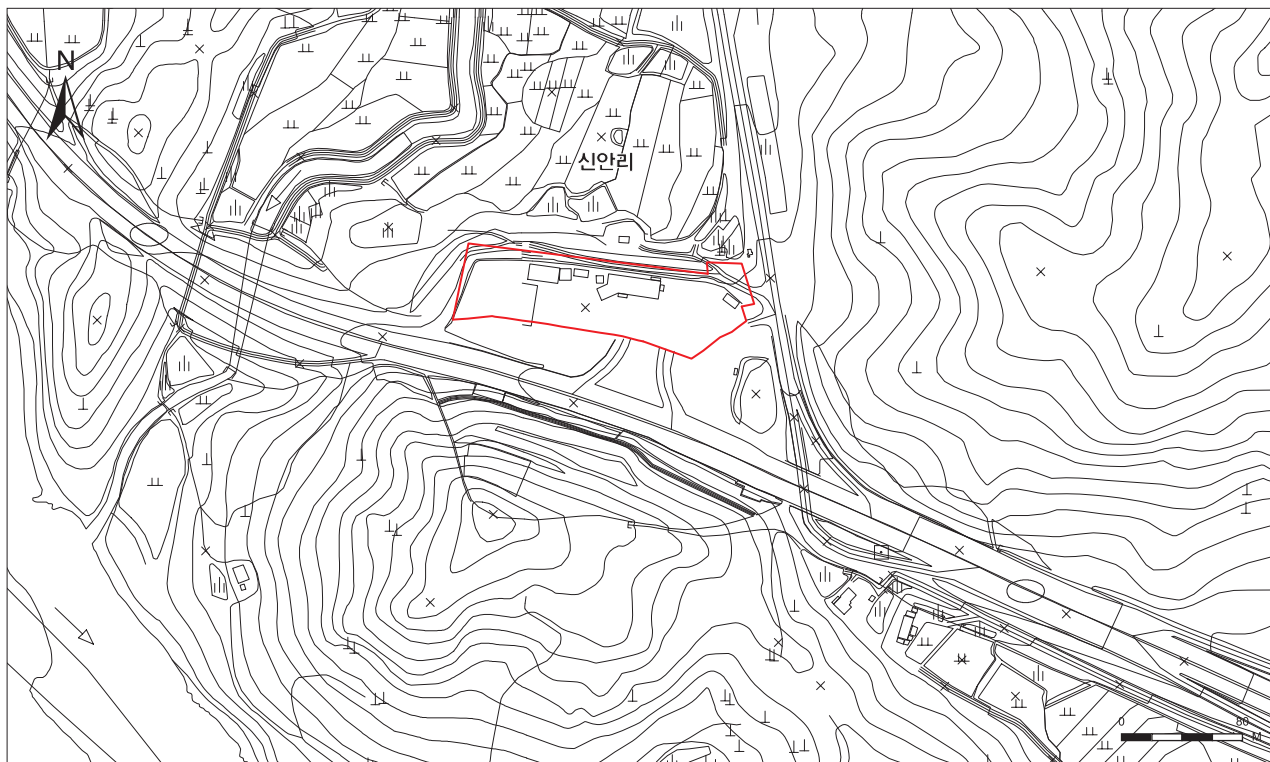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산8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7.2.~2007.3.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수평구연호, 대부단경호, 철모, 철촉

산청 명동유적 _ 산청 신안리 휴게소 건립부지 내 유적

조사구역은 국도 3호선이 지나는 왁대고개 서남쪽 구릉의 북사면 말단부에 해당하며, 2007년에 신안리 관광휴게시설 신축공사로 인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 조사된 명동 유적 Ⅰ지구의 북쪽과 접하여 고분군의 연결선상에 분포한다. 해발 65~80m 전후의 사면부에 조영되어 있으며, 삼국시대 고분 47기, 조선시대 분묘 3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198점이며, 토기 167점과 철기 31점이다.

다곽분 가운데 35호분은 3기의 석곽이 조영되어 있고, 나머지는 2기의 석곽이 조영되어 있다. 매장주체부인 석곽 간의 중복현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발굴조사와 마찬가지로 선행분에 인접하여 조영됨으로서 주구의 끝자락이 서로 중복되고 있다. 또한 수직적인 연접보다는 후행분이 등고선을 따라 횡적으로 연접하여 조영되고 있다. 삼국시대 고분의 축조는 Ⅱ지구 쪽에서 먼저 조영된 후, 차츰 서쪽의 Ⅰ지구 쪽으로 다수의 유구가 축조되는 양상을 보이며, Ⅰ지구의 연결선상에 있는 금회 조사구역에는 시기적으로

유적 위치도

후행하는 고분이 많다.

출토된 유물은 주로 토기이며, 철기의 부장은 현저히 떨어진다. 토기는 고배, 단경호, 장경호, 개배, 방추차, 파수부배, 대부호 등의 순으로 출토되고 있다. 철기는 대부분 농공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소량의 무기는 철촉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도 철창 2점과 철제과대금구 편, 청동방울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유개식일단장방형투창고배, 이단투창고배, 수평구연호 등의 토기는 소가야양식에 해당하며, 축조시기는 대체로 6세기 전반대로 판단되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서 명동 유적의 북쪽 경계를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삼국시대 생활유구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시대별 유적의 형성범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 『산청 명동 유적Ⅲ－산청 신안리 휴게소 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29·30·30-1호분

35·35-1·35-2호분

토기류

철기류

04 산청 중촌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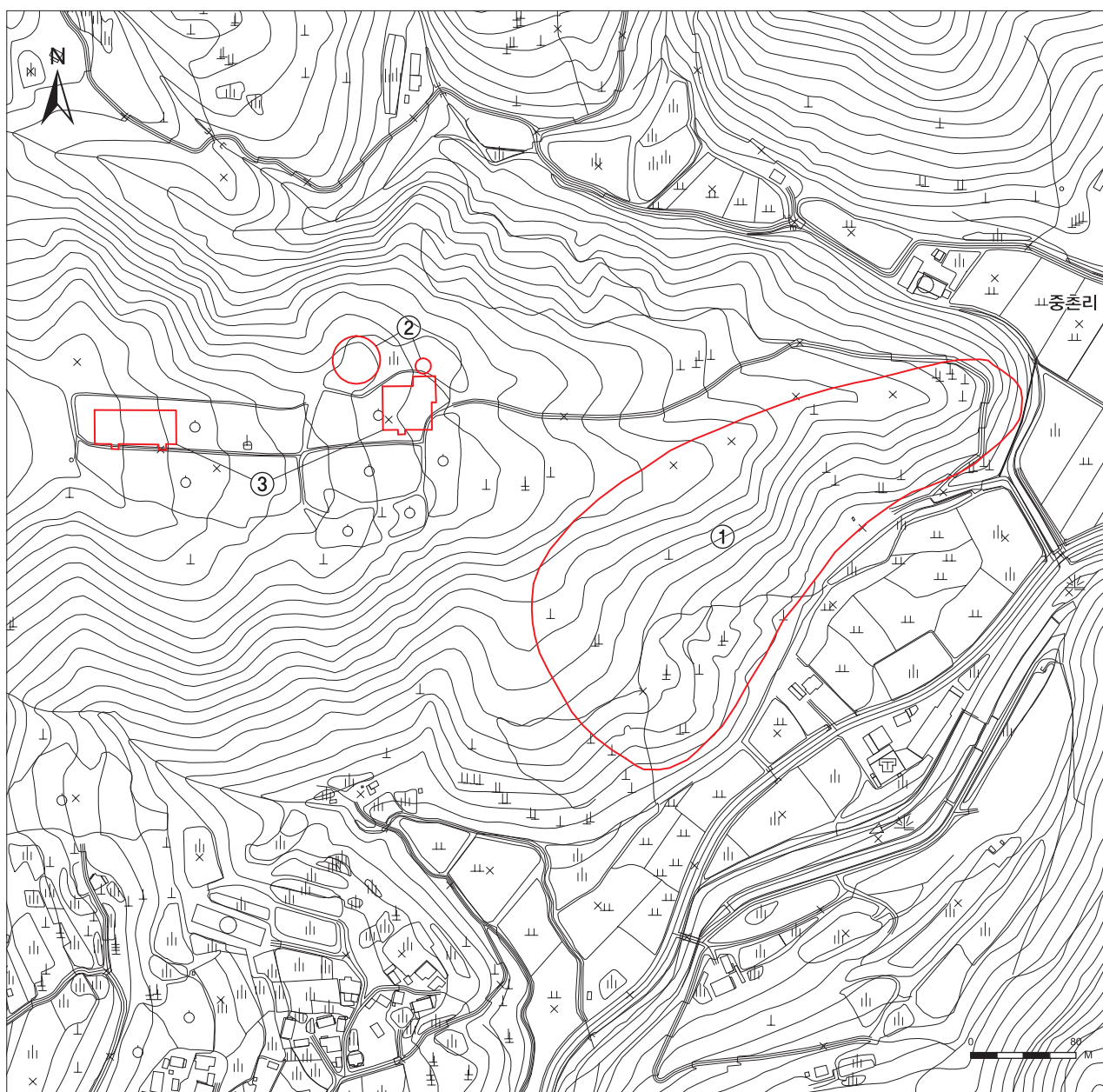
山淸 中村里古墳群

산청군 남부의 중촌리 산성마을 서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월명산(해발 320m)과 백마산(해발 286m)을 남북으로 잇는 최고봉(해발 334m)에서 서쪽으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구릉에 분포한다. 남쪽으로는 남강 수계의 경호강이 곡류하면서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산지 사이를 개석한 소하천이 경호강으로 합류한다. 북쪽으로는 하촌지석묘와 인접하며, 서쪽으로 백마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크게 4군으로 군집을 이루며, 확인되는 고분은 200여 기로 대부분 10~20m 내외의 중형급에 해당하고, 직경 20m 이상의 대형급은 10여 기 정도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는 1982년에 신라대학교박물관에서 1호, 3호, 21호, 50호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확인된 유구는 목곽묘 3기, 석곽묘 5기, 석실묘 3기이다. 3호분 북 목곽묘는 피장자공간과 유물부장공간이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요상의 시상으로 추정된다. 소가야 출현기의 전형적인 토기와 함께 단봉문환두대도, 재갈 등이 확인되어 주목되며, 50호분에서도 재갈과 금동장행엽 등이 출토되어 소가야지역 내에 중심고분군임을 확인하였다.

2013~2014년에는 훼손된 고분군에 대한 긴급발굴조사를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실시하였으며, M1호분과 5호분으로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M1호분에 대한 봉분조사 결과, 봉분은 남북 23.6m, 동서 25.6m, 높이 5.2m로 대형급에 해당하며, 봉분의 가장자리에는 2단으로 축조된 호석렬이 확인되었다. 5호분의 매장주체부는 석곽묘로 길이 5.25m 정도의 중형급에 해당하며, 수평구연발형기대를 비롯하여 전형적인 5세기 중반대의 소가야양식 토기가 확인되었다.

이후 2017년에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편의상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9기가 확인되었으며, 토기 35점, 금속기 30점이 출토되었다. 비교적 중형급인 Ⅱ-3호 석곽묘는 선행 조사된 M1호분 남동쪽의 사면에 위치하며, 직경 13m 정도의 호석이 확인되고, 주변으로 폭 3m 정도의 주구가 설치되었다.

이상과 같이 산청 중촌리고분군은 규모와 성격으로 보아 소가야권의 대표적인 중심고분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서 동일한 토기문화권 내에서 중심지 간의 관계를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적 위치도

연번	조사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산청 중촌리고분군 -1차 발굴조사 유적	신라대학교박물관	1982.8.~1982.9.	산청 중촌리 고분군(2004)
2	산청 중촌리고분군 -2차 발굴조사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10.~2014.2.	산청 중촌리 고분군 2차(2016)
3	산청 중촌리 산206-7번지 태양광발전소부지 내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8.~2017.9.	산청 중촌리(산206-7) 태양광발전소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2017)

04-1

산청 중촌리고분군 _ 1차 발굴조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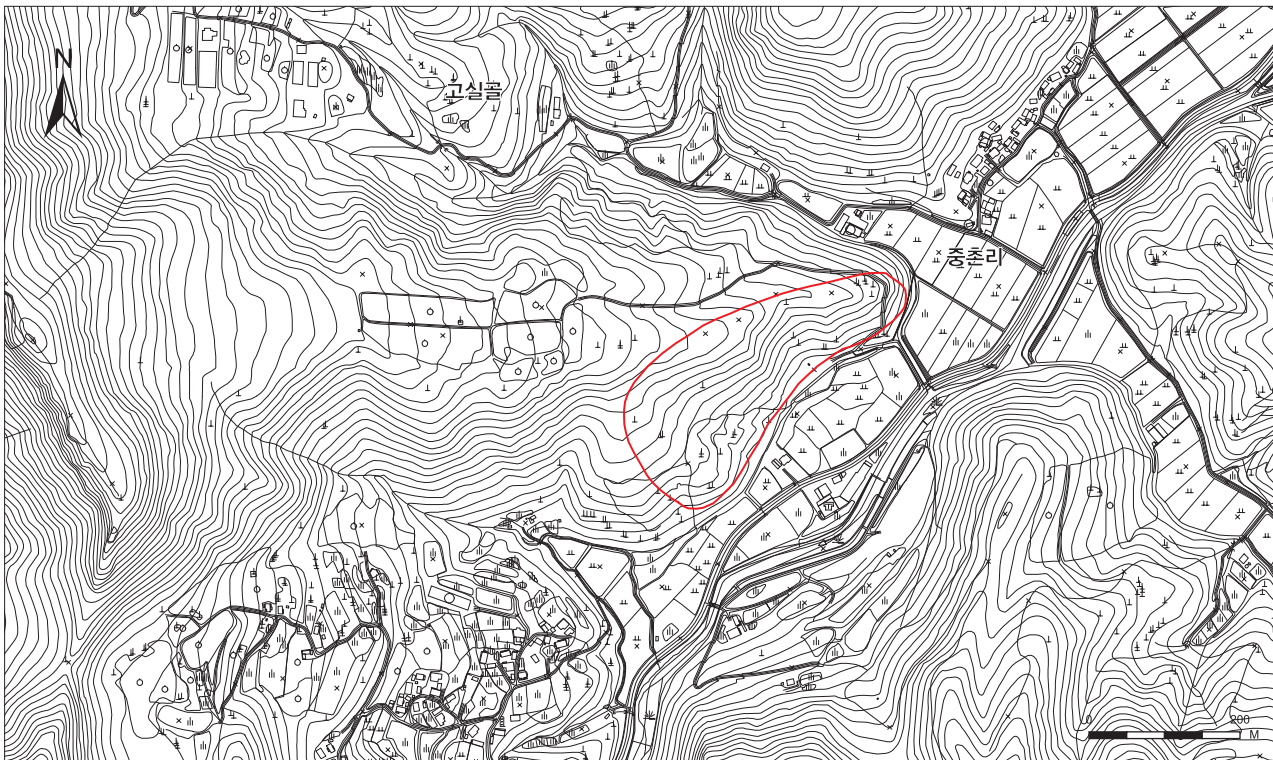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신라대학교박물관 / 1982.8.~1982.9.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 / 고배, 발형기대, 장식대도, 재갈, 안장

조사구역은 중촌리고분군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돌출된 구릉의 남쪽 사면 말단부에 해당한다. 1982년에 도굴로 인해 훼손이 진행되어 신라대학교박물관에서 수습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3·21·50호분 등 4기의 대형 봉토분을 대상으로 하였다. 확인된 고분은 목곽묘 3기, 석곽묘 5기, 석실묘 3기이며, 1호분은 실측조사만 이루어졌다.

목곽묘는 횡혈식석실묘인 3호분의 봉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는데, 북쪽과 서쪽, 남쪽에서 각 1기씩 확인하였다. 3호 북 목곽묘는 피장자공간과 유물부장공간이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요상의 시상으로 추정된다. 무개식삼각투창고배, 수평구연호, 수평구연발형기대 등 소가야 출현기의 전형적인 토기와 함께 단봉문환두대도, 금동장안장, 재갈 등이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21호분과 50호분이며, 21호분은 길이 495㎝, 너비 67㎝, 깊이 72㎝로 평면 세장방형을 띠며 소형의 부곽을 갖추고 있다. 50호분은 길이 490㎝, 너비 73㎝, 깊

유적 위치도

이 90~100㎝로 평면 세장방형을 이루며, 21호분과 마찬가지로 소형의 부곽이 확인된다. 유물은 도굴로 인하여 대부분 유실되었으며, 약간의 토기 편과 철기, 경식이 출토되었다. 50호분에서도 재갈과 금동장행엽이 출토되어 소가야지역 내에 중심고분군임을 확인하였다.

횡혈식석실묘는 1호분과 3호분이며, 1호분은 길이 383㎝, 너비 187㎝, 높이 285㎝ 정도의 장방형 현실에 양수식의 연도가 설치된 전형적인 가야 남부지역의 석실묘 형태이다. 3호분은 1호분의 서북쪽에 위치하며, 현실은 평면 장방형이고, 길이 380~426㎝, 너비 227㎝, 높이 195㎝이다. 현실의 남벽 서쪽에는 길이 230㎝, 너비 74㎝ 정도의 좌편수식 연도가 설치되어 있다. 3호분의 석실 내부에서는 대도와 철모, 철촉과 같은 무기류와 함께 재갈, 운주 등 마구가 수습되었다.

산청 중촌리고분군에 대한 최초의 발굴조사이며, 고분군의 전반적인 변천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특히 3호분 북 목곽묘에서는 출토된 단봉문환두대도와 금동장안장은 소가야 초기인 5세기 전반대의 양상을 규명하는데 핵심자료가 되며, 1호와 3호 횡혈식석실묘는 가야 후기의 석실묘의 지역성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신라대학교박물관, 2004, 『산청 중촌리 고분군』.

3호분 석실

3호분 동석곽 유물 출토모습

3호분 출토유물

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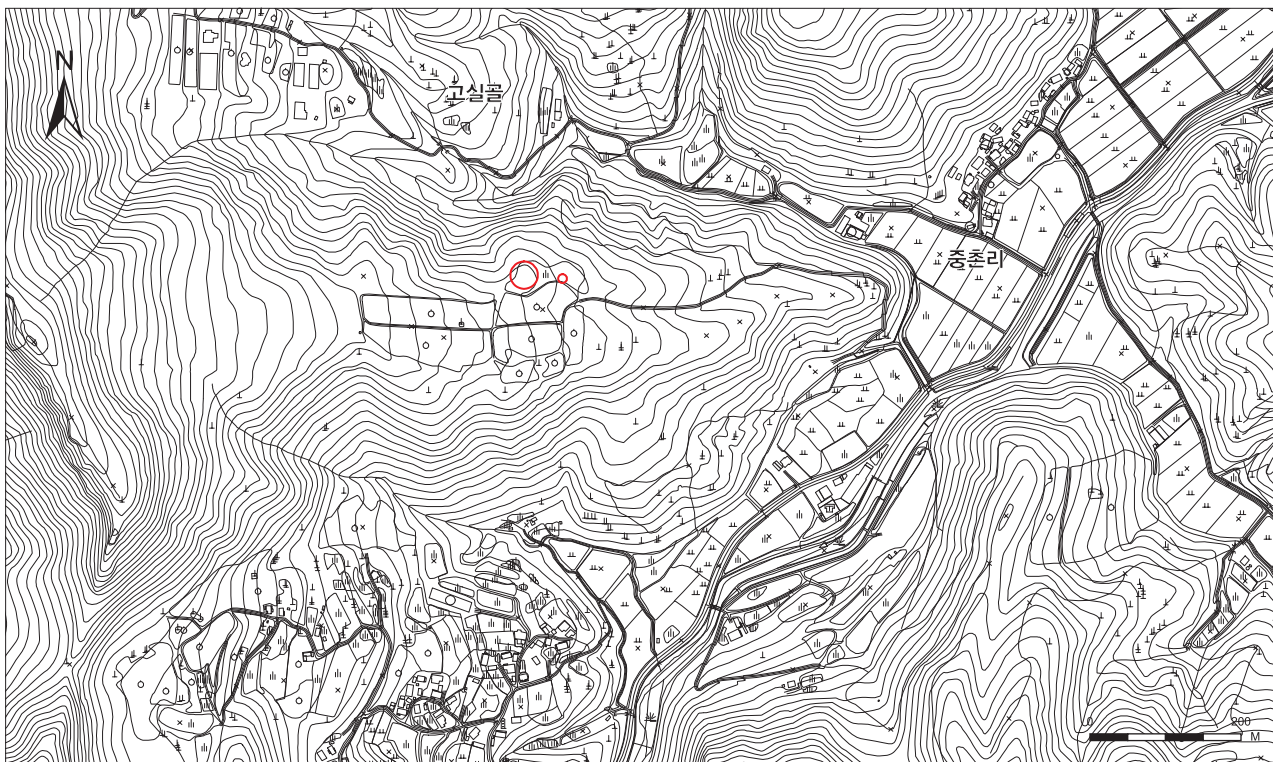
산청 중촌리고분군 _ 2차 발굴조사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산207-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3.10.~2014.2.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석곽묘 / 고배, 장경호, 기대, 철모

조사구역은 중촌리고분군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돌출된 구릉의 정선부에 해당한다. 2013~2014년에 훼손된 고분군에 대한 긴급발굴조사를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실시되었으며, M1호분과 5호분으로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M1호분은 봉분의 잔존 상태와 축조과정, 매장주체부의 유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5호분은 매장주체부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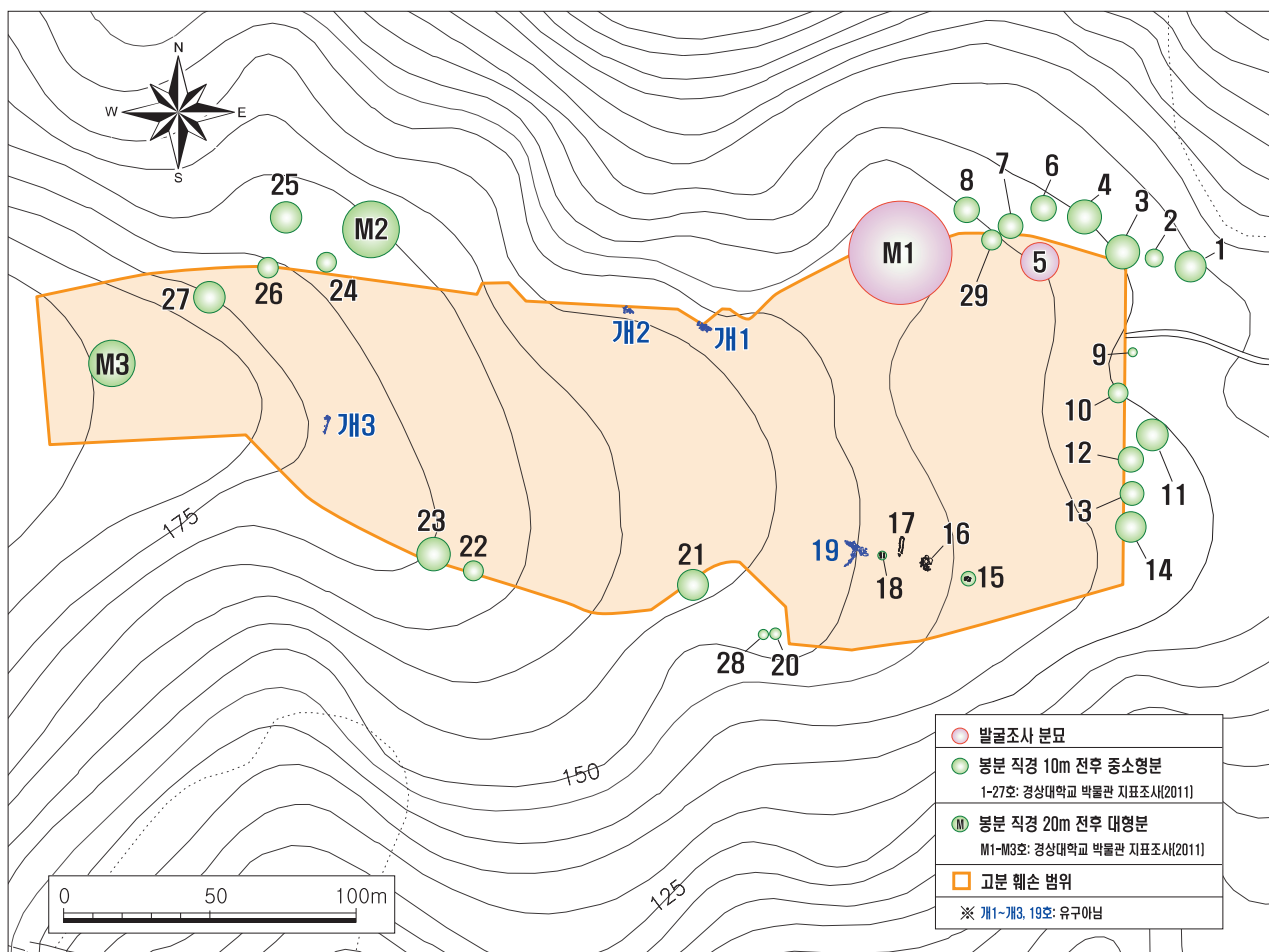
M1호분은 해발 143~149m 사이의 경사면에 축조되었으며, 남쪽과 동쪽이 급격한 경사를 보이는 입지이다. 봉분은 남-북 23.6m, 동-서 25.6m, 높이 5.2m로 대형급에 해당하며, 봉분의 가장자리에 할석을 쌓고 봉분의 외면에 즙석하여 외형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봉분의 가장자리에는 2단으로 축조된 호석렬이 확인되었고, 서쪽 트렌치 가장자리에서 주구가 확인되었다. 매장주체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트렌치의 중앙에 주곽, 남쪽에 부곽이 위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봉분 주변에는 대호 편이 산재

유적 위치도

되어 있으며, 특히 북동쪽에 집중되어 있고, 봉토와 즙석 사이에서도 개, 고배, 단경호, 장경호, 기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봉분의 북동쪽 가장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 유물은 M1호분에 행해진 제사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5호분은 해발 139~141m 사이의 구릉 정선부의 평탄면과 경사면에 걸쳐 조성되었다. 봉분의 중앙에 석곽 1기가 축조된 단곽식이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525㎝, 너비 95㎝, 높이 98㎝ 정도로 중형급에 해당한다. 봉분 가장자리에는 호석을 두르고 봉토의 상부와 외면에는 할석을 이용하여 즙석하였다. 유물의 부장은 북단벽에 집중되며, 유개고배 1점, 개 4점, 고배 2점, 단경호 1점, 기대 1점, 철도자 1점, 철모 1점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수평구연발형기대를 비롯하여 전형적인 5세기 중반대의 소가야양식 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각기부 폭이 넓고, 배부도 깊어 곡선적인 이단교호투창고배가 확인된다.

이상의 발굴조사는 고분군의 중심으로 이루는 구릉 정선부에 대한 최초의 발굴조사이며, 봉분 직경 20m 이상의 대형분을 대상으로 봉토의 축조공정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욱이 축조공정 상에서 보이는 외곽의 즙석과 호석의 형태 등은 향후 고분군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6, 『산청 중촌리 고분군 2차』.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M1호분

M5호분

토기류

철모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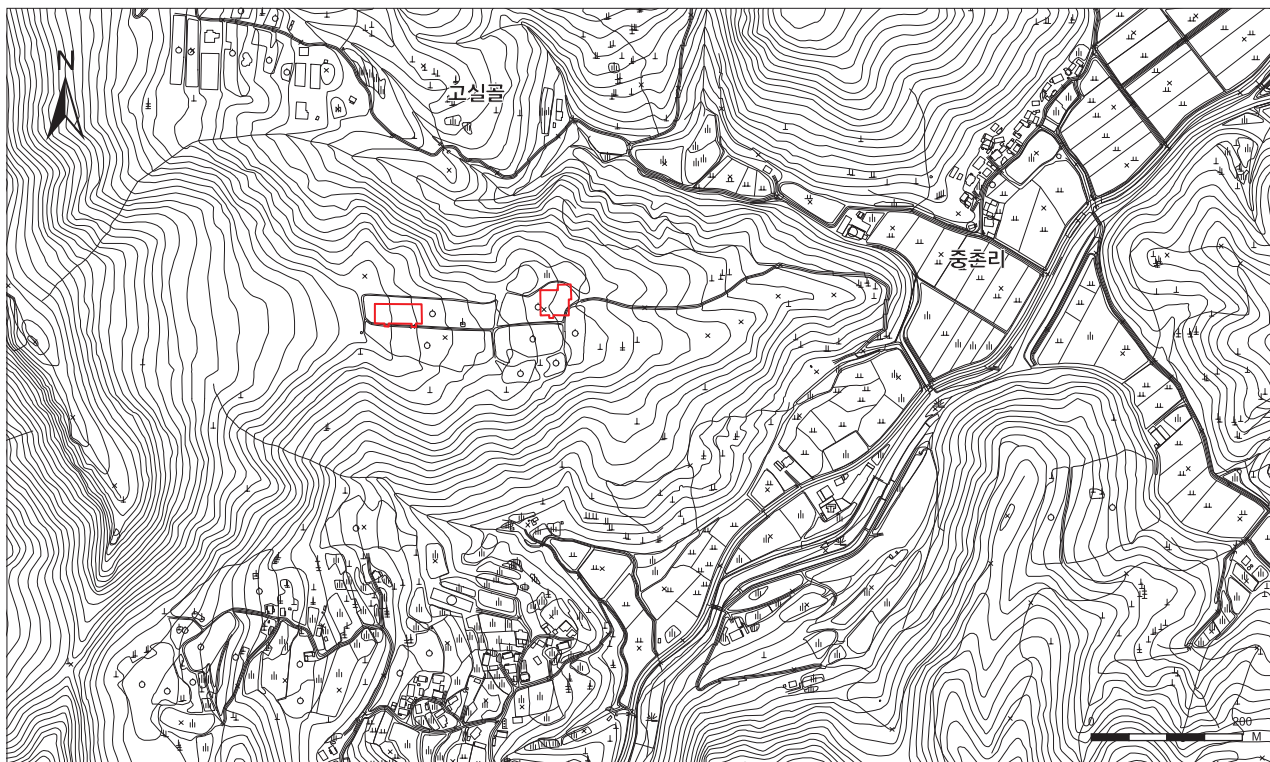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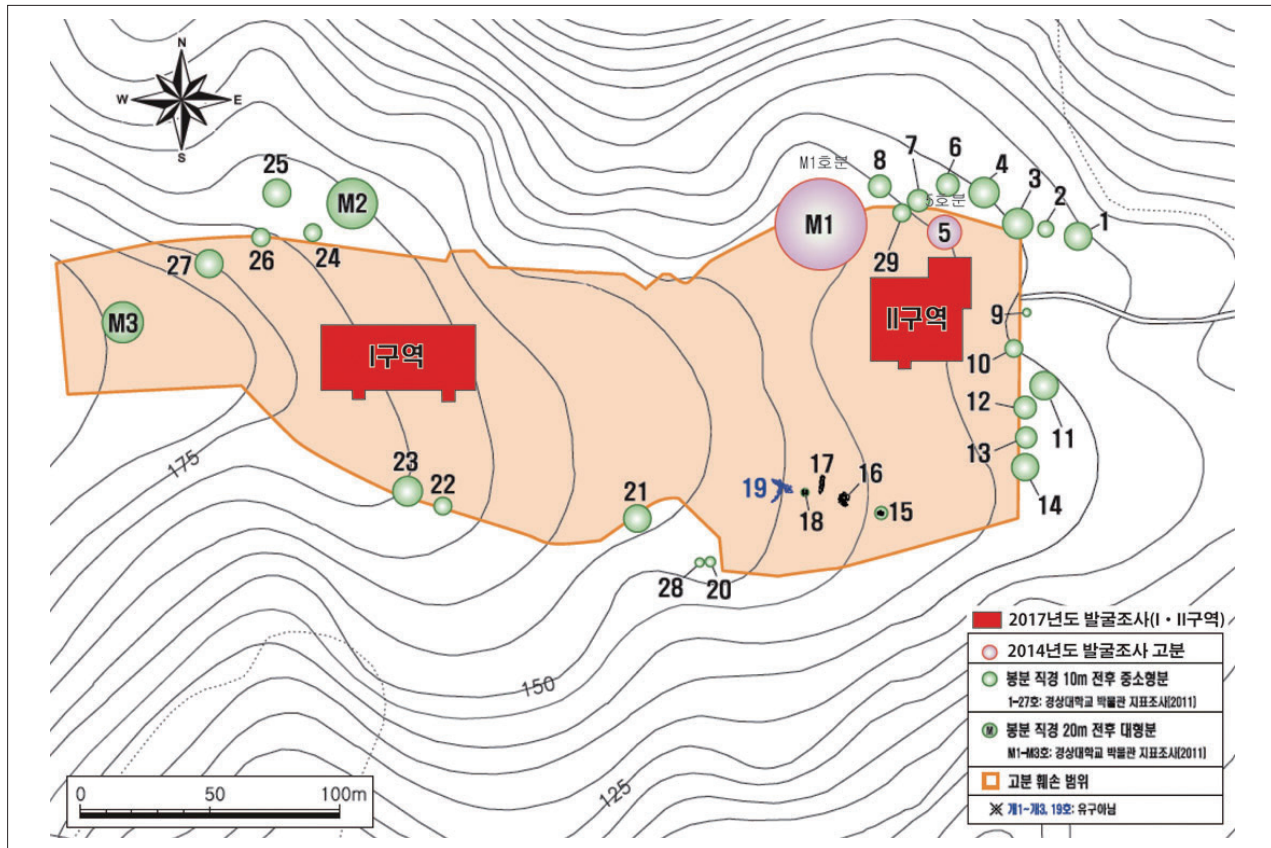
산청 중촌리 산206-7번지 태양광발전소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산206-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7.8.~2017.9.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석곽묘 / 고배, 장경호, 발형기대, 환두대도, 재갈

조사구역은 중촌리고분군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돌출된 구릉의 정선부에 해당한다. 2017년에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편의상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Ⅰ구역은 해발 163~169m 정도의 정선부에 해당하며, 북동쪽으로 경사를 이룬다. Ⅱ구역은 해발 136~141m로 중앙부에 소곡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곡부 양쪽의 미고지상에 삼국시대 분묘가 조성되어 있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9기가 확인되었으며, 토기 35점, 금속기 30점이 출토되었다.

비교적 중형급에 해당하는 Ⅱ-3호 석곽묘는 선행 조사된 M1호분과 5호분이 조성된 가지능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 석곽의 길이는 526cm 정도이고, 직경 13m 정도의 호석이 확인되고, 주변으로 폭 3m 정도의 주구가 설치되었다. 출토된 토기는 전형적인 소가야양식으로 삼각형투창고배, 일단장방형투창고배, 장경호, 단경호, 발형기대, 광구호 등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의 기종구성을 이루고 있다. 금속기의 출토량은 미비한 편이며, Ⅰ-2호 석곽묘의 경우 재갈, 세환이식, 환두대도, 소도 등이 출토되었다. 본 조사구역에서 확인된 석곽묘는 출토유물로 보아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전엽에 걸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청 중촌리고분군은 소가야의 최상위 고분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릉 정선부에서 선행 조사된 대형급의 봉토분과 함께 이번 조사를 통해 중소형급 고분의 분포를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대형급의 M1호분과 마찬가지로 Ⅱ-3호 석곽묘에서도 봉분의 가장자리에 호석이 설치되고, 석곽의 최하단석과 함께 봉분이 축조되는 기법이 주목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7, 「산청 중촌리(산206-7) 태양광발전소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유적 전경

Ⅰ-6호 석곽묘

Ⅱ-3호 석곽묘

출토유물

05 산청 평촌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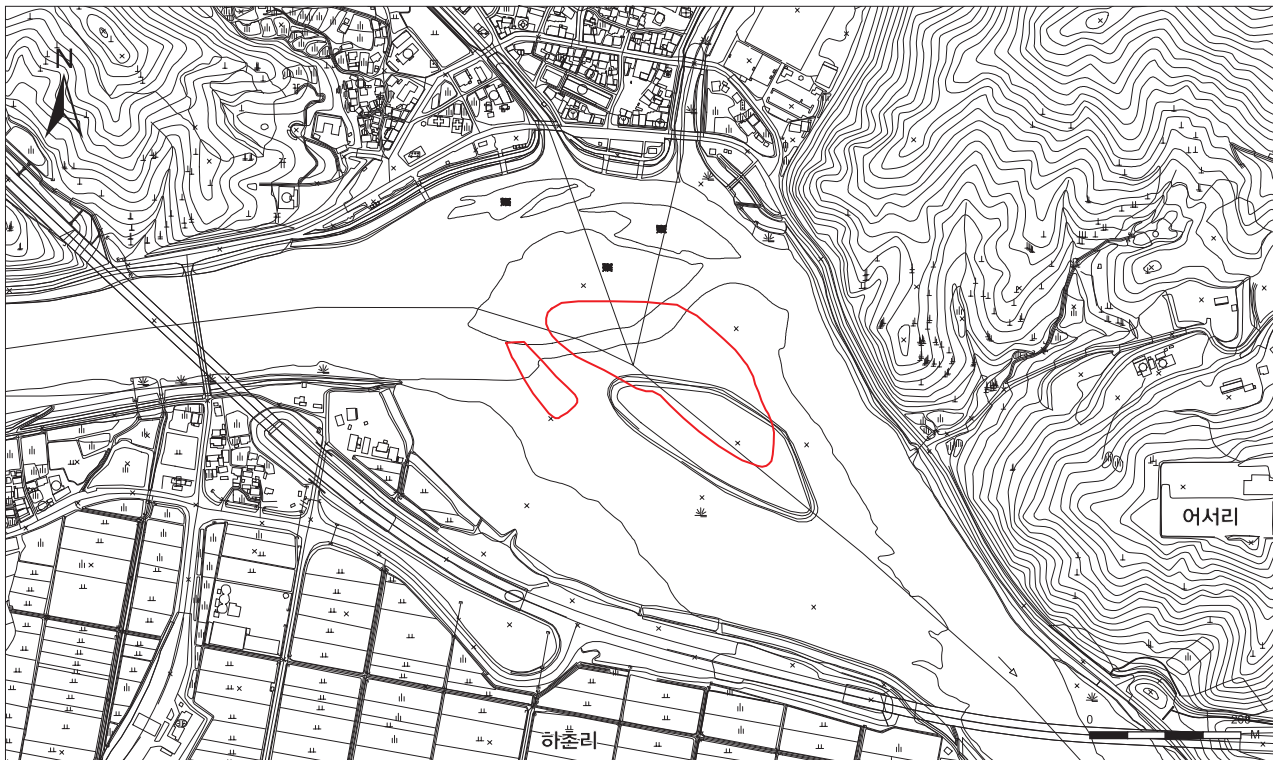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722-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3.12.~2004.8.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호안석축, 밭 / 고배, 수평구연호, 발형기대, 재갈, 안장

산청군 북부의 생초면소재지 남쪽에 있는 무덤유적과 산업생산유적이며, 곡류하는 경호강 사이에 형성된 하중도에 분포한다. 유적의 북쪽으로는 태봉산(해발 368m), 가막산(해발 336m)이 둘러싸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고읍들로 불리는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산청 생초고분군과 어서리토기생산유적이 위치하며, 남쪽의 충적지에는 산청 하촌리유적과 갈전리유적이 접하여 있다.

2003~2004년에 반갯들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삼국시대 석곽묘 183기, 석실묘 5기, 옹관묘 11기, 호안석축, 밭과 함께 고려시대 분묘 89기가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천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고, 봉분은 대부분 유실되어 잔존하지 않는다. 축조방법에 있어서 묘광의 깊이가 얕고 측벽이 정형하지 못한 형식은 서쪽 구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른 시기로 편년된다. 이후 묘광이 깊고, 측벽의 축조가 정연한 석곽묘가

유적 위치도

전 구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의 시설물로는 측벽과 나란하게 천석이 존재하며, 석곽 내부의 서설물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된 유물 가운데 토기는 소가야양식의 일단장방형투창고배, 삼각투창고배, 수평구연호, 대부직구호, 수평구연발형기대와 함께 대가야양식의 고배와 장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철기는 철겸과 철부 등 농공구와 함께 대도, 철촉 등이 소량 출토되었는데, 224호묘에서는 재갈과 등자, 안장, 편자로 구성된 마구와 도자형 장경식철촉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석실묘는 횡구식으로 5기가 확인되었으며, 2기는 완전한 형태의 호석과 천장석이 잔존한다. 석실의 중앙에 소형의 천석을 이용하여 시상을 마련하였으며, 입구는 모두 남쪽을 향하고, 판상할석을 이용하여 입구의 방향과 직교하게 폐쇄하였다.

이상과 같은 무덤유적과 함께 평촌리유적에서는 조사구역의 서쪽에 남-북 방향으로 호안석축이 확인되는데, 길이는 29.2m, 너비는 10m 정도이다. 호안석축의 상부에는 화강암의 대형석재를 혼용하여 길이 9.4m, 너비 2.5m 정도의 세장방형석축이 쌓았으며, 그 사이에는 완형의 개배, 고배, 장경호와 철촉 2점이 출토되어 제사의례와 관련된 용도로 추정되고 있다. 남서쪽으로는 고분군과 분리되어 경호강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밭이 확인되고 있다.

산청 생초고분군과 비교하여 하위집단의 묘역으로서 입지적인 차이와 함께 상호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인접하여 조사된 산청 하촌리유적과 갈전리유적을 통해서 고분군과 취락의 조합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 『산청 평촌리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7, 『산청 평촌리유적Ⅱ』.

유적 전경

15호 석곽묘·16호 횡구식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06 산청 사월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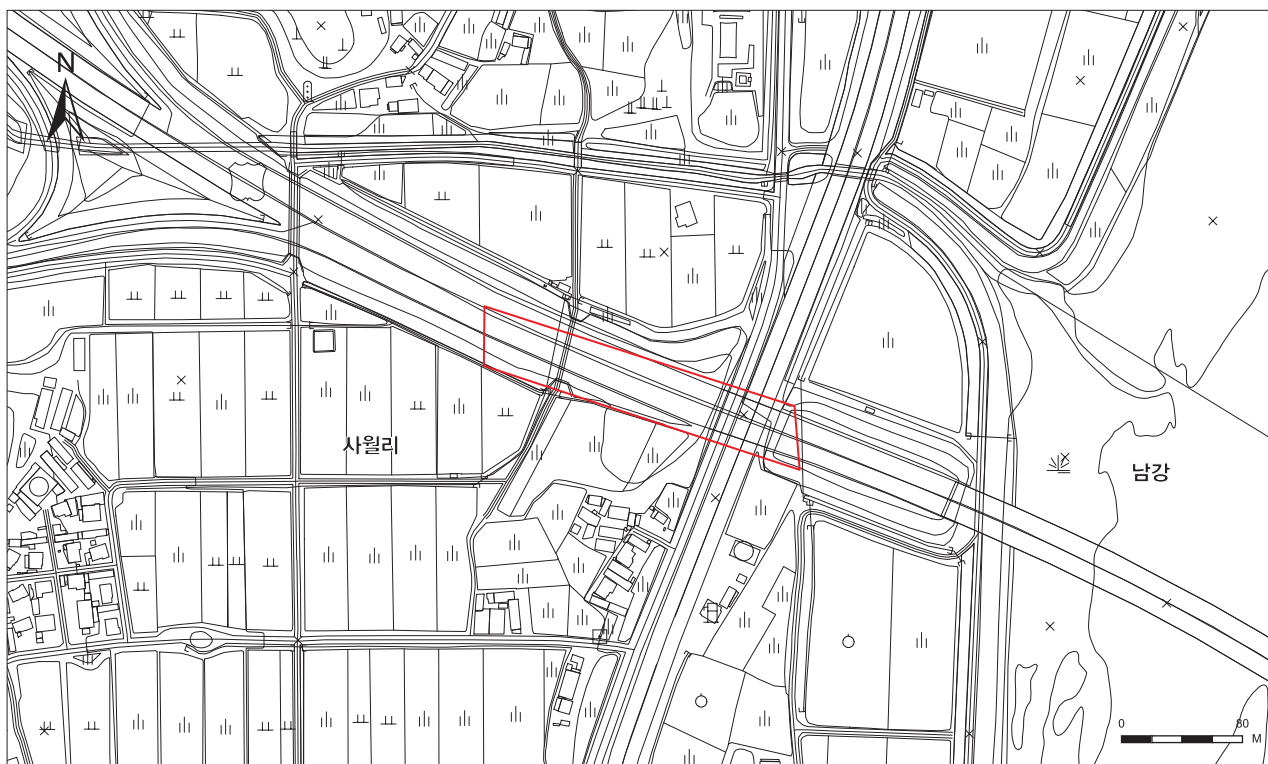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2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의대학교박물관 / 1996.3.~1996.8.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단경호, 파수부배

산청군 남부의 사월리 배양마을 남서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망해봉(해발 256m)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해발 58m 정도의 구릉부에 분포한다. 동쪽으로는 경호강과 임천강이 합류하여 남강이 곡류하면서 넓은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지리산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북쪽으로 750m 거리에는 산청 사월리환호유적이 위치하며, 남동쪽으로 3.4㎞ 거리에는 산청 소남리선사유적과 함께 청동기시대 유적이 밀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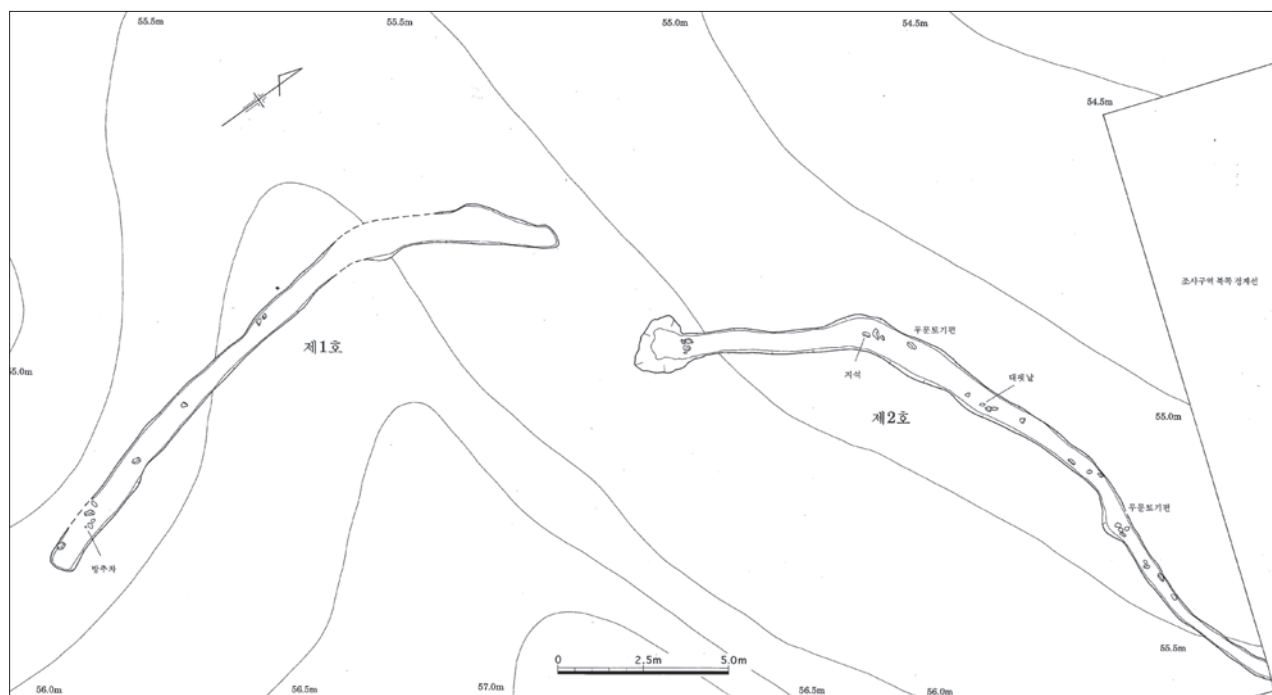
1996년에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19동, 수혈유구 11기, 지석묘 9기와 함께 삼국시대 목곽묘 1기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15호 목곽묘는 대부분 상부가 삭평되어 유구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구조 파악은 어려운 상태이다. 주축은 동-서 방향이며, 묘광의 잔존길이는

유적 위치도

274㎝, 잔존너비 142㎝ 정도로 목곽의 보강토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닥은 기반층을 편평하게 정지하여 사용하였으며, 북쪽 장벽에 연해 단경호와 파배가 나란하게 1점씩 출토하였다.

출토된 단경호는 회청색도질토기로 동최대경이 중위에 있고, 동부의 형태는 구형으로 원형의 저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파배는 평저형의 컵모양으로 동부에 단면 원형의 파수가 부착되어 있다. 토기의 형식으로 보아 4세기 후반대의 고식도질토기에 해당한다.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삼국시대 고분은 1기가 분포하며, 일반적으로 군집을 이루는 고분군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조영되는 사례이다.

참고문헌

동의대학교박물관, 1999, 『산청 사월리 유적』.

유구 배치도

15호 목곽묘 출토유물

07

산청 소남리유적

| 경상남도기념물 제2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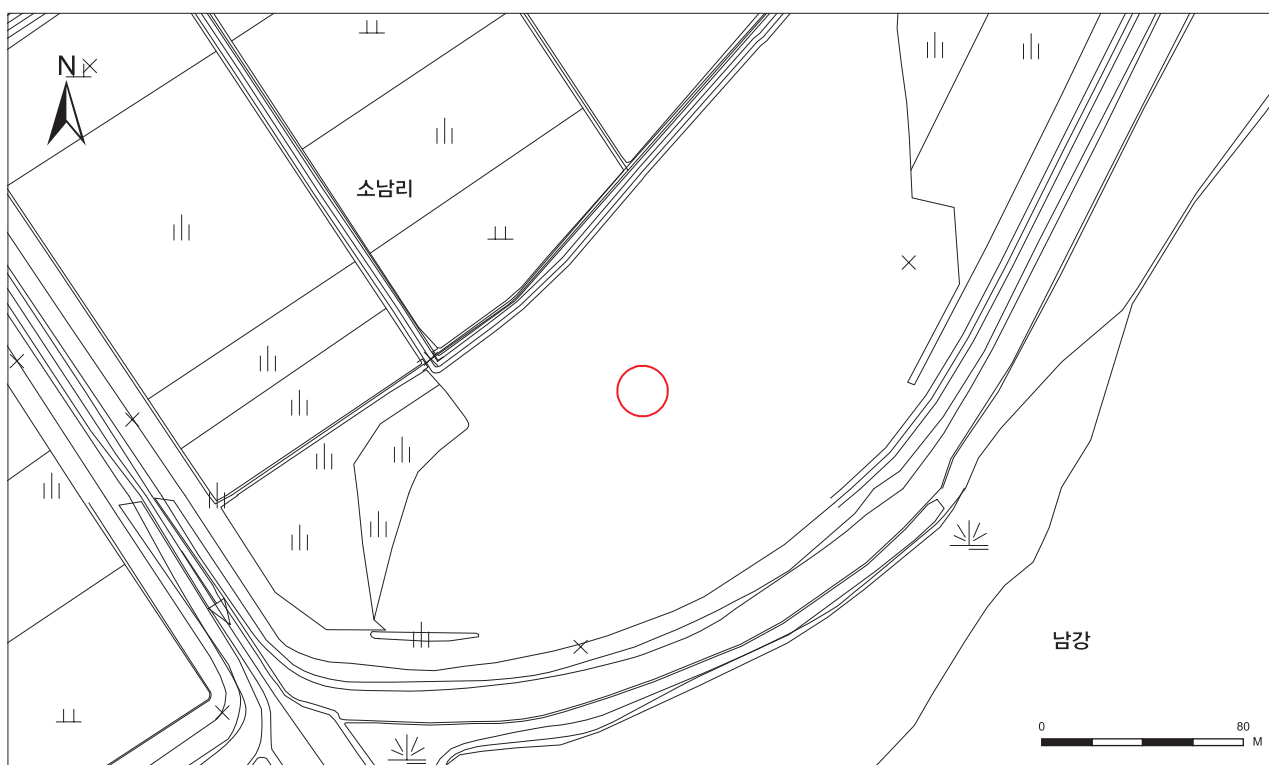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소남리 28-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 /
1997.12.~1998.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석실묘 /
고배, 시루, 장동옹,
단경호, 장경호, 병

산청군 남부의 소남리 소남마을 남쪽에 있는 생활유적과 무덤유적이며, 곡류하는 남강변에 형성된 충적지에 분포한다. 남쪽으로는 남강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넓은 충적평야와 비교적 낮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경상남도기념물 제21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쪽으로 남강을 마주하여 유명한 진주 대평리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1995~1998년에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하여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서 3차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신석기시대 주거지 2동, 적석유구 1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35동, 석관묘 1기가 확인되었으며, 삼한~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63동, 수혈유구 7기, 석실분 4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주거지는 원형의 평면형태이며, 직경이 7~10m에 이르는 규모로 바닥은 점토로 다지거나 불다짐 처리를 하였다. 내부에는 아궁이가 갖추어진 부뚜막이 다수 확인된다. 출토된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가 대부분이며, 평저의 장동옹, 시루와 함께 소뿔모양의

유적 위치도

출토유물

손잡이가 달린 주구부발, 양이부단경호, 무투창완형고배 등이 확인되고 있다.

삼국시대 고분은 4기로 평면 장방형의 횡혈식석실묘이며, 연도가 남쪽에 설치된 구조로 일부 우편수식이 확인된다. 유물로는 대가야양식의 개와 함께 개배, 장경호, 병, 합 등이 출토되었다.

발굴조사된 내용과 관련하여 아직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성격은 판단할 수 없으나,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취락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에 양호한 자료이다. 또한 남강댐 수몰지구에 포함된 유적과 비교하여 광범위한 지역 내에서 유적의 분포와 변천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신라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 1998, 「산청 소남리유적-발굴현장설명회」, 『영남고고학』22호, 영남고고학회.

신라대학교박물관, 2000, 『신라대학교박물관 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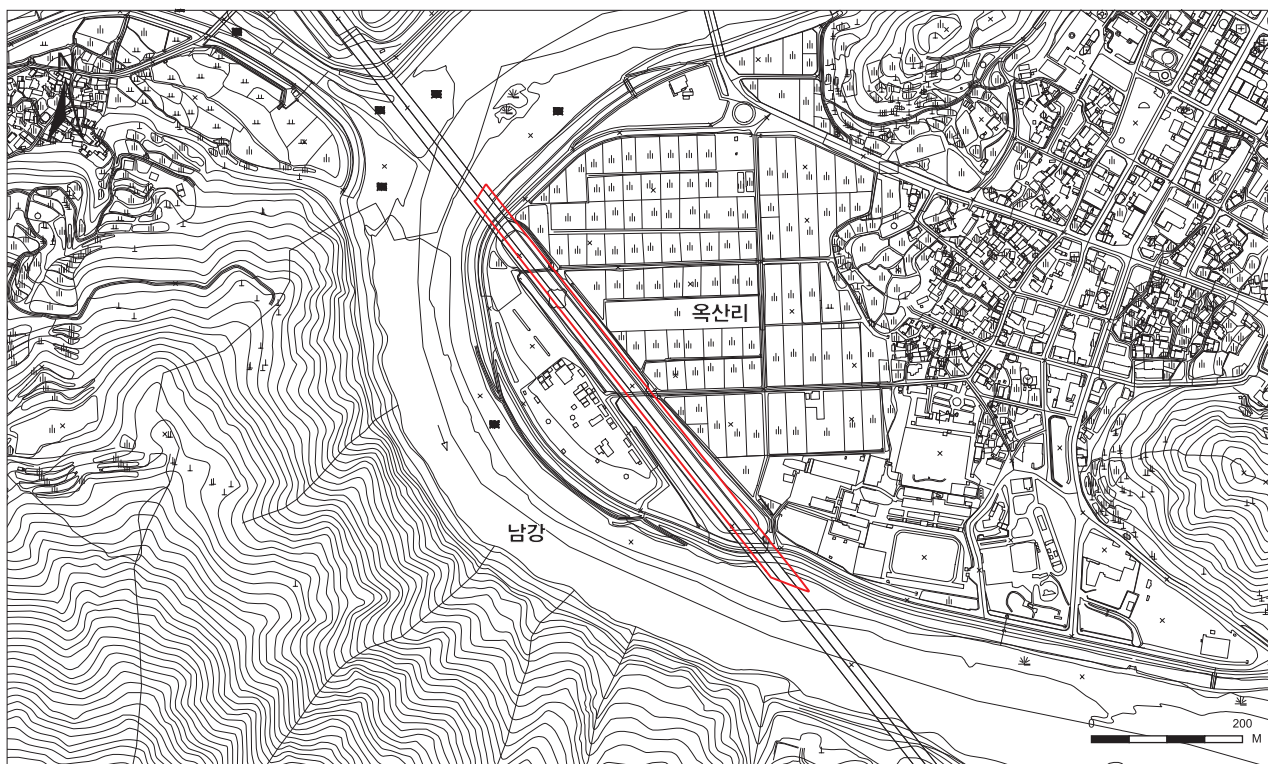
08 산청 옥산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626-1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대학교박물관 /
1996.12.~1997.10.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목곽묘,
석곽묘 / 고배, 기대,
장경호, 철모, 금박유
리옥

산청군 중부의 옥산리 사동마을 서쪽에 있는 생활유적과 무덤유적이며, 경호강이 반월상으로 곡류하면서 형성된 넓은 충적지에 분포한다. 남서쪽으로는 해발 616m 기산이 솟아있으며, 그 북쪽으로는 높은 산지를 개석한 소하천의 북안에 산청 매촌리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유적의 주변으로는 경호강에 의해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배후의 비교적 낮은 구릉으로 이어진다.

1996~1997년에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경상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현지표에서 깊이 50㎝ 아래에서 청동기~조선시대의 유구가 중첩되어 형성되어 있으며, 이 문화층의 2~2.5m 아래에서 구석기시대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로는 수혈주거지 45동, 수혈유구 126기, 목곽묘 75기, 석곽묘 137기, 옹관묘 7기가 조사되었다. 아직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생활유적에 대해서는 정식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았으며, 삼국시대 무덤유적에 대해서만 보고되었다.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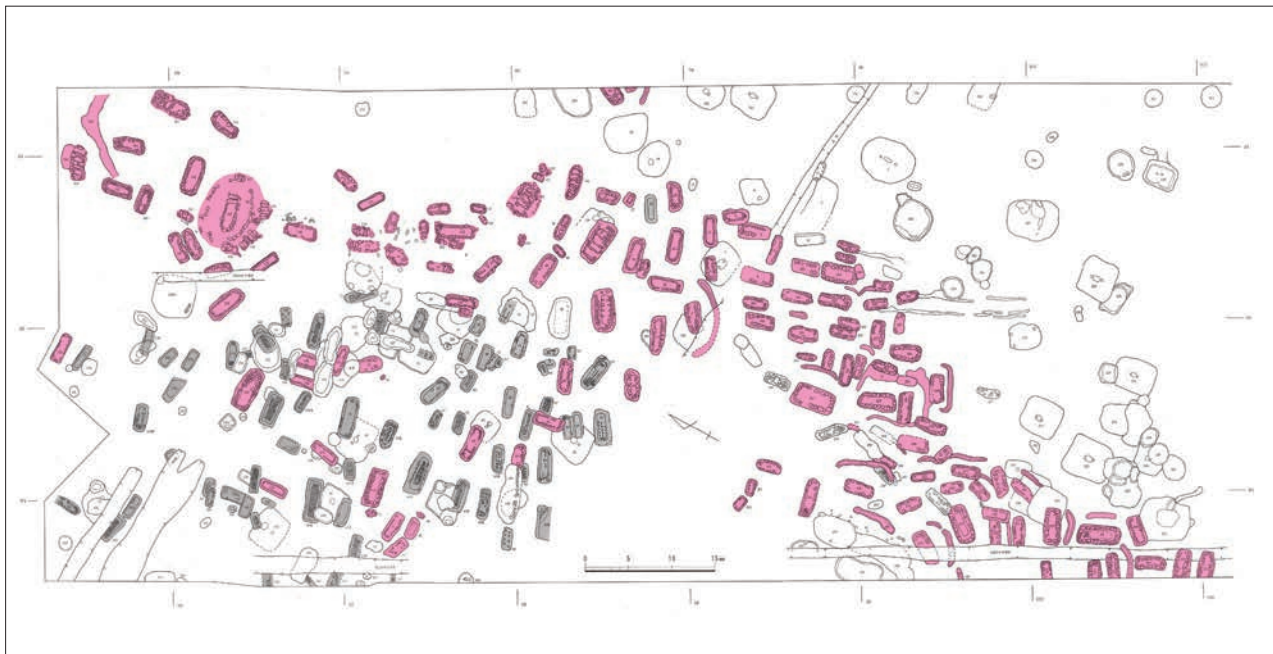
삼국시대 고분의 배치는 목곽묘와 석곽묘가 입지나 주축방향에서 차이를 보이며, 목곽묘는 조사구역의 서남쪽에 밀집하여 동-서 방향으로 축조되고 있다. 이에 비해 석곽묘는 서남쪽에서 동북쪽에 걸쳐 분포하며, 동서와 남-북 방향의 주축이 혼재되어 있다. 주구가 설치된 석곽묘는 서남쪽에 집중되며, 주구의 위치는 유구의 동쪽에서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목곽묘는 평면 세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4m, 너비 1~1.5m 정도의 소형급을 중심으로 길이 4m 이상의 대형급도 일부 확인된다. 묘광을 굴착하여 목곽을 설치한 다음 묘광과 목곽 사이에 보강토와 보강석을 채워 넣고 축조하였으며, 바닥에는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역상이나 관대를 설치한 것도 확인된다. 유물은 피장자의 머리와 발치 쪽에 주로 토기가 부장되고, 금속유물은 가운데에 부장하고 있다. 79호 목곽묘에서는 금박샌드위치유리옥이 출토되었으며, 가야와 백제의 문물교류 연구에 있어서 주목되는 자료로 평가된다. 석곽묘는 대부분 중소형에 해당하며, 168호, 195호분에서는 타원형의 호석이 확인된다. 특히 168호분의 호석 주변에는 3기의 석곽이 감싸고 있다.

출토된 토기로 보아 5세기 전반대에 축조된 목곽묘에는 소가야양식 토기를 중심으로 아라가야와 금관가야양식의 토기가 혼재하고 있다. 5세기 후반대에 축조된 석곽묘에는 소가야양식 토기와 함께 대가야양식 토기가 혼재되다가 점차 대가야토기 중심으로 변화한다. 고분 출토유물의 양식 변화는 5세기와 6세기대의 산청의 지역집단 형성과 발전과정을 연구하는데 주목되는 자료이며, 생활유적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취락과 고분군의 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참고문헌

경상대학교박물관, 2002, 『산청 옥산리 유적-목곽묘-』.

경상대학교박물관, 2013, 『산청 옥산리 유적-석곽묘-』.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32호 석곽묘

출토유물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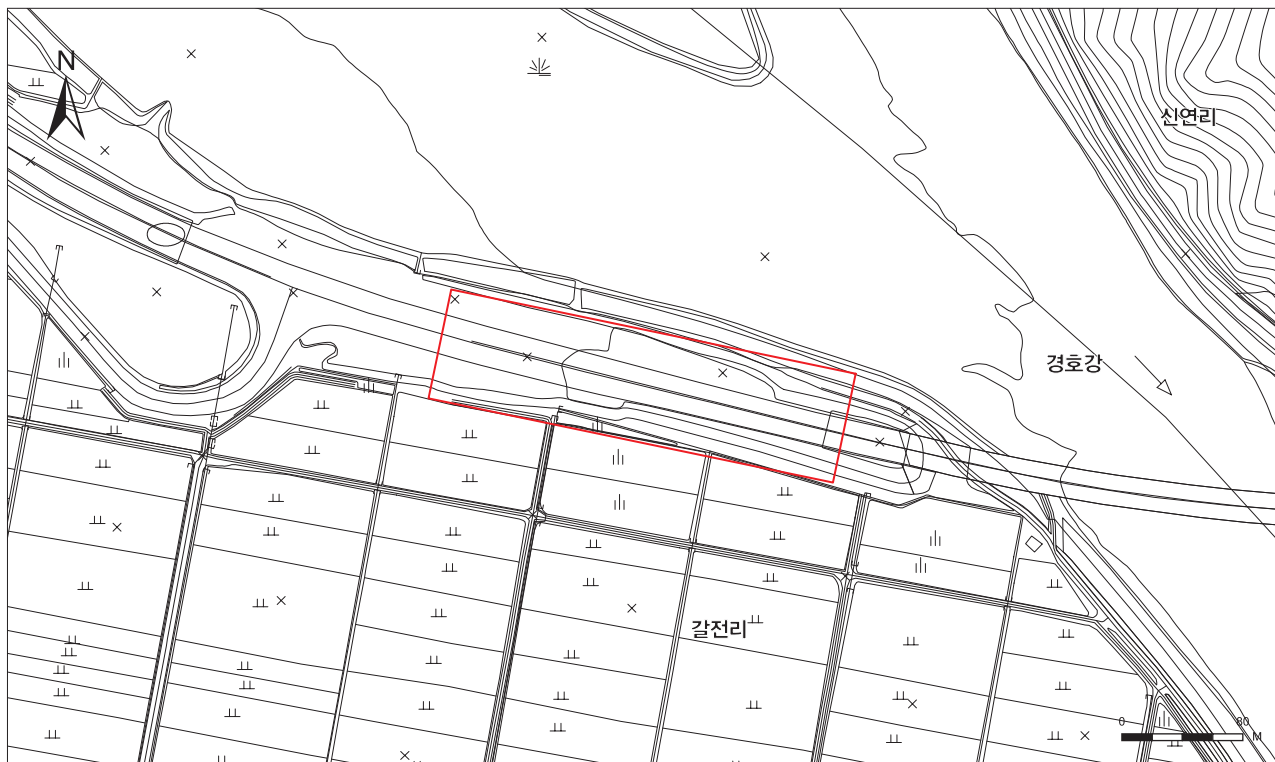
산청 갈전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갈전리 262-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7.6.~2008.9.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수혈 / 고배, 단경호, 파배, 장동옹, 시루

산청군 북부의 갈전리 갈전마을 북쪽에 있는 생활유적이며, 경호강의 남안과 접하는 충적지에 분포한다. 유적의 북쪽으로는 경호강이 곡류하고 배후에는 태봉산(해발 368m), 가막산(해발 336m)이 둘러싸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고읍들로 불리는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서쪽으로는 산청 하촌리유적과 접하며, 북쪽의 하중도에는 산청 평촌리유적, 경호강 건너에는 산청 생초고분군 등 생활유적과 무덤유적이 주변 일대에 밀집해 있다.

2007~2008년에 산청~수동간(A지구 Ⅱ-1구간)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동서문물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13동, 수혈유구 5기, 구상유구 1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28동, 고상건물지 29동, 수혈유구 36기, 구상유구 2기 등 114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조사구역의 전역에 분포하지만, 수혈주거지는 Ⅰ구역, 고상건물지와 수혈유구는 Ⅲ구역에 밀집되는 경향이다.

유적 위치도

수혈주거지의 평면은 원형 또는 타원형, 그리고 방형을 띠고 있으며, 원형계가 주류를 이루고, 방형계는 3동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취사시설인 부뚜막과 성격 미상의 세장방형 혹은 타원형의 수혈이 확인된다. 부뚜막은 주거지의 벽면에 연접하거나 벽면에서 약간 이격되어 위치하며, 대부분 바닥에 얕은 수혈을 굴착하여 축조하였다. 아궁이에는 지각으로 보이는 천석이 세워져 있는 것이 많다. 부뚜막에서 연결되는 고래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지만, 15호 주거지에서는 부뚜막에서 연결되는 구상의 고래가 벽면을 따라 잔존하고 있다. 부뚜막의 주변에는 자비용의 장동옹과 시루 등이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부뚜막 시설 외에는 바닥에서는 세장방형 수혈 2~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3호 주거지는 벽면을 따라 주혈이 확인된다.

고상건물지는 29동이 조사되었으며, 주변에는 수혈유구가 혼재하고 있다. 고상건물지의 구조는 2×2칸(9주식)이 14동, 2×3칸(12주식)이 6동으로 가장 많다. 수혈유구는 총 36기가 조사되었으며, 평면의 형태는 원형, 장방형, 타원형, 부정형 등으로 다양하다. 수혈유구에서는 다량의 소토와 목탄, 토기 편이 바닥에서 뜬 상태로 출토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22호 수혈유구는 2단으로 굴착하였으며, 바닥에서는 직경 15㎝ 내외의 주혈이 다수 확인되고, 저장시설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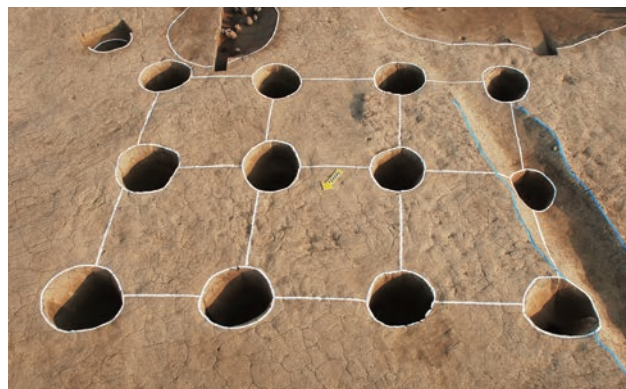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나 출토된 토기의 형식으로 보아 4~5세기대 형성된 취락으로 판단된다. 인접하여 조사된 산청 하촌리유적과 함께 삼국시대 취락 구성과 변천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11, 『산청 갈전리 유적-산청~수동간 도로확장구간(A지구 Ⅱ-1구간) 내 유적-』.

Ⅰ구역 전경

Ⅲ구역 전경

13호 수혈주거지

27호 고상건물지

13호 주거지 출토유물

15호 주거지 출토유물

10

산청 하촌리유적
山淸 下村里遺蹟

산청군 북부의 하촌리 보전마을 동쪽에 있는 생활유적과 산업생산유적이며, 곡류하는 경호강 남안에 형성된 충적지에 분포한다. 유적의 북쪽으로는 태봉산(해발 368m), 가막산(해발 336m)이 둘러싸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고읍들로 불리는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산청 생초고분군과 어서리 토기생산유적이 위치하며, 경호강 사이의 하중도에는 평촌리유적, 동쪽으로 떨어져 갈전리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함양, 거창 등 내륙지역과 남강 수계인 경호강을 통해서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입지한다.

2006~2008년에 산청~수동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삼국시대 유구는 수혈주거지 88동, 고상건물지 22동, 토취수혈 10기, 수혈 188기, 소성유구 2기, 구상유구 4기, 주혈군 10기가 확인되었다. 2구역 내 남동쪽에서 확인된 1호 구상유구를 경계로 북쪽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 지점을 경계로 북쪽 취락공간, 남쪽은 수전 경작공간으로 분리된다. 취락을 구성하는 수혈주거지와 고상건물지 사이에 정형성을 보이는 공간분할이 이루어지며, 4세기대 생활토기와 함께 5~6세기대의 대가야와 소가야양식의 다양한 토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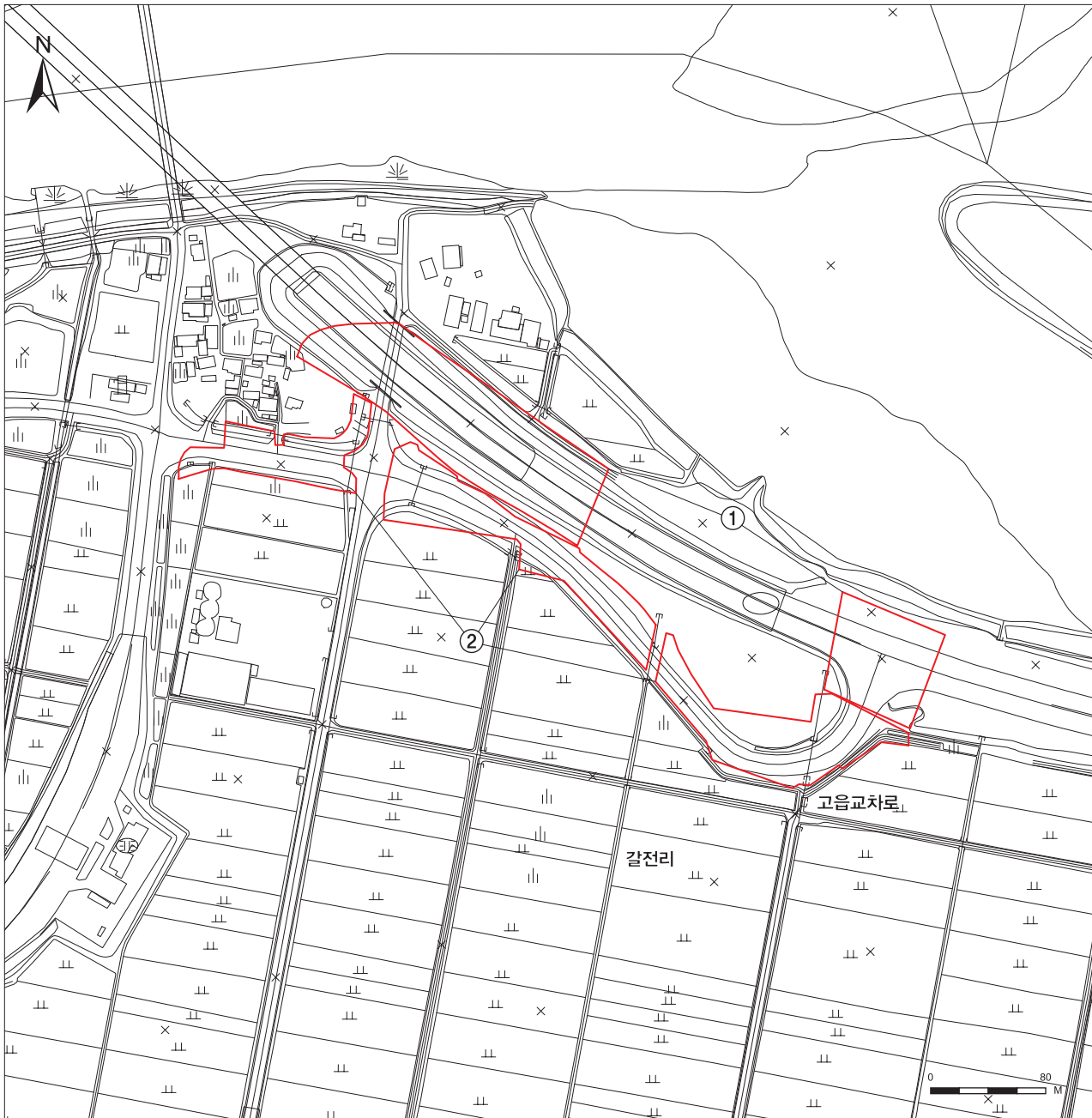
이후 하촌리 유적의 남쪽으로 2008~2009년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혈주거지 50동, 고상건물지 6동, 주혈 581기, 구 1기, 수혈 428기, 함정 1기, 매납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조사구역의 중앙부인 ⅡA지구와 서쪽부인 ⅠA·B지구에 삼국시대 취락이 집중하고 있으며, 4세기 이후 7세기대까지 연속적인 취락을 확인하였다. 특히 ⅠB-7호 주거지에서는 '이득지二得知'라는 명문이 새겨진 대가야 토기가 출토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상의 광범위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삼국시대 가야 취락의 규모와 변천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또한 논 경작지와 함께 동쪽으로 이격되어 조성된 갈전리 취락과도 비교할 수 있으며, 향후 주변의 무덤유적과 토기생산유적을 종합하여 생초고분군으로 대표되는 거점집단의 사회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10, 『산청 하촌리 유적Ⅰ-산청~수동간 도로확장구간(A지구) 내-』.

경남문화재연구원, 2011, 『산청 하촌리 유적Ⅱ-산청~수동간 도로확장구간(A지구) 내-』.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산청 하촌리유적-산청~수동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산청 하촌리유적 –산청~수동간 도로확장구간 내 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2006.11.~2008.11	산청 하촌리 유적Ⅰ–산청~수동간 도로확장구간(A지구)내(2010) 산청 하촌리 유적Ⅱ–산청~수동간 도로확장구간(A지구)내(2011)
2	산청 하촌리유적 –산청~수동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8.5.~2009.6.	산청 하촌리 유적–산청~수동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2011)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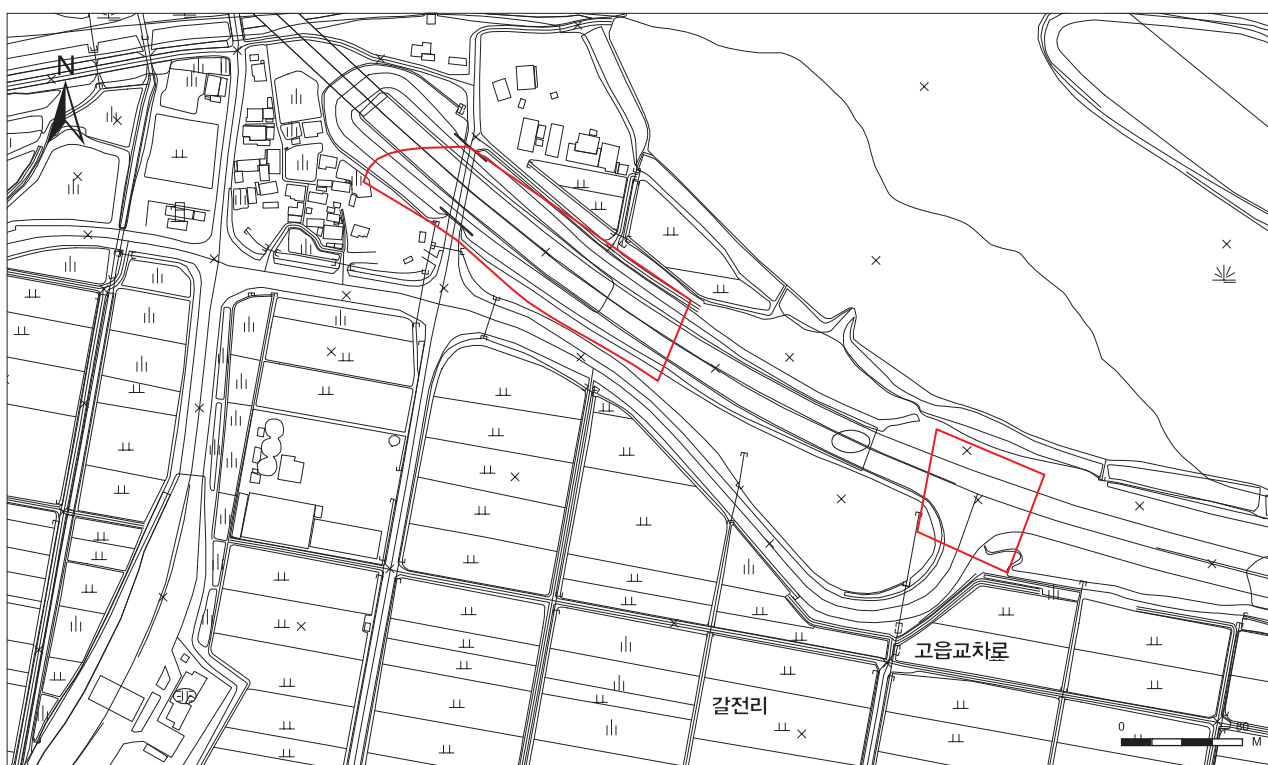
산청 하촌리유적 _ 산청~수동간 도로확장구간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갈전리 309-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6.11.~2008.11.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수혈, 토취수혈, 논 / 고배, 삼족배, 파배, 장동옹, 시루, 단경호, 기대, 연통, 기와

조사구역은 하촌리유적의 북쪽에 해당하며, 2006~2008년에 산청~수동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편의상 3구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1구역은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으며, 북서쪽의 2·3구역과는 분리되어 있다. 확인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14동, 고상건물지 1동, 수혈유구 6기, 구상유구 2기, 매장유구 1기, 소성유구 1기이며, 삼국시대 유구는 A-2·3구역 내에서 밀집되어 있는데, 수혈주거지 88동, 고상건물지 22동, 토취수혈 10기, 수혈 188기, 소성유구 2기, 구상유구 4기, 주혈군 10기이다. 2구역 내 남동쪽에서 확인된 1호 구상유구를 경계로 북쪽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 지점을 경계로 북쪽 취락공간, 남쪽은 수전 경작공간으로 분리된다.

수혈주거지는 타원형과 장방형, 방형 등 다양한 평면형태가 혼재되어 있으며, 장방형은 길이 962㎝ 정도로 대형에 해당하는 주거지도 확인된다. 내부시설로는 부뚜막

유적 위치도

이 비교적 양호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타원형과 장방형주거지는 장벽에 연해 위치하고, 방형의 주거지는 벽면 중앙과 구석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다. 벽면에는 황갈색사질토를 2~3㎝ 두께로 바른 벽 보강토가 다수 확인되며, 벽체 보강 및 내면 미장, 방습의 목적을 겸한 것으로 보인다. 고상건물지는 A-2구역 내 주거공간과 1호 구상유구 남쪽의 수전공간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단칸(1×1칸) 건물지는 수전 분포구역에 9기가 밀집하며, 내·외진주식 건물지 11기는 4호 구상유구 남쪽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는 등 차이를 보인다. 또한 논 경작지는 A-2구역의 남동쪽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삼국시대 이후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연속된 층이 확인된다. 출토된 유물은 고배와 기대, 장동옹, 시루, 연통 등 다양한 기종구성을 이루며, 4세기대 생활토기와 함께 5~6세기대의 대가야와 소가야양식 토기까지 다양하게 확인된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서 삼국시대의 경작지를 포함한 취락을 확인하였으며, 인접한 생초고분군과 평촌리유적에서 확인되는 무덤유적과 대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수혈주거지 내부에는 부뚜막, 벽 보강토, 저장혈 등 건축기술을 복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었으며, 취락 내 대장간으로 추정되는 철기 제작시설, 다량의 곡물과 동·식물 유체를 검출하여 고대인의 식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10, 『산청 하촌리유적Ⅰ-산청~수동간 도로확장구간(A지구) 내-』.

경남문화재연구원, 2011, 『산청 하촌리유적Ⅱ-산청~수동간 도로확장구간(A지구) 내-』.

유적 전경

A-2구역 전경

A-2구역 삼국시대 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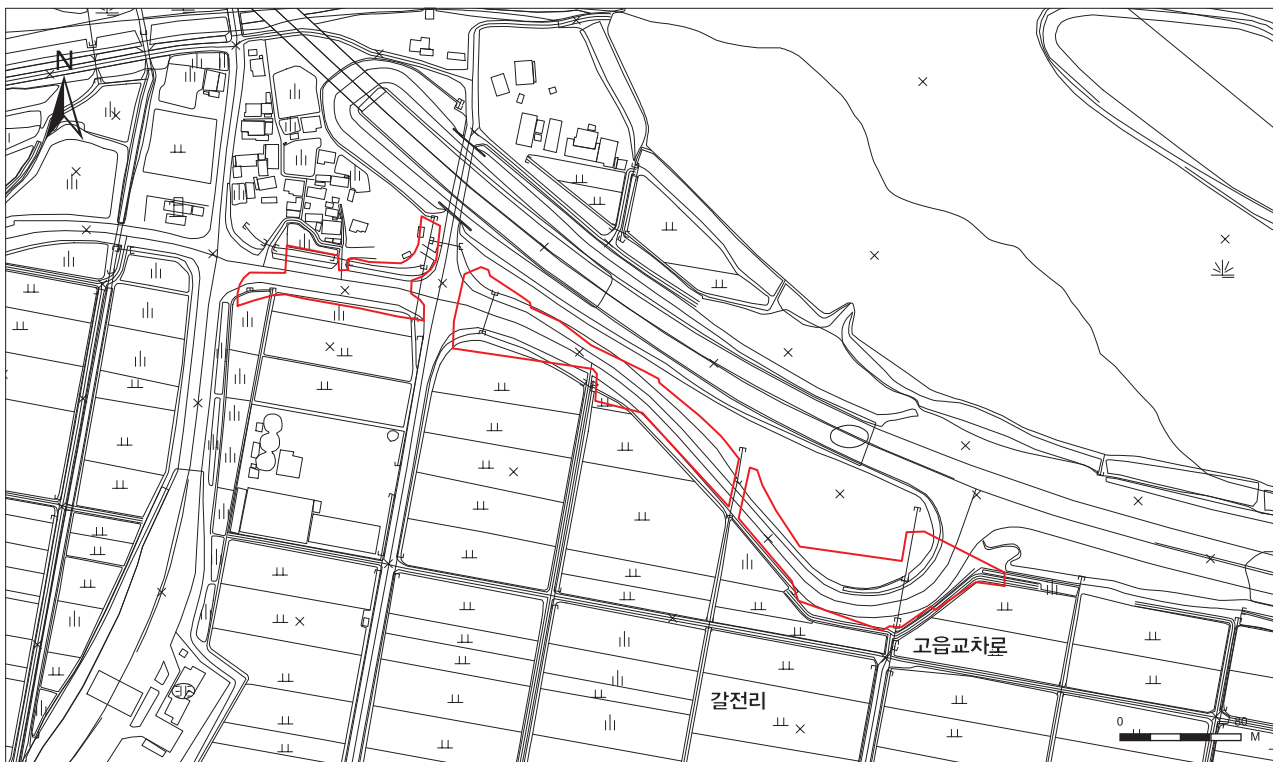
10-2 산청 하촌리유적 _ 산청~수동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갈전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8.5.~2009.6.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
지, 수혈 / 고배,
파수부완, 완, 장동옹

조사구역은 하촌리 유적의 남쪽에 해당하며, 2008~2009년에 산청~수동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편의상 3지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Ⅰ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삼국시대 취락이 전 구간에서 확인되었고, 고려시대 취락은 주로 서쪽으로 치우쳐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유구는 수혈주거지 50동, 고상건물지 6동, 주혈 581기, 구 1기, 수혈 428기, 함정 1기, 매납유구 1기 등으로 주로 조사지역의 중앙부인 ⅡA지구와 서쪽부인 ⅠA·B지구에서 확인되었다.

수혈주거지는 원형, 타원형, 방형, 장방형으로 구분되며, 장방형 주거지가 다수를 차지한다. 4세기대의 고식도질토기가 출토되는 1단계, 5세기에서 6세기 전반경의 대가야 토기가 출토되는 2단계, 6세기 후반에서 7세기경의 신라후기양식 토기가 출토되는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의 주거지는 타원형을 띠고, 2단계의 주거지는 장방형을 띠면서, 부뚜막과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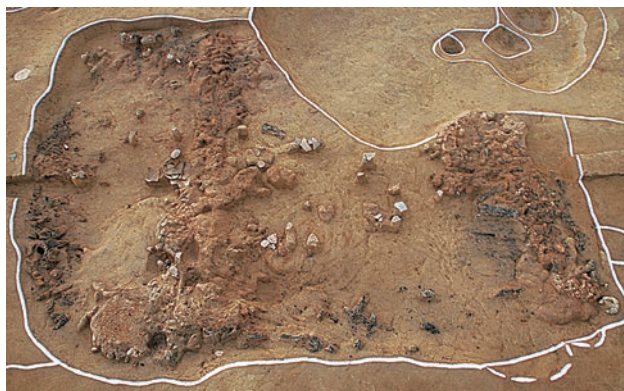
단시설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3단계의 주거지는 2단계의 특징이 지속되면서 원형 주거지에 석재를 이용한 부뚜막이나 고래를 설치하고 있다. ⅠB-7호 주거지에서 '이득지二得知' 라는 명문이 새겨진 대가야 토기가 출토된 점은 조사의 큰 성과 중 하나이다. 삼국시대의 유구 중에는 주거지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의 수혈이 조사되었다. 단면형태가 통형 또는 자루형을 띠는 수혈, 다양한 형태로 이단 굴착한 수혈도 확인된다. 취락 내에서 저장의 기능을 담당하거나, 토취장, 폐기장, 화장실 등의 용도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발굴조사는 선행 조사된 경남문화재연구원 조사구역의 연장선상에서 취락의 규모와 변천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동쪽으로 이격된 위치에 조성된 산청 갈전리유적과 비교하여 단위지역 내에서 동일한 성격의 취락이 어떠한 분포와 변천을 이루는지 연구할 수 있는 유적이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산청 하촌리 유적-산청~수동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IIA지구 전경

IA지구 16호 주거지

IA지구 21호 주거지

II A지구 23호 주거지

출토유물

11

산청 어서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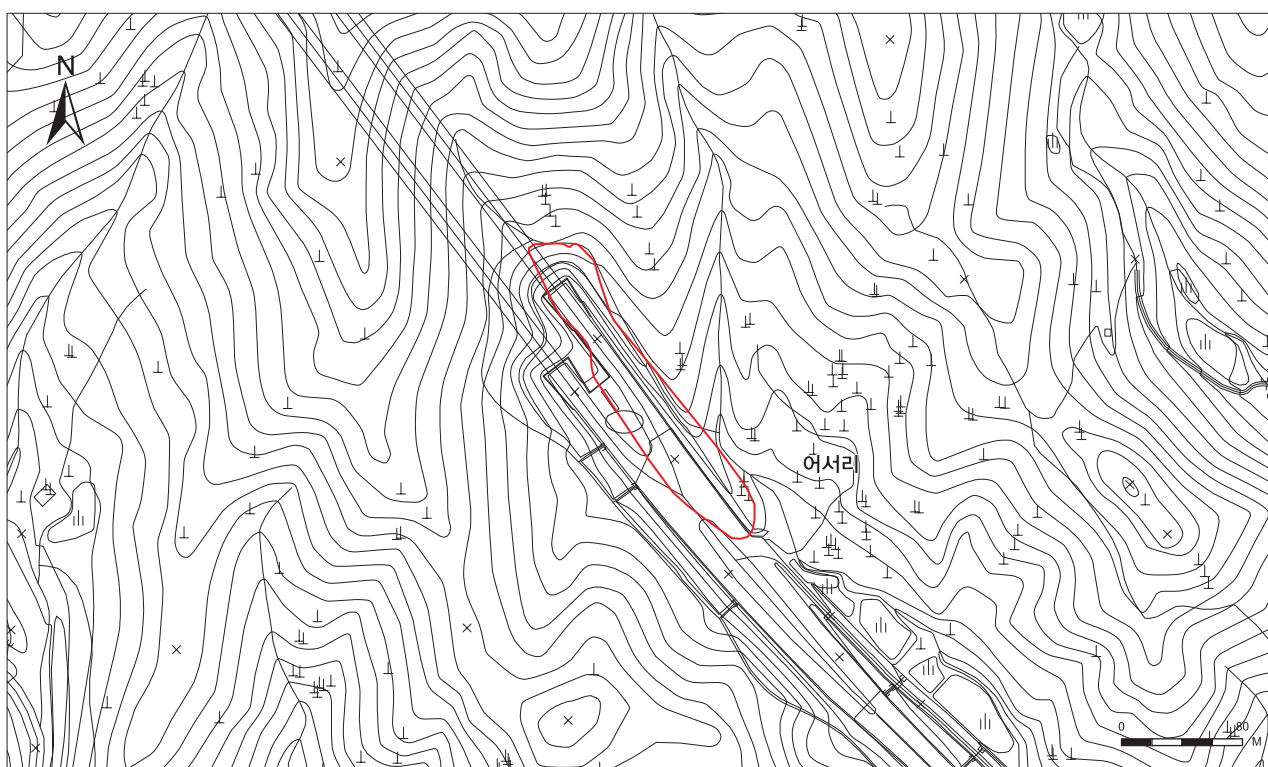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81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문화재연구원 /
2006.4.~2006.7.

주요 유구 / 유물
토기가마, 고상건물지,
수혈 / 고배, 기대,
소호, 시루, 장동옹

산청군 북부의 어서리 생초면소재지 서쪽에 있는 생활유적과 산업생산유적이며, 태봉산(해발 368m)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구릉 사이의 곡간부에 분포한다. 남쪽은 남강 수계의 경호강이 곡류하는 공격 사면부에 해당하며, 북쪽으로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동쪽의 구릉 상부에는 산청 생초고분군이 위치하며, 경호강 사이의 하중도에는 무덤유적인 평촌리 유적, 강 건너 남쪽에는 생활유적인 갈전리유적과 하촌리유적이 분포한다.

2006년에 산청~수동간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삼국시대 토기가마 1기, 고상건물지 2동, 석축유구 3기, 소토유구 3기, 수혈 5기가 확인되었다.

토기가마는 반지하식의 등요로서 소성실과 연도부 사이에는 석렬로 구분한 격벽이 확인된다. 또한 소성실 내부 가장자리를 따라 길게 구가 설치되었으며, 토기 재임시 사용한 고임돌 및 내부 공간배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토기가마의 소성실기저부와 가

유적 위치도

마의 전면부 기반층 사이에 고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 본 유적의 조성 이전 자연유로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보아, 가마 주변에 회구부를 따로 두지 않고 인접한 수로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경남지역 삼국시대 토기가마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확인되었다.

가마와 수로 내부 퇴적토 및 각 유구 주변에서 고배, 개배, 기대, 단경호, 직구호, 장동옹, 완, 시루 등의 다양한 기종의 토기가 확인된다. 토기의 형식은 대체로 5세기대로 판단되며, 4세기대의 타날문단경호와 6세기 후반대의 반구형개 등 약간의 시기차를 가진 유물도 포함되어 있다.

산청지역을 포함하여 서북부 경남지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토기가마 및 관련유구이며, 인접한 동시기의 무덤유적과 생활유적의 상호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경남문화재연구원, 2008, 『산청 어서리 유적-산청~수동간 도로확장구간내(B지구)-』.

유적 전경

토기가마

토기가마 유물 출토모습

토기가마 외곽 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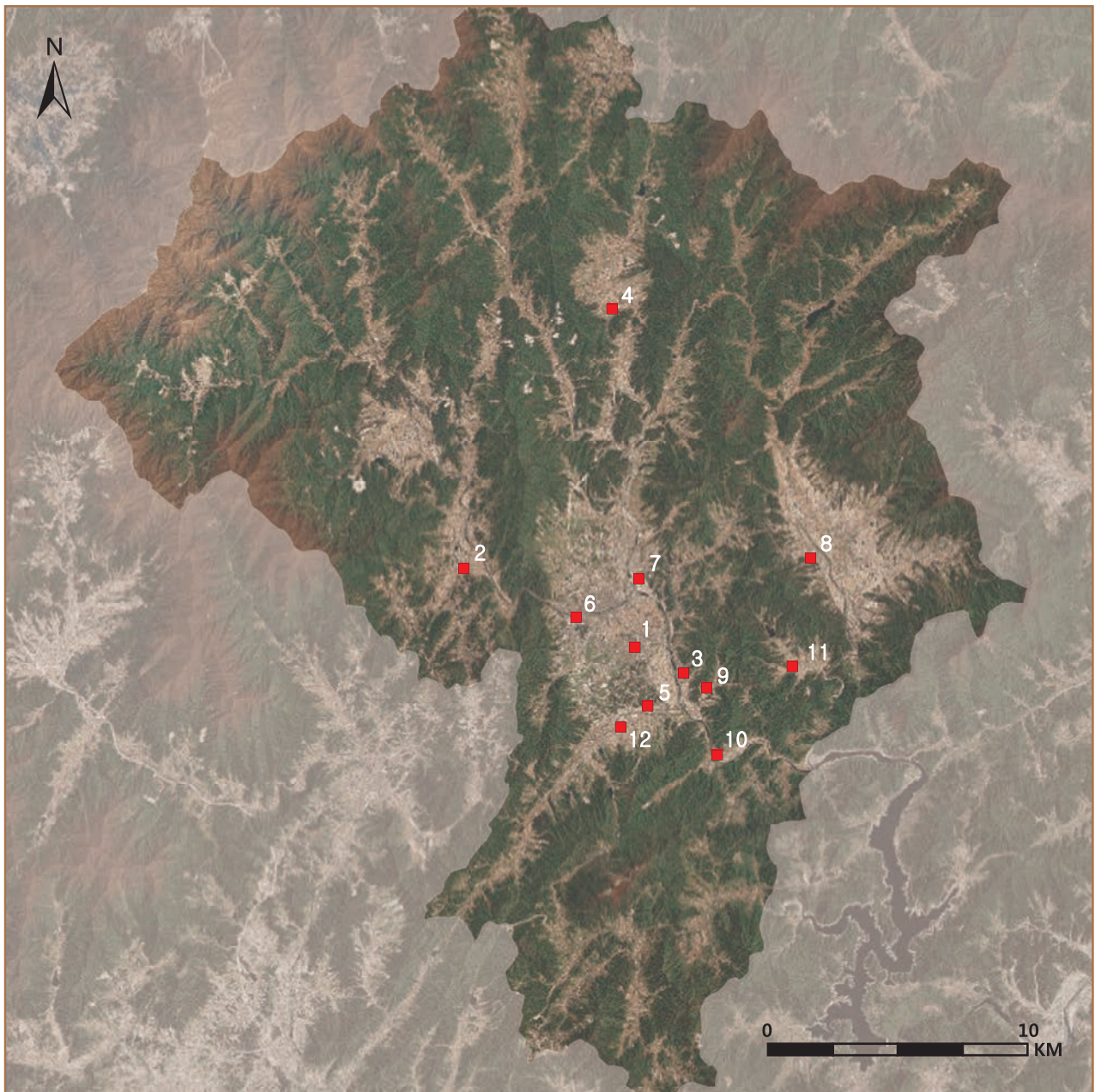
토기가마 외부 추정 제사유구 노출모습

12호 석축유구

3호 소토유구

폐기장

佛影峰
月星山
高梯
金光山
牛頭峙
巨末訖
靈覺寺
渭川
葛川
感陰
佛靈山
金貴山
加祚
乾興山
阿月川
鶴山
孩鶴洞
金猿山
寺眞洞
城山
居昌
朴儒山
吾道山
智雨山
長水寺
營川
所峴山
歡倉
鳥令
臨水
多于洞
紺岳山
官述峙
栗峴
家占川
鞍占
金城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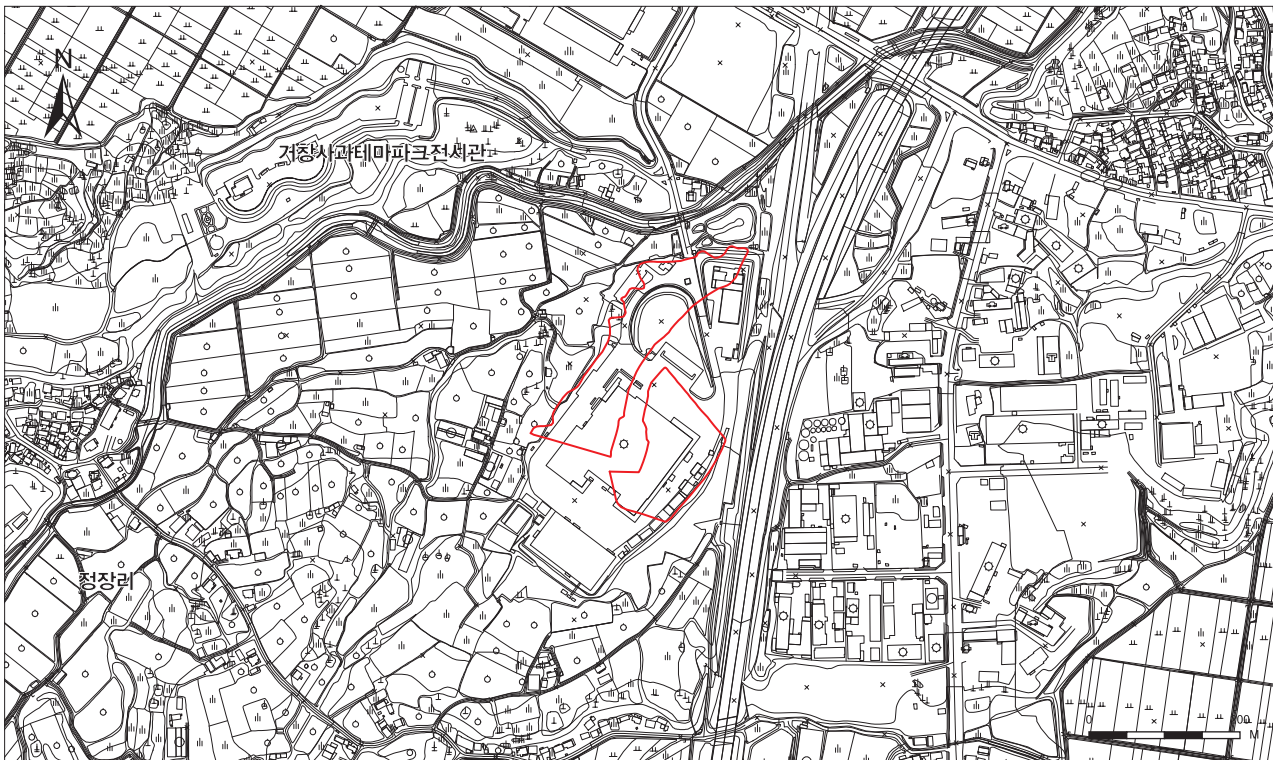
Ⅳ. 거창

01 거창 정장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500·59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1차 2002.5.~2002.11.
2차 2012.6.~2012.11.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목곽묘, 옹관묘
/ 단경호, 철검, 철모,
재갈, 마형대구, 다면옥

거창군 중부의 정장리 정장마을 동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거창분지 남측에 위치한 잔구성 구릉 상에 분포한다. 북쪽에는 위천과 황강에 의해 형성된 넓은 충적지가 펼쳐져 있고, 남쪽에는 완만한 저구릉이 둘러싸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선상지성 하안단구면으로 동서 남-북 방향으로 뻗은 구릉 상부는 삭평되어 평탄화되어 있다.

2002년에 거창 서울우유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유적이 확인되었다. Ⅰ지구에는 구릉의 지표에서 구석기 유물이 확인되었었으며, Ⅱ지구에서는 2개의 구석기시대 문화층, Ⅲ지구에서는 석기 제작장이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 유적은 Ⅱ지구와 Ⅲ지구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목관묘 6기, 목곽묘 159기, 옹관묘 7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후 보존조치가 해제된 Ⅱ지구 구석기시대 유적과 Ⅲ지구 원삼국시대 분묘를 대상으로 2012년에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추가 발굴조사를 실시되어 목곽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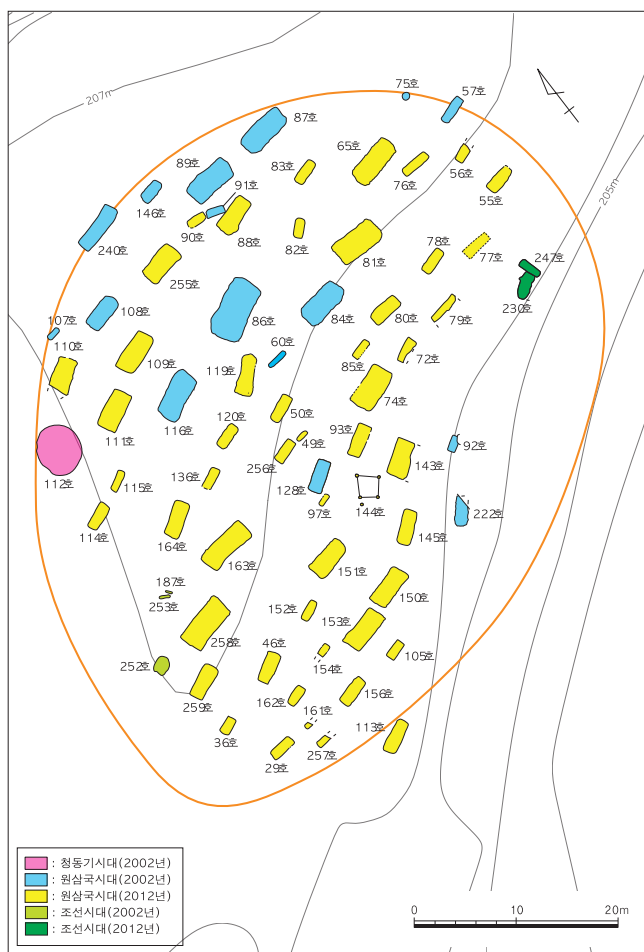
묘 52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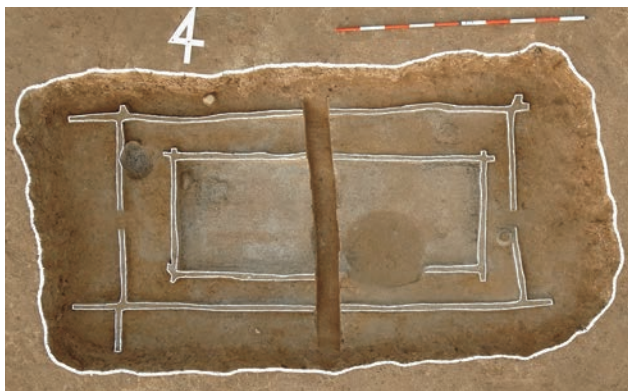
목곽묘는 대체로 등고선 방향으로 열을 지어 분포하며, 장축방향 역시 북동-남서 방향으로 등고선 방향이다. 묘광의 규모는 초대형(10㎡ 이상), 대형(6㎡ 이상), 중형(3㎡ 이상), 소형(3㎡ 미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내부구조는 목곽이 내측과 외측에 설치된 내·외곽식 목곽묘와 목곽만 설치된 단곽식 목곽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내·외곽식 목곽'은 정장리 유적 원삼국시대 분묘의 특징적인 형태로 내곽은 시신과 유물을 포함하는 구조이며, 외곽은 내곽과 내외곽 사이의 공간에 부장된 유물을 둘러싼 것이다.

유물부장은 목곽 내부, 내·외곽 사이, 충전토 상·하부, 목곽 상부, 봉토내 매납 등으로 구분된다. 목곽 내부는 주로 토기, 철기, 장신구, 칠기 등이 부장되는데, 이중 칠기의 수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내외곽식 구조의 초대형과 대형 목곽묘에서 칠기를 비롯한 다수의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데. 이는 무덤의 규모와 부장유물에 따른 위계의 차이와 계층분화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목곽묘의 연대는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2~3세기가 중심연대로 볼 수 있으며, 하한은 Ⅲ지구 62호 목곽묘 출토 유경식 철촉과 공반된 대부장경호 및 양이부호 등을 통해 볼 때 3세기 중엽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 센터, 2014, 『거창 정장리 유적Ⅱ -거창 서울우유 농공단지 조성부지 내-』.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 센터, 2014, 『거창 정장리 유적Ⅲ -거창 서울우유 농공단지 조성부지 내-』.

Ⅲ지구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Ⅲ지구 81호 목곽묘

Ⅲ지구 81호 목곽묘 유물 출토모습

Ⅲ지구 164호 목곽묘

Ⅲ지구 164호 목곽묘 유물 출토모습

02 거창 말흘리고분군

居昌 末屹里古墳群

거창군 서부의 말흘리 진산마을 남쪽에 있는 삼국시대 가야고분군이며, 마이봉(해발 454.6m)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해발 300~250m인 구릉에 분포한다. 북쪽으로는 위천과 마리천이 흐르며, 주변으로 초동들로 불리는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남쪽으로 인접하여 말흘리 지동고분군이 있으며, 그 북서쪽으로는 말흘리 송림고분군과 말흘리 말흘고성이 위치하고 있다. 수계상으로는 황강으로 합류하는 위천 유역에 해당하며, 남서쪽으로는 곡간저지와 고갯길을 통해 남강 상류역으로 접근이 용이한 입지이다.

1985년에 국도 3호선의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단애면에 파괴된 석곽이 확인되어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긴급발굴조사를 하였으며, 석곽묘 2기,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개, 고배, 대부파수부호, 장경호, 기대 등 토기 46점, 재갈, 철모, 철촉 등 철기 10점이 출토되었다. 이후 2010년에 진산삼거리 주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삼국시대 목곽묘 1기, 봉토분 1기, 석곽묘 3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 28점, 철기 14점, 경식 2점 등 모두 43점이 출토되었다.

고분군의 주묘제는 수혈식석곽묘가 주류를 이루며, 네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여 양 단벽을 말각형으로 축조한 특징을 보인다. 출토된 토기양식에 있어서도 대가야양식의 토기와 함께 다수의 재지계 토기가 부장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거창 말흘리고분군은 4세기대에 소형의 목곽묘가 조영된 이후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엽에는 비교적 중형급의 봉토분이 조영되기 시작한다. 특히 2호분에서 비교적 상위계층에 한정되는 재갈, 등자와 같은 마구와 함께 철모 등 무기가 부장되고 있다. 위천을 중심으로 대가야권 지역 거점집단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고분군이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거창 말흘리고분	국립진주박물관	1985.5.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7책 –거창 말흘리 고분(1985)
2	거창 말흘리고분군 –거창 마리면 진산삼거리 주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0.2.~2010.4.	거창 말흘리 고분군 –거창 마리면 진산삼거리 주변 정비사업 부지 내(2012)

02-1

거창 말흘리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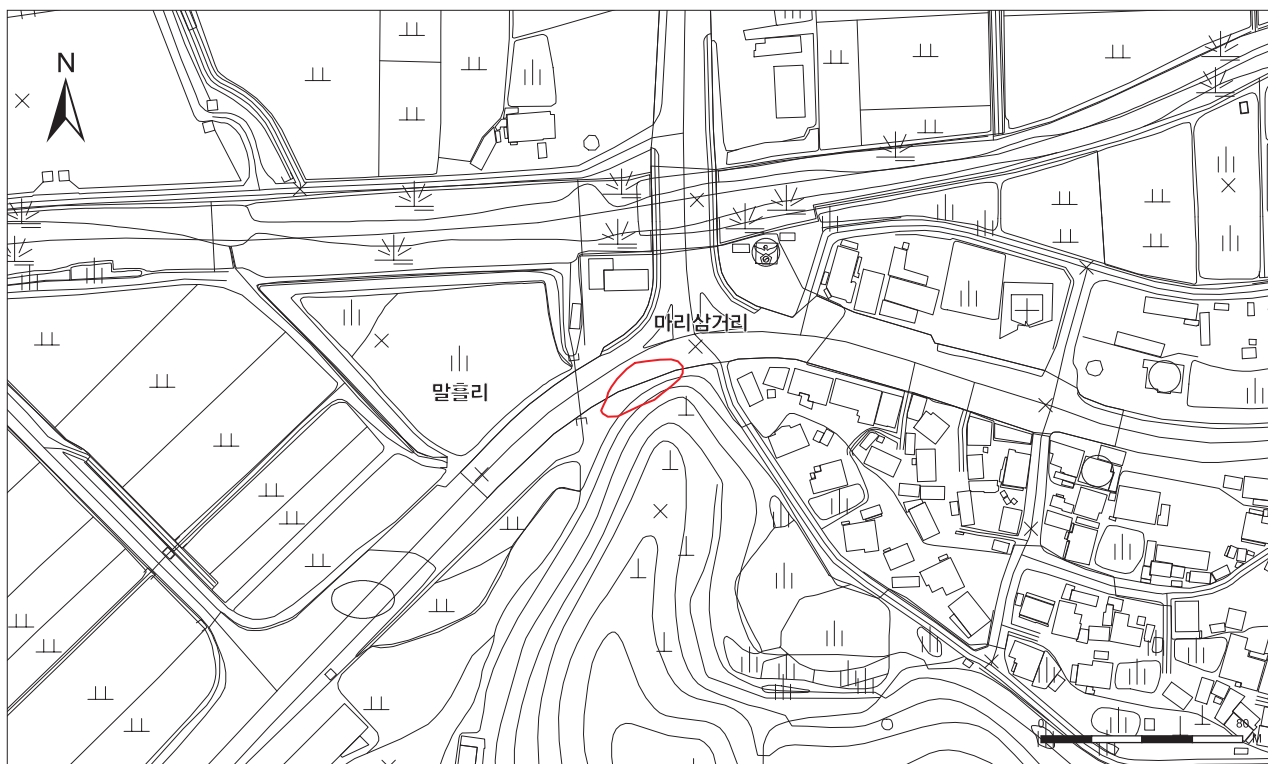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진주박물관 /
1985.5.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장경호,
발형기대, 통형기대,
재갈, 등자, 철모, 철촉

거창군 서부의 말흘리 진산마을 남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조사구역은 마이봉(해발 454.6m)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해발 250m 정도인 돌출된 구릉 말단부에 해당한다. 1985년에 국도 3호선의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단애면에 파괴된 석곽이 확인되어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석곽묘 2기,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개, 고배, 대부파수부호, 장경호, 기대 등 토기 46점, 재갈, 철모, 철촉 등 철기 10점이 출토되었다.

1호분은 네 벽을 천석과 할석으로 쌓은 석곽묘로 개석이 잔존하고, 주축은 남-북 방향이며, 규모는 잔존길이 470㎝ 이상, 너비 97㎝, 높이 140㎝ 정도이다. 북쪽 단벽 일부가 유실되었고, 네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된 점이 특징이다. 바닥은 천석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으며, 내부에는 길이 250㎝, 너비 55㎝ 정도의 목곽이 안치된 형식이다.

출토된 유물은 1호분에서 재지계의 고배, 발형기대와 철촉, 철겸, 철부 등이 확인되

유적 위치도

며, 2호분에서는 동단벽의 유물 부장대 위에서 대가야양식의 장경호와 원통형기대, 재갈과 등자, 철모 등이 출토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축조기법과 출토유물로 보아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엽에 걸쳐서 조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위천을 중심으로 대가야권 지역 거점집단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고분군이다. 또한 학사적으로 거창지역에서 최초로 발굴조사된 가야고분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국립진주박물관, 1985, 「거창 말흘리 고분」,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7책, 국립중앙박물관.

유적 전경

1호분

02-2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산5-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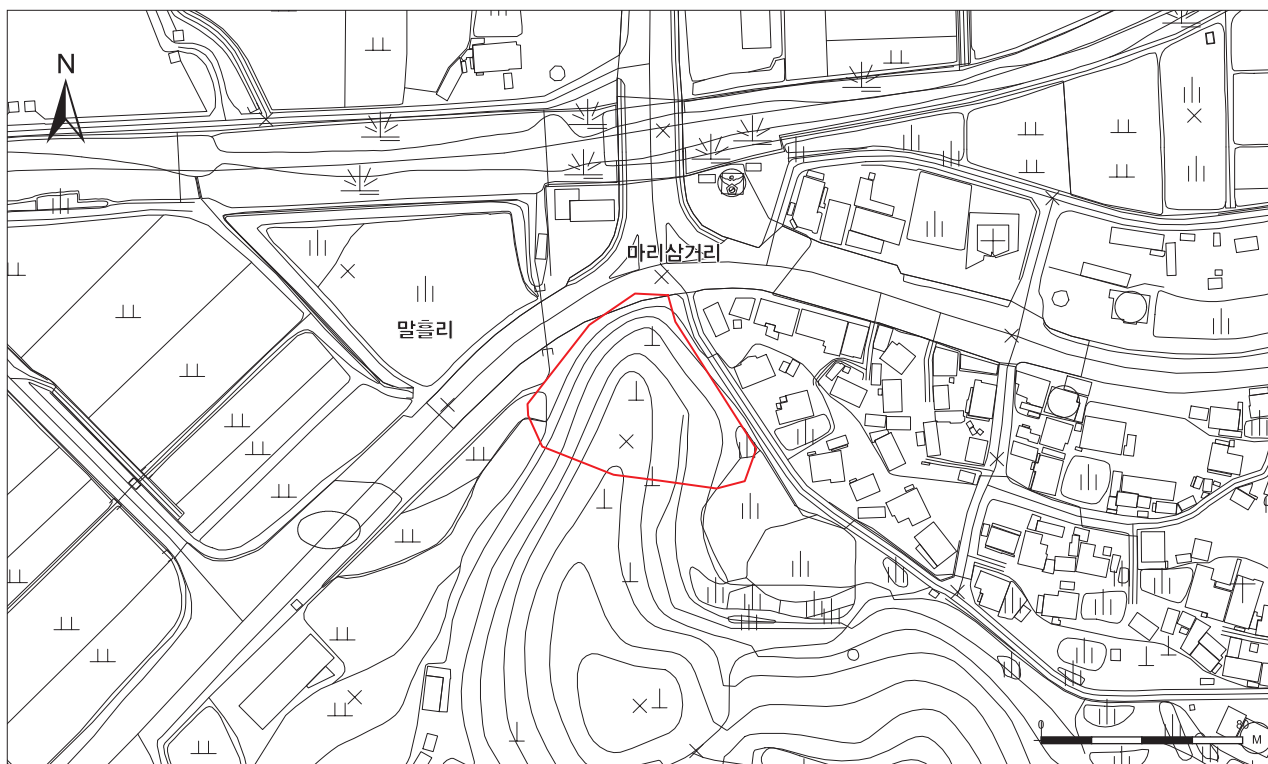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0.2.~2010.4.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개배, 파수부호, 기대, 장경호, 철모, 철촉

거창 말흘리고분군 _ 거창 마리면 진산삼거리 주변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거창군 서부의 말흘리 진산마을 남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조사구역은 마이봉(해발 454.6m)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해발 263~250m 정도인 돌출된 구릉부에 해당한다. 2010년에 거창군 마리면에서 추진하는 진산삼거리 주변 정비사업 부지에 해당되어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1기, 봉토분 1기, 석곽묘 3기, 현대 토광묘 2기, 구 1기, 진지 및 교통호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 28점, 철기 14점, 경식 2점 등 모두 43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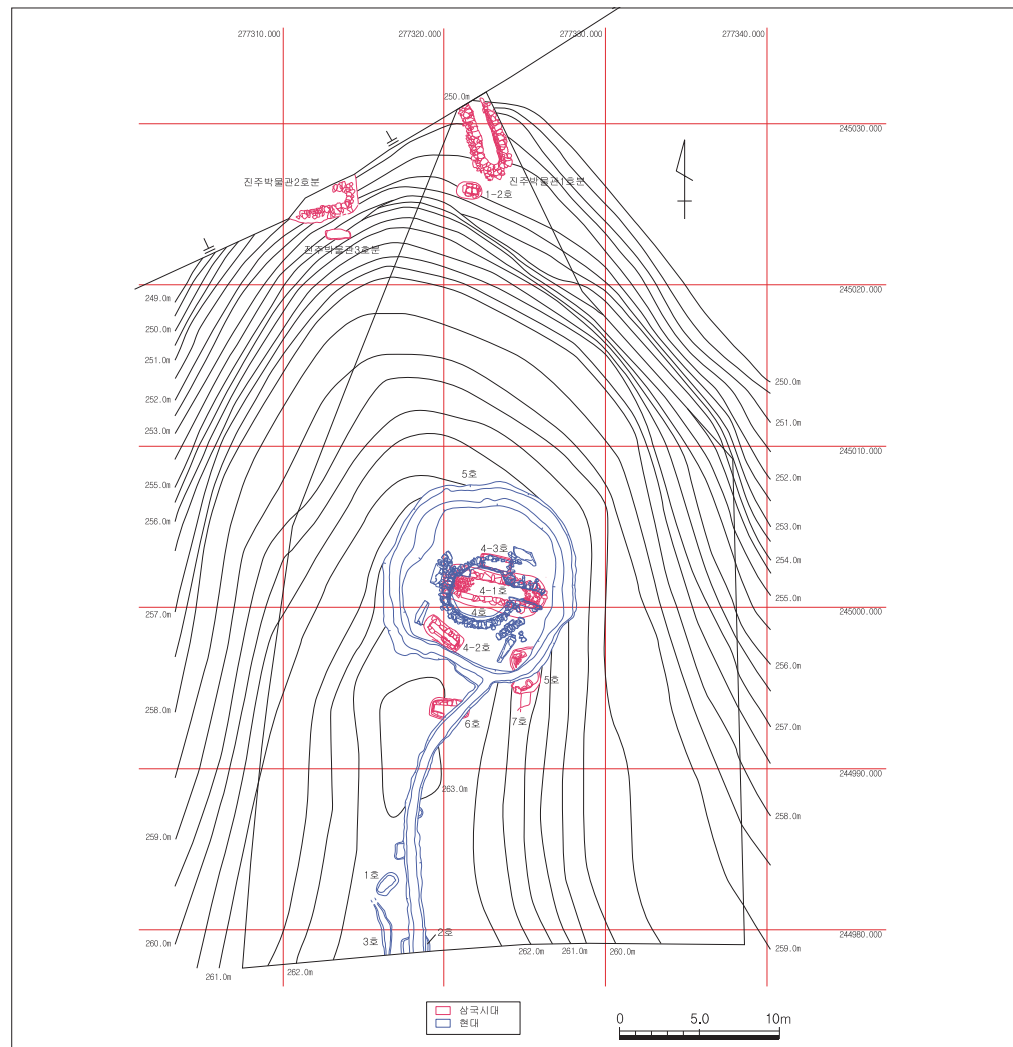
목곽묘는 5호 석곽묘와 중복되어 잔존상태는 불량한 편이지만, 내부에서 단경호와 철부가 확인되었다. 상부가 대부분 삭평되어 원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거창을 비롯한 황강 상류지역에서 조사 예가 드문 자료이다.

4호분은 봉토분으로 주곽 1기와 배장곽 2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장주체부는 모두 수혈식석곽묘이다. 입지적으로는 돌출된 구릉 상에 위치하여 자연 구릉을 봉분으로 보

유적 위치도

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주곽은 대형 수혈식석곽묘로 장단축의 비율이 1:5.2인 세장방형을 지닌다. 네 벽면은 할석과 천석을 이용하여 거의 수직으로 눕혀 쌓고, 한 쪽 단벽의 모서리는 최하단부터 모를 줄여 말각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주곽의 축조방법은 고령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서안의 동부지역과 함양과 남원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간의 축조방법이 혼합된 형태로 판단된다. 단독으로 조성된 석곽묘는 5호와 6호묘 등 2기이며, 5호묘는 최하단에 판상의 할석을 세워 쌓은 후 2단부터는 눕혀 쌓고, 북단벽에는 소형의 할석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6호묘는 서단벽에 1매의 판석을 세워 쌓은 흔적이 확인되며, 나머지 세 벽은 눕혀 쌓는 형태로 축조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대가야의 중심고분군에서 확인되는 않는 재지계 토기가 다수 확인되며, 대가야양식의 개, 파수부호, 발형기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4세기대 목곽묘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분군의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2, 『거창 말흘리 고분군 -거창 마리면 진산삼거리 주변 정비사업 부지 내-』.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4호분

4-1호 석곽묘

4-2호 석곽묘

출토유물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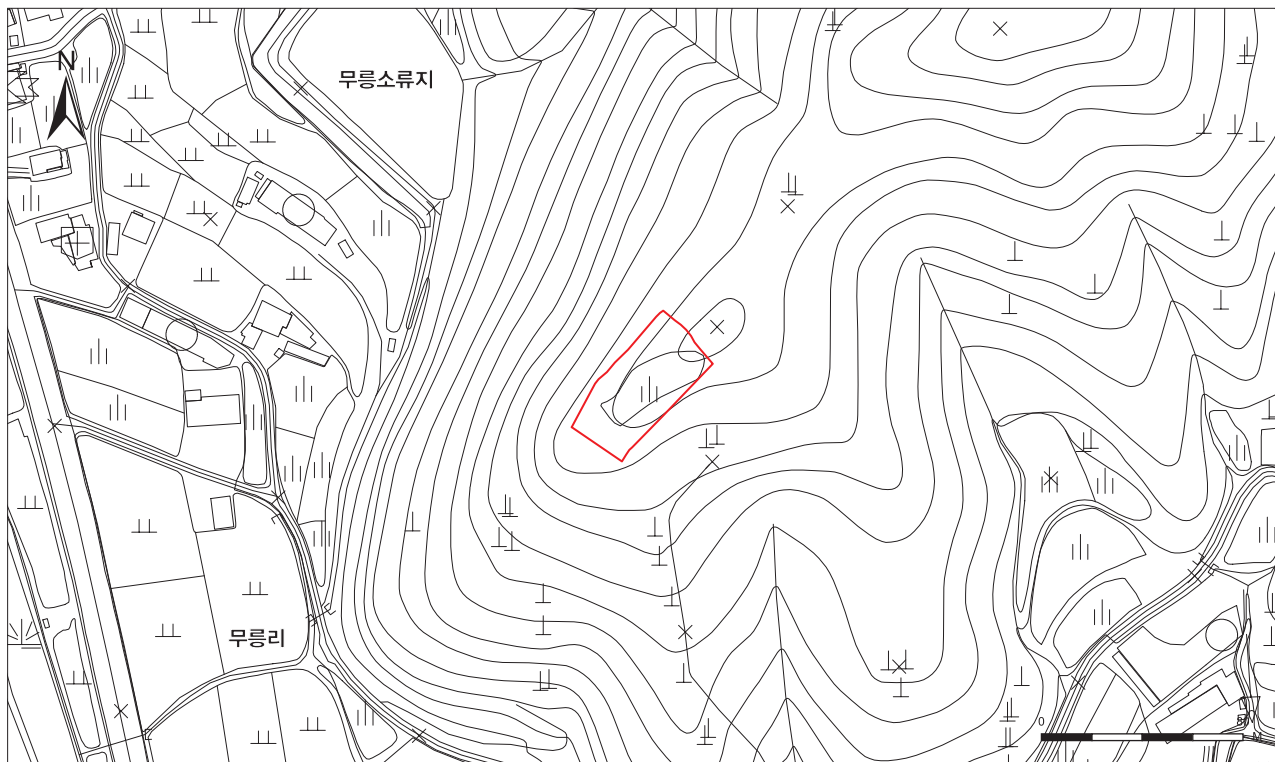
거창 무릉리고분군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산29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2012.12.~2013.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발형기
대, 찰갑, 철촉

거창군 중부의 무릉리 무릉마을 동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성령산(해발 494m)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능선 말단부의 주능선 및 가지능선에 분포한다. 동쪽으로는 일산봉을 중심으로 하는 산지에 의해 가조분지와 구분되며, 서쪽으로는 황강과 접하여 마주하여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남북으로 황강의 수계를 통하여 동쪽으로 합천지역으로 접근하기 용이하다. 무릉리고분군은 1985년 합천댐 수몰지구조사에서 고분군의 실체가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2014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실시한 정밀지표조사에서 86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2013년에 무릉리고분군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릉리고분군 I 로 알려진 구릉의 정상부(해발 255m)를 따라 축조된 4기 가운데 2호로 명명된 고분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상호 중복된 3기의 석곽묘가 확인되었으며, 토기 48점, 철기 233점 등 281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적 위치도

유적 전경

무릉리 2호분은 중복된 석곽을 포함하여 총 3기의 석곽묘가 확인되었으며, 선후관계를 통해 2호분, 3-1호분, 3-2호분으로 명명되었다. 2호분은 석곽은 길이 580㎝, 너비 76㎝ 정도 비교적 대형에 속하며, 3-1호분은 길이 490㎝, 너비 106㎝ 정도이다. 석곽은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벽석을 눕혀 쌓았다. 단벽은 비교적 정연하게 눕혀 쌓아올린 것에 비해 양 장벽은 최하단석을 눕혀쌓기와 세워쌓기를 혼용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큰 할석을 쌓고 빈 공간을 소형의 할석으로 채워 축조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대가야양식의 토기가 주를 이루며, 개, 배, 고배, 장경호, 단경호, 발형기대 등이 확인되었다. 2호분에서 출토된 발형기대는 2단의 종형 투창이 뚫린 형태로 비교적 이른 시기의 대가야양식으로 보인다. 또한 구연부가 두툼하게 직립하고, 동최대경이 상위에 있는 유개식장경호 역시 5세기 후반대의 전형적인 대가야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철기는 찰갑, 철촉, 교구, 관정, 꺾쇠 등이 확인되고 있다. 찰갑과 이단역자형철촉 등의 유물은 3-1호분의 위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무릉리고분군에서 출토된 5세기 후반대의 전형적인 대가야양식 장경호와 발형기대는 고령의 대가야집단과의 교류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찰갑과 함께 왜계 철촉인 이단역자형철촉이 부장된 3-1호분은 대가야와 백제를 연결하는 육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5, 『거창 무릉리 고분군-2·3호분』.

2·3호분

토기류

철기류

04

주상~한기리 국도건설구간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2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성문화재연구원 /
2016.12.~20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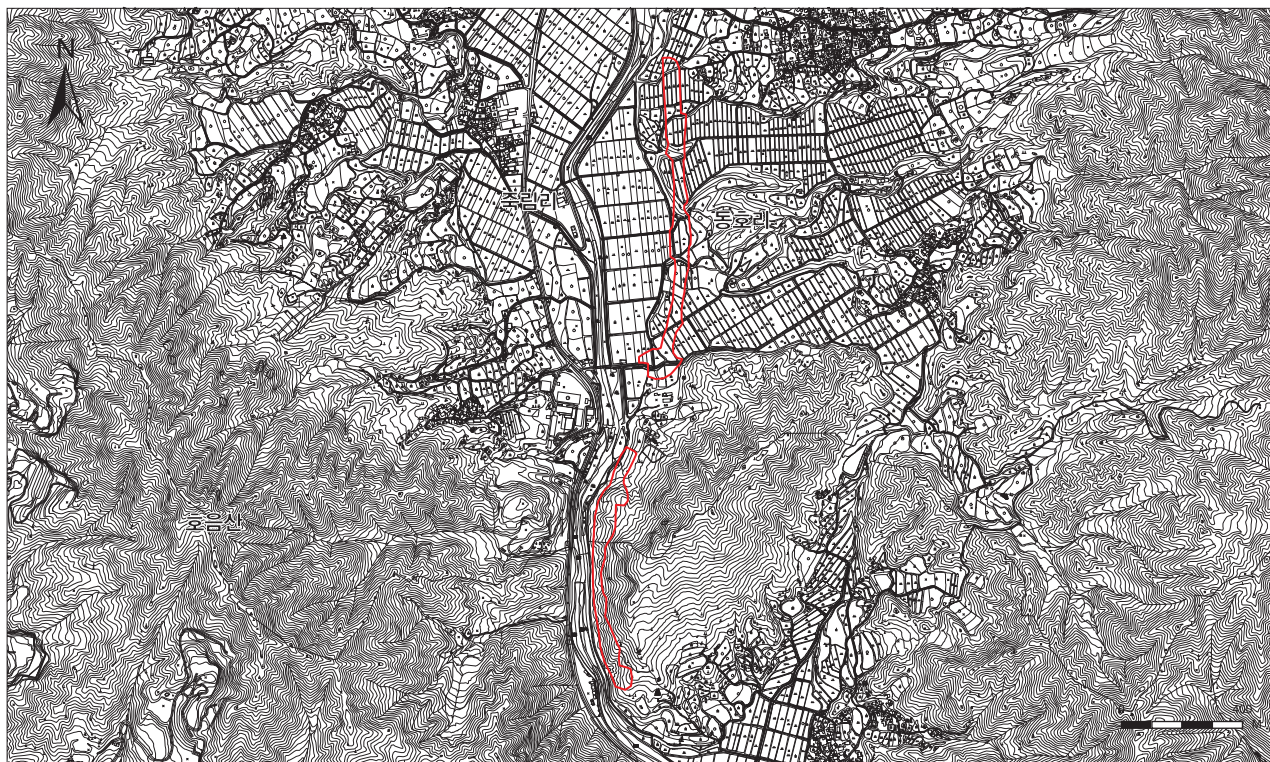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개, 단경호,
대부장경호

거창군 북부의 성기리 원성기마을 북서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성기산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사면부에 분포한다. 유적의 서쪽으로는 구릉 사이를 계수천이 개석하여 폭좁은 협곡을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경상남도문화재자료 제100호인 성기성이 있는 높은 산지를 이루고 있다.

2017년에 주상~한기리 국도건설(1공구) 공사로 인하여 한성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기존 지표조사에서 성기리 적석유구로 알려진 범위에서 다수의 삼국시대 고분이 확인되었으며, 사업부지 내 지표상에서 노출된 고분은 총 72기 정도이며, 부토를 제거하면 이보다 더 많은 고분이 밀집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분은 대체로 봉토가 낮게 확인되고, 봉토 주변으로 소형의 석곽이 배치된 양상이다. 도굴의 흔적이 다수 확인되며, 일부 고분은 파괴된 상태로 석곽의 벽석이 노출된 곳도 많다. 대부분의 고분은 조사지역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나 사업부지 경계 바깥 서쪽까

유적 위치도

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일부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석곽묘는 남쪽의 장벽이 근현대 무덤 조성으로 이미 유실된 상태였으며, 벽면에 벽석이 잔존하고 있다.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대체로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에 걸쳐 조성된 고분군으로 파악되었고, 일부 고려시대에 조성된 분묘도 확인된다. 향후 정밀발굴조사를 통해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기성과 관련하여 고분군의 성격이 해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한성문화재연구원, 2017, 「주상–한기리1 국도건설구간 내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약보고서」.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28 트렌치 내 석곽 노출모습

05

거창 월평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88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9.10.~2010.2.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구, 수혈 /
고배, 단경호, 컵형토기,
경식, 철도자

거창군 중부의 대산리 대현마을 동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대산천 북쪽 해발 150~300m 정도인 저구릉의 말단부에 분포한다. 유적의 남쪽으로는 감악산(해발 951m)에서 발원한 대산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 황강에 합류하며, 북쪽으로는 침식성 저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다. 남동쪽으로는 산지 사이를 개석한 곡간부를 통해 함양지역과 접근이 용이하며, 동쪽으로는 황강 수계를 이용하여 합천지역으로 통하는 교통의 결절지에 해당한다.

2009~2010년에 거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2지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Ⅰ지구는 숫골로 불리는 곡부이며, Ⅱ지구는 구만골로 불리는 곡부 동쪽의 구릉 말단부에 해당한다. Ⅰ지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말~고려시대 전반의 기와가마 10기, 수혈 5기, 주혈 9기, 가마와 관련된 공방 건물지가 조사되었고, Ⅱ지구에서는 삼국시대 목곽묘 4기, 구 1기,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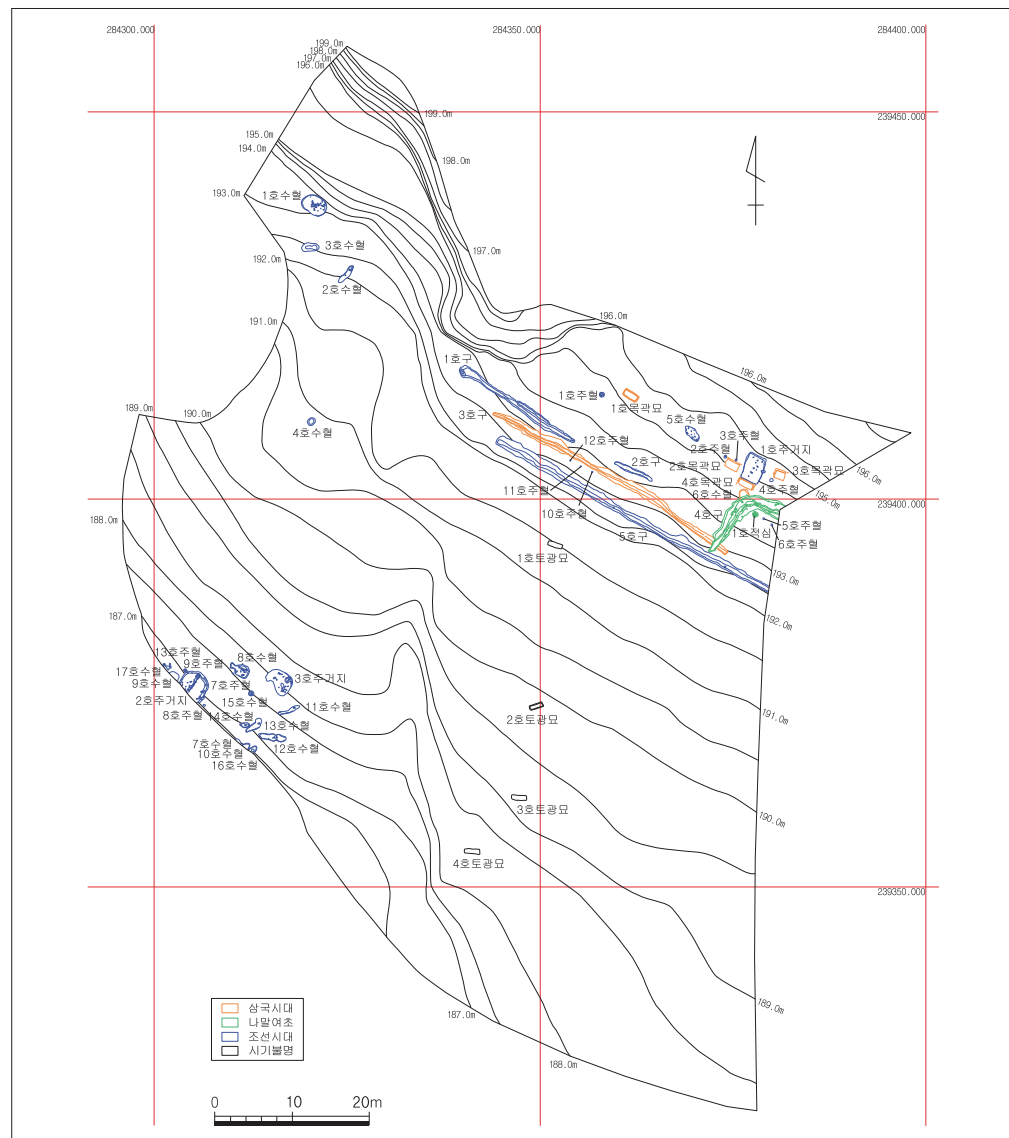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일신라시대 말~고려시대 초의 구 1기, 수혈 1기, 적심 1기, 조선시대 주거지 3동, 수혈 15기, 주혈 13기, 구 3기, 시대미상의 토광묘 4기가 확인되었다.

목곽묘는 해발 194~195m 사이의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후대 삭평과 현대 경작행위로 2호~4호 목곽묘는 일부 바닥면만 잔존하고 있다. 1호 목곽묘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며, 묘광은 214㎝, 너비 104㎝ 정도로 장방형이며, 내부에 길이 183㎝, 너비 77㎝ 정도인 목곽을 설치하였다. 소형급에 해당하는 목곽묘로 남장벽의 중앙부에서 고배 1점, 단경호 2점, 서단벽 가까이에서 도자 1점, 경식 8점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단경호, 무투창고배, 컵형토기, 노형기대 등이 있으며, 4세기 중반대로 편년할 수 있다. 4세기대 목곽묘 자료가 희박한 거창을 비롯한 황강 상류지역에서 통시적인 가야의 고분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2, 『거창 월평리 유적-거창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II 지구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1호 목곽묘

출토유물

06 거창 송정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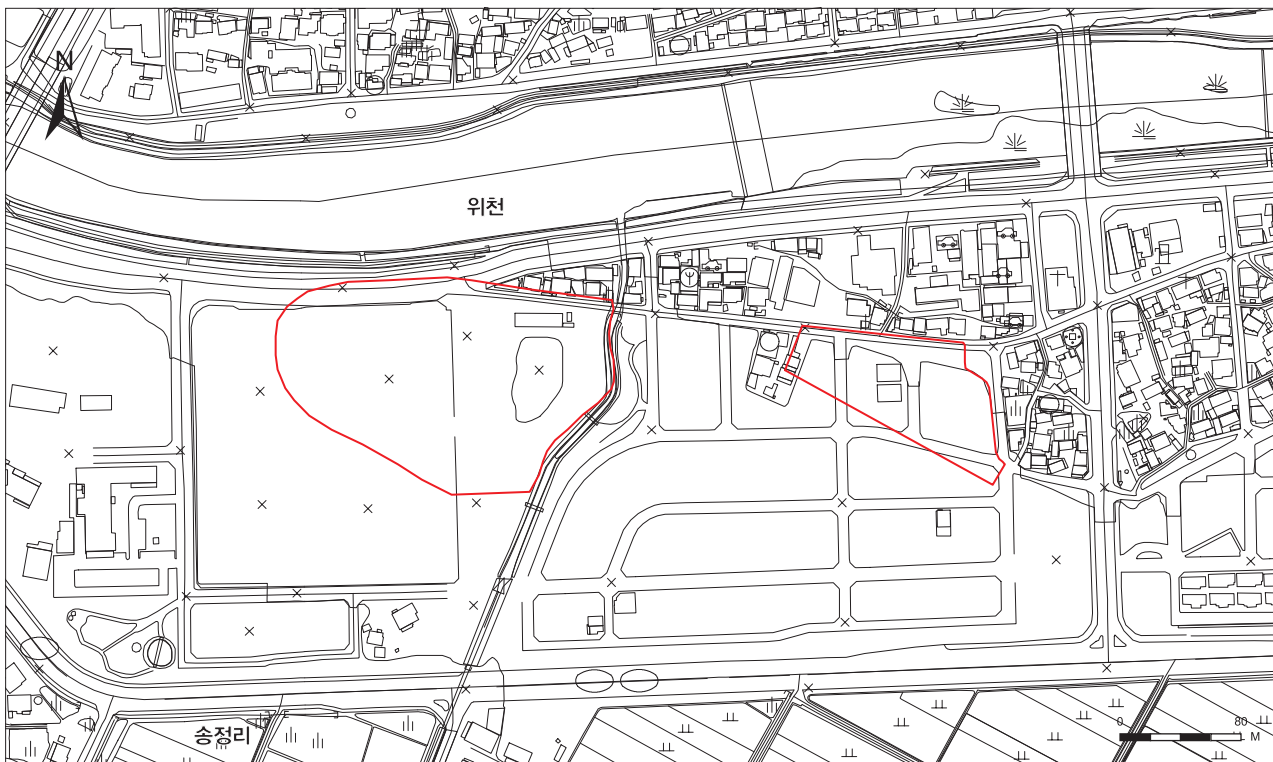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5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경문물연구원 / 2014.3.~2015.1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목곽묘 / 고배, 광구소호, 통형기대, 시루, 장동옹, 양이부호

거창군 중부의 송정리 송정마을 동쪽과 서쪽에 있는 생활유적과 무덤유적이며, 위천 남안의 충적지에 분포한다. 유적의 북쪽으로는 황강으로 합류하는 위천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2014~2015년에 거창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경문물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3지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삼국시대 취락은 A·B지구에 집중되어 있고, C지구에는 분묘만 일부 조성되어 있다. 확인된 삼국시대 유구는 수혈주거지 266동, 고상건물지 48동, 수혈유구 475기, 구상유구 10기, 주혈군 4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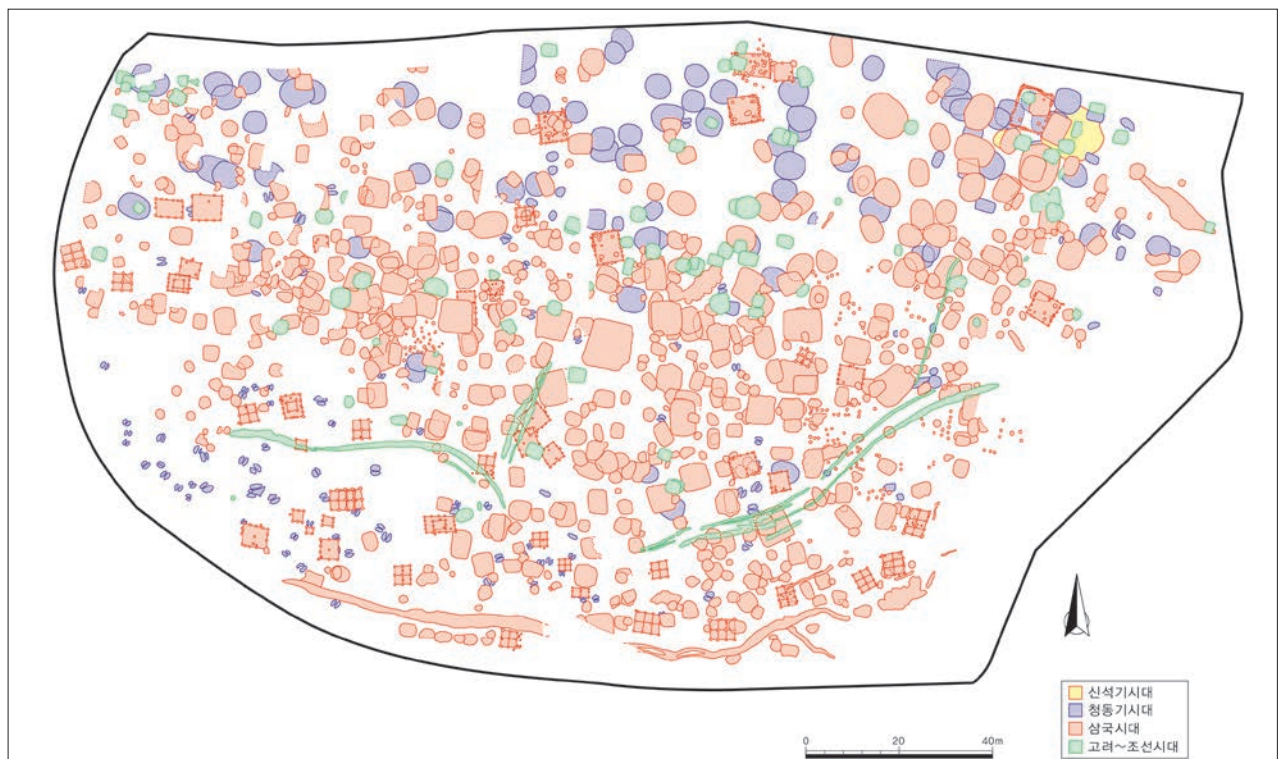
수혈주거지는 자연제방 내 미고지를 형성하고 있는 조사지역 내 중앙에 동서로 길게 집중되어 있다. 평면은 타원형과 방형계로 대표되는 2가지 유형이 혼재하며, 타원형 주거지는 40여 동로 주로 자연제방 북동쪽에 집중한다. 장타원형 또는 말각장방형을 띠는 주거지도 25여 동 조사되었으며, 주로 타원형주거지가 밀집된 곳과 자연제방 남동쪽

유적 위치도

에 3~4동씩 무리를 이루고 있다. 방형계 주거지는 200여 동 확인되었고, 주거지는 대체로 타원형주거지가 집중된 자연제방 북동쪽을 제외한 미고지 정상부에 집중되고 있다.

무주식주거지는 주로 타원형 주거지와 중소형에 속하는 방형계주거지에서 보이며, 중심 4주와 벽주가 설치된 주거지는 모두 11동이다. 주로 방형에 가까운 중대형 이상에서 확인되며, 부뚜막과 구들 설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벽주 없이 중심 4주가 설치된 주거지는 10동 정도이며, 대부분 20㎡ 이하의 소형이 많다. 무주식주거지는 150여 동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타원형과 방형계에서 모두 확인된다. 한편 난방과 취사 관련해서 부뚜막과 고래가 확인되며, 8호 주거지에는 부뚜막 내부에서 출토된 원통형토기 외에 고래 주변에서도 별도의 토제 연통이 노출되었다. 고상식건물지는 모두 48기가 확인되며, 다수가 배후습지로 이어지는 자연제방 후사면에 분포하여 주거역과 분리되어 있다. 고상건물지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는 구조는 2×2칸, 3×2칸이다. 한편, 본 유적에서 확인된 무덤은 생활유적과 분리되어 C지구 북동쪽에서 6기의 목곽묘가 확인되었으며, 출토된 유물은 단경호와 파배 등이 있으며, 대체로 4세기 후반대로 편년되고 있다.

출토된 유물은 고배와 장동옹, 시루 등 생활토기와 함께 어망추, 방추차, 철겸, 철부 등이 확인되고 있다. 4세기 전반대에 1유형 주거지가 자연제방 북쪽 미고지 동편에 집중되다가, 4세기 후반대에는 2유형 주거지와 공존하고 있다. 5세기대에 접어들어서는 3~5유형의 주거지가 자연제방 전면으로 취락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송정리 유적의 취락은 4세기 이후 5세기대까지 단절 없이 지속되며, 특히 주거의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향후 삼국시대 주거 연구에 척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부경문물연구원, 2017, 『거창 송정리 유적Ⅰ~Ⅳ –거창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A지구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A지구 100호 주거지

C지구 1호 목곽묘

토기류

07

거창 양평리 생활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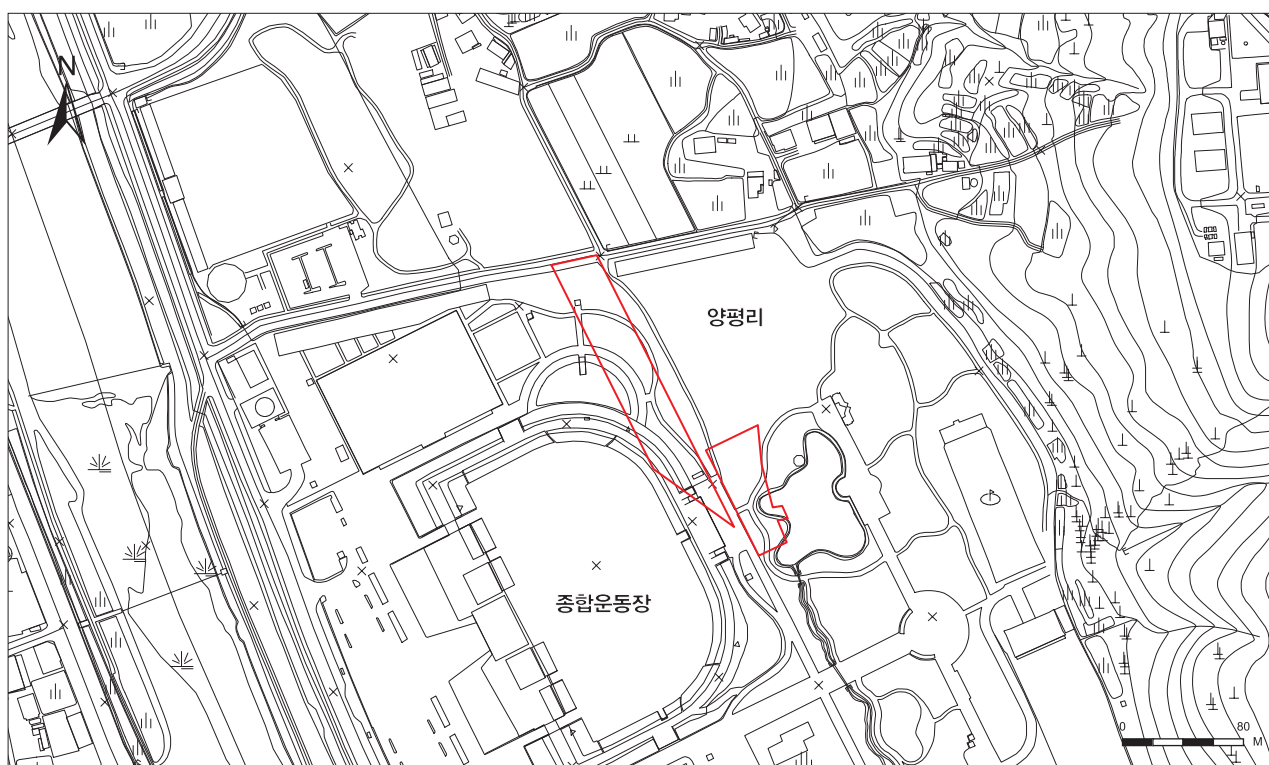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359-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7.5.~2008.2.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수혈 /
단경호, 대호, 장동옹,
어망추, 철겸

거창군 중부의 양평리 노혜마을 남쪽에 있는 생활유적이며, 황강과 위천이 합류하는 충적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서쪽으로는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황강과 접하고 있으며, 금귀산(해발 838m)을 중심으로 높은 산지를 이루고 있다. 황강의 수계를 통해서 합천지역과 접근하기에 용이한 지리적 위치에 입지한다.

2007~2008년에 거창 양평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하였다. 삼국시대 유구는 가지구의 북쪽을 중심으로 해발 190m 선상에 분포하며, 수혈주거지 16동, 수혈 3기, 주혈 다수가 확인되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주거지는 군집되어 있는 반면, 이후의 주거지는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중앙에 공지를 두고 동심원으로 둥글게 주거지가 입지하는 마을로 추정 가능하다.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과 방형계가 혼재하고 있으며, 방형계가 후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토유물과 중복관계로 보아 평면적이 넓은 주거지에서 좁은 주거

유적 위치도

지로 전환되는 경향이 강하며, 주거지의 깊이도 점차 얕아지고 있다. 내부시설로는 벽, 부뚜막, 저장공이 확인되며, 벽체를 조성한 주거지는 내부 퇴적토에 다량의 점토가 함몰되어 있다. 소결화된 벽체에는 볏집, 갈대 등의 초본류를 진흙과 함께 섞어 벽을 구축한 후 황갈색 점토를 5~10㎝ 정도 미장한 것으로 보인다. 부뚜막이 설치된 주거지는 모두 8동이며, 벽면을 따라 고래를 설치한 형태, 벽면과 직교하는 형태, 중앙에 노지형태로 있는 형태로 구분된다. 저장공은 3기의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모두 원형으로 규모는 직경 50㎝, 깊이 12~20㎝ 정도로 벽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 특히 1호 주거지에서는 완형의 장동옹 1개체가 누워있는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3호 주거지에서는 단경호 저부가 파손되어 뒤집힌 상태로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기종은 장동옹이며, 대부분 원저의 형태로 기벽에는 격자타날과 평행타날이 이루어져 있다. 고배는 이 지역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八'자형의 완형무투창고배가 주류이며, 통형고배도 일부 확인된다. 출토된 유물의 형식으로 보아 유적의 형성연대는 4세기 후반대가 중심일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0, 『거창 양평리 생활유적』.

유적 전경

7호 수혈주거지

수혈주거지 출토유물

08 거창 동례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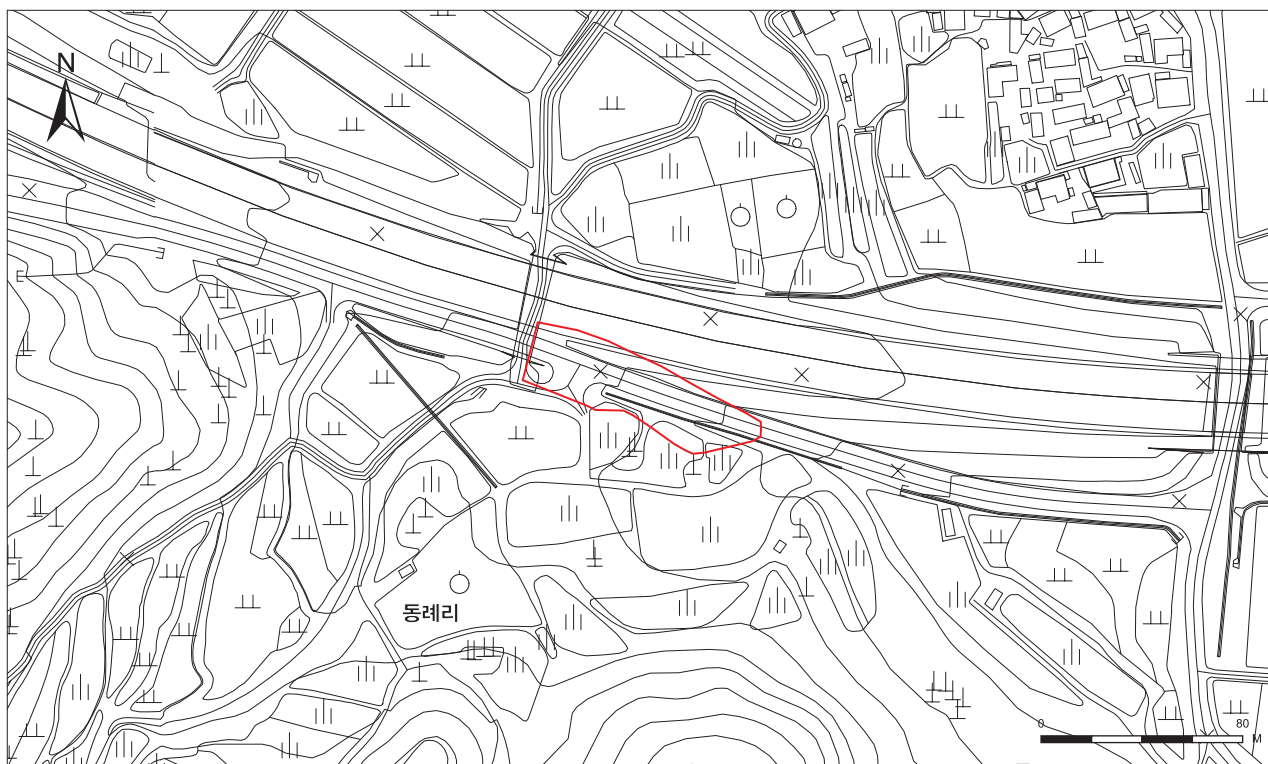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10.2.~2010.8.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수혈 /
파수부옹, 단조철부

거창군 동부의 동례리 중마마을 남쪽에 있는 생활유적이며, 박유산(해발 712m) 북동쪽 사면부에서 가조분지로 이어지는 해발 275~283m 정도인 구릉 말단부에 분포한다. 유적의 북동쪽으로 가조분지를 관통하는 가천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서쪽으로는 보해산에서 이어지는 산지가 둘러싸고 있다.

2010년에 88고속도로(11공구) 확장공사로 인하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삼국시대 생활유적은 가지구에서 수혈주거지 5동, 수혈 5기, 구 2기 및 주혈군 2개소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 19점, 철기 1점 등 20점이다.

수혈주거지는 구릉의 완만한 사면부에 주로 위치하며, 구릉의 정상부나 급경사면에는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평면형태는 타원형과 방형이 모두 확인되며, 2호 수혈주거지는 3호 수혈주거지의 상부를 일부 굴착하고 조성되어 있다. 주거지의 내부에는 황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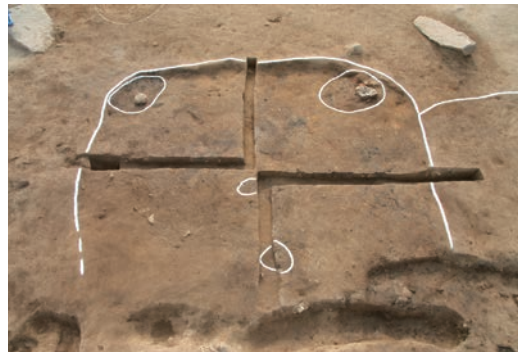
갈색 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황갈색점토는 벽체나 지붕 구조물이 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대부분 고온에 의해 소결된 점토와 목탄이 다량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는 화재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시설로는 부뚜막과 저장혈, 주혈이 있으며, 1~3호는 무주식 구조이며, 4호와 5호 수혈주거지는 네 모서리 부분에 주혈이 설치된 4주식의 구조이다. 특히, 5호 수혈주거지는 주혈 내부에 판석을 두어 초석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뚜막은 경사면의 위쪽에 해당하는 북서쪽 벽면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원형과 타원형으로 구분되고, 규모는 직경 70~80㎝이며, 깊이 10㎝정도의 수혈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부뚜막의 벽체는 점토를 이용한 구조이며, 지각은 천석과 할석을 이용하였다. 저장혈은 2호, 3호 수혈주거지에서 확인되며, 부뚜막과 대칭되게 설치되어 있다. 3호 수혈주거지의 저장혈에서는 파수부옹 1점이 출토되었다. 한편, 수혈주거지 분포범위와 다소 이격되어 동쪽의 사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4호 수혈 내에서는 다수의 흑도장경호가 출토되고 있다. 출토된 흑도장경호는 사천 늑도유적 등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한 형식으로 판단된다.

수혈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생활토기와 단조철부 등이 있으며, 토기의 기종은 주로 옹이 확인된다. 3호 수혈주거지 저장혈에서 출토된 파수부옹을 제외하면 대부분 장동옹의 저부편이다. 장동옹은 대체로 격자타날이 이루어져 있으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고려하여 4세기대가 유적의 중심연대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2, 『거창 동례·송변리 유적, 함양 죽산·우명리 유적』.

유적 전경

3호 수혈주거지

3호 수혈주거지 유물 출토모습

09 거창 무릉리 월곡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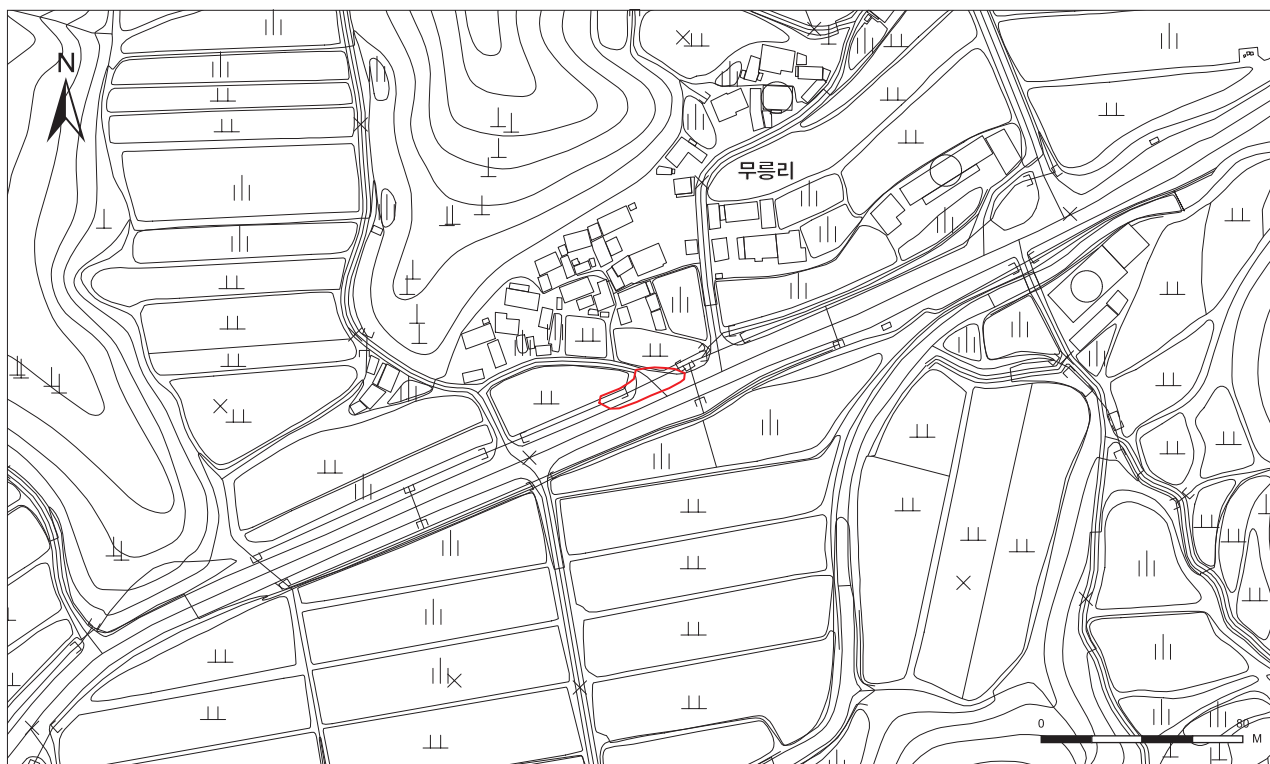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305-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0.6.~2010.8.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 옹, 완, 단경호

거창군 중부의 무릉리 월곡마을 남쪽에 있는 생활유적이며, 일산봉(해발 627m)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구릉 말단부에 분포한다. 남북으로는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사이를 개석한 월곡천과 인접하고 있다. 수계상으로는 황강유역에 해당하며, 지리적으로는 서쪽의 황강유역에서 동쪽의 가조분지로 넘어가는 곡간부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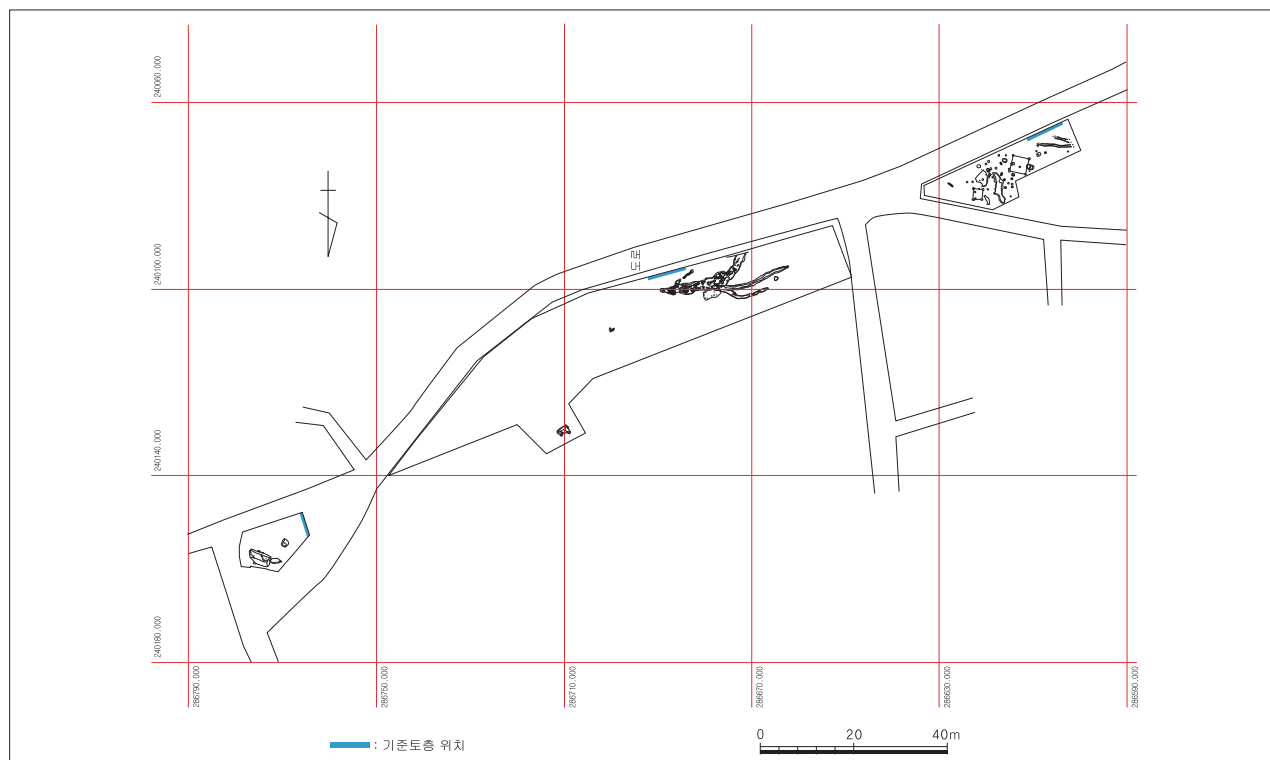
2010년에 거창 남하~가조 도로확장(1공구) 공사로 인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월곡마을로 진입하는 2개의 소로를 기준으로 서쪽과 중앙, 동쪽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서쪽구간에는 삼국시대 유구, 중앙과 동쪽 구간에서는 청동기시대 유구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수혈주거지 1동, 고상건물지 2동, 구 4기, 수혈 5기, 주혈 36기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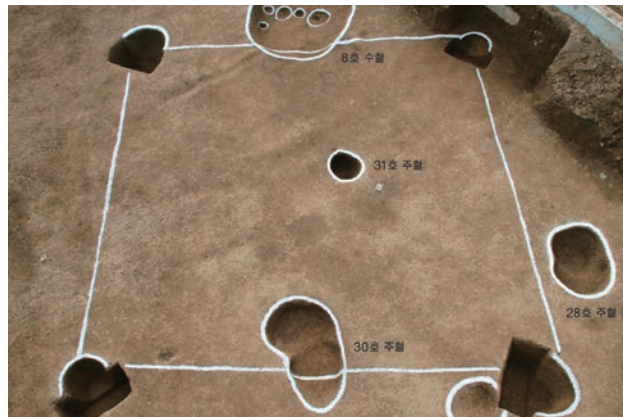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중앙에 직경 35㎝, 깊이 13㎝ 정도의 주혈이 있고, 서벽을 따라서 120㎝ 간격으로 나란하게 작은 주혈이 배치되어 있다. 주변

유적 위치도

으로 탄화된 목제가 일부 확인되며, 내부에서 격자타날이 이루어진 소옹이 1점 출토되었다. 고상건물지는 평면 방형으로 4개의 주혈이 2열을 이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구조이며, 1호 고상건물지는 2m 정도이고, 2호 고상건물지는 3.5m 정도로 규모에서 차이를 보인다.

수혈주거지와 고상건물지의 주변으로는 다수의 구와 수혈, 주혈이 혼재되어 있다. 8호 수혈에서는 통일신라기의 완과 단경호 편이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유적의 형성시기는 5~6세기대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2, 『거창 무릉리 월곡 유적-거창 남하~가조 도로 확장공사(1공구) 내-』.

유구 배치도

1호 주거지

3호 고상건물지

10

거창 대야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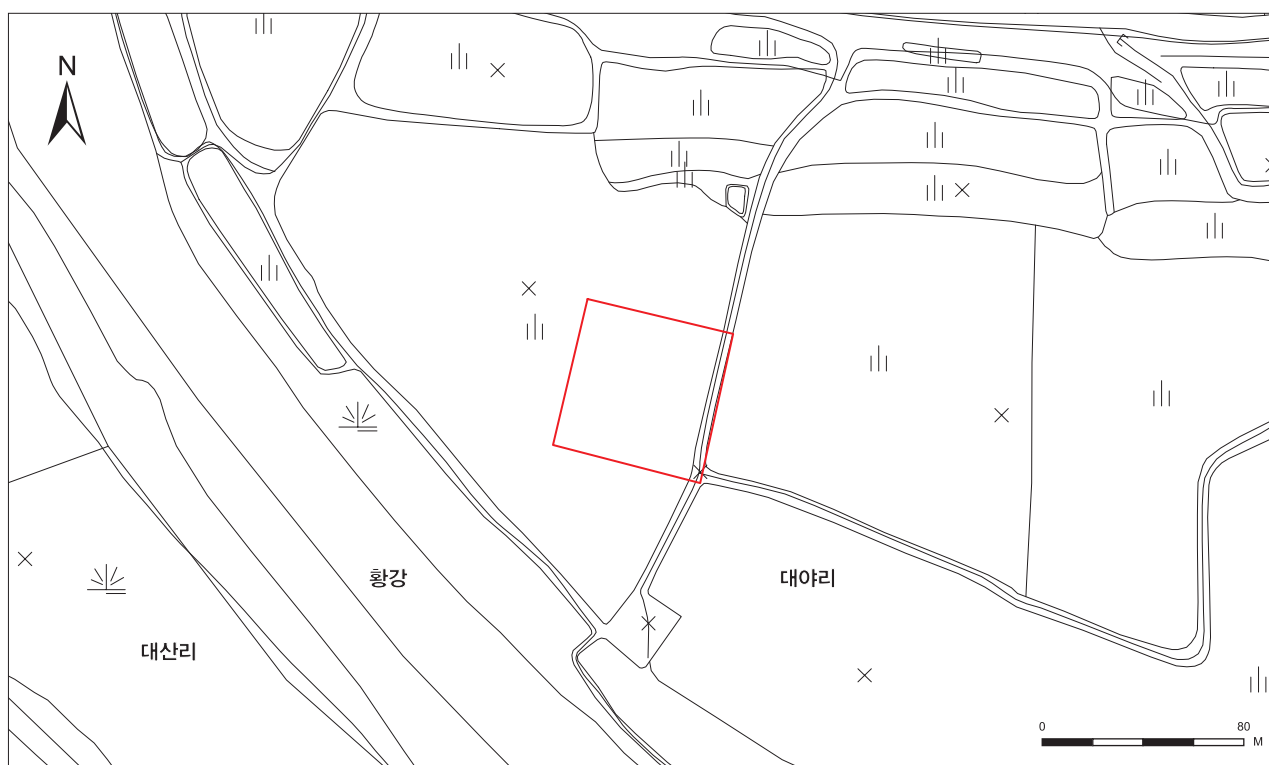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60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의대학교박물관 /
1987.11.~1988.11.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 장동옹,
발, 시루, 옹, 단경호,
철촉

거창군 남동부의 대야리 대야마을 남쪽에 있는 생활유적이며, 황강 북안의 충적지에 분포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감토산(해발 518m)이 있으며, 황강 건너 남쪽으로도 월현산(해발 618m) 등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북쪽으로 산지 사이를 개석한 가천천을 통해 가조분지와 교통하기에 유리하며, 황강 수계를 통하여 거창과 합천지역을 연결하는 위치에 입지한다.

1987~1988년에 합천댐 수몰로 인하여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 1동, 저장공 1기,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20동, 저장공 9기, 옹관묘 2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5동, 고려시대 주거지 3동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옹, 장동옹, 시루, 파수부발 등 토기 59점, 어망추 1점, 철촉 1점, 지석 1점 등 56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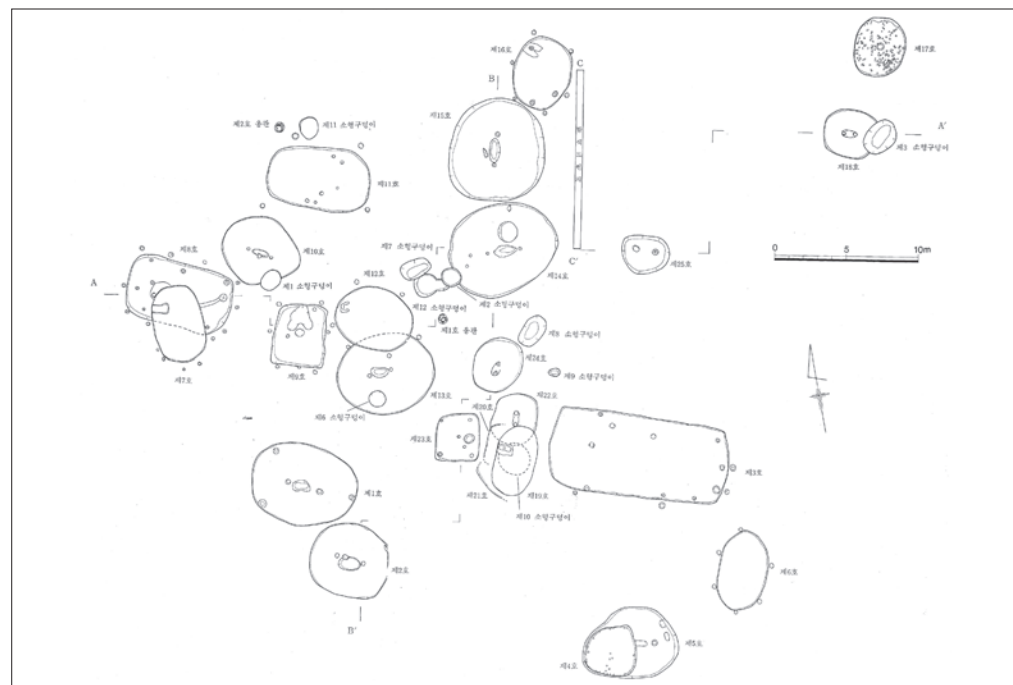
수혈주거지의 평면은 타원형을 이루며, 규모는 길이 5.5~5.6m, 너비는 2.8~4.3m 정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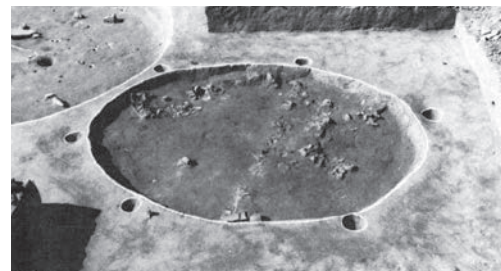
도로 비교적 중형급에 해당한다. 벽면은 점토를 두텁게 발라 불처리를 하였으며, 주혈은 벽면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7호 수혈주거지는 주거지 밖에서 주연을 따라 모두 10개의 원형 주혈이 확인된다. 부뚜막은 점토를 단단하게 다져 만들었으며, 모두 서쪽 벽면에 접하여 설치되었다. 7호 수혈주거지의 부뚜막은 서쪽 벽면의 북쪽 지점에 깊이 10㎝ 정도로 바닥면을 판 상태로 설치되었으며, 규모는 길이 122㎝, 너비 70㎝ 정도 이다. 7호, 16호, 19호 수혈주거지의 부뚜막은 중앙에 지각으로 추정되는 역석 1매가 곧바로 세워져 있다.

출토된 유물은 적갈색연질토기와 회청색도질토기가 있으며, 단경호, 옹, 장동옹, 발, 파수부발, 시루 등이 있다. 단경호 가운데는 구연부가 외반하고 동부의 상부가 강조된 형태가 있으며, 장동옹은 원저에 동체부의 외면에 격자타날, 혹은 승문타날이 이루어진 형태가 대부분이다. 또한 12호 수혈주거지에서 출토된 무경식철촉은 부산 노포동 16호 출토품과 유사하다.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나 출토된 생활토기의 형식으로 보아 유적이 형성된 연대는 대체로 4세기대로 편년된다.

참고문헌

동의대학교박물관, 1988, 『대야리 주거지Ⅰ』.

동의대학교박물관, 1989, 『대야리 주거지Ⅱ』.

유구 배치도

12호 주거지

16호 주거지

11 거창 지산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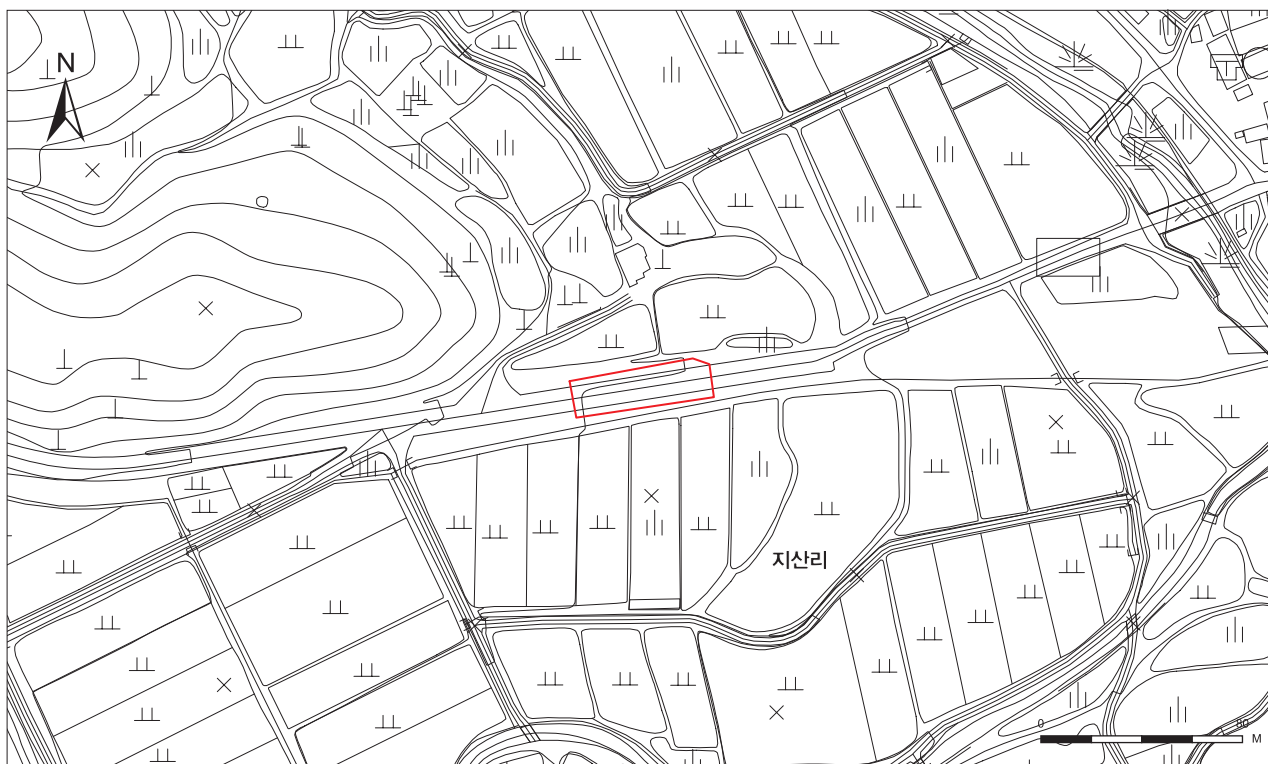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3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10.5.~2010.7.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수혈 /
시루, 장동옹, 단경호,
노형기대

거창군의 남동부의 지산리 신기마을 서쪽에 있는 생활유적이며, 가천천의 지류인 지산천 주변에 형성된 김천들 일대의 해발 250~252m 정도인 하안단구에 분포한다. 서북쪽으로는 일산봉을 중심으로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지산천 주변으로 비교적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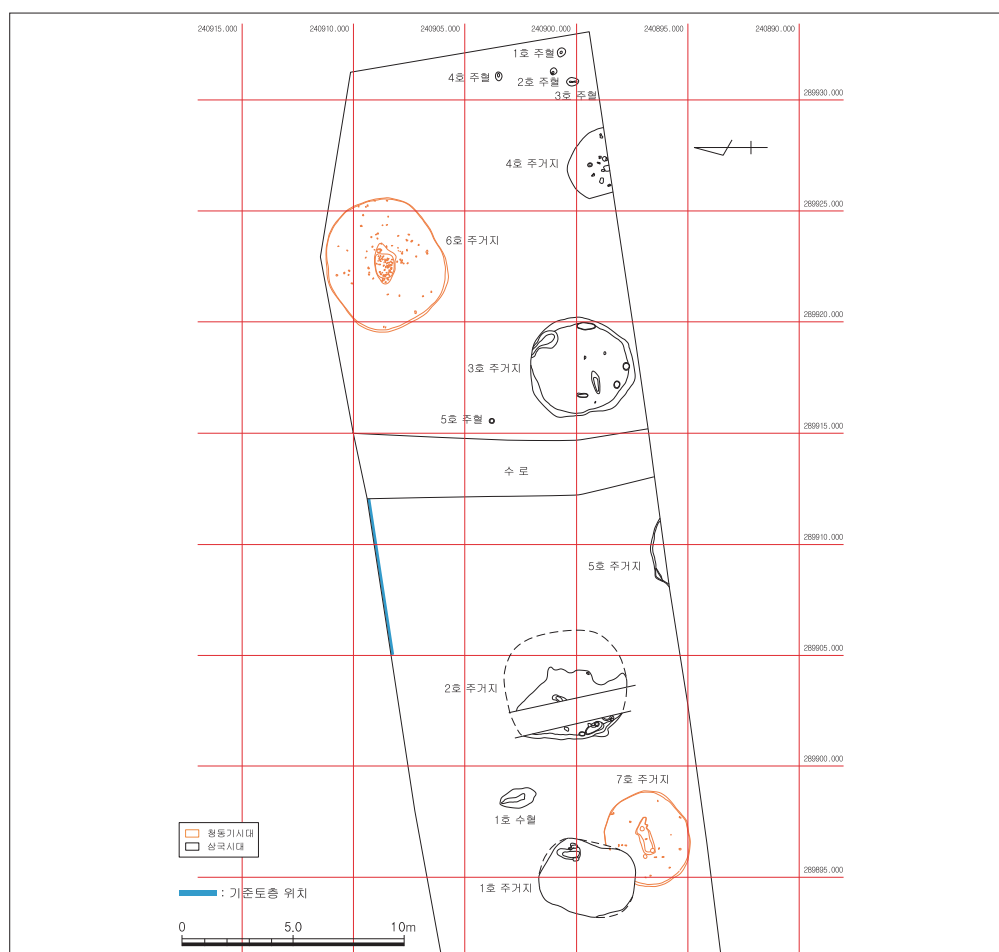
2010년에 거창 남하~가조(2공구)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2동, 삼국시대 수혈주거기 5동, 수혈 1기, 주혈 5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주거지는 동-서 방향으로 열상을 이루며, 5m 정도의 간격으로 분포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과 타원형이며,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1호와 3호 주거지에서 부뚜막이 확인된다. 부뚜막은 점토로 축조되었으며 한쪽 벽면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다. 3호 수혈주거지는 길이 476㎝, 너비 455㎝, 깊이 35㎝ 정도이며, 부뚜막은 북동쪽 모서리

유적 위치도

에 조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수혈 3기, 주혈 2기가 확인된다. 주혈은 부뚜막과 대칭되는 남서쪽에 위치하며, 상호 90㎝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어 출입구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출토된 유물은 시루, 단경호, 완, 노형기대 등이 있으며, 노형기대는 편구형의 발부에 구연이 짧게 외반하는 특징을 보인다.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원형계이고, 3호 주거지 바닥에서 노형기대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유적의 형성연대는 4세기대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 센터, 2012, 『거창 지산리 유적-거창 남하~가조 도로확장공사(2공구) 내-』.

유구 배치도

1호 주거지

3호 주거지

12 거창 송변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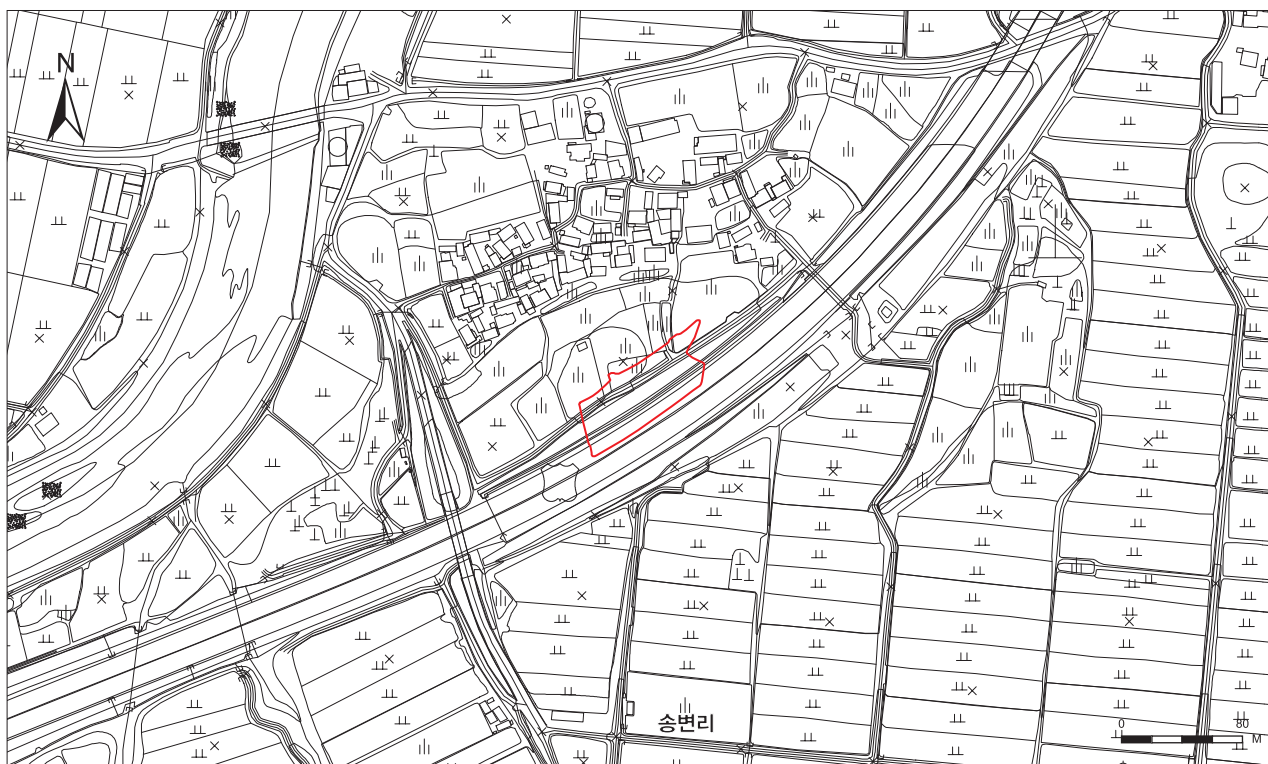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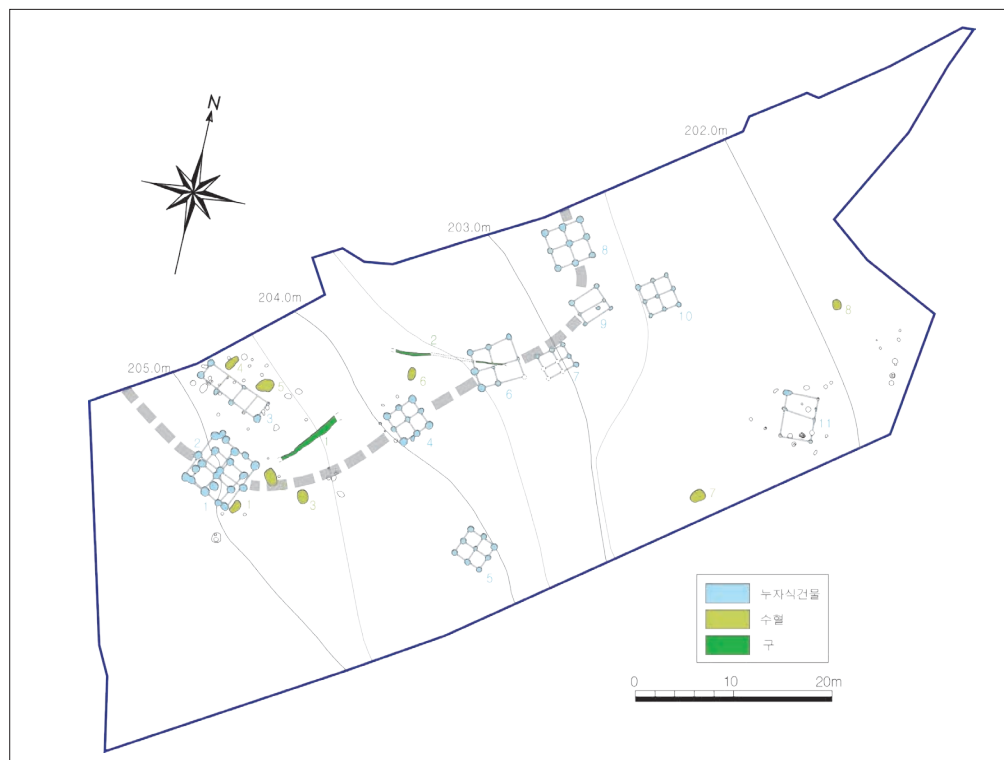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송변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10.2.~2010.8.

주요 유구 / 유물
고상건물지, 수혈 /
고배

거창군 남부의 송변리 괴하마을 남쪽에 있는 생활유적이며, 대산천 남안의 해발 205m 정도인 낮은 구릉과 충적지에 분포한다. 남쪽으로는 감악산(해발 952m)을 중심으로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북쪽으로는 황강으로 합류하는 대산천에 의해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지리적으로 거창에서 함양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한다.

2010년에 88고속도로(9공구) 확장공사로 인하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고상건물지 11동, 수혈 8기, 구 2기, 주혈군 2개소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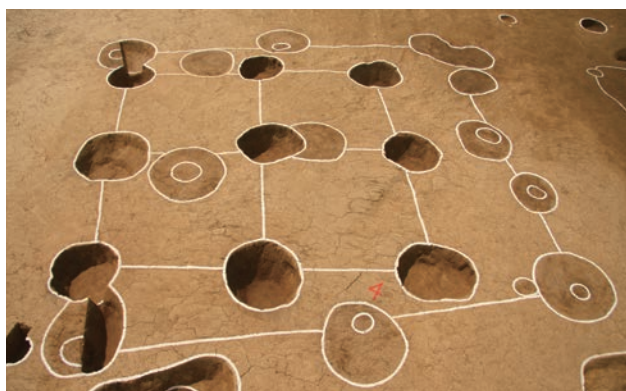
고상건물지는 2×2칸 8동, 1×2칸 2동, 1×4칸 1동으로 2×2칸의 구조가 주를 이룬다. 고상건물지의 배치는 등고선과 직교되게 동-서 방향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10~20m 간격으로 분포하고 있다. 고상건물지의 북쪽으로 공지로 추정되는 공간이 있으며, 열상 배치보다는 반원상으로 취락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혈은 완만한 'U'자상으로

유적 위치도

유구 배치도

굴착한 뒤 목주를 세우고, 주혈 굴착시 나온 흙을 보강토를 사용하였다. 주혈의 규모는 직경 24~98㎝, 잔존 깊이 6~46㎝, 주혈간 거리는 120~310㎝로 다양하며, 건물의 면적과 주혈간 거리는 비례한다. 주혈 내 목주는 잔존하지 않으나 단면상에서 목주흔이 관찰되는데, 목주의 크기는 직경 12~42㎝ 정도로 건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한 점이 특징이다. 고상건물지의 출입시설로서는 4호 고상건물지의 북서쪽에서 사다리흔으로 추정되는 주혈 2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은 총 8기가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고상건물지 주변과 주혈군 내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방형, 세장방형, 타원형, 부정형 등 다양하며, 규모는 직경 85~190㎝ 정도, 잔존 깊이 10~50㎝ 정도이다. 수혈의 깊이는 얕은 편이며, 내부에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성격은 판단하기 어렵다.

출토된 유물은 고상건물지의 특성상 소수에 불과하며, 3호 고상건물지에 인접한 4호 수혈에는 완형고배가 1점 출토되었다. 인근의 함양 화산리유적 출토품과 유사하며, 이로 보아 유적의 형성은 대체로 4세기 전반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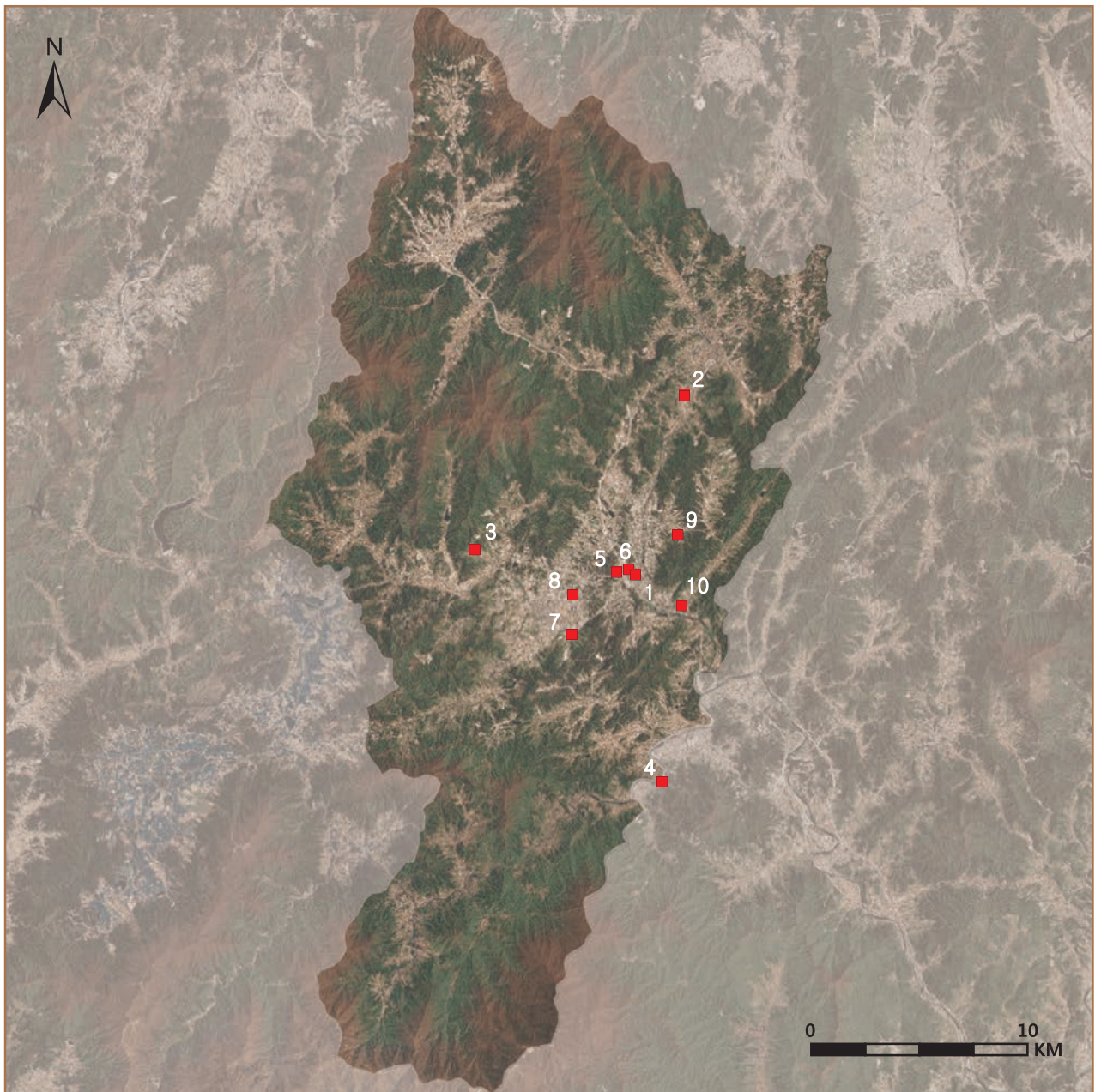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2, 『거창 동례·송변리 유적, 함양 죽산·우명리 유적』.

유적 전경

1호 누자식건물

2호 누자식건물

天王岾
箕峙
中山
北
鷲岩山
愁知峯
白岩山
咸陽
西溪
蛇岩山
沙斤
本通峙
王山
華蔵山
悟道峯
馬川
嚴川
任
文殊峴
三壯山
安養山
鷄鳴山
楡山
栗峴
馬淵山
白也峴
山淸
智異山
天王峯
般若峯
灵源洞
德山洞
薩川

V. 함양

01 함양 백천리고분군

| 경상남도기념물 제171호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산10-5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대학교박물관 /
1980.3.~1980.5.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석곽묘 /
유개단경호, 유개장경호,
기대, 장식대도, 성시구

함양군 중부의 백천리 척지마을 북서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경상남도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되어 있다. 하천의 유로 변화에 의해 잔존하고 있는 해발 140m 정도의 단독 구릉에 분포하며, 동쪽으로는 남강 수계의 남계천이 흐르면서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영호남 지역을 동서와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며, 특히 서쪽으로는 팔랑재를 넘어 남원 월산리고분군과 통하는 관문이다.

1980년에 이화요업주식회사의 공장건설로 인하여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당시 백천리고분군에서 확인된 대형 봉토분은 20기이며, 직경 10~30m 정도인 봉토분이 구릉의 가장자리 사면을 따라 분포하고 있었다. 발굴조사는 서쪽으로 이화공장과 인접한 1~5호분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형 봉토분 5기와 석곽묘 21기가 확인되었고, 유물은 토기 200여 점, 철기 190여 점, 장신구 등을 포함하여 400여 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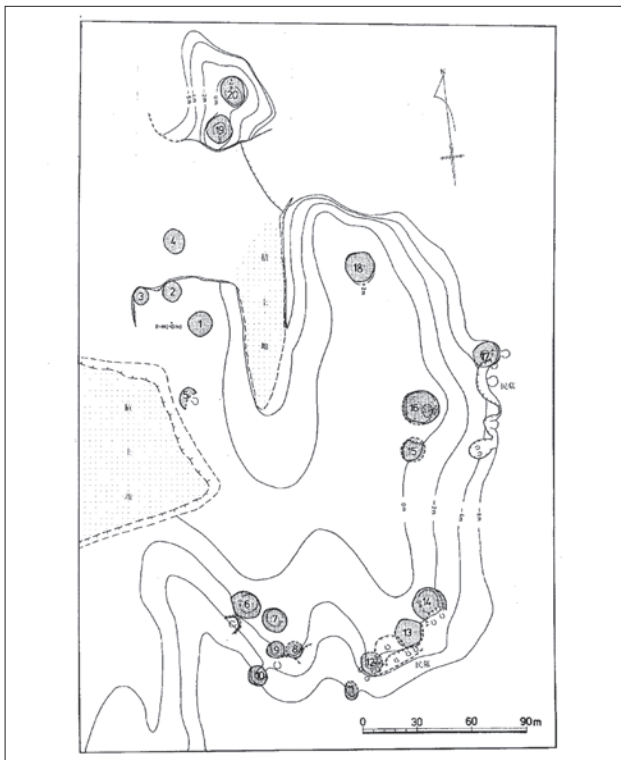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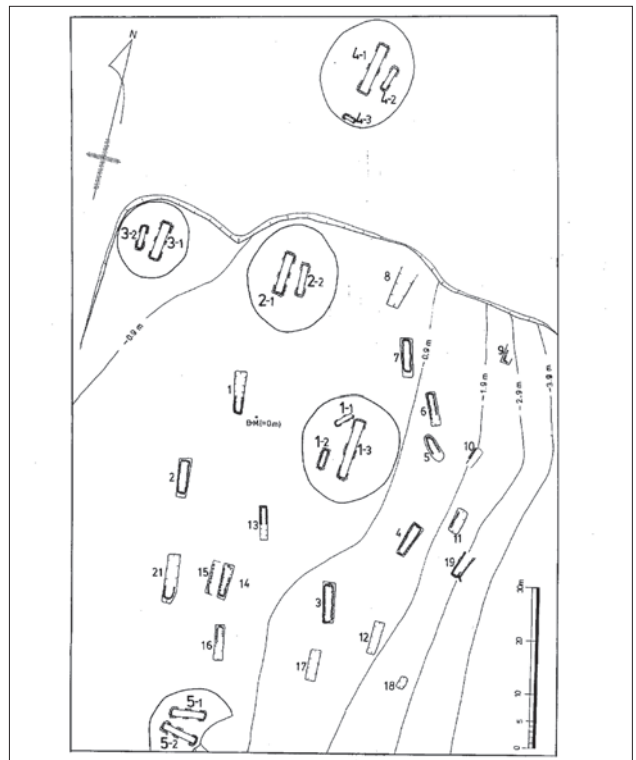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대형 봉토분의 내부에는 2기 이상의 석곽이 '11'자형으로 배치된 구조를 보이며, 이 가운데 2호분은 유개단경호와 유개장경호를 놓은 발형기대로 가득 차 있는 부곽이 주곽과 나란하게 배치된 전형적인 대가야식의 구조이다. 그 외 다른 봉토분에서 확인되는 부곽은 소형에 해당하며, 봉토의 상부에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봉토분 주변의 석곽묘는 대부분 남-북 방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나란하게 조성된 14호와 15호 석곽묘를 제외하면 대부분 단독으로 분포하고 있다.

보고가 이루어진 1호분은 봉분의 직경이 13m, 높이 2m 정도이고, 하나의 대형 석곽을 중심으로 봉토 상부에 2기의 소형 석곽이 추가로 조성되었다. 주곽인 1-3호 석곽은 길이 740㎝, 너비가 120㎝ 정도로 세장한 형태이다. 천석을 이용하여 측벽을 축조하고, 12매의 개석으로 밀봉한 구조이다. 석곽 내부의 바닥에는 좌우 나란히 2개씩 5열의 기둥구멍이 확인되며, 대형 꺾쇠가 출토되어 목곽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양단벽 쪽에는 주로 토기를 부장하였고, 피장자 머리맡에서는 성시구와 마구가 출토되었다. 피장자는 좌측에서는 상원하방의 환두에 어린문이 병부에 장식된 은장대도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토기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대가야양식 토기이며, 대가야의 성장과 함께 함양을 포함한 주변지역과의 관계망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산청 생초고분군을 비롯하여 인접한 중심고분군과의 비교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권역 내 집단 간의 역학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다.

참고문헌

부산대학교박물관, 1986, 『함양 백천리 1호분』.

대형 봉토분 분포도

유구 배치도

유적전경

1-3호분

1-3호분 출토유물

02 함양 상백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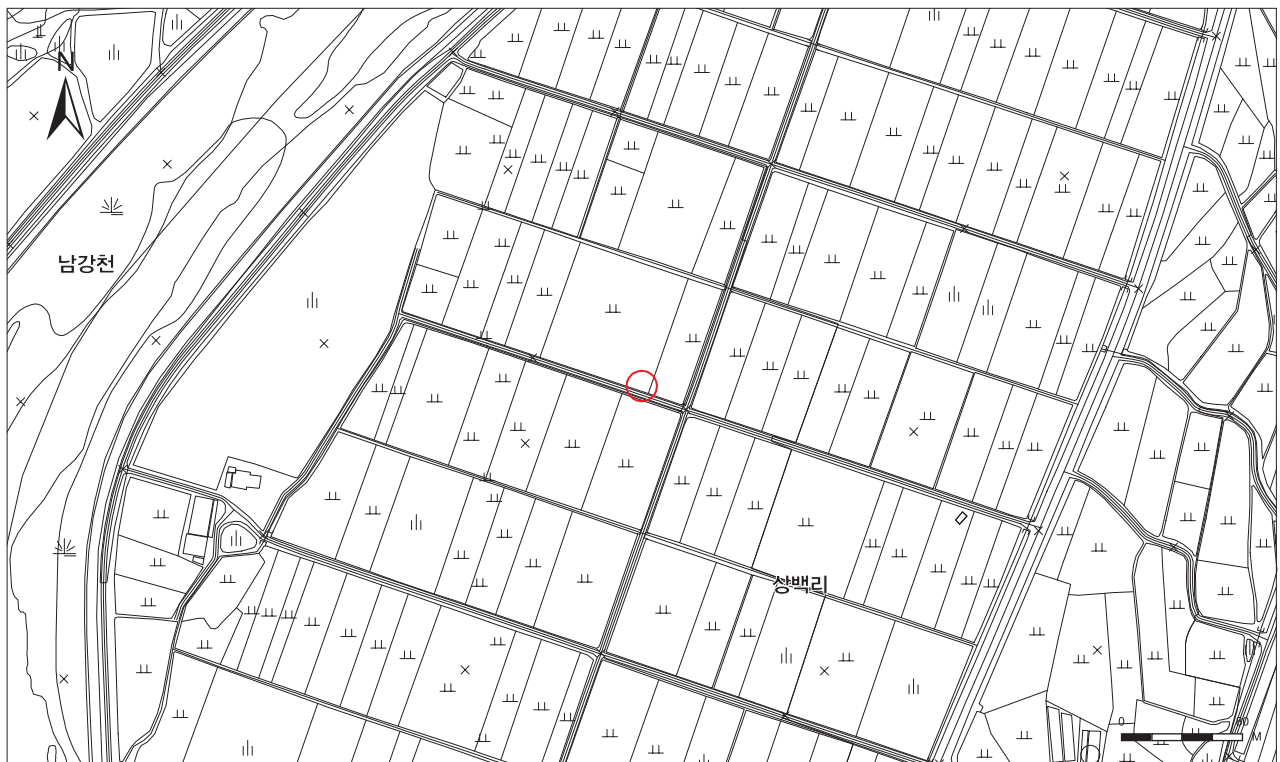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 66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대학교박물관 / 1972.3.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고배, 기대, 등자, 사행상철기, 판갑, 찰갑

함양군 동부의 상백리 금호마을 북쪽과 동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남계천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골무산(해발 552m)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쪽으로는 안의면의 비교적 넓은 충적지를 통해서 거창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한 입지이다. 또한 남쪽으로는 마안산과 새암산 사이를 개석한 곡간을 통해서 함양읍을 거쳐 호남지역과 남강유역으로 교통이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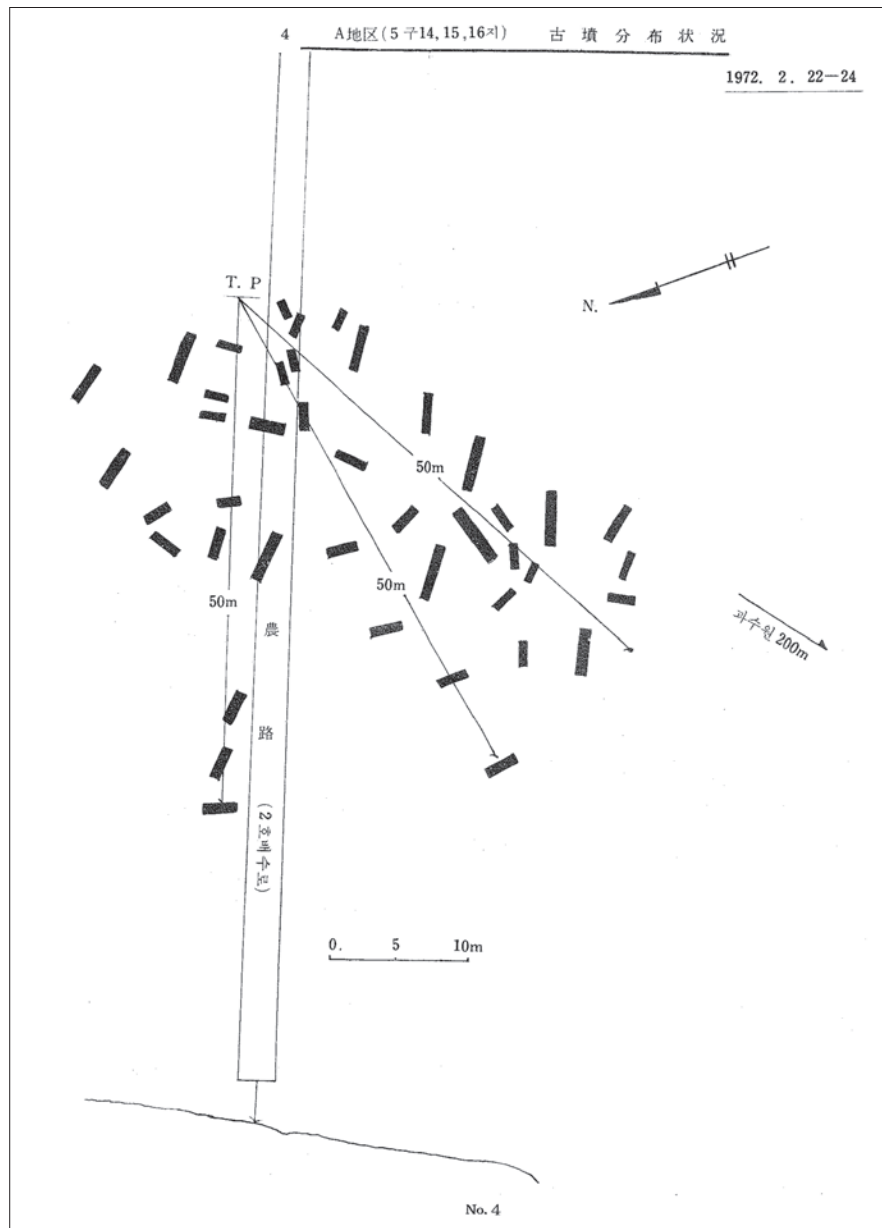
1972년에 농지정리 인하여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고분군의 범위는 충적지와 남계천 맞은편의 구릉에 걸쳐서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경작으로 인해 봉분은 이미 훼손된 상태이고, 석곽묘 8기가 확인되었다.

석곽묘의 축조방법은 할석이나 천석을 사용하여 네 벽을 쌓았으며, 대부분 길이 3~4m, 너비 1m 내외, 깊이 1.2m 정도 되는 중소형급에 해당하고, 길이가 6m 정도인 중형급도 일부 확인된다. 출토된 유물로는 고배, 개배, 대부파수부완, 기대 등 전형적인

유적 위치도

대가야양식의 토기와 함께 다양한 금속제 유물도 확인된다. 철기 가운데는 등자, 사행상 철기와 같은 마구와 대도, 철모, 찰갑, 판갑 등 무기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판갑은 삼각판을 종횡으로 못을 박아 연결한 것으로 일본에서 주로 출토되는 형식이며, 한일 양 지역의 갑옷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함양지역의 삼국시대 가야 고분군에 대한 최초의 발굴조사이며, 5~6세기대 대가야와 관련된 토기를 비롯한 다량의 유물이 확인된데 의의가 있다. 또한 남서쪽으로 약 9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함양 백천리고분군과의 관계에서 지역 내 집단 간의 위계를 판단할 수 있는 유적이다.

참고문헌

동아대학교박물관, 1972, 『함양 상백리 고분군 발굴조사 보고-1972년도 고적조사보고』.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제4형식분

제4형식분 유물 출토모습

토기류

철기류

03 함양 도천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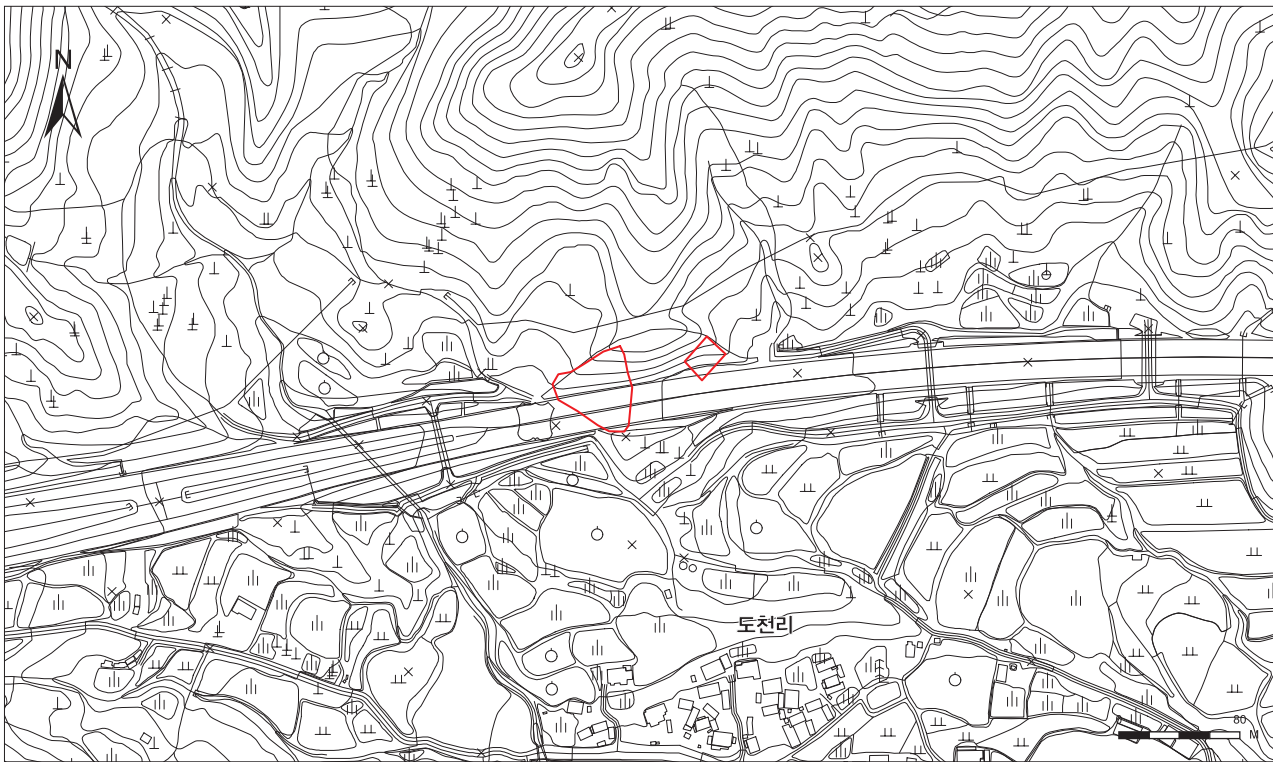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도천리 산4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10.1.~2010.6.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개배, 장경호, 소도, 철탁

함양군 서부의 도천리 도천마을 북서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해발 720m의 높은 산지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해발 256~276m인 구릉의 남쪽 사면부에 분포한다. 남쪽으로는 남강 수계의 위천이 동서로 흐르면서 곡간평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서쪽으로는 팔랑재를 통해 전라북도 남원시와 접하고 있으며, 영호남을 동서로 연결하는 내륙 교통로 상에 입지한다.

2010년에 88고속도로 7공구 확장공사로 인하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삼국시대 석곽묘 10기, 옹관묘 1기, 조선시대 분묘 1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 34점, 철기 16점, 장신구 7점 등 57점이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최하단을 세워 쌓고, 그 상부는 소형의 할석으로 눕혀 쌓는 방법으로 축조하였으며, 소가야지역의 중소형 석곽묘와 유사한 구조이다. 출토된 유물은 개배와 장경호 등 대가야양식 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소도나 철촉 등 무기의 출토 예는 한정된다. 다만, 조사

유적 위치도

된 석곽묘 가운데 4기에서 금동제세환이식이 출토하는 특징을 보인다. 퇴화된 형식의 개배와 장경호로 보아 6세기 중엽의 가야 종말기에 조영된 고분군으로 판단된다.

재지적인 석곽묘의 축조기법과 함께 대가야양식의 토기 부장은 함양지역에 대한 대가야의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이를 통해 당시 백제를 비롯하여 호남지역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다.

참고문헌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2, 『함양 도천·송평·옥계리 유적』.

유적 전경

9호 석곽묘

10호 석곽묘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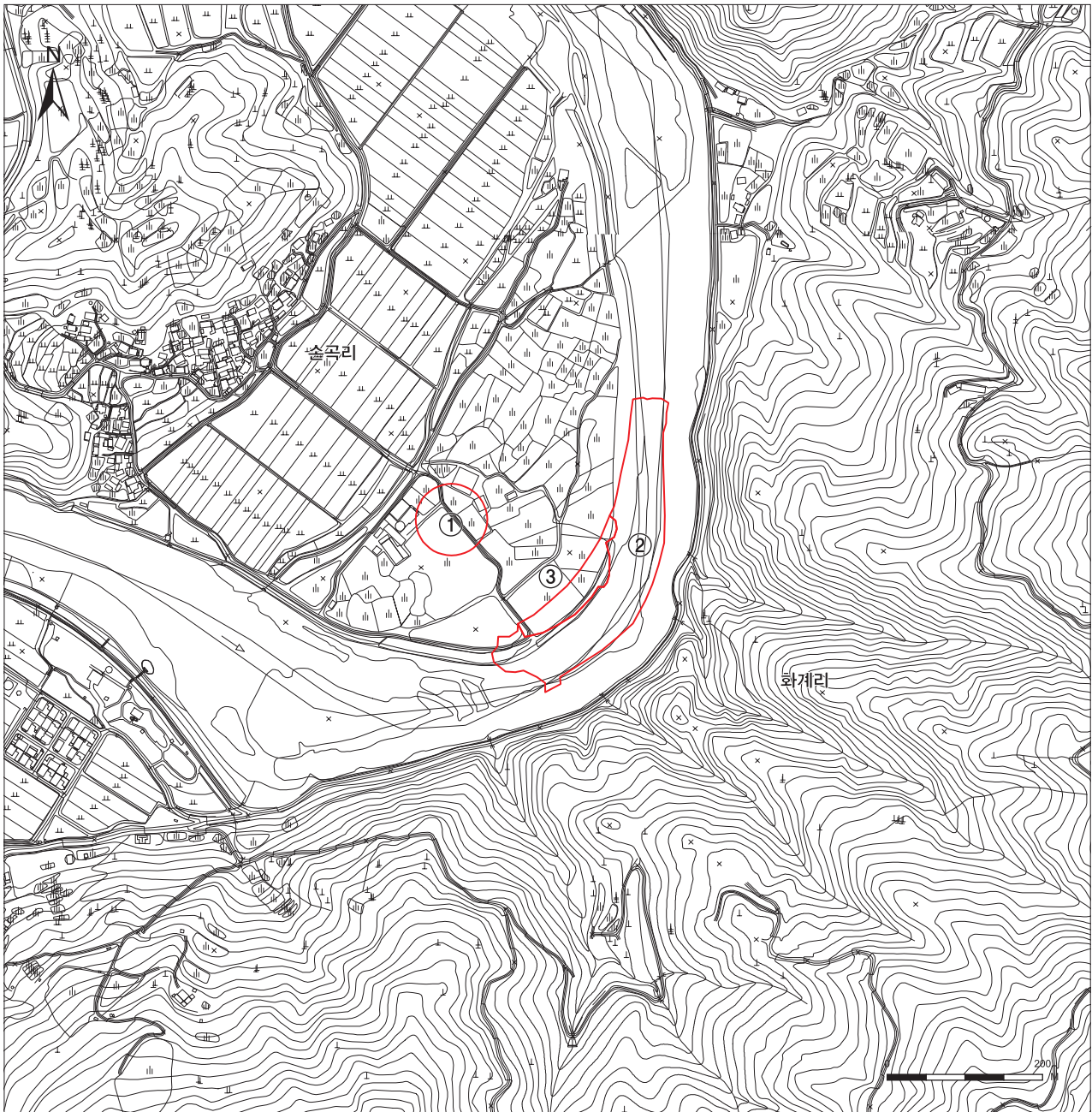
함양 손곡리유적
咸陽 孫谷里遺蹟

함양군 남부의 손곡리 지곡마을 남동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남강 수계의 임천강에 형성된 충적지에 분포한다. 남쪽과 서쪽으로 지리산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북동쪽으로 임천강을 따라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면서 산청 생초지역과 교통이 유리하다.

최초의 발굴조사는 1993년에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지곡들로 불리는 넓은 충적지 중간에 경작과정에서 유물이 노출된 범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4기가 확인되었고, 토기 24점, 철기 30점이 출토되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석곽묘는 최하단부터 천석을 눕혀 쌓고 있으며, 출토된 유물은 수평구연호를 비롯하여 5세기 후반대의 소가야양식 토기가 주류를 점하고 있다.

2015~2016년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두류문화연구원에서 임천강이 곡류하면서 형성된 강변밭들로 불리는 충적지의 활주사면을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남쪽의 A구역에서 목곽묘 15기, 석곽묘 145기, 옹관묘 2기, 수혈 2기 등 삼국시대 무덤유적이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고분은 4m 이하의 중소형급에 해당하며, 5~6세기대 전형적인 소가야양식 토기와 함께 대가야양식 및 백제계 토기도 확인된다.

이후 2017년에 수해상습 개선사업에 추가된 부지를 대상으로 두류문화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 조사지역의 북서쪽으로 확장되어 삼국시대 목곽묘 6기, 석곽묘 57기, 옹관묘 1기, 매납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대부분 남동쪽의 임천강과 평행하게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이와 직교되는 고분도 확인된다. 출토된 유물도 다양한 계통의 토기가 공존하고 있으며, 수평구연발형기대와 같이 소가야양식 토기가 다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산청과 함양지역에서 다수 확인되는 충적지에 조성된 중·소규모의 고분군으로 인접한 유력 가야고분군인 산청 생초고분군의 하위집단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분에서 확인되는 소가야양식의 토기는 인접한 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대가야양식 토기와 함께 권역 내 시기나 계층 간의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함양 손곡리분묘군	국립창원문화재 연구소	1993.3.	함양 손곡리 분묘군 발굴조사보고(1996)
2	함양 손곡리유적 –임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부지 내 유적	두류문화연구원	2015.11.~2016.5.	함양 임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약보고서(2016)
3	함양 손곡리유적 – 임천지구 수해상습 추가 개선부지 내 유적	두류문화연구원	2017.2.~2017.5.	함양 임천지구 수해상습 개선부지 내 유적(추가) 정밀발굴조사 결과약보고서(2017)

04-1

함양 손곡리분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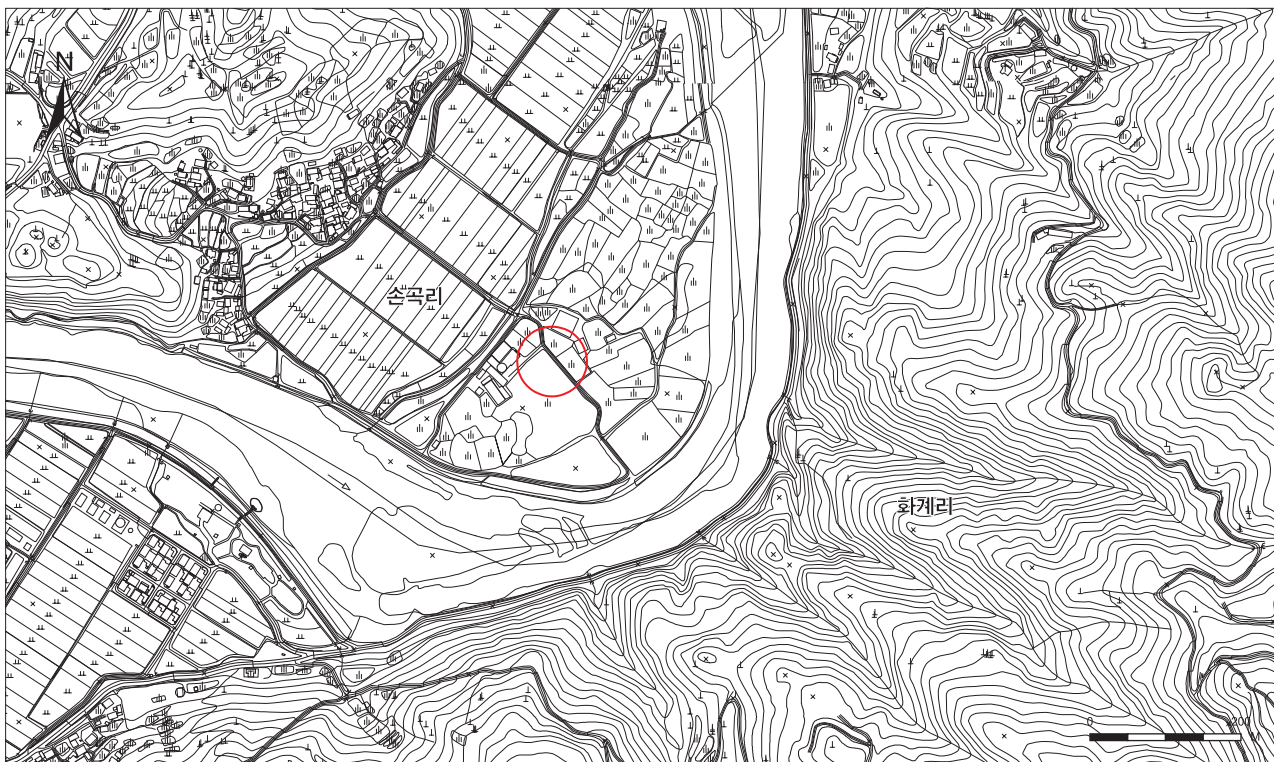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4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
19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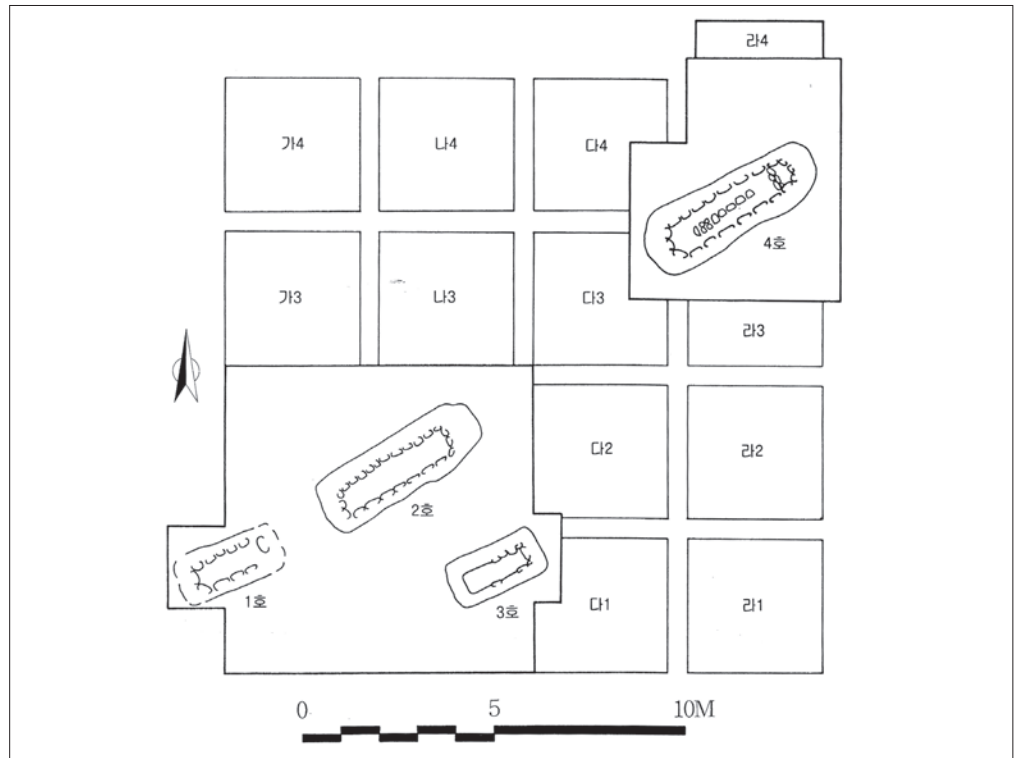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수평구연호,
환두대도, 이식

조사구역은 지곡들로 불리는 넓은 충적지 배후의 후사면에 해당하며, 1993년에 경작과정에서 유물이 노출되어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수습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한정된 범위에서 인접하여 삼국시대 석곽묘 4기가 확인되었고, 토기 24점, 철기 30점이 출토되었다.

석곽묘의 주축은 강의 흐름과 나란한 방향이며, 석곽 상부는 목개를 덮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측벽의 축조는 천석을 눕혀 쌓는 형식과 최하단에 편평한 천석을 세워 쌓은 후 그 상단에 눕혀 쌓는 형식이 공존하며, 비교적 규모가 큰 석곽묘는 전자에 해당한다. 출토된 유물은 수평구연호, 수평구연발형기대 등 소가야양식의 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개나 고배와 같은 소형토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철기는 대부분 철겸과 철부 등 농공구에 한정되어 있으나, 2호묘에서는 환두대도와 철촉 등 무기와 세환이식이 출토되어 고분군 내 유력자의 분묘로 추정된다.

유적 위치도

출토된 토기의 형식으로 보아 석곽묘의 중심 축조연대는 5세기대로 판단되며, 산청과 함양지역에서 다수 확인되는 충적지에 조성된 고분군이다. 유력한 가야고분군인 산청 생초고분군의 조영집단과 관계가 있는 단위집단으로 소가야 토기 일색의 부장양상은 집단의 변천과 구성을 파악하는데 양호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창원문화재연구소, 1996, 「함양 손곡리 분묘군 발굴조사보고」, 『연보』Ⅰ.

유구 배치도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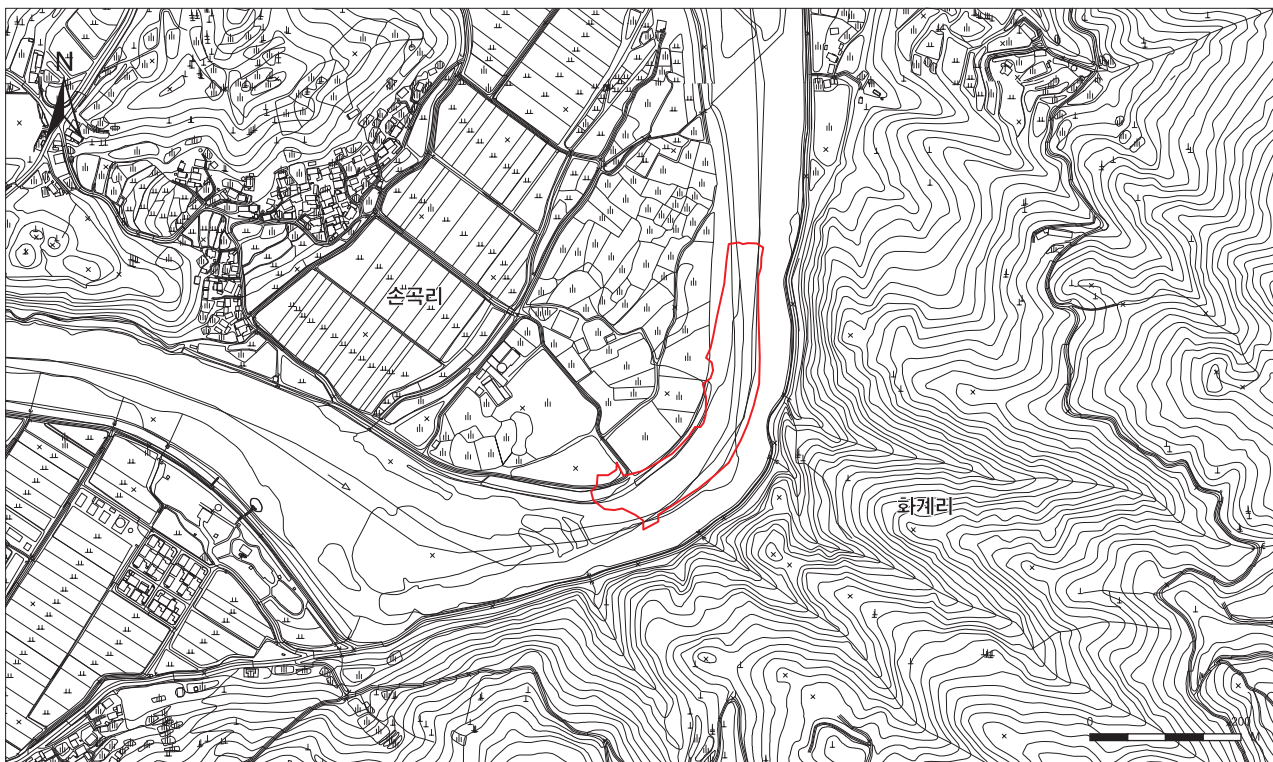
04-2 함양 손곡리유적 _ 임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3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연구원 /
2015.11.~2016.5.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고배,
수평구연호, 환두대도

조사구역은 임천강이 곡류하면서 형성된 강변밭들로 불리는 충적지의 활주사면에 해당하며, 2015~2016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두류문화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구역을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남쪽의 A구역에서 청동기시대 석곽묘 2기, 수혈 2기, 삼국시대 목곽묘 15기, 석곽묘 145기, 옹관묘 2기, 수혈 2기 등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조사구역 내 남쪽으로 치우쳐 해발 142m 지점의 등고선과 평행하게 분포하며, 비교적 미고지에 집중하는 경향이다.

목곽묘는 대부분 길이 4m 이하의 중소형급에 해당하며, 장방형에 가깝다. 대부분 단곽식으로 내부에 목곽을 설치하고 묘광 사이에 흙을 채워 넣은 형태이다. 석곽묘 역시 길이 4m 이하의 중소형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목곽묘에 비해 세장하다. 비교적 규모가 큰 석곽묘는 눕혀쌓기와 세워쌓기를 혼용하였으며, 소형은 장단벽을 세워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닥은 대부분 기반층을 정지하여 사용하였으며, 관대를 설치하거나 전

유적 위치도

면에 잔자갈이나 편평할 할석을 깐 형태도 다수 확인된다. 유물은 양단벽에 부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한쪽 단벽에 부장하는 석곽묘도 있다. 출토된 유물은 5~6세기대 삼각투창고배, 파배, 수평구연호, 수평구연발형기대 등 전형적인 소가야양식 토기와 함께 대가야양식 및 백제계 토기도 확인된다. 철기는 철겸, 철부 등 농공구와 함께 1호 목곽묘에서는 환두대도가 출토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금속유물의 부장은 빈약한 편이다.

선행 조사에서 단편적으로 보고된 손곡리유적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대규모 발굴조사로 의미가 있다. 목곽묘와 석곽묘에서 다양한 계통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어 향후 유적의 변천과정과 함께 주변 집단과의 관계를 해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두류문화연구원, 2016, 「함양 임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약보고서」.

유적 전경

10호 목곽묘

78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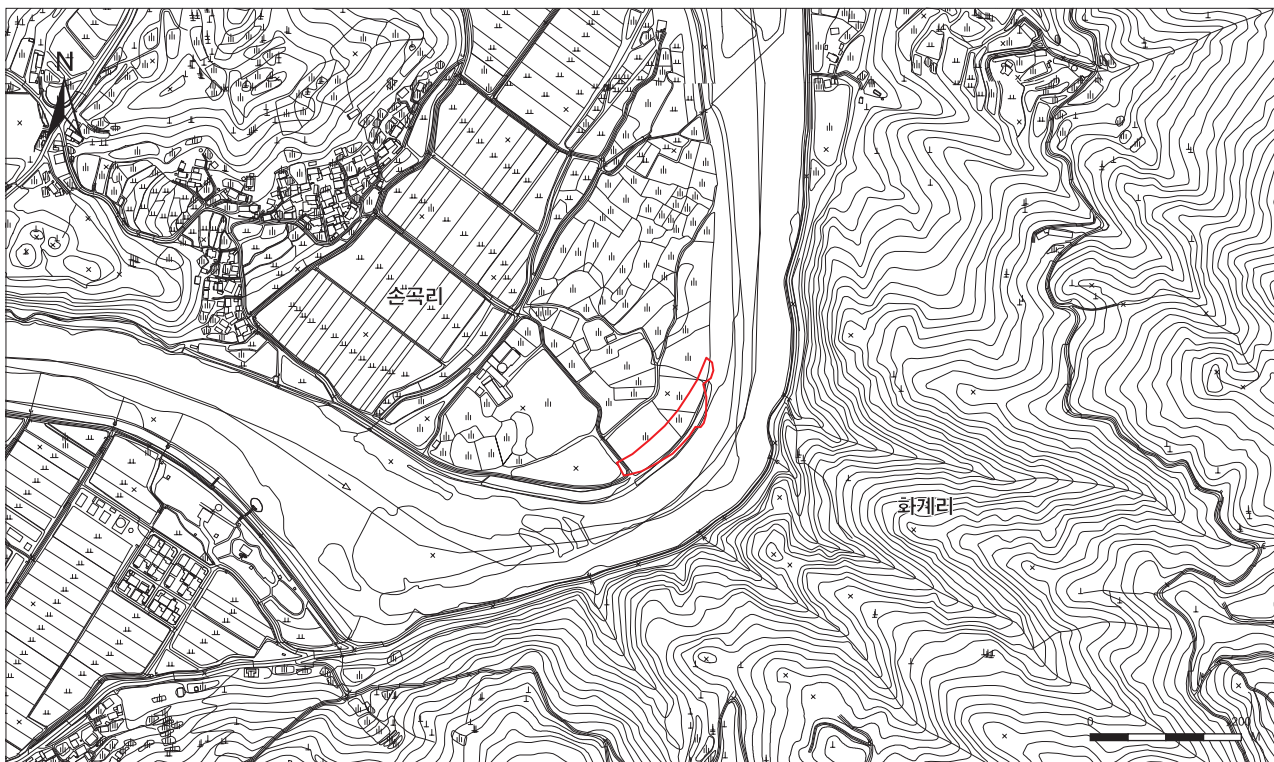
04-3 함양 손곡리유적 _ 임천지구 수해상습 추가 개선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3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두류문화연구원 /
2017.2.~2017.5.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개배, 고배, 발형기대

조사구역은 임천강이 곡류하면서 형성된 강변밭들로 불리는 충적지의 활주사면에 해당하며, 선행 발굴조사 구역의 북서쪽으로 확장되어 2017년에 두류문화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목곽묘 6기, 석곽묘 57기, 옹관묘 1기, 매납유구 1기와 고려~조선시대 적심건물지 1동과 석렬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대부분 남동쪽의 임천강과 평행한 주축방향을 보이며, 비교적 열상의 배치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이와 직교되는 고분도 확인된다.

목곽묘와 석곽묘의 분포는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며, 대부분 4m 이하의 중소형급이다. 목곽과 묘광 사이에는 기반층인 갈색사질토를 채워 넣었으며, 일부 천석을 넣어 보강한 목곽도 확인된다. 석곽묘는 조사구역 양쪽을 제외한 구역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측벽의 축조는 30~40㎝ 정도의 천석으로 눕혀쌓기와 세워쌓기를 혼용하였고, 일부 석곽묘에서 벽석 사이에 점토를 넣어 둥근 천석으로 이루어진 벽석을 견고히 하였다. 바

유적 위치도

닥에는 할석 및 역석 등으로 시상을 마련한 것과 시상을 마련하지 않은 것, 관대를 마련한 것으로 구분된다. 유물의 부장양상은 양 단벽에 부장하거나 한쪽 단벽에 부장하는 형태이며, 양단 부장이 다수를 이룬다. 출토유물로는 개배와 고배, 수평구연발형기대 등 소가야양식 토기와 함께 일부 대가야양식의 토기가 혼재되어 있는 경향이며, 토기의 형식으로 보아 5~6세기대 고분군이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 조사에서 확인된 손곡리유적의 분포와 규모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였으며, 함양과 산청지역에서 출토되는 대가야 토기와 비교하여 소가야 토기의 부장양상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동일 권역 내에서 시기와 계층에 따른 토기양식의 차이를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두류문화연구원, 2017, 『함양 임천지구 수해상습 개선부지 내 유적(추가) 정밀발굴조사 결과약보고서』.

유적 전경

5호 목곽묘

78호 석곽묘

05 함양 공배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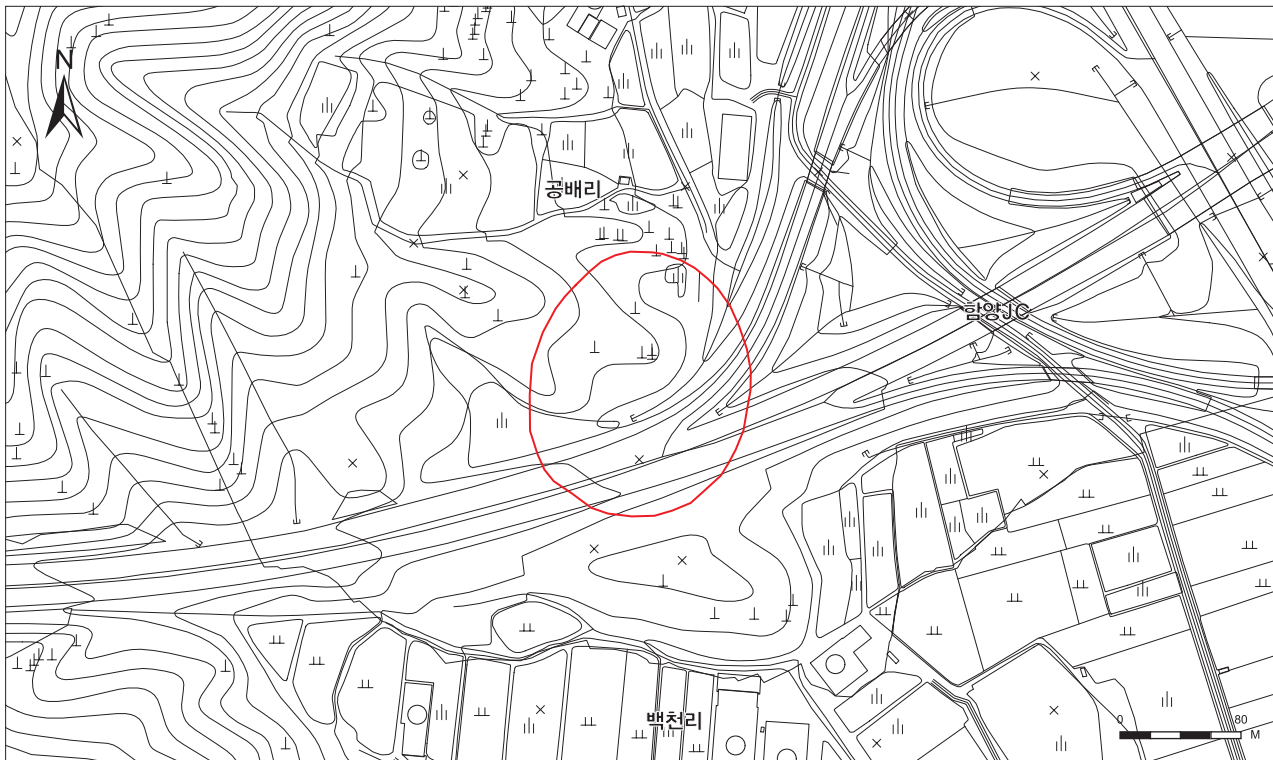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산53-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1997.8.~1997.9.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고배, 개배, 장경호

함양군 중부의 공배리 공배마을 남쪽에 있는 무덤유적이며, 소무산(해발 285m)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사면 말단부에 분포한다. 동쪽으로는 남강 수계의 남계천에 의해 곡간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백암산(해발 623m)에서 이어지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함양지역의 최대의 중심고분군인 백천리 고분군의 북서쪽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육십령을 넘어 백제지역과 연결되고, 서쪽으로 팔랑재를 통해 호남지역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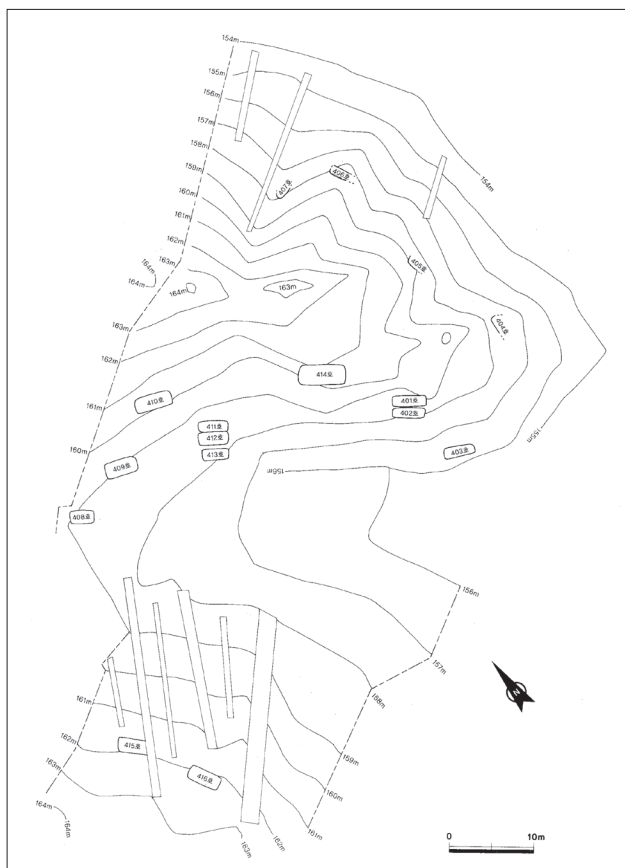
1997년에 대진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곡부를 경계로 북쪽을 A지구, 남쪽을 B지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삼국시대 석곽묘 15기와 횡구식석실묘 1기 등 총 16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해발 154~163m 사이의 구릉 사면에 분포하고, 대부분 단곽식으로 독립되어 배치되며, 다곽식 구조도 확인된다. 401~402호는 2기, 411~413호는 3기가 상하

유적 위치도

로 평행하게 연접하여 배치되어 있다. 414호묘는 석곽의 길이가 484㎝ 정도로 중대형급에 속하며, 대부분의 무덤은 중소형급의 규모에 해당한다. 개석이 잔존하는 무덤은 모두 5기이며, 할석으로 축조된 408호와 402호를 제외하면, 모두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축조하였다. 내부에서는 관정이 출토되어 목관을 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유물은 고배와 개배, 장경호, 대부장경호 등 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부분적으로 세환이식, 철촉 등이 부장된다.

출토된 토기의 편년으로 보아 6세기 중엽에 조영되었으며, 함양의 유력한 중심고분군인 백천리고분군의 하위집단에 의해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단위지역 내에서 중심고분군과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01, 『함양 공배리 고분군』.

유구 배치도

401·402호

402호 출토 유개고배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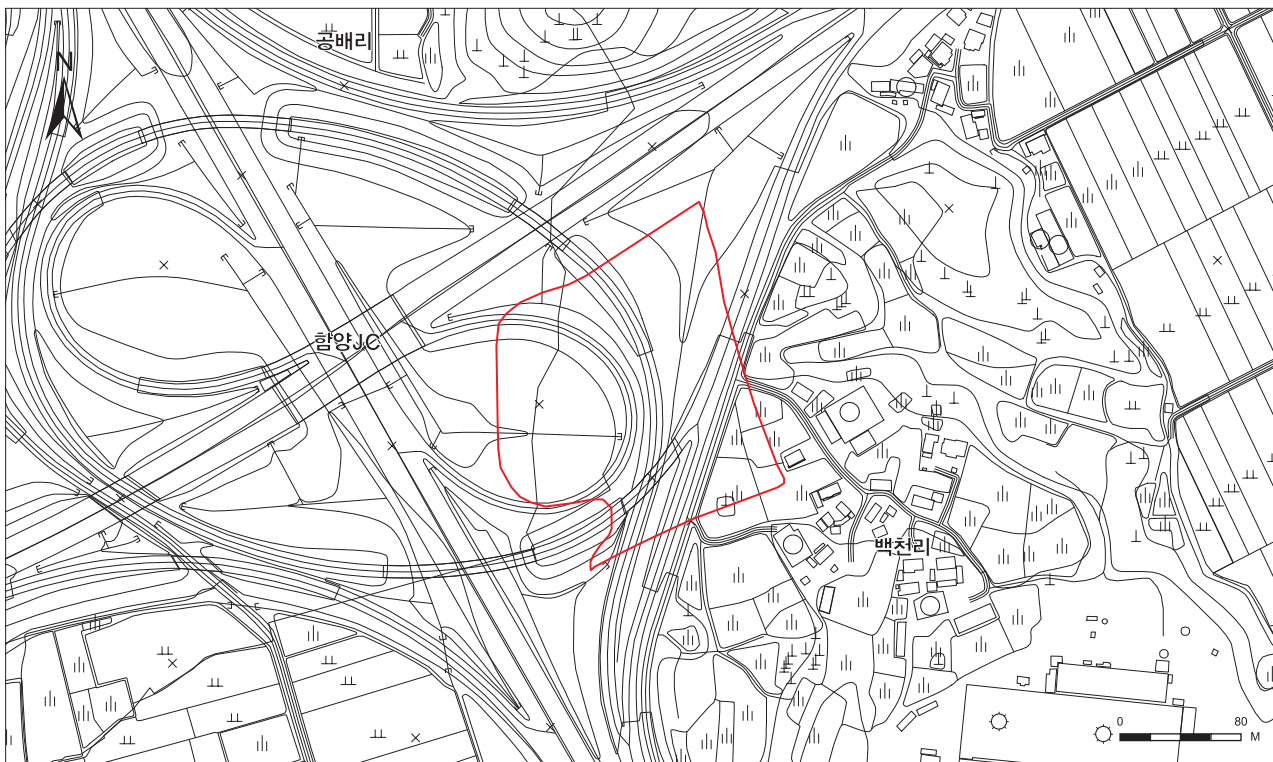
함양 백천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산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부산대학교박물관 /
1996.3.~1996.6.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석곽묘 /
고배, 개배, 기대, 이식

함양군 중부의 백천리 척지마을 북서쪽에 있는 생활유적과 무덤유적이며, 서쪽으로 돌출된 해발 170m 정도의 단독 구릉의 남쪽 사면부에 분포한다. 유적의 서쪽으로는 소하천에 의해 곡간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얕은 구릉을 두고 남강 수계의 남계천이 흐르고 있다. 영호남 지역을 동서와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며, 남동쪽으로 인접하여 함양 백천리고분군과 인접하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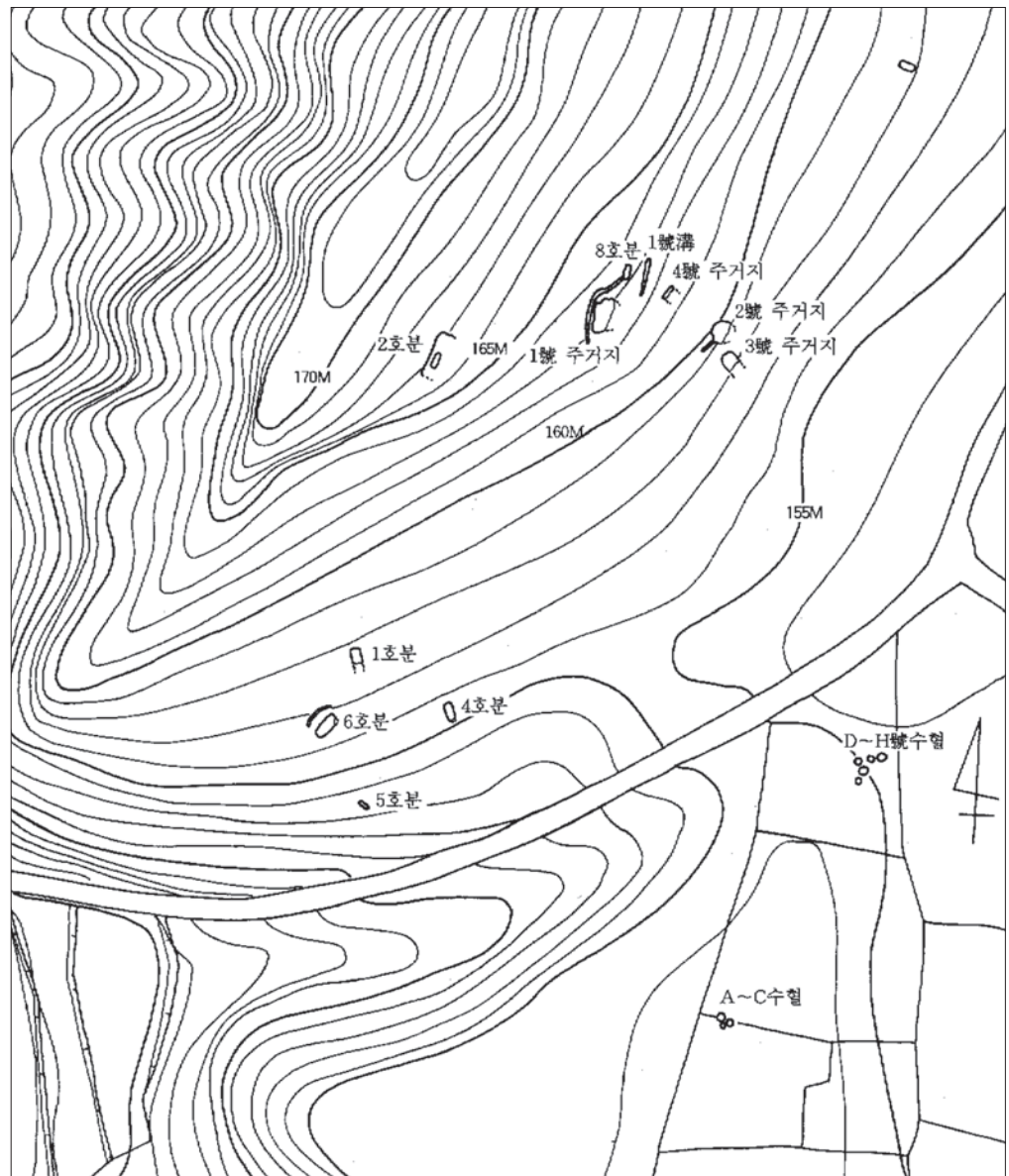
1996년에 대진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4동, 미상유구 1기, 석곽묘 1기와 함께 고려시대 석곽묘 3기, 목관묘 3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주거지는 대부분 상부가 삭평되어 정확한 구조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원형이나 타원형에 가까우나 다소 부정형을 띤다. 1호 주거지는 길이가 670㎝ 정도이며, 내부에는 소토와 목탄이 다량으로 잔존하고 있다. 또한 사면의 위쪽으로는 너비 50㎝ 정도의 주구를 돌려 배수를 용이하게 한 구조이다. 주거지와 주구의 내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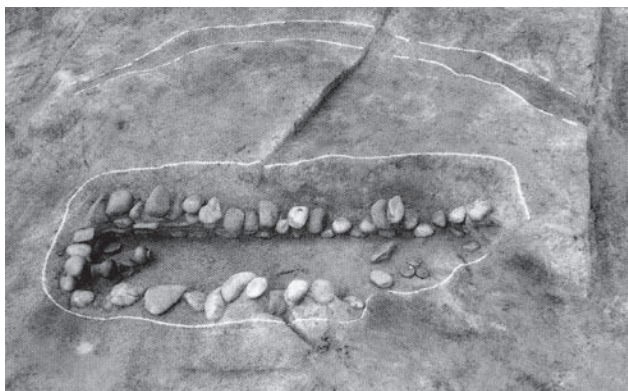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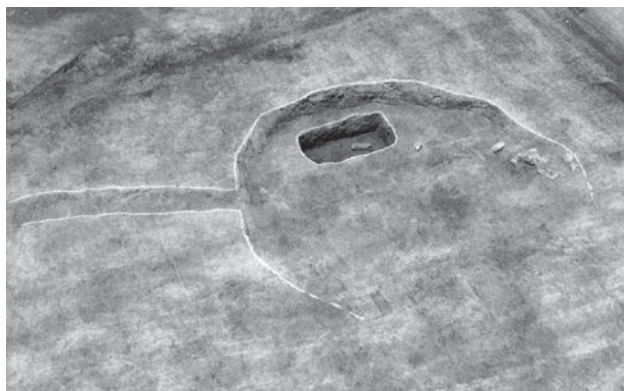
부에서는 고배, 개배, 파수부옹, 단경호, 장경호, 소형기대 등 다소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대가야 토기가 확인된다.

6호묘는 단곽식의 석곽묘로 사면 위쪽에 눈썹형의 주구가 설치되었으며, 봉분의 직경이 6m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토기는 주로 양 단벽에 부장하였고, 북단벽 쪽으로 2매의 돌을 놓아 유물 부장공간과 구분하였으며, 중앙에서는 이식 1점과 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는 개배와 장경호, 유개파수부완이 있으며, 6세기 전반대의 전형적인 대가야양식의 토기이다.

함양 백천리고분군을 조영한 집단과 관련된 생활유적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대가야의 영향이 함양지역에 어느 정도 파급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적이다.

참고문헌

부산대학교박물관, 1998, 『함양 백천리 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근경

6호분

2호 주거지

2호 주거지 저장혈

6호분 출토유물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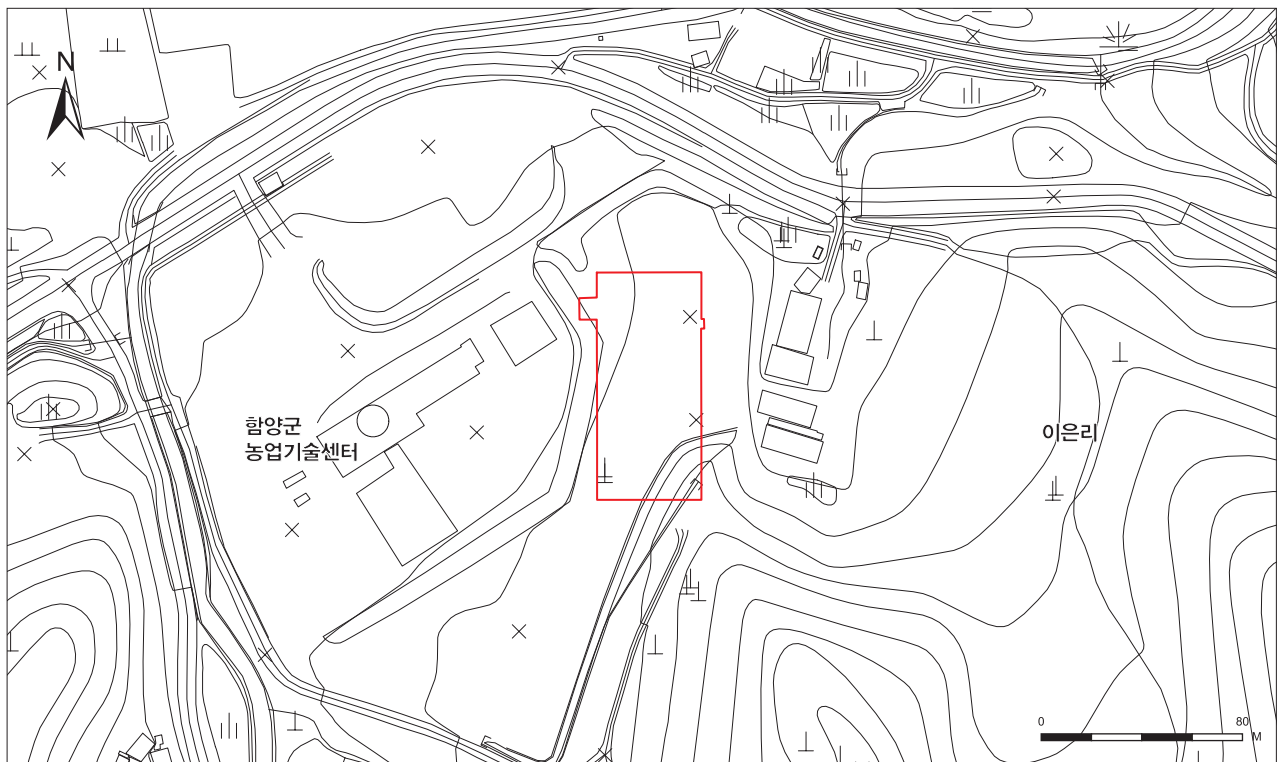
함양 이은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52-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14.8.~2014.10.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석곽묘 /
고배, 수평구연호,
노형토기, 장동옹, 시루

함양군 중부의 남산마을 북쪽에 있는 생활유적과 무덤유적이며, 화장산(해발 85m)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산지 말단의 구릉 정선부에 분포한다. 남쪽으로는 삼봉산에서 화장산으로 이어지는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쪽으로는 남강 수계의 위천과 접하고 있다. 위천 넘어 북쪽으로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서쪽으로는 구룡천이 위천과 합류하면서 곡간평야를 이루고 있다. 위천의 활주사면부와 맞닿아 있어 폐쇄적인 지형이며, 다만 남쪽으로 고개를 넘어 손곡리 유적이 있는 함양 남부지역과 연결되는 교통로 상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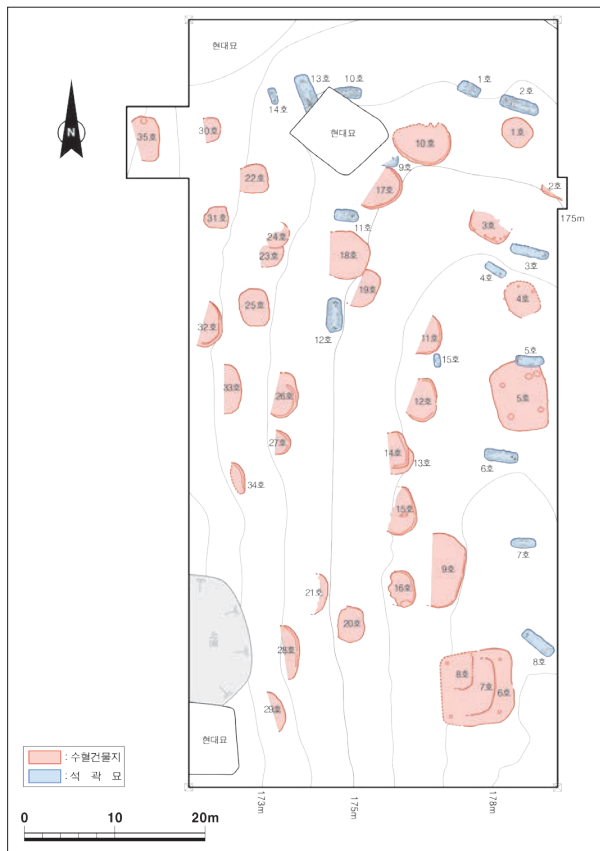
2014년에 함양 농업기술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35동, 석곽묘 15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주거지의 입지는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5·6·9·10호 등 비교적 대형에 속하는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계와 방형계로 구분되며, 시간성을 가지고 방형계가 원형계를 파

유적 위치도

괴하면서 축조되고 있다. 부뚜막은 주로 방형계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지각으로 토기나 석재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4호와 16호 주거지는 벽주혈이 확인되며, 방형계인 5·6호 주거지는 네 모서리에 4개의 주혈이 배치된 4주식을 띠고 있다. 수혈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고배, 노형기대, 장동옹, 시루 등이 토기류가 대부분이며, 완형무투창고배를 비롯하여 4세기대 서부 경남지역에서 확인되는 전형적인 토기양식이 확인된다.

석곽묘 역시 구릉의 정선부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부분적으로 선대의 수혈주거지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복양상은 뚜렷하지 않다. 벽석은 세워쌓기와 눕혀쌓기를 혼용하였으며, 시상은 대부분 별다른 시설없이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3·6·12호 석곽묘에서는 바닥에 목관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회색의 유기물흔이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양단 혹은 한쪽 단벽을 중심으로 부장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삼각투창고배, 수평구연호, 수평구연발형기대 등 소가야양식 토기와 함께 대가야양식의 유개식장경호와 소형기대 등이 혼재하며, 5~6세기대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천을 마주보는 돌출된 구릉의 정선부에 4세기대 생활유적과 5~6세기대 무덤유적이 연속적으로 조영된 유적이다. 4~6세기에 걸쳐 동일 지역에 대한 공간활용의 측면에서 주목되는 유적이며, 다양한 양식의 토기를 통해 함양지역 단위집단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6, 『함양 이은리 유적-함양 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 내-』.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08

함양 신관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산31-1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우리문화재연구원 /
2009.7.~2009.12.

주요 유구 / 유물
토기가마, 수혈유구 /
고배, 기대, 시루, 이기재

함양군 중부의 신관리 관변마을 북쪽에 있는 산업생산유적이며, 백암산(해발 622m)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정선부와 곡간부에 분포한다. 남쪽으로 남강 수계의 위천이 동서로 흐르면서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동쪽으로 비교적 낮은 저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쪽으로는 팔랑재를 건너 전라북도 남원시와 영남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입지한다.

2009년에 함양 본백~용평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인하여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Ⅱ-1구역에서 삼국시대 토기가마 4기와 수혈유구 10기가 조사되었다. 그 서쪽의 충적지인 Ⅰ구역에서는 고려시대 건물지가 주로 확인되었으며, 인접한 동쪽 구릉인 Ⅱ-2구역에서도 고려~조선시대의 생활유적과 무덤유적만 확인되고, 동시기의 유적의 분포하지 않는다.

토기가마는 해발 200m 내외의 구릉에서 서쪽 사면부인 195~185m 상에 위치하며, 4

유적 위치도

기가 분포하고 있다. 1호 토기가마는 다른 가마와 이격되어 단독으로 위치하며, 반지하식으로 판단되고, 다소 세장한 형태이다. 이에 비해 2~3호 토기가마는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는 지하식의 형태로 요전부 하단은 구릉의 침식곡으로 이어져 명확하지 않다. 연소부와 소성부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는 구조이며, 요상의 너비가 약하게 줄어들고, 경사도에서 차이가 있다. 소성부는 무계무단식으로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1호 토기가마에서는 소성부 양벽면을 따라 석렬이 일부 확인되어 가마 벽체를 보강한 것으로 추측된다. 출토된 유물은 모두 토기이며, 고배, 기대, 장경호, 소옹, 시루와 이기재, 이상재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토기가마와 함께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서 부정형한 타원형의 수혈유구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토기가마 요전부 아래의 폐기장과 마주하는 구릉의 사면에는 7호 수혈유구가 있으며, 바닥은 요철을 이루고, 북동쪽으로는 대형의 수혈이 있는 형태로 사면 위쪽의 벽면을 따라서 얕은 벽구가 돌아가고 있다. 내부에서 토기가마 출토품과 유사한 형식의 토기가 다수 확인되어 토기가마와 관련된 공방과 같은 시설일 가능성도 있다.

토기가마의 구조 및 출토된 유물로 보아 후기가야 토기의 지역색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5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유적이다. 대가야양식으로 보이는 통형기대와 소가야양식의 무개식삼각투창고배, 발형기대가 혼재되어 있으며, 주변의 생활유적과 분묘유적 자료와 함께 토기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우리문화재연구원, 2011, 『함양 신관리 유적-함양 본백~용평 간 도로확장 사업부지 내-』.

유구 배치도

09 함양 우명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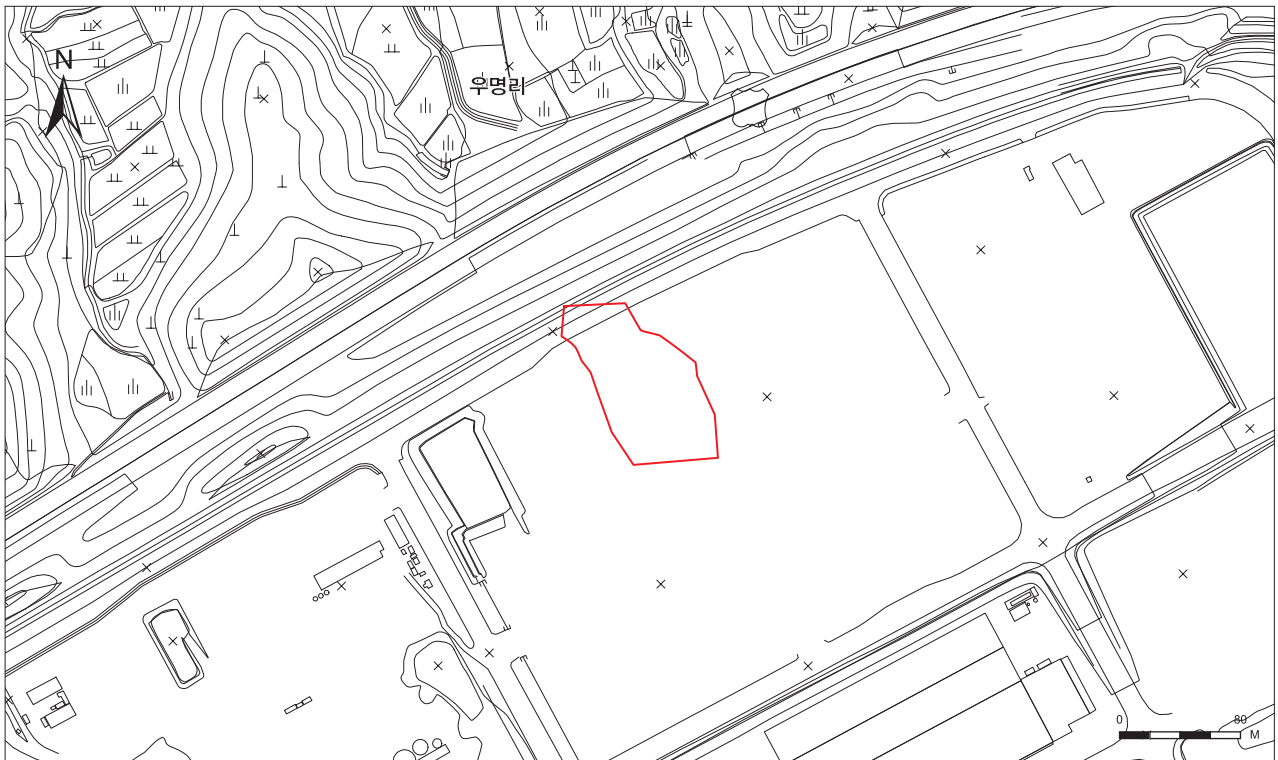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서문물연구원 / 2007.2.~2007.5.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수혈유구 / 고배, 파수부완, 장동옹, 시루, 양이부단경호

함양군 동부의 우명리 효리마을 남동쪽에 있는 생활유적이며, 연화산(해발 444m)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구릉 사이의 곡간부에 분포한다. 유적의 동쪽으로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서쪽으로는 남강 수계의 남계천이 흐르면서 비교적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거창지역에서 산청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팔랑재를 넘어 호남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한 입지이다.

2007년에 함양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동서문물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1동, 수혈유구 10기, 구상유구 1기, 조선시대 건물지 2동, 수혈유구 2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 98점, 방추차, 어망추 등 토제품 5점, 철기 1점 등 104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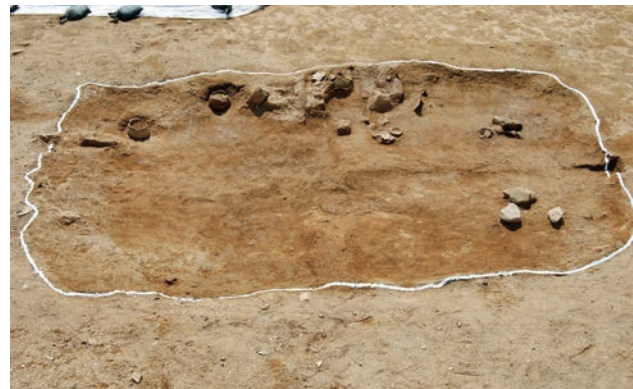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이고, 주거지 간의 중복관계는 없으며, 4~7동씩 소규모 단위로 군집을 이루면서 형성되어 있다. 부속시설로는 부뚜막, 벽체, 선반시설, 기

유적 위치도

등구멍 등이 확인된다. 부뚜막은 6기에서 확인되며, 주거지의 남쪽 벽면과 직교되게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6호와 10호, 11호 주거지에서는 점토를 정지한 후 단을 만든 선반시설이 확인되며, 장동옹이 정치된 상태에서 출토되어 저장용기를 보관한 시설로 판단된다. 주혈은 1호와 11호 주거지 등 5기에서 4주식의 형태로 확인되며, 5호와 11호 주거지는 바닥에서 다량의 목탄이 잔존하고, 벽체에서 바닥에 걸쳐 경사지게 함몰된 소토가 확인되어 화재주거지로 판단된다. 주거지의 바닥과 내부토에서는 개배, 장동옹, 소옹, 시루 등의 생활토기가 출토되었다. 격자 및 평행타날이 이루어진 원저의 장동옹과 시루가 주류를 이루며, 대가야양식의 개배와 파수부완, 양이부단경호 등이 확인되어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전반대에 형성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4세기대 취락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주변 지역과 비교하여 5~6세기의 후기가야 취락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유적이다. 주거지 간의 중복양상이 확인되지 않고, 접근성이 낮은 곡간부에 입지하는 등 일시적으로 형성된 취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동서문물연구원, 2009, 『함양 우명리 유적–함양 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유적–』.

유구 배치도

3호 주거지

출토유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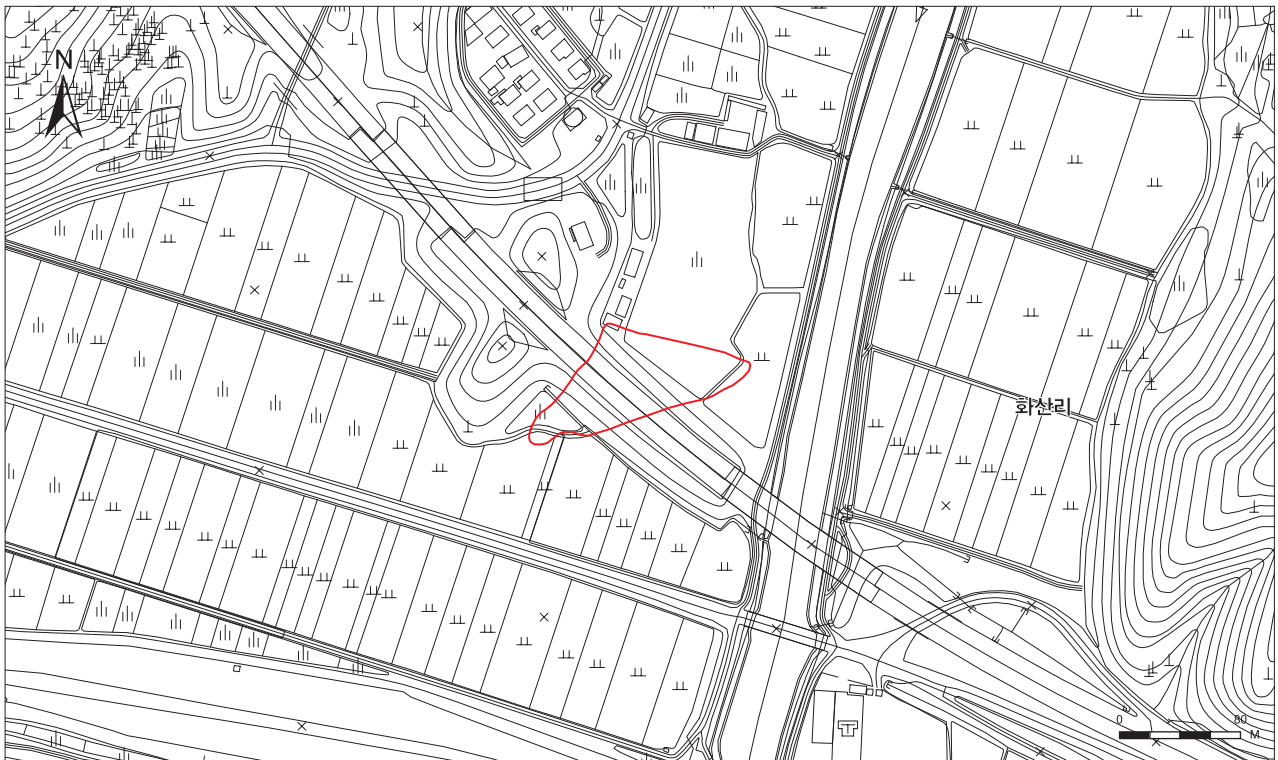
함양 화산리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871-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2004.10.~2005.10.

주요 유구 / 유물
수혈주거지, 고상건물지 / 고배, 장동옹, 시루, 단경호

함양군 남부의 수동면소재지 동쪽에 있는 생활유적이며, 연화산(해발 444m)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구릉과 경호강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가 접하는 경사변환대에 분포한다. 남동쪽으로는 남강으로 합류하는 남계천과 죽산천이 합류하면서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비교적 낮은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다. 지리적으로는 남강 수계의 남계천을 통해 함양과 산청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해당하며, 북쪽으로는 곡간을 따라 거창지역으로 통하는 요충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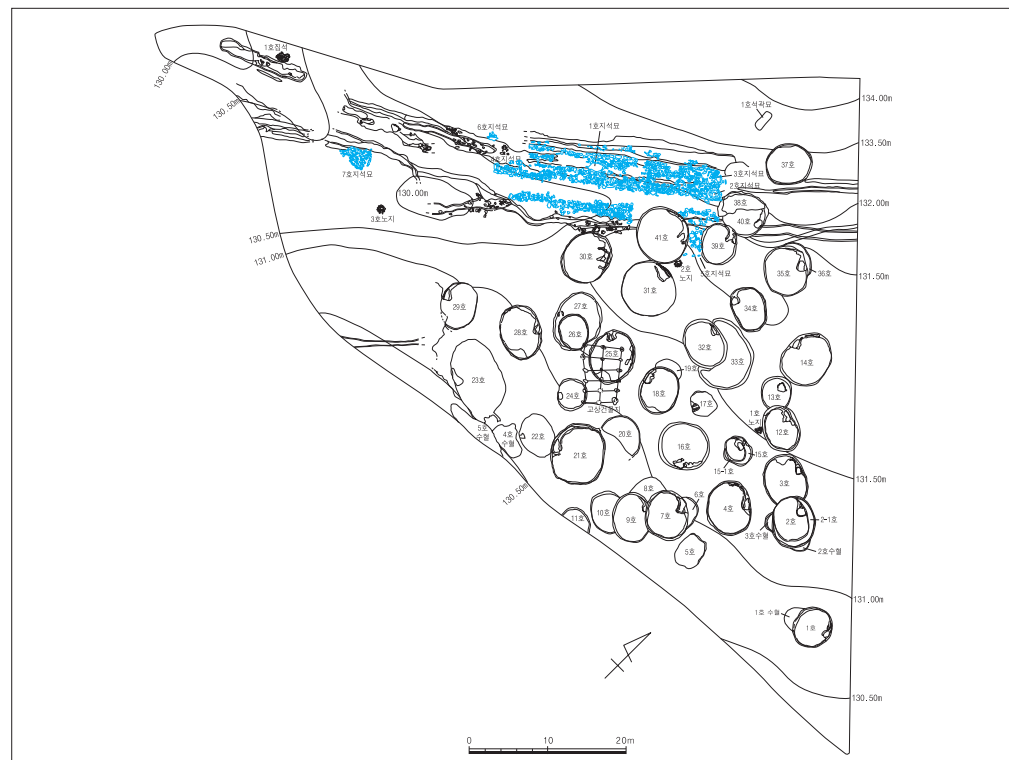
2004~2005년에 함양 수동~안의간 국도확장공사로 인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43동, 고상건물지 1동, 수혈유구 5기 등이 확인되었다. 수혈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과 타원형이 주류를 이루며, 다수의 주거지가 중복되어 배치되어 있는데,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닥과 벽면에는 점토를 발랐으며, 30동의 주거지에서 부뚜막이 확인되며,

유적 위치도

부뚜막의 위치는 북쪽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남쪽에 설치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주로 주거지의 벽면과 나란하게 부뚜막이 있고, 벽면을 따라 고래가 일주하는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둥구멍은 주거지의 내외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35호와 41호 주거지는 벽면을 따라 1m 간격으로 벽주가 잔존하고 있다.

출토된 유물을 목리조정된 장동옹을 비롯하여 평저의 시루, 양이부단경호, 완형무투창고배가 있으며, 유적의 조영시기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5-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양이부호는 외면에 격자타날이 이루어진 도질토기로, 김해 대성동 29호분나 김해 양동리 235호분와 비교될 수 있는 토기이며, 광역에 따른 토기의 교차편년에 유효한 자료이다. 또한 무문토기 제작전통의 지속, 소성상태, 기형 등으로 보아 인접하여 진주 내촌리, 평거동, 가좌동유적 및 사천 봉계리유적과 동일한 토기문화권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함양 화산리유적은 서부 경남지역에서 대표적인 가야의 생활유적으로서 주목을 받았으며, 원형계 수혈주거지로 구성된 3~4세기대 표지적인 유적이다. 또한 출토된 유물에 있어서도 주거지 간의 중복관계를 통해서 보다 세밀한 편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인접하여 조사된 함양 우명리유적 및 산청 하촌리, 갈전리유적과 비교하여 가야 취락의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이다.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7, 『함양 화산리 유적– 함양 수동~안의간 국도확장구간내 유적 보고서–』.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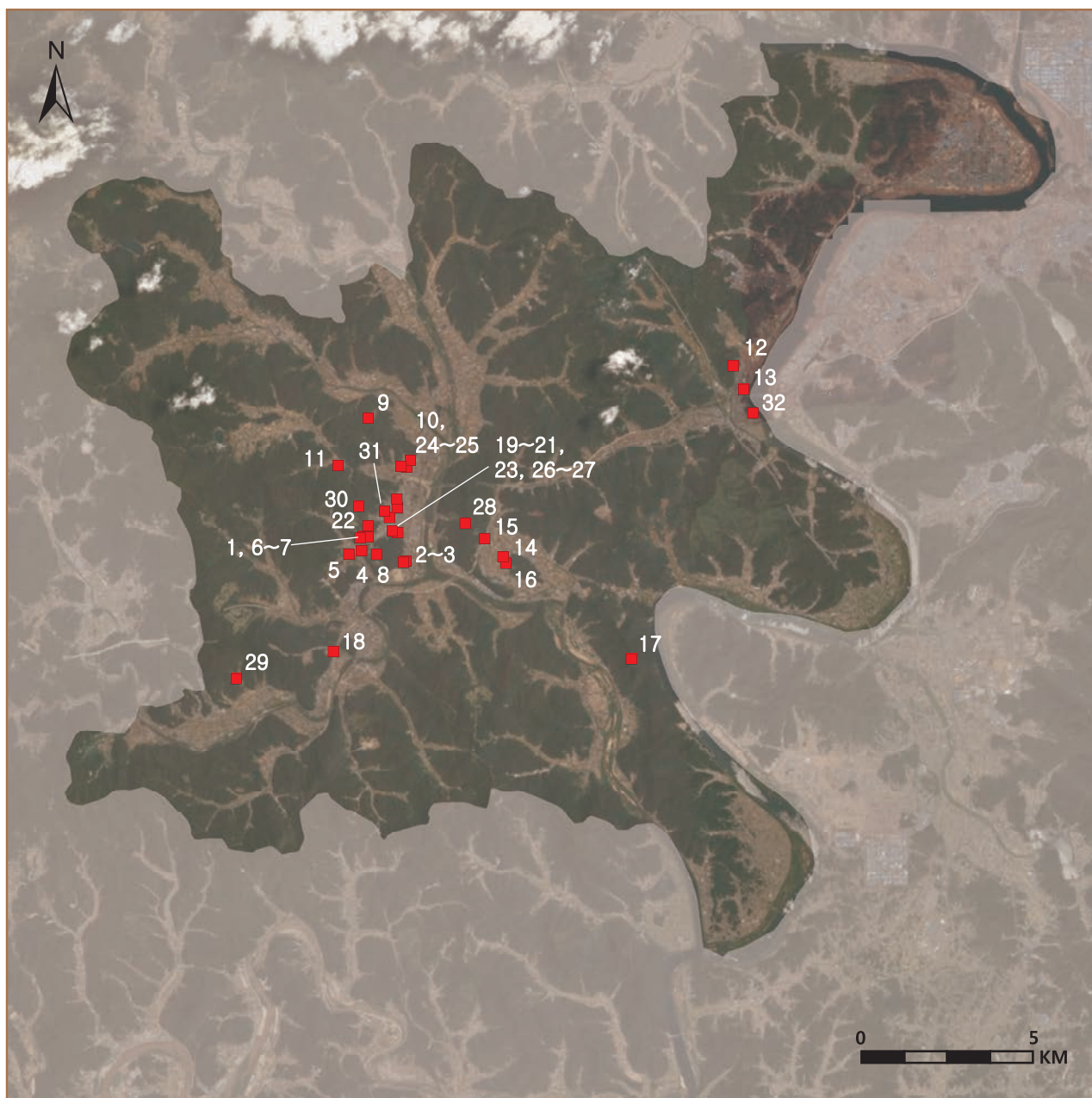
3호 주거지

화재 주거지

토기류

Ⅵ. 고령

N
12
13
32
9
10,
24~25
19~21,
23, 26~27
11
31
30
22
28
15
1, 6~7
2~3
14
5
4
8
16
18
17
29
0
5
KM

01

고령 지산동고분군

高靈 池山洞古墳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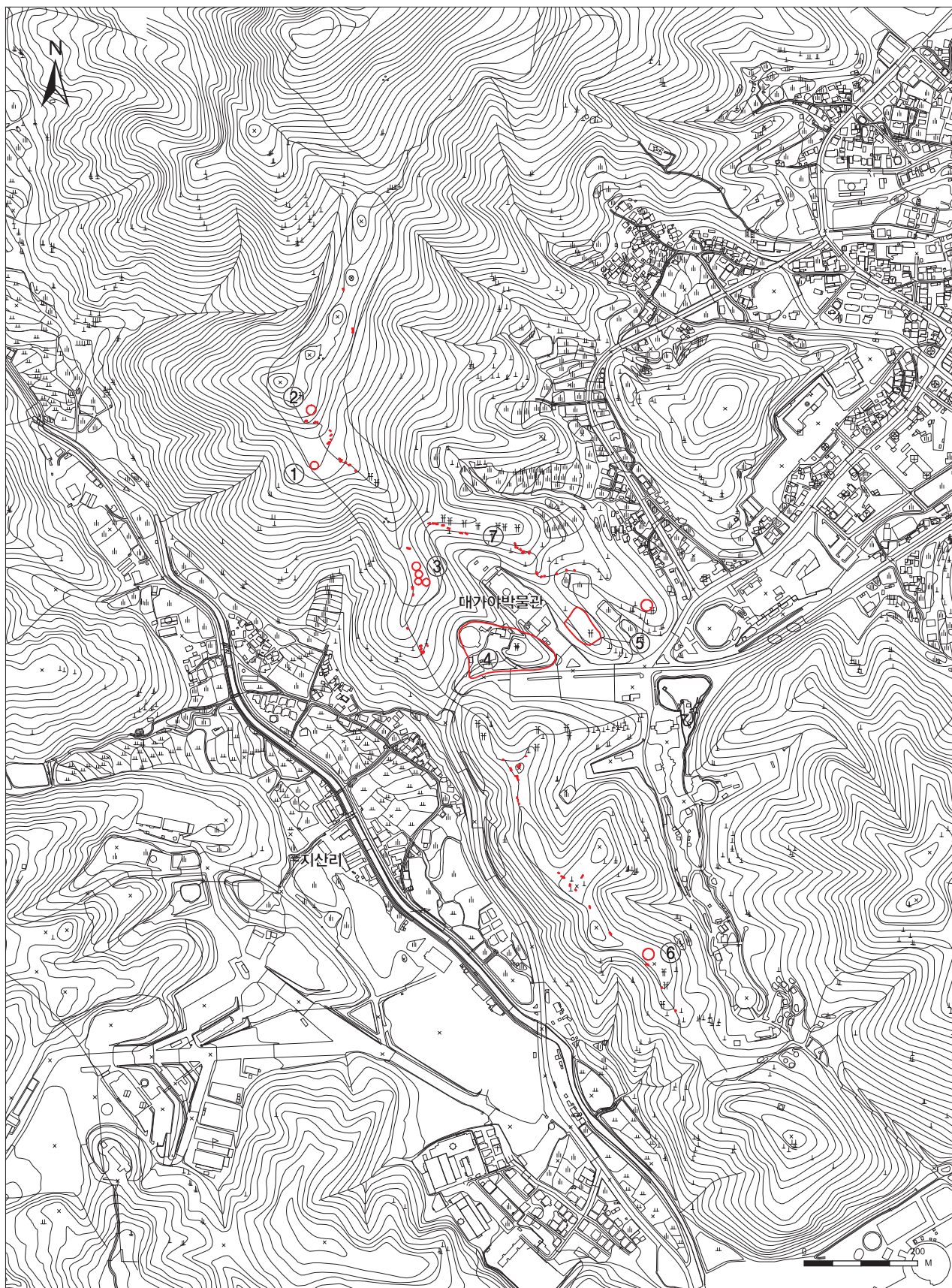
| 사적 제79호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에 있는 삼국시대의 고분군으로 고령의 진산인 주산主山의 남편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읍내 쪽의 가지능선 일대에 분포한다. 대형분은 주로 남쪽 능선, 중형분은 읍내 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에 분포하고 주변으로는 소형분과 소형 석곽들이 조성되어 있다.

고분군은 봉토분 30여 기와 소형분 및 석곽묘 400여 기 정도가 발굴조사되었다. 대가야 유구는 1910년 이후 일본학자들에 의해 7차례 정도가 조사되었으나 구체적인 보고는 없다. 조사가 본격화되고 대가야사 연구가 촉발된 시발점은 1977년 제44·45호분 조사에서 순장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부터이다. 이후 1978년 계명대박물관에 의해 제32~35호분, 1994년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대가야왕릉전시관부지에서 제30호분과 수혈식석곽묘 227기, 옹관묘 1기, 2007~2008년 대동문화연구원에 의해 제73~75호분과 주변고분 11기, 2012~2013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제518호분, 2017~2018년 탐방로 전체구간에 대한 대동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에서 석곽묘 및 석실묘 89기가 조사된 바 있다. 그 외 사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지산동고분군에 포함되는 대가야박물관 부지에서는 2000년 경북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수혈식석곽묘 77기, 토광묘 1기, 옹관묘 1기 등이 조사된 바 있다.

매장주체부는 대형분의 경우, 가장 이른 시기인 5세기 초의 제73호분은 주곽을 위석목곽묘를 택하고 있지만 거의 동시기인 제75호분 이후에는 수혈식 석실 및 석곽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중대형분의 대다수는 주석실 옆에 부장곽 및 순장곽이 설치되었다. 부장곽은 석실과 평면 'T'자형으로 배치되다가 점차 '11'자형으로 나란히 배치하는 변화를 보인다. 순장곽은 대체로 고분의 규모가 클수록 많이 배치되며, 6세기 전반 순장곽이 사라지며 배장곽이 크게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세기 중엽에 가까워지면 백제 지역의 횡구식 및 횡혈식석실분이 도입되기 시작한다. 소형분은 할석 또는 판석을 세워 벽체를 축조한 수혈식석곽묘가 주류이며, 일부는 단벽의 한쪽에 칸막이를 세워 부장칸으로 사용한 것도 있다. 봉토는 석곽이나 석실의 장축방향으로 약간 긴 타원형을 이루되 석곽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호석을 갖추고 있다. 또한 능선 하단부와 계곡부에는 대가야 멸망기 또는 직후의 신라계 횡혈식고분이 조성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대가야의 고유색체를 지닌 장경호·기대·고배 등의 토기류를 포함하여 금동관·환두대도·금동제이식·청동환 등의 장신구, 등자·행엽·운주 등의 마구류, 그리고 갑옷·투구 등 무장구와 관정·꺾쇠·철부 등의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된 바 있다.

고분군은 대가야 치소지治所地의 주 고분군으로 5세기 초 왕도건립과 동시에 축조되

유적 위치도

연번	유적명	조사기관	조사기간	보고서명
1	고령 지산동 44호분	경북대학교박물관	1977.11.~1978.3.	대가야고분발굴조사보고서-Ⅱ.고령 지산동 44호 고분 발굴조사보고(1979) 고령 지산동 44호분-대가야왕릉(2009)
2	고령 지산동 45호분	계명대학교박물관	1977.12.~1978.3.	대가야고분발굴조사보고서-Ⅲ.고령 지산동 제45호 고분 발굴조사보고(1970)
3	고령 지산동 고분군 -32~35호분 및 주변 고분	계명대학교박물관	1978.8.~1978.10.	고령 지산동고분군(1981)
4	고령 지산동고분군 -대가야왕릉전시관부지 내 유적	영남매장 문화재연구원	1994.9.~1995.5.	고령 지산동30호분(1998) 고령 지산동고분군Ⅰ(2004) 고령 지산동고분군Ⅱ~Ⅴ(2006)
5	고령 지산동 제73~75호분	대동문화재연구원	2007.5.~2008.6.	고령 지산동 제73~75호분(2012)
6	고령 지산동 518호분	국립가야 문화재연구소	2012.6.~2013.8.	고령 지산동고분군 518호분 발굴조사보고서(2016)
7	고령 지산동고분군 정비부지 내 유적	대동문화재연구원	2017.10.~2018.1.	고령 지산동고분군(사적 제79호) 정비부지 내 발굴조사 약보고서(2018)

기 시작하여 멸망에 이르기까지 1만여 기 이상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문헌 기록으로만 알 수 있었던 순장의 실체가 우리나라 고분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가야 고유의 순장곽과 대규모 순장풍습, 봉분조성과 고분축조 반영된 고대 토목기술, 출토유물을 통한 대가야문화권 문제와 대외교류 등 문자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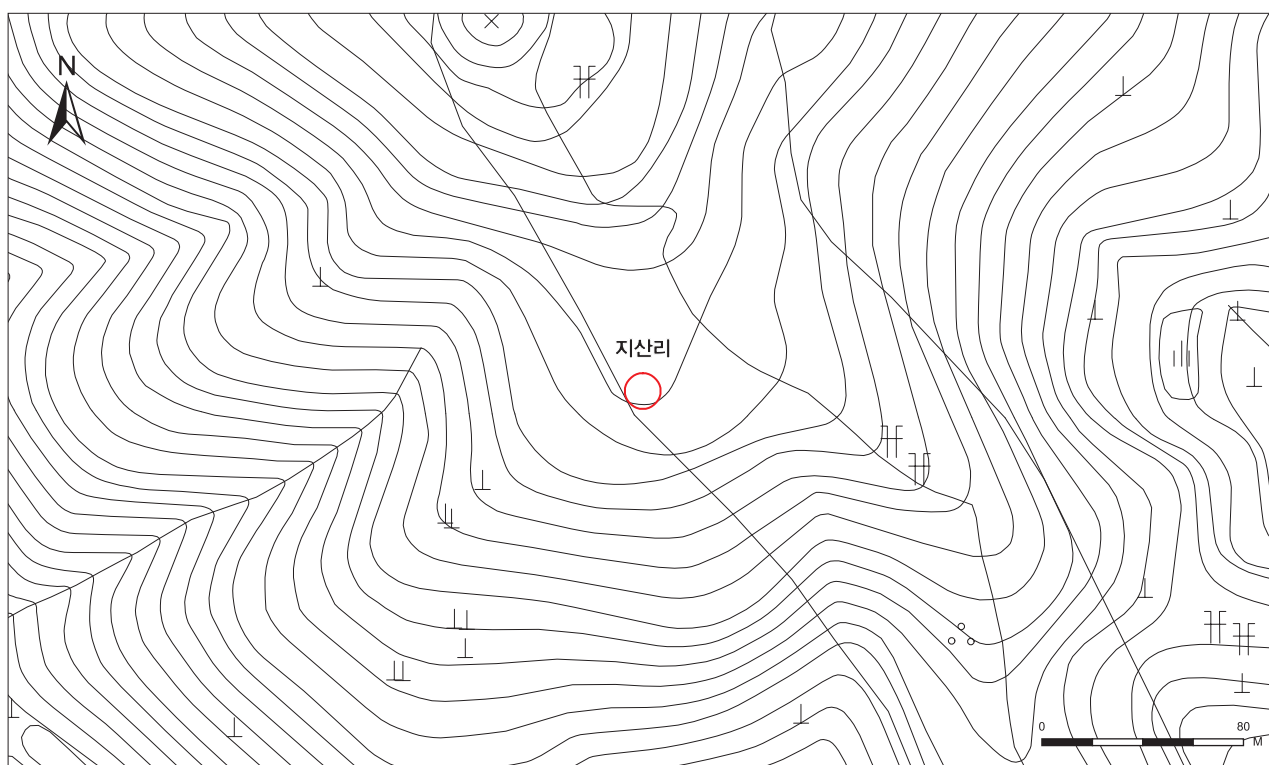
고령 지산동 44호분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2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북대학교박물관 /
1977.11.~1978.3.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석곽묘 /
동제완, 금제이식,
철제갑주, 금동장안교,
은장철모, 야광패 국자

주산성의 서남쪽 주능선이 완만한 대지를 이루는 지점에서 서쪽의 너른 비탈면을 이루는 부분에 단독으로 위치한다. 1977년 경북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하여 주석실 1기와 남쪽과 서쪽에 부장석실 2기, 그 주변으로 방사상 및 원주상으로 배치된 순장곽 32기가 확인되었다. 이 유구들은 모두 동시에 축조되어 고분 안의 피장자들이 일시에 매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순장자는 주곽과 부장곽, 그리고 순장곽 중 순장자가 매장되지 않은 허곽이 2기 있지만, 4기는 2명을 매장하여 적어도 37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부에는 매장주체부인 주석실과 서부장석실이 'T'자형을 이루고 남부장석실이 '11'자형으로 병열배치된 형태로 모두 전형적인 대가야식의 수혈식석실묘이다. 순장곽도 모두 수혈식석곽묘인데, 할석 또는 판석으로 만든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개석은 도굴에 의해 훼손된 것을 제외하면 원상태로 남아 있고, 상부를 밀봉한 점토가 확인된다. 호석

유적 위치도

은 지형이 높은 곳은 3단, 중간은 2단, 낮은 곳은 1단으로 축조되어 있고, 봉토는 구획 축조되었다.

봉분의 규모는 동서장축 27m, 남북단축 25m로 타원형이며, 잔존 높이는 2~6m이다. 주석실의 규모는 길이 9.5m, 너비 1.75m, 깊이 2.1m로 대형이며, 남부장석실의 규모는 길이 5.1m, 너비 1.3m, 높이 1.85m, 서부장석실은 길이 5.7m, 너비 1.7m, 깊이 1.8m로 남쪽이 약간 크다. 순장곽은 크기가 다양한데, 대체적인 규모는 길이 1.38~3.78m, 너비 0.3~0.64m로 좁고 긴 세장방형이다.

지산동 44호분은 5세기 말에 축조된 왕릉으로 문헌 기록으로만 알려져 있던 우리나라 고대 순장의 실제를 처음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고분으로 대형 석실 3기 및 그 주위에 순장곽 32기에서 37명이 넘게 순장하여 국내 최대 규모이다.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산 야광패로 만든 국자, 백제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잔 및 동제완을 통해 대가야의 대외교역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순장곽 3기에서 착장상태의 금제이식이 출토됨을 통해 순장자의 신분을 유추하게 되었다. 발굴성과는 이후 활발한 대가야사 연구를 촉발시켰고 오늘날에 이르러 고대국가로서의 대가야를 찾아내는 시발점을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윤용진, 1979, 「Ⅱ.고령 지산동 44호 고분 발굴조사보고」, 『대가야고분발굴조사보고서』, 고령군.

경북대학교박물관, 2009, 『고령 지산동44호분–대가야왕릉』.

유적 전경

44호분 전경

토기류

등잔 및 동제관

야광패제 국자

철제 투구

마구류

이식

무기류

01-2

고령 지산동 45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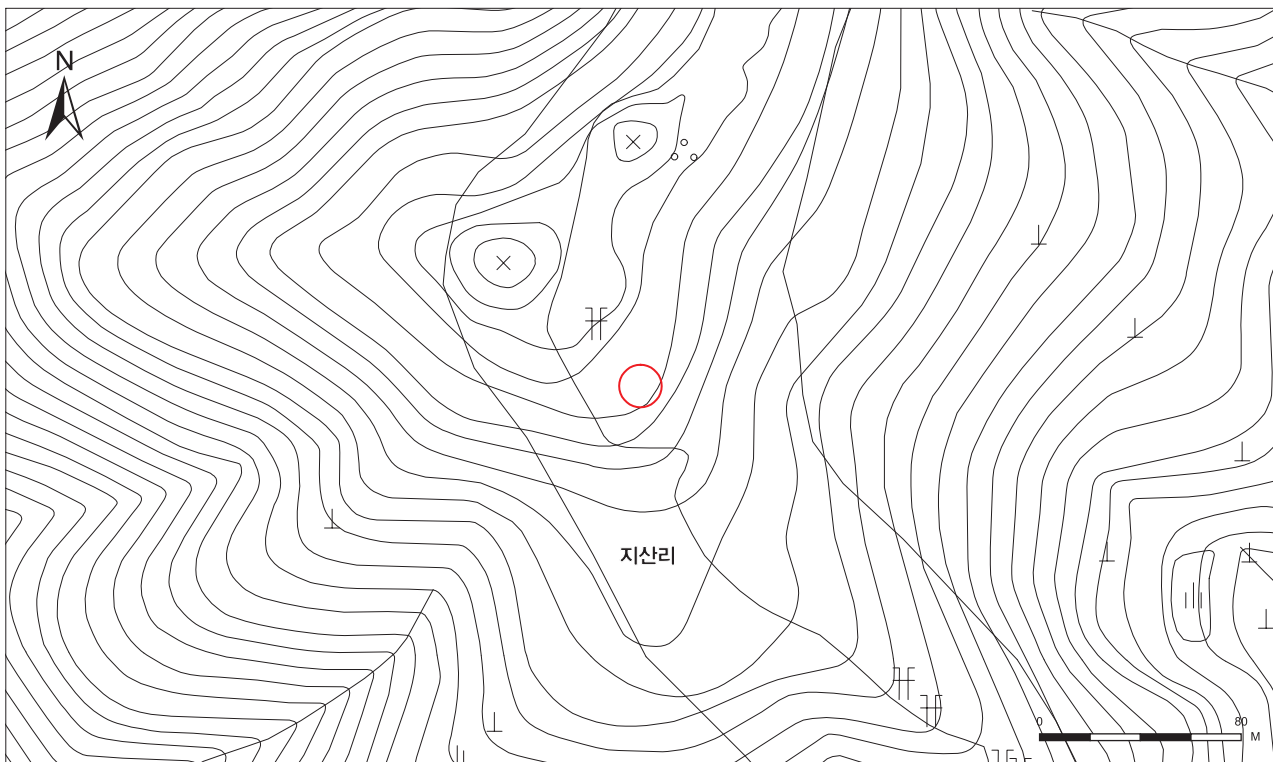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2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계명대학교박물관 / 1977.12.~1978.3.

주요 유구/유물
석실묘, 석곽묘 / 은장환두병두, 철제등자, 철제찰갑, 금동제관식편, 금제이식, 은제이식, 경식

금림왕릉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의 사면부에 위치하며 아래쪽으로 55m 떨어져 지산동 제44호분이 조성되어 있다. 1977년 계명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하여 주석실 1기와 남측에 부장석실 1기, 순장곽 11기가 확인되었다. 이 유구들은 모두 동시에 축조되어 고분 안의 피장자들이 일시에 매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순장자는 주석실에 1~3명, 부장석실에 1명, 순장곽에는 허곽이 2기 있지만 나머지에 순장자가 있어 적어도 11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부에 매장주체부인 주석실과 부장석실이 '11'자형으로 나란히 배치되었는데, 석실은 모두 전형적인 대가야식의 수혈식석실이다. 순장곽도 모두 수혈식석곽묘인데, 전반적인 분포를 보이나 지대가 낮은 남동쪽에 반원상으로 열을 이루며 집중 배치된 형태로 할석 또는 판석으로 만든 두 가지 형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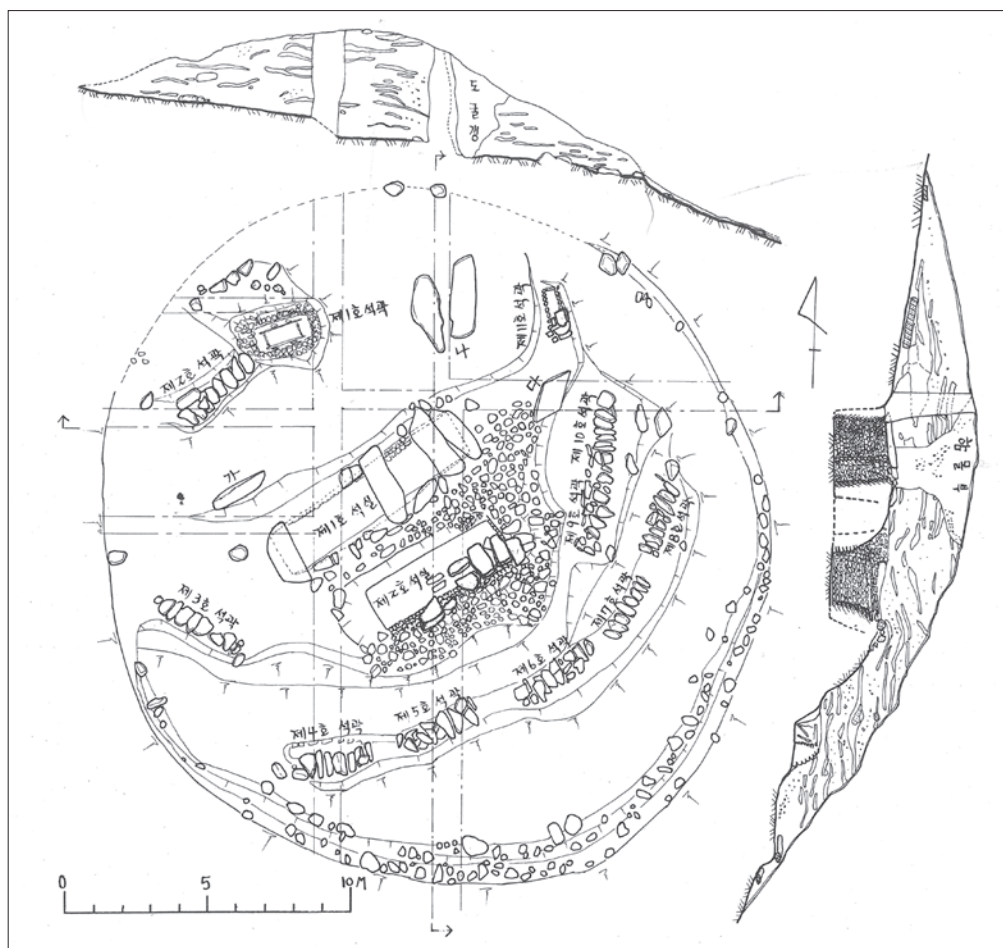
봉분의 규모는 동서장축 22m, 남북단축 23.5m로 타원형이며, 잔존 높이는 2.85m이

유적 위치도

다. 가장자리를 따라 확인되는 호석은 지형이 높은 곳은 3단, 중간은 2단, 낮은 곳은 1단으로 축조되어 있다. 주석실의 규모는 길이 7.15m, 너비 1.64m, 깊이 1.85m로 대형이며, 부장석실의 규모는 길이 4.88m, 너비 1.5m, 깊이 1.77m이다. 순장곽은 크기가 다양한데, 대체적인 규모는 길이 2.1~2.9m, 너비 0.5~0.9m로 좁고 긴 세장방형이다. 유물부장 위치는 주석실은 양 단벽부, 부석실은 양 단벽부과 중앙부, 순장곽은 양 단벽부, 한 단벽부, 부장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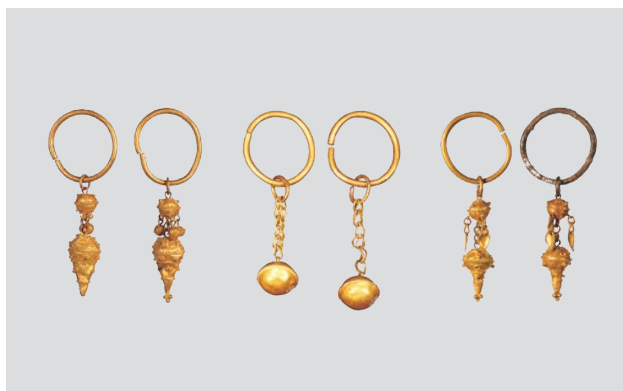
유물은 기대, 유개단경호, 유개장경호, 유대파수부호, 유개고배 등 다양한 기종의 토기류, 은장환두병두, 철촉, 철제등자, 철제찰갑, 철모, 철겸, 재갈, 행엽, 안교, 금동제관식편, 금제이식, 은제이식, 경식, 동경 편 등의 철기류와 장신구류 등이 출토되었다.

지산동 45호분은 6세기 초에 축조된 대형 고총으로 제44호분과 함께 우리나라 고대 순장의 실제를 처음 보여주었으며, 순장곽의 배열위치와 부장유물을 통해 순장자의 신분을 추론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 외 삼엽문환두대도 등을 통해 신라와의 교류를 짐작할 수 있고, 발형기대의 경우 이전의 송엽문이 사라지고 무문화되며, 원단투창고배가 출현하는 등 대가야식 토기의 변화상 연구에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고령군, 1979, 『대가야고분발굴조사보고서』.

유구 배치도

45호분

유물 출토모습

이식

토기류

01-3

고령 지산동고분군 _ 32~35호분 및 주변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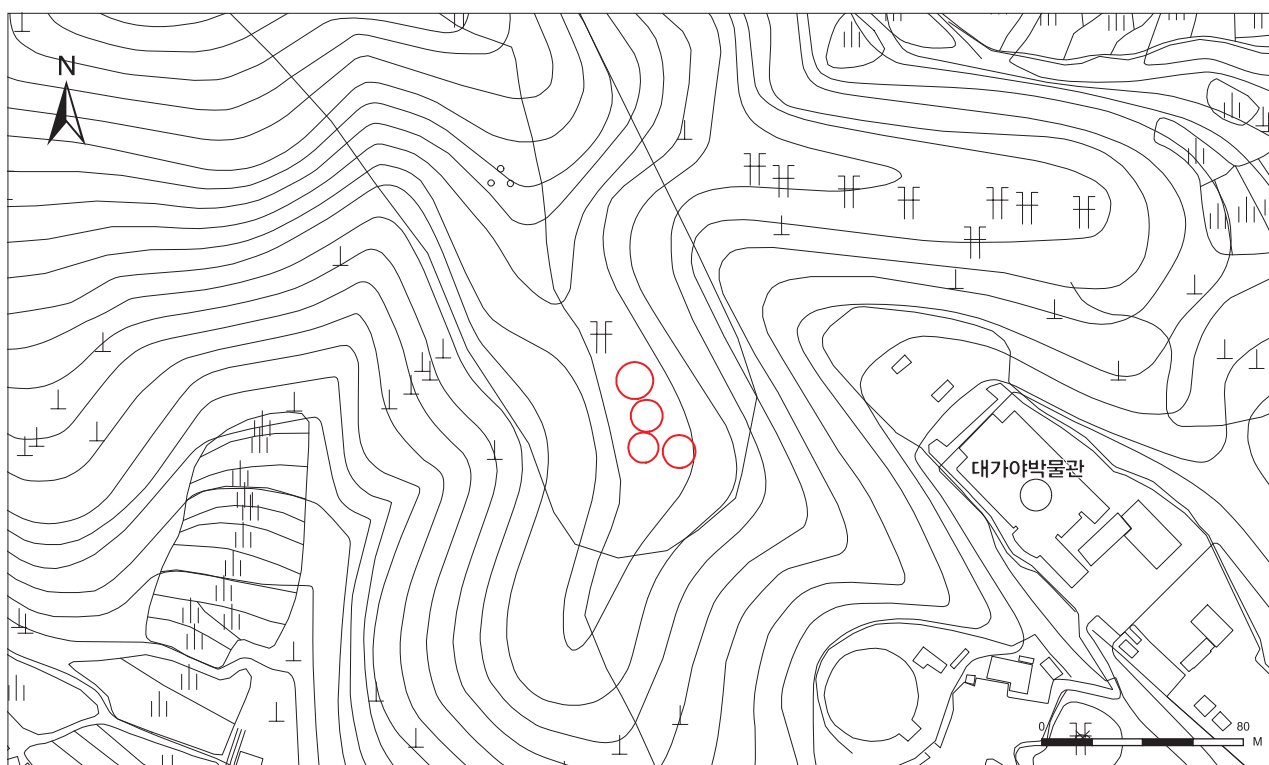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2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계명대학교박물관 / 1978.8.~1978.10.

주요 유구/유물
석실묘, 석곽묘 / 금동관, 갑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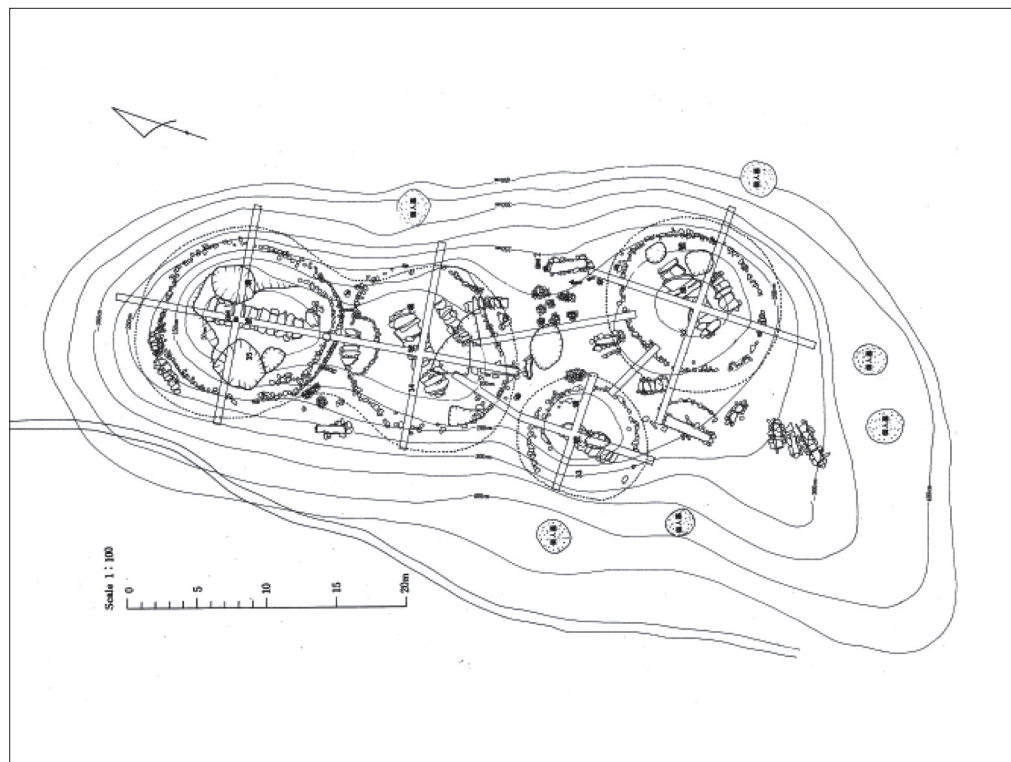
고령 주산성에서 서남으로 뻗어 내린 주능선의 중턱에 형성된 설상대지에 분포하는 중형급 봉토분 4기이다. 제32~35호분은 중형분으로 매장주체부는 할석조 수혈식석실이며 제32·34호분은 순장곽이 1기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할석과 판상석으로 축조된 수혈식석곽 14기가 조사되었다.

제32호분은 타원형 봉토분으로 수혈식주석실과 그 옆에 병렬로 배치된 순장곽 1기를 갖추고 전체를 감싸는 호석을 돌렸다. 봉분 규모는 장축 13.1m, 단축12.6m, 높이는 1.5m의 중형급이다. 석실 규모는 길이 5.64m, 너비 0.98m, 깊이 1.2m이다. 내부에서는 장경호, 단경호, 기대, 고배, 모자합母子盒 등의 토기류와 금동관을 비롯하여 대도·소도·철촉 등의 무기류, 갑옷과 투구 등의 무장구, 안장·등자·말 장식 등의 마구류, 그밖에 관정과 꺾쇠가 출토되었다.

제33호분은 순장곽을 구비하지 않은 타원형 봉토분으로 봉분 규모는 장축 8.8m, 단

유적 위치도

축 7.4m, 잔존높이 1.28m이고 호석이 잘 구비되어 있다. 석실 규모는 길이 4.5m, 너비 0.86m, 깊이 1.4m로 바닥은 자갈을 깔았으며 벽체는 네 모서리의 상단부를 약간 내밀고 석재 사이에는 진흙을 발라 견고하게 하였는데, 지산동고분군 중에서 가장 정교하게 축조된 상태를 보여 준다. 내부에서는 고배, 장경호, 유대이부장경호, 유대삼이부장경호 등의 토기류, 유리제 및 다면옥 등 장신구류, 대도·철촉·철겸·철부 등의 무기류, 등자·안교·재갈 등의 마구류가 출토되었다.

제34호분은 타원형 봉토분으로 수혈식석실과 옆에 작은 순장곽 1기를 갖추고 전체를 감싸는 호석을 돌렸다. 봉분 규모는 장축 15m, 단축 11.5m, 잔존높이는 1.6m이다. 봉분은 제35호분에 붙여 표형으로 축조하였으나, 내부 구조는 바닥 시설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지산동 32호분과 같다. 주석실의 규모는 길이 6.33m, 너비 1.14m, 깊이 1.53m이다. 석실에는 거의 유물이 남아있지 않으나 순장곽은 온전하여 장경호, 단경호, 기대, 개배, 파수부평저소호 등이 출토되었는데, 순장곽의 출토 유물로서는 다양하고 수량도 많은 편이다.

제35호분은 타원형 봉토분으로 별도의 순장곽을 갖추지 않았다. 봉분 규모는 장축 14m, 단축 13.4m, 잔존높이 1.45m로 중형급이다. 호석은 지형이 높은 쪽은 높게, 낮은 쪽은 낮게 축조되어 있다. 석실의 개석은 모두 중간이 'V'자형으로 꺾인 상태이며, 그 윗면에는 회백색점토로 밀봉되어 있다. 석실 규모는 길이 6.66m, 너비 1.01m, 깊이 1.56m로 북쪽이 남쪽보다 너비가 약간 넓다. 내부에서는 대호·단경호·기대 등의 토기류, 유자

유구 배치도

이기·철모·소도·축소모형철기·꺾쇠, 관정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고분의 조성시기는 제35호분이 5세기 초로 가장 이르며, 제32~34호분은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제32·35호분에서는 봉분을 쌓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분담 작업을 위해 구분한 경계선상의 구획석렬이 확인되어 국내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그 외 호석을 훼손한 배장옹관, 호석 주위를 깎아내어 더 큰 봉분 효과를 내는 대상기법, 내호석렬의 존재, 분외 제사지의 양상 등 다양한 축조기술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제32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대가야고분에서 처음으로 출토되었을 뿐 아니라 그 형태가 국내 유일한 광배형光背形으로 그 형태와 흡사한 은동관이 일본 후쿠이현福井県에서 출토되어 5세기경 대가야와 일본의 교류양상을 연구하는데 중요자료가 되고 있다. 그밖에 제32호분에서는 완전한 상태의 투구와 갑옷이 출토되어 철제로 무장한 대가야 기마무사의 표준모델이 되었다.

참고문헌

계명대학교박물관, 1981, 『고령지산동고분군』.

토기류

금동관 · 갑주 · 성시구

01-4

고령 지산동고분군 _ 대가야왕릉전시관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2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 1994.9.~1995.5.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석곽묘 / 암각화, 투구, 삼엽문환두대도, 금동관

유적은 지산동고분군의 주능선으로부터 동남쪽으로 뻗어 내린 지맥사이에 자리잡은 계곡과 사면부에 위치하는데, 대가야왕릉전시관이 들어선 일대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대가야의 대형분인 제30호분과 수혈식석곽묘 227기, 옹관묘 1기와 신라의 횡혈식석실분 51기, 고려시대 석곽묘 11기, 토광묘 27기, 조선시대 토광묘 25가 조사되었다.

제30호분은 타원형 봉토분으로 봉분 규모는 장축 18m, 단축 15m이고, 잔존 높이 1.5m이며, 호석의 일부와 주구가 확인된다. 매장주체부는 지하식의 주석실과 부장석실이 'T'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순장곽은 주석실 어깨선 주위에 'ㄷ'자형으로 4기를 배치하고, 주석실 바닥 아래에도 1기를 설치하였다. 주석실의 규모는 길이 6.45m, 너비 1.26m, 깊이 1.7m로 바닥에는 잔자갈을 깔았고, 부장석실의 규모는 길이 4m, 너비 1.25m, 깊이 1.3m이다. 주석실에서는 상부 개석과 바닥에 설치된 순장곽 개석에서 암각화가 발견되었고, 바닥에서는 발형기대·장경호 등의 토기류, 금동제성시구·철촉·철모 등

유적 위치도

의 무기류, 등자·행엽 등의 마구류, 그리고 덩이쇠 20매가 출토되었다. 그외 봉토 내 동순장곽(30-2호)에서는 3~11세의 유아 또는 소아의 머리뼈 일부와 함께 금동관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수혈식석곽묘 227기는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매장자의 신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중복관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구조는 할석식석곽이 28%, 판석식석곽이 63%, 할석+판석 혼용식이 0.9% 정도를 차지하여 판석식이 주류임을 보여준다. 개석은 할석식석곽묘의 경우 장방형 석재 5~7매를 횡가하여 중앙에서 양 단벽부로 덮고 양 단의 개석은 반달형으로 처리한 것이 많고, 판석식의 경우 1~3매 정도 덮었는데, 2중 개석도 확인된다. 매장주체부는 석곽 내에 목곽(관)을 설치한 것, 격벽을 설치하여 별도의 부장칸을 마련한 것으로 대별된다. 바닥시설은 할석이나 판석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설치한 것,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한 것, 대호 편을 시상으로 사용한 것, 유물부장공간만 할석을 깐 것 등 다양하다. 호석과 주구를 갖춘 석곽은 몇 기에 불과하며, 배묘를 갖춘 것은 2기이다.

출토유물은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류 등 다종다양하다. 이 중 토기류는 5세기 전엽 고령양식 토기가 정립된 이후부터 대가야 멸망 이전의 6세기 중엽까지 편년되는 것이다. 기종은 이단투창고배, 일단투창고배, 장경호, 발형기대, 통형기대, 저평통형기대, 개배, 파수부호, 대부파수발, 평저단경호, 연질발, 광구호 등 다양하며 석곽묘의 규모와 시기에 따라 부장품목이 약간씩 다르다. 철기류는 Ⅰ-3호분에서 출토된 차양주(투구)가 대

유적 전경

표적인데, 지산동 32호분에서 출토된 충각부주와 같이 일본열도에서 크게 유행한 형식이라는 점에 근거해 왜로부터의 반입품으로 보기도 하였지만 세부적인 기법에서 차이를 보여 대가야산임을 확인하였다.

축조시기는 제30호분은 5세기 전엽, 석곽묘는 5세기 전엽~6세기 중엽까지로 편년되고 있다. 제30호분은 능선 말단부에 독립적으로 축조된 중형분으로 동일 입지에 조성된 제73·75호분의 다음 단계에 조성된 왕릉급 고분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주석실과 하부 순장곽 개석에서 발견된 암각화를 통해 석재 조달처가 원거리도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고, 동순장곽(30-2호)의 인골과 함께 출토된 금동관을 통해 순장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외 227기에 달하는 석곽묘를 통해 시기별 묘제변화와 부장양상, 출토유물 등을 통해 대가야의 장제문화 및 대가야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998, 『고령 지산동30호분』.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고령 지산동고분군Ⅰ』.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고령 지산동고분군Ⅱ』.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고령 지산동 고분군Ⅲ』.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고령 지산동 고분군Ⅳ』.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고령 지산동 고분군Ⅴ』.

30호분

Ⅱ-4호 개석 노출모습

출토유물

01-5 고령 지산동 제73~75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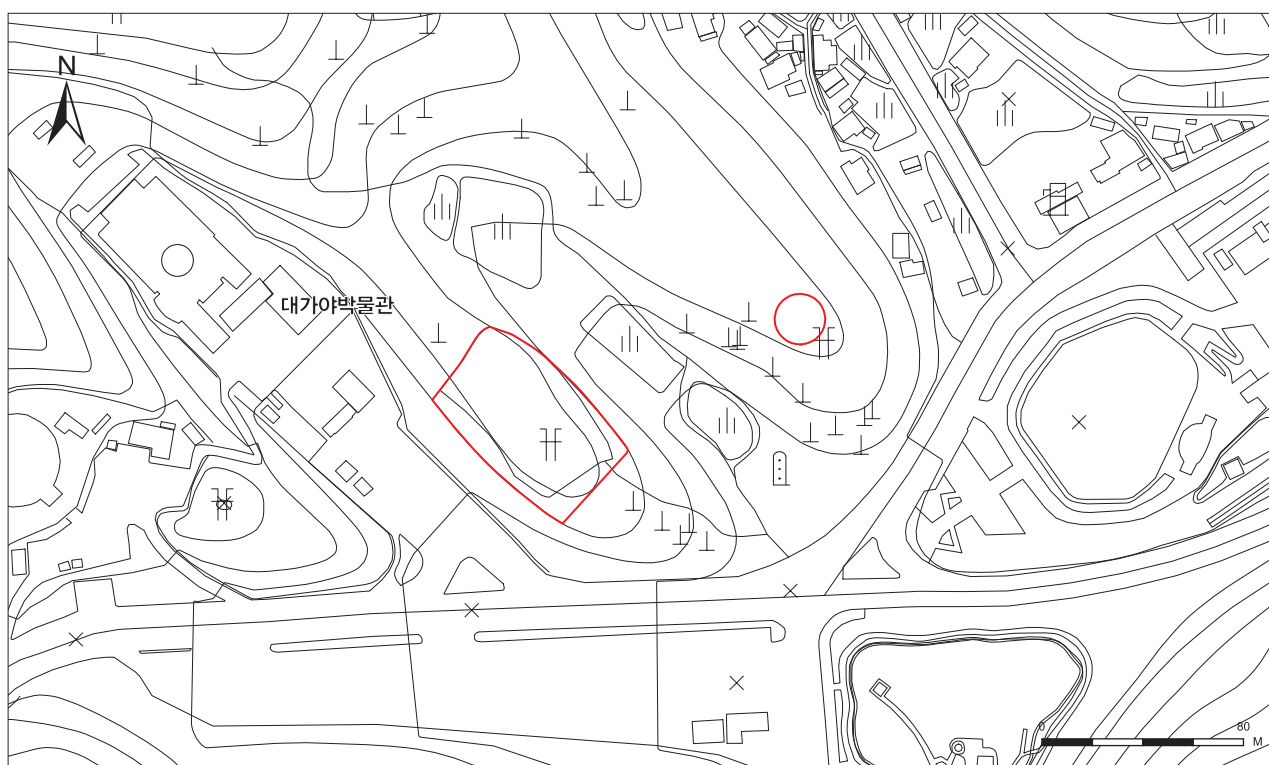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25-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동문화재연구원 / 2007.5.~2008.6.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실묘, 석곽묘 / 금동관모입식, 철제관모입식, 금·은·금동제이식, 금제지환, 금동대금구, 귀면금구, 종장판주, 소찰, 단봉문대도, 마갑

제73~75호분은 주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내리는 주능선에서 읍내방향으로 파생된 나지막한 구릉들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중간 구릉에서는 제73·74호분과 횡구식석실분 2기, 수혈식석곽묘 6기, 동편 구릉에서는 제75호분과 수혈실석곽묘 2기가 조사되었다.

제73호분은 대형분으로 봉분 규모는 장축 23m, 단축 22m, 잔존높이 3.4m이며 3열의 호석을 배치하였다. 매장주체부는 하나의 묘광 내에 주실과 부장실이 'T'자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주실과 부장실은 목곽으로 묘광과 목곽 사이에는 넓게 할석이 충전되어 있는데, 주실의 서쪽과 동쪽, 부장실의 남쪽에는 각각 석곽 형태의 순장곽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봉토에도 제2단 호석렬과 동시에 축조된 순장곽 1기가 있다. 주실의 규모는 길이 5m, 너비 2.15m, 높이 2.3m이며, 바닥 부석면에는 주朱를 도포하였다.

제74호분은 중형분으로 봉분 규모는 장축 11m, 단축 10m, 잔존높이 1.4m이다. 호석은 주변에 먼저 축조된 고분으로 인해 거의 장방형에 가까운 타원형이며, 제73호분과

유적 위치도

이어지는 연결호석이 확인되어 제73호분에 붙여 조성된 표형분임을 알 수 있다. 중앙에 수혈식석실을 두고 남서쪽에 'T'자상으로 부곽을 배치하였다. 순장곽은 석실 양측에 각각 1기씩 축조하였다. 주석실의 규모는 길이 5.9m, 너비 1.3m, 높이 1.5m이다.

제75호분은 대형분으로 봉분 규모는 장축 25m, 단축 22m, 잔존높이 8m이며, 3열의 호석을 배치하였다. 완전지하식의 수혈식석실과 부곽이 'T'자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순장곽(처)는 주석실 묘광 내에 순장곽 5기와 순장처(목관) 2기, 봉토 내에 순장곽 3기를 배치하였다. 그 외 봉토 내에서는 동물순장처도 2개소가 확인되고 봉토 북쪽 가까이에서는 제사지가 확인되었다. 주석실의 규모는 길이 6.9m, 너비 1.1m, 깊이 2m이다.

이 발굴을 통해 지산동고분군의 고총은 5세기 초에 축조되기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다. 매장주체부는 제73호분은 유일하게 위석목곽묘를 택하고 있지만 거의 동시기인 제75호분에서는 수혈식석실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순장곽에 있어서는 제73호분의 경우 석곽묘, 제75호분의 순장곽 중 일부는 목곽을 사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따라서 목곽묘 말기단계인 제73호분과 석곽묘 초기 단계인 제75호분을 통해 목곽묘에서 이후 지산동고분군의 주묘제인 석곽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를 연구하는데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제73~75호분의 봉토에서는 구획석렬, 구획표시석, 이질성토재, 단면 지그재그선 등 구획축성기술이 확인되고, 호석에서도 원형석렬 중의 둔각, 호석재의 대소 및 높이의 고저 경계, 석재쌓기 방향의 경계, 작업상태의 정밀과 조잡한 경계 등의 구획축성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지산동고분의 구획은 방사상이 기본이며, 구획

유적 전경

수는 대형급인 제73호분과 제75호분이 각기 20구획이며, 중형급인 제74호분에는 적어도 8구획 이상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봉분 내 순장곽과 대형동물 매장처 등의 부속유구들도 구획경계를 의식하여 설치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봉토구축에 있어서도 제상성토기법, 토낭土囊과 토괴土塊의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산동고분군의 주부곽의 배치양상은 5세기 중엽까지는 'T'자형이며, 5세기 후엽 제44호분 단계에서는 'T'자형 부곽에 새로이 병렬식부곽 하나가 추가되다가 5세기말~6세기 초의 제45호분 단계에서는 '11'자형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대동문화재연구원, 2012, 『고령 지산동 제73~75호분』.

73·74호분

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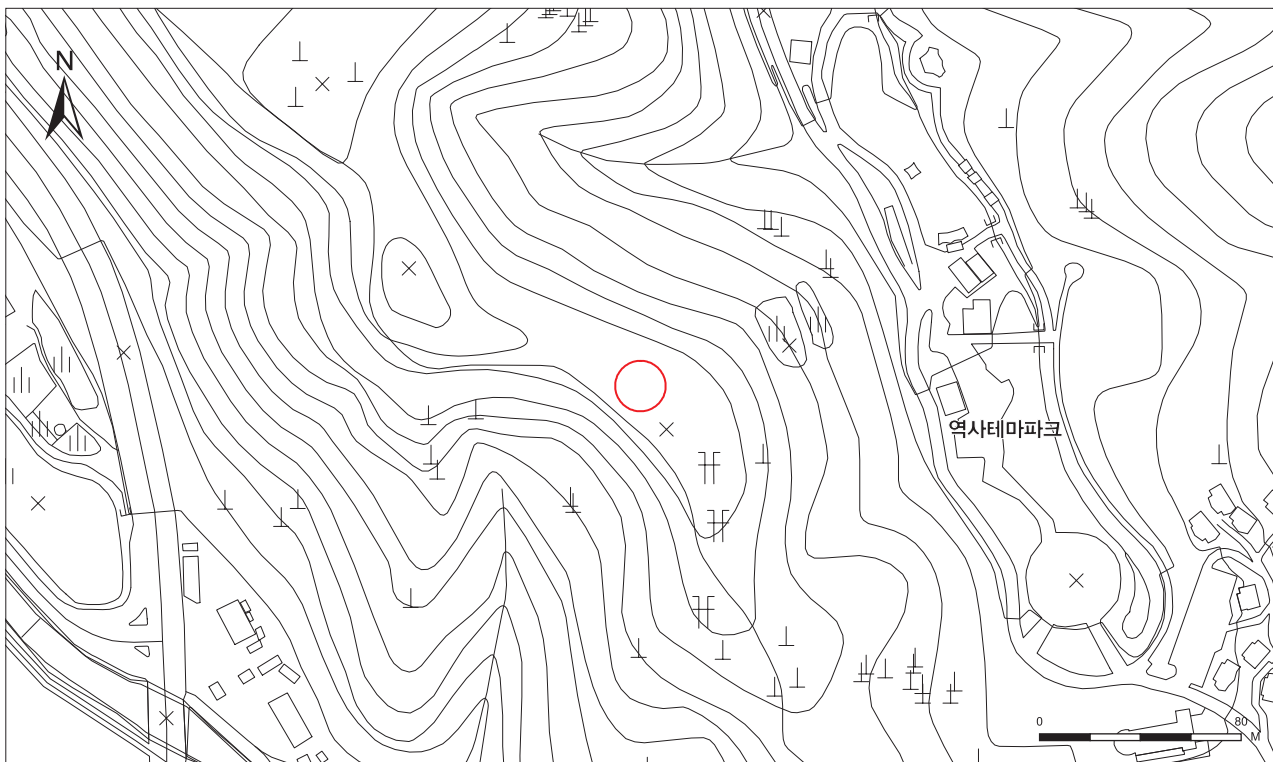
01-6 고령 지산동 518호분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22-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2012.6.~2013.8.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석곽묘 / 갑주, 투구, 안교, 행엽, 자, 사행상철기

고분은 주산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주능선에 단독으로 입지하고 있는데, 전체 고분군의 3/4지점으로 덕곡재를 기준으로 남쪽에 입지하는 고분군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남쪽 지역의 왕릉급 대형 고분에 대한 최초의 조사로 주석실 1기와 부장석실 1기, 주변으로 배치된 순장곽 5기, 고분 조성 후 축조된 배장묘 3기가 확인되었다.

봉분의 규모는 동서장축 22m, 남북단축 14.8m로 타원형이며, 잔존 높이는 2.2m이다. 가장자리를 따라 확인되는 호석은 대부분 유실되고 남쪽과 서쪽에 부분적으로 1단만 남아있다. 중앙부에 매장주체부인 주석실과 남쪽으로 치우쳐 부장석실이 '11'자형으로 나란히 배치되었는데, 모두 수혈식석실이다. 주석실의 규모는 길이 6.7m, 너비 1.2m, 깊이 2m 정도로 대형이며, 부장석실의 규모는 길이 5.1m, 너비 0.8m, 깊이 1.6m이다. 순장곽은 주·부곽 설치 후 호석과 동시에 축조되었는데, 동쪽에 집중되어 있으며, 벽체는 할석 또는 판석으로 만든 두 가지 형태로 수혈식석곽이다. 할석형의 규모는 길이

유적 위치도

2.16~4.08m, 너비 0.58~0.88m, 판석형의 규모는 길이 1.92~2.84m, 너비 0.52~0.68m 정도로 좁고 긴 세장방형이다. 순장자는 7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신분은 왕의 첩, 시녀, 무사 등으로 추정된다. 그 외 배장묘 3기는 주인공과 밀접한 가족 또는 신하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도굴이 이루어졌음에도 토기류, 마구류, 장신구류, 무구류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특히 금동관모꾸미개, 금은제귀걸이 등 수준높은 장신구와 투구, 갑옷, 삼엽문환두대도, 말얼굴가리개, 기꽂이, 말안장, 금동제 및 철제안장, 등자, 재갈 등 수준 높은 무기류와 마구류, 그 외 지역 수장묘의 증거로 제기되는 살포, 다종다양한 대가야식 토기류들 출토되어 매장자의 신분을 대별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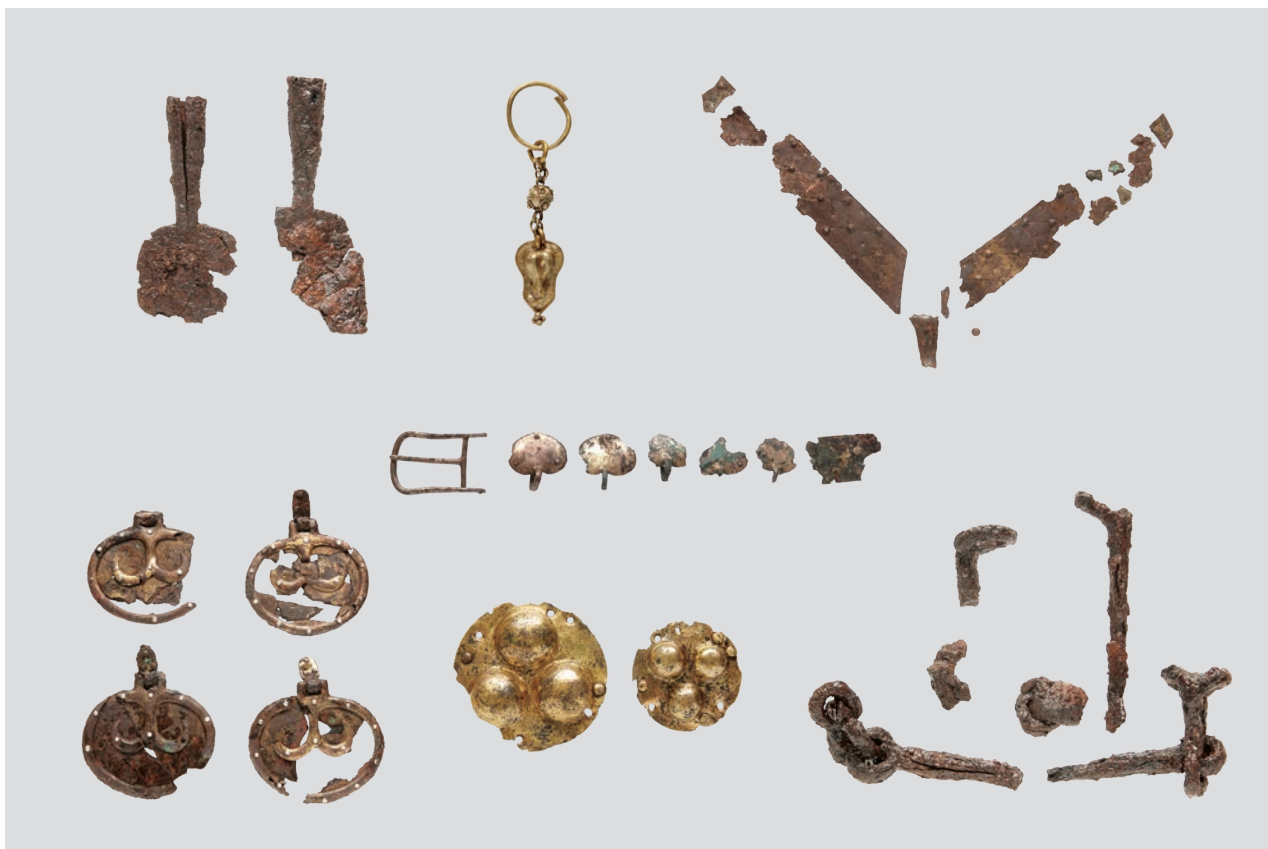
제518호분은 5세기말 6세기 초에 축조된 왕릉급 고총으로 고분의 구획을 나누고 그 경계에는 석렬, 점퇴괴열, 표지석을 놓은 후 교대로 흙을 쌓아 거대한 봉토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대가야인의 우수한 고분축조기술을 잘 보여준다. 또한 순장풍습과 순장자의 신분이 추정되고, 금동제관모장식 및 정교한 세공기술이 접목된 금·은제귀걸이 등의 장신구류, 갑옷과 투구, 금제 및 철제안장, 살포 등은 피장자가 대가야사회에서 어떠한 신분이었는지를 추정하게 한다. 특히 고분이 축조될 당시가 대가야문화의 정점을 이루었던 시기인 만큼 대가야의 실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6, 『고령지산동고분군 518호분 발굴조사보고서』.

대가야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대가야 왕릉 속의 비밀, 지산동 518호분』.

유적 전경

토기류

장신구 · 무기 · 마구류

01-7 고령 지산동고분군 정비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2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동문화재연구원 / 2017.10.~2018.1.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석곽묘 / 이형고배, 금동제관모, 금동제삼엽문환두부, 금동령, 소찰, 철탁, 투구, 사행상철기

유적은 주산 정상에서 지산동고분군이 시작되는 제1호분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을 따라 제604호분에 이르는 능선부로 기존 고분군의 탐방로 일대이다. 고분군 일대의 탐방로 및 CCTV 전선 지하매설구간에 대한 사전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대가야시대 석곽(실)묘 74기·호석렬 1기·수혈 2기와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1기, 조선시대 아궁이 1기·수혈 1기, 시대미상 수혈 2기·구 1기·토광묘 3기·주혈 3공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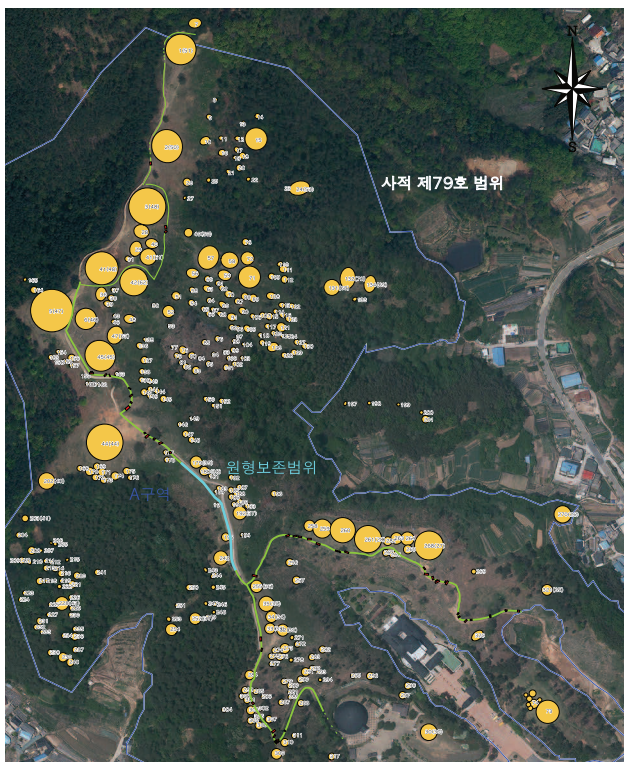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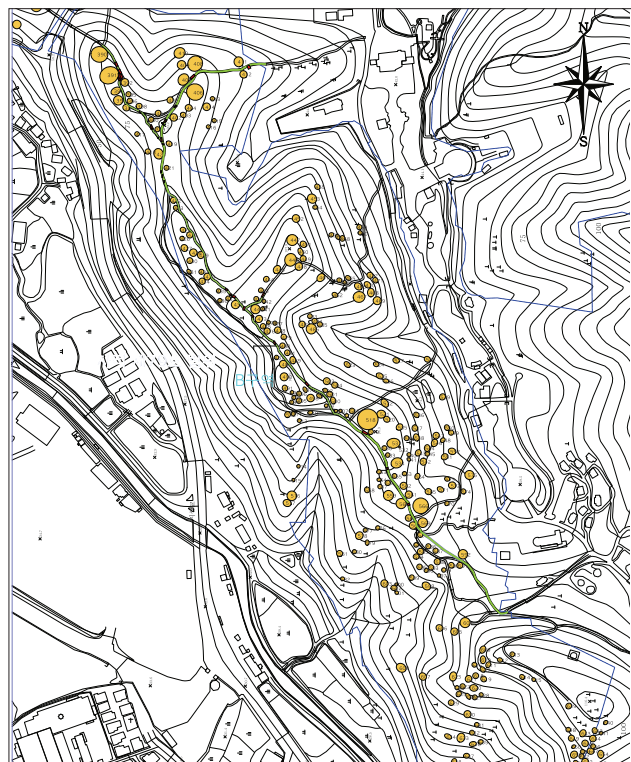
대가야 석곽(실)묘는 대부분 수혈식이며, 횡구식 5기가 포함되어 있다. 벽체를 구성하는 형태는 할석형과 판석형이 있으며, 모두 전형적인 대가야식 묘제이다. A-4·30·31호는 그동안 지산동고분군에서 확인된 적이 없는 새로운 묘제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고분들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게 할석으로 길게 축조한 주곽을 배치하고, 주곽의 중앙 상부에 작은 판석조 순장곽 1기를 배치한 공통성을 보인다. 이는 순장곽을 지닌 최소 단위의 고분으로 종래 중형 봉토분 이상에서만 순장행위를 한 것으로 보던 시각을 수정

유적 위치도

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A-17호의 경우에는 주곽과 순장 또는 배장곽이 모두 판석조 석곽으로 축조한 독특한 다곽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산동 제391호분 주변을 둘러싸듯 조성되어 있는 B-2~6호묘는 제391호분의 순장 또는 배장묘로 추정되는데, 축조순서는 제2·3호→제4호→제5호→제6호 순임이 확인되고 할석조와 판석조의 구조가 혼재되어 있다. 특히 B-4호 묘에서 출토된 인골은 그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향후 대가야인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A-2호묘(횡구식석실)에서는 합천 반계제·합천 옥전고분군에서 출토된 예가 있는 금동관모가 지산동고분군 내에서 처음 출토되었다. 이와 함께 금동삼엽문환두대도의 장식과 부속구, 말 장식품인 금동령과 철탁·철갑옷의 소찰 그리고 신라에 병합된 이후에 만들어진 인화문토기가 한 무덤 내에서 함께 출토되어 그 현상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대가야의 금동관모는 백제, 그리고 삼엽문환두대도는 신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시 대가야와 백제 그리고 신라의 대외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그 외 A-19호와 A-27호, B-3호에서는 각기 다른 철제투구가 출토되었는데, A-27호의 투구는 지산동 제32호분에서 출토된 충각부주와 같은 형태이며, B-3호의 투구는 지산동 제518호분에서 출토된 종장판주와 비슷한 형태로 남원 월산리 M5호분의 출토품과 유사하다. 그 밖에도 등자, 재갈, 안교, 말등기꽂이 등 다양한 종류의 마구류가 출토되었는데, A-19호의 말등기꽂이는 지산동 제518호분에서 것과 동일한 형태이다.

A구역 유구배치도

B구역 유구배치도

조성시기는 덕곡재 북편(A구역) 석곽묘는 6세기 중엽경의 A-2호를 제외하고는 5세기 중후엽에 해당하고, 덕곡재 남편(B구역) 석곽묘는 5세기 중후엽의 B-17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6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이 조사는 좁은 범위이지만 지산동고분군의 전역을 조사하여 입지별 고분의 축조 추이와 시기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더불어 대가야의 최고 전성기부터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된 시기에 조성된 다양한 분묘에서 당시 대가야와 백제 그리고 신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들이 확인되어 대가야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대동문화재연구원, 2018, 「고령 지산동고분군 (사적 제79호) 정비부지 내 발굴조사 약보고서」.

A구역 17호묘

B구역 4호묘

철기류

토기류

02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

| 사적 제16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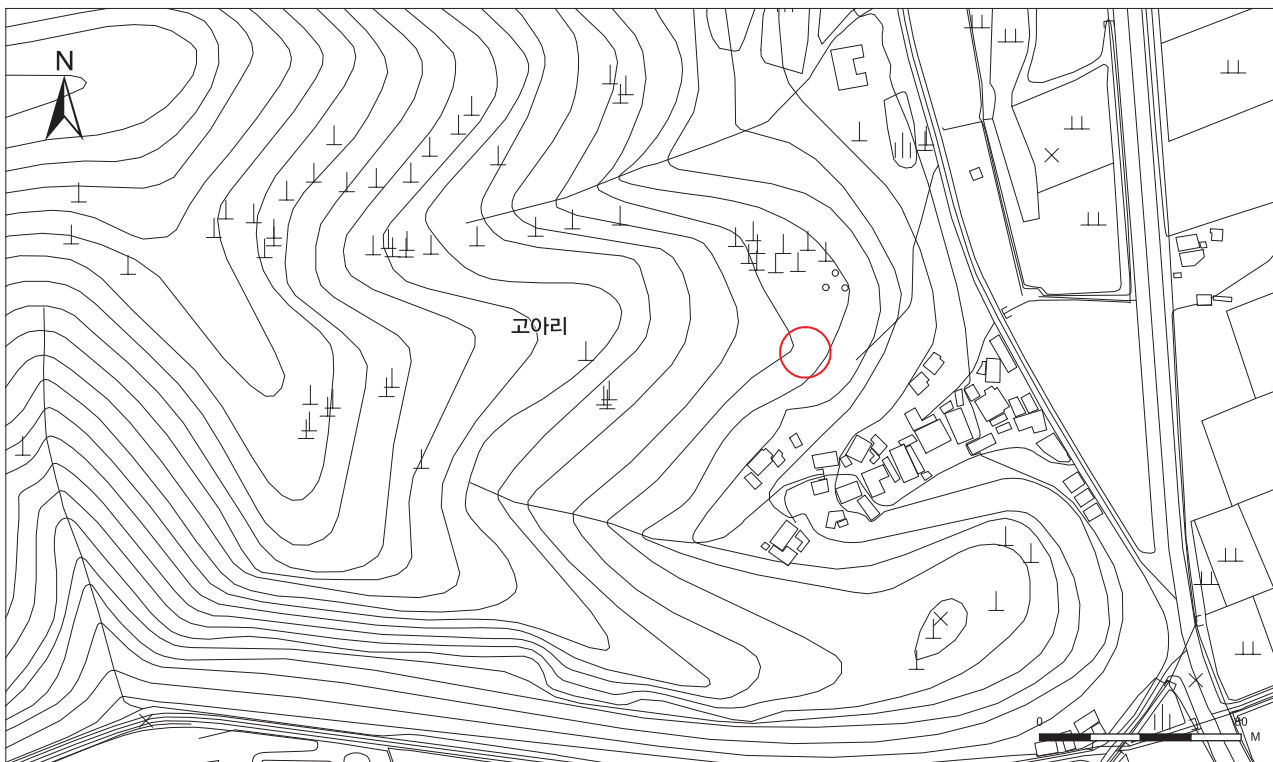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산1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서울대학교박물관 / 1963.11.~1963.12.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분(벽화고분) / 청동정, 관정, 인골 편, 단경호, 개

고아리 벽화고분은 대가야의 중심고분군인 지산동고분군과 인접하여 남동쪽으로 500m 떨어져 위치한 고아리고분군에 속해 있지만 대가야 왕도의 고분군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지산동고분군에 포함될 수 있다. 능선 하단부에 조영된 대형 고분 2기 가운데 하나이다.

1963년 알려져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김원룡과 김정기에 의해 간략한 실측과 조사가 이루어졌다. 1964년 1차로 보수한 뒤 1977년에는 시멘트로 출입구를 만들고 봉분 표면에 회를 두텁게 덮고 흙을 덧쌓아 올렸다. 1984년 회층과 덧쌓은 봉토의 중압으로 석실의 벽석 균열과 면회 탈락 및 결로 발생을 막고 보완하는 보수 공사과정에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석실의 정밀 실측 및 봉분 외피층 조사를 하였고, 아울러 벽화의 모사 작업도 관계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분은 능선의 남쪽 비탈면에 걸쳐 위치하며, 묘향을 정남으로 둔 횡혈식석실분이다. 현실구조는 평면 장방형으로 터널 천장식이며, 우측으로 긴 연도를 갖추었다. 벽

유적 위치도

석재는 장대형 할석과 판상할석, 양 장벽의 내경 범위에는 각도에 맞추어 가공한 사변석, 압력이 가장 센 현문 부분의 천장석은 두껍고 긴 석재를 사용하였다. 현실 바닥에는 '中'자 형태의 배수구가 있고, 그 사이에 폭만 다르고 길이가 같은 두 관대를 나란히 설치하였다. 현실 규모는 길이 3.75m, 너비 2.82m, 높이 3.12m이다. 호석은 직경 18m의 원형이며, 봉분 높이는 현실 바닥 중앙에서 6.2m이다.

한편, 내부 공간 전체에는 패분貝粉으로 만든 회로 미장하였는데, 천정석 및 벽석재의 틈사이를 메워 구조를 튼튼하게 하였다. 특히 연화문을 그려 넣을 천장의 판석 아랫면에는 얇게 회칠을 하였다. 회는 먼저 볏짚을 섞은 회를 초벌로 발라 말린 뒤 다시 깨끗한 회로 덧발랐는데, 삼베로 문댄 흔적과 작업자의 지문도 발견되었다. 벽화는 표면의 면회가 채 마르기 전에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실과 연도의 천장석에는 홍·녹·흑·갈색 안료로 그린 8판 2중의 연화문 12개가 남아 있다. 그 외 벽면에는 일부 채색 자국과 당초문 또는 초화문과 유사한 모양의 채색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따라서 원래는 벽면과 천장 전체에 그림을 배치하되 천장 면은 연화를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1963년에 이미 도굴을 당하여 청동원두정, 꺾쇠형 철기, 대부호의 대각편, 문살무늬 토기 편 및 인골 편이 출토되었고, 1984년 계명대학교박물관 실측조사 시 봉토표토층에서 단경호 구연부 편과 뚜껑 편 등이 출토되었다.

고분의 축조시기는 6세기 후반대 초경으로 추정된다. 가야 유일의 벽화고분으로 백제 중앙의 묘제를 답습하여 축조한 대형분으로 피장자는 고분의 규모와 정밀성 및 벽화

유적 전경

등으로 보아 대가야 말기의 최고층 부부(왕과 왕비)로 추정된다. 특히 횡혈식 구조와 축조방식 및 형태로 보아 백제 중앙인 공주와 부여에서 유행하던 여러 요소가 적용되어 백제에 의한 대가야의 문화 영향을 엿볼 수 있게 되었고, 천정부의 연화문은 대가야의 불교수용 및 당시 삼국의 벽화분과 비교 연구에 중요자료가 되고 있다. 그밖에 가야 유일의 벽화고분이기도 하며, 해방 이후 한국인에 의해 조사된 최초의 고분이라는 고고학사적인 의미를 가진 중요한 고분이다.

참고문헌

김원룡 · 김정기, 1967, 「고령벽화고분조사보고」, 『한국고고』2.

계명대학교박물관, 1985, 『고령고아동벽화고분실측 조사보고』.

현실 입구부

현실

현실 천정부

천정 벽화 모습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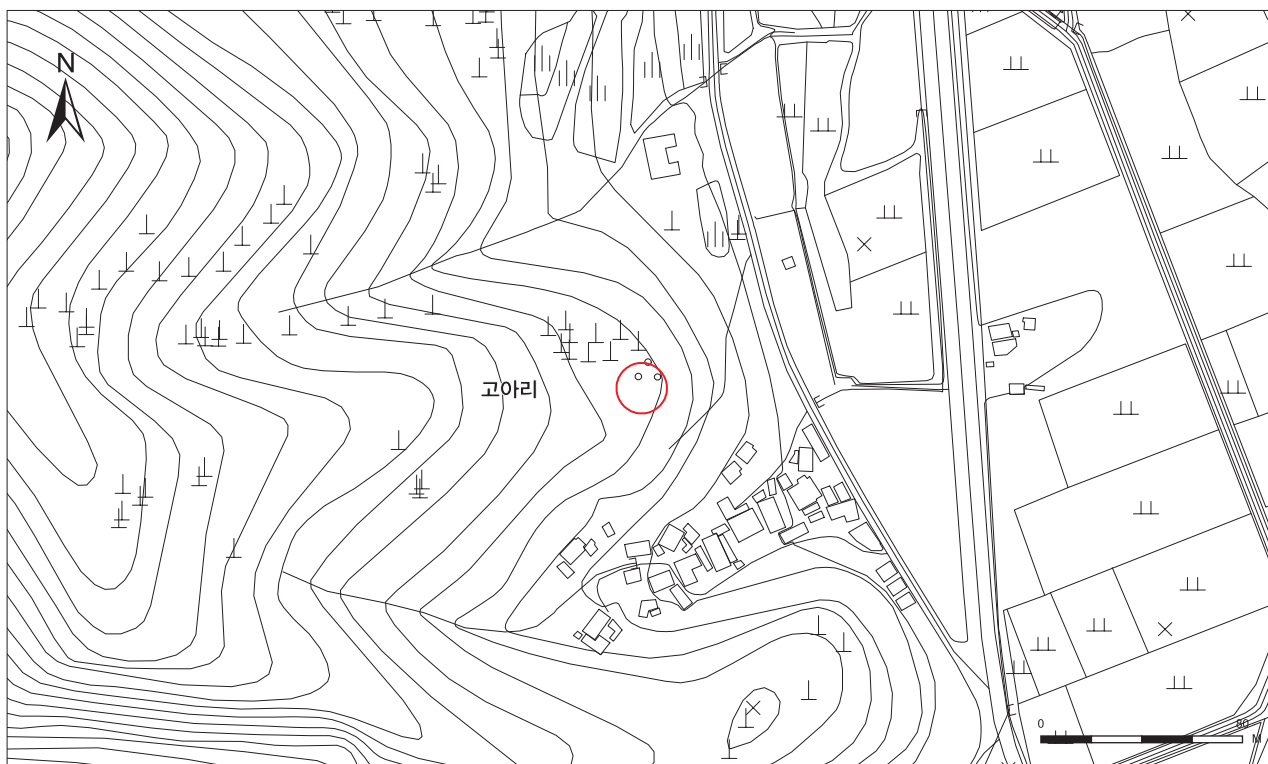
고령 고아2리고분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산1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북대학교박물관 /
1963.11.~1963.12.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분 / 패각, 관정

고아2리 고분은 대가야의 주 고분군인 지산동고분군과 인접하여 남동쪽으로 500m 떨어져 위치한 고아리고분군에 속해 있지만 대가야 왕도의 고분군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지산동고분군에 포함될 수 있다. 남쪽에 접해서는 고아동 벽화고분이 위치한다. 1964년 고분 서쪽에서 발견된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의 도굴 위험이 뒤따르면서 경북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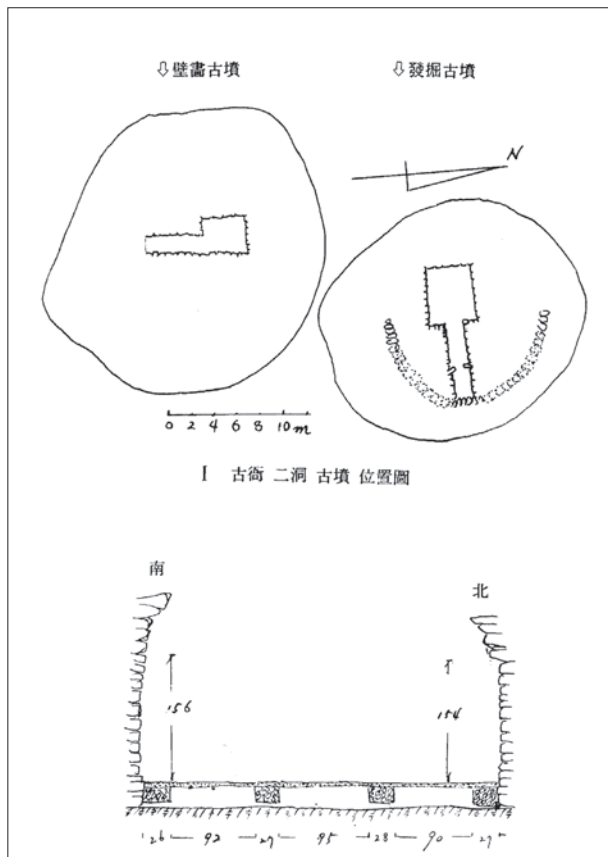
고분은 묘향을 정동쪽으로 둔 횡혈식석실분이다. 호석은 직경 17m의 원형이며, 봉분 높이는 현실 바닥 중앙에서 2.5m이다. 현실은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으로 궁륭식 천장이며, 전벽 중앙에 긴 연도를 내었다. 현실은 할석으로 벽체를 축조하였는데, 천장부로 내경하기 시작하는 부분에는 각도에 맞추어 가공한 사변석을 사용하였다. 바닥은 미장하고 그 아래에는 자갈을 채운 배수구를 시설하였다. 현실 규모는 길이 4.5m, 너비 3.5m, 잔존 높이 1.3m이다.

유적 위치도

연도는 중앙 연도식이며 길이 4.3m, 너비 1.1m, 높이 1.3m로 매우 길다. 연문부에는 양쪽 문주 위쪽에 대형 판상석을 놓고, 상단석이 사변형으로 가공된 것이 있어 터널형일 가능성도 있다. 연문에서 둘레돌까지는 할석으로 배치하여 묘도의 범위만 대충 표현하였으며, 현실에서 시작된 배수구는 묘도 부분에서 좌측으로 굽었다.

유물은 연도 바닥에서 패각 무더기가 발견되었고, 문주 위쪽 판상석의 안팎에서 관정 5개가 출토된 것이 전부이다.

고분의 축조시기는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석실을 할석으로 축조한 궁륭식천장을 가진 횡혈식석실분으로 가야와 백제 지역 가운데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현실을 보인다. 더구나 연도가 터널형일 가능성이 있어 한반도 남부의 횡혈식석실분에 관한 자료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한편, 현실의 모양, 긴 중앙연도, 연문부의 문주상 돌출 판상석, '八'자형 석벽묘도 등의 구조로 보아 백제 중앙인 공주와 부여에서 유행하던 여러 요소가 적용됨을 알 수 있어 백제와 대가야의 교류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경북대학교박물관, 1966, 「고령고아2동 고분조사보고」, 『인동·불로동·고령고아 고분 발굴보고』.

유구 배치도

연도 및 입구부

현실 서북벽 축조모습

04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17-4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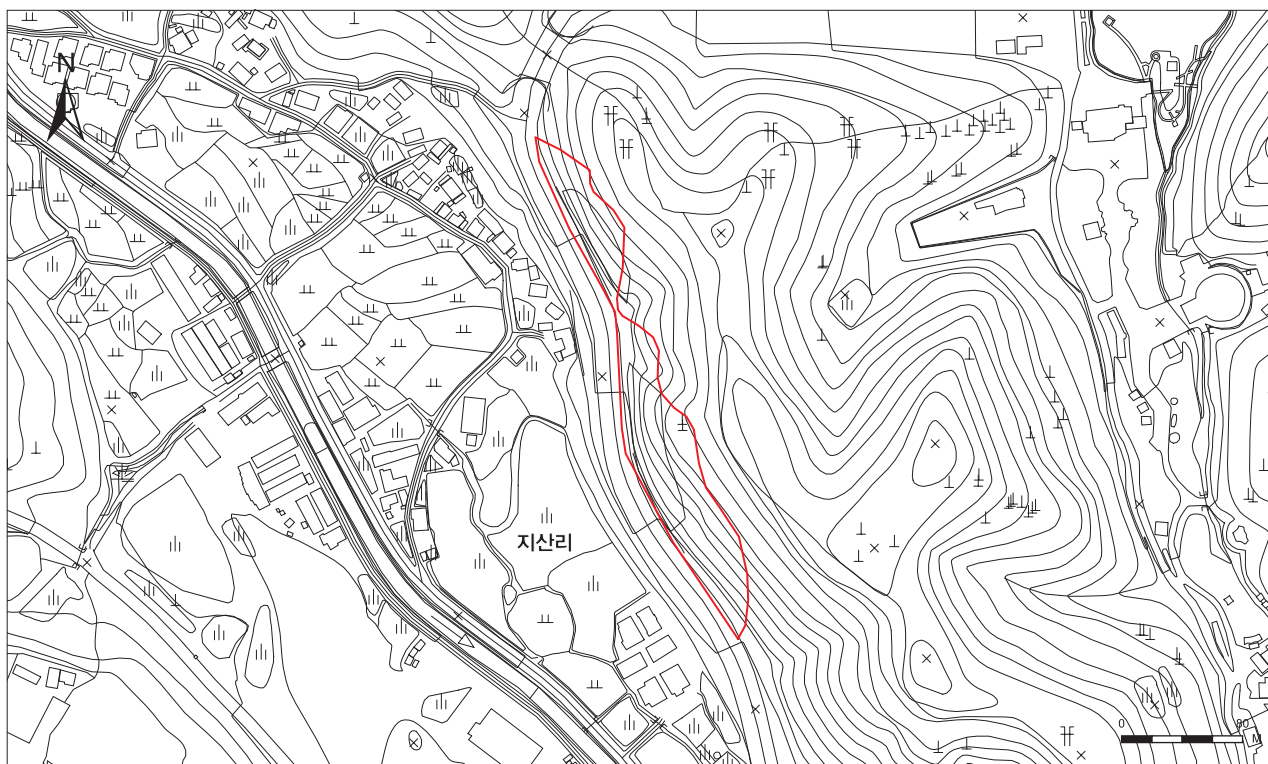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영남대학교박물관 / 2002.8.~2002.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개배, 유개고배, 기대, 환두대도, 등자, 찰갑, 금제이식

고령 지산동고분군 _ 고령 지산지구 국도개량공사구간 내 유적

유적은 지산동고분군을 가로지르는 덕곡재의 남쪽구릉의 서사면부에 해당한다. 국도 26호선의 선형개량공사과정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 대가야시대 석곽묘 12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7기가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장축이 등고선과 나란하며, 평면이 세장방형인 수혈식 구조이다. 벽석은 풍화암반층을 수직굴착한 후 할석으로 평적한 할석식이 대부분이지만 판석을 세우고 상부에 할석으로 수평을 맞춘 판석식과 굴착한 암반을 이용하며 부분한 부분에 할석을 채워 완성한 형태 등 다양하다.

석곽의 규모는 할석식은 길이 3.58~4.58m, 너비 0.71~0.85m, 깊이 0.24~1.2m, 판석식은 길이 1.92~1.83m, 너비 0.46~0.52m, 깊이 0.66m 정도이다. 할석식 중 중형 석곽 대부분에서는 바닥에서 목관 흔적과 꺾쇠 등이 확인되며, 판석식의 2기에서는 하나의 석곽에 격벽을 설치하여 부장칸을 구분한 경우가 확인된다. 바닥은 대부분 암반층을

유적 위치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편평한 할석이나 판석을 시신의 매장부분에만 깐 사례도 보인다.

봉토는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며, 1기에서만 확인되는데 직경 6m, 높이 0.8m이다. 개석이 남아있는 석곽이 2기 있으며, 경사면 상부에 반원형의 주구가 설치된 석곽도 2기 확인되었다. 주구 내부에서는 통형기대, 발형기대, 단경호 등이 파쇄된 상태로 확인되어 전통적인 대가야식 제의가 행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물은 개배, 유개고배, 유개단경호, 기대 등 토기류와 환두대도, 대도, 등자, 찰갑, 철모, 교구 등의 무기와 마구류가 있고, 장신구는 금제이식 1점, 그 외 수정 1점을 포함하여 170점이 출토되었다.

고분의 축조시기는 출토된 토기류로 미루어 대부분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석곽묘는 할석 및 판석식 모두 전형적의 대가야 묘제이며, 토기류 역시 대가야양식 혹은 고령양식으로 잘 알려진 것이다. 덕곡재 남쪽 고분군 일대에서 5세기 대 묘제가 확인된 바 없어 지산동고분군의 축조 추이가 북에서 남으로 뻗어 내려왔음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참고문헌

영남대학교박물관, 2004, 『고령 지산지구 국도개량공사구간 내 유적-고령 지산동고분군』.

3호 석곽묘

8호 석곽묘

8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1호 석곽묘 주구 출토유물

05 고령 가야대학교 교내 체육시설 예정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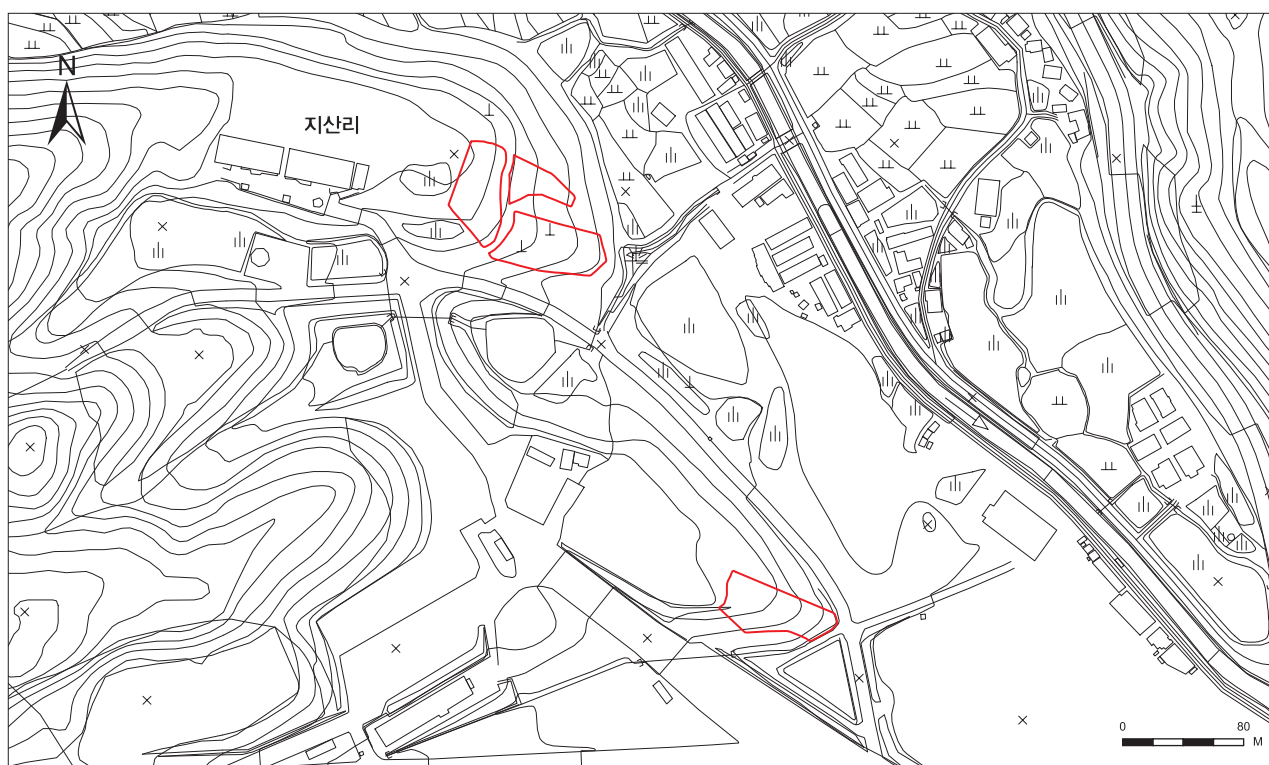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11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동문화재연구원 /
1차 2016.7.~2016.9.
2차 2016.10.~2016.1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유개양이부배, 유개광구호, 유개배

대가야박물관에서 고령IC 방면으로 26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1km 정도 가면 가야대학교 고령캠퍼스 정문에 다다른다. 유적은 2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야대학교 내 남동쪽 지산천 방면으로 뻗어 내린 2개의 구릉 말단부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북쪽인 가구역에서는 삼국시대의 석곽묘 5기와 석실묘 4기, 고려시대 석곽묘 2기, 조선시대 목관묘 21기, 시대미상 석개토광묘 1기와 토광묘 21기, 수혈 1기 등이, 나구역에서는 조선시대 목관묘 8기, 시대미상 목관묘 3기와 토광묘 13기 등 모두 79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 중 삼국시대 유구는 가구역에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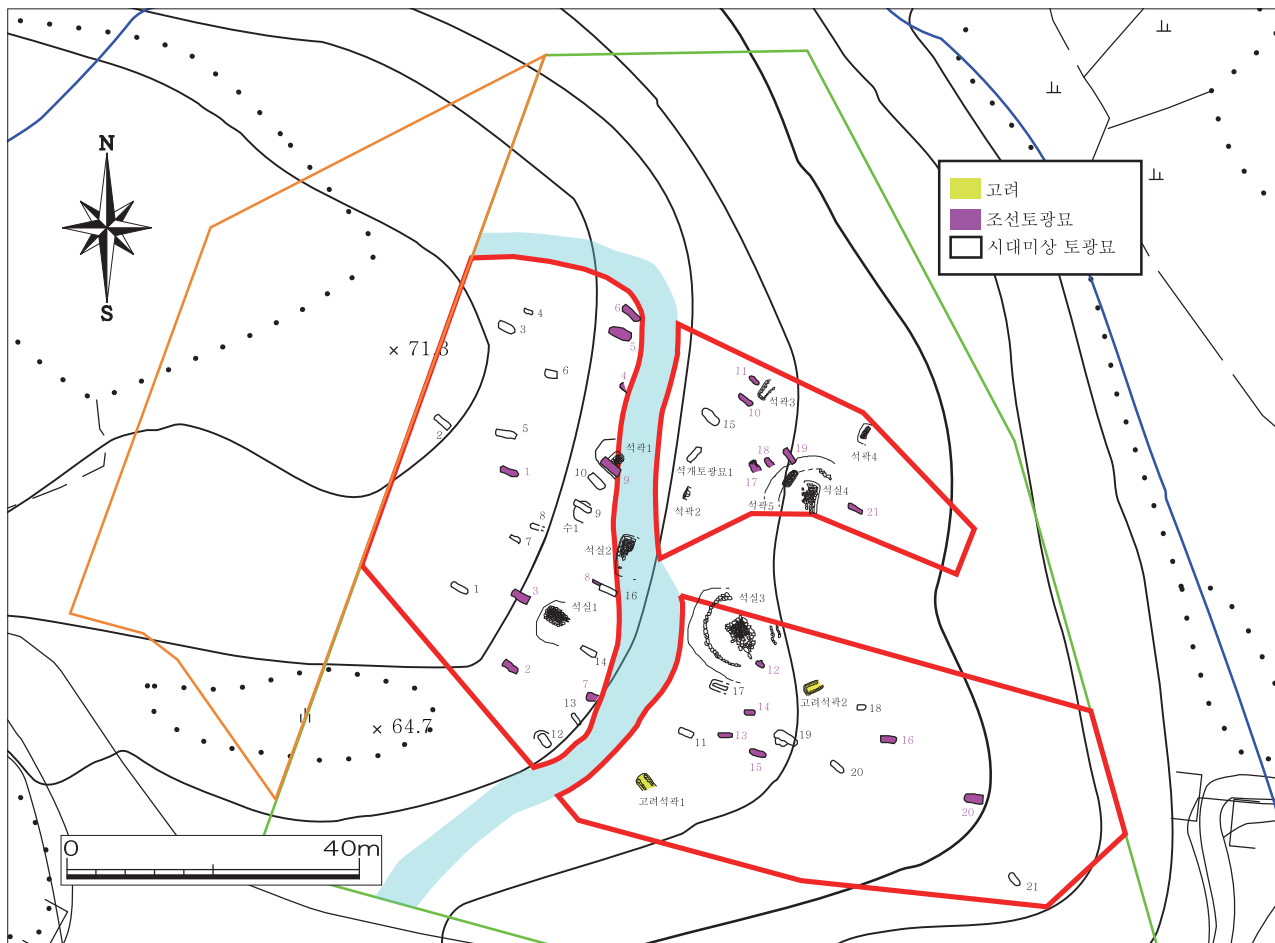
석곽묘는 장축이 등고선과 나란하며, 평면은 장방형과 세장방형이다. 벽체는 주로 천석과 할석으로 축조하였으며, 중대형의 판석을 이용한 것도 있다. 시상석은 납작한 천석과 할석, 판석을 한 매를 깔았다. 유물은 유개양이부배, 유개광구호, 유개배 등 대가야 양식의 토기류와 이식이 출토되었다. 석곽구조와 출토유물로 보아 대가야 말기인 6세기

유적 위치도

중엽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실묘는 현실 장축이 등고선과 나란하거나 직교상인 것 모두 확인되며, 평면은 장방형의 비중이 높고 방형인 것도 있다. 구조는 (반)지상식 혹은 지상식에 가까우며, 연도는 사면 아래쪽으로 우편향하거나, 전벽의 중앙에 마련된 것도 있다. 바닥에는 납작한 천석과 할석을 전면에 부석하거나, 2~5차례 정도 구분되게 조성한 것도 있어 추가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대가야양식 또는 인화문·삼각집선문·반원점문 등의 신라후기양식 토기류, 대금구와 도자 등의 금속류도 소량 출토되었다. 석실구조와 유물로 보아 6세기 후반~7세기 중엽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적은 지산동고분군인 인접한 지역에서 대가야 멸망기와 신라에 병합된 이후의 양상을 보여주는 석곽 및 석실묘가 확인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판단된다. 특히 가-3호 석실묘는 중앙 연도와 현문부 양쪽에 문주상석을 구비한 정형의 횡혈식 구조로 경주지역에서도 상급의 신분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피장자의 신분이 수장층으로 추정되어 앞으로 대가야의 중심부인 고령지역이 신라로 병합된 이후, 신라식 석실묘의 확산과 피장자의 성격 등을 구명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대동문화재연구원, 2016, 「고령 가야대학교 교내 체육시설 예정부지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가구역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가구역 전경

가구역 3호 석곽묘

가구역 4호 석곽묘

가구역 3호 석실묘

가구역 4호 석실묘

06

고령 지산리 447번지 고령 대가야국 국왕 추모묘 건립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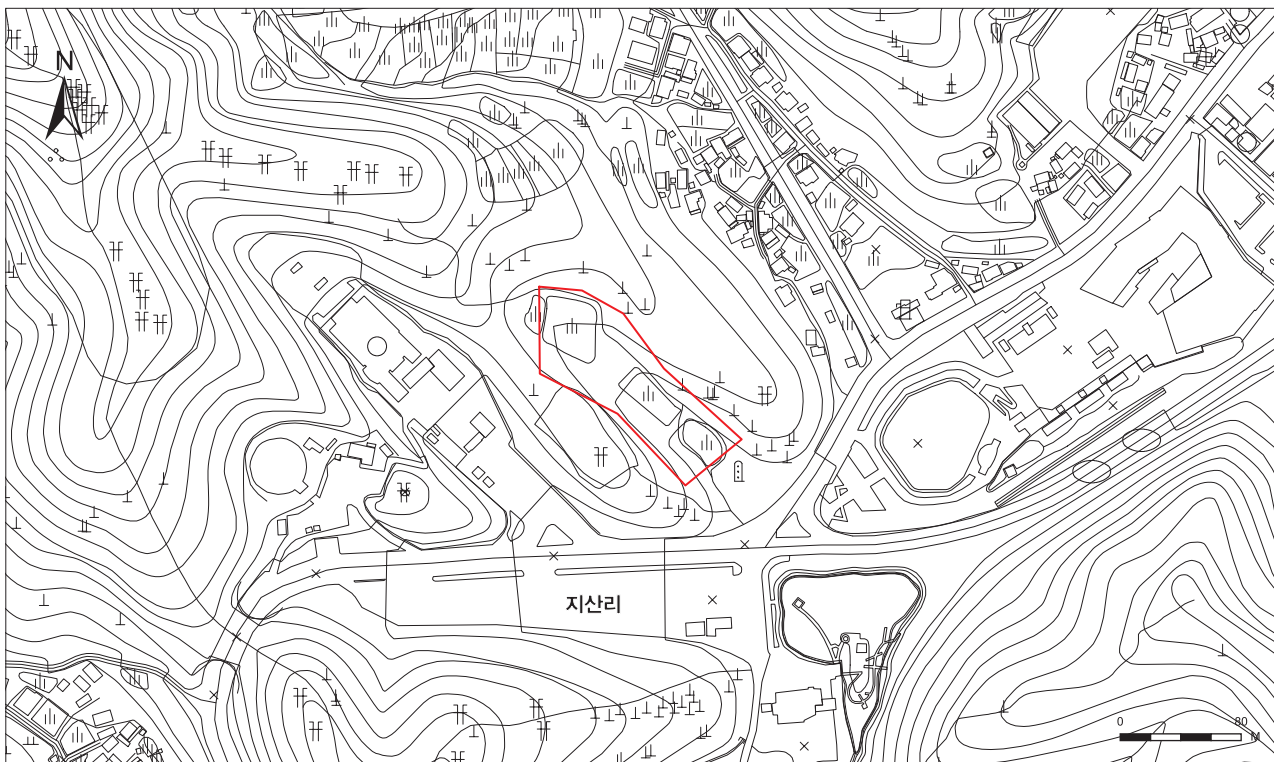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44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동문화재연구원 /
2009.4.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기대, 고배, 개

유적은 고령군청에서 서남쪽 합천방면으로 난 33번 국도를 따라 약 550m 진행한 도로의 우측편에 위치한다. 대가야박물관의 동쪽으로 지산동 제73호분과 제75호분이 위치하는 중간구릉과 동편구릉 사이 골짜기에 해당된다.

고령 대가야국 국왕 추모묘 건립부지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총 15개소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결과, 모든 트렌치에서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포함층과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는 삼국시대의 석곽묘 14기와 조선시대 건물지로 추정되는 석축렬 4기, 수혈 2기, 토광묘 1기, 노지시설 1기, 삼가마 1기, 석축연못 1기, 자연수로 1개소 등 25기와 주혈군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추모묘는 고령군청 옆으로 옮기면서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삼국시대의 석곽묘는 사면부와 골짜기 전역에 걸쳐 확인되었다. 수혈식판석조석곽이 대부분이며, 상부는 경작과정에서 훼손되어 개석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 석곽 중

유적 위치도

일부는 내부에 매납된 토기가 노출된 것도 있다

출토유물은 기대, 고배, 개 등의 파편으로 인접한 계곡부로 1994~1995년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왕릉전시관부지, 2004~2005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대가야박물관 부지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대가야계 토기들이다.

석곽묘의 축조시기는 5세기~6세기이다. 입지적으로 능선뿐 아니라 계곡부를 택하고 밀집된 경향을 보이며 소형이 주류인 점으로 미루어 하위집단의 묘역으로 추정된다. 지산동고분군의 신분별 축조경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대동문화재연구원, 2009, 「고령 지산리 447번지 일원 고령 대가야국 국왕 추모묘 건립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유적 전경

출토유물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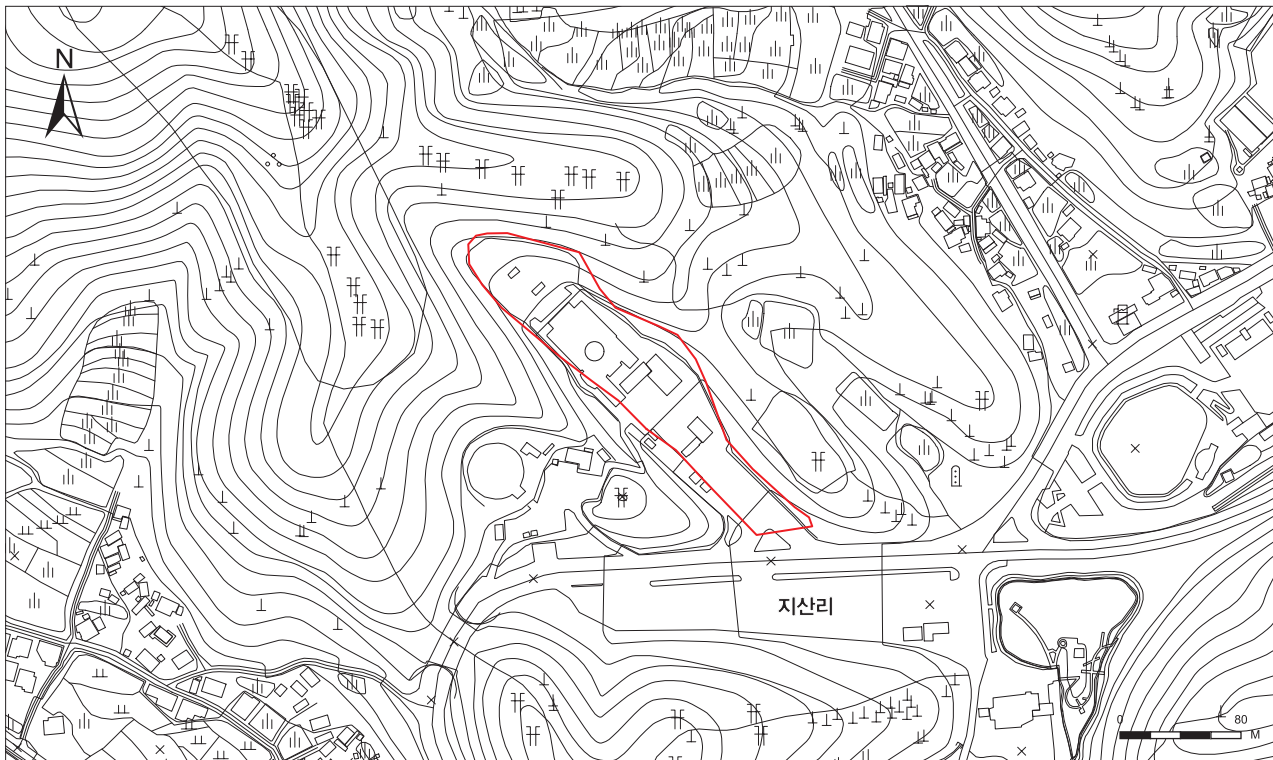
고령 지산동고분군 _ 대가야역사관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464-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1999.2.~1999.1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토광묘, 옹관묘 / 개배, 고배, 기대, 축소모형철기, 재갈, 등자

유적은 지산동고분군의 주능선으로부터 동남쪽으로 뻗어 내린 지맥사이에 자리잡은 계곡부에 위치하며 현재 대가야박물관이 들어선 일대이다.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 81기, 토광묘 1기, 옹관묘 1기, 횡구·횡혈식석실 34기,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3동, 근세 숯가마 9기 등이 확인되었다.

대가야 묘제는 수혈실석곽 77기, 토광묘 1기, 옹관묘 1기이다. 수혈실석곽의 벽체는 판석을 세워 네벽을 구축한 것이 50%, 할석을 평적하여 벽을 구축한 것이 30%, 나머지는 최하단에 판석을 세우고 그 위에 할석을 3단 이상 평적한 것, 판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벽체를 구축한 것이 확인된다. 격벽을 설치하여 부장칸을 마련한 것은 판석조석곽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바닥시설은 판석조석곽의 경우 판석을 이용하여 전면시설된 것이 대부분이며, 할석조석곽의 경우에는 부분시설 또는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이 중 제67호의 경우 추가장이 이루어졌는데, 초축 시 부장품은 대가야 토기 일색이나 추

유적 위치도

가장을 하며 부장공간에 격벽을 쌓아 매장공간을 줄이고 바닥에 시상을 깔아 신라 토기를 부장한 양상을 보인다. 축조시기는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전반 대이다.

석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류로 단추형·유두형·고리형 손잡이의 개, 개배, 유개고배, 대부파수부완, 소호, 장경호, 발형·통형기대, 고리형기대 등 다양하다. 토기로 보면 제16호가 가장 이른 시기로 추정되는데 고령양식 토기의 기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44호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전형적인 낙동강 동안양식 토기도 보이고, 제2호에서는 소가야양식 토기도 있다. 금속제유물은 제43호에서는 금제이식이 출토되었다.

한편, 횡구·횡혈식석실 34기는 단독분과 다곽분의 구조로 다곽분은 2~3기가 세트를 이루는데, 횡구식과 횡혈식이 같이 구축된 것도 있으며, 배후에는 주구 또는 호석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석실묘 모두와 석곽묘 중 제36·47·56·80호에서는 내부에서 6세기 중엽을 상한으로 하는 신라후기양식 토기만 출토되어 대가야 멸망후 축조된 묘제로 판단된다.

유적은 지산동고분군 일대의 분묘 축조에 일정한 규칙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데, 계곡부라는 입지는 대가야시대 소규모 석곽묘만 조성되어 하위집단 묘역임을 보여주며, 대가야 멸망 이후에는 석실묘의 묘역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고령양식 토기와함께 소가야양식, 창녕양식 등 외래양식 토기가 공반되고 있어 타지역 고분군과의 교차연대 자료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교섭양상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참고문헌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0, 『대가야 역사관신축부지내 고령 지산동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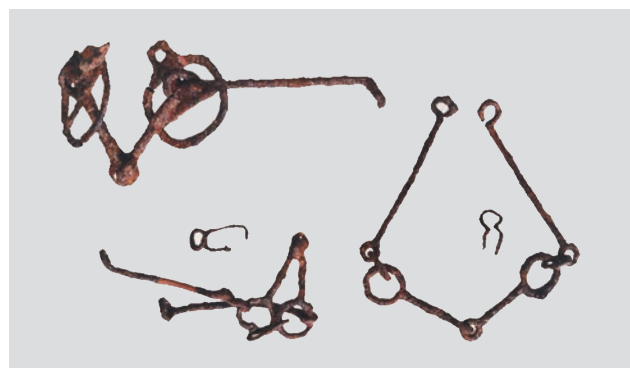
유적 원경

유적 전경

유적 근경

2호 석곽묘

5호 석곽묘

토기류

마구류

철기류

08

고령 지산동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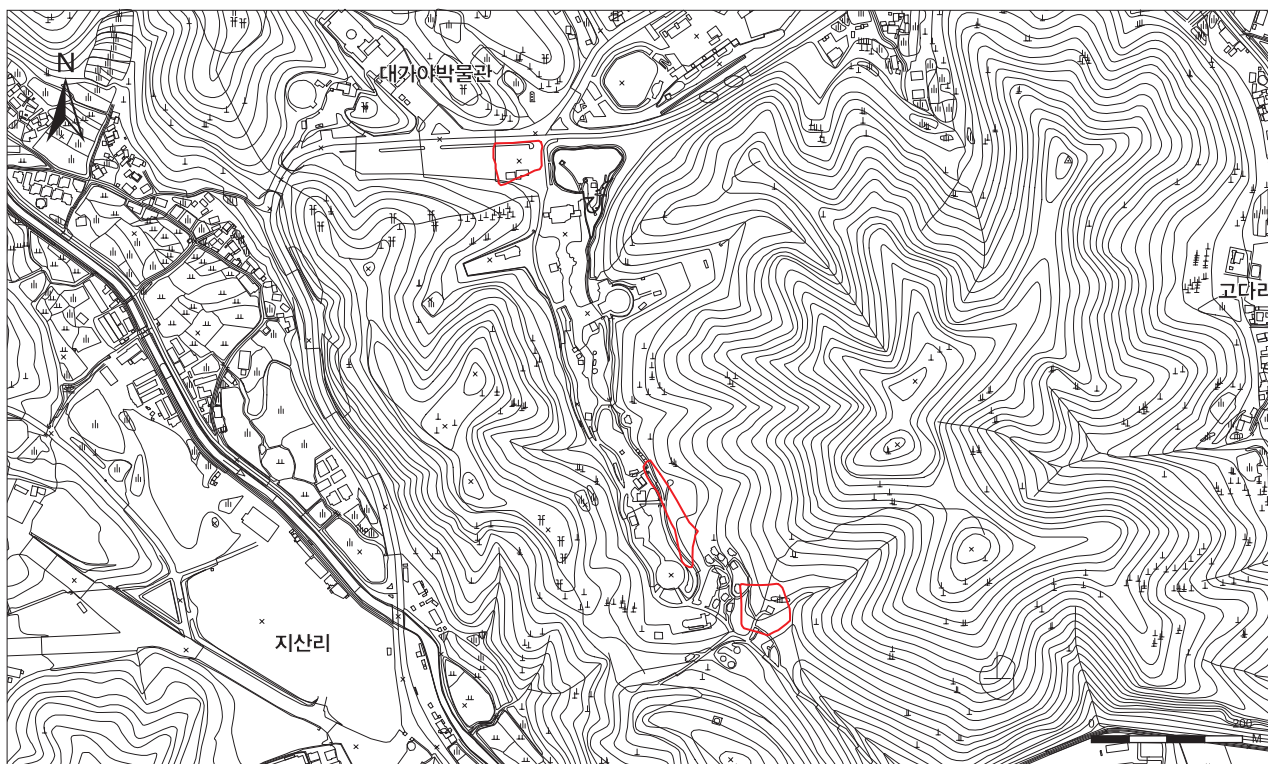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50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2002.8.~2002.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주거지 / 개,
배, 고배, 연질옹, 석추

유적은 현재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및 주차장이 조성된 곳으로 주산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주능선과 남산으로 이어지는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에 해당하는데, 유구가 확인된 지점은 사면 말단부에서 골짜기 내 평탄지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확인되었는데, 삼국시대 석곽묘 4기, 집석유구 1기, 주거지 13기, 수혈유구 12기, 구상유구 1기, 주혈 158개와 고려시대 토광묘 3기, 근대 배수로 1기 등 무덤과 생활유구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다소 밀집된 상태로 단독 혹은 밀집된 상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는 중복된 양상을 보인다. 장축은 등고선과 직교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평면은 타원형 또는 방형이다. 내부시설로는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노지와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된 추정 난방시설이 확인된다. 다만 잔존 양상이 양호한 주거지에서는 아궁이 내부에 솥받침이 있고 소토의 양상과 고래로 미루어 'T'자형의 난방시설로 추정된다고 보고되었다. 바닥은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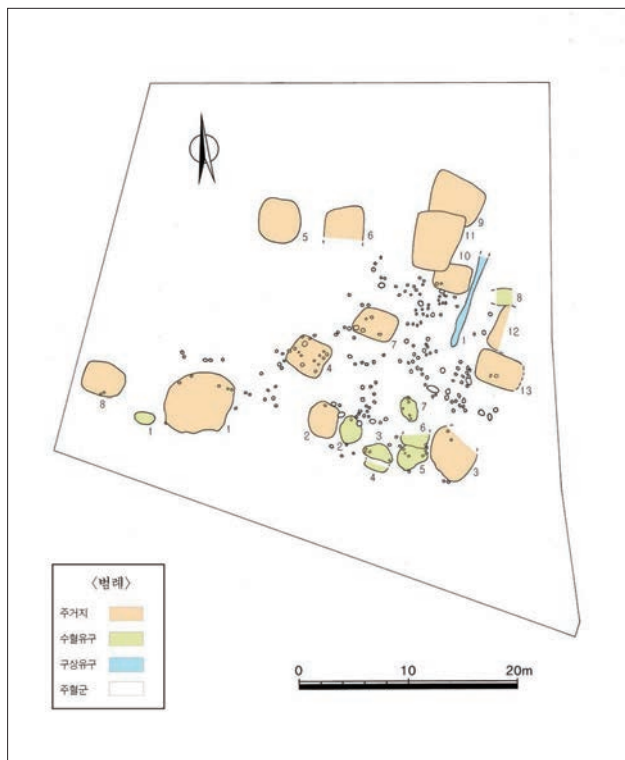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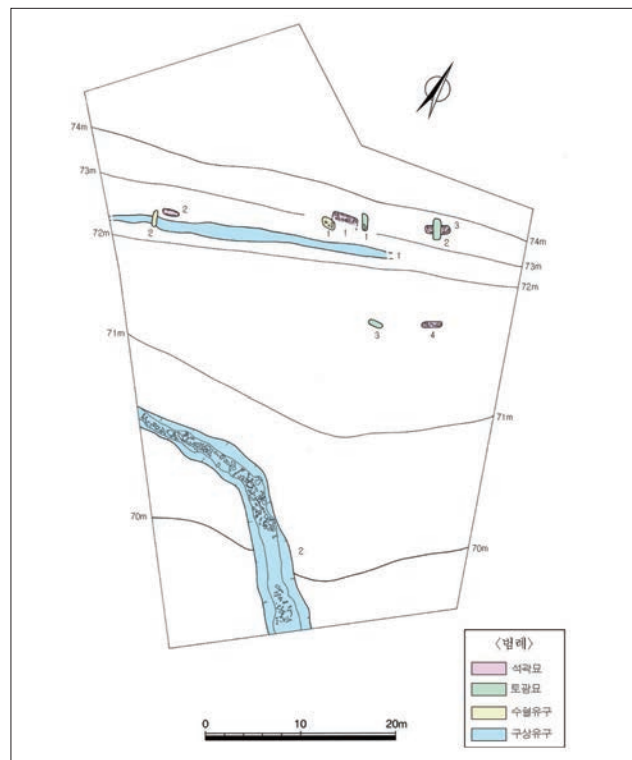
절반정도는 바닥에 불다짐하고 나머지는 굴착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규모는 완전한 주거지를 기준으로 길이 3.4~6.7m, 너비 2.85~5.55 깊이 0.05~0.34m이다.

수혈은 주거지 주변에서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0.52~2.77m, 너비 0.65~2.24, 깊이 0.08~0.2m이다. 주혈은 주거군 주변에 집중되고 전역에서 확인되나 정형성을 찾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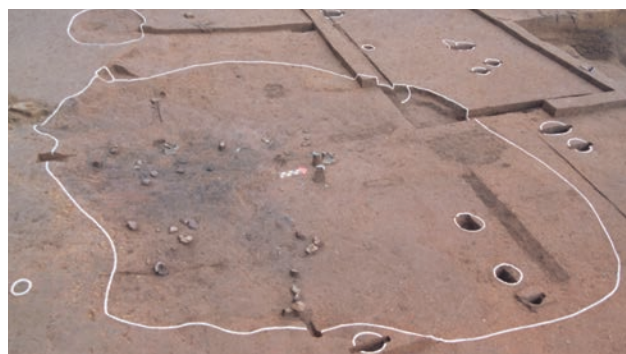
석곽묘는 장축이 등고선과 나란하며, 평면이 세장방형인 수혈식 구조이다. 모두 3구역 능선말단부에서 확인되었는데, 벽체는 할석으로 평적한 것과 수적한 것이 모두 확인된다. 규모는 길이 1.81~2.63m, 너비 0.59~1.06m, 깊이 0.13~0.34m이다. 시상은 벽체를 평적한 경우에는 전면에 부석하고, 수적한 경우에는 양단과 중앙에 등간격으로 3매의 시상석을 부석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개, 배, 고배, 연질옹, 석추 등 438점이 출토되었으나 대부분 파편상태의 생활유물이며, 석곽묘에서도 제3호에서 고배 대각과 개배 편이 확인된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아직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대가야의 생활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출토유물로 6세기 전반 대에 조성된 생활유구와 분묘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7, 『고령 지산동유적』.

Ⅰ구역 유구 배치도

Ⅲ구역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구역 원경

1호 주거지

3호 주거지

2호 석곽묘

3호 석곽묘

3호 석곽묘 출토유물

09

고령 본관동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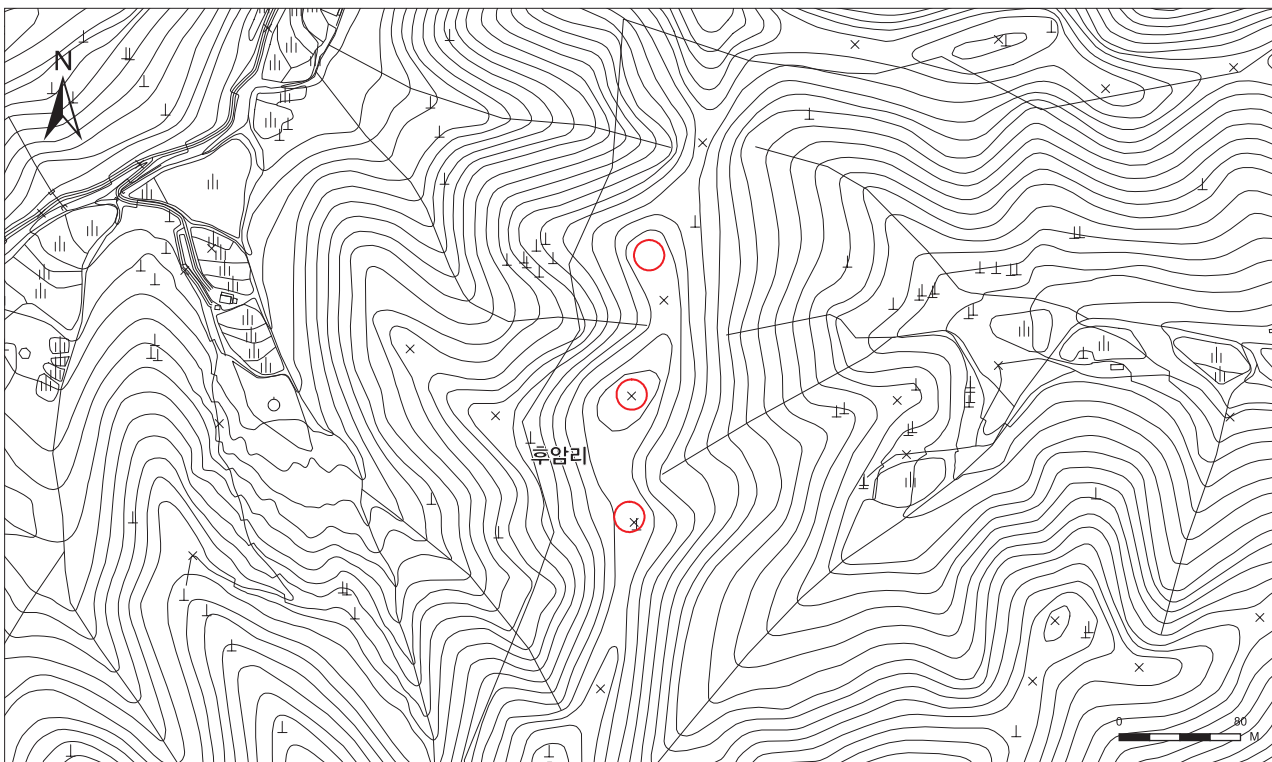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산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계명대학교박물관 / 1983.7.~1983.11.

주요 유구 / 유물
석실묘, 석곽묘 / 장경호, 기대, 고배, 유개합, 갑옷, 대도

유적은 대가야읍 본관리 관동마을 서쪽 뒷산의 정선부에 위치한다. 학술조사 목적으로 삼국시대 봉토분 3기(제34~36호분)와 수혈식석곽묘 9기, 통일신라시대 화장묘 1기가 조사되었다.

봉토분은 대형분 1기(제36호)와 중형분 2기(제34·35호)로 모두 타원형 봉분에 중앙부에는 할석조 수혈식석실을 두고 나란한 방향으로 '11'자형의 지상식 순장곽을 갖춘 구조이다. 세장한 주곽의 개석은 9~15매 정도 덮었고, 모두 꺾쇠가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목관 또는 목관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봉분외곽이나 내부에 'ㄷ'자형 석구조물 1~2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사유구로 추정된다.

제34호분의 규모는 봉분 직경 11.8m, 주곽은 길이 6m, 너비 1m, 깊이 1.5m, 북편의 순장석곽은 길이 1.7m, 너비 0.53m, 높이 0.33m 정도이다. 제35호분의 규모는 봉분 직경 14.2~15.5m, 주곽은 길이 8.23m, 너비 1.1m, 깊이 1.5m, 북편의 순장석곽은

유적 위치도

유적 전경

길이 2.46m, 너비 0.56~0.75m, 높이 0.46m 정도이다. 제36호분의 규모는 봉분 직경 18~19.5m, 주곽은 길이 10.1m, 너비 1.2~1.35m, 깊이 1.8m, 서쪽의 순장석곽은 길이 5.1m, 너비 0.95~0.97m, 높이 0.85m로 바닥에는 잔자갈을 한 벌 깔았다.

석곽묘 9기는 모두 할석으로 쌓은 수혈식 구조로 전형적인 대가야식 묘제이다. 규모는 길이 2.13~5.65m, 너비 0.47~0.9m, 깊이 0.57~1.18m 정도이다. 이 중 바닥에 할석을 부분 혹은 전면에 깐 것이 3기 있으며, E호분은 할석조 석곽묘 안에 판석으로 내관을 짜맞추었으며, 석관 바닥에만 시상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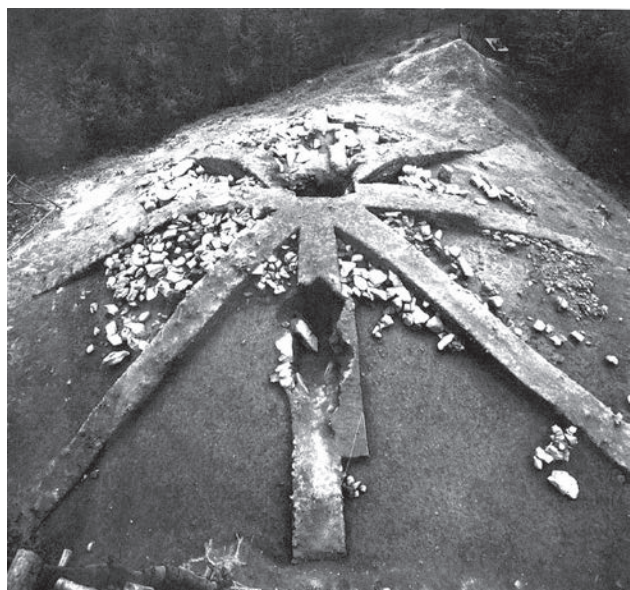
출토유물은 장경호를 비롯한 각종 호, 발형·통형·고리형기대, 고배, 개배, 완, 발, 방추차 등 토제류와 금제이식, 유리구슬 등 장신구가 있다. 철기류는 갑옷, 금동제소찰, 투구, 대도, 소도, 도자, 철창, 철촉, 화살통 장식, 재갈, 운주, 교구, 철환, 축소모형철기, 꺾쇠 등 무기류와 마구류가 대부분이다.

고분의 축조시기는 봉토분의 경우 5세기 말~6세기 초이며, B석곽묘는 5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한편, 토기류는 대부분 전형적인 대가야 양식을 보이지만 장경호, 단경호 대호 중 일부는 낙동강 동안양식을 보이고 있어 신라권역인 대구·현풍지역과의 교류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계명대학교박물관, 1995, 『고령 본관동고분군-제34·35·36호분 및 석곽묘군-』.

35호분

35호분 주곽

36호분 봉토

36호분

출토유물

10

고령 쾌빈동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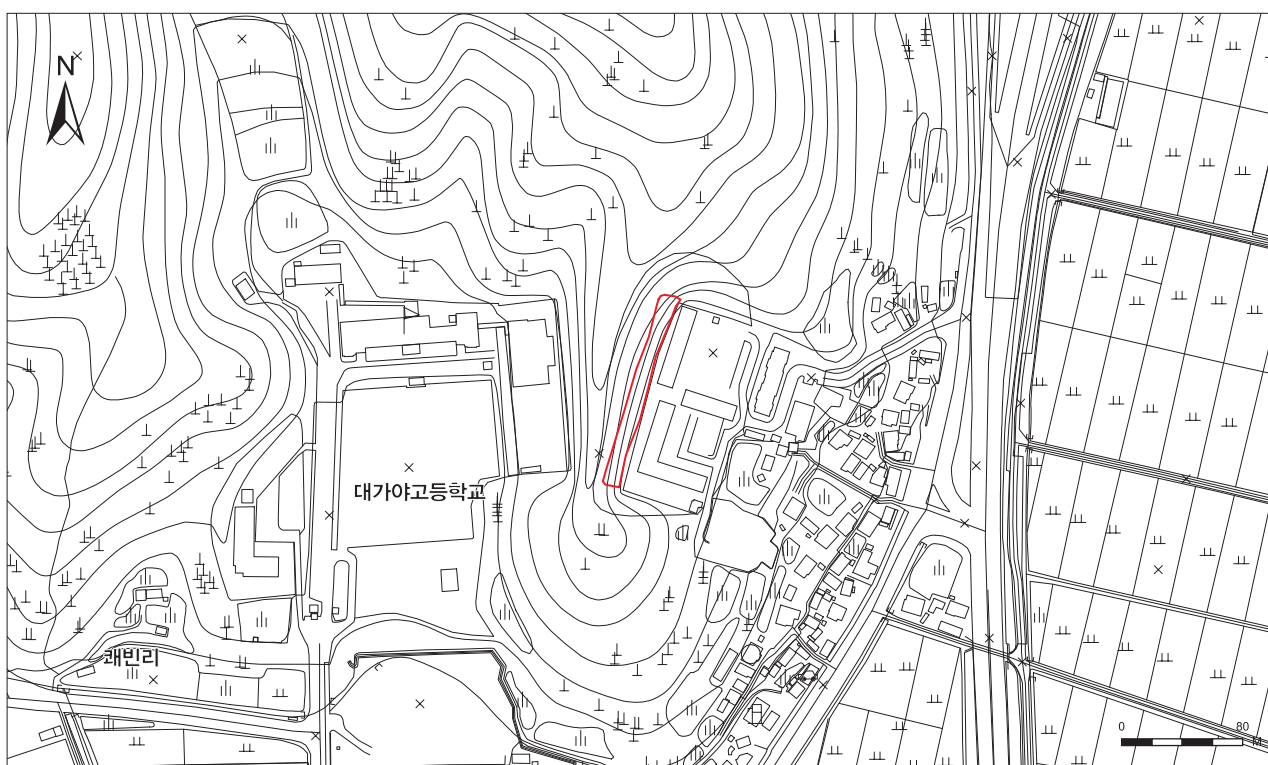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산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 1995.5.~1995.7.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발형·통형·화로형기대, 유자이기, 축소모형철기, 금제이식

유적은 대가야읍내에서 성주 방향으로 약 2㎞ 떨어진 국도 33호선의 서쪽 구릉 일대에 위치한 쾌빈리고분군의 분포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해동디오팰리스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삼국시대 목곽묘 3기와 수혈식석곽묘 10기가 조사되었다.

목곽묘 3기는 규모면에서 영남지방 목곽묘 중 중형급에 해당한다. 제1호 목곽묘의 목곽 규모는 잔존 길이 4.4m, 너비 2.8m, 잔존 높이 0.95m이다. 상부에서는 봉토매납품으로 보이는 대호, 기대, 유자이기 등이 출토되었고, 남서쪽 보강토에서는 순장곽으로 추정되는 소형 석곽 1기가 확인되었다. 제12호 목곽묘의 목곽 규모는 3.3m, 너비 1.9m, 잔존 높이 0.21m이며, 제13호 목곽묘는 반파되고 출토유물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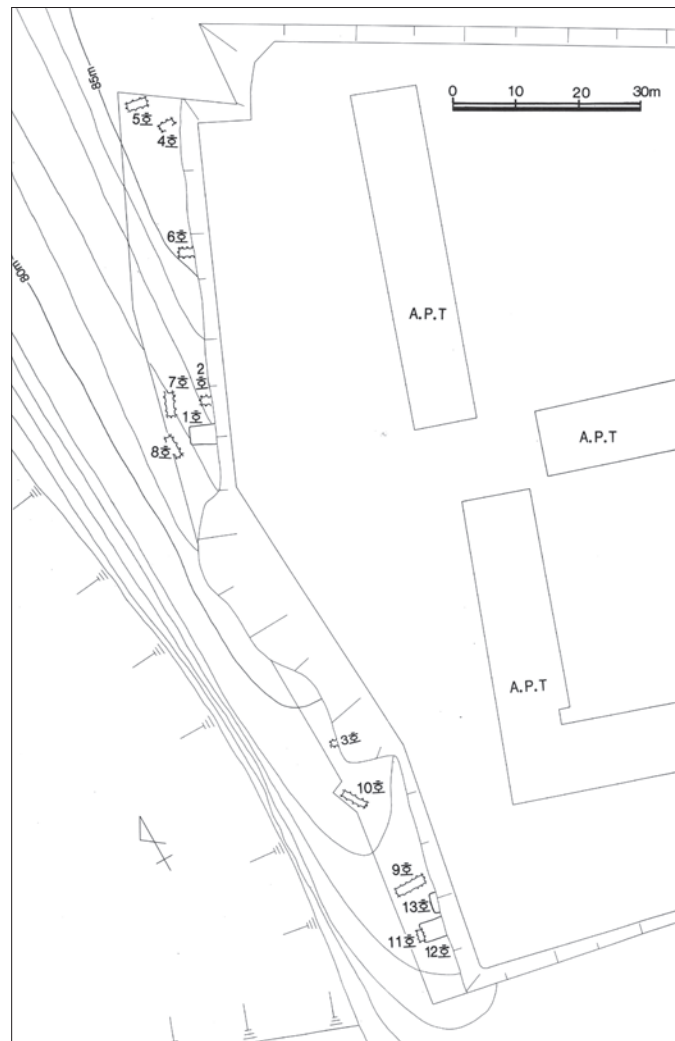
수혈식석곽묘는 반지하나 거의 지상화된 것으로 6세기 전반 대가야고분에서 많이 보이는 일반적인 구조이다. 대부분 할석조석곽으로 유존상태가 양호한 제5·7·9·10호를 통한 석곽 규모는 길이 345~392㎝, 너비 67~79㎝, 길이 40~60㎝ 정도이다. 한편, 제11

유적 위치도

호 석곽묘는 제12호 목곽묘의 서단벽에 중복조성되어 있는데, 유일한 판석조석곽으로 규모는 길이 0.75m, 너비 0.27m, 깊이 0.36m 정도의 소형이다. 제12호 목곽묘의 순장곽 또는 배장곽일 가능성이 있으나 출토유물이 없어 자세히 알 기 어렵다.

목곽묘에서는 발형·통형·화로형기대, 장경호, 대호, 파수부완, 개 등의 토기류와 철촉, 도자, 유자이기, 각종 축소모형철기 등이 출토되었다. 석곽묘에서는 장경호·뚜껑·배·각종 호류·완 등의 토기류와 철모·철촉·도자·유자이기·각종 축소모형철기·원두정·꺾쇠·철환·방형판금구 등의 철기류와 금제귀걸이, 청동환 등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고분의 축조시기는 목곽묘는 4세기 말~5세기 초이며, 석곽묘는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경으로 추정된다. 한편 제1호와 제12호 목곽묘를 통해 대가야의 묘제가 목곽묘에서 수혈식석실분 그리고 횡구식석실분과 횡혈식석실분으로 이어졌다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1호 목곽묘에서는 고령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순장곽이 확인되어 그 중요성을 더한다.

참고문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1996, 『고령 쾌빈동고분군』.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호 목곽묘

12호 목곽묘

토기류

철기류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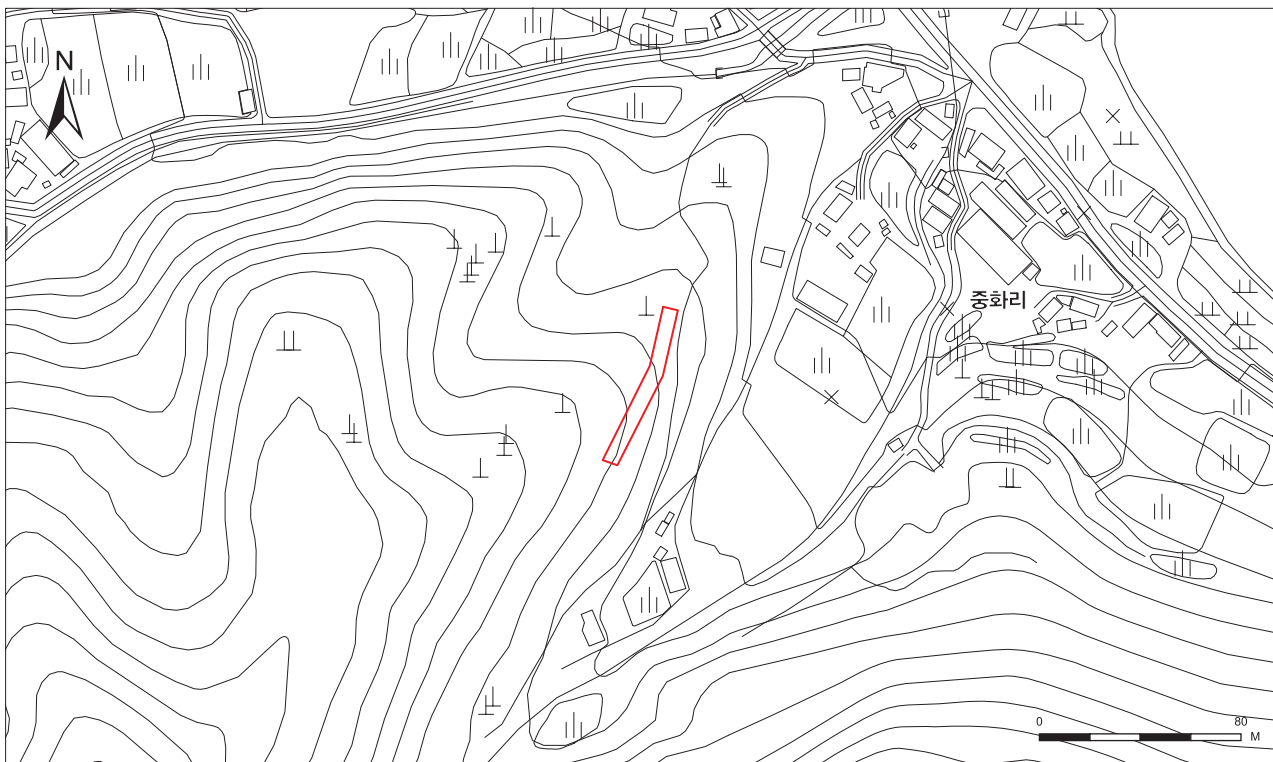
고령 중화리고분군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중화리
산1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다온문화재연구원 /
2017.3.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유개장경호,
유개단경호, 개배, 방
추차, 철촉, 철부, 도자

중화리 고분군은 남서쪽 주산(해발 310m) 정상부에서 북동쪽의 중화저수지 방향으로 뻗어 내린 가지 능선 말단부인 해발 50~240m 내외에 분포하는데, 대략 200여 기로 이루어진 소형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고분 하단부는 단독주택 건립과 관련한 진입로 개설 부지에 대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대가야시대 수혈식석곽묘 3기가 조사되었다.

제1호 석곽묘는 판석조석곽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홈을 파고 장벽을 구축한 뒤 단벽을 끼워 넣은 구조로 상부에는 할석을 몇 단 눕혀쌓기 하였다. 바닥에는 납작한 판석을 부석하였다. 석곽 규모는 길이 3.1m, 너비 0.73m, 깊이 0.63m이다. 제2·3호 석곽묘는 할석조석곽으로 벽체는 편평한 할석을 눕혀쌓기 하였는데, 하단은 가로눕혀쌓기하고 상단으로 가며 세로눕혀쌓기가 혼용되었다. 서로 연접되어 있는데 제3호 석곽묘가 선축되었다. 제2호 석곽묘의 규모는 길이 3.1m, 너비 0.74m, 깊이 0.75m이고, 제3호 석곽묘의 규모는 길이 3.3m, 너비 0.98m, 깊이 0.32m이다. 개석은 제3호 석곽묘에서 4매가 부러

유적 위치도

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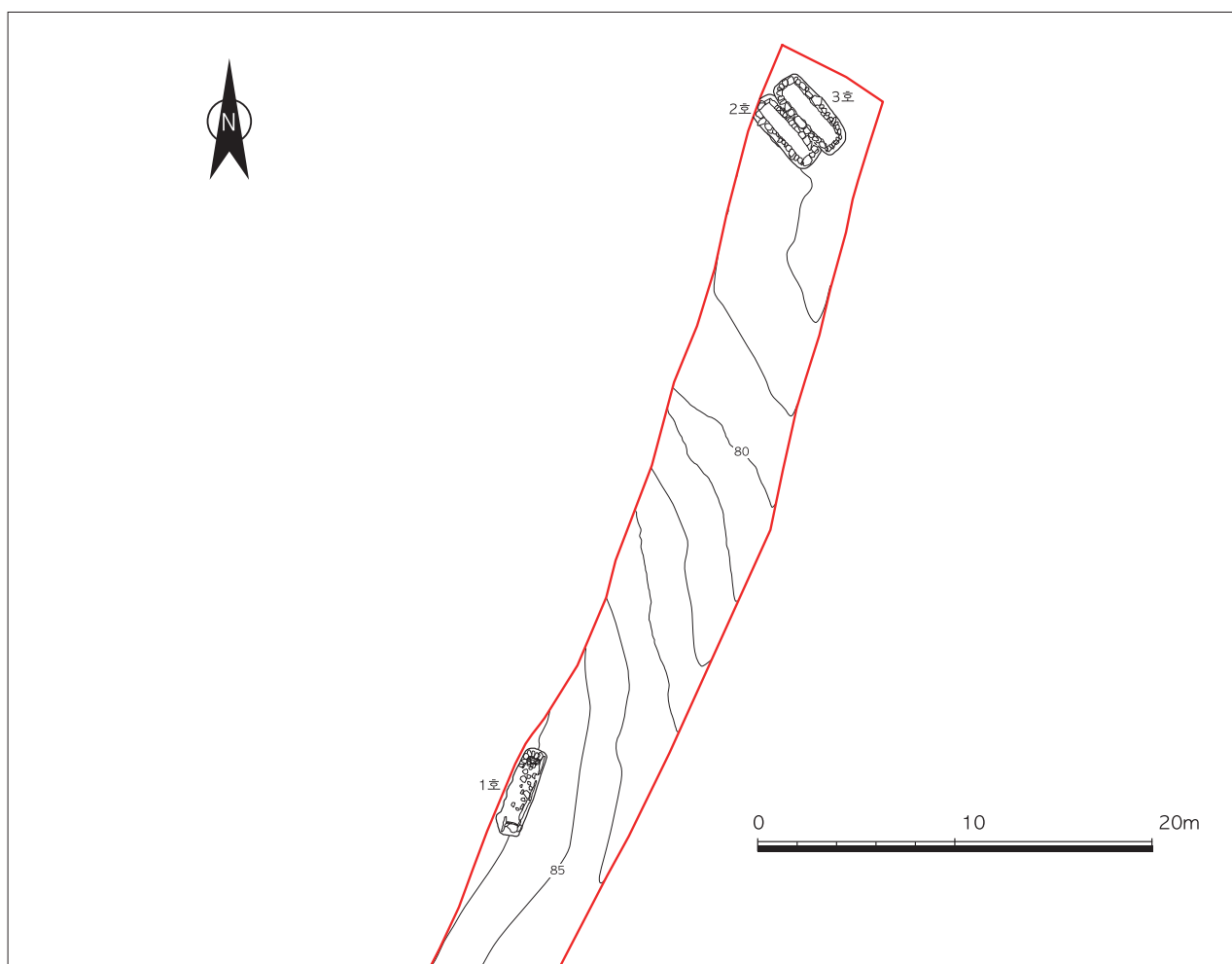
유물은 유개장경호, 유개단경호, 개배, 방추차, 철촉, 철부, 도자 등 토도류와 철기류 38점이 보고되었다. 이 중 개배 1점에는 고둥 39개체가 담겨 있었다.

고분의 축조시기는 제1호 석곽묘는 5세기 후반, 제2·3호 석곽묘는 6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곽묘 3기는 전형적의 대가야 묘제이고 출토유물도 대가야 왕도의 중심고분군인 지산동고분군과 동일한 기종이다. 지리적으로도 주산 자락에 포함되어 지역 소규모 고분군과 중심 고분군과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6년 대동문화재연구원의 시굴조사에서는 금번에 조사된 석곽묘 3기 외에 1단 정도의 벽석만 남은 석곽묘 6기가 보고되었으나 발굴조사에서는 누락되었다. 이 석곽묘들은 거의 지상화되고 최하단석만 남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화리고분군을 포함하여 인근 월산리고분군 등 지역적으로 많이 보인다. 따라서 낮은 벽체와 지상화된 석곽묘의 구조는 대가야묘제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므로 주의 깊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대동문화재연구원, 2016, 「고령 중화리 산13-1번지 진입로 개설부지 내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부분완료 약보고서」.

다온문화재연구원, 2017, 『고령 중화리 고분군』.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2·3호 석곽묘

출토유물

12 고령 박곡리 산69번지 창고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산69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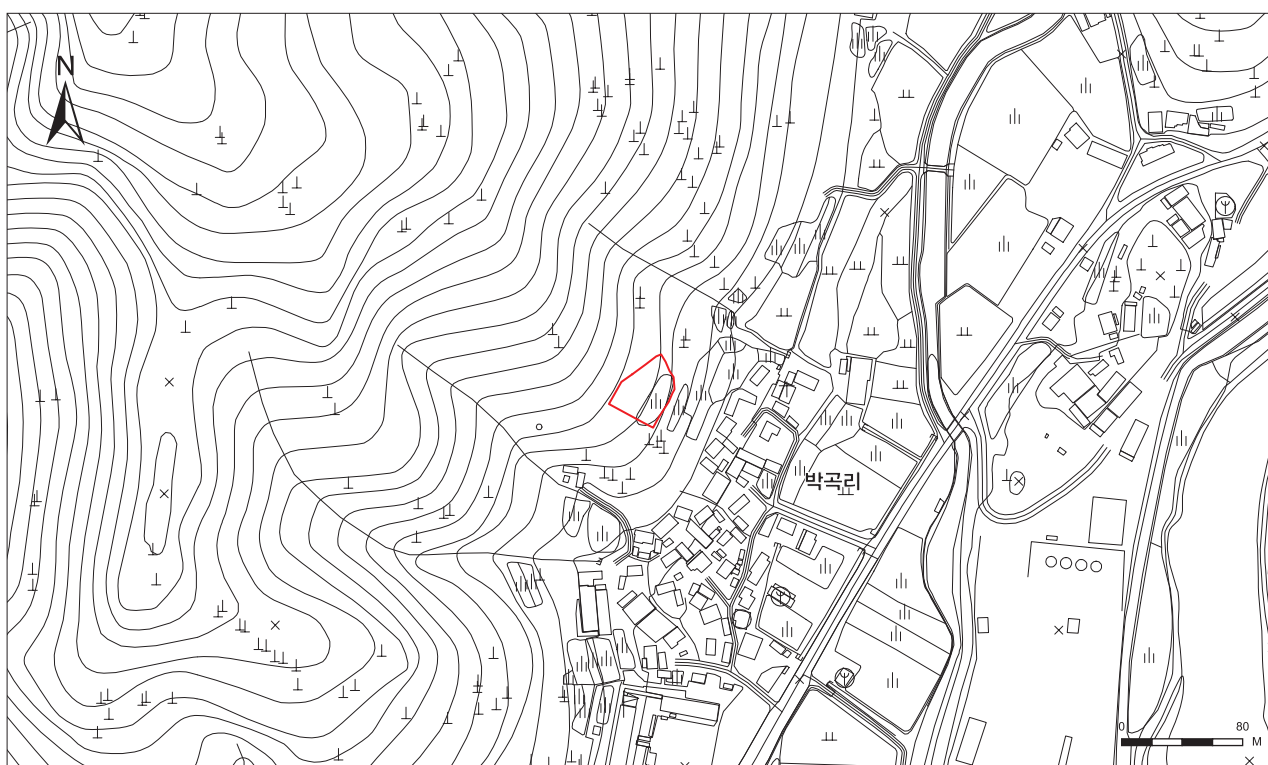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화재재단 / 2016.2.~2016.4.

주요 유구 /유물
목곽묘, 석곽묘 / 기대, 장경호, 고배, 곡옥, 이식, 대도

유적은 고령군 성산면 박곡초등학교의 북쪽으로 외곡산(해발 535m)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사면부인 해발 40~51m 사이에 위치한다. 고령군 문화재분포지도에 게재된 삼국시대 고령 박곡리고분군 범위의 남쪽 말단부에 해당한다.

표본조사를 거쳐 발굴조사한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원삼국시대 목곽묘 2기, 삼국시대 석곽묘 17기 등 20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목곽묘는 평면 세장방형으로 장축은 등고선과 나란하다. 유존상태가 양호한 목곽묘 1호의 묘광 규모는 길이 2.85m, 너비 1m, 깊이 0.45m이며, 목곽의 규모는 길이 2.55m, 너비 0.7m 정도이다.

석곽묘는 다곽식과 단곽식이 모두 확인되었다. 장축은 등고선과 나란하며, 평면은 세장방형이다. 벽석은 할석식과 판석식 모두가 확인된다. 할석으로 축조한 석곽이 12기로 다수를 차지하는데, 횡·종평적로 혼용한 구조이다. 시상은 15호에서만 확인

유적 위치도

되었는데, 남쪽 부장칸을 제외한 전면에 납작한 할석을 깔았다. 대체적인 규모는 길이 2.25~4.03m, 너비 0.44~0.84m, 깊이 0.24~0.85m 정도이다. 판석으로 축조한 것은 5기로 바닥에 피홈을 파고 두께 5~10cm 정도의 납작한 판석을 세웠는데, 장벽을 먼저 구축한 후 단벽을 내측에 끼운 구조이다. 시상은 3기에서 판석을 깔았으며, 4호는 격벽을 세워 부장칸을 독립시킨 구조이다. 규모는 길이 2.25~2.82m, 너비 0.30~0.47m, 깊이 0.40~0.70m 정도이다.

유물은 목곽묘에서 단경호와 연질발이 출토되었고, 석곽묘에서는 기대, 장경호, 개배, 유개고배, 연질발, 방추차 등의 토제류, 곡옥, 이식 등 장신구류, 대도, 철부, 철모, 철겸, 철촉 등의 철기류가 확인되었다. 모두 전형적인 대가야식 토기와 철기류들이다.

축조시기는 목곽묘는 4세기 말, 석곽묘는 6세기 초엽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고령에서 확인된 목곽묘는 쾌빈리고분군과 반운리와질토기유적이 전부이다. 박곡리고분군에서 목곽묘가 확인됨을 통하여 대가야 성립 이전의 집단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더불어 박곡리고분군은 고령 동부권 최대고분으로 인접한 동시기 봉화산성을 운영하던 집단의 분묘지로서 향후 대가야 지역 분묘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한국문화재재단, 2016, 「고령 박곡리 산69번지 창고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 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유구 배치도

1호 석곽묘

1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4호 석곽묘

15호 석곽묘

토기류

13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670-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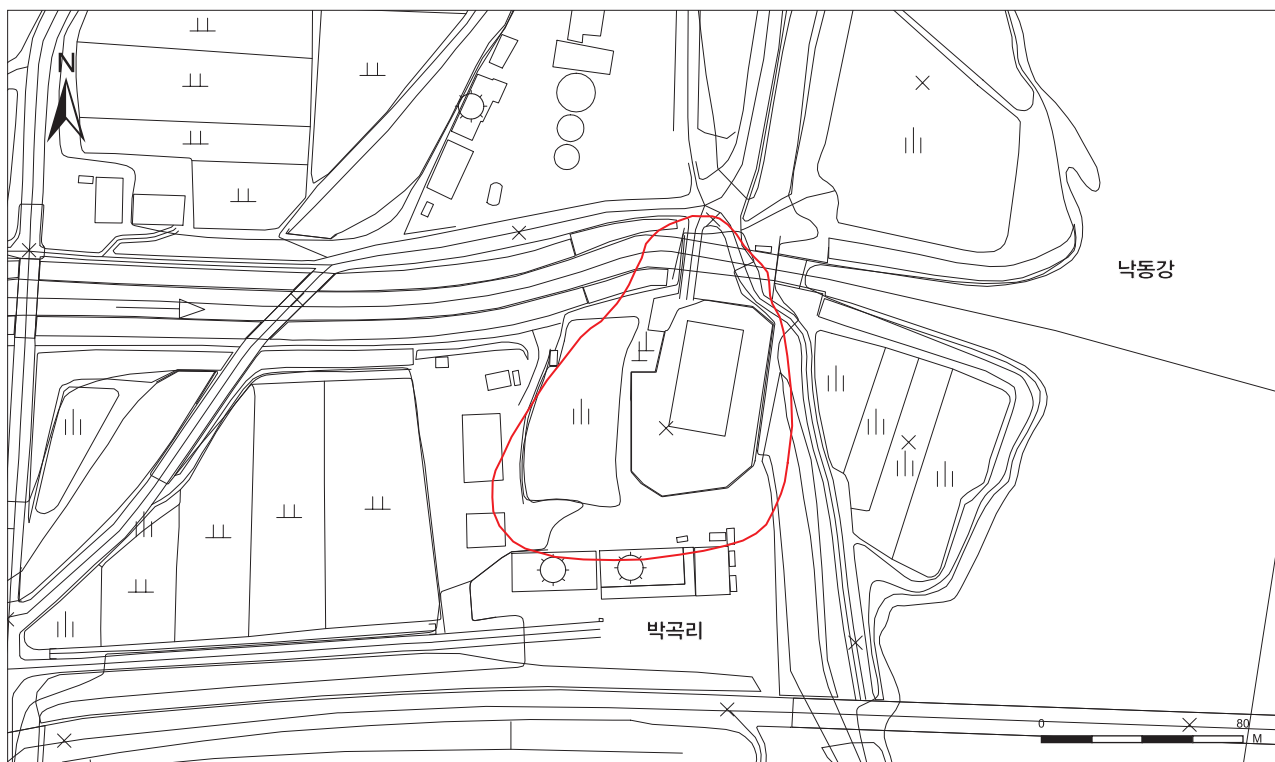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계명대학교박물관 /
2000.3.~2000.4.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장경소호,
고배, 개배

고령 박곡리유적 _ 임진왜란 전적기념관 건립부지 내 유적

유적은 대구에서 고령으로 향하는 88고속도로를 따라 가다가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낙동교가 끝나는 지점의 북편에 접한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임진왜란 전적기념관 건립공사부지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석곽묘 1기와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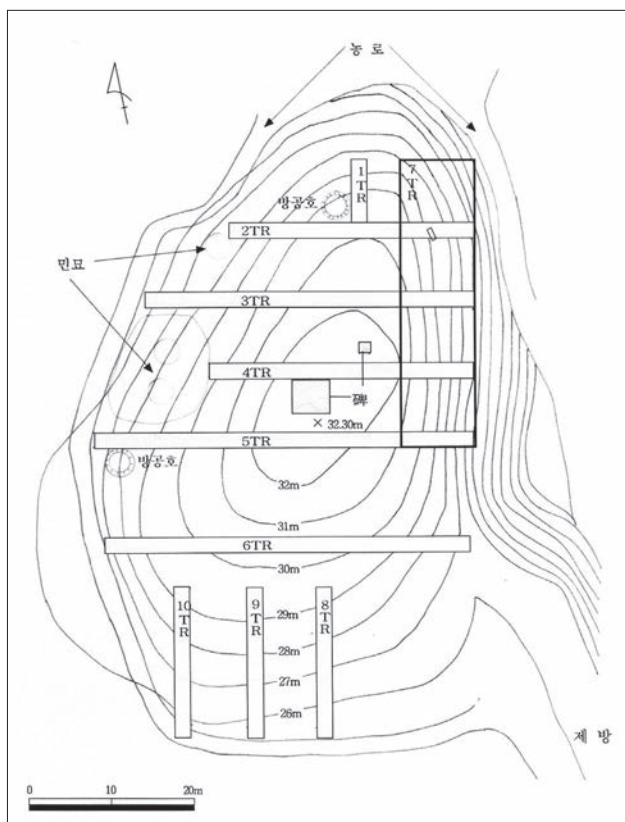
석곽묘는 경사면을 이루는 청석암반을 떼어내어 축조되었는데, 절취된 암반을 그대로 이용하다보니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높은 부분인 서장벽부와 남단벽부의 자연암면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일반적인 대가야 묘제로 볼 때 경사면 아래쪽인 동쪽과 북쪽은 할석을 쌓아 벽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석곽의 규모를 추정복원하면 길이 1.2m 너비 0.55m 깊이 0.4m 정도이다. 내부는 매장공간과 부장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매장공간은 부장공간과 같은 형태로 경사진 바닥면에 흙을 채워 수평을 맞추었으며, 부장공간보다 5cm 정도 낮다. 남쪽의 부장공간은 0.35×0.55m 규모인데, 내부에는 장경소호, 개배, 고배 각 1점이 출토되었으며, 매장

유적 위치도

공간에 떨어진 상태로 출토된 개배 역시 부장공간에서 흘러내린 양상을 보인다.

석곽묘의 조성시기는 출토유물로 보아 6세기 중엽경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유적은 인접한 고령 박곡리고분군의 한 지류로 지표수습되어 보고된 토기 중에는 4세기대의 유물도 확인되는데, 인접한 고령 박곡리 산69 유적에서 목곽묘가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일대에도 목곽묘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지역 일대가 대규모로 삭평되어 석곽묘 1기만 확인되었자만 고령 동부권 최대고분군인 박곡리고분군의 성격과 인접한 동시기 봉화산성을 운영하던 집단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계명대학교박물관, 2000, 『임진왜란 전적기념관 건립 부지 내 고령 박곡리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석곽묘

출토유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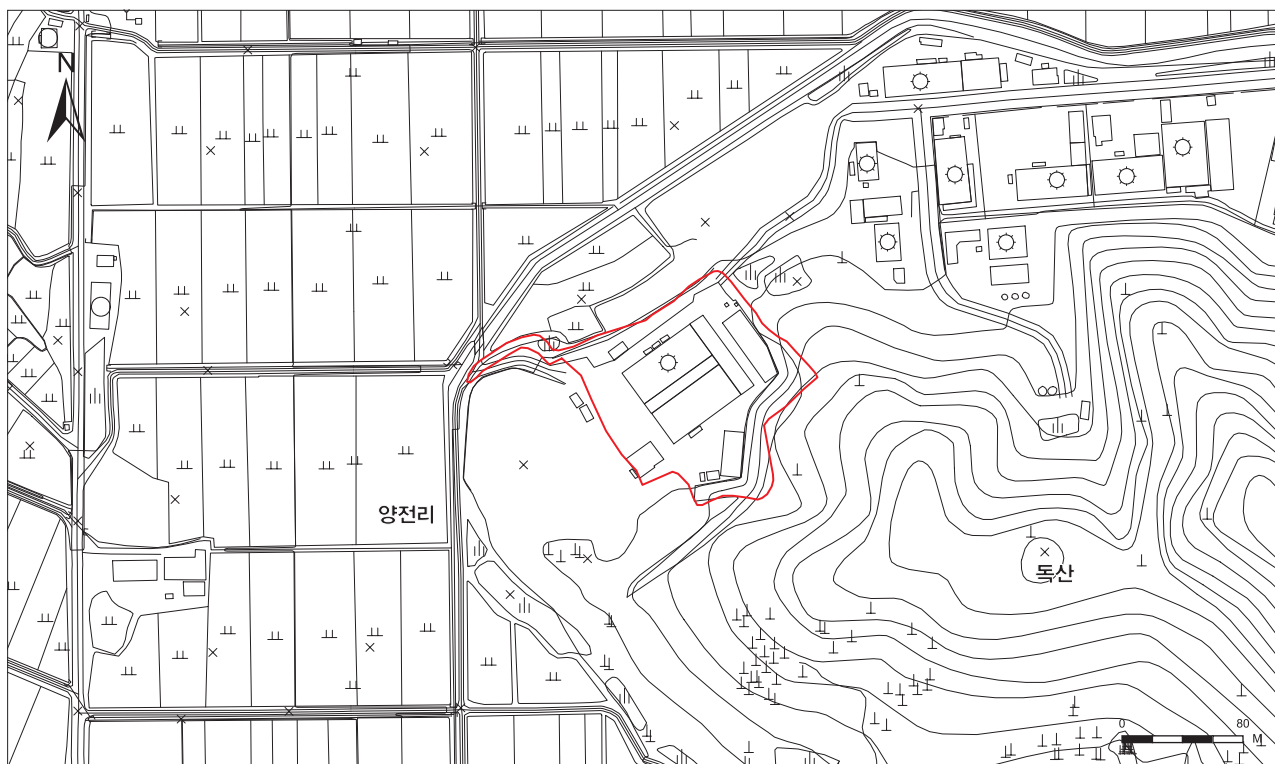
고령 양전리 공장건립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 산29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가야박물관 /
2006.11.~2007.1.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제사유구 /
고배, 단경호, 기대, 환두대도, 소찰 편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와 반운리의 평야 가운데에 우뚝 솟아 동-서로 길게 형성된 독산(해발 127m)의 서쪽 기슭의 북쪽 사면부에 유적이 위치하는데, 기존 조사를 통해 보고된 '반운리와질토기유적'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삼국시대 유구로는 석곽묘 12기와 제사유구 2기가 확인되었고, 그와 함께 고려~조선시대의 민묘 7기, 주거지 7기, 수혈유구 4개소, 구 5기, 주혈군 3개소, 암거 3개소 등도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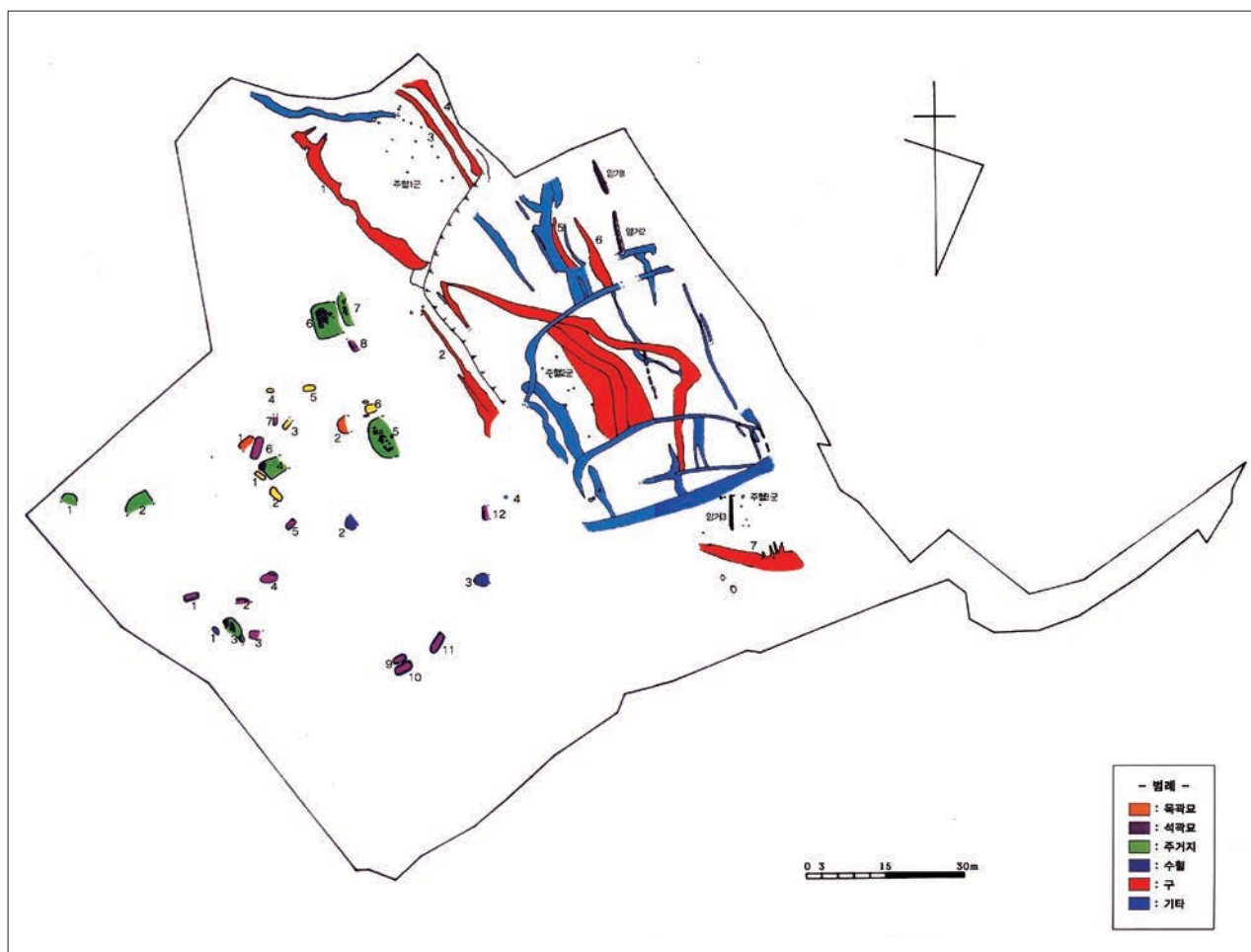
석곽묘 12기는 모두 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성되었으며, 세장방형의 수혈식의 구조이다. 벽체는 주로 할석식이 많지만 장벽을 할석으로 쌓고 단벽을 판석식으로 마감하거나 일부 판석의 벽체를 보이는 것도 있다. 유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 잔존규모는 길이 1.3~4.3m, 너비 0.6~1.7m, 깊이 0.1~0.4m 이다. 부장양상은 양단부장이 주류로 보이나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바닥시설은 없다. 유물은 고배·단경호·기대·방추차 등의 토기류와 환두대도·도자·철모·철부·철겸·철촉·교구·소찰 편 등 다양한 종류의 철제무기 및 농공

유적 위치도

구류가 출토되었다.

제사유구 2기는 장방형과 반타원형으로 규모는 길이 2.8m 너비 1.1~1.3m이다. 인근 지산동고분군의 봉토분 주변에서 확인된 제사유구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관련 고분은 보고되지 않았다. 유물은 대호·기대·대부완·완·호 편들이 출토되었는데, 의도적으로 깨뜨린 것들이다.

유적에서 조사된 제사유구 및 석곽묘 등에서 출토된 고배나 기대 등은 고식도질토기에서 대가야 토기로 발전해 가는 단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고령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쾌빈동목곽묘~지산동 35호분 단계의 출토품과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보아 조성시기는 5세기 전엽 이후로 판단된다. 또한 이른 시기의 환두대도와 철모, 소찰 편 등 다양한 종류의 철기류가 출토되어 대가야 중심고분군인 지산동고분군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주변지역 군소집단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대가야박물관, 2007, 「고령 양전리 공장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호 제사유구

11호 석곽묘

토기류

철기류

15

고령 양전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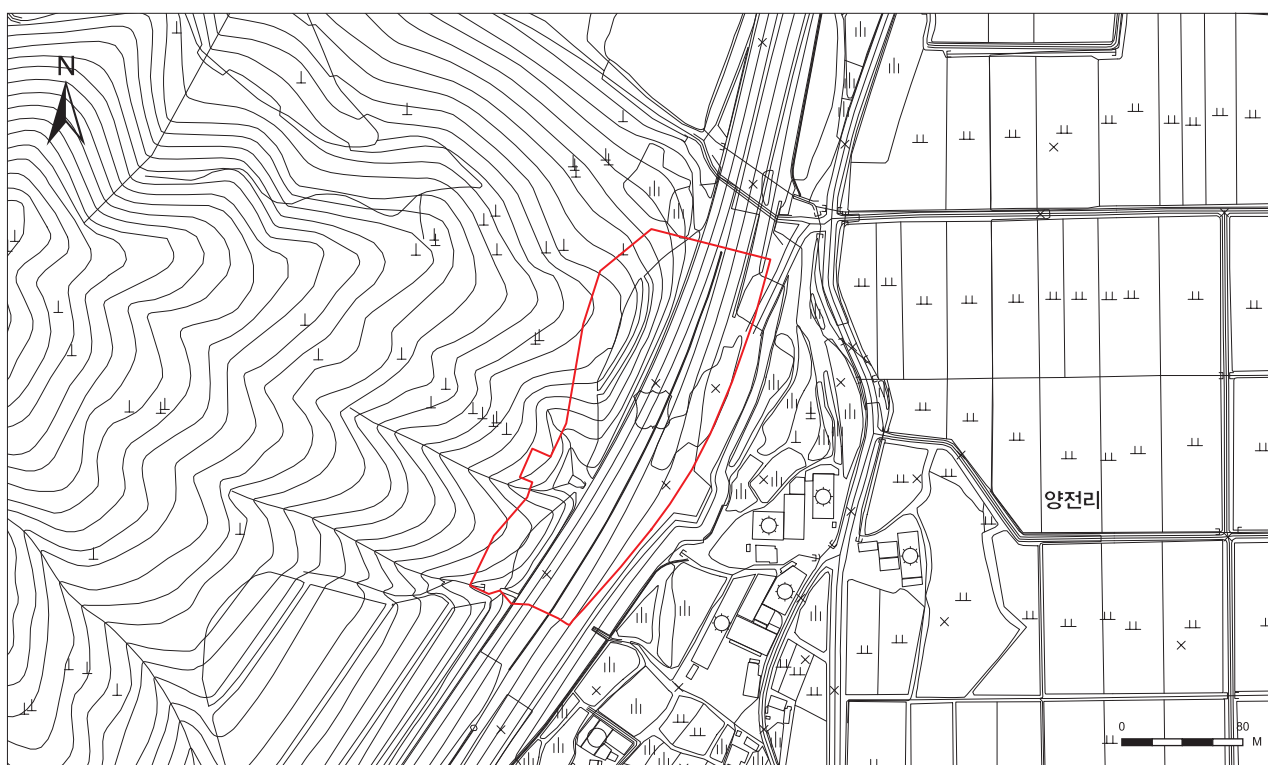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 37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동문화재연구원 / 2009.11.~2010.11.

주요 유구 / 유물
옹관묘, 석곽묘 / 유개고배, 유개장경호, 개배, 기대, 대도, 철촉, 철모, 이식

유적은 금산(해발 289m)의 주능선이 남쪽으로 길게 내려오다가 광주대구고속도로(舊88올림픽고속도로)에 의해 절개된 부분 인근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말단부로 개진면 양전리 양전마을의 서쪽에 해당한다. 고속도로 확장구간에 편입된 유적에서는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옹관묘 1기, 삼국시대 봉토분 1기(석곽 2기)와 석곽묘 32기, 조선시대 건물지 2기, 주거지 1기, 토광묘 20기, 회곽묘 2기, 수혈 7기, 구 7기, 노지 1기, 주혈 1공 등이 조사되었다.

옹관묘는 우각형파수가 달린 길이 1.26m, 너비 0.66m의 타원형묘광 안에 무문토기 태토의 대형장동옹 1점을 매납한 형태로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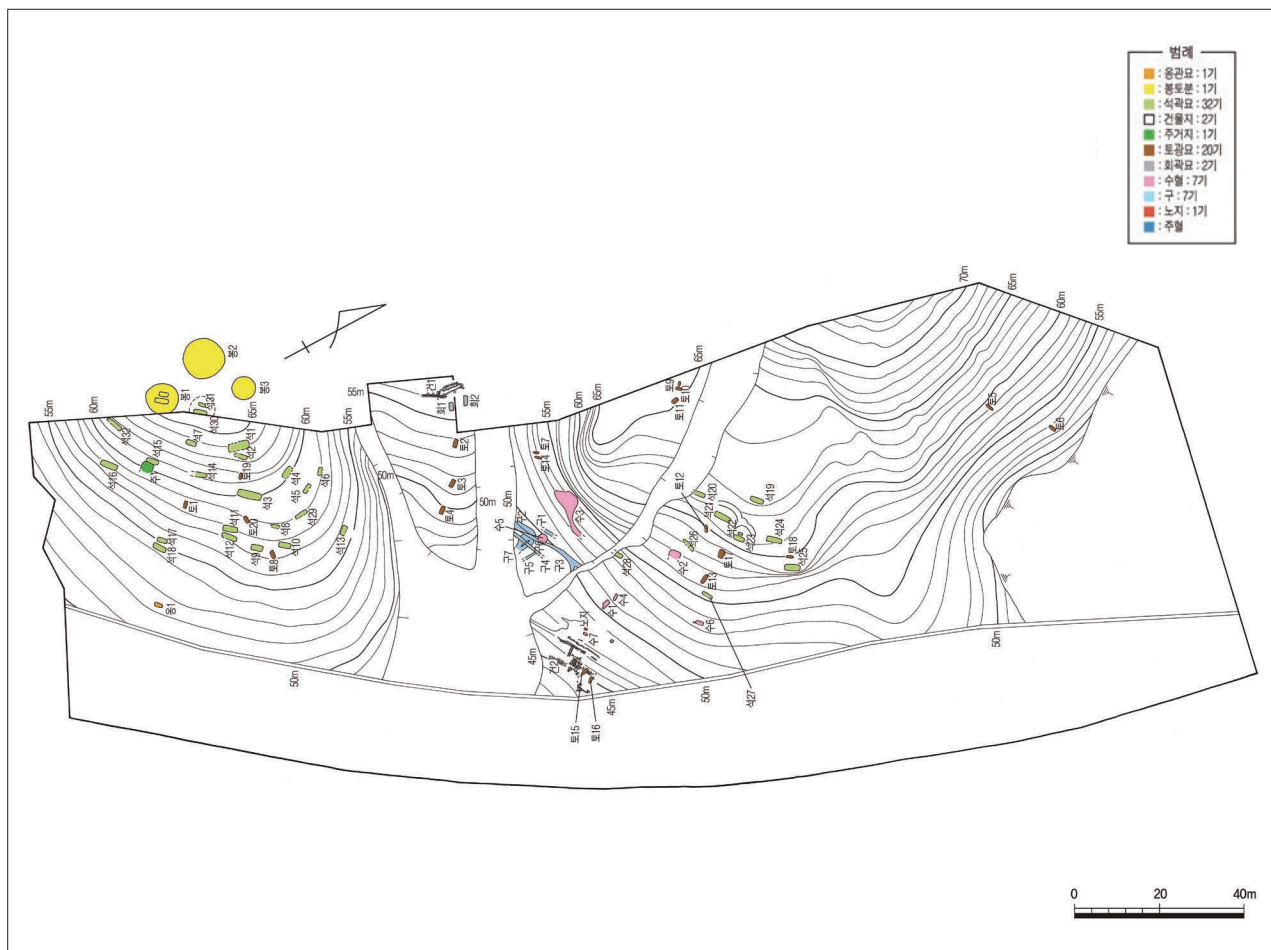
봉토분을 포함한 석곽묘 34기는 모두 등고선과 나란하게 조성되었으며, 세장방형의 수혈식의 구조로 벽체는 할석식(25기)과 판석식(5기), 할석+판석혼용식(4기)이 모두 확인되는데, 전형적인 대가야묘제의 형태이다. 석곽묘의 조성방식은 단독으로 조성된 경우

유적 위치도

와 2기가 동일 묘역 내에 조성된 것으로 구분된다. 동일 묘역 내의 경우 대등관계와 주곽과 배묘 관계가 각각 절반정도이며, 주구는 2기에서 확인된다. 구조면에서는 격벽에 의한 주·부곽식과 단곽식으로 구분되며 그 중 4기가 주·부곽식이다. 매장주체부의 목관여부는 보강석과 관정, 관대시설 등을 통해 6기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모두 천·할석을 이용한 단곽식이다.

봉토분과 석곽묘의 출토유물 중 토도류는 유개고배, 개배, 유개장경호, 유개단경호, 대부완, 유개파수부발, 저평통형기대, 방추차, 어망추 등 236점이며, 금속류는 대도, 도자, 철촉, 철모, 철부, 철겸, 관정, 이식 등 150점이다. 토도류는 대가야 토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장경호와 개배가 주류를 이루고, 일부 석곽묘에서는 대가야 토기와 함께 신라토기들도 소량 출토되었는데, 현풍계 토기가 주류이다. 금속류는 도자와 철촉의 부장빈도가 높으며, 이식은 3기에서 출토되었는데, 신라계인 태환이식 1쌍도 포함되어 있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유물로 보아 6세기 중반 경으로 판단된다. 대가야 중심고분군인 지산동고분군과 주변 하위고분군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신라 토기 및 금속류의 부장으로 신라와의 교류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대동문화재연구원, 2012, 『고령 양전리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1호 봉토분

3호 석곽묘

11·12호 석곽묘

21~23호 석곽묘

16

고령 반운리목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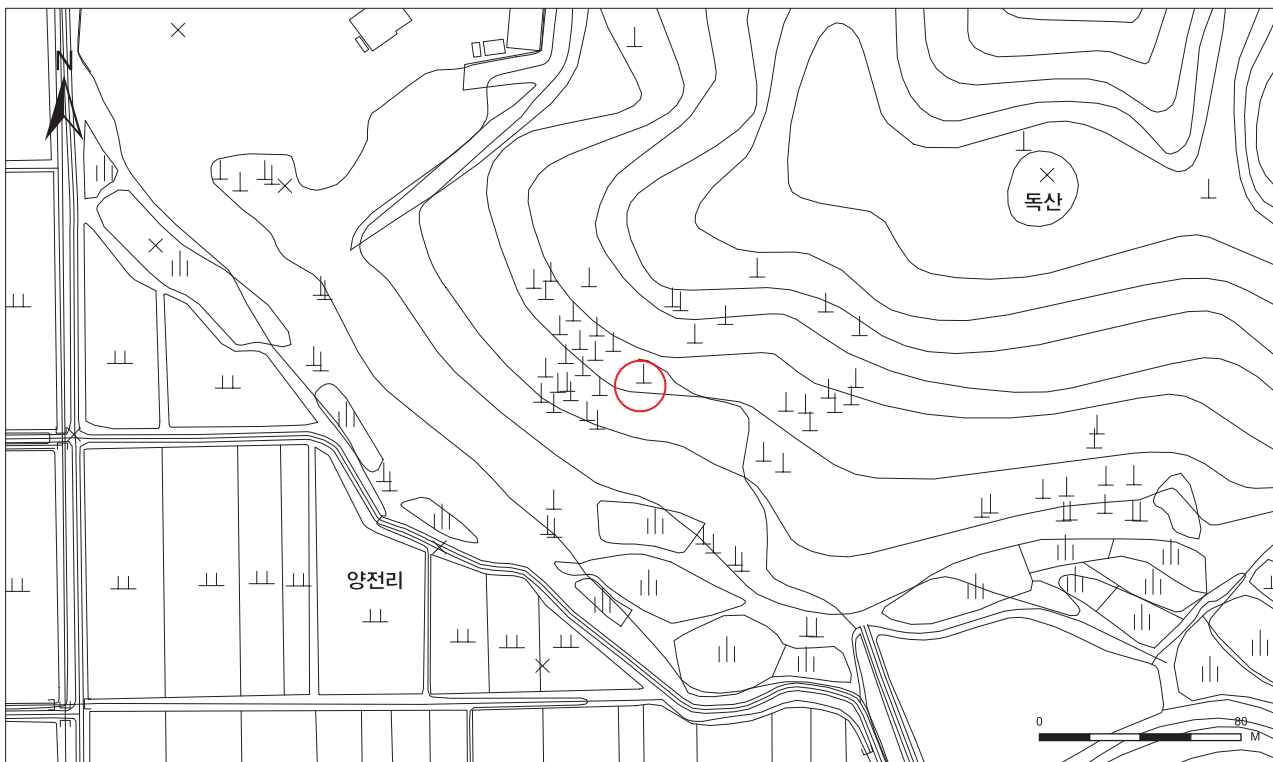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산1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양대학교박물관 / 2004.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단경호, 철부, 철모, 철촉, 곡도자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에 있는 원삼국~삼국시대의 고분군인 반운리 와질토기 유적 내에 위치한다. 유적은 독산의 서북쪽 능선 하단부에 위치하는데, 문중 납골묘 조성과정에서 수습조사된 유적이다.

목곽묘 3기가 확인되었는데, 제1호를 파괴하고 제2호가 들어선 중복양상도 보인다. 제1호묘는 길이 4.09m, 너비 0.92m의 규모로 서쪽에서는 큰 단조철부 1점, 중간부분에서는 작은 단조철부와 착형철부, 곡도자, 동쪽에서는 주조철부 1점이 출토되었다. 제2호묘는 길이 2.27m, 너비 0.71m의 규모로 서쪽에서는 단경호 1점과 유경식 철촉 1점, 동쪽에서는 유경식 철촉 1점과 무경식 철촉 4점이 출토되었다. 제3호묘는 길이 3.88m, 너비 1.15m의 규모로 서쪽에서 소형 단경호 1점, 동쪽에서 단경호 1점, 중간부분에서 단조철부 1점, 충전토에서 방추차 1점이 출토되었다.

발굴조사된 3기는 모두 장축이 등고선과 나란하며, 조성시기는 3세기 무렵이다. 동

유적 위치도

1·2호묘 전경

1호묘

1호분 출토유물

2호분 출토유물

일한 반운리 와질토기유적에서 과거 지표조사를 통해 채집된 2~4세기의 와질토기가 보고된 바 있다.

이 반운리목곽묘는 회천과 신안천을 배경으로 살았던 원삼국시대 거주민들이 묻힌 집단분묘지로 추정된다. 특히 이 일대는 대가야의 성립 이전 단계인 반로국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어 대가야 성립과정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참고문헌

동양대학교박물관, 2005, 『고령 반운리목곽묘』.

17

고령 도진리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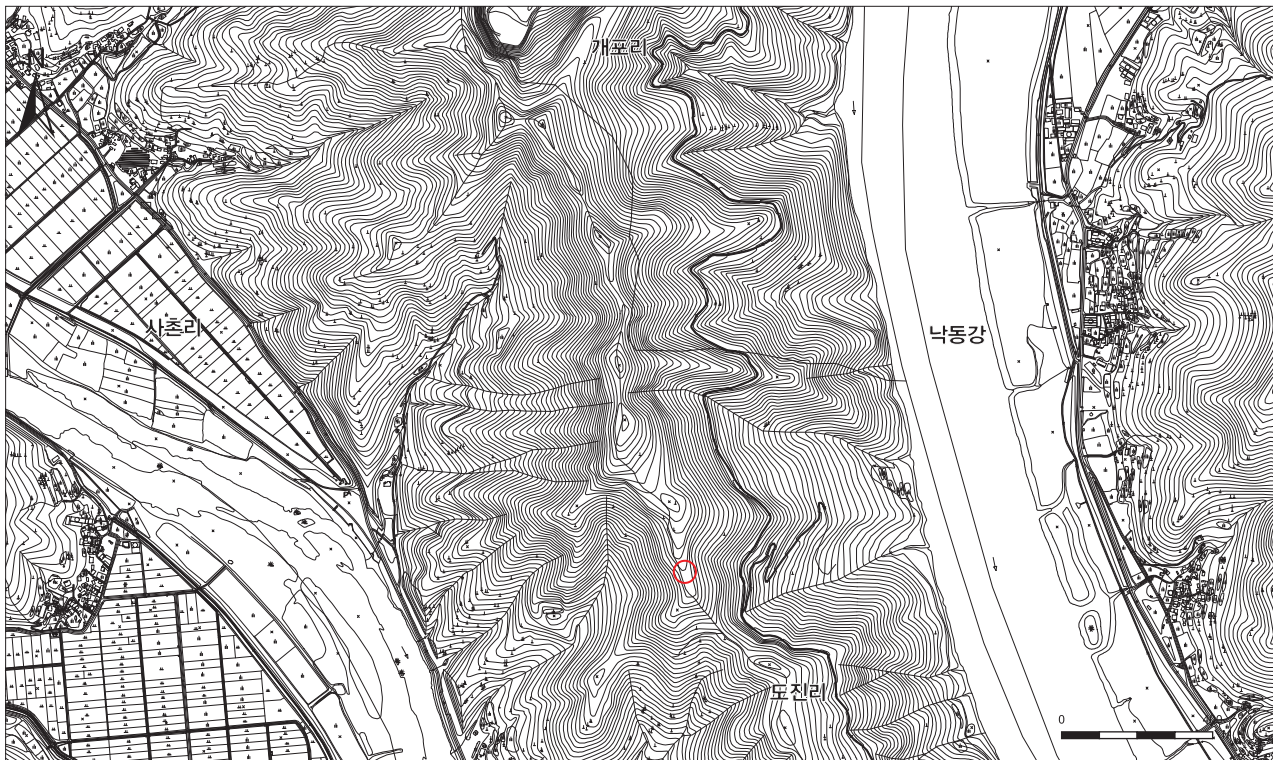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산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영남문화재연구원 / 2000.8.~2000.9.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장경호, 개배, 기대

유적은 북쪽 도진산성이 위치한 해발 303m 정상부에서 남쪽 청룡산(해발 300m) 방향으로 뻗어 내린 좁고 긴 능선 줄기에 분포하는 '도진리고분군 ②' 내에 위치한다. 유적이 위치한 지점은 정선부에 접한 남쪽 사면부로 해발 236~238m에 해당하며, 고압선 철탑 진입로 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석곽묘 2기가 조사되었다.

석곽묘 2기는 모두 판석으로 축조한 반지하식의 수혈식석곽으로 장축은 등고선과 나란하다. 축조순서는 기반층을 굴착한 후 가장자리를 따라 홈을 파고 판석을 수적하였다. 그리고 상면부는 할석을 평적하여 수평면을 맞춘 다음 개석을 올린 방식으로 파악된다.

제1호 석곽묘는 비교적 잔존 상태가 양호한데, 규모는 길이 2.42m, 너비 0.45m, 깊이 0.55m이다. 유물은 동장벽 북편에서 개배 2점, 저평통형기대 1점이 출토되었다. 제2호 석곽묘는 북단벽부 일부만 유존하는데, 잔존규모는 길이 0.7m, 너비 0.46m, 깊이 0.17m 정도로 너비로 미루어 제1호 석곽묘와 비슷한 규모로 판단된다. 북단벽에 접해

유적 위치도

개배 2점, 개 1점, 장경호 2점이 출토되었다. 그 외 주변부에서는 장경호, 저평통형기대, 파수부완, 금동제이식 등이 수습되었는데, 전형적인 대가야 유물이다.

유적의 중심시기는 출토유물로 보아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이 일대는 대가야 치소지에서 비교적 가깝지만 낙동강을 경계로 신라 권역인 현풍 및 창녕과 마주해 있으며 2개의 고분군 사이에 산성이 배치된 특징적인 유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분군 일대에 분포하는 분묘들은 밀집도를 보이는 반면, 소형의 할석 또는 판석 조석곽이 주류를 이루며 봉토분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낙동강과 접한 산정상부라는 입지적인 특징을 통하여 이 일대는 대가야 세력이 낙동강 하류역으로 진출하는 거점이자 방어망의 전초기지가 되는 전략적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산성 인접하여 조성된 고분군으로 대가야 유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산성과 고분군의 조합상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고령 도진리고분군』.

유적 전경

1호 석곽묘

2호 석곽묘

출토유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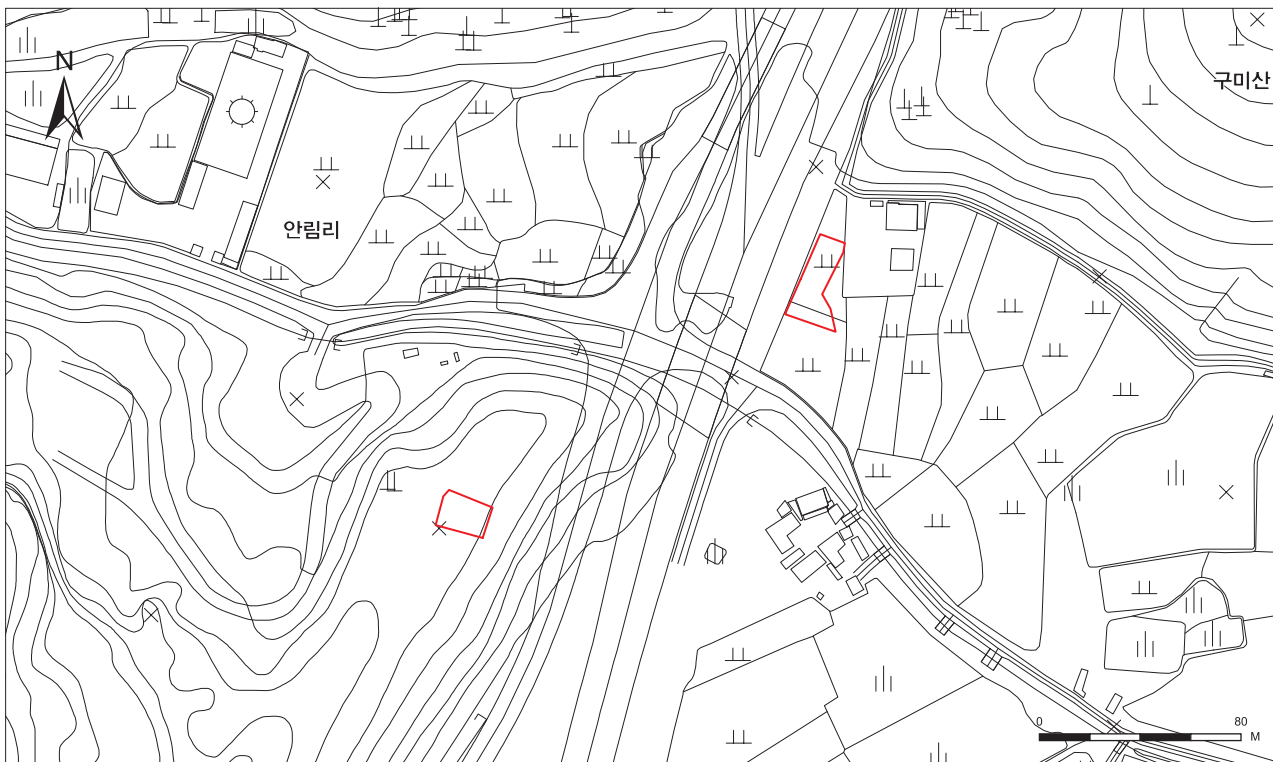
고령 안림리 대가야·조선시대 분묘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632-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성림문화재연구원 / 2015.8.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유개고배, 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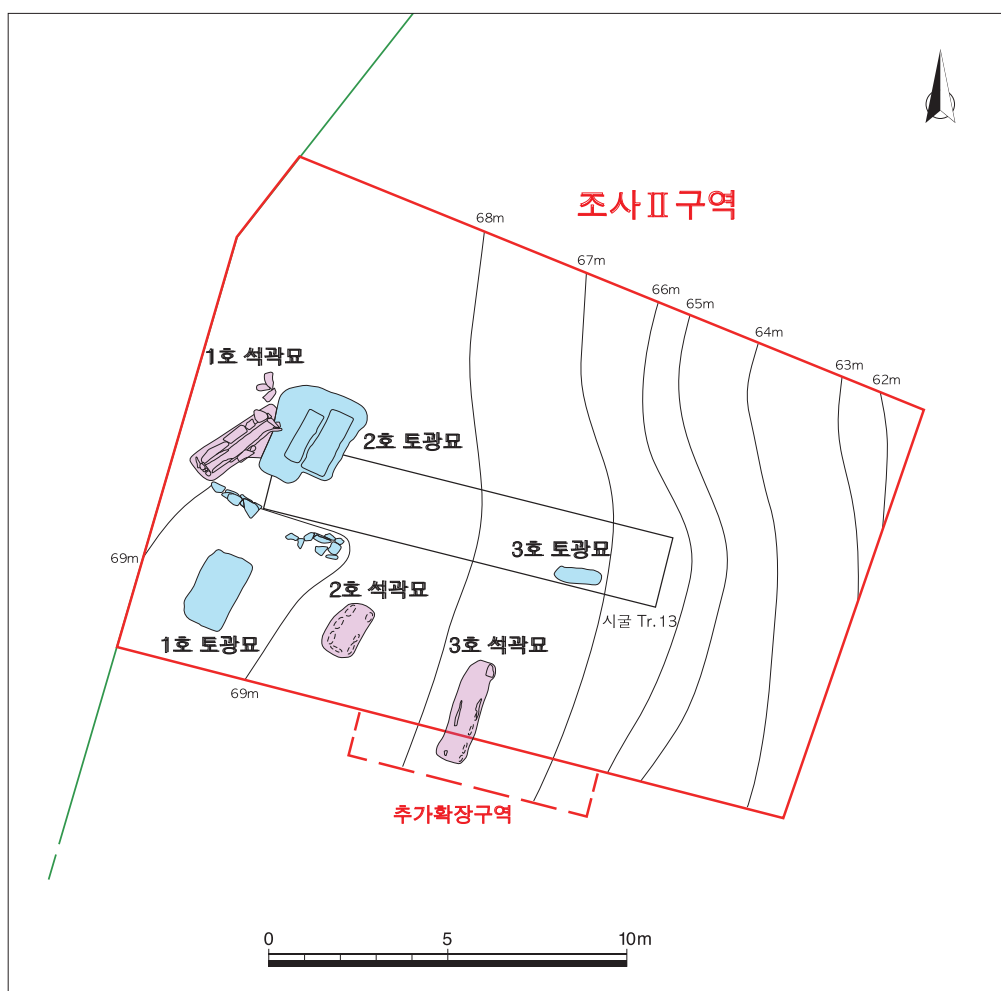
유적은 고령군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대가천-회천의 지류인 안림천이 북류하는 인근 능선상에 위치하는 '안림리고분군 ③' 내에 위치한다. 국도 33호선의 노후 도로를 보수·확장 및 일부 구간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2개 구역에서 대가야시대 석곽묘 3기를 포함하여, 조선시대 토광묘 4기, 우물 1기, 근현대 축대 1기가 조사되었다.

대가야시대 석곽묘는 조사Ⅱ구역에서 3기가 확인되었는데, 구릉 정선부와 사면부에 입지하며 장축은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되었다. 석곽은 모두 판석을 이용한 단곽 수혈식 구조이다. 축조순서는 세장방형 묘광을 굴착하고 바닥을 편평하게 정지한 후 가장자리 따라 '皿'상의 홈을 내어 벽석 세운 형태이다. 벽석은 양 장벽에 대형 판석 몇 매를 교차시켜서 세우고 그 사이에는 1매의 판석을 끼워 넣었다. 그리고 상면부는 할석을 평적하여 수평면을 맞춘 다음 개석을 올린 구조로 파악된다. 비교적 잔존 상태가 양호한 2기의 석곽묘를 통해 보면, 규모는 길이 3~3.25m, 너비 0.84~0.95m, 깊이 0.49m이다.

유적 위치도

부장양상은 도굴이 되어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석곽 내부에서는 유개고배, 개배, 대각, 방추차와 주변부에서 장경호, 저평통형기대 등이 출토되었다. 개는 중산모형과 유두형꼭지에 개신부는 방원형을 띠고 드림턱이 있다. 고배는 모두 이단각 일단투창고배로 뚜껑받이 턱이 있고 투창은 장방형이다. 장경호는 구연부가 약하게 외반하며, 구연단에 홈이 있다. 기대는 기고가 낮은 간략화된 저평통형기대로 토기를 얹을 수 있는 수부의 깊이가 얕으며, 수부의 아래에 통부 없이 대각이 바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대각은 외반 또는 외경해 내려가며,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투창이 뚫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토기들은 고령 일대에서 주로 보이는 전형적인 대가야 토기의 특징을 보여준다.

유적의 중심시기는 출토유물로 보아 5세기 후엽~6세기 초엽으로 추정된다. 유적은 100여 기의 석곽묘가 분포하는 '안림리고분군 ③'의 일부분이며, 인접한 '안림리고분군 ①', '안림리고분군 ②'과 동일군으로 안림천변과 골짜기에 거주하던 안림리 일대 거주민의 집단 분묘지로 추정되고 있다. 향후 대가야 왕도와 인접하여 대가야 세력의 한 축을 담당하던 고령지역 소집단의 고분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성림문화재연구원, 2016,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
(안림리유적) 고령 안림리
대가야·조선시대 분묘유적』.

유구 배치도

Ⅱ구역 전경

1호 석곽묘

1호 석곽묘 유물 출토모습

석곽묘 출토유물

19 고령 지산리 2-4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2-4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동문화재연구원 / 2015.9.~2015.11.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구 / 호, 옹, 기대, 완, 파수, 시루, 고배

유적은 대가야읍 내 중앙부로 대가야궁성지에서 동남편으로 약 100m 떨어져 있는데, 인접해서는 고령 지산리 당간지주(보물 54호)가 위치하여 있다. 입지적으로는 주산에서 회천방향으로 내려오는 구릉의 말단부에서 평탄지로 이어지는 지점에 해당된다. 유적은 중층으로 확인되었으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이 상하 약 1m 두께의 간층을 사이에 두고 각각 노출되었다. 유구는 삼국시대 수혈 15기와 구 3기, 통일신라시대 이후 건물지 3동, 담장열 1기, 배수로 1기, 우물 1기, 수혈 10기, 구 3기, 조선시대 수혈 2기와 주혈 1기, 기타 주혈 100기 등 총 140기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유적의 중앙을 중심으로 서편과 남편에 집중된 상태인데, 모두 통일신라시대 이후 건물지 조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성토한 층의 1m 정도 아래에서 확인되었다. 수혈 15기는 모두 부정형인데, 직경 1m 전후한 소형수혈 3기 외에는 모두 직경 2.2~7m 정도로 크고 깊이는 0.1~0.45m 정도로 얕은 것이 대부분으로 용도를 알기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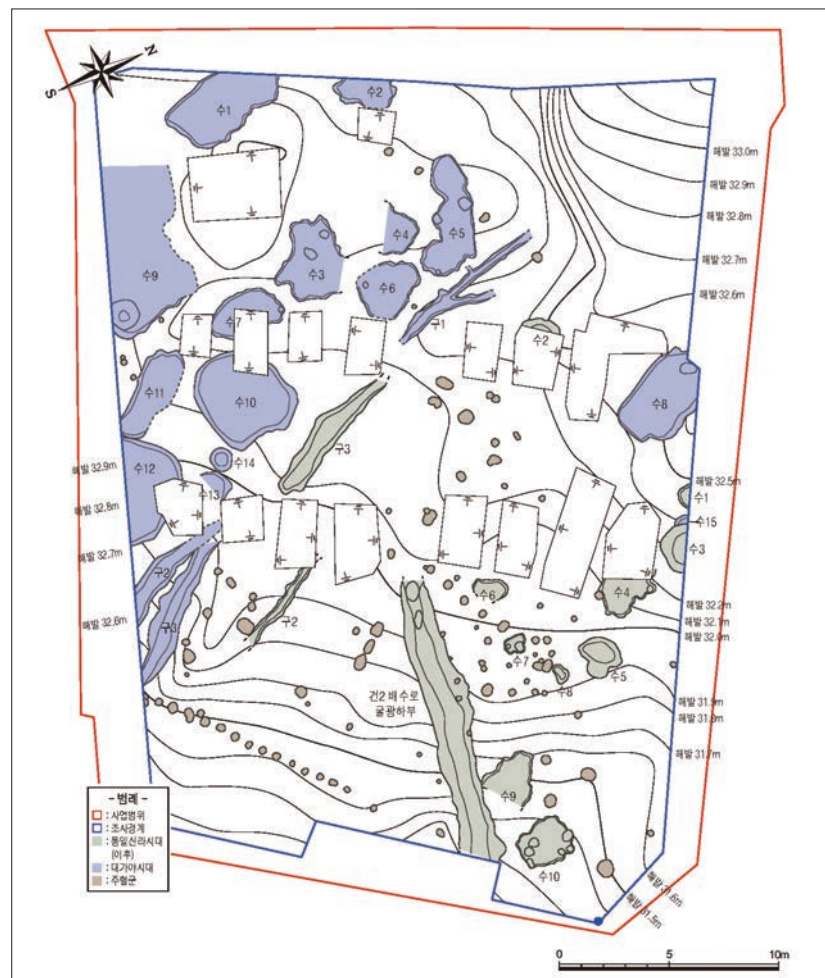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렵다. 한편 제10호 수혈에서는 100여 점에 이르는 다량의 토기와 함께 소량의 동물뼈, 목재 편 들이 출토되었다. 형태로 보아 정형화된 주거시설보다는 저장용 창고시설 또는 의례시설로 보인다. 구는 북에서 남으로 경사져 있어 인위적으로 판 배수시설로 판단되며, 규모는 길이 5~7m, 너비 0.4~1.12m, 깊이 0.11~0.42m 정도이다.

출토유물은 대호, 타날문단경호, 파수부호, 평저단경호, 장경호, 장동옹, 시루, 뚜껑, 발형기대, 저평통형기대, 개배류 등 다종다양하며 모두 생활토기이다. 이 유물들은 북편으로 150m 거리에 위치한 대가야궁성지의 대벽건물지 및 주변 유구에서 출토된 토기류들과 비교되는데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전형적인 대가야 토기들이다.

유적에서는 용도가 불명한 수혈과 구들이 확인되었으나 그동안 대가야읍 내의 주변부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던 생활유구들이 궁성지와 인접하여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대가야 왕도 일대의 취락 모습을 유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대가야 문화층 위로 대량의 인공적인 성토층이 확인되어 대가야 멸망 후 대가야궁성의 성벽 폐기와 관련되어 주목되는데, 신라에 의해 폐기된 성벽의 흙을 이용하여 낮은 지역을 복토하여 생활공간을 확대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대동문화재연구원, 2017, 『고령 지산리 2-4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0호 수혈

10호 수혈

10호 수혈 출토유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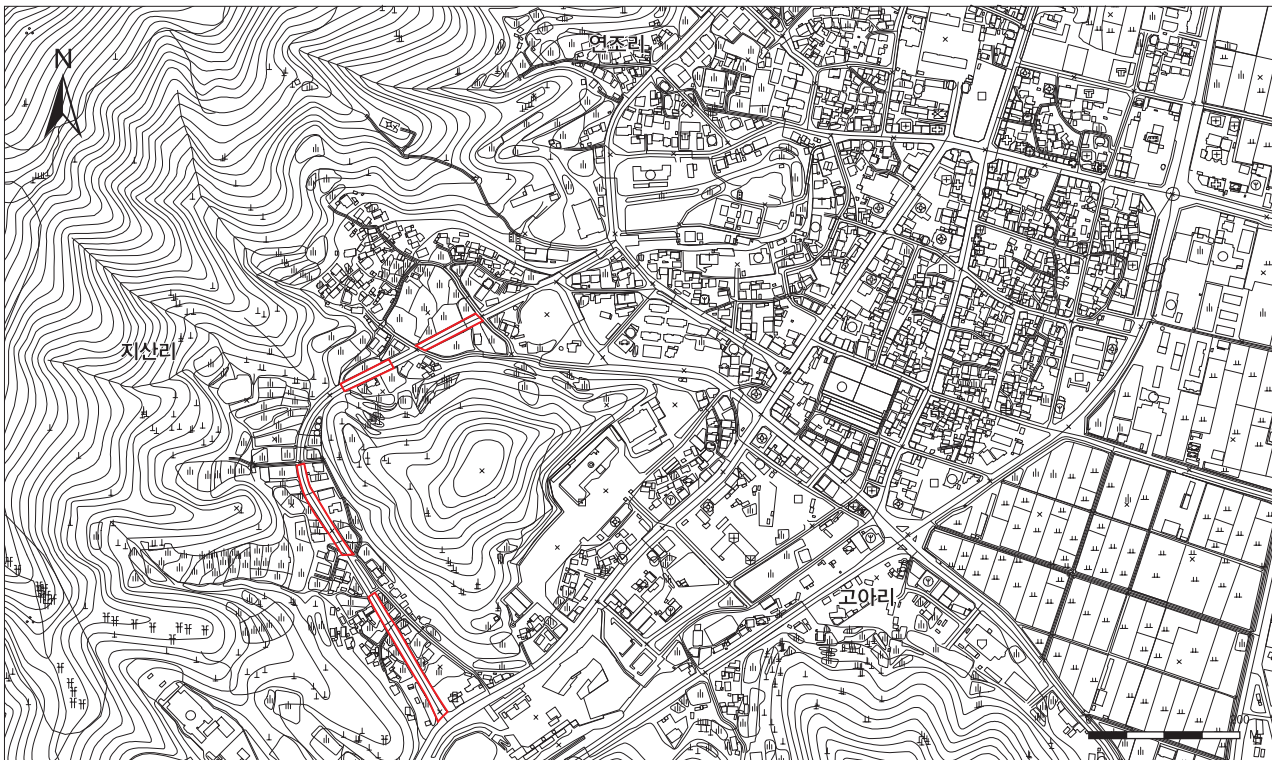
고령 지산동 44-1번지 생활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44-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영남문화재연구원 /
2006.11.~2007.5.

주요 유구 / 유물
수혈, 매납유구, 우물
/ 단경호, 장경호, 장동
호, 파수, 개배

유적은 고령 도시계획도로(소2-42호) 개설구간에서 확인되었는데, 개구리산과 지산동고분군의 사이의 계곡부 평탄지로 지산리 모산골에서 막골을 경유해서 대가야문화누리로 이어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의 수혈 10기·매납유구 1기·구 3기·우물 1기 및 주혈군, 고려시대의 배수시설 1기·적심 및 초석 2기·담장관련 석렬 2기, 조선시대의 석축 5기·석렬 1기·적심 4기·수혈 1기· 배수시설 1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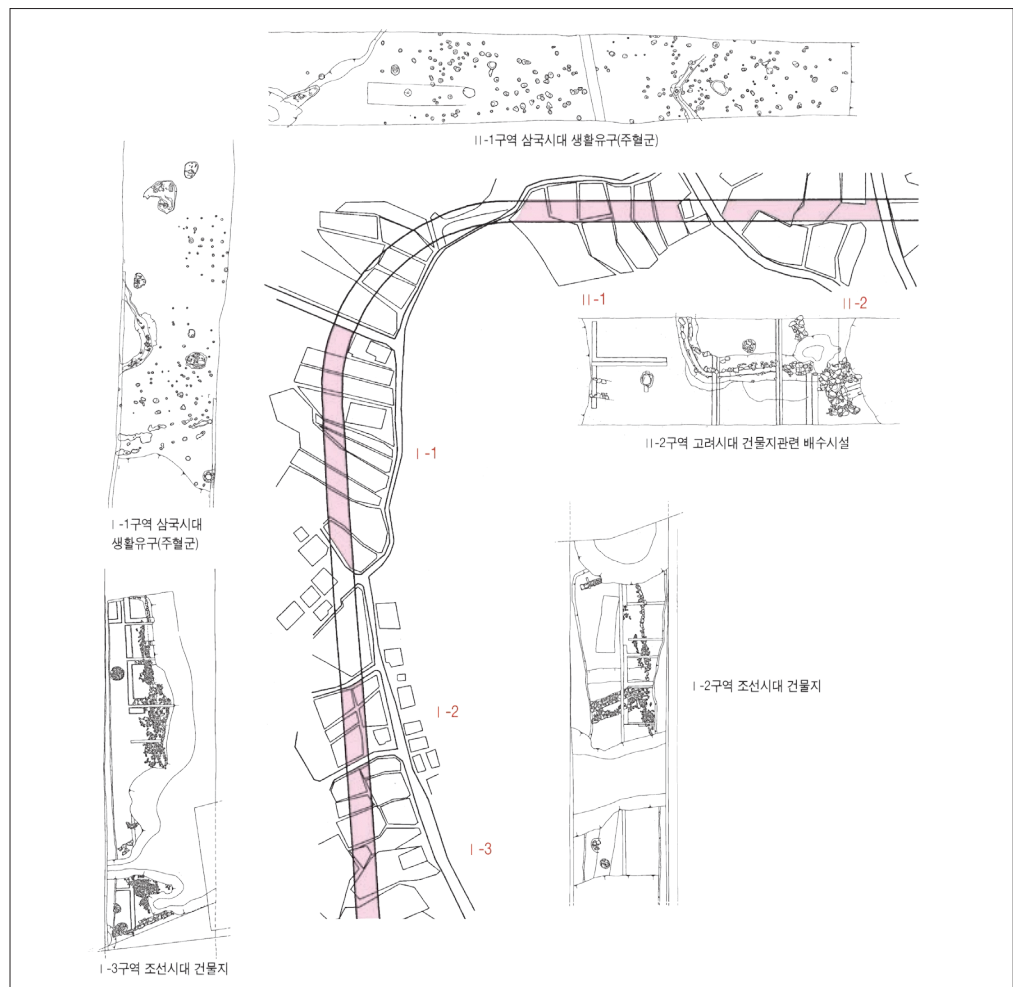
삼국시대 생활유구는 막골과 모산골 사이 고개를 기준으로 각각의 마을 입구부에 분포되어 있다. 주혈군은 352개가 확인되었는데, 크기는 직경 0.15~0.4m, 깊이 0.2~.4m 정도이다. 끝이 뾰족한 목주가 남아있는 것도 있으며, 일정한 열을 보이는 것도 있어 굴립주 건물의 흔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정형성을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주혈군의 성격은 주거용보다는 창고시설로 판단된다. 수혈은 부정형과 타원형으로 규모는 길이 0.8~3.4m, 너비 0.5~3.2m 정도로 주혈군 내부와 인접한 곳에 배치되는 양상을 보여 상

유적 위치도

호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는 형태적으로 보아 주거지로 보이는 것도 있고, 제9호의 경우에는 소결양상으로 보아 생산시설일 가능성도 있다. 매납유구는 내부에서 출토된 씨앗과 조개류 성분을 들어 저장시설로 보고 있다. 그 외 구와 우물 역시 주혈군과 수혈 부근에 분포하고 있어 단위취락을 이루던 생활유구의 일부로 판단된다.

유물은 대부분 토기 편으로 기종은 단경호, 장경호, 대호, 파수부호, 장동호 등 호류가 주류를 이루며, 그 외 배, 개, 병, 기대 등 전형적인 대가야의 생활토기 일색이다. 유물의 특징으로 본 유적의 조성시기는 6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유적에서는 주혈군, 수혈, 구, 매납유구, 우물 등 대가야취락과 관련한 생활유구들이 확인되어 지산동고분군을 조영한 대가야인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한편, 유적에서는 고려시대의 '물산사勿山寺'명 기와 편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대가야읍의 중심으로 모산골 초입에 해당되는 곳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 지산리당간지주와 관련하여 당시의 사찰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 사찰의 기원을 삼국시대까지 소급하는 연구도 있다.

참고문헌

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고령 지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고령 지산동 44-1번지 생활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유적 전경

3호 수혈

4호 수혈

21

고령 지산리 245-1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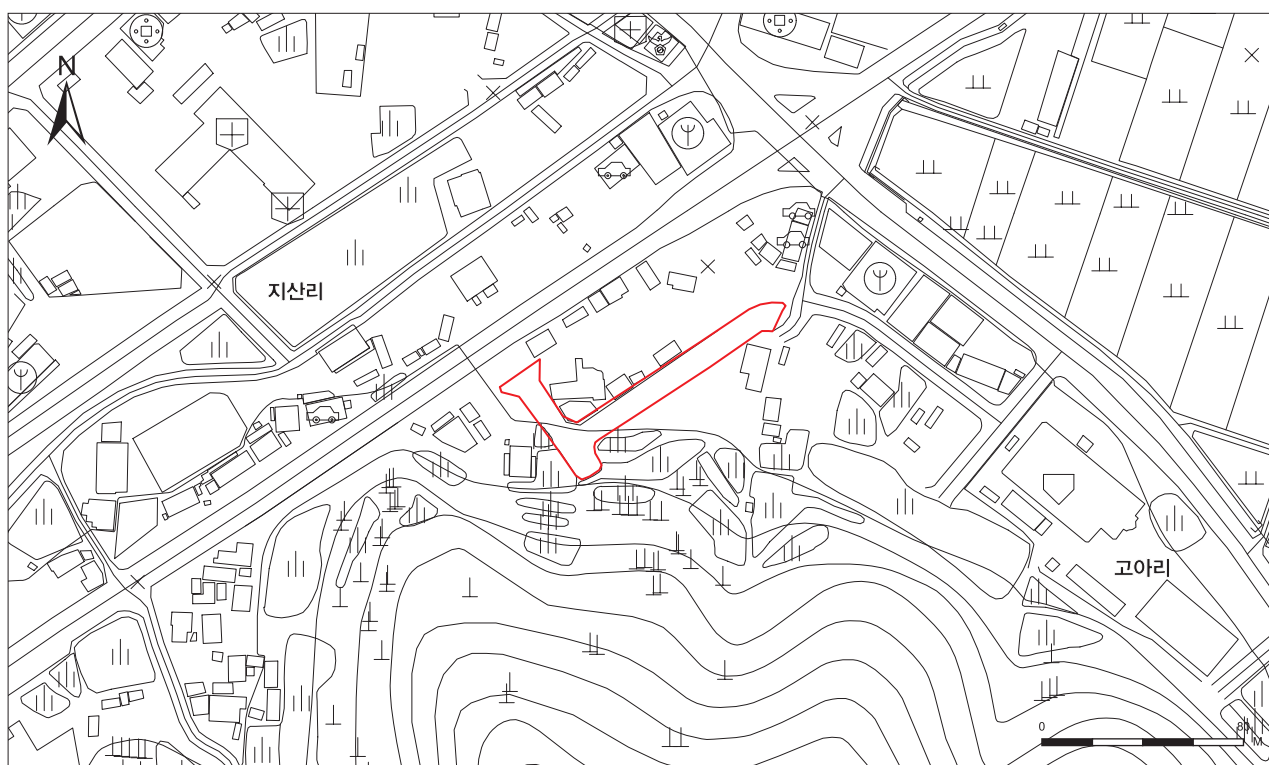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245-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동문화재연구원 /
2009.2.~2009.4.

주요 유구 / 유물
구 / 고배, 광구소호,
파수

유적은 남산(해발 130m)의 북편 구릉 말단부의 좁은 완경사면에 위치한다. 읍내를 관통하는 국도 26호선의 연결 소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삼국시대 구 1기, 유물포함층 1개소, 고려시대의 건물지 2기, 구 3기, 시대미상의 수혈 2기 및 주혈군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의 유구는 구 1기가 전부이다. 제4호 구로 경사면 상부에서 하부로 이어져 있어 자연적인 구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없으나 대가야시대 유물포함층Ⅱ가 내부를 채우고 있어 동시기로 보고 있다. 유물은 삼국시대의 유물포함층Ⅱ에서 고배 배신, 광구소호, 토기파수 그 외 유적 전반에서 개, 단경호, 장경호, 기대 편 등 생활유물이 출토되었는데, 6세기 대의 대가야토기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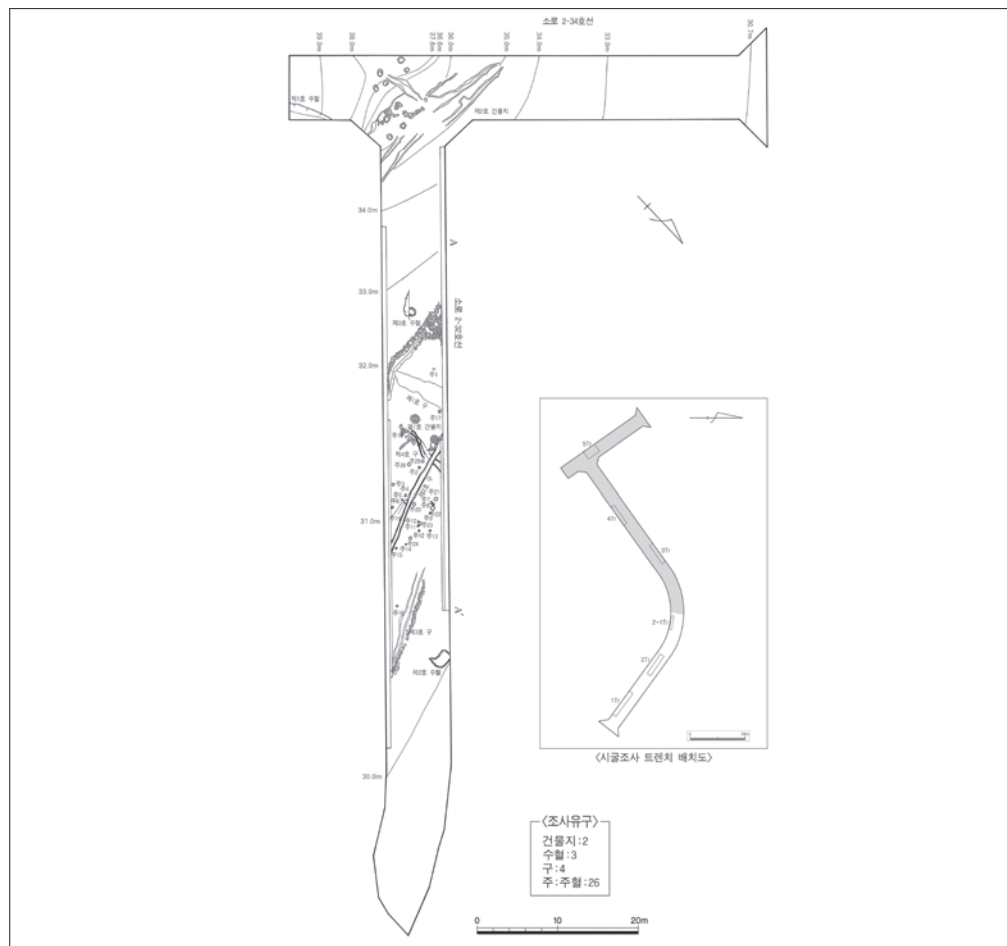
한편, 12세기 경으로 편년되는 '대가大加'명이 찍힌 명문기와 1점이 발견되어 고령군의 옛 지명인 대가야와 관련되어 주목된다. 대가야라는 명칭은 『삼국사기』권 제34에 잡지 제3 지리1에 "신라新羅 강주康州 고령군대高靈郡은 대가야국大加耶國이었는데, 이진아시왕伊珍阿豉王

유적 위치도

으로부터 도설지왕道設智王까지 모두 16세 520년 존속했으며, 진흥왕대眞興大王이 멸망시킨(진흥왕 23년, 562) 후 대가야군大加耶郡으로 삼았으며 경덕왕이 고령군(경덕왕 16년, 757)으로 이름을 고쳤다."는 기록에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이미 8세기 중엽 경에는 지역 명칭이 고령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토된 '大加'명 기와의 제작시기가 『삼국사기』를 편찬한 12세기 경으로 비슷하므로 대가야 멸망후 고려시대까지도 고령의 이칭인 대가야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대가면, 대가천 등 옛 지명의 흔적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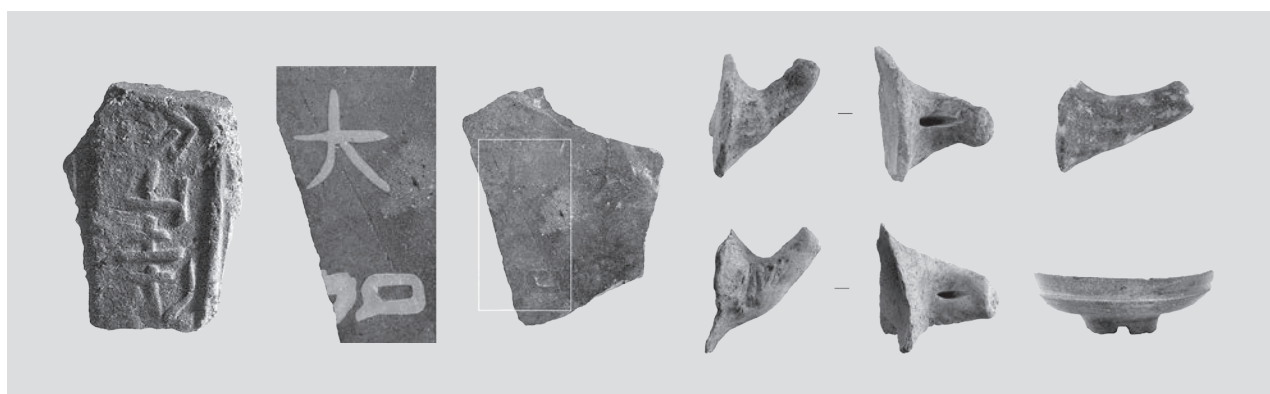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유물포함층 1개소와 자연구 1기만 확인되어 당시의 문화상을 보여주기에는 자료가 매우 빈약하다. 그러나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조사된 유적을 통해 삼국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취락의 조망하는 계기가 된 유적으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 이를 통해 대가야읍내의 삼국시대 취락은 궁성지를 중심으로 완만한 사면의 말단부와 계곡가에 위치하는 입지적 특징을 유추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지형변화상을 통해 해발 28m를 한계로 하여 아래에서는 더 이상 유구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대동문화재연구원, 2011, 『고령 지산리 245-1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제4호 구

제4호 구

출토유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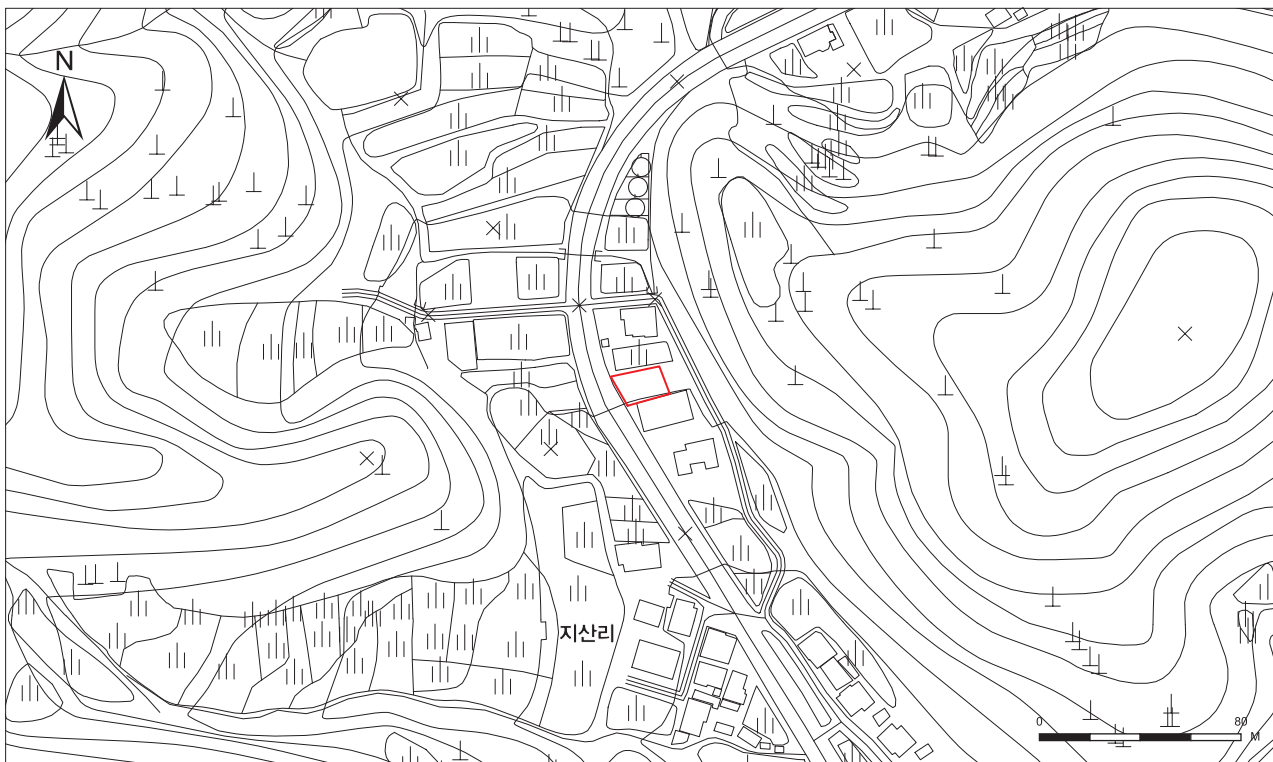
고령 지산리 370-8번지 생활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370-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삼한문화재연구원 /
2014.12.~2015.2.

주요 유구 / 유물
대벽건물지, 수혈 /
단경호, 기대, 개,
파수부옹, 파수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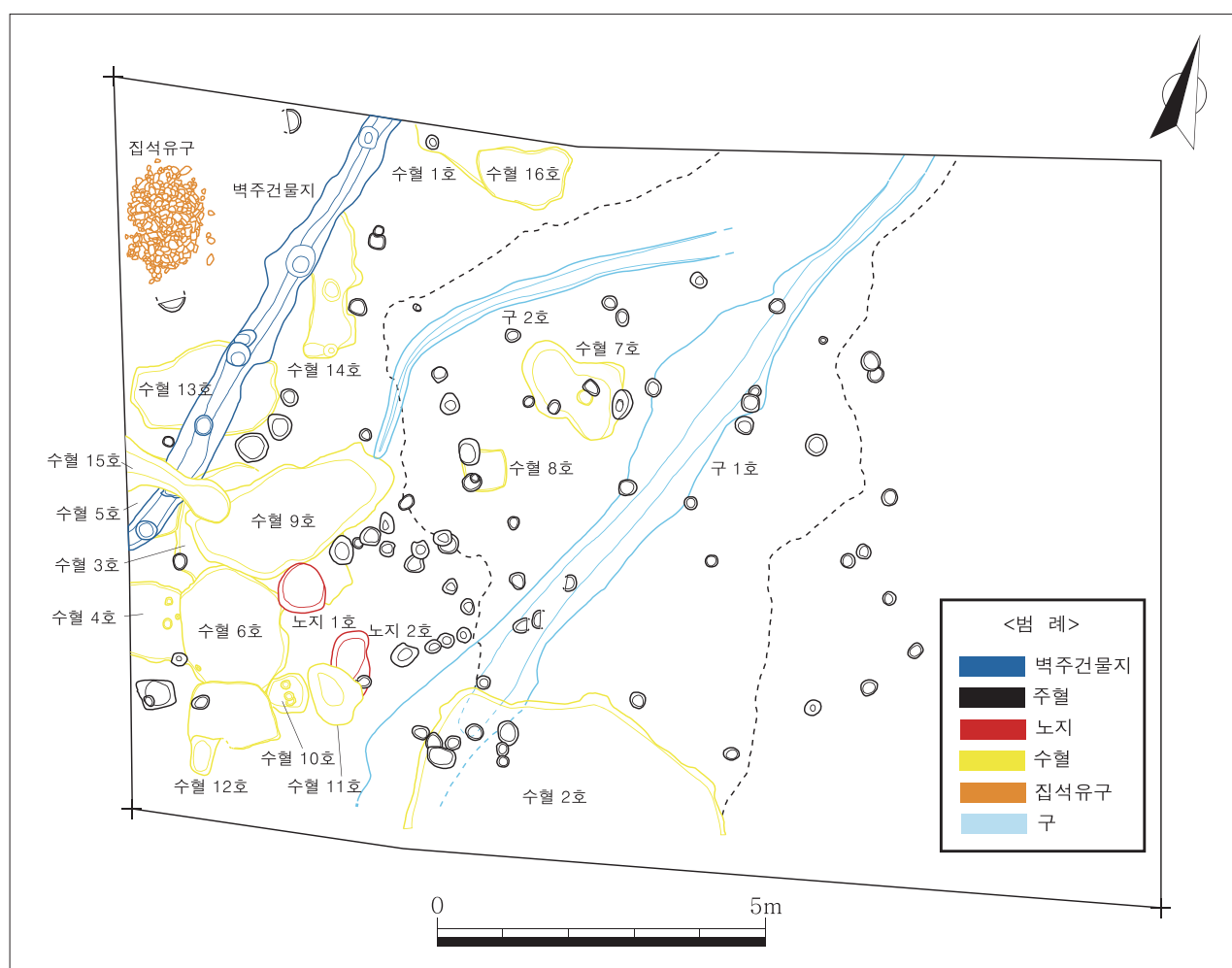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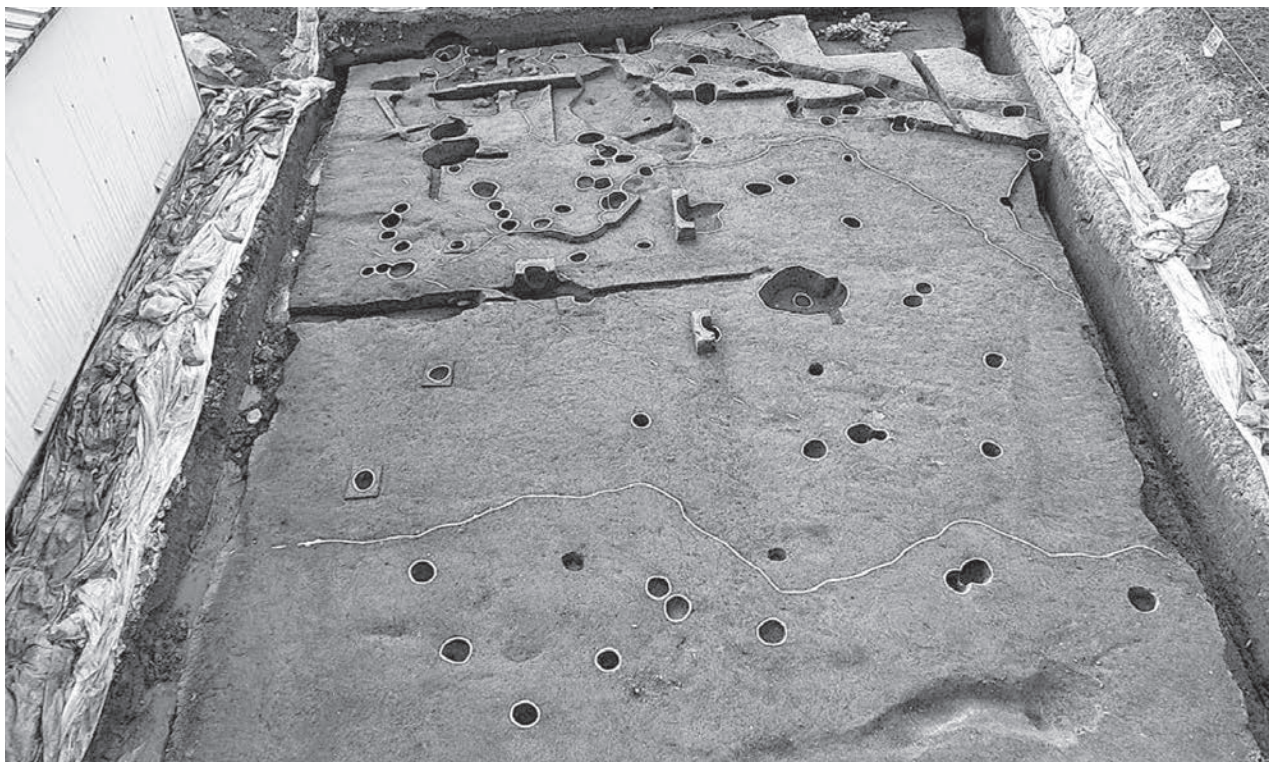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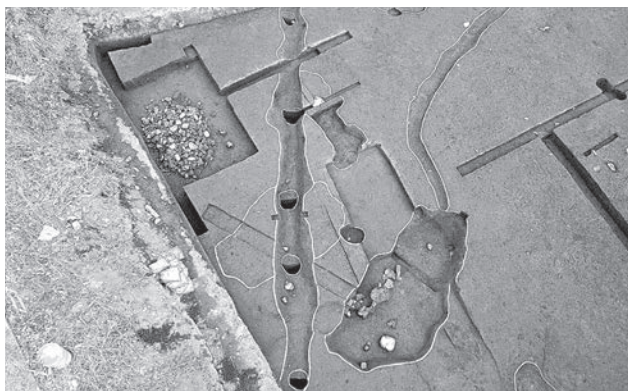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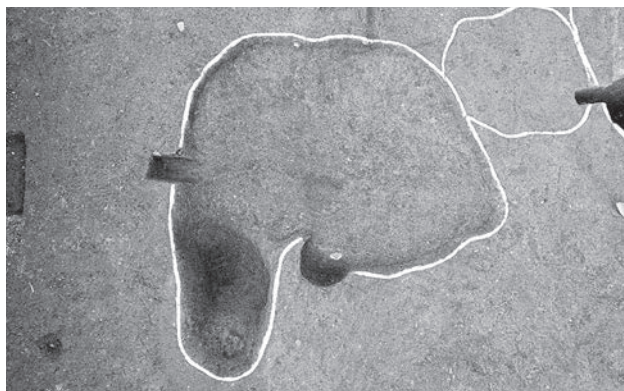
유적은 개구리산과 지산동고분군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의 평탄지에 분포하며, 막골 마을 서북편, 지산리 44-1유적의 삼국시대 유구가 확인된 지점의 북동편에 접한다.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삼국시대 벽주건물지 1기, 주혈 81개, 노지 2기, 수혈 16기, 구 2기, 집석유구 1기 등 모두 10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4기의 문화층으로 구분되었다. 제1기는 5세기 이전으로 막골 일대가 평탄화된 후 들어선 구 1호와 집석유구가 있다. 제2기는 5세기 중후반 층으로 수혈 1·3~6·9호·11호와 같은 토취장이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이 흙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부 수혈의 내부에서 벽체로 추정되는 산화토 덩어리가 혼입된 점으로 보아, 이 일대 건물의 증·개축 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제3기는 벽주건물지 등이 조성된 5세기 후반으로, 대가야읍내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막골까지 거주 공간의 범위가 확대된 시기로 지산동 일대의 거주영역이 가장 넓었던 시기로 추정되었다. 제4기는

유적 위치도

유적의 폐기시점으로, 벽주건물의 벽을 허물고 기둥을 뽑아낸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이 유적에서 6세기대 이후의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인접한 지산리 44-1번지 유적의 조성시기가 6세기 중반으로 비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6세기 중반 경으로 추정되었다. 유물은 개, 배, 기대, 파수부배, 파수부옹, 등 생활유물이 주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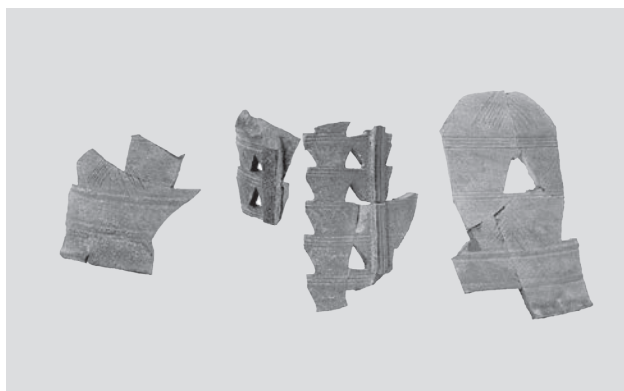
유적에서는 소규모이지만 층위적인 해석을 통하여 5세기 이전에서 6세기 중반까지 100여 년에 걸친 생활유구의 시간적 변화상이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동시에 인접한 지산동 44-1유적의 성격을 기존 보고에는 지산동고분군과 관련된 창고시설로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금번 유적과 비교하면 일반 생활취락으로 볼 수도 있게 되었다. 더불어 이 일대는 대가야의 중심취락의 외곽지역으로 대가야 말기까지 존속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향후 대가야 취락연구에 중심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한국문화재재단, 2017, 『삼한문화재연구원, 1.고령 지산리 370-8번지 유적』,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XXI-경북 9』.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벽주건물지

12호 수혈

6호 수혈 출토유물

12호 수혈 출토유물

23

고령 쾌빈리 433-11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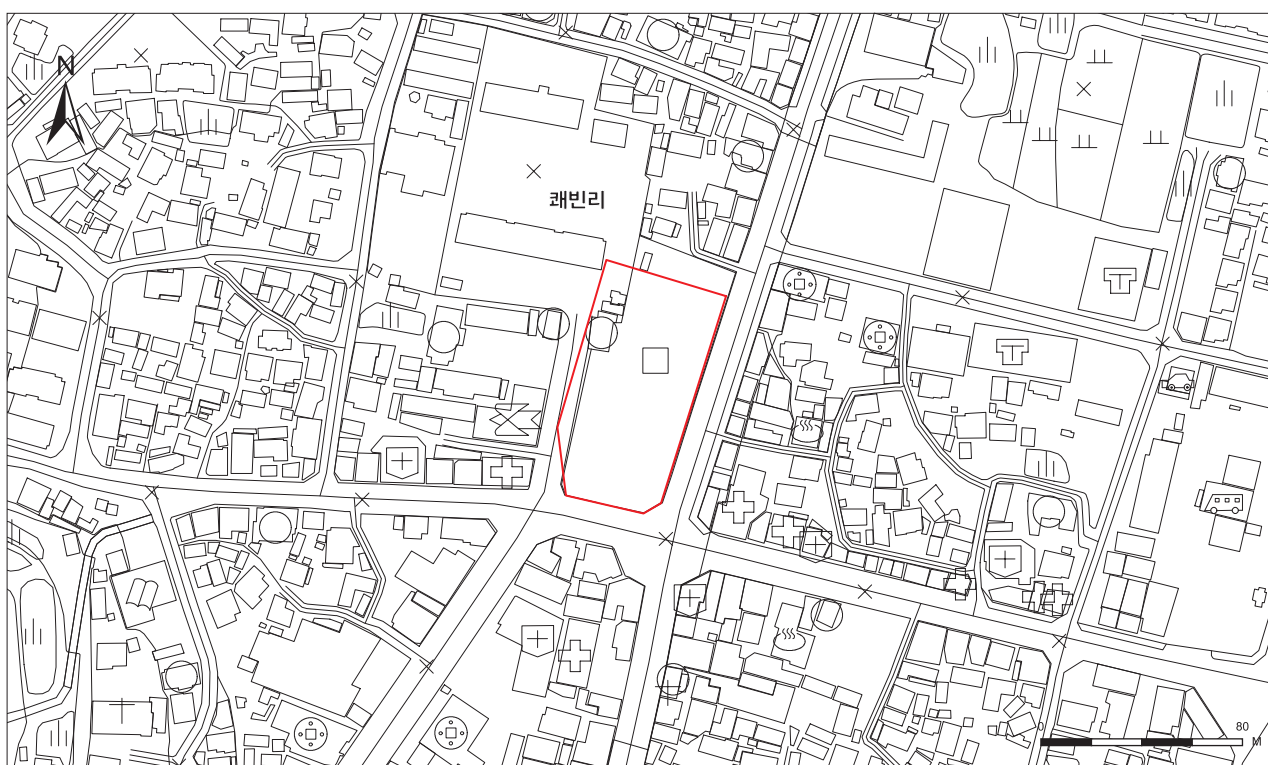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433-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가야박물관·영남문화재연구원 / 2004.12.~2005.5.

주요 유구 / 유물
저습지 / 단경호, 연질발, 개, 장경호, 고배, 기대

유적은 대가야읍 내 중앙부에 위치하는데, (구)고령경찰서가 있었던 지점으로 현재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입지적으로는 주산에서 회천방향으로 내려오는 비교적 큰 규모의 도랑이 형성되어 있던 곳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 도랑을 메우고 관아지官衙址가 조성되었던 곳이다.

삼국시대 유구로는 저습지 1개소 확인되었다. 저습지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조사범위의 제한으로 남-북 10m, 동-서 12m 가량 조사되었다. 호안 보강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로 판단되는 말목과 통나무를 이용한 목책이 남아있다. 목책은 긴 통나무를 가로 놓고 이를 고정하기 위해 지름 10cm, 길이 70cm 가량의 말목을 비스듬히 박았다. 횡목은 잔존길이 약 6m, 지름 약 20cm 이다. 그 외 말목을 70cm 간격으로 박고 그 아랫부분에 폭 10cm 내외의 나무판을 가로 덧댄 형태도 확인된다.

저습지 내부 퇴적층에서는 삼국시대 우각형파수·완·발·배·개·고배·단경호·원형가공

유적 위치도

품·어망추·토구 등의 다양한 토기 편이 출토된다. 그리고 다양한 초목류의 유기물질과 낫, 톱, 도끼흔적이 보이는 가공목재의 파편과 복숭아·박·참외·머루 등의 씨앗, 밤껍질, 쌀·보리·수수 등의 탄화곡물이 검출된 바 있다.

그 외 통일신라시대 수혈주거지 1기와 고려시대~일제강점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2기, 담장·연못·추정화장실·구·기와폐기장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건물지를 통해서는 조선시대 고령 객사客舍인 '인빈각'과 '가야관'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적에서 조사된 저습지는 대가야 궁성지와 인접하여 있어 대가야 당시 왕도의 지형을 일부나마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리고 내부에서 출토된 가공목재를 통해서는 사용하던 철제도구의 종류와 가공기술을 알 수 있고, 목조구조물을 통해서는 저지대와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가야인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불어 탄화곡물과 각종 과일의 씨앗을 통해서는 당시 대가야인들의 재배작물과 먹거리를 추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고분에만 편중되었던 대가야 역사를 대가야인의 생활문화까지 연구영역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유적의 조사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대가야박물관·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고령 쾌빈리 433-11번지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저습지 목조 구조물

저습지 목조 구조물 세부

저습지 목조 구조물 세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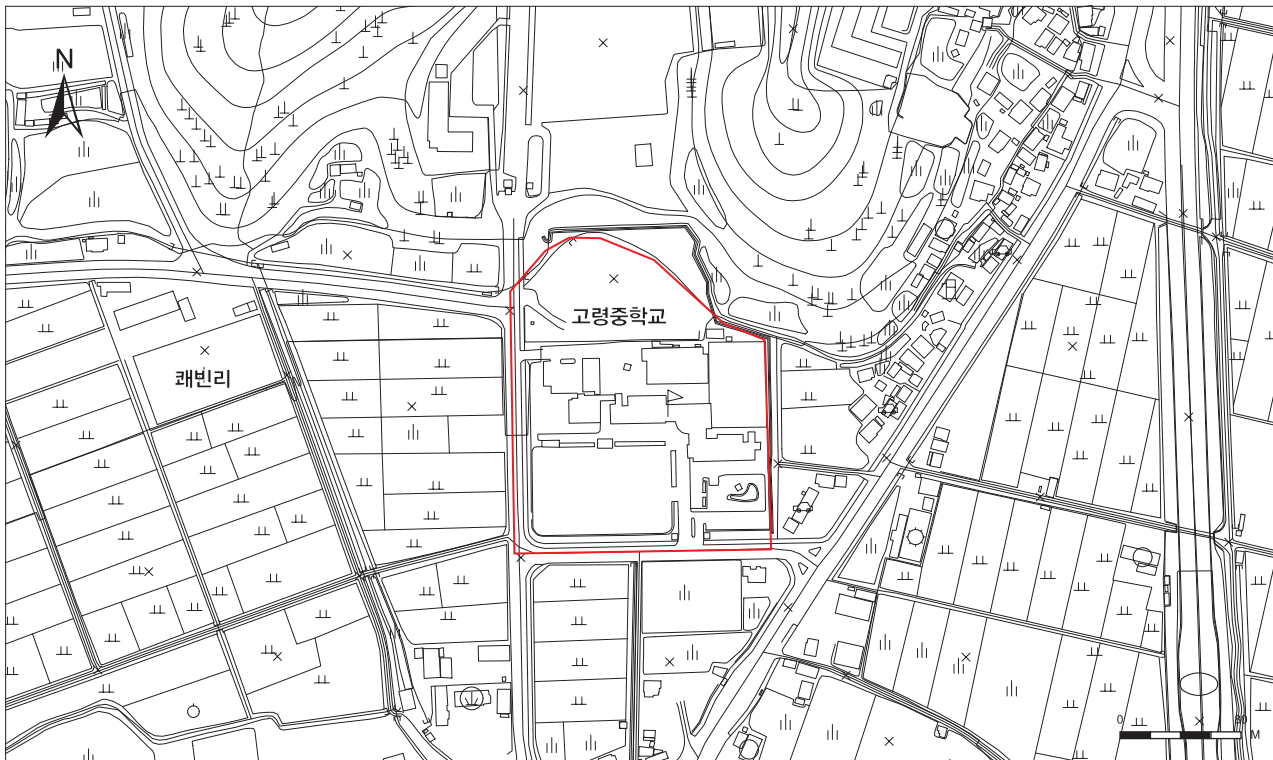
24 고령 쾌빈리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10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경문화재연구원 / 2006.1.~2006.11.

주요 유구 / 유물
구 / 개 편, 기대 편, 기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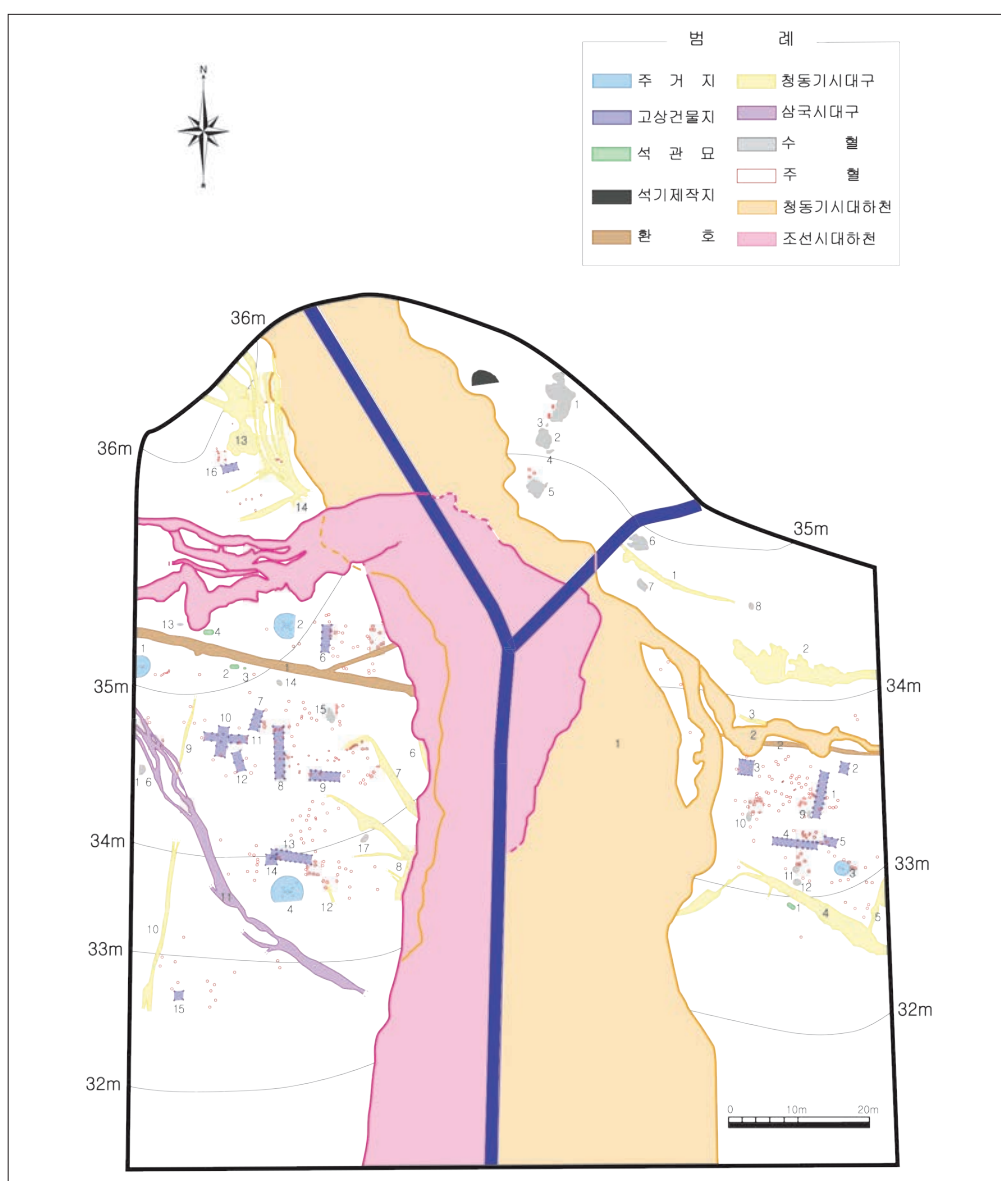
유적은 쾌빈리고분군이 위치하는 능선의 남쪽으로 대가천의 지류인 내곡천변에 발달한충적평야 일대로 해발 30~36m 정도에 해당한다. 현재 고령중학교가 들어선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4동, 석곽묘 4기, 석기제작지 1기, 고상식건물지 16동, 환호 2기, 구 13기, 수혈 348기, 하천과 삼국시대 구 1기, 조선시대 하천이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11호 구로 서쪽에서 남쪽으로 'ㄴ'자로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서쪽 경계부 밖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서북쪽에 인접하여 2007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조사한 고령 소도읍 육성사업 도로개설구간유적의 1호 구와 연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구는 북쪽에서 4~5갈래로 갈라져 흐르다가 남쪽으로 갈수록 하나로 합쳐지는 양상을 보인다. 규모는 길이 77.8m, 너비 0.4~2m, 깊이 0.06~0.34m이다. 능선 상부에서 하천변으로 이어지고 있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랑으로 보이며 내부에서는 삼국시대의 개 편, 호 편, 기대 편 등과 기와 편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 위치도

구의 조성시기는 내부에 포함된 개의 꼭지와 기대 편의 문양, 토기가마에서 소성된 경질의 기와들로 보아 6세기 경의 삼국시대로 추정된다. 비록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만 확인되었지만 이를 통해 경사면 상부의 능선 일대에 대가야 취락이 유존했을 가능성을 증빙해 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한편,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대규모 취락과 관련한 주거지와 석기제작지 등의 유구·유물과 함께 초기철기시대의 유물들도 출토되어 주목된다. 그리고 인접한 쾌빈리고분군에서는 4세기대의 목곽묘가 조성된 점과 함께 기존 대가야의 기저를 이루는 반로국의 형성배경 연구와 관련하여 대가천, 안림천, 회천 주변을 따라 펼쳐진 선사문화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대경문화재연구원, 2009, 『고령 쾌빈리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1호 구

11호 구 토층

11호 구 출토유물

25 대가야역사관광순환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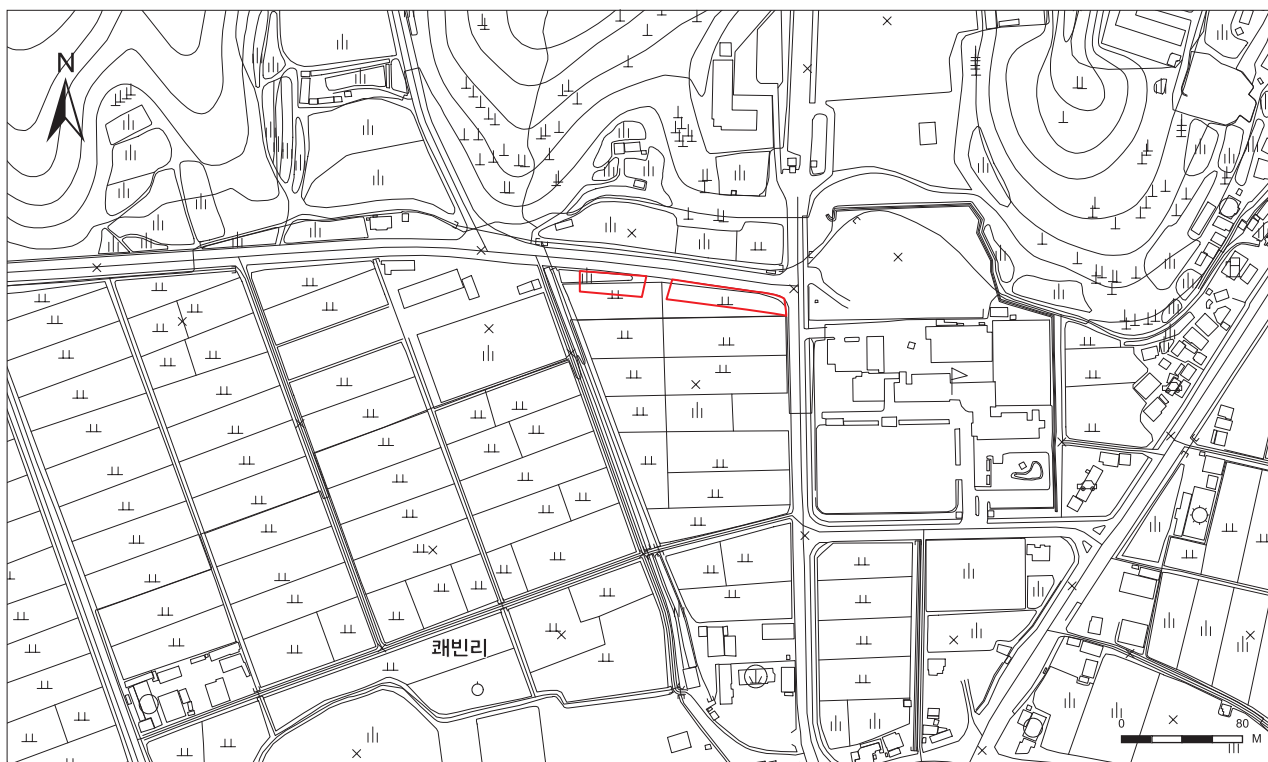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64-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2007.5.~2007.10.

주요 유구 / 유물
구 / 완 편, 병 편, 파수 편

유적은 쾌빈리고분군이 위치하는 능선의 남쪽으로 대가천의 지류인 내곡천변에 발달한 충적평야 일대로 해발 30~36m 정도에 해당한다. 고령중학교가 들어설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4동, 석곽묘 4기, 석기제작지 1기, 고상식건물지 16동, 환호 2기, 구 13기, 수혈 348기, 하천과 삼국시대 구 1기, 조선시대 하천이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는 1호 구로 동-서 방향으로 형성되었는데 동단은 경계구역 밖으로 연결되어 2006년 대경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쾌빈리유적의 11호 구와 연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구는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데, 규모는 길이 58.5m, 너비 0.7~3m, 깊이 0.15~0.60m이다. 능선 상부인 서쪽에서 동남쪽 하천변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랑으로 보이며 내부에서는 청동기시대 석기 3점과 함께 삼국시대의 병 편, 호 편, 완 편, 파수 편 등이 출토되었다.

구의 조성시기는 내부에서 출토된 토기와 연결되는 쾌빈리유적 11호 구의 출토유물

유적 위치도

을 통해 볼 때 6세기 경의 삼국시대로 추정된다. 비록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이지만 이를 통해 경사면 상부의 능선 일대에 대가야 취락이 유존했을 가능성을 증빙해 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한편, 유적은 인접한 쾌빈리유적과 연결되는 청동기시대의 대규모 취락의 일부분으로 두형토기, 원형점토대토기 등 초기철기시대의 유물들도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인접한 쾌빈리고분군에서는 4세기 대의 목곽묘가 조성되어 있어 대가천, 안림천, 회천 주변을 따라 펼쳐진 고령의 청동기시대로 부터 대가야 형성까지의 모습을 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9, 「1.대가야역사관광순환도로 개설구간유적」, 『고령 소도읍 육성사업 도로개설구간유적』.

유적 전경

출토유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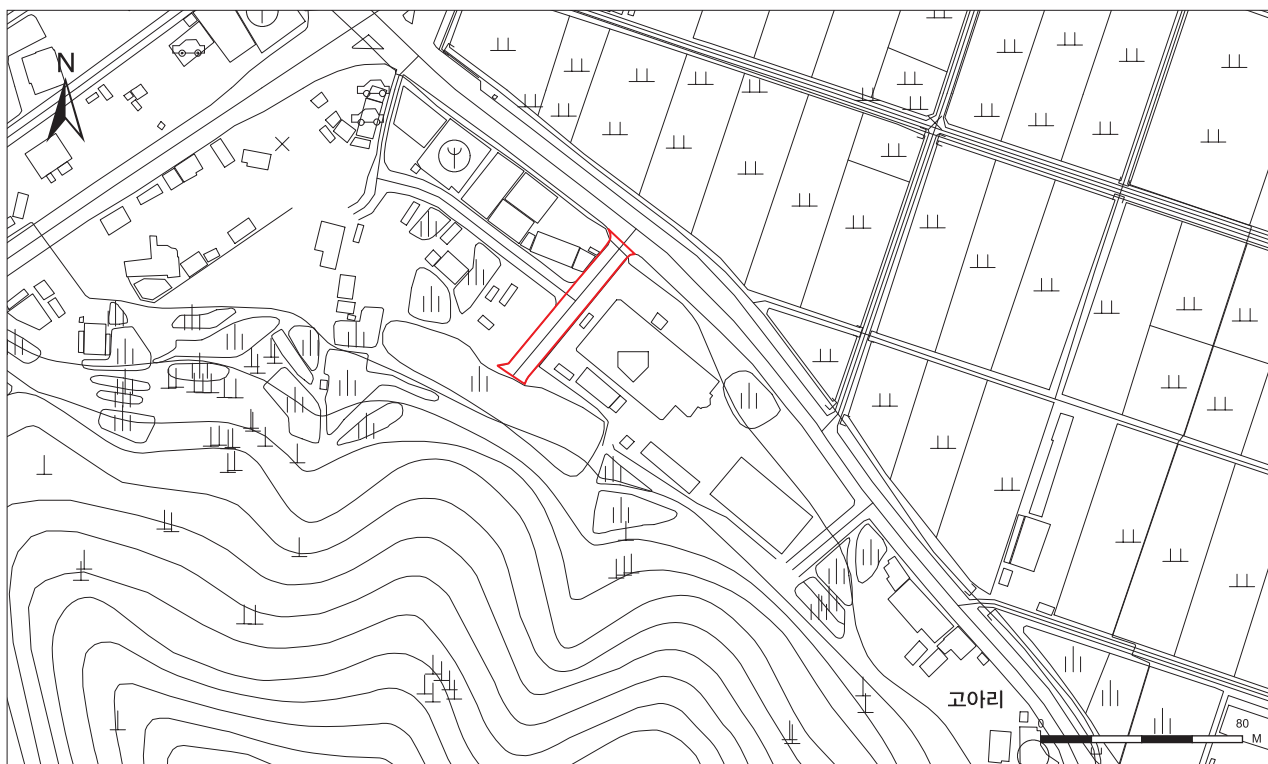
고령 고아리 158-2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158-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동문화재연구원 / 2008.7.

주요 유구 / 유물
집수정, 수혈 / 기대, 장경호, 호, 막새, 기와

유적은 남산(해발 130m)의 동북편 산자락이 끝나는 말단부와 평탄한 대지가 이어지는 부분으로 고령소방소의 북편에 접한 소로에 해당한다.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의 집수정 1기, 수혈 2기, 유물포함층 1개소, 고려시대의 주거지 1기, 유물포함층 1개소, 주혈 45공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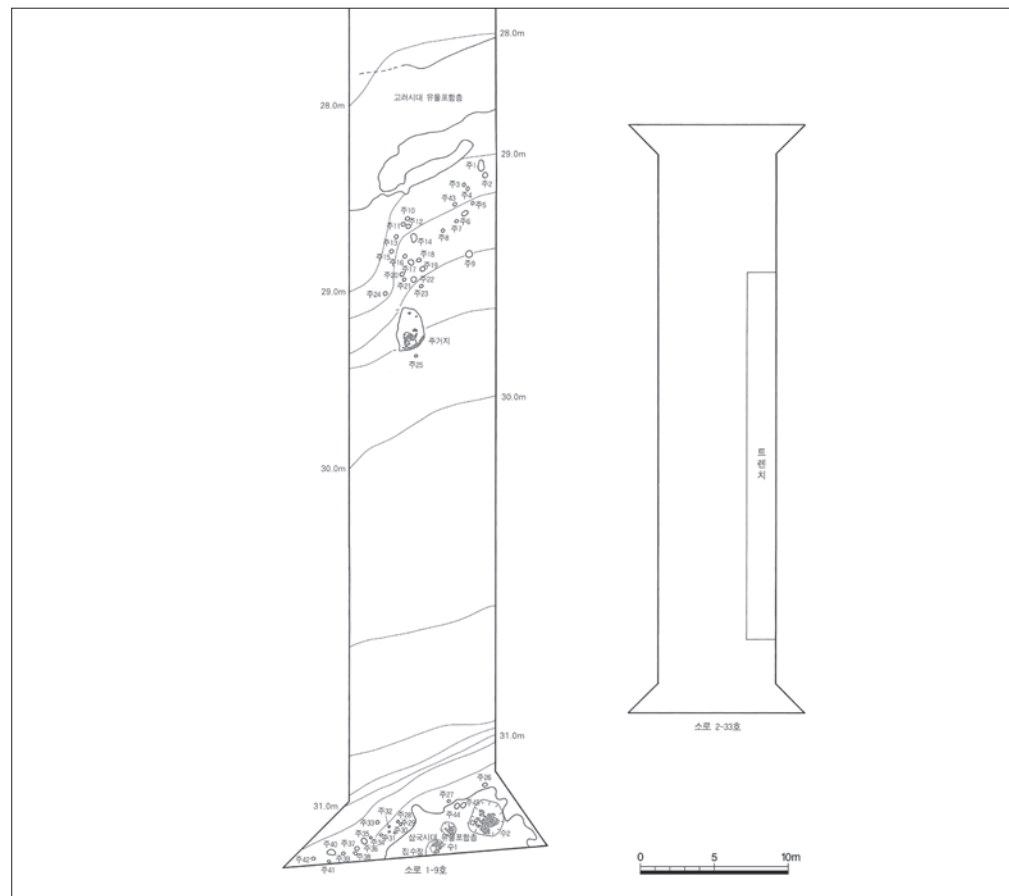
삼국시대의 유구는 모두 취락과 관련된 생활유구이다. 집수지는 굴광 규모가 직경 1.85m, 깊이 0.42m로 할석 4단 이상을 쌓은 구조로 자연암반수를 이용한 우물 또는 바가지 샘으로 보이며, 개꼭지 1점이 출토되었다. 수혈 2기는 평면 부정형으로 규모는 직경 1.0~2.5m, 깊이 0.26~0.67m로 내부에는 회갈색점토와 할석이 채워져 있었으며, 단경호구연부 편, 개, 통형기대 편 등이 출토되었다. 한편 집수지와 수혈군을 포함한 일대에는 길이 10.4m, 너비 4.4m, 두께 0.4m 정도의 넓은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는데, 개, 장경호, 장경소호, 주구배, 배, 단경호, 대호, 파수, 기대 편 등의 토기류와 연화문수막새,

유적 위치도

암키와가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6세기로 편년되는 전형적인 대가야의 생활토기들이다.

출토유물 중 주목되는 것은 토기소성도를 가진 경질의 연화문수막새와 암키와 편이다. 대가야 토기만을 공반하는 유물산포지에서 출토된 이 기와류로 말미암아 대가야가 기와를 사용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고아리 벽화고분의 연화문과 더불어 6세기 중반 경에는 이미 대가야에 불교문화가 전래되었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특히 연화문 수막새는 6세기 전반 고신라계 수막새에서 보이는 특징을 보이나 신라와 같이 저화도의 기와전용가마에서 구워진 것이 아닌 고화도의 토기가마에서 구워져 속심이 토기와 같다는 차이를 보여 대가야에서 직접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대가야 토기를 대량생산하던 쌍림면 송림리토기가마에서 토기와 같이 연화문전 및 기와류를 생산한 것이 밝혀짐으로써 이를 확인하게 되었다.

유적에서 주요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접한 여러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보면 산자락에 붙은 높은 부분부터 삼국-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의 순으로 유구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 시대의 전개에 따라 취락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토기소성도를 가진 경질의 대가야 기와들이 확인되고 송림리토기가마에서 토기·기와 겸업가마 확인되어 대가야의 기와 사용을 증명해 주는 주요한 유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대동문화재연구원, 2010, 『고령 고아리 158-2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집수정

집수정

출토유물

27 고령 연조동 전 어정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리 15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계명대학교박물관 / 1977.12.

주요 유구 / 유물
우물 / 장경호, 단경호, 환형·우각형파수, 적색연질토기, 기와, 연석, 남근석형 석기

대가야읍의 중심에 위치한 연조리 고령초등학교 운동장의 서쪽 모퉁이에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관아가 있었던 쾌빈리 공영 주차장에서 북쪽으로 4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대가야읍의 진산인 주산의 동쪽 지맥 하단에 해당한다. 현재 우물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 유리원판 사진의 모습으로 복원한 다음 주위에 팔작지붕의 보호각을 설치하고 철책을 둘러 보호하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한 밝혀진 우물의 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상단이 높이 0.9m, 복원 내경 1.3m 내외이고, 하단은 높이 0.2m, 복원 내경 1m 내외로 추정되었다. 조사 보고서는 우물 주변 지반은 원래 논이었던 까닭에 찰진 점토로 이루어졌으며, 생토층은 잔자갈이 다량으로 섞여 있는 니토질泥土質이었다고 한다. 토층은 모두 7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표에서 제4층까지는 교란층이었고, 제5층은 조선시대, 그리고 제6층은 회색경질토기 편과 와 편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삼국시대의 층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7층은 생토

유적 위치도

층으로 흙 속에 잔자갈이 다량 포함되고 있어 지하수가 흐를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이 층에서 물줄기가 솟아나고 있었다고 한다.

출토 유물은 장경호 편, 단경호 편, 환형·우각형파수, 적색연질토기 편, 기와 편, 연석, 남근석형 석기가 각각 1점씩이 출토되었다. 이 중 토기류는 6세기 경의 대가야시대 생활토기들임을 비추어 보면 상한은 삼국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왕정과 관련한 문헌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현 남쪽 1리에 대가야 궁궐지가 있고 그 옆에 돌우물이 있는데 세상에서 어정御井이라 전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개항기 고령 지역의 유학자인 홍와弘窩 이두훈李斗勳이 1910년(순조 4) 편찬한 『고령지高靈誌』에는 "읍내에 어정이라 하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관아官衙 남쪽 1리에 있고, 다른 하나는 관아 북쪽 활 한 마당 거리에 있는데 왕후정王后井이라 한다. 전설에 따르면 대가야왕大加耶王 식정食井이라 부른다"고 한다. 연조리왕정은 이두훈이 말한 관아 북쪽의 왕후정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문헌

계명대학교박물관, 1981, 「부록Ⅱ. 고령읍 연조동 전어정발굴조사보고」, 『고령 지산동고분군』.

고령 왕정 복원

1917년

조사모습

석축 노출모습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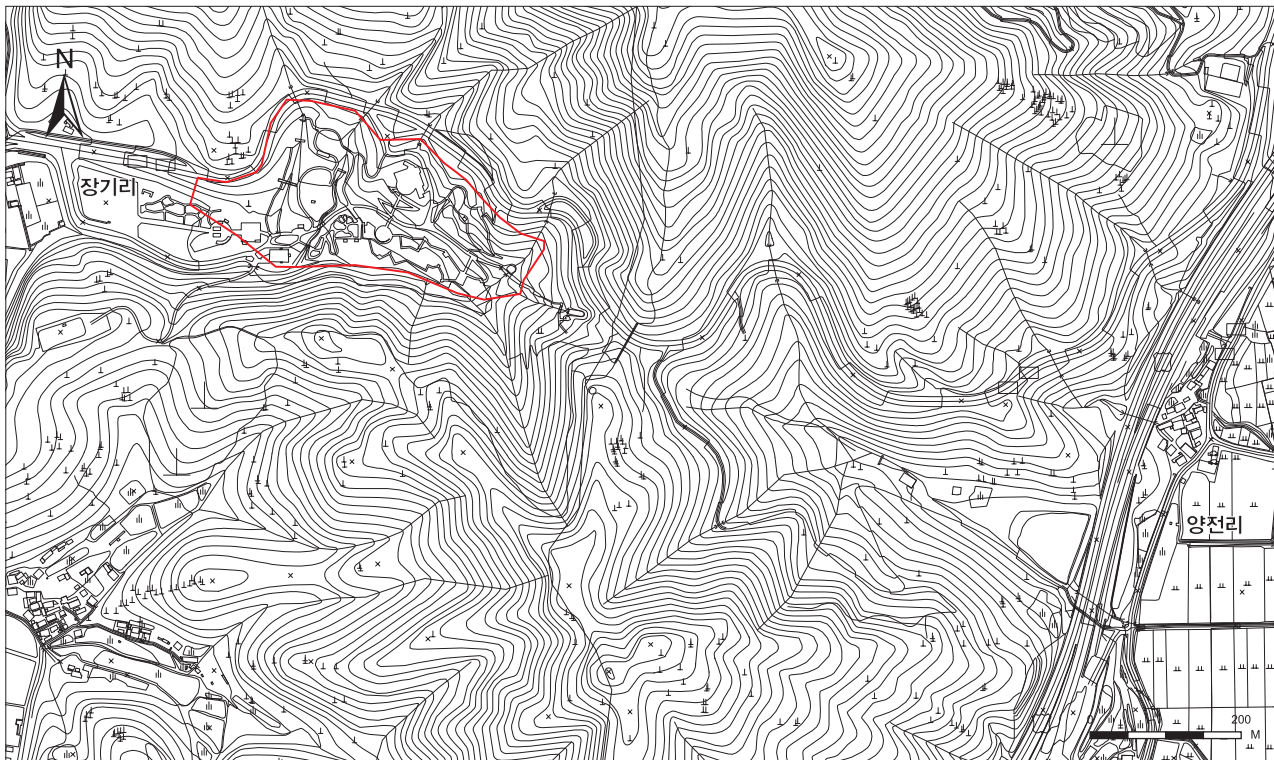
고령 낙동강유역 기념숲 조성부지 내 문화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 5-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불교문화재연구소 / 2005.4.~2006.1.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구상유구, 굴립주구조물 / 고배, 단경호, 파수, 컵형토기, 통형기대, 파수부호

대가야읍에서 대구 방면으로 통하는 종래의 국도 26호선인 금산재 오르막길의 남쪽 계곡부 일대로 유적은 주로 계곡의 북쪽 경사면에 분포한다. 고령군의 낙동강 유역 산림녹화기념숲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발굴조사되었으며, 현재에는 대가야수목원이라는 명칭이사용되고 있다.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의 주거지 3동, 수혈유구 13기, 토기가마폐기장 1개소, 구상유구 1기, 굴립주구조물 1기, 유물포함층 1개소가 확인되었다. 그 외 통일신라시대 석실묘 7기, 석곽묘 1기, 고려시대의 석곽묘 1기, 분묘 4기, 조선시대의 분묘 4기, 시대미상 분묘 51기, 수혈 1기, 석곽묘 5기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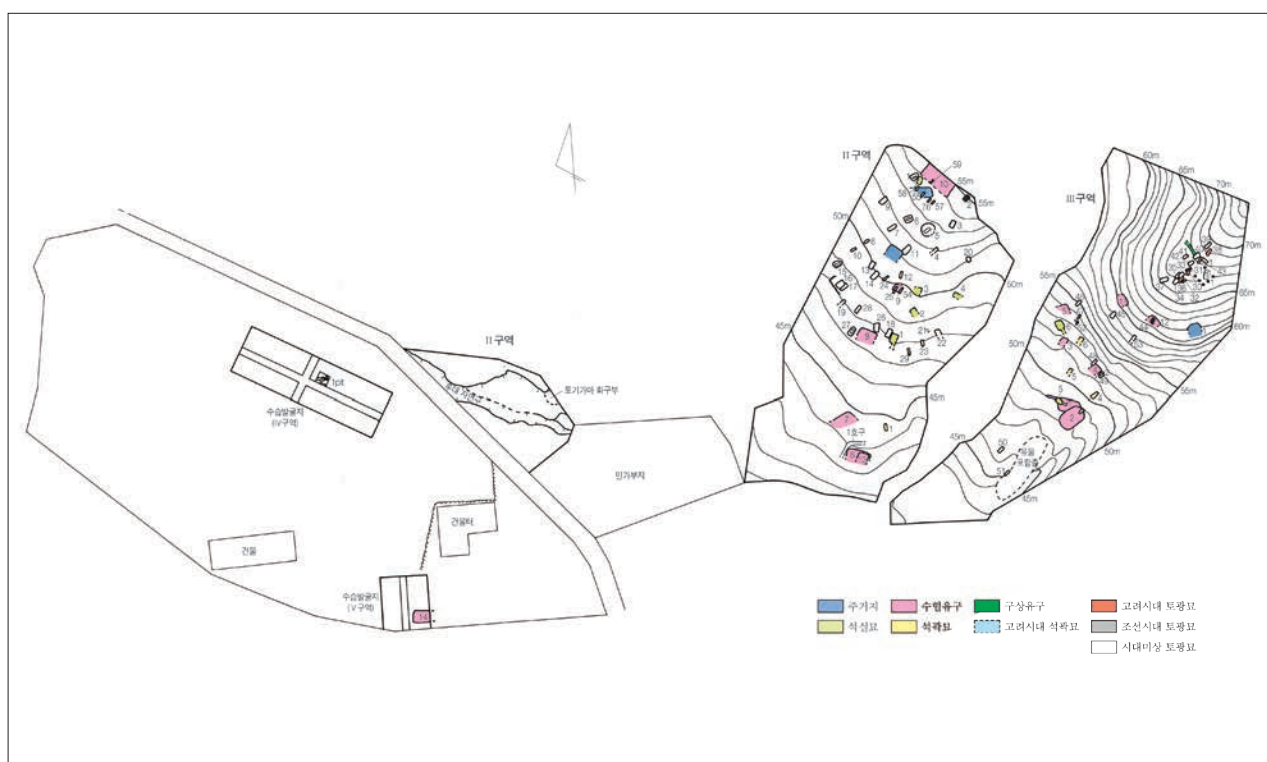
삼국시대 생활유구로 보고된 주거지와 수혈, 굴립주구조물 등은 그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주거지와 수혈은 대부분 완만한 구릉사면 중앙부에 위치하고 다수는 평면 장방형의 형태를 하고 주거지와 규모도 비슷하며, 내부에는 소토나 목탄이 다량 검출되고 있다. 그러나 보고자는 수혈의 경우, 생활유물의 부재, 단순한 바닥처리, 유구

유적 위치도

내 주혈의 부정형성, 취사난방의 부재 등으로 주거지와는 다르며 인근의 토기가마 폐기장과 관련한 작업용 간이시설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일반적인 주거지와 다른 수혈 중 일부를 의례용인 제사시설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유적 전반에서는 유구와 유물포함층을 포함하여 동일한 시기의 토기기종이 확인되었다. 소위 고식도질토기로 개, 고배, 컵형토기, 광구소호, 통형·발형기대, 단경호, 옹, 대호 등으로 다양하다. 이 유물들은 공통양식기에서 가야와 신라로 분화되는 시점의 가장 늦은 단계의 것들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것들이다. 특히 함안양식의 토기류가 많으며, 창녕, 김해, 성주지역 토기들과 유사한 형태로 외래계 토기가 주류이며, 대가야계 토기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유적이 위치한 일대는 대가야읍에서 낙동강 방면으로 통하는 길목으로 대가야읍에서 대가천을 건너 이곳에서 출발하면 금산재를 넘어 동쪽으로 직진하면 대구와 연결되는 강정나루, 남동쪽으로 향하면 현풍, 창녕과 낙동강 하구로 통하는 개포나루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곳에서 확인된 제사 유구 및 외래계 유물들은 대가야 번성기 이전부터 낙동강 수로교통을 이용한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불교문화재연구소, 2007, 『고령 낙동강유역 기념숲 조성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유구 배치도

조사지역 서쪽전경

Ⅲ구역 2호 수혈

Ⅲ구역 2호 수혈 유물출토 모습

2호 수혈 출토유물

2호 주거지 출토유물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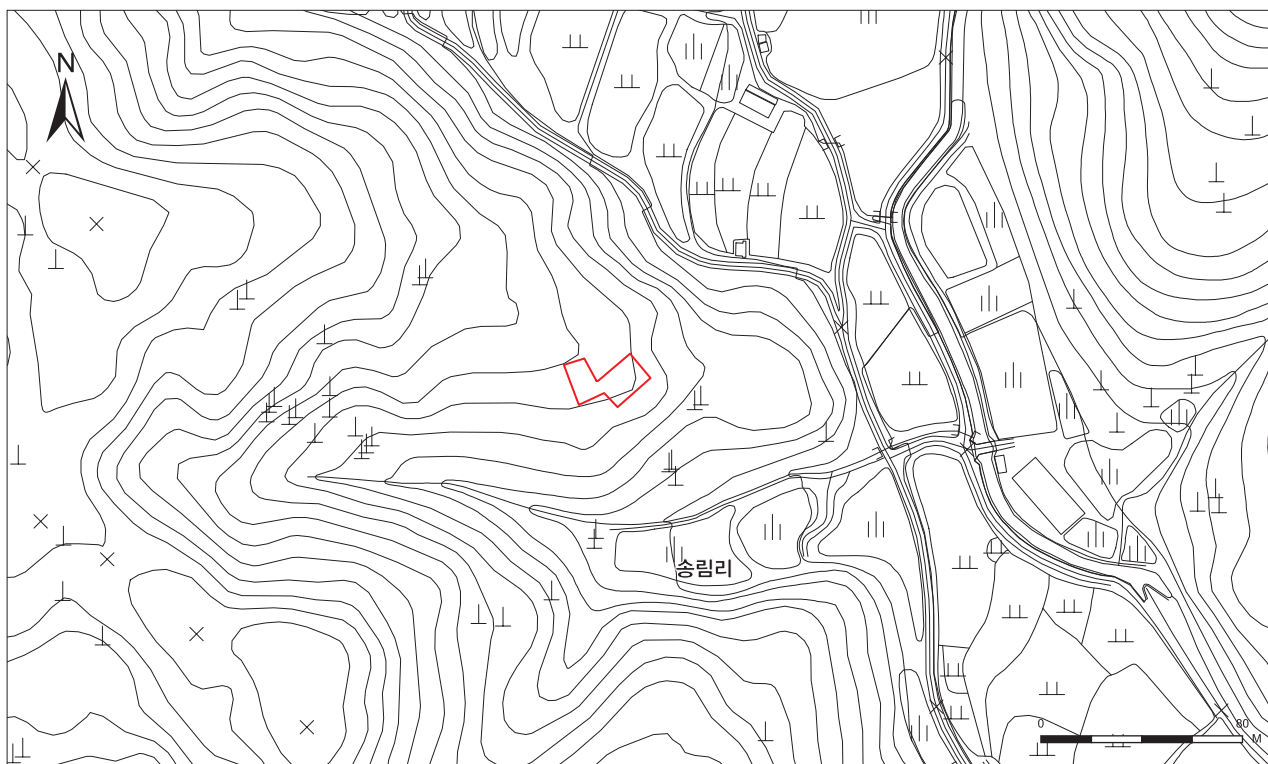
고령 송림리 대가야 토기가마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 산36-7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영남문화재연구원 /
2015.8.~2015.10.

주요 유구 / 유물
토기가마, 폐기장 / 개,
배, 고배, 파수부완, 완,
장경호, 호, 발형기대,
통형기대, 저평통형기
대, 고리형기대, 장동옹,
토관, 시루, 연화문전,
무문전

유적은 안림천 북편으로 발달한 완만 능선의 동사면부인 해발 105~97m 정도에 위치한다.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 토기가마 3기, 폐기장 3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토기가마는 3기로 규모는 길이 5.2~5.6m, 너비 1.2~1.6m, 잔존깊이 0.2~0.6m 정도이다. 가마의 구조는 1, 2호는 지상식 혹은 반지하식, 3호는 반지하식으로 판단된다. 내부 바닥시설은 무계무단식이며, 연소부와 아궁이의 연결 형태는 3호로 보아 외고내저형으로 추측된다. 벽체는 점토와 식물부재를 섞어 구축하였고, 3호에서 나뭇가지에 점토를 감싼 벽체가 확인되어 천정부나 벽체를 만들 때에는 나무를 뼈대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업회수는 벽체의 단면을 통해 2~5차례 정도 진행되었고, 3호 토기가마 바닥에서 개 1점을 매납한 유구가 확인되어 조업시 의례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되는 점은 1·2호 토기가마에서 전塼이 출토되어 대가야 왕도의 궁성지나 주산성에서 출토되는 전들이 대

유적 위치도

가야의 생산품임을 증명해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대가야 기와로 알려진 토기 소성도의 기와들 역시 토기가마에서 함께 구워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폐기장 3기는 토기가마의 회구부 부근에서 확인되었는데, 부정형으로 재층과 다양한 토기 및 전 편들이 출토되었다.

토기가마와 폐기장에서 출토된 유물은 8천여 점인데, 주요기종은 개, 배, 고배, 파수부완, 완, 장경호, 호, 발형기대, 통형기대, 저평통형기대, 고리형기대, 장동옹, 토관, 시루, 연화문전, 무문전 등으로 대가야 고분과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전기종을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출토수량은 호〉저평통형기대〉발형기대〉장경호〉개〉배 순이다. 전은 1·2호 토기가마와 1호 폐기장에서 집중되어 가마마다 생산물품이 정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송림리토기가마는 출토유물로 보아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경에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토기와 전, 기와를 함께 생산하던 겸업가마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특히 고분과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전기종을 생산하던 가마로 향후 대가야 토기의 생산과 유통관계, 전과 기와를 통한 건축문화, 연화문전을 통한 불교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영남문화재연구원, 2017, 『고령 송림리 대가야 토기가마 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3호 토기가마

2호 폐기장

전류

토기류

30

고령 주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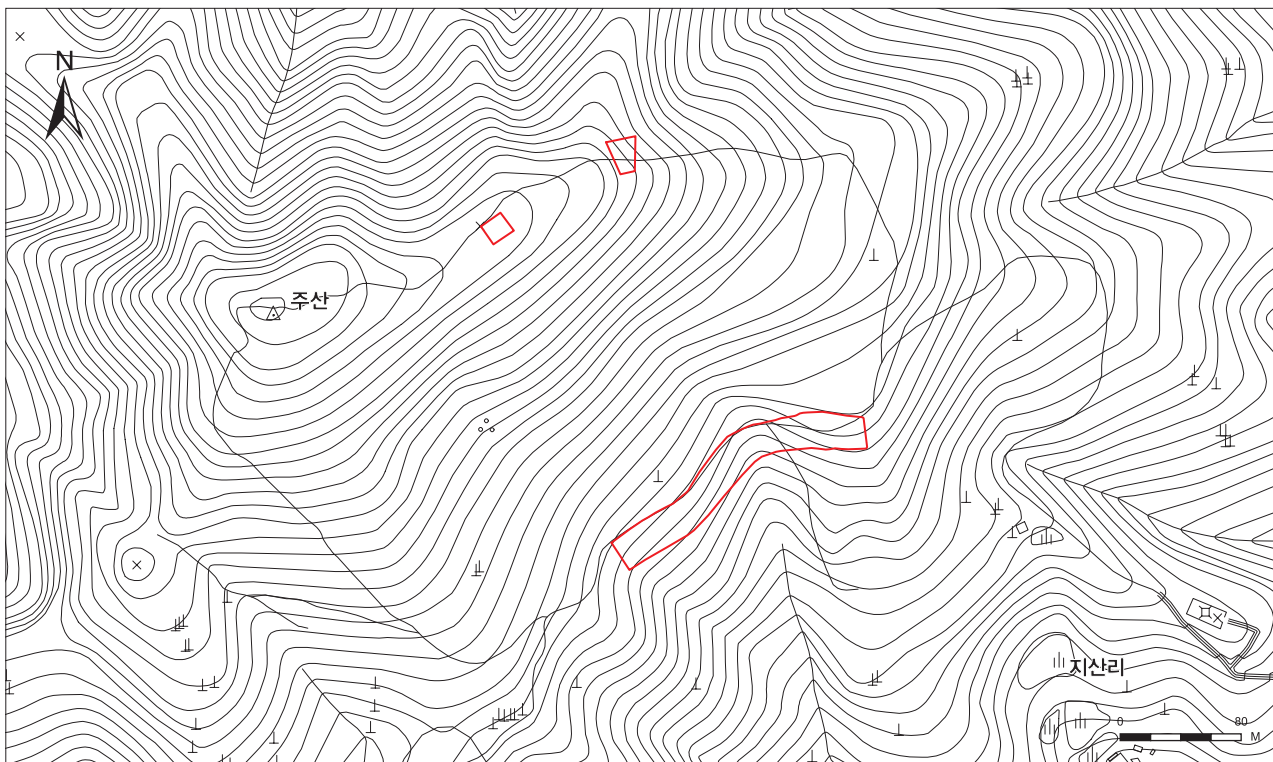
| 사적 제61호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54-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동문화재연구원 /
1차 2011.12.~2012.12.
2차 2014.11.~2015.7.

주요 유구 / 유물
성곽, 목곽고 / 개, 대호,
기대, 파수, 시루,
기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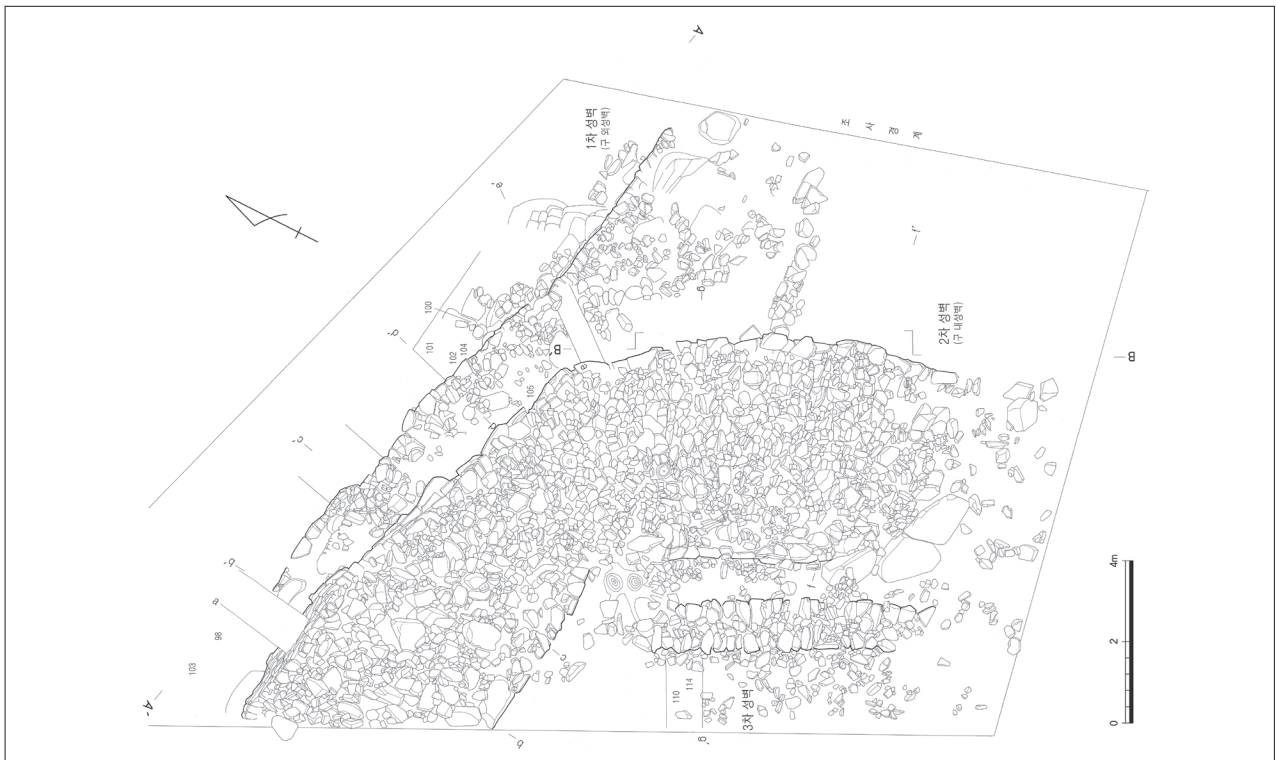
주산성은 대가야읍내를 서쪽에서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고령의 진산인 주산主山에 구축된 석축산성이다. 석축 범위를 보면, 해발 310m 정상에서 서남쪽 능선과 북동쪽 능선을 따라 내려오다가 해발 170~180m 높이에서 대가야읍 방향의 남사면을 가로지르며 구축되어 있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주산 정상부에 구축된 테뫼식 산성으로 9부 능선의 평탄한 지형을 이용하여 구축한 장타원형 형태의 테뫼식 2차 축조 성벽과 그 동·서쪽으로 연접하여 완만하게 내려오는 능선과 남쪽 경사면의 6부 능선을 절개하여 축조한 산복식山腹式 1차 축조 성벽이 결합되어 내외 2중성의 구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산정부에서는 2차 석축이 무너진 터 위에 고려시대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담장 모양의 3차 축조 성벽이 확인된 바 있다. 성벽의 규모는 내성이 둘레 711m 정도이고 면적 21,890㎡이며, 외성은 내성의 서벽·동벽에 잇대어 축조되어 있어, 전체둘레는 1,419m, 총면적은 104,494

유적 위치도

㎡ 정도이다.

2차례의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내성과 외성 모두 석축 성벽을 쌓았고 축조 순서상 내성이 외성보다 늦게 구축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내성은 (현)최대 높이 3.5m, 폭 5.5m, 잔존 면석의 최대높이 1.7m이다. 외성은 높이 3.5~7m, 폭 4~7m 정도로 내성과 외성 모두 편축식석축성벽이다. 축조시기는 외성벽의 경우 성벽의 기초부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6세기 전반에 구축된 성벽으로 파악한 바 있고, 내부에서 5세기 말에 초축성벽도 확인되었는데,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축조된 양상을 보인다. 내성벽은 외성벽과의 중복양상으로 후축되었으며, 북사면 보강토 아래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토기편으로 볼 때 대가야 말기인 6세기 중엽 경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내성 내에서는 지하식 대형 목곽고木槨庫가 확인되었는데, 6세기 중엽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모는 평면 폭 8×8.5m, 깊이는 3.5m이다. 축조순서는 암반층까지 굴착 후 바닥에 1~1.2m 정도 니질점토로 다지고 그 위에 5×5m의 범위로 1m 간격으로 각목재를 이용하여 격자상의 골조를 구성하여 구조물을 세웠다. 벽체에는 1~1.2m 두께로 점토를 채워 방수처리함과 동시에 굴광면에 붙여 석축을 쌓아 올린 구조이다. 목곽고의 구축시에는 백제 웅진기와 사비기 전반까지 사용되었던 중국의 남조척(1尺=25cm)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목곽고와 동일한 구조는 대전 월평동유적, 공주 공산성, 금산 백령산성, 이천 설성산성 등 백제지역에서 다수 발견된다.

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주산성은 5세기 말에 축조되기 시작하여 6세기 전반

2차 내·외성 접합부

에 외성벽이 완성되었으며, 6세기 중엽 경에 내성과 목곽고 등 제반시설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주산성의 전체적인 모습이 완성된 6세기 중엽 경에는 대가야 중심부에 백제 묘제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고아리벽화고분, 고아2동고분, 절상천정총 등이 새로운 형태의 무덤이 축조된다. 이는 당시의 대가야의 정치적 상황이 백제와 친연관계를 가지고 신라에 대응된 위치에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이 산성과 묘제, 유물 등에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554년 관산성 전투에 패배한 결과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어 쇠퇴일로를 걷게 되고 대가야 멸망에 이르게 된다.

주산성은 대가야 왕도의 배후에 위치하여 위기시 대피성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남쪽 능선에는 지산동고분군, 북동쪽 능선에는 연조리고분군, 동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구릉상에는 대가야궁성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대가야의 주요 유적의 배치상을 보면 대가야 왕도가 철저한 기획 속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시점은 5세기 초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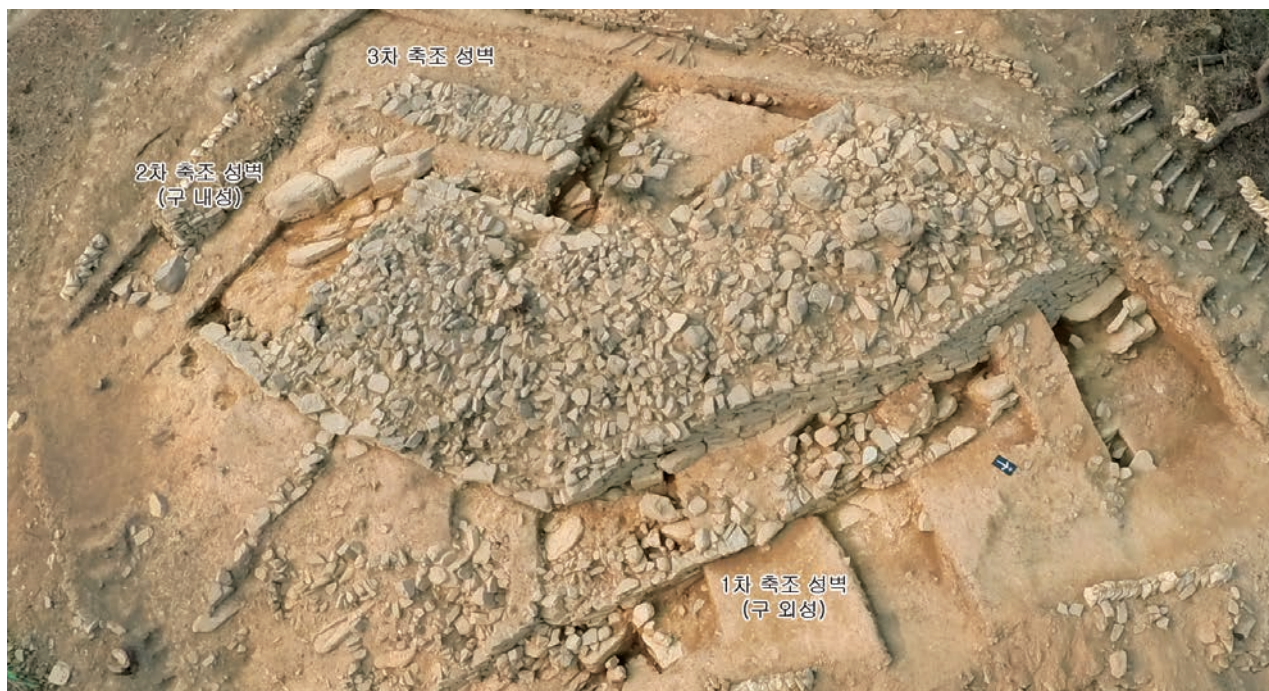
대가야박물관·고령군, 1996, 『주산성지표조사보고서』.

고령군, 2010, 『고령 주산성 종합정비계획』.

대동문화재연구원, 2014, 『고령 주산성Ⅰ』.

대동문화재연구원, 2017, 『고령 주산성Ⅱ』.

1차 1구역 전경

1차 2구역 전경

2차 내·외성 접합부

1차 구역 배수로

2차 내성·북성벽

목곽고

목곽고

31 고령 연조리 추정 대가야궁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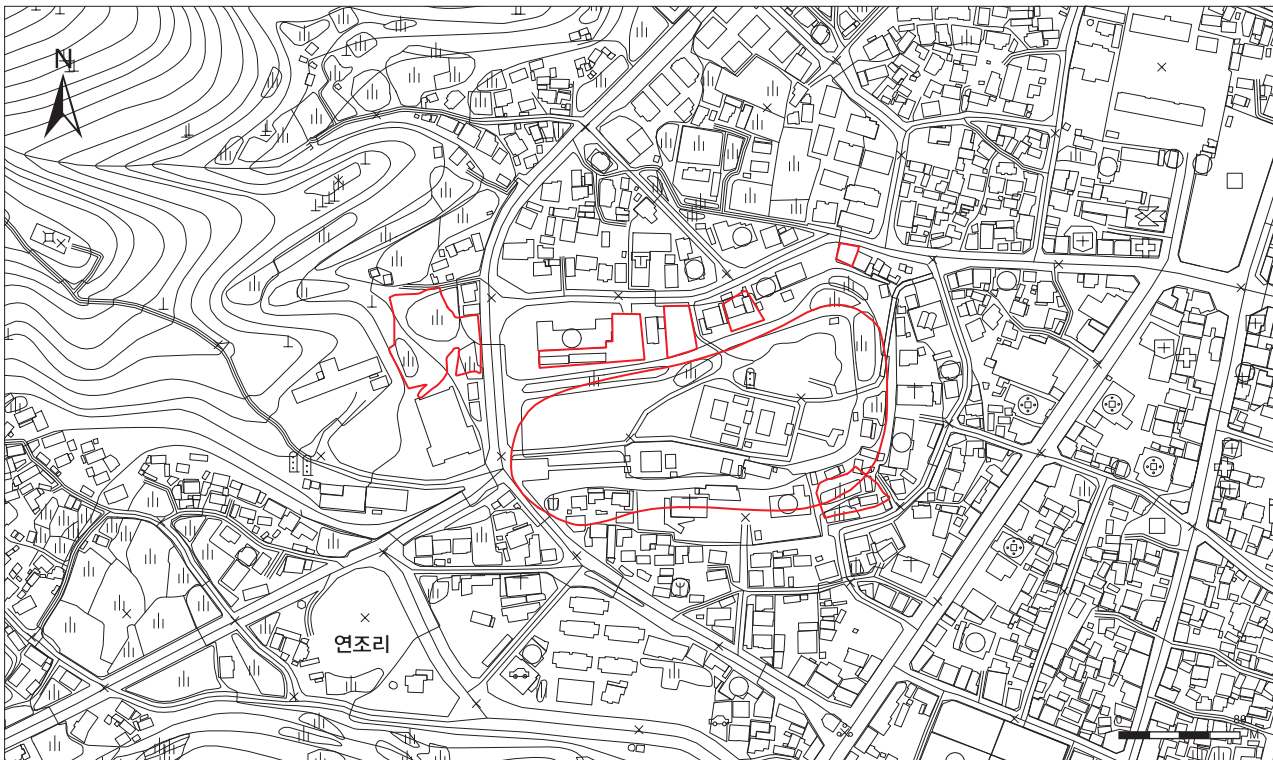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리 608·594-4·563-2 일대

조사 기관/ 조사 기간
경북대학교박물관 / 2000.8.~2001.1
가온문화재연구원 /
1차 2017.5.~2017.7.
2차 2017.9.~2017.10.
3차 2017.12.~2018.1.

주요 유구 / 유물
대벽건물지, 와즙건물지, 해자, 토루(성벽) / 대야형완, 시루, 개배, 파수, 막새, 기와

대가야궁성지는 대가야읍내 중심부에서 주산으로 올라가는 탐방로 초입의 나즈막한 구릉상에 위치한다. 궁성지로 추정되는 대지의 전체 모양은 동쪽이 넓고 서쪽이 좁아져 마치 주걱과 흡사하며 둘레는 700m 내외이고 면적은 26,000㎡ 정도이다. 전반적인 지형은 상단이 평탄하고 북쪽과 동쪽은 계단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은 완경사이지만 역시 계단상을 이룬다. 서쪽 주산 방향으로는 군민체육관 운동장까지 완만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구)대가야유물전시관 건물과 고령향교가 들어서 있다.

1995년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약간의 무문토기 편과 마제석검을 포함하여 삼국시대의 토기와 전塼, 통일신라시대의 와당과 전, 고려·조선시대 기와 편이 채집되었고, 대지의 북쪽 사면 고령보건소 뒤 단애면 토층조사에서 가야시대 석축이 확인된 바 있다.

2000년 경북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대가야궁성지 정밀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에

유적 위치도

서 대가야 건물지 3기, 수혈 3기, 주혈군 1기 및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와 수혈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대가야시기의 개, 대야형완, 시루, 개배, 파수 등 토기류와 삼국시대 귀면와, 연화문수막새, 평기와가 편으로 일부 출토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궁성지의 중심공간으로 추정되었던 평탄지형은 향교가 들어서며 삭평되고, 일제강점기 이래 들어선 각종 시설물에 의해 대부분 훼손되었음이 밝혀졌다. 복토된 사면부에서 대가야의 대형 대벽건물지와 6세기 중엽경의 와즙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궁성지 주변인 연조리 594-4번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북쪽 경사면 아래에서 성벽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을 채워 성을 방어하는 해자시설과 토축 성벽이 구축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해자의 규모는 (현)폭 6~8m (현)길이 16m 정도이고, 그 외연을 따라 나란하게 폭 6~6.5m의 토성이 구축되어 있었다. 토성은 2~2.5m 간격으로 3열 석단을 각각 쌓고 그 내부를 판축식으로 성토하여 토축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성벽인 토성의 배치 및 유존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지역에 대한 추가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연조리 563-2번지 일대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는 2지점 1·2 트렌치에서 궁성지 관련 유구로 추정되는 석축열과 토축이 동쪽 약 50m 거리에서 기 조사된 594-4번지 유적과 연결되는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연조리 563-3번지 일대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는 1지점 3트렌치에서 앞서 조사된 양상과 동일한 성벽으로 추정되는 석렬이 확인되었고, 구신정지로 추정되는 연조리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삼국시대의 기와편과 토기 편이 일부 확인되었다.

유구 배치도

한편, 『삼국사기』의 562년 대가야 멸망과 관련된 기사에는 "전단양성문명가라어위문위양운栴檀梁城門名加羅語謂門爲梁云" 이라고 하여 가야에서는 량梁을 문門이라 한다고 전한다고 하여 전단량栴檀梁을 통해 대가야 궁성의 출입문의 존재를 유추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령현 남쪽 1리에 대가야 궁궐지가 있고, 그 옆에 우물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정御井이라고 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910년(순조 4) 향토사학자 이두훈이 편찬한 『고령지高靈誌』에서는 "읍내에 어정이라 하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관아官衙 남쪽 1리 옛 궁궐터에 있고, 다른 하나는 관아 북쪽 활 한 마당 거리에 있는데 왕후정王後井이라 한다. 전설에 따르면 대가야왕식정大加耶王食井이라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20세기 초 일본의 학자 세키노 다다시關野貞도 이곳을 답사하여 대가야 왕궁지로 비정한 바 있으며,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마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이 '임나대가야국성지任那大加耶國城址'라는 기념비를 이곳에 세우기도 했다.

대가야궁성지는 여러 차례 발굴조사와 고려~조선시대까지 문헌과 구전으로 대가야 궁궐이 존재하였음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추정궁성지 주변을 따라 토성벽과 해자의 존재가 확인되고, 대벽건물지 및 대가야기와가 다량 출토됨을 통해 궁성지의 실체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그러나 궁성지의 위치를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모산골 일대로 추정하는 연구들도 있고, 대가야가 현재 대가야읍에 왕도를 건설할 당시 사전기획하에 대가야궁성지를 중심으로 주산성, 지산동고분군, 연조리고분군을 조성하였다는 연구들도 있다.

참고문헌

국립진주박물관, 1995, 「고령 도시계획 재정비구역 지표보사 약보고서」.

경북대학교박물관, 2006, 『전 대가야 국성지』.

대동문화재연구원, 2016, 「고령 연조리 594-4번지 건물신축부지 내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결과서」.

가온문화재연구원, 2017, 「고령 연조리(594-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가온문화재연구원, 2017, 「고령 연조리(563-2번지 일원) 추정대가야궁성지 내 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가온문화재연구원, 2018, 「고령 연조리(563-3번지 일원) 추정대가야궁성지 내 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해자와 성벽

7호 건물지(대벽건물지)

7호 건물지 벽체

2호 수혈유구

3호 석렬

토기류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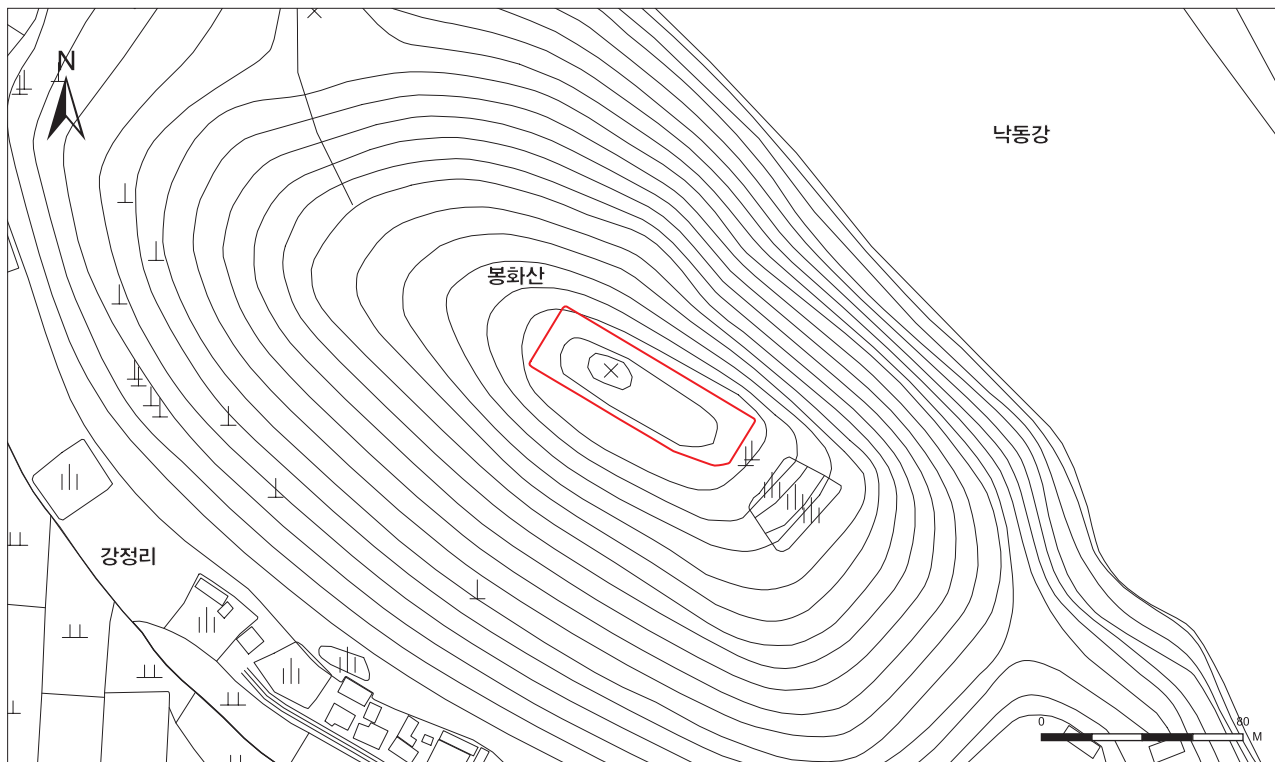
고령 봉화산 봉수대 재현사업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강정리 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동문화재연구원 /
2017.4.~2017.9.

주요 유구 / 유물
성곽, 집수지 / 개,
기대, 장경호, 연질호,
대호, 장동옹

봉화산성은 낙동강 서안에 접해 있는 독립구릉인 봉화산(해발 111m) 정상부를 중심으로 사면부를 따라 축조된 테뫼식의 편축식석축산성이다. 고령군에서 추진하던 조선시대 봉화산봉수대 재현사업부지를 발굴조사하던 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대가야 산성은 내·외 2중성 구조로 내부에서는 군사들이 먹을 물을 보관하던 원형 저수시설도 확인되었다.

성벽은 낙동강가인 북서편 20m 정도 범위만 조사되었는데, 급경사면을 이용하여 편축식으로 구축되었다. 기초부는 암반면까지 굴착한 후 하단석은 대부분 들여쌓기하고, 지대석을 설치한 경우와 기존 암반을 그대로 활용한 부분이 확인된다. 벽석재는 세장방형으로 대충 가공하여 정연하지 않으며, 대체로 수평식으로 쌓되 허튼층으로 쌓고 쐐기돌이 많이 사용된 특징을 보인다. 축조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유물들은 산성 기초부에 해당되는 성벽 하단 외부의 정지면 점토층 내부에서는 주로 출토되었는데, 발형기대·장경호·고배뚜껑·호·연질호·장동옹 등으로 전형적인 6세기 중반 경의 대가야 토기 편이다.

유적 위치도

집수시설은 능선 정선부에 위치하며 암반면을 굴착하고 2차에 걸쳐 중복조성된 양상을 보여준다. 1차 시설은 6세기 중반 경 삼국시대에 구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 다각형으로 벽면은 석축하고, 바닥면은 전면적으로 방수점토를 깐 후 납작한 박석을 설치하였는데, 중앙부로 오목하게 만들어 깊은 곳으로 물이 모이도록 조성하였다. 2차 시설은 출토유물로 보아 6세기 후반 신라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1차 집수시설 내부 퇴적토를 필요한 부분만 걷어내고 2차 집수시설의 벽석을 원형으로 쌓았다.

발굴 결과, 봉화산성은 대가야시대인 6세기 무렵에 처음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대가야 석축산성으로 밝혀진 주산성의 축조방법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1개소와 조선시대 각종 고문헌에 등장하는 말응덕산末應德山봉수와 관련된 연조 3기, 건물지 2동, 몽돌군, 방화벽 등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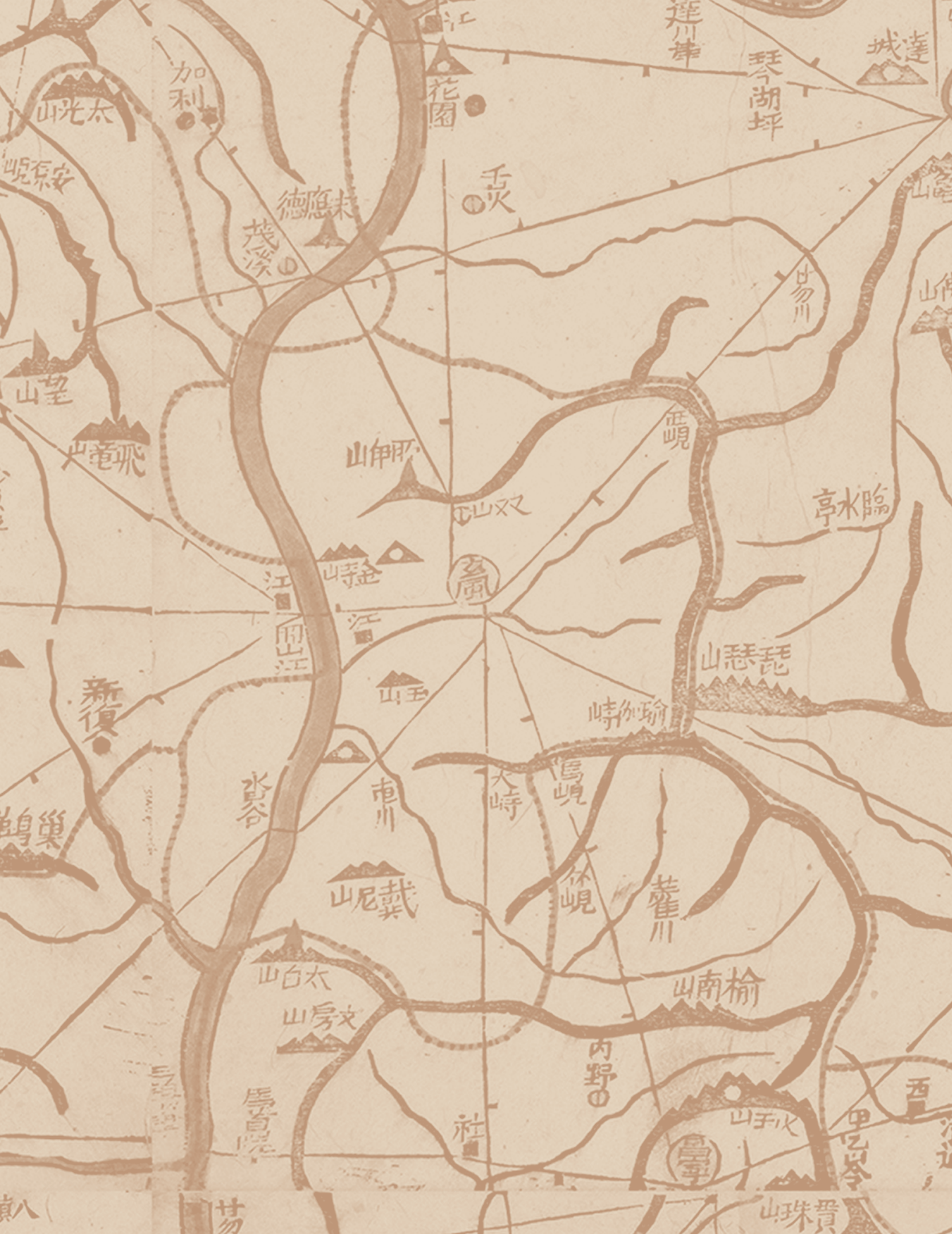
봉화산성 발굴조사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기존 고분 중심으로 진행되던 대가야사 연구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성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의 관방체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라와 대치하던 당시의 정세와 더불어 대가야의 영역, 교류, 번성과 쇠락 등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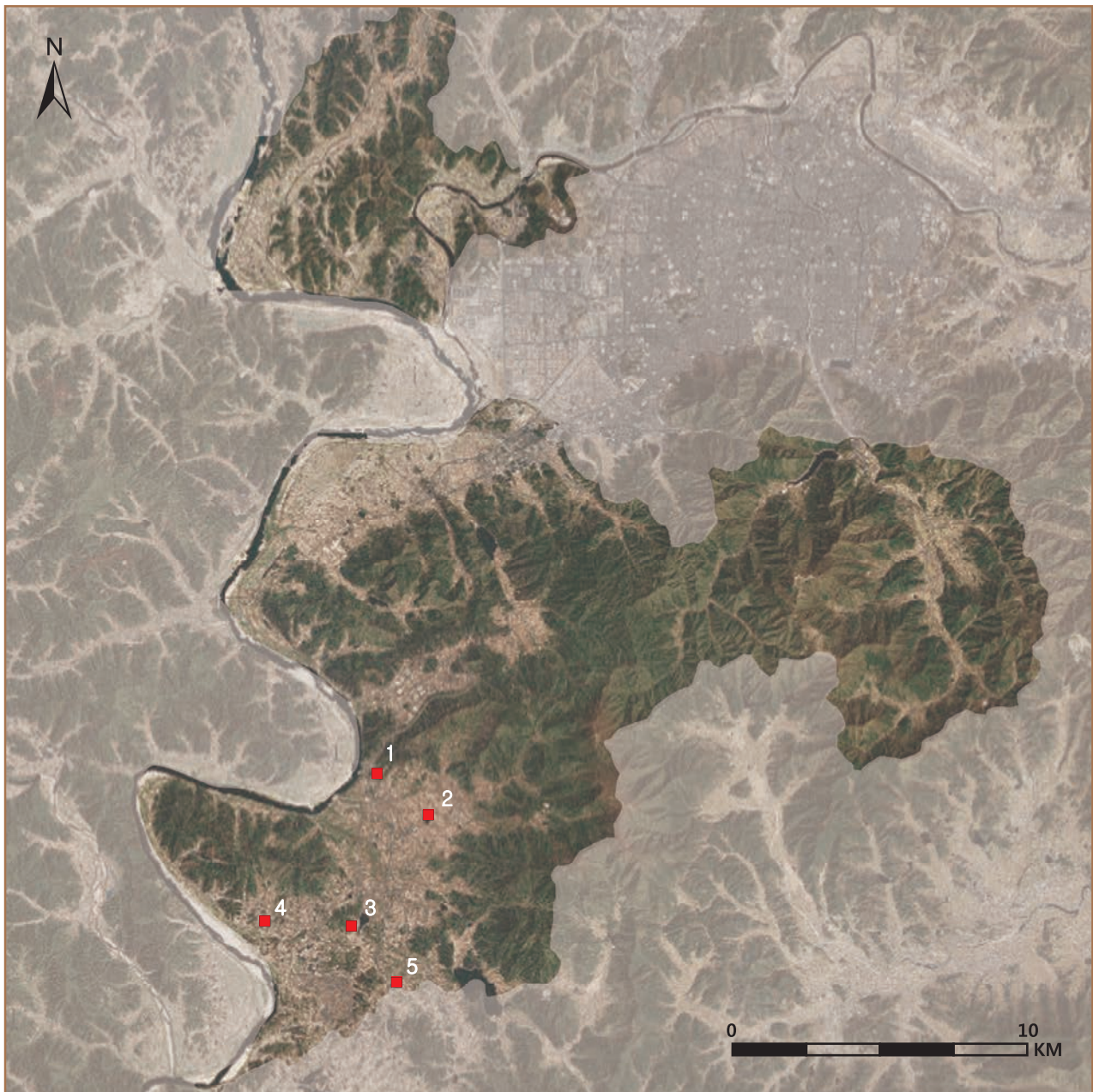
참고문헌

대동문화재연구원, 2017, 「고령 봉화산 봉수대 재현사업부지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유적 전경

성벽

집수시설

太光山
加利
花園
琴湖坪
達城
末應德
茂溪
望山
双山
臨水亭
琵瑟山
瑜伽峙
烏峴
大峙
車川
水谷
太白山
新復
內野
火王山

Ⅶ. 달성

01 달성 성하리유적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228-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동문화재연구원 / 2010.1.~2011.12.

주요 유구 / 유물
토광묘, 목관묘 / 점토대토기, 주머니호, 흑도장경호, 환두소도

유적은 비슬산에서 서남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줄기에서 남으로 파생된 가지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이곳은 화원에서 창녕방면으로 향하는 5번 국도를 따라 가다가 현풍 시가지의 초입 동편으로 달성종합스포츠파크가 들어선 곳이다.

발굴조사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12기, 수혈 2기, 토기요지 1기,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분묘 5기, 삼국~통일신라시대의 고분 267기, 토기매납유구 2기, 수혈 1기, 자연구 1기, 고려시대의 분묘 134기, 매납유구 4기, 주거지 1기, 수혈 1기, 와요 1기, 조선시대의 분묘 166기, 건물지 1기, 주거지 3기, 수혈 5기, 구 2기, 주혈군 2기, 시대미상의 분묘 1,155기, 수혈 3기 등 1,770기의 유구와 7천 여 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유적에서 조사된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분묘는 5기로 토광묘 3기, 목관묘 2기이다. 장축이 모두 등고선과 나란하며, 중복되지 않고 40m 정도의 비교적 큰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배치된 양상을 보인다.

유적위치도

토광묘는 제1·3·4호묘로 묘광 규모는 길이 2m, 너비 0.5m, 깊이 0.2~0.4m이다. 목관묘 보다는 폭이 좁은 편이며, 피장자를 직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1호묘에서는 남서장벽의 서편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서 구연부가 단면 삼각형인 점토대토기옹 1점이 출토되었으나 제3·4호묘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목관묘는 제2·5호묘로 묘광 규모는 길이 2.1m, 너비 0.7~0.9m, 깊이 0.5~0.6m 내외이다. 목관 규모는 길이 1.45~1.6m, 너비 0.35~0.4m이고 남아 있는 충전토 높이는 0.2m 내외이다. 묘광은 일직선에 가깝게 굴착하였고 단벽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 목관을 두었다. 목관에서는 관재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장자리를 따라 충전토가 확인되고 내부 함몰토가 'U'자상의 단면상태를 보여 목관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목관 형태는 제2호묘의 함몰 양측 간격이 좁고, 제5호묘 바닥 정지토의 평·단면 상태가 편평한 점을 감안하면 판재형 목관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2호묘에서는 북장벽 서편 충전토 윗면에 삼각점토대토기옹 1점, 남장벽 서편 충전토 윗면에서 타원형점토대토기옹 1점과 그 아래에서 주머니호 1점이 출토되었다. 제5호묘에서는 인골(대퇴부) 흔적이 확인되어 두향은 북동향임을 알 수 있었다. 두부의 우측에서 환두소도 1점, 발치쪽인 남서단벽 충전토 윗면에서는 흑도장경호 1점, 점토대토기옹 2점이 출토되었다. 북서장벽 중간부분의 충전토 내부에서 점토대토기옹 1점이 출토되었다. 그 외 철부로 굴착한 굴지구흔이 확인되었다.

토광묘와 목관묘의 조성시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의 토기류와 공반된 철제환두

유구 배치도

도자 등을 고려해 본다면 기원전 1세기 중반 또는 이른 후반 경으로 판단된다.

한편 삼국시대 석곽묘인 4·28-1·126·265호에서는 신라 토기와 함께 대가야 토기가 공반되어 있는데, 모두 대가야 멸망 이전의 6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토기들이다. 상대적으로 낙동강 서안의 대가야지역인 고령 양전리유적에서는 현풍계 토기가 부장된 고분이 확인된 바 있는데, 조성시기가 본 유적과 같은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되고 있다. 이를 통해 6세기 중엽 경에는 대가야지역과 현풍지역 간에 일정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양지역간의 교류관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대동문화재연구원, 2015, 『달성 성하리유적Ⅰ~Ⅺ』.

1호묘

2호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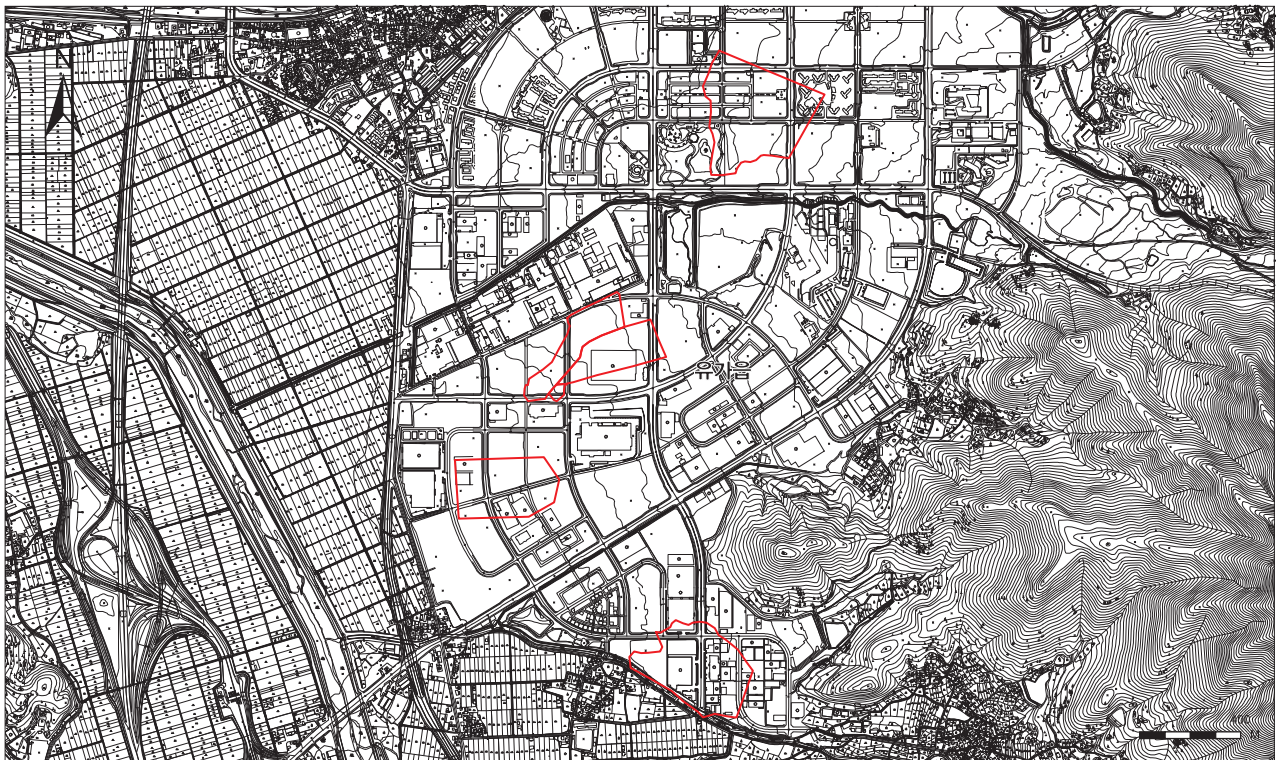
02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부지 내 유적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현풍면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2009.2.~20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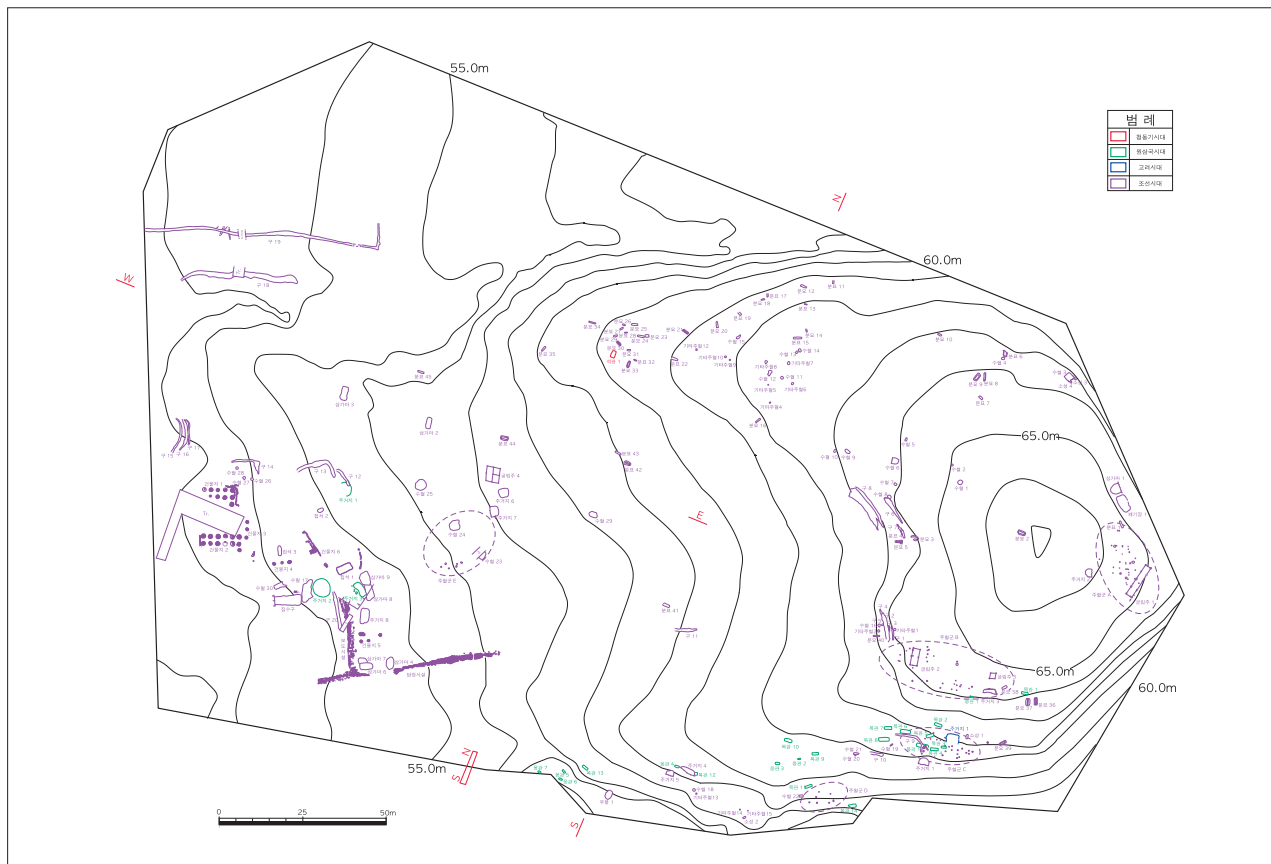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목곽묘, 옹관묘 / 주머니호, 흑도장경호, 두형토기, 완, 파수부호, 단경호, 양뉴부호, 장경호, 철모, 물미, 철검, 검파, 철부, 철침, 철사, 소도자

유적은 현풍 IC에서 현풍면사무소 방향으로 가는 5번 국도 동편의 나직막한 구릉 및 충적지 일대에 해당하며, 개발이 완료되어 신도시가 들어서 있다. 발굴조사 지점은 6개 구역(4~7, 9, 11)로 나뉜다. 청동기시대의 석관묘 8기, 주거지 8기, 수혈 13기, 구획구 2기, 구 5기,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14기, 목곽묘 1기, 옹관묘 7기, 주거지 3기, 수전 1개층, 삼국시대의 수전 1개층, 석실 1기, 수혈 5기, 구 2기, 조선시대의 적심건물지 6기, 주거지 8기, 분묘 289기, 삼가마 9기, 소성유구 8기, 집석유구 3기, 수혈 50기, 우물 1기, 굴립주건물 4기, 주혈군 8개소, 집수구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원삼국시대의 분묘는 모두 4구역에서 확인되었는데, 목관묘 14기, 목곽묘 1기, 옹관묘 7기이다. 구릉의 남사면에 군집을 이루거나 단독으로 조성되었는데, 북서쪽으로 130m 떨어진 구릉 말단부에 동시기 주거지군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묘역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적 위치도

목관묘는 장축이 등고선과 나란하며 평면 장방형이다. 묘광 규모는 길이 1.56~3.14m, 너비 0.62~1.15m이며, 목관 규모는 길이 1.16~2.24m, 너비 0.22~0.83m이다. 축조순서는 기반층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고 바닥은 점질토로 정지한 후 목관을 안치하였다. 묘광과 목곽 사이에는 충전토를 채웠는데, 일부는 목관을 고정하기 위해 쐐기를 박거나 할석으로 충전한 경우도 있다. 내부 토층양상과 충전토, 바닥에 잔존한 목관 부식흔 등을 통해 보면 3기는 통나무 목관, 나머지는 판재식 목관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의 부장위치는 충전토, 목관, 내부시설(벽감, 요갱) 등 다양하다. 유물은 2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머니호가 출토되었고 이와 공반하여 흑도장경호, 단경호, 양뉴부호, 원통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철부, 철겸, 철준, 철모, 철침, 철사, 철착, 도자 등의 철기류, 검파두식, 반부, 촉금구 등의 청동기가 조합을 이루는데, 일정한 기종이나 수량 등의 공통성은 보이지 않고 조합상이 다양하다.

목곽묘는 후대 삭평으로 거의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장축은 등고선과 나란하며 평면은 세장방형이고 단곽형으로 추정된다. 내부에서는 격자타날된 단경호 3점이 출토되었다.

옹관묘는 목관묘의 주변에서 확인되며, 평면 타원형 또는 말각장방형이다. 모두 합구식으로 2점의 토기를 사용하여 구연부를 맞대거나 삽입된 형태로 확인된다. 묘광 규모는 길이 0.9~1.45m, 너비 0.38~0.7m이며, 옹관 규모는 길이 0.78~1.16m, 너비 0.31~0.51m 정도이다. 합구된 주옹과 막음옹의 기종조합은 양이첨저옹+천발, 장동옹+단

4구역 유구 배치도

경호, 장동옹+양이첨저옹, 양이장동옹+양이장동옹, 장동옹+장동옹 등 다양하다. 대부분 단면 삼각형의 점토대토기가 사용되었다.

조성시기는 출토유물과 유구를 기준으로 원형점토대토기 단계 →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 → 전기와질토기 단계 → 후기와질토기 단계 → 목곽묘 단계 등 5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양이첨저옹과 원형점토대 천발이 조합을 이루는 옹관묘 1기가 해당하며, 원형점토대토기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로 변환되는 기원전 1세기 전엽으로 추정된다.

2단계는 단독으로 위치한 목관묘 주변으로 옹관묘 1~3기가 조성되어 있다. 목관묘에서는 주머니호와 두형토기, 흑도장경호, 도자, 청동기 등이, 옹관묘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다. 시기는 기원전 1세기 중엽으로 취락을 이루는 주거지 군과 동시기이다.

3단계는 목관묘에서는 주머니호, 파수부호, 원통형토기, 타날문토기 등 토기류와 검파부철검, 철모, 단조철부, 철침, 철사 등 철기류가 조합을 이루고, 옹관묘에서는 삼각점토대옹과 타날문단경호가 결합된다. 와질토기 출현기에 해당하고 1세기 전엽에서 중엽경으로 판단된다.

4단계에서는 옹관묘가 확인되지 않는다. 목관묘 부장유물에 있어서는 주머니호가 급격히 변화하며, 양뉴부호, 양뉴부옹, 장경호, 편구소호가 등장한다. 전형적인 와질토기의 사용시기로 도질소성상태의 토기가 등장하고, 철기는 철모, 단조철부, 철겸으로 부장물목이 단순화된다. 시기는 2세기 중엽 이후에 해당한다.

5단계는 목곽묘의 출현기로 추정되나 유적에서는 1기만 확인되어 정확한 양상은 알기 어렵다. 출토 단경호로 보아 승석타날에서 격자타날로 동체는 원형에서 편구형에 가깝게 변화한다. 시기는 2세기 중엽 이후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유적은 기원전 1세기 전엽~2세기 중엽 이후까지 조성된 원삼국시대 묘역임을 보여준다. 더불어 옹관묘, 목관묘, 목곽묘 등 시기별 조합 및 변화양상, 목관묘내 부장양상, 점토대토기에서 와질토기로의 전개과정 등 다양한 원삼국시대 문화상의 연구자료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영남지역 특히 달성지역 일대의 원삼국시대 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3,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부지 내 유적』Ⅰ~Ⅲ.

6호 목관묘

출토유물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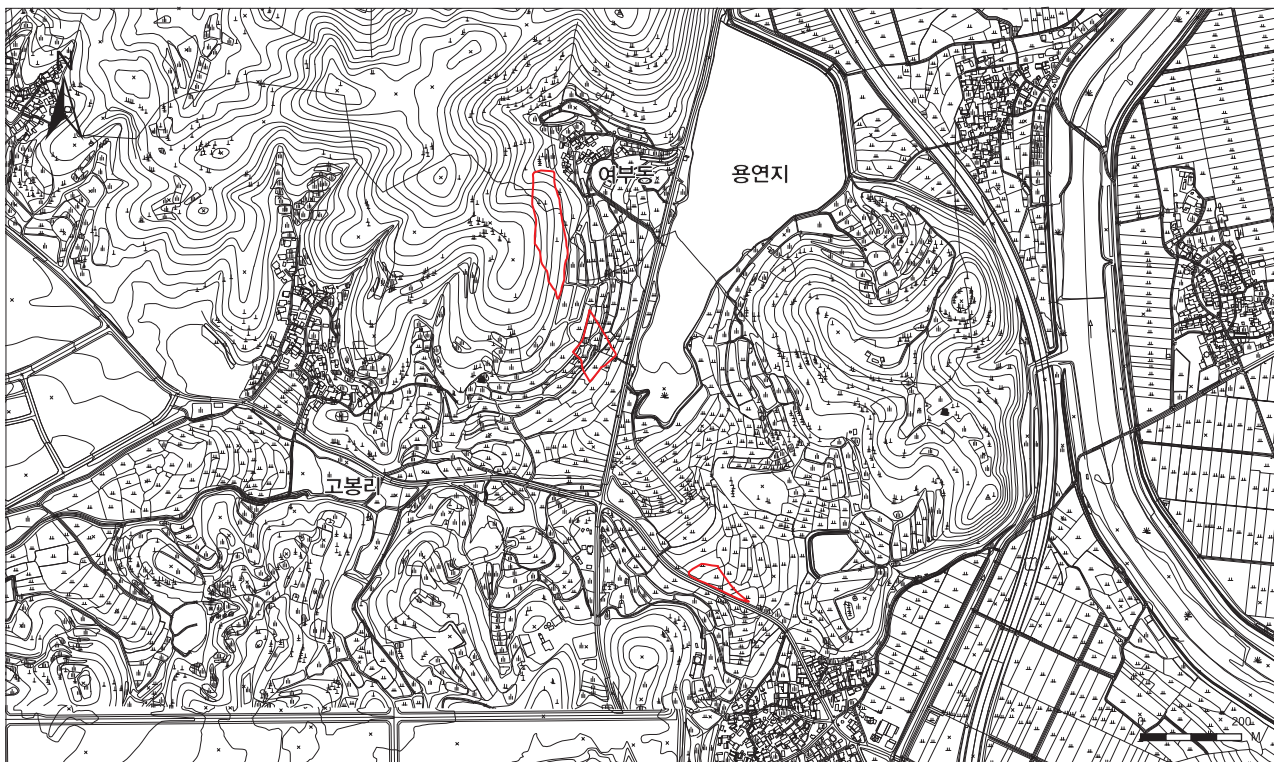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 유적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119-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한국문물연구원 / 2016.4.~20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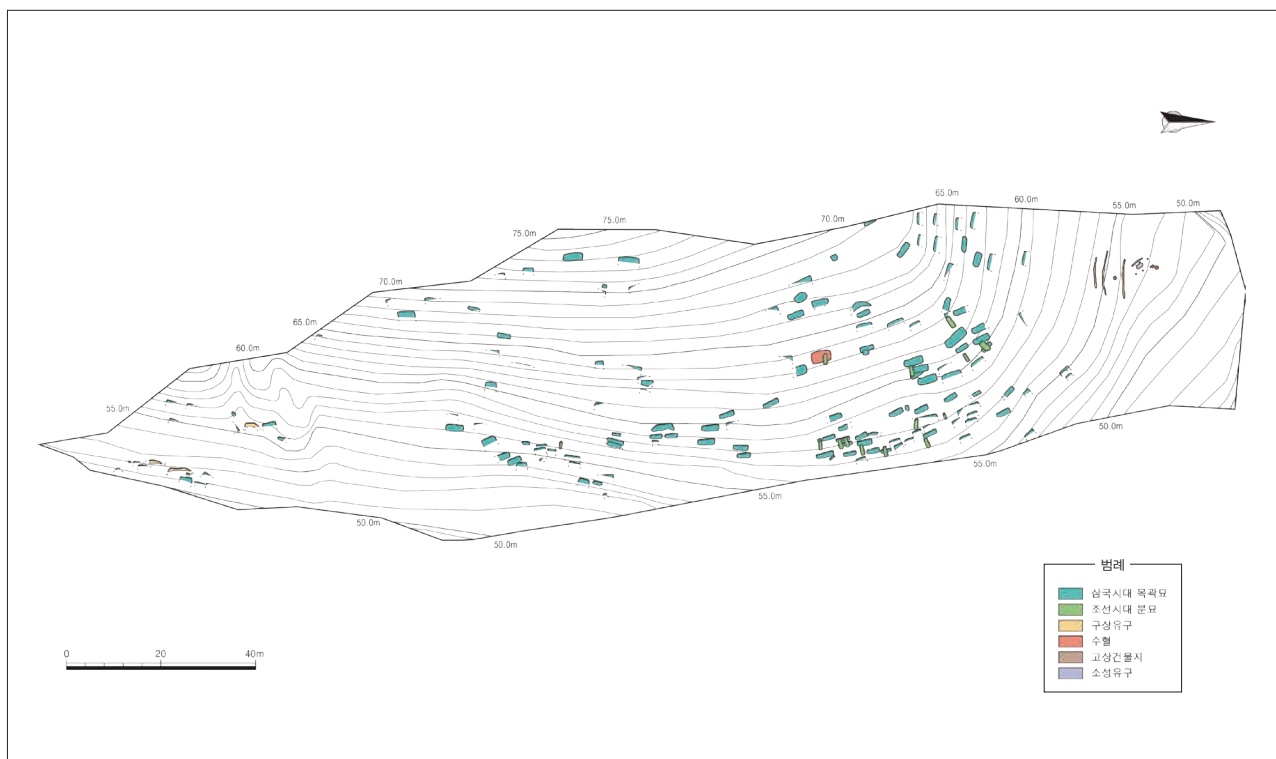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 단경호, 노형토기, 양이부호, 대호, 철모, 철촉, 철부, 철겸, 철도자

유적은 현풍 IC에서 낙동강가 구지면 방향으로 가다가 만나는 대니산(해발 408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 말단의 사면부와 주변일대에 조성된 계단식의 논과 밭에 해당한다. 발굴조사는 3개구간(가~다)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가구간에서는 삼국시대의 목곽묘 143기, 조선시대의 분묘 14기 고상건물지 1동, 시대미상의 수혈 4기, 구 7기, 소성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나구간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2동, 석관묘 2기, 고상건물지 3동과 삼국시대의 목곽묘 7기, 고상건물지 1동, 조선시대의 분묘 2기, 시대미상의 수혈 10기, 구 10기, 주혈군이 확인되었다. 다구간에서는 삼국시대의 고상건물지 34동 및 주혈군이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목곽묘는 가구간과 나구간에서 확인되었는데, 장축방향이 등고선과 평행하며 규모는 길이 1.0~3.8m, 너비 0.4~1.2m, 깊이 0.2~0.5m 정도이다. 모두 묘광을 굴착하고 목곽을 안치한 후 흙으로만 보강한 순수목곽묘이며 보강토는 묘광 굴착 시 나온

유적 위치도

흙을 이용하였다. 목곽묘는 길이에 따라 소형묘, 중형묘, 대형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규모에 따른 부장양상은 소형묘는 한쪽 단벽에 소형 단경호가 1~2점, 중형묘는 소형 단경호 외에도 타날문단경호, 양이부호, 노형토기 등이 부장된다. 대형묘는 부장량이 많으며 대체로 양 단벽에 부장된다. 출토유물은 토도류, 철기류로 토기 기종은 단경호, 대호, 양이부호이고, 철기류는 철모, 철촉, 철부, 철겸, 철도자 등이다.

구릉 일부에 대한 조사여서 구릉전체에 분포하는 목곽묘는 수백 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곽묘는 대부분 중복 없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축조되어 묘와 묘역을 사전에 인식한 상태에서 조성되었으며 병렬 또는 직렬 방식으로 연접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단일집단에 의해 조성된 묘역으로 볼 수 있다. 목곽묘 조성시기의 상한은 대부광구호 및 첨저호의 문양과 기형으로 보아 3세기 전반으로 판단된다. 중심시기는 다수 출토된 단경호 및 노형토기의 구연형태, 동최대경 위치, 타날문 등으로 보아 4세기 전반이며 하한은 4세기 중반으로 판단된다.

고상건물지는 다구간에서 조사되었는데, 구릉 말단부에서 평지로 이어지는 지점인 평탄한 충적대지로 차천변 침습지에 해당한다. 평면구조는 1×1칸이 13동, 2×1칸이 3동, 3×1칸이 3동, 2×2칸이 15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1칸과 2×2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규모가 큰 건물이 단독 또는 2동이 쌍을 이루어 배치되고 주변으로 1칸 또는 2칸의 비교적 작은 건물지가 배치된 양상이다. 출토유물은 목곽묘 출토유물과 거의 유사한 단경호 및 옹편과 함께 건물지 존속시기의 하한을 가늠할 수 있는 고배 대각 편

가구간 유구 배치도

이 출토되었다. 고배는 대각의 형태에 따라 원통형, '八'자형으로 구분된다. 원통형 대각은 각단부에 1조의 돌대가 있고 상부에 3~4방향, 2~4조의 투창을 배치하였다. '八'자형 대각은 투창이 없는 것과 각단부에 2조의 돌대를 돌리고 그 상부에 1조의 삼각형 투창을 4방향 배치한 것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고배 대각의 특징은 통형고배의 출현기 이후 고배가 급증하고 기종이 다양화되는 4세기 3/4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적은 목곽묘 150기와 동시기 고상건물지 30여 동이 조사된 대규모 무덤 및 취락 유적이다. 동쪽으로는 낙동강과 차천 주변으로 넓게 형성된 충적대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 남쪽으로는 창녕, 함안, 창원, 김해로 이어지고 북쪽과 서쪽으로는 현풍, 대구, 고령, 성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삼국시대 고봉리에 정착한 집단이 대규모 목곽묘군 및 취락을 조성한 것으로 보여 3~4세기 대 지역집단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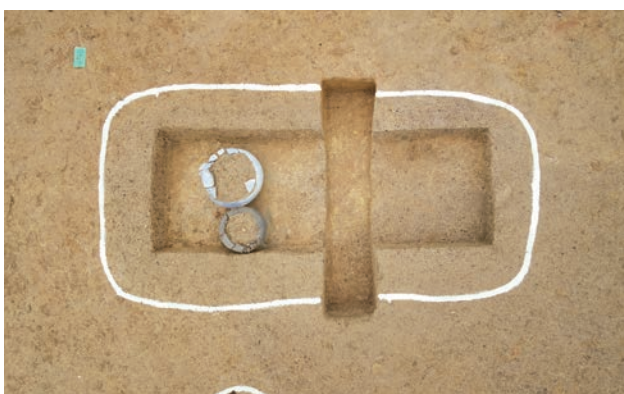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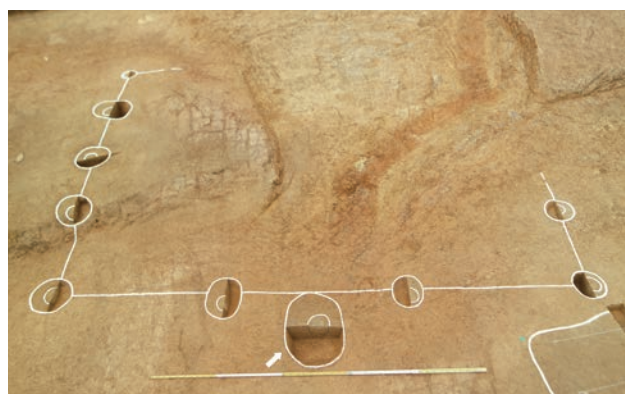
참고문헌

한국문물연구원, 2017, 「대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공사 구간 내 유적 발굴(정밀) 조사 결과약보고」.

나구간 전경

다구간 전경

가구간 138호 목곽묘

가구간 16호 목곽묘

나구간 7호 목곽묘

다구간 고상건물지

04

대구 달성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1단계 내 유적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수리리, 화산리·창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문화재연구원 / 2011.11.~2014.6.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목곽묘, 옹관묘 /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유개대부호, 단경호, 소옹, 철부, 철촉, 철모, 철검

유적은 현풍 IC에서 낙동강가 구지면 방향으로 가다가 만나는 대니산(해발 408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 말단의 사면부와 일대에 조성된 계단식의 논과 밭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지점은 10개 지구(1~5, 8~10, 13, 14)로 나뉜다.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1기,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32기, 목곽묘 6기, 옹관묘 6기, 삼국~통일신라시대의 굴립주 14기, 주혈군 343개, 석곽묘 20기, 석실묘 5기, 가마 2기, 폐기장 1기, 목탄요 1기, 수혈 18기, 구 1기, 고려시대의 적심건물지 1기 굴립주 2기, 분묘 2기, 가마 1기, 폐기장 1기, 제련장 1기, 수혈 1기, 조선시대의 적심건물지 5기, 주거지 16기, 굴립주 9기, 주혈 446개, 봉토 1기, 분묘 200기, 기와가마 1기, 탄요 2기, 소성유구 55기, 우물 1기, 수혈 58기, 구·암거 26기, 기타 8기, 시대미상의 추정함정 1기, 구·암거 4기 등 1,292기가 조사되었다

원삼국시대의 유구는 행정구역상 구지면 화산리 일대인 2-A지구와 5-A지구에서 확인되었는데, 목관묘 32기, 목관계목곽묘 6기, 옹관묘 6기이다. 2-A지구에서 확인된 유구

유적 위치도

는 목관계 목곽묘 2기, 옹관묘 5기, 5-A지구에서는 목관묘 32기, 목관계 목곽묘 4기, 옹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대부분 장축은 대부분 등고선과 나란하나 직교되어 조성된 것도 있다. 중복양상은 5-A-1호 목관묘와 5-A-1호 목관계 목곽묘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다.

목관묘의 평면은 장방형, 제형, 부정형이며 묘광 규모는 길이 1.48~3.05m, 너비 0.69~1.31m 정도이다. 목관 규모는 길이 1.09~2.6m, 너비 0.37~0.83m이다. 목관은 토층양상과 충전토, 바닥에 잔존한 목관 부식흔 등을 통해 보면 모두 판재식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에 중앙부에 요갱을 설치한 것도 7기가 확인되었다. 유물 부장위치는 목관 내는 단벽부장, 양 벽부장, 중앙부장, 목관 외에는 충전토 상면·내부, 목관상부, 요갱내부로 나누어진다. 토기류는 목관과 요갱 내부, 금속류는 충전토 상면에는 부장되지 않는다. 유물은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편구소호, 단경호, 양뉴부호, 직구호, 소옹 등의 토기류와 철부, 철겸, 철검, 철모, 철촉 등의 철기류가 조합을 이루는데, 일정한 기종이나 수량 등의 공통성은 보이지 않고 조합상이 다양하다.

목관계 목곽묘는 모두 평면 장방형이며, 묘광 규모는 길이 3.14~3.64m, 너비 1.1~1.74m이며 목관은 길이 2.17~2.88m, 너비 0.63~1.02m이다. 축조는 기반층을 수직

5지구 유구 배치도

에 가깝게 굴착하여 바닥을 정지한 후 목곽을 설치하였으며, 목곽과 목관 사이를 충전하였다. 유물은 유개대부호와 소옹, 단경호, 직구호, 편구소호가 세트를 이루는 공통성을 보인다. 철기류는 철검, 철모, 철준, 검파부속구가 부장되는데, 2기에서만 확인되었다.

옹관묘는 평면 타원형 또는 말각장방형으로 모두 합구식이며, 호구경부나 옹저부편을 합구부에 덧댄 사례도 있다. 옹관 규모는 길이 0.61~1.08m, 너비 0.2~0.32m 정도이다. 합구된 주옹과 막음옹의 기종조합은 양이첨저옹+천발, 장동옹+단경호, 장동옹+장동옹, 양이첨저옹+양이장동옹, 양이첨저옹+양이첨저옹, 장동옹+장동옹 등 다양하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목관묘 단계로 1세기 후엽, 2단계 역시 목관묘 단계로 2세기 전엽, 3단계는 목관묘와 동시에 목관계 목곽묘가 조성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2세기 중엽, 4단계는 목관계 목곽묘가 주류를 이루고 목관묘가 유지되는 단계로 2세기 후엽으로 편년된다. 이와 같이 유적은 1세기 후엽~2세기 후엽까지 조성된 원삼국시대 대단위 묘역으로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이행되는 과정의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시기 분묘유적으로는 보기 드물게 많은 수량의 유구와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영남지역 특히 달성지역 일대의 원삼국시대 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경상문화재연구원, 2016, 『대구 달성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1단계 내 유적』Ⅰ~Ⅲ.

2-A지구 1호 목곽묘

2-A지구 1호 옹관묘

토기류

철기류

05

달성 평촌리유적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 262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2008.2.~2008.10.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수혈 / 주머니호, 배모양토기, 고배

유적은 차천변에 위치한 충적지로 해발 36~39m에 해당한다. 달성 2차지방산업단지의 지원도로 개설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현풍에서 창녕방면으로 향하는 5번 국도인 비슬로를 따라가다 차천을 지나자 마자 과학남로로 우회하는 연결도로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서쪽 경계부는 평촌리지석묘Ⅲ이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발굴조사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2기, 수혈유구 14기, 석관묘 28기, 옹관묘 3기, 집석유구 1기,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주거지 6기, 수혈유구 24기, 수혈유구군 1기, 주혈군 3기, 삼국시대의 주거지 1기, 수혈유구 17기, 수혈유구군 2기, 주혈군 1기, 고려~조선시대의 주거지 1기, 수혈유구 2기, 우물 1기, 시대미상의 수혈유구 7기, 주혈군 2기 등과 관련유물 536점이 확인되었다.

유적에서 조사된 가야 관련 유구는 삼국시대 주거지 1기, 수혈유구 17기, 수혈유구군 2기, 주혈군 1기이다. 이 유구들은 모두 5세기 전반대에 편년되는데, 특이하게 아라가야

유적 위치도

의 중심지인 함안지역의 토기가 많이 보인다. 그 외 현풍식 토기와 대가야식 토기를 소량 포함한 유구들도 있다.

삼국시대 수혈유구 중 제12~15호는 가까이 군집을 이루며 내부에서 함안식 토기만 출토되는 특징을 보인다. 형태적면에서는 부정형과 타원형을 보이고 내부에서 수혈 및 주혈이 확인되며, 규모면에서도 길이 5.4~9.0m, 너비 2.6~7.8m, 깊이 0.05~0.2m 정도로 주거로 활용된 유구로 판단된다.

이 중 삼국시대 수혈유구 12호에서는 다수의 함안식 고배, 단경호 등과 함께 배모양 토기舟形土器 2점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주형토기는 2018년 아라가야 지역인 마산 현동고분군에서 1점, 2012년 금관가야 지역인 진영 여래리유적에서 1점이 출토된 바 있다. 그리고 달성 평촌리유적을 포함하여 주형토기가 출토된 가야지역 유적은 모두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고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외 신라의 중심부인 경주에서 6세기 전반대로 편년되는 금령총에서 2점 출토된 바 있는데, 배의 내부에 악기를 연주하는 토우가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는 5세기 전반대 달성 현풍이나 구지 일대는 대가야와 친연성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라가야토기를 사용하는 집단과 관련된 유구들이 확인되어 낙동강을 통한 지역간의 교류관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0, 『달성 평촌리·예현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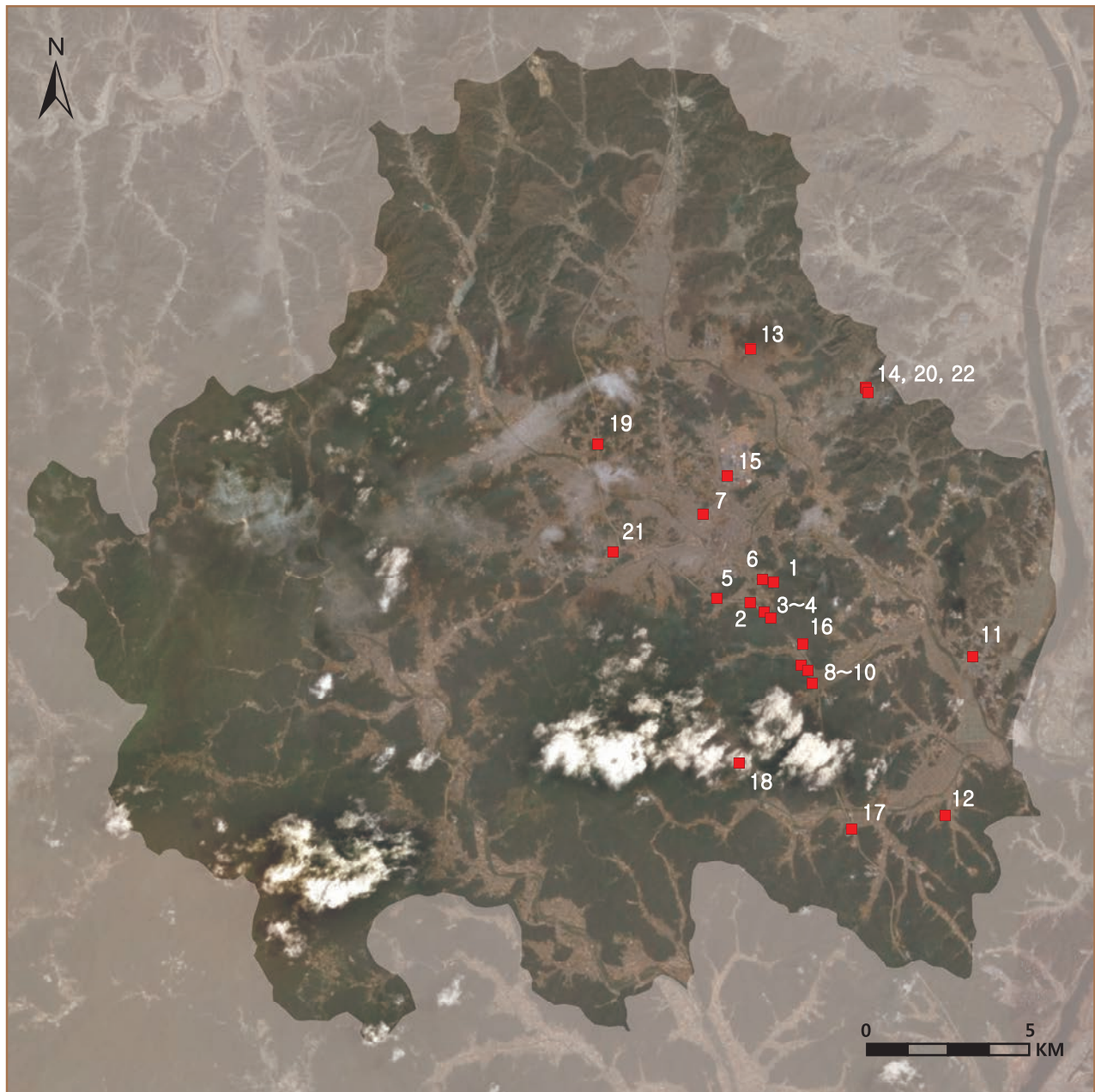
유적 전경

삼국시대 유구 전경

삼국시대 1호 주거지

삼국시대 12호 수혈유구 주형토기

金命山
雲峯山
若木
漆津
石橋
印懸山
月岩峴
星州
伊川
星山
星峴
所耶江
安偃
新溪院
大加川
太光山
加利
加耶山
海印寺

Ⅷ. 성주

01

성주 성산동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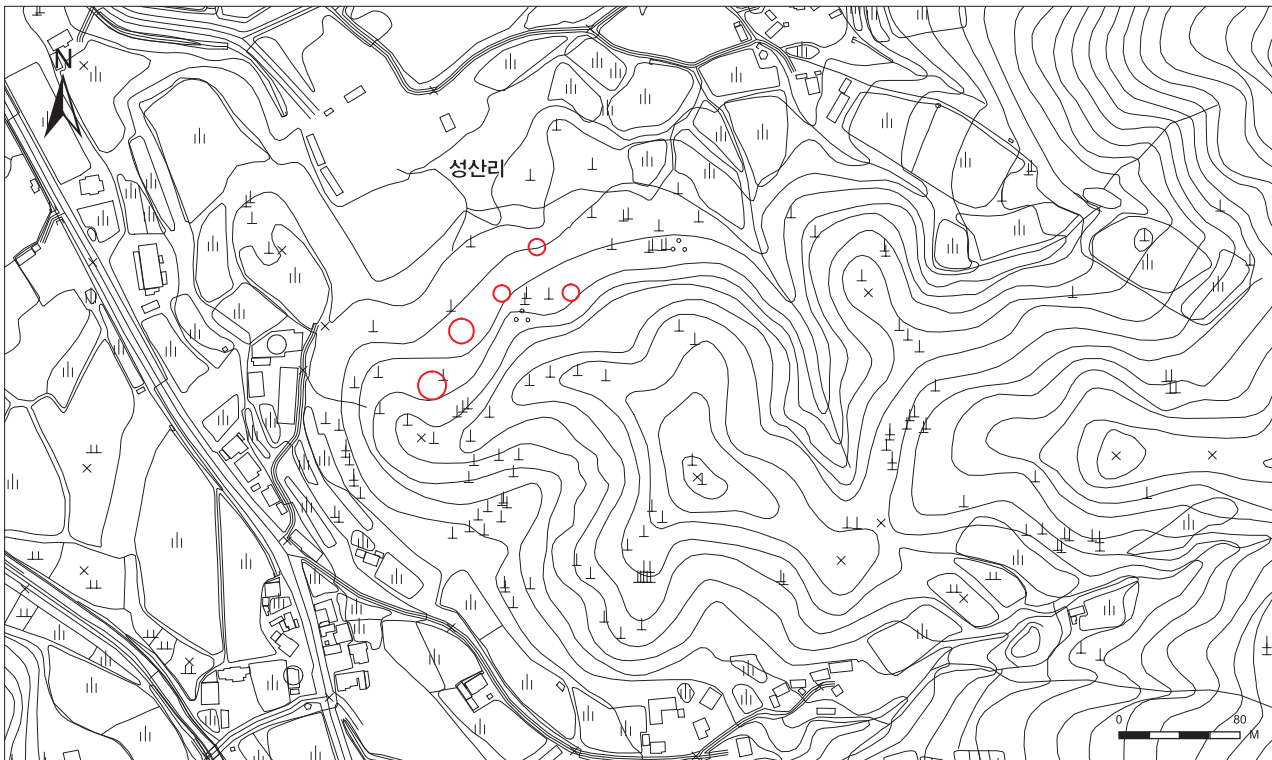
| 사적 제86호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905-1
및 산12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계명대학교박물관 /
1986.10.~19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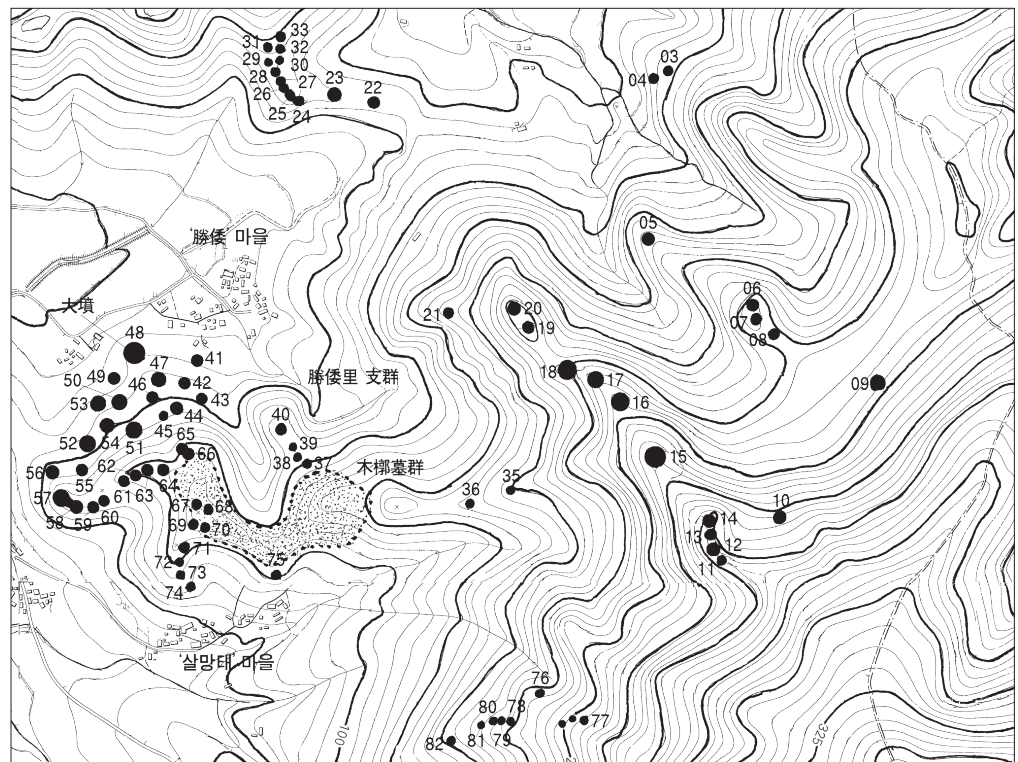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 고배, 장경호,
발형기대, 통형기대,
재갈, 자, 은제관식,
은제과대, 금제이식,
환두대도

유적은 성산가야의 중심고분군인 성산동고분군 중에서도 최대급 봉토분을 포함하여 고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승왜리지군 내에 위치한다. 능선의 말단부 완만한 북서사면으로 해발 65~80m에 해당한다. 현재에는 사적으로 지정되며 발굴분의 호수가 조정되어 제38호→제51호, 제34호→제54호, 제57호→제55호, 제58호→제52호, 제59호→제50호로 변경되어 관리되고 있다. 성산가야고분에 대한 학술조사의 일환으로 발굴조사되었다. 5기의 봉토분 중 제38·39호분은 평면 원형의 봉분이 유존하였는데, 봉분의 규모는 장경 15m, 단경 13m, 높이 1.3~2.73m로 원래는 직경 20m 정도로 추정된다. 제57~59호분은 봉분이 거의 유실되거나 하부만 남아 있었으며, 호석을 기준한 직경은 17.7m 내외여서 원래의 봉분은 직경이 18m 보다 약간 더 넓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구조는 모두 주실부곽식이고, 부곽은 5기 고분에서 모두 확인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부장곽과 순장곽으로 구분된다. 제38호분은 부장곽 1기, 순장곽 1기, 제39호분은

유적 위치도

대형부장곽 1기, 제57·58호분은 부장곽 1기, 제59호분은 부장곽 2기이다. 주실부곽의 평면구도는 봉분의 중심부에 주석실을 설치하고 부곽을 나란하게 병렬로 배치하되, 지형상 높은 쪽에 배치한 것이 4기, 아래쪽에 배치한 것이 1기이다. 제57호분 부장곽은 감실처럼 석실에 붙여져 평면 '凸'자형이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실로 구조는 판석조(제38·58·59호분)와 할석조(제39호·57호)로 구분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다. 석실의 내부규모는 판석조의 경우 길이 3.3~3.8m, 너비 1.2~1.6m, 높이 1.7~1.9m이며, 할석조의 경우 길이 3.6m, 너비 1.4~1.6m, 높이 1.1~1.9m이다. 그 중에서 제38호분 석실의 내부면적이 5.76㎡로 가장 넓고, 제57호분 석실의 내부면적이 3.73㎡로 가장 좁다. 매장주체부의 공간적 위치는 반지하식에 해당한다.

판석조석실은 내부규모에 맞추어 장대형의 판상할석을 단벽에는 1매 장벽에는 2~4매를 세우고 그 사이에는 소형의 할석을 채웠다. 특히 상대적으로 길이가 작은 판상석의 경우에는 하부에 할석을 일정 높이로 쌓음으로써 석실의 높이를 맞추었다. 할석조 석실은 중소형의 할석을 수직상으로 평적하였고, 모서리를 엇물리게 하였다. 개석은 대형의 판상석 또는 괴석 2~3매를 이용하여 주체부 장축방향에 횡가하였고, 그 사이에는 소형할석으로 채웠다. 묘광 바닥 전면에는 작은 할석을 깔았다. 벽체와 부장유물사이에 일정 공간이 있고, 제38호 석실 바닥에서 출토한 꺾쇠로 보아 내부에는 목곽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석은 묘광의 범위보다 넓게 석실의 주변으로 둘렀다. 부곽은 주석실에

유구 배치도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며 모두 할석조석곽이다.

주석실내 유물부장은 양단부장형이고, 대다수의 부장품은 피장자와 함께 목관 안에 배치하였으며 피장자의 침향은 서향이다. 부장곽에는 비교적 큰 호형 토기류를 안쪽에 배치하고 호류, 고배류를 중첩시켜 다량으로 부장하였다. 그리고 제38호분 순장곽 및 부장곽, 그리고 제39·59호분 부장곽에는 순장자 1인을 안치하였다.

유물은 유개고배·무개고배·파수부배·완·대부완·파수부완·장경호·단경호·발형기대·통형기대·연질옹·연질신선로형대부완·방추 등 다종다양한 토기류 1,680점을 비롯하여 이식·팔찌·과대부속구·곡옥 등 장신구류 철검·철도·도자·철촉·성시구 등 무기류, 철부·철겸·집게 등 농공구류, 재갈·등자·행엽·운주·교구 등 마구류, 철정·꺾쇠 등 목곽(관)부속구류 등 금속류 393점이 출토되었다.

고분의 구조와 출토유물 등을 통해 볼 때 5기 고분의 조성시기는 5세기 중엽에서 후엽으로 추정되며, 그 순서는 제38·59호분→제39·57호분→제58호분으로 판단된다.

5기의 봉토분은 성산가야의 5세기대 봉토분 내부구조의 특징인 석실의 장축방향이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며, 할석조와 판상석조의 수혈식석실이 병행한 요소를 잘 보여준다. 부장품과 함께 순장자를 넣은 부곽의 구비는 기본요소이고, 별도의 순장곽의 구비는 선택요소였다. 그리고 봉토분 축조는 그 방법상 일련의 기획아래 방사상으로 구획하였고, 성토구획 요소는 이색점토대, 석렬, 구획표시석, 이질성토재 등이 사용되었음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한편, 출토한 토기류는 낙동강 이동양식에 속하나 소위 성주양식 토

유적 원경

기로 규정할 만한 독특한 재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봉토분의 분포양상, 고분의 내부 규모와 구조, 출토유물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이 고분군은 성산가야를 대표하는 당시 최고지배계층의 분묘임이 분명하며, 성산가야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고분문화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계명대학교행소박물관, 2006, 『성주성산동고분군』.

58호분 석실

39호분 주석실 및 부장곽

58호분 봉토

철기류

토기류

02

성주 별티유적 _ 현풍~김천간 고속국도 건설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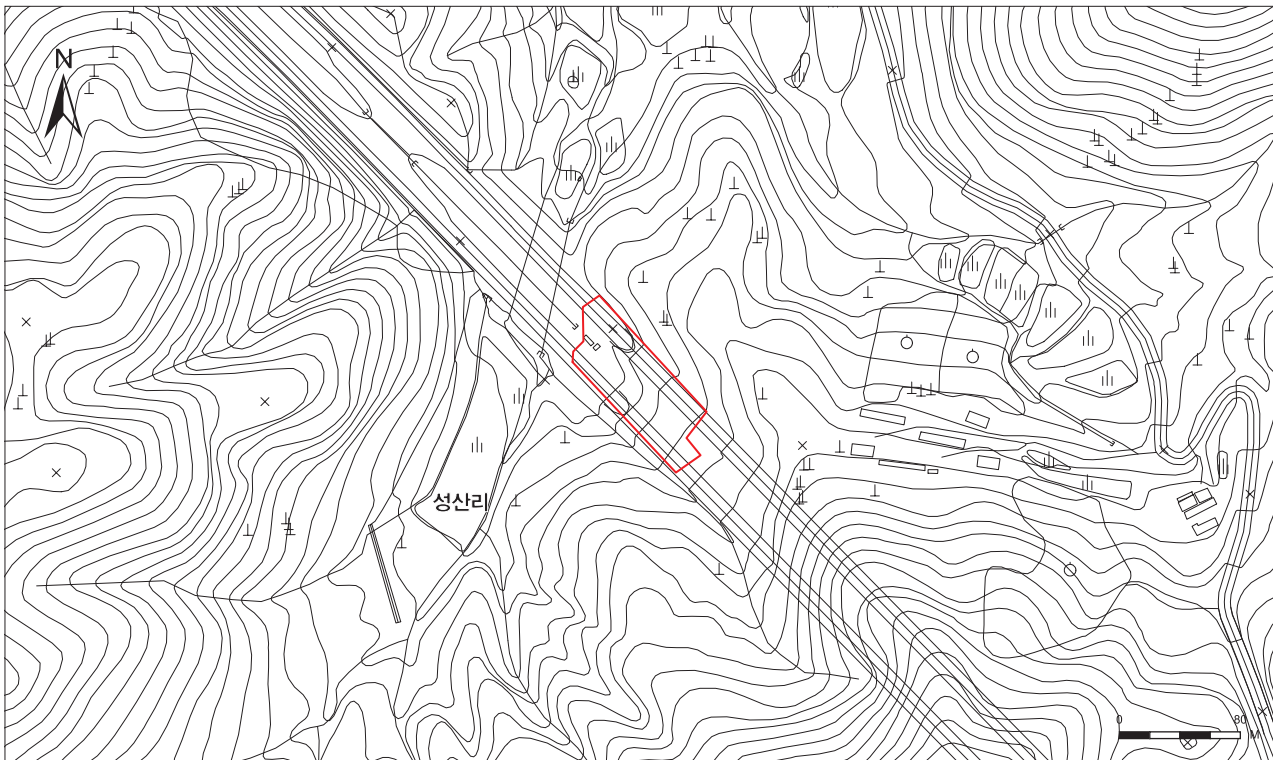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산1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북과학대학박물관 /
2002.10.~2004.3.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개, 고배,
발형기대, 대부장경호,
대부완, 파수부배

유적은 시비실 마을 뒤쪽의 대성산 정상(해발 425m)에서 별티재를 향해 동쪽으로 길게 이어진 산등성이에서 '묵은별티골'의 동편에 접해 북동쪽으로 꺾어져 내린 능선의 사면부인 해발 116~123m 일대에 위치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김천간 고속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되어 실시된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 석곽묘 3기가 확인되었다.

석곽묘의 봉분과 개석은 모두 유실되었고, 바닥만 일부 유존하여 전체규모를 알 수 없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다. 매장주체부의 공간적 위치는 반지하 또는 지상식에 가깝다. 수혈식 구조로 추정되나 횡구식일 가능성도 있다. 사면 위쪽은 깊게, 사면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얕게 또는 평탄하게 굴착하여 묘광을 마련하였다. 석벽은 중소형의 할석을 평적하였다. 바닥전면에는 소형할석을 한겹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유물은 유존한 한쪽 단벽부에서 개, 고배, 대부장경호, 파수부완, 대부완, 기대 등 토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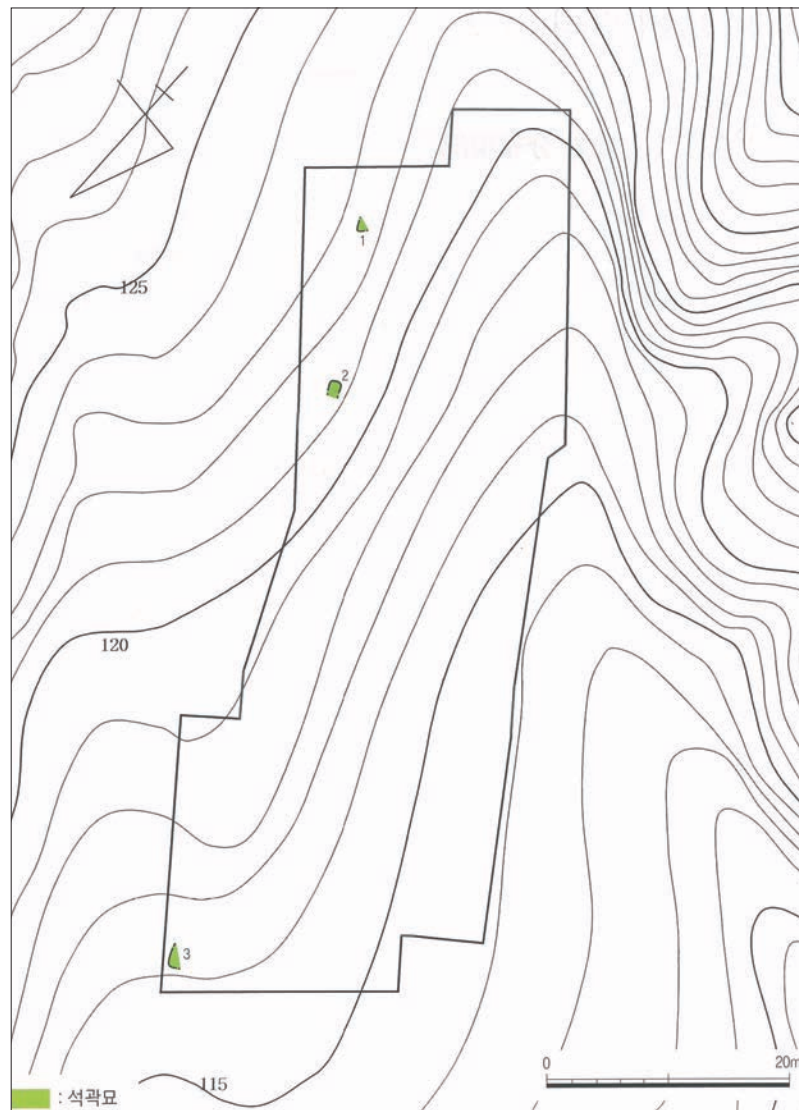
기류가 출토되었다. 석곽 1호에서 출토된 고배류와 석곽 2호에서 출토된 대부장경호는 성산동 58호분 단계인 5세기 후엽, 석곽 3호에서 출토된 고배와 대부장경호는 명포리 5호분(경산대학교 2005) 단계인 5세기 후엽으로 편년이 가능하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5세기 후엽에서 말엽으로 판단된다. 고배와 대부장경호에서 보이는 특징은 낙동강 이동양식 토기의 속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성주 재지토기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성주양식 토기는 5세기 중엽부터 발생하여 6세기 초엽에 소멸되기 시작하여 6세기 전엽에 이르면 경주양식으로 대체된다.

유적은 성산동 고분군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하위고분군으로 고분군 주변으로 대형 봉토분 및 신라고분들이 확인되어 성산가야에서 신라로 전환되는 고분문화 및 묘제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의미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한국도로공사·경북과학대학 박물관, 2007, 『현풍–김천간 고속국도(제45호선) 건설부지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김천 부상리·성주 봉정리·가암리·대흥리·시비실·별티유적(본문)』.

한국도로공사·경북과학대학 박물관, 2007, 『현풍–김천간 고속국도(제45호선) 건설부지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김천 부상리·성주 봉정리·가암리·대흥리·차동골·시비실·별티유적(사진)』.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3호 석곽

출토유물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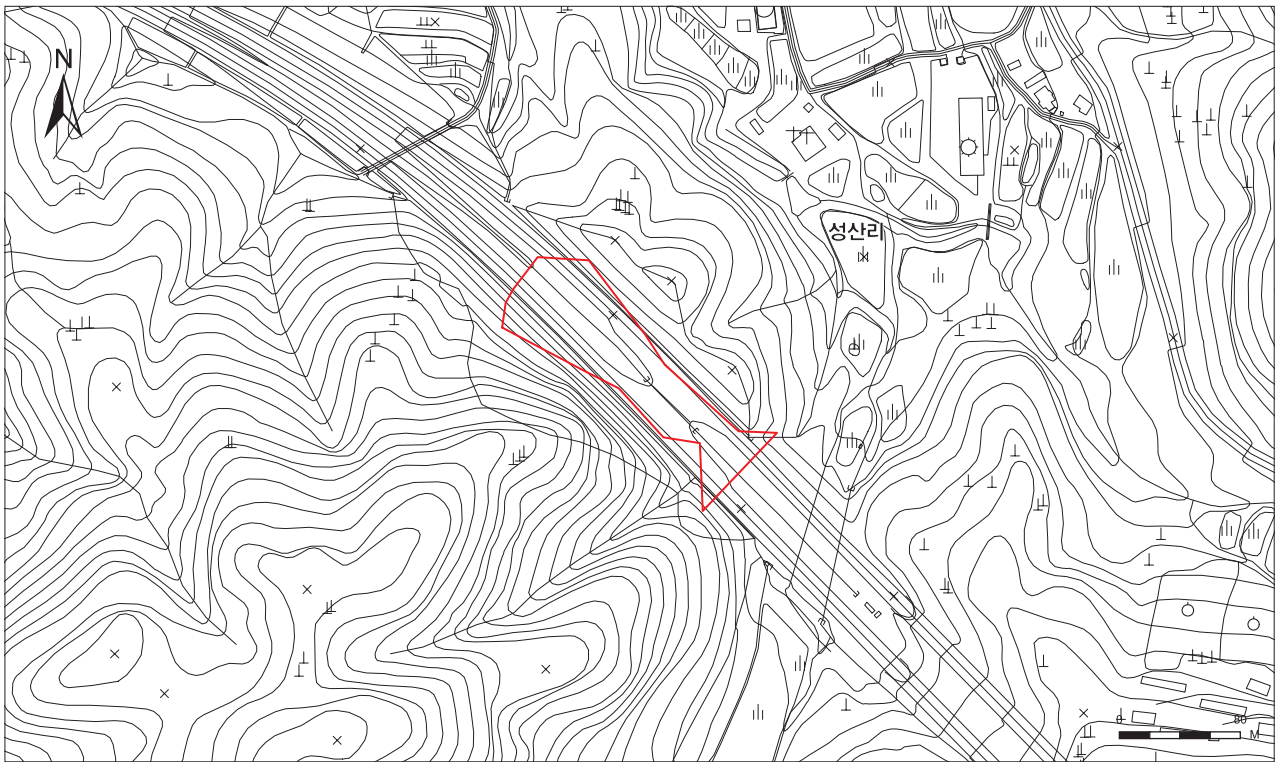
성주 시비실유적 _ 현풍~김천간 고속국도 건설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산173-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북과학대학박물관 /
2002.10.~2004.3.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석실묘 / 고배,
단경호, 장경호, 꺾쇠,
도자, 살포, 이식

유적은 시비실 마을 뒤쪽의 대성산(해발 425m) 정상에서 별티재를 향해 동쪽으로 길게 이어진 산등성이에서 소위 묵은별티골을 향해 북동쪽으로 꺾어져 내린 능선의 해발 103~133m 일대 사면부 위치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김천간 고속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되어 조사된 유적이다.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 석곽묘 2기, 석실묘 1기가 확인되었다. 이 중 성산가야와 관련되어 성주양식 토기가 출토된 유구는 제1호 석곽묘이다.

제1호 석곽묘의 봉분과 개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며, 북단벽 및 사면 아래쪽 장벽은 절토로 인해 전부 유실되었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다. 석곽의 내부규모는 길이 3.6m, 너비 1.3m, 높이 1.35m로 중형급에 해당한다. 매장주체부의 공간적 위치는 지하식에 가까우며, 수혈식 구조로 보고있지만 횡구식일 가능성도 있다. 벽체 최상단만 지표상에 노출될 정도로 깊게 굴착하여 묘광을 마련하였다. 석벽은 중소형의 할석을 평적하였고 틈새는 소형 할석으로 메웠다. 전반적으로

유적 위치도

최하단에서 3단까지는 직립하고, 4단부터는 내경시켰으며 모서리를 말각처리하여 석벽을 구축하였다. 묘광과 석벽 사이에는 중소형의 할석과 굴착토를 이용하여 보강하였다. 바닥에는 10~20cm 의 소형 할석을 전면에 한 두겹 정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시상면에서 소형의 꺾쇠 및 원두정이 출토되어 목관을 안치한 것으로 보인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2.1m, 너비 0.5m로 추정된다.

유물은 양단부장으로 목관의 양 단벽 밖과 석곽 양 단벽 사이에서 출토되었다. 남단벽쪽에서 고배 배신, 단경호, 장경호, 북단벽쪽에서 파수대부완, 대부장경호, 방추자가 출토되었다. 시상 중앙에서 도자, 살포, 시상의 가장자리를 따라 꺾쇠, 원두정이 출토되었다. 동제이식은 남편 시상에서 출토되어, 피장자의 두향이 남향임을 알 수 있다.

제1호 석곽묘의 토기류는 특징과 속성으로 보아 낙동강 이동양식을 충실하게 따른 성주양식 토기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비록 재지적인 요소가 부족하지만 성산가야의 고분문화를 연구하는데 나름 의미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그 외 횡구식석곽묘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고, 석실묘 출토 토기류는 그 특징과 속성으로 보아 6세기 중반대로 추정되어, 성산가야에서 완전히 신라로 전환되는 전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한국도로공사·경북과학대학 박물관, 2007,『현풍－김천간 고속국도(제45호선) 건설부지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김천 부상리·성주 봉정리·가암리·대흥리·시비실·별티유적』.

유구 배치도

1호 수혈식석곽

출토유물

04

성주 시비실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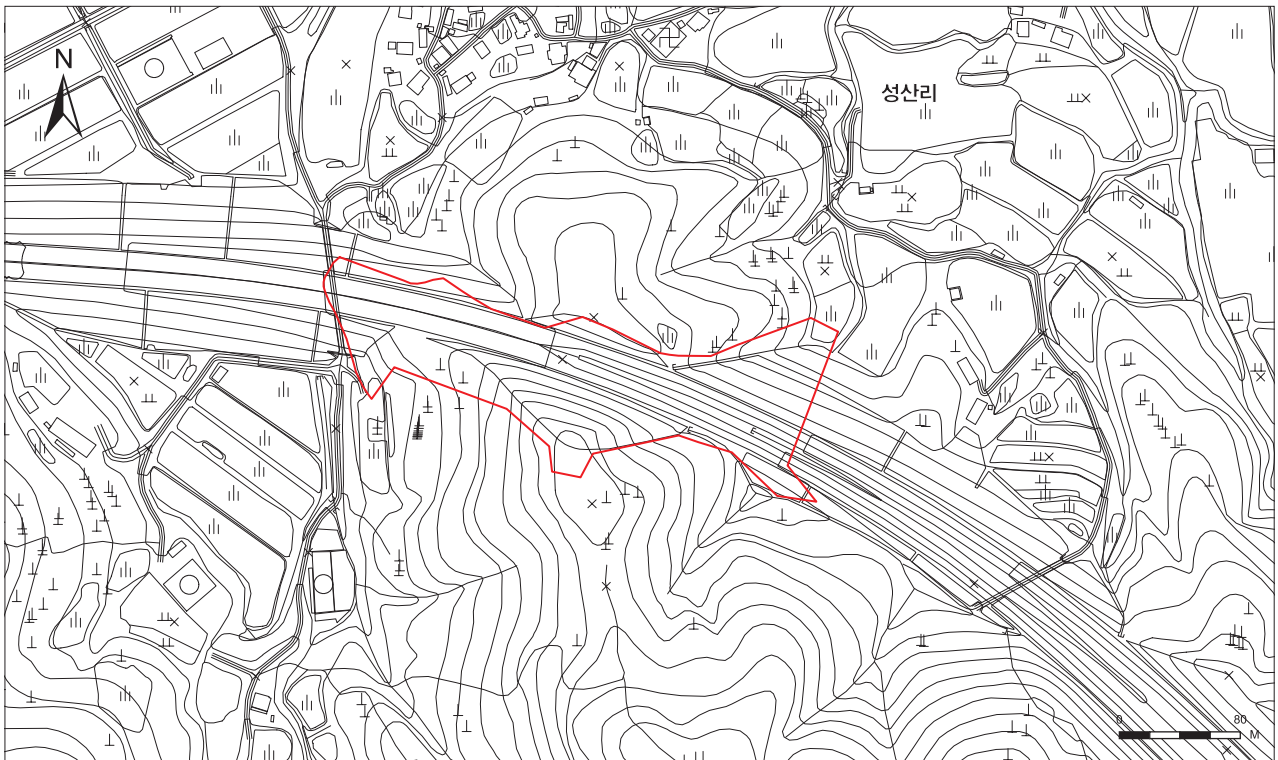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산188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2002.11.~2004.3.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유개
고배, 장경호, 기대,
이식, 재갈, 철촉, 철겸

유적은 성주읍에서 남쪽으로 2㎞ 떨어져 있는 성산리 시비실 마을의 뒷산에 위치한다. 이곳은 대성산(해발 425m) 정상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 말단부 해발 76~123m 일대에 해당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김천간 고속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되어 조사된 유적이다.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의 목곽분·묘 34기(매장시설 68기), 주구 1기, 석곽묘 2기, 석실분·묘 10기(매장시설 13기), 고려~조선시대의 석곽묘 2기, 토광묘 3기, 기와가마 1기, 건물지 1기, 주혈군 1기 등 모두 92기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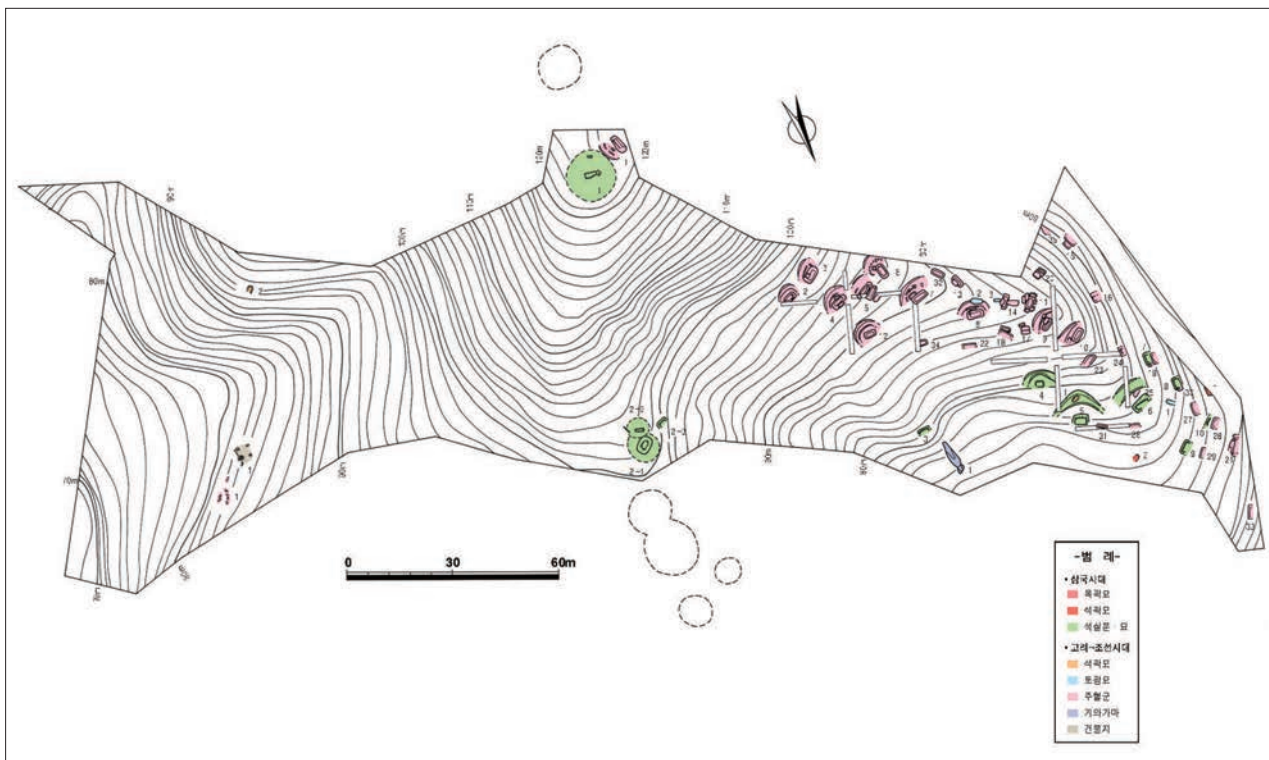
이 중 성산가야의 문화상을 보여주는 성주양식 토기를 공반하거나 이와 동시기의 유구들은 목곽분·묘 34기와 석곽묘 2기가 해당한다.

목곽분·묘는 1호분을 제외한 11기는 유적의 동편 일대에 고루 분포한다. 일부 목곽분은 주구와 호석을 갖춘 것이 있어서 원래는 봉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봉분 직경은 대체로 7~8m로 추정된다. 목곽분·묘는 내부에 1기의 매장시설을 갖춘 것이 16기,

유적 위치도

축조시점이 다른 2기 이상의 매장시설을 갖춘 것이 18기이다. 주곽은 목곽이며, 추가곽 또는 배장곽은 주곽보다 상대적으로 작거나 소형급의 목곽·석곽·옹관으로 다양하다. 7호 목곽분은 나란하게 추가적으로 소형 목곽 1기, 11호 목곽분은 주체 목곽 1기 주변에 목곽 2기, 석곽 4기, 옹관 1기를 환상으로 순차배치하였다. 그리고 제3·4호 목곽분은 주곽과 부장곽 또는 부장칸이 연결된 소위 '凸'자형 구조로 주곽은 목곽이고 부장곽은 석곽이다. 주체 목곽의 공간적 위치는 반지하식에 해당한다.

주체 목곽의 규모는 길이 1.67~3.6m, 너비 0.6~1.3m, 유존 높이는 0.15~1.0m이며, 추가 목곽·석곽의 규모는 1.7~2.36m, 너비 0.5~1.0m, 유존높이는 0.25~0.4m이다. 배장곽의 규모는 대체로 길이 0.1~1.4m, 너비 0.3~0.5m, 유존높이는 0.2~0.3m이다. 목곽의 벽체는 판재식으로 판단되며, 피장자의 두향은 출토한 이식으로 보아 경사면 아래쪽에서 보았을 때 왼쪽방향이 일반적이다. 묘광과 목곽 사이에는 흙 또는 흙과 할석을 섞어 채웠으며 6-1호 목곽처럼 사방을 할석으로 채운 것도 있다. 매장시설의 바닥에는 할석, 판상할석을 깐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별도의 부석을 하지 않았다.

유물부장은 양단부장, 편단부장형식이 모두 보이며, 주구에는 대옹과 발형기대가 출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물은 유개고배, 파수부배, 대부파수부완, 연질옹, 단경호, 대부장경호, 발형기대, 통형기대 등 토기류와 철부, 철겸, 철정, 도자, 환두대도, 철촉, 철모, 궁금구, 보습, 망치, 집게, 철착, 철환, 재갈, 꺾쇠, 이식 등의 금속류가 출토되었다.

전반적으로 낙동강 이동양식의 속성이 가미된 재지적인 성주양식 토기들로 제3·6·

유구 배치도

9호 목곽분에서 출토된 유개고배, 유개장경호, 발형기대가 대표적이다. 대체적으로 토기류는 성산동 38·39·57·58·59호분 출토품보다 이른 시기에서부터 동시기로 볼 수 있는 것들로서 4세기 말 또는 5세기 전반~후반으로 편년이 가능하다.

한편, 2기의 석곽묘는 하단석 일부만 유존한다. 비교적 양호한 제1호 석곽묘는 평면 (세)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이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다. 묘광 규모는 길이 2.9m, 너비 0.58m, 깊이 0.23m이고 석곽의 유존규모는 길이 1.43m, 너비 0.31m, 깊이 0.23m이다. 할석을 종평적하여 석벽을 구축하였고 바닥에는 별다른 시설은 없다. 유물은 중앙부 동장벽부에서 철촉, 북단벽부에서 고배, 대각, 대부호가 출토되었다. 고배류는 성산동 제59호 출토품과 비교 가능하며, 재지의 성주양식 요소가 부분적으로 간취된다. 석곽묘의 조성시기는 5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유적은 성산가야의 중심고분군인 성산동고분군과 인접지역에 있으면서도 매장주체부에 있어 성산동고분군 축조집단이 채용한 수혈식 석실(곽)이 아니라 목곽을 주묘제로 채용함으로써 그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성산동고분군의 봉분의 규모와 부장품의 질과 양적인 면을 비교하면 이 고분군 축조집단의 위계는 상대적으로 하위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삼국시대 묘제의 변천이 목곽묘에서 석곽묘로 이행하는 일반적인 경향에서 볼 때 시비실고분군 목곽묘 축조집단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재지적인 색채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성산가야가 신라로 완전히 편입되는 단계의 문화상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성주 시비실유적』.

3호 목곽분 전경

4호 목곽분 전경

토기류

기대류

05

성주 차동골유적 _ 현풍~김천간 고속국도 건설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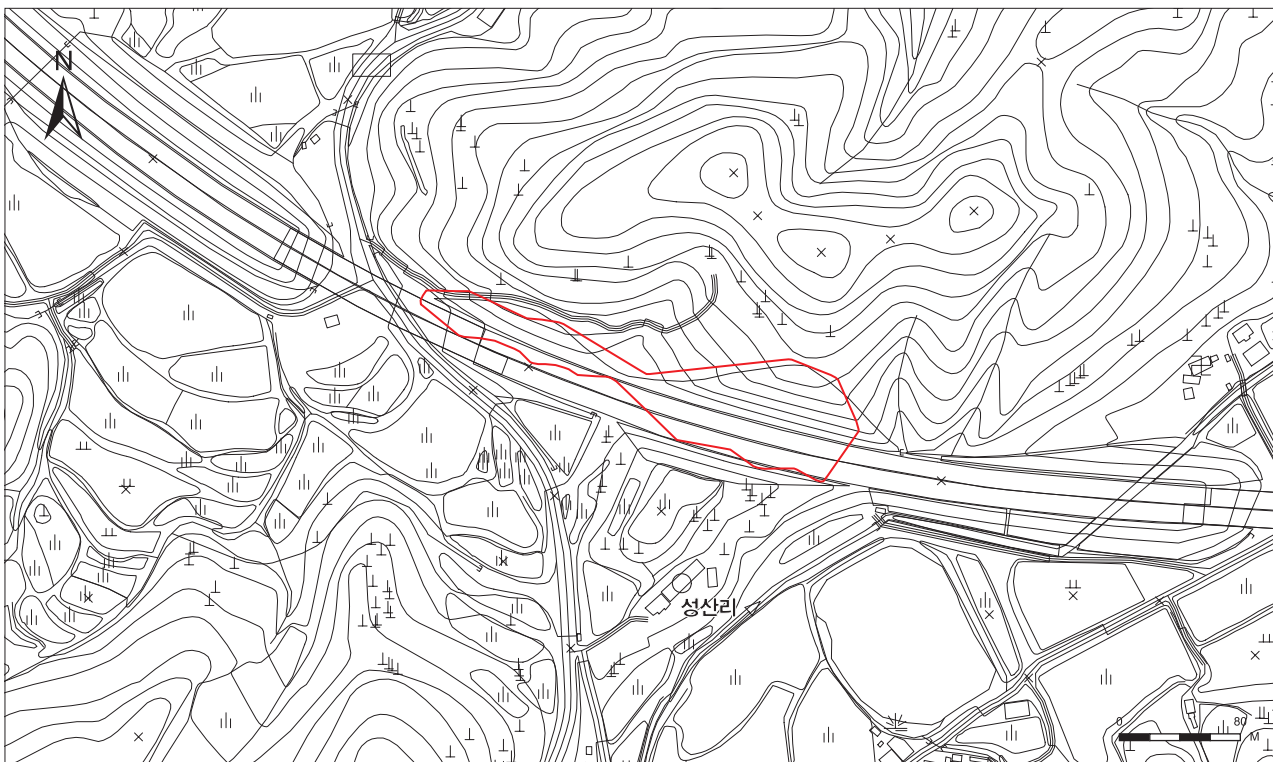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산263-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북과학대학박물관 /
2002.10.~2004.3.

주요 유구 / 유물
석실(곽)묘 / 개배

유적은 성주읍 성산리 차동골 마을의 북편 해발 124.3m의 정상부에서 차동골을 향해 남쪽으로 뻗어 내린 해발 75~99m 일대의 사면에 위치한다. 현풍-김천간 고속도로부지에 포함되어 실시된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의 원형봉토분을 포함한 석실(곽)묘 51기, 고려~조선시대의 토광묘 88기 등 모두 139기가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경주양식 토기와 함께 대가야양식 토기를 공반한 분묘는 3기로 A구역의 제23·26·27호이며 모두 횡구식석곽묘이다.

석곽묘는 A구역의 남서쪽 사면 말단부에 일정 간격을 두고 분포한다. 제27호 석곽묘의 경우 사면 위쪽에 평면 반원형의 주구가 있어, 원래는 봉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다. 내부규모는 길이 1.3~2.04m, 너비 0.59~0.81m, 높이 0.19~0.36m이다. 매장주체부의 공간적 위치는 반지하식 또는 지상식에 가깝다. 벽체는 중소형의 할석을 이용해 종·횡 혼용하여 구축하

유적 위치도

였다. 3기 모두 남서 단벽쪽에 전부 또는 일부를 입구로 내었고, 무단식·유단식 구조가 모두 확인된다. 그 전방에는 경사져 올라가는 짧은 묘도를 내었다. 시상은 바닥 전면에 소형 할석을 한 두겹 정도 깔았다.

유물은 대가야양식의 개, 배, 개배와 함께 경주양식의 유개고배, 파수대부완, 완, 병형토기, 대부장경호, 방추 등의 토기류와 도자, 철겸, 은제이식 등의 금속류가 출토되었다. 대가야양식 토기류는 기형과 특징으로 보아 대가야 말기에 해당한다. 경주양식의 토기류는 소위 신라후기양식으로 인화문이 시문되기 전 단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석곽묘들의 중심시기는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유적은 중소형급의 석곽(실)분으로 구성된 단위고분군으로 조성시기는 6세기 후반~7세기 중반으로 추정된다. 성산가야의 중심세력이었던 성산동고분군 축조집단의 영향하에 있었던 성산리 차동골 일대 거주민들의 분묘지이다. 출토유물로 보아서는 성산가야에서 신라로 완전히 전환된 이후의 지역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대가야 말기양식의 제한된 토기류가 분묘에 함께 부장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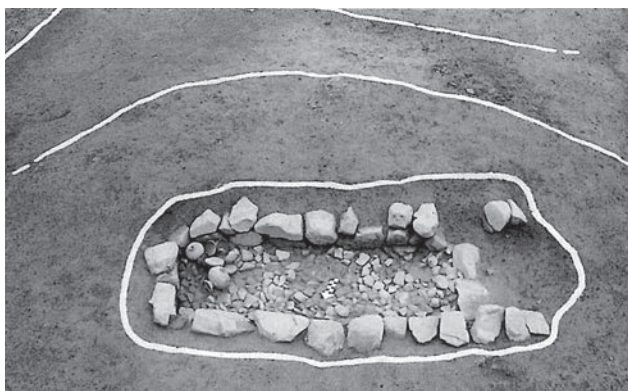
참고문헌

한국도로공사·경북과학대학 박물관, 2007, 『현풍-김천간 고속국도(제45호선) 건설부지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성주 차동골 유적-』.

유구 배치도

A구역 전경

23호 석곽묘

23호 석곽묘 유물출토모습

27호 석곽묘

27호 석곽묘 출토유물

06 성주 성산동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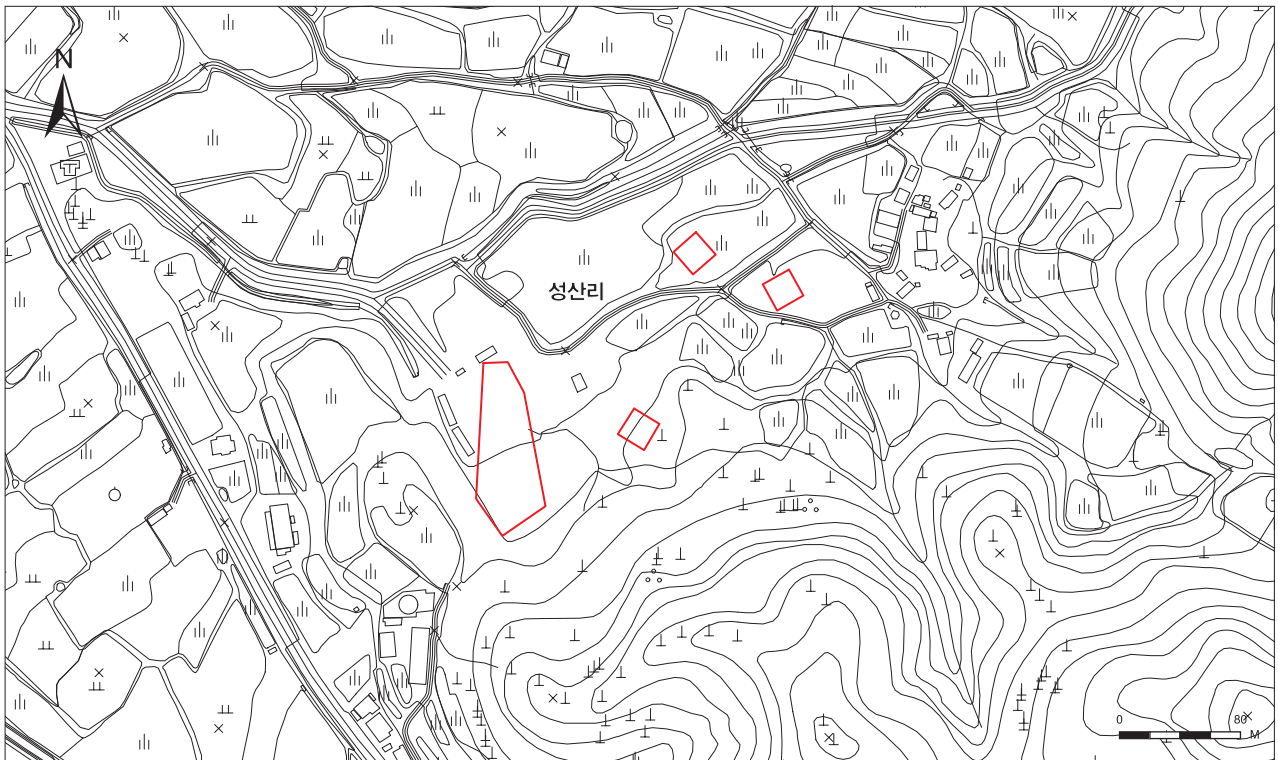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90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영남문화재연구원 /
2015.2.~2015.5.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석곽묘 / 개, 고배, 철촉, 도자, 철부, 금동이식, 과대

유적은 승왜리 마을의 남동편 해발 45~75m의 사면 말단부와 연결되는 평탄지에 위치하며, 성산동고분군 사적공원 조성부지에 포함되어 발굴조사하였다. 4개 구역에 대한 조사결과, A구역에서는 삼국시대의 주거지 1기, 수혈 10기, 우물 1기, 주혈군 1기, 구 1기, 자연구 1기, 조선시대의 구 1기가, B구역에서는 삼국시대의 봉토분 1기와 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C구역에서는 시대미상의 상석 6기, 석축 1기, 조선시대 구 1기, D구역에서는 삼국시대 우물 1기, 수혈 3기, 굴립주건물지 1기, 구 1기, 주혈 4기, 조선시대의 수혈 1기 등 모두 37기가 확인되었다.

이 중 성산가야와 관련된 자료는 B구역에서 조사된 봉토분 1기이며, 나머지 삼국시대 주거지를 비롯한 생활유구는 성산가야에서 신라로 전환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1호 봉토분은 해발 61m 지점에 위치하는데, 가장자리를 따라 3~4단 정도의 원형의 호석이 확인되었다. 호석을 기준한 봉분의 직경은 11m 정도이다. 매장주체부는 평

유적 위치도

면 '凸'자형의 주·부곽식구조이며, 주체부는 지상식의 횡구식석곽이다. 주곽은 평면 (세)장방형으로 장축은 등고선과 나란하다. 내부 규모는 길이 2.8m, 너비 0.7m, 높이 0.4m다. 석벽은 4단 정도가 남아있는데, 할석으로 최하단에는 횡평적, 그 위로는 종평적을 주로 하였다. 바닥에는 부석하여 두 차례의 시상을 마련하였는데, 제1차 시상은 바닥 전면에 길이 30cm 정도의 편평한 할석을 깔아 마련하였다. 제2차 시상은 1차 시상 위에 5cm 정도 자갈을 깔고 얇게 점토를 바른 후 소형 할석을 한 벌 더 깔았으며 규모는 길이 1.8m, 너비 0.6m로 1차 시상범위의 2/3정도에 해당한다.

부곽은 사면 위쪽에 해당하는 주체부 석곽의 남장벽에 평면 'ㄷ'자형으로 붙인 소위 감실형 석곽이다. 평면형태는 방형이고 유존규모는 길이 1.1m, 너비 1.4m, 높이 0.25m 정도이다. 바닥에는 5cm 내외의 자갈을 한 벌 깔았다. 횡구부는 북서단벽부에 별도의 벽체를 마련하지 않고 주석곽 바닥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연결시킨 무단식구조이다. 횡구부 바닥 전면에 1차 시상에 해당하는 할석이 깔려 있는 양상으로 보아 폐쇄석은 2차 부장후 채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횡구부의 평면형태는 평면 '八'자형이고 규모는 길이 1.74m, 너비 0.74~1.32m이다.

유물은 주곽의 시상에서 출토되었다. 제1차 시상에서 고배 배신 편과 철촉, 도자, 과대, 철부, 철착 등의 철기류, 제2차 시상에서 개 편과 철촉, 도자, 철부, 물미, 철착 등 철기류와 금동이식이 출토되었다. 이 밖에 횡구부에서 철촉, 호석 주변에서 대각 편, 기와 편이 출토되었다. 부곽은 도굴되어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성주양식 토기의 속성이 보이는 고배와 광형계역자형철촉, 두 차례에 걸쳐 조성된 시상 등을 통해 볼 때 이 고분의 축조시기는 5세기 후반~6세기 초로 추정된다. 한편, 성산동고분군 내에서 부곽을 구비한 횡구식석실은 처음으로 조사된 것이어서, 묘제변천을 통한 성산가야의 고분문화를 연구하는데 새로운 자료로 그 가치가 높다.

참고문헌

영남문화재연구원, 2017, 『성주 성산동유적』.

1호 봉토분

출토유물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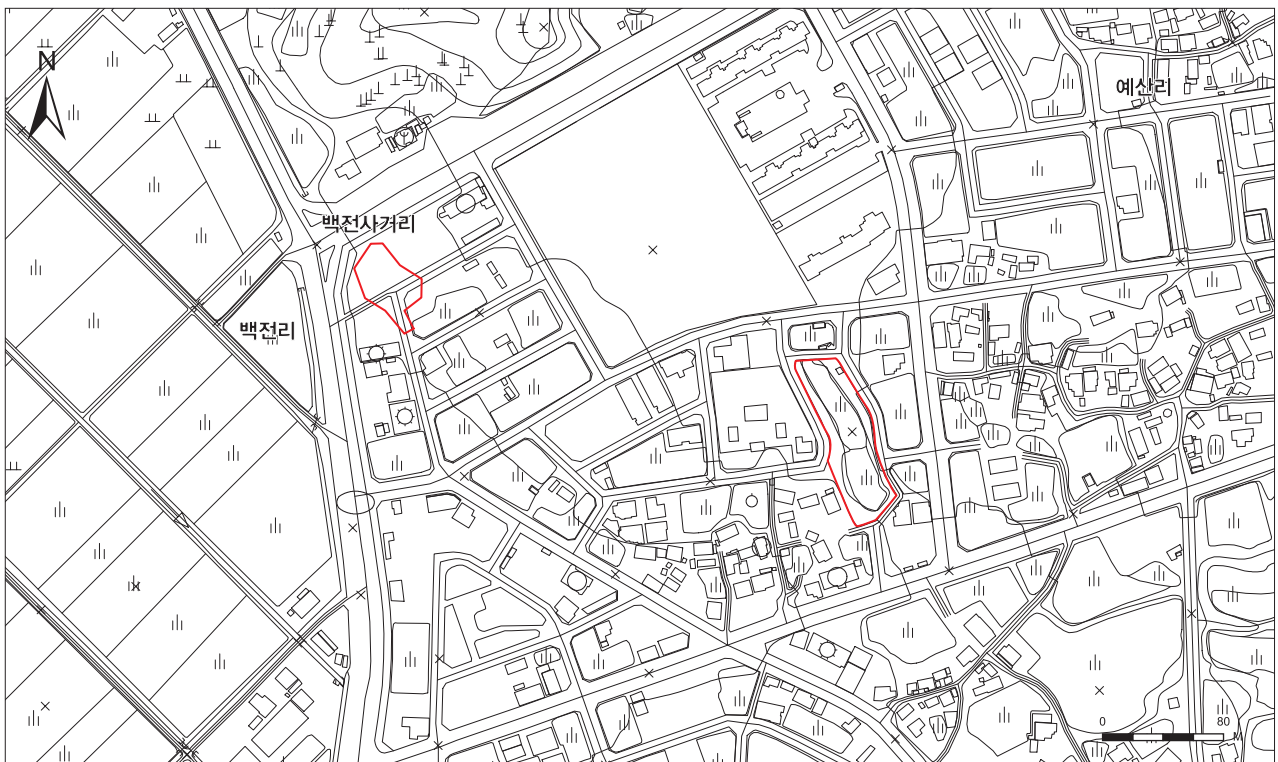
성주 백전·예산리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345 ·
예산리 54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2002.7.~2003.5.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목곽묘 / 점토
대토기옹, 조합식우각
형파수부호, 단경호,
흑도장경호, 주머니호,
마형대구, 금동개궁모,
철촉, 철모, 검파두식,
경식

유적은 성주군청이 소재한 성주읍에서 북서쪽으로 600m 정도 떨어져 위치한 해발 61m의 나지막한 구릉 정상에서 남·동·서쪽으로 뻗어 내린 사면 일대에 위치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실시된 발굴조사에서는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41기, 목곽묘 1기와 고려~조선시대의 건물지 11동 등 모두 59기가 확인되었다. 4개 지구로 나누어진 발굴조사에서 목관묘는 Ⅲ지구에서, 목곽묘는 Ⅰ지구에서 각각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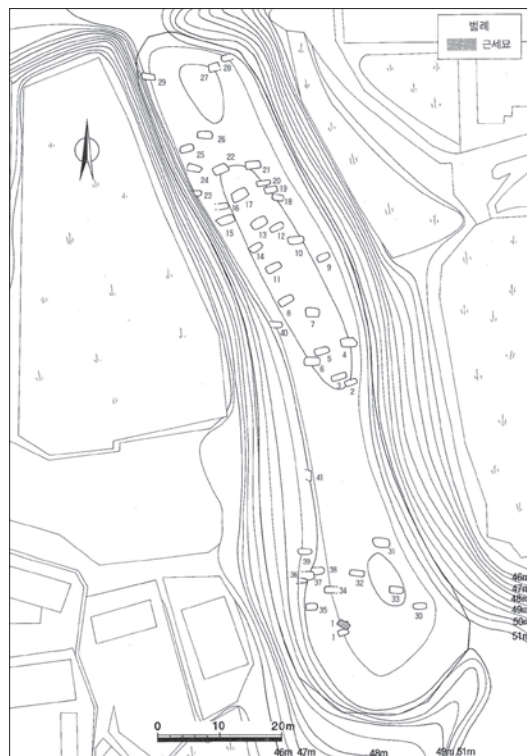
목관묘는 구릉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길쭉하게 뻗은 해발 53m의 설상대지 정상부를 포함한 북편과 남편부로 구분되어 밀집 분포한다. 봉분은 남아있지 않았으나 내부에 함몰된 토층양상을 통해 나지막한 봉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이 등고선 방향과 직교상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94~3.03m, 너비 0.7~1.27m, 깊이 0.1~1.15m이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1.48~2.59m, 너비 0.39~0.75m이다. 목관 구조는 통나무관·판재식관으로 구분되는데 판재식이 다수를 차지한다. 제31호

유적위치도

목관묘의 바닥에서는 수혈상의 요갱이 확인되었는데, 내부에서는 칠초철검, 철과, 철사, 철부, 축소모형농공구, 철모, 칠선자 등이 출토되었다. 구조와 부장양상을 잘 보여주는 목관묘는 제3·30·31호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토양화된 유해흔, 두개골흔, 치아 등이 확인되어 피장자의 침향은 동향으로 파악되었으며, 치아 분석을 통해 피장자의 성별을 알 수 없으나 20~40대에 해당하는 성인으로 밝혀졌다.

유물은 함몰토 내부, 목관과 묘광 사이, 목관 위, 요갱 등에서 무문토기질의 두형토기·점토대토기옹, 와질의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무문토기질과 와질의 흑도장경호·주머니호, 이 밖에 대부장경호·단경호·뉴부호·대부소호·소완 등 토기류, 철촉·철모·철검·철과·철부·철겸·철착·철제소형농공구·금동개궁모·청동검파두식·칠초청동검 등 금속류, 칠궁·칠선자·칠두·원통형칠기·칠완 등 목제칠기류, 경식·지석 등 다종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출토한 토기류는 무문토기질과 와질토기로 대별되고 기형적 특징과 속성으로 보아 3단계 5분기로 편년할 수 있다. Ⅰa기는 무문토기류만 부장되는 단계, Ⅰb기는 무문토기류에 와질토기 주머니호가 부장되는 단계로 창원 다호리 1호묘보다 이른 시기로 추정된다. Ⅱa기는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와 같은 와질토기의 부장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경주 조양동 38호묘, 경산 임당 A-Ⅰ-74호묘와 같은 단계로 추정된다. Ⅲ단계는 대부장경호가 부장되는 시기로 김해 양동리 162호묘 출토품과 비슷하여 같거나 조금 늦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목관묘의 조영시기는 초기철기시대의 후기~원삼국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1세기 전반~기원후 2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Ⅲ지구 유구 배치도

유적은 지금까지 성주지역 원삼국시대 최대 규모의 목관묘 유적으로 출토유물의 질과 양으로 보아 당시 최고지배계층의 무덤군으로 볼 수 있다. 물질문화상으로도 초기 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의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동시기 문화상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그 가치가 높다. 더불어 31호 목곽묘에서는 개궁모와 같은 위세적 성격의 낙랑계 유물이 출토되어 국가간의 교류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성주 백전 예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문화유적발굴 조사보고서』.

Ⅲ지구 전경

3호 목관묘

3호 목관묘 요갱

3호 목관묘 출토유물

30호 목관묘

31호 목관묘

출토유물

08

성주 명포리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명포리 산19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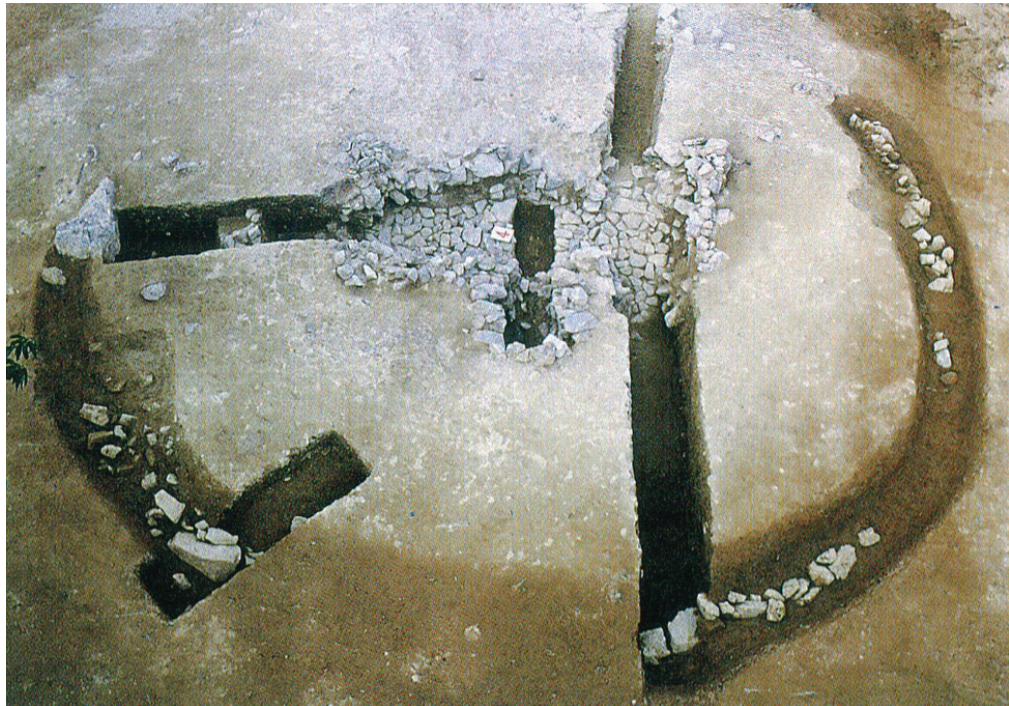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산대학교박물관 / 1997.12.~1998.6.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 대부장경호, 대부단경호, 유개고배, 환두대도

유적은 성주 명포리 마을에서 성주읍내로 넘어가는 군도인 본성로의 확장과정에서 조사되었다. 명포리고분군의 분포범위에 포함되며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 봉토분 5기, 석곽묘 23기와 청동기시대 지석묘 1기가 조사되었다.

봉토분은 직경 6~11m 정도의 소형급으로 호석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 특징적인 구조로 '凸'자형 주·부곽이 확인되는데, 부곽은 주곽의 장벽 중앙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마치 벽장처럼 만든 소위 감실형 부곽이다. 이런 감실형 부곽의 구조는 제1·4·5호분에서 석곽형으로 확인되며, 주곽은 제1호분은 목곽묘이고 나머지는 석곽묘의 구조이다. 주곽의 규모는 길이 2.9~3.8m, 너비 1~1.1m, 깊이 0.85~1m이며, 감실은 길이와 너비가 0.8m 전후이다.

한편, '凸'자형주부곽 구조를 가진 봉토분을 통해 성주지역 묘제 변천과정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주곽이 목곽묘인 제1호분의 출토 유물은 성주양식 토기가 성립되는 5

유적 위치도

1호 봉토분

세기 중엽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곽이 석곽묘인 제4호분은 5세기 후엽, 제5호분은 5세기 말엽에 편년되고 있다. 이로 보아 유적에서 목곽묘에서 석곽묘로 이행되는 시점은 5세기 후엽을 전후한 시점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인근에서 조사된 성주 명포리 산41-1유적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그 외 석곽묘는 장축이 등고선과 나란하며, 판석식과 할석식구조가 모두 확인된다. 바닥에는 판석 또는 자갈을 전면에 깔았다.

유물은 대부장경호, 대부단경호, 유개고배 등의 토기류와 철모, 철촉, 철부, 재갈 등의 철기류를 포함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적에서는 성주지역 묘제에 있어 목곽묘에서 석곽묘로 교체되는 과도기적 현상이 잘 관찰됨과 동시에 부장토기를 통해 성주양식이 성립되는 5세기 중엽에서 성주양식이 소멸되고 경주양식으로 대체되는 6세기 초엽까지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주양식 토기와 묘제의 변화양상은 향후 성주지역이 신라이냐 혹은 가야이냐 하는 성산가야의 정체성 논쟁과 관련한 연구를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2005, 『개관 10주년 기념 발굴유물특별전』.

남익희, 2008, 「5~6세기 성주양식 토기 및 정치체 연구」, 『영남고고학』 49.

2호 봉토분

3호 봉토분

출토유물

09 성주 명포리 산20-10번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명포리
산20-1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동문화재연구원 /
2015.1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 고배, 단경호, 철촉

유적은 성주 명포리지석묘군이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남쪽의 명포 보건진료소에 이르는 본성로에 접한 산사면 일대에 분포하는 삼국시대 명포리고분군 내에 위치한다. 전원주택 건립을 위해 명포리고분군을 관통하며 무단진입로를 개설하던 과정에 대동문화재연구원인 신고로 중지된 후 2015년도 2차 긴급발굴조사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으로 결정되어 조사된 유적이다. 시굴조사 후 원상복구되어 대체적인 정황만 알려진 유적이다.

시굴조사는 전면제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조사범위 일대에서는 2012~2013년 대동문화재연구원의 봉토분 분포측량조사를 통해 알려진 명포리 제55·57·58·59·61·69호분 외에 삼국시대 석곽묘 16기, 목곽묘 3기, 옹관묘 1기, 제사유구 2기,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 1기 등 총 29기의 유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시굴조사 이후 원상복구되어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봉토분 6기는 직경 6~17.5m, 높이 1~3m 정도의 중형급과 소형급이다. 가장자리가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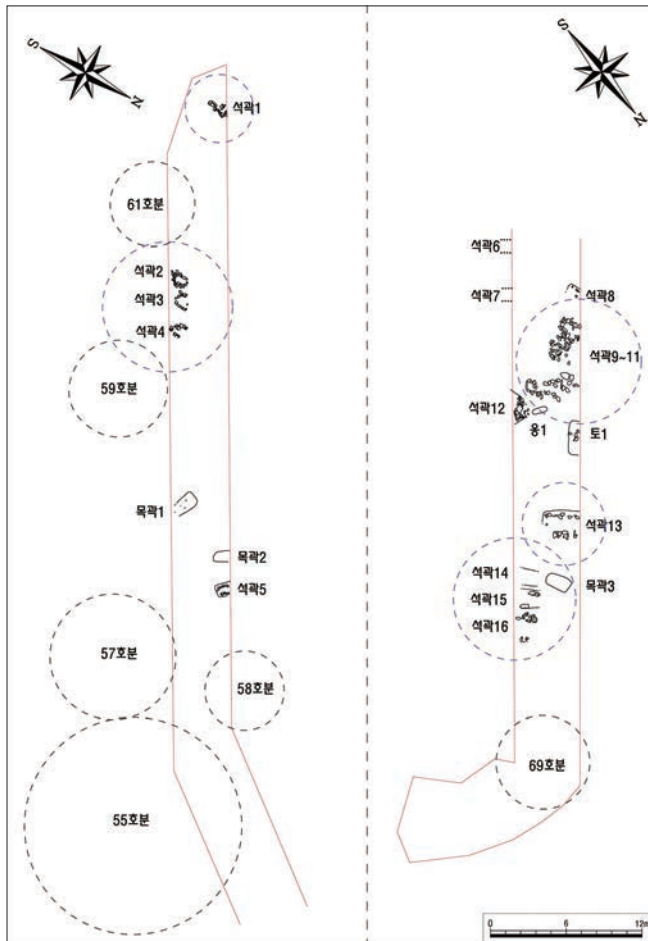
훼손되어 자세한 정황은 알기 어렵지만, 주구나 호석이 확인되는 것도 있고, 매장주체부는 석실과 석곽이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

석곽묘는 장축이 등고선과 나란하며, 단곽분과 3기 정도가 세트를 이루는 다곽분이 모두 확인된다. 완전한 형태가 노출된 제11호 석곽묘의 석곽 규모는 길이 2.7m, 너비 0.6m 이다. 목곽묘의 장축도 등고선과 나란하며 완전한 형태의 제3호 목곽묘의 규모는 길이 2.0m, 너비 1.1m 정도이다. 옹관묘는 평면 타원형으로 합구식옹관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별도로 수습된 것은 없지만 석곽묘와 목곽묘에서 고배, 단경호, 대호, 철촉 등이 노출되었다. 이 토기들은 동일 명포리 고분군에서 기 발굴조사된 성주 명포리유적(경산대학교박물관 2005)과 성주 명포리 산41-1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18)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성산가야의 재지계 토기들로서 완전 신라화된 토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동일 고분군에서 기 조사된 성과를 고려하면 유적에서 확인된 목곽묘와 석곽묘는 5 중엽~말엽 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바닥만 남거나 단면에 절개된 고분들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성산동고분군과 연결되는 하위집단의 고분군인 명포리 고분군의 묘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임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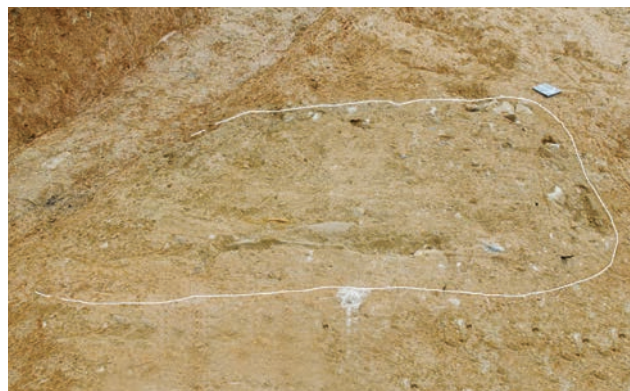
대동문화재연구원, 2015, 「성주 명포리 산20-10번지내 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유적 중앙부 조사전경

2·3·4호 석곽묘

2·3호 석곽묘

2호 제사유구

1호 목곽묘

10 성주 명포리 산41-1번지 공장부지 내 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명포리 산41-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동문화재연구원 / 2017.9.~2018.1.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 고배, 장경호, 단경호, 철부, 철겸, 철촉

유적은 선남면 (구)명포초등학교 운동장에 위치하는데, 서쪽 구릉의 정상부(해발 263.1m)에서 남동편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말단부로 해발 54~59m 정도에 해당한다.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의 목곽묘 16기, 석곽묘 4기, 옹관묘 1기, 석실분(곽) 10기, 수혈 2기, 조선시대의 토광묘 4기, 일제강점기의 석곽묘 1기, 시대미상의 구 1기, 토광묘 4기, 수혈 4기 등 총 47기가 확인되었다. 이 중 성산가야와 관련된 재지계 토기가 출토된 유구는 목곽묘 16기, 석곽묘 4기, 옹관묘 1기이며, 석실묘에서는 완전 신라화된 6~7세기의 경주양식 토기들만 출토되고 있다.

목곽묘는 유적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장축은 등고선과 나란하다. 목곽묘에서는 목곽의 흔적이 확인되는 것도 다수 있으며, 위석목곽묘도 1기가 확인된다. 완전한 목곽묘의 묘광 규모는 길이 1.9~4.1m, 너비 0.93~1.81m, 목곽 규모는 길이 1.99~3.15m, 너비 0.66~1m 정도이다. 유물은 양단부장되거나 서측부장된 것이 많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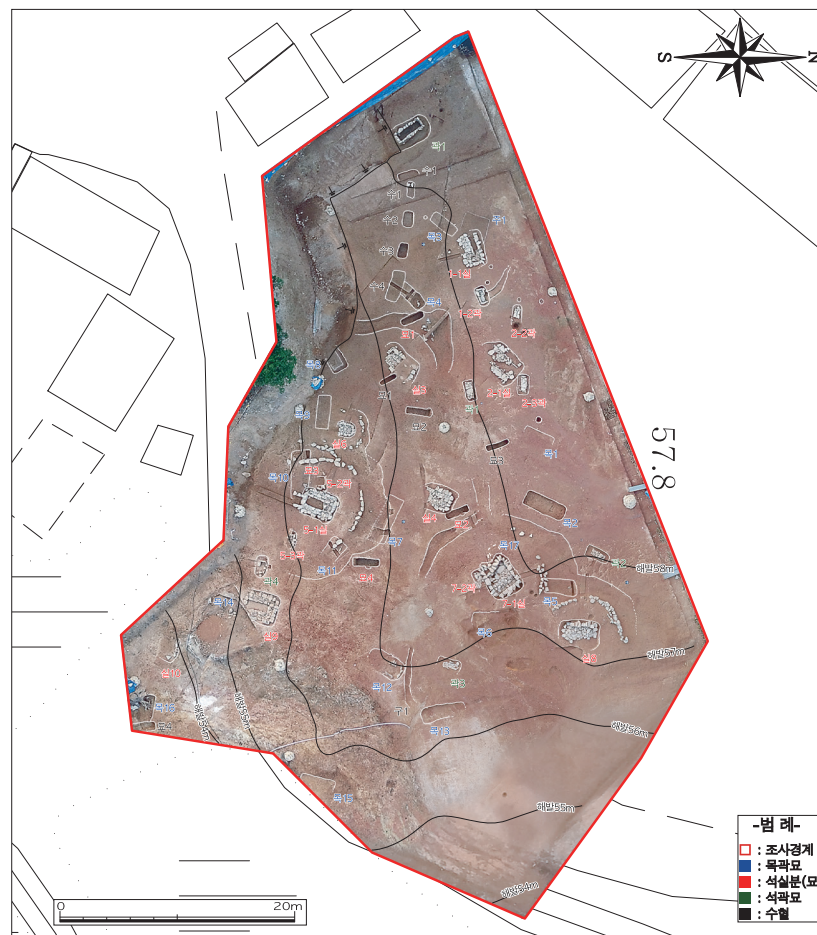
유적 위치도

고배, 단경호, 파배, 광구소호, 장경호 등의 토기류와 철부, 철겸, 철촉 등의 철기류가 부장되어 있다. 석곽묘는 등고선의 진행방향과 나란하게 조성되어 있다. 석곽묘는 상부 유실이 심하고 벽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묘광 규모는 길이 1.82~2.12m, 너비 0.9~1.01m, 석곽 규모는 길이 0.84~1.55m, 너비 0.38~0.60m 정도이다. 유물은 고배, 단경호, 철촉 등이 확인되었다.

옹관묘는 1기만 확인되었는데, 묘광은 타원형으로 규모는 길이 1.03m, 너비 0.68m, 유존깊이 0.23m 정도이다. 옹관은 합구식으로 주옹(장란형옹)이 동편에 위치하고 막음옹(연질단경호)이 서편에 위치하며 약 2cm 정도 겹쳐진 상태이다. 규모는 길이 0.6m, 너비 0.3m 정도로 내부 출토유물은 없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목곽묘의 경우 5세기 중엽~말엽으로 판단된다. 동일지점에서 목곽묘·석곽묘·석실묘로 이어지는 묘제의 변천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구조와 내용면에서 동시기 성산리고분군과 그 주변에 조성된 하위고분군인 명포리·장학리·차동골고분군 등에서 조사된 분묘와 동일하여 유적을 조성했던 명포리 집단의 성격과 의미를 구명하고, 나아가 성산가야 지역집단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대동문화재연구원, 2018, 「성주 명포리 산41-1번지 일원 공장부지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2호 목곽묘

1호 석곽묘

토기류

11

성주 장학리 별티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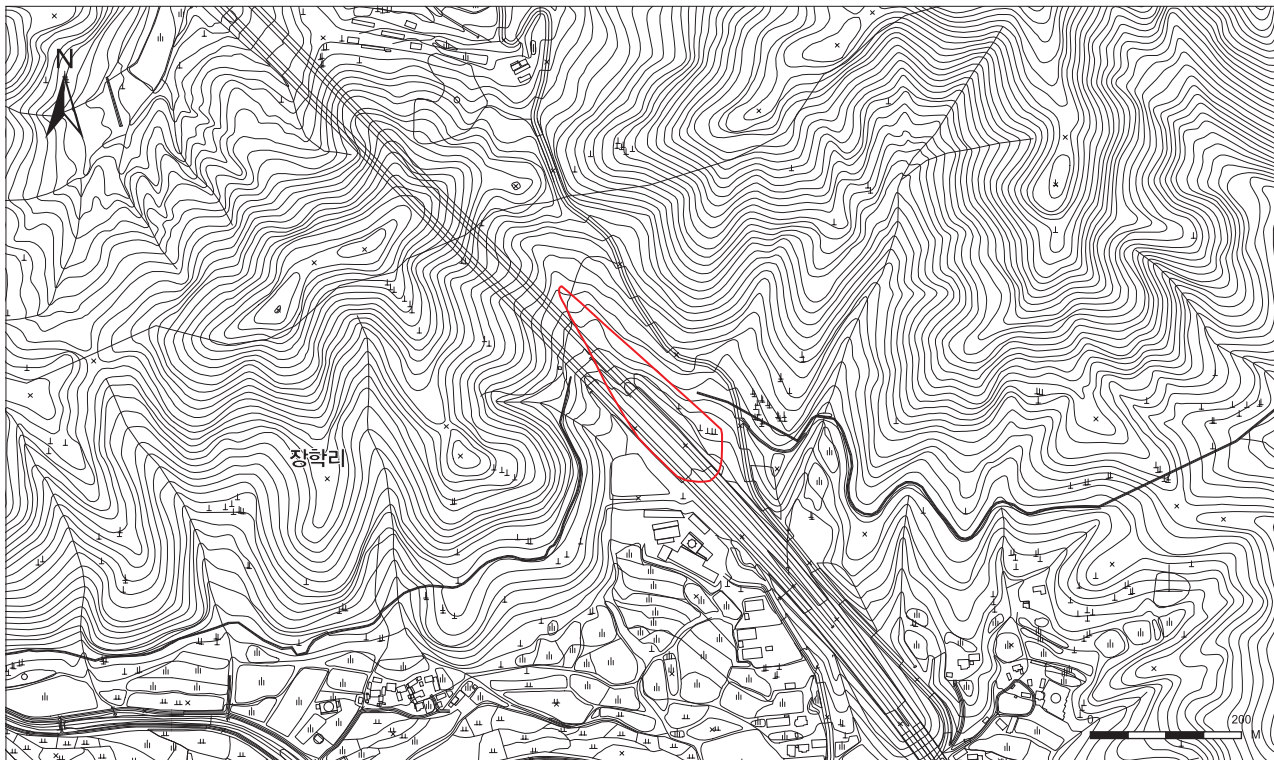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장학리 산39-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2005.4.~2006.3.

주요 유구 / 유물
봉토분, 석곽묘,
석실묘 /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부가구연
대부장경호, 표비,
금동이식

유적은 성주군의 동남쪽에 솟은 성산(해발 383.1m)의 지맥인 별티재에서 장학리 방면 남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 사면 해발 100~114m 지점에 위치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김천간 고속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되어 실시된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의 봉토분 13기(매장시설 25기), 석곽묘 5기, 석실묘 1기, 조선시대 토광묘 4기, 기타유구 3기 등 모두 38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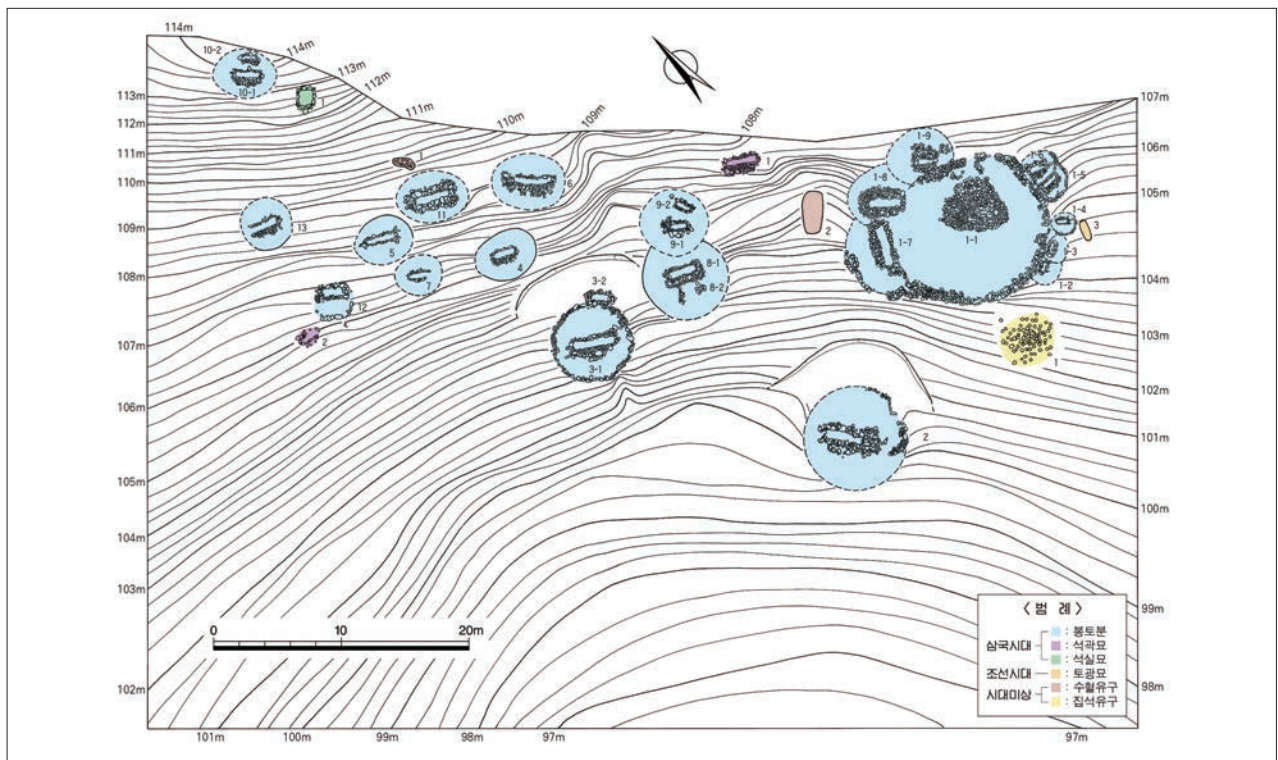
봉토분 13기는 일정간격을 두고 분포하며 소형분들이 다소 밀집분포하는 양상이다. 호석은 제1~3호분에서 확인되었고, 제2·3호분은 주체부가 위치한 사면 위쪽에 평면 반원형의 주구를 구비하였다. 제1호분의 유존봉분의 규모는 직경 11~12.6m 높이 3.6m로 중·소형급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직경 4~7m 의 소형급이다. 개석은 여러 기의 석곽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매장주체부 구조는 제1-1호가 주부식구조의 평면 '凸'자형 수혈식 석곽, 제2호분이

유적 위치도

횡구식석곽임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단곽식의 할석조 수혈식석곽이다. 그리고 제1·3호분의 호석 외연에는 배장성격의 소형석곽이 1기 또는 최대 9기가 배치되었다. 이 소형 석곽은 주체부 호석에 바로 붙이거나 약간 이격시켰고 일부는 별도의 호석을 갖추었다. 제8호분은 주체 석곽의 아래쪽에 소형 배장석곽 1기, 제9호분은 주체부 규모가 비슷한 소형의 수혈식석곽 2기를 병렬배치한 다곽식구조이다. 묘광의 깊이로 보아 주체 석곽의 공간적 위치는 반지하식이고 배장석곽의 공간적 위치는 반지하 또는 지상식에 가깝다.

주석곽의 벽체는 할석을 평적하여 축조하였고,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다. 내부규모는 길이 1.5~3.5m, 너비 0.5~1.1m, 높이 0.4~1.4m이다. 바닥에는 소형할석 또는 판상할석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으며, 1-1호를 비롯해 여러 석곽에서 관정이 출토되어 목관을 안치한 것을 알 수 있다. 피장자의 두향은 출토 이식을 통해 대부분 동향으로 파악된다. 유물부장은 양단 또는 편단부장형식이며, 1-1호 부곽에는 대호를 비롯해 각종 호류, 유개고배류 등 토기류를 일부 중첩시켜 부장하였다.

한편, 제2호 횡구식석곽의 경우 남동단벽부에 무단식의 입구와 그 밖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올라가는 수혈상의 짧은 묘도를 내었고 내부에는 대·소형의 할석으로 폐쇄하였다. 다만 입구부쪽 시상 위에는 내부 너비에 맞게 3단 정도 할석으로 단시설을 마련하였는데, 추가장 시 계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배장석곽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주체 석곽에 병렬상으로 배치되거나 엇갈리는 등 다양하다. 내부규모는 길이 0.75~3.2m, 너비 0.25~0.8m, 높이 0.4~1.1m이

유구 배치도

며 제1-2호가 가장 최소형에 해당하고, 제1-7호가 가장 규모가 크다. 벽체는 할석조, 판상석조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형에 해당하는 석곽이 판상할석을 이용하였다. 바닥에는 소형 할석을 깐 것도 있으며 유물부장은 양단 또는 편단부장형식이다.

유물은 유개고배, 유개파수부옹, 대부장경호, 부가구연대부장경호, 대부완, 파수부배, 양이부호, 유개단경호, 유개사이부호, 영배, 대호 등 다종다양한 토기류가 출토되었고, 철촉, 철모, 도자, 철겸, 철부, 교구, 금구, 등자, 표비, 관정 등 철기류와 금동이식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토기류로 보아 5세기 말엽에서 6세기 중엽으로 판단된다. 토기류에서 보이는 특징은 낙동강 이동양식 토기의 속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성주 재지토기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많다. 또한 고분군에는 성주양식 토기와 경주양식 토기가 함께 부장되는 양상도 보인다. 유적에서 보이는 묘제와 토기류는 성산가야에서 신라로 전환되는 시기의 성주지역 고분문화를 구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성주 장학리 별티유적』.

1호분

1호분 매장주체부

3호분

1호분 출토유물

12 성주 사곡리 산113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 산11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구보건대학교 인당박물관 / 2011.12.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 유개고배, 장경호, 연질옹, 도자, 철겸

유적은 외곡산(해발 304m) 정상부에서 북동쪽 신천 강변들을 향해 뻗어 내려오다가 동서방향의 군도 15호선에 접하는 해발 62~65m의 능선 말단부 일대에 위치한다. 근린생활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실시된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 고분 2기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주곽과 배장곽 2기로 구성된 다곽분이다.

제1호분에는 사면 위쪽에 주곽과 2m 정도 떨어져 평면 반원형의 주구가 설치되었는데, 내부에서 한 개체분의 호가 편으로 출토되었다. 주곽인 1-1호는 수혈식판석조석곽묘로 반지하식 구조이다. 평면은 장방형으로 장축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한 편이다. 규모는 길이 2.7m, 너비 1.1m, 높이 0.55m이다. 벽체는 장대석과 중형의 판상석을 이용해 수적하고, 바닥에는 판상석을 전면에 걸쳐 한겹 깔았다. 유물은 양단부장되었는데, 고배, 장경호, 개 등이 출토되었다. 배장석곽 2기는 주구 내부에서 주곽을 감싸듯이 배치되었는데, 규모는 길이 1.5~1.9m, 너비 0.7~0.82m, 높이 0.32~0.33m이다. 벽체는 중소형의

유적 위치도

판상석을 이용해 수적하고 바닥에는 부석하지 않았다. 유물은 편단부장으로 배, 대부완, 파수부배, 연질옹, 대부장경호, 방추가 출토되었다.

제2호분의 주곽인 2-1호는 수혈식할석조석곽묘로 반지하식 구조이다. 평면은 장방형으로 장축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한 편이다. 묘광의 유존규모는 길이 4.5m, 너비 1.2m, 높이 0.36m이다. 벽석은 할석을 평적하였는데, 일부만 남아 있다. 바닥에는 편평한 할석을 한겹 깔았고, 유물은 북단벽부에서 고배 편, 연질옹 편, 연질소호 편, 도자가 출토되었다. 배장석곽 2기는 사면 위쪽에 주곽을 감싸듯이 배치되었는데, 규모는 길이 1.6~1.95m, 너비 0.9~1.4m, 높이 0.1~0.3m이다. 벽체는 할석을 수적하였고, 바닥에는 할석을 한겹 깔았다. 제2-2호는 남단벽부에서 개, 유개고배, 고배, 단경호, 동장벽부에서 철겸이, 제2-3호는 시상석 위에서 고배, 대부완, 방추, 바닥에서 대부호가 출토되었다.

제1호분의 개와 고배류는 전형적인 성주양식 토기로 성산동59호분 단계인 5세기 후엽으로 판단된다. 제2호분에서 개와 고배류는 성주양식이 퇴화되는 6세기 초엽의 토기들로 장학리 별티 10-1호, 장학리 별티 2호분 단계와 비교 가능하다.

유적은 5세기 후엽~6세기 초엽에 조성된 용암면 일대 소규모 고분군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성산읍 일대의 중심세력인 성산동고분군 축조집단의 영향 하에 있었던 사곡리 일대 거주민들의 분묘지로 성산가야의 지역적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참고문헌

대구보건대학교인당박물관, 2012, 『성주 사곡리 산113번지 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1호분

2호분

1-3호 석곽 유물 출토모습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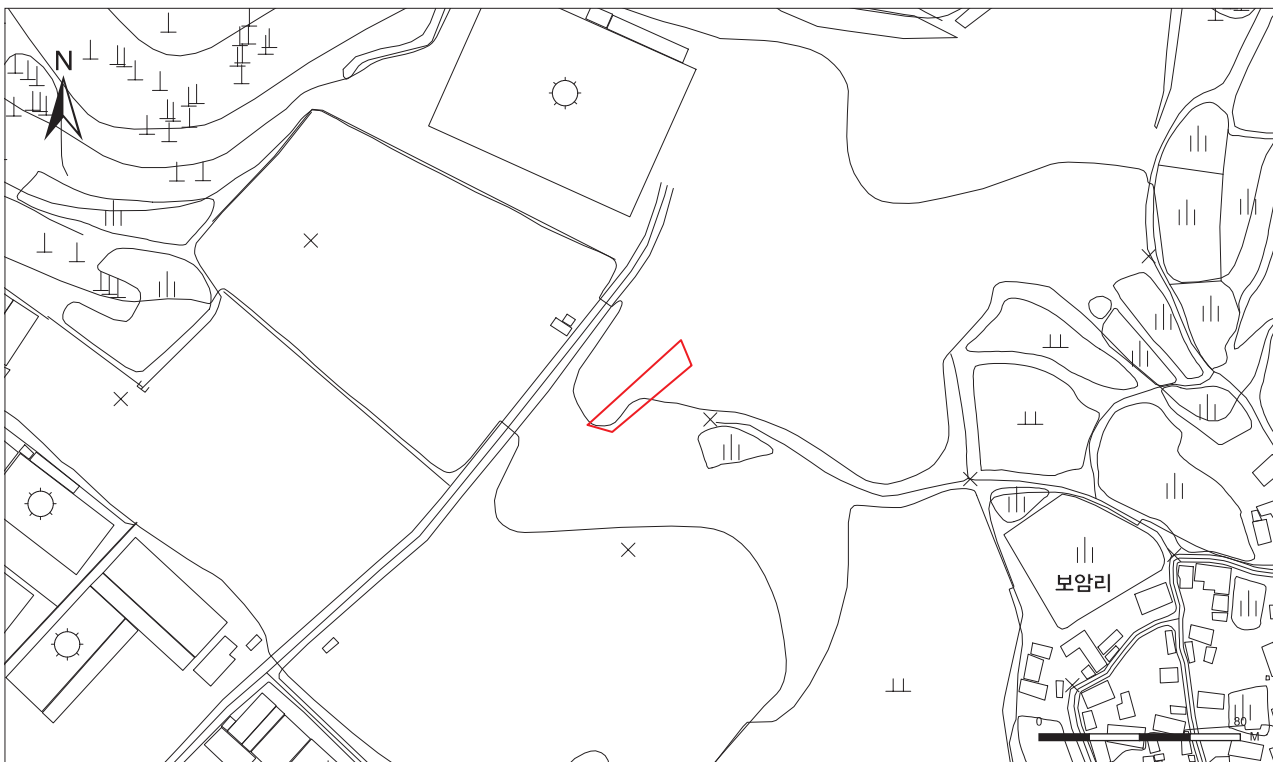
13 성주 보암리 780번지 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780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동양대학교박물관 /
2013.8.~2013.9.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옹관묘 / 조합
식우각형파수부호,
첨저옹, 옹관, 철부

유적은 칠곡군과 군계를 이루는 각산(또는 봉화산, 해발 469m) 정상에서 서남쪽 보암들을 향해 뻗어 내린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해발 77.5~80.5m의 사면에 위치한다. 공장조성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원삼국시대 목관묘 2기, 옹관묘 1기, 조선시대 묘 3기가 확인되었다.

1호 목관묘는 장축이 등고선과 직교하며 묘광의 평면은 말각 장방형이다. 묘광 규모는 길이 3.12m, 너비 1.36m, 깊이 0.3m이며, 동쪽 단벽의 너비는 1.4m, 서쪽 단벽의 너비는 1.25m로 차이를 보인다. 바닥은 중앙이 가장 깊고 양쪽 단벽으로 가면서 약간 높아지는 양상이다. 바닥에서는 목관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회색계통의 니질점토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목관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물은 양쪽 단벽 쪽에서 각각 원저옹 1점이 확인되었는데, 동쪽 단벽의 원저옹은 충전토 위에, 서쪽 단벽의 원저옹은 바닥에 부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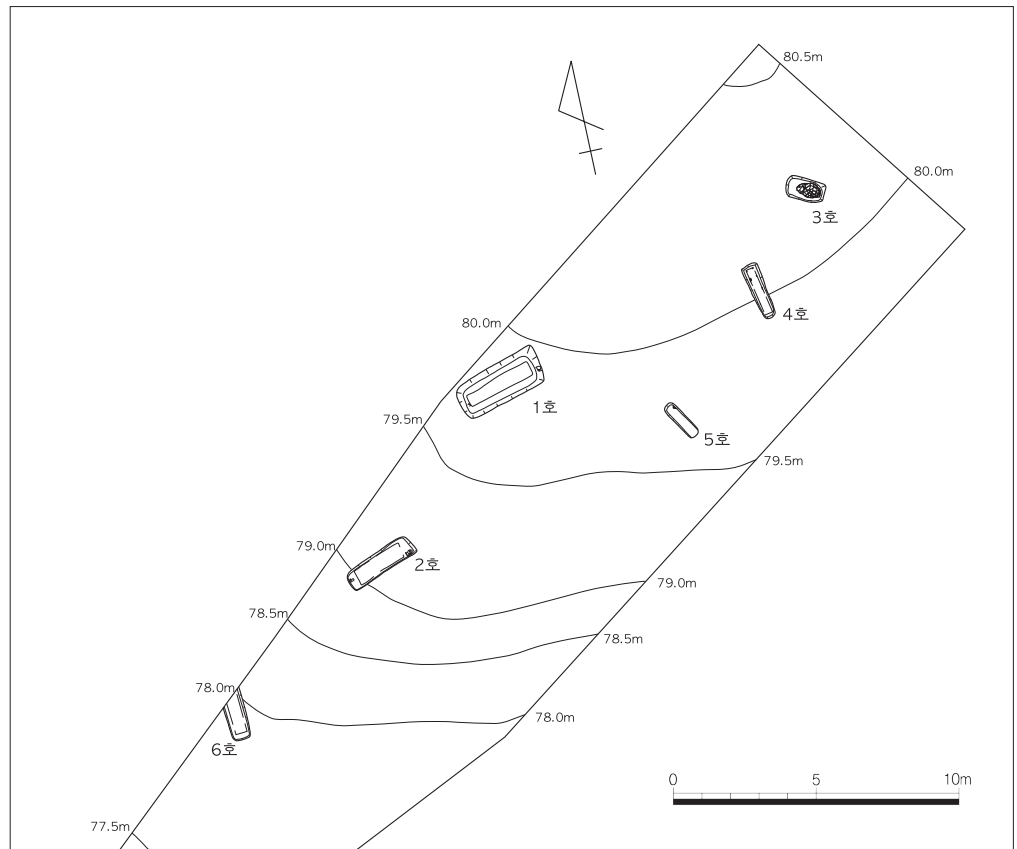
2호 목곽묘는 장축이 등고선과 직교하며, 묘광의 평면은 말각 장방형이다. 묘광 규모는 길이 2.58m, 너비 0.7m, 깊이 0.6m이다. 바닥에서는 목관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회색 계통의 니질점토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대략적인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유물은 단벽 쪽 충전토 내부에서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1점, 주조철부 2점이 출토되었다. 출토 위치는 높은 곳인 동쪽 단벽에서 토기, 서쪽 단벽에서 철기가 각각 확인되었다.

3호 옹관묘는 장축이 등고선과 직교하지만 등고선과는 많이 틀어져 있다. 묘광의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규모는 길이 1.38m, 너비 0.38m, 깊이 0.14㎝이다. 옹관은 합구식으로 대호를 주옹으로 사용하고 파수부단경호를 막음옹으로 사용하였는데, 대호를 파수부단경호가 덮은 양상이다.

목관묘 출토 토기류는 그 특징과 속성으로 보아 전기와질토기양식에 해당하며, 중심시기는 성주 예산리Ⅱb단계인 1세기 후반~2세기 초로 추정된다. 옹관묘는 대호의 특징으로 미루어 3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소규모의 유적이지만 1~3세기 경에 조성된 원삼국시대 분묘로 성주지역 원삼국시대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그 가치가 높다. 특히, 5~6세기대 성주지역 3대 고분군 중 하나인 성주 수죽리고분군 내에 위치하고 있어 성산가야를 이루던 3대 집단의 실체와 그들의 분묘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그 가치가 높다.

참고문헌

동양대학교박물관, 2016, 『성주 보암리 780 유적』.

유구 배치도

2호 목관묘

2호 목관묘 유물 출토모습

2호 목관묘 출토유물

3호 옹관묘

3호 옹관묘 출토유물

14

성주 유월리 산43-5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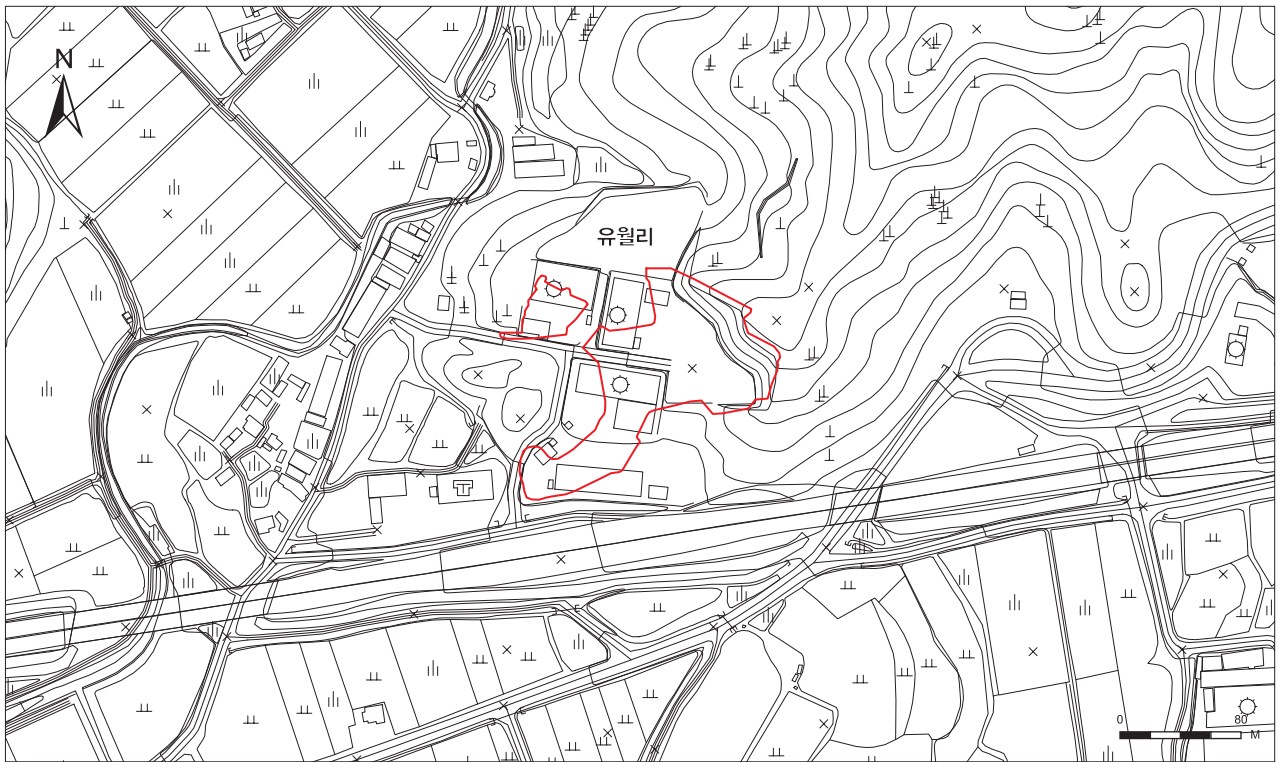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 산43-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덕난문화유산연구원 / 2011.5.~2011.10.

주요 유구 / 유물
석곽묘, 수혈 / 장경호, 대부호, 철겸, 철촉

유적은 칠곡군과 군계를 이루는 각산(또는 봉화산, 해발 469m)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힌 구릉의 말단부 및 골짜기에 해당하는 해발 60~100m에 위치한다. 근린생활시설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 석곽묘 2기, 수혈 10기, 통일신라시대 석실묘 2기, 고려시대 석곽묘 3기, 조선시대 토광묘 123기로 모두 140기가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사면 위쪽에 제1호, 그 아래에 제2호가 인접하여 나란하게 위치한다. 매장주체부의 장축방향이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며, 석벽의 대부분이 유실되었다. 시굴조사에서는 목곽묘로 추정되었으나, 묘광을 따라 벽석 홈이 나 있고 일부 수적한 벽석이 유존한 것으로 보아 판석조 석곽묘로 판단된다. 석곽의 내부규모는 제1호가 길이 3.13m, 너비 1.45m, 높이 0.25m이고, 제2호는 길이 5.16m, 너비 1.43m, 높이 0.75m 정도이다.

제1호 석곽은 수혈식이고, 제2호 석곽은 남단벽쪽으로 한 단 높게 짧은 묘도를 마련한 구조로 보아 횡구식일 가능성이 있다. 매장주체부의 공간적 위치는 반지하식으로 판

유적 위치도

단되며, 피장자의 두향은 북향으로 추정된다. 제1호 석곽은 배치구도와 규모로 보아 제2호 석곽의 배장곽일 가능성이 있다. 시상은 소형의 할석을 한 벌 깔아 마련하였고, 유물은 양단부장형식이다. 피장자의 머리쪽에는 개, 고배 등 소형 토기류를 부장하고, 발치쪽에는 장경호, 대부호, 연질토기, 철겸, 철촉 등을 부장하였다.

출토된 토기류는 낙동강 이동양식 토기의 속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성주 재지토기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이로 보아 석곽묘의 축조시기는 5세기 후반대로 추정된다.

수혈은 공방지, 노지, 폐기장으로 추정되는데, 평면형태는 타원형, 구형, 부정형 등 다양하며, 규모는 길이 0.56~4.67m, 너비 0.43~2.86m, 깊이 0.4~0.59m이다. 6호 수혈에서는 좁은 공간에 장란형호, 단경호, 연질파수부호, 파배, 완, 용도미상 토제품 등 17점의 토기류가 겹겹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이 중 용도미상의 토제품은 인접한 유월리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5)과 유월리토기가마(대동문화재연구원 2012)에서 출토된 바 있다. 출토된 유물들의 특징으로 보아 중심시기는 6세기대로 추정된다.

유적은 고분과 토기생산과 관련된 유구로 이루어진 복합유적으로 소량 확인되었지만 성산가야와 관련된 고분과 토기생산시설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덕난문화유산연구원, 2013, 『성주 유월리 산43-5번지 유적(II)』.

유적 전경

1호 석곽묘

2호 석곽묘

1호 석곽묘 출토유물

2호 석곽묘 출토유물

6호 수혈

6호 수혈 출토유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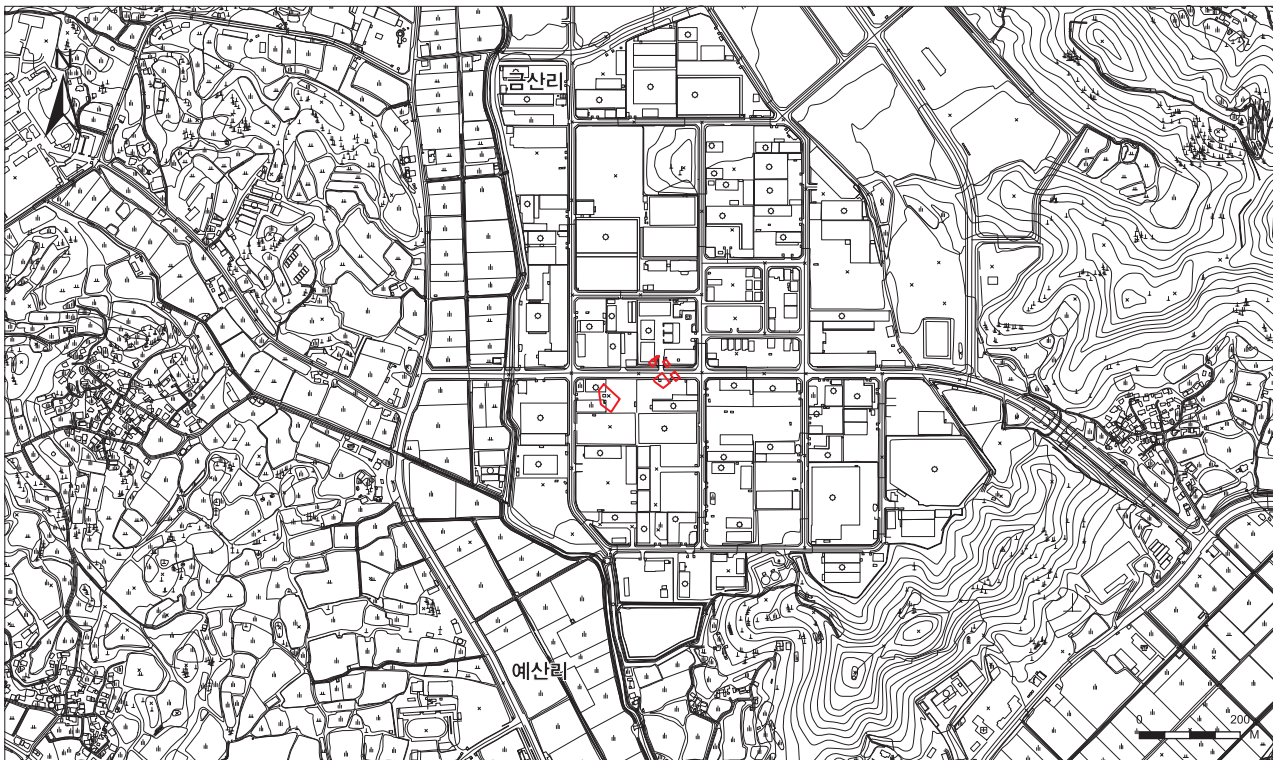
성주 예산리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금산·
학산리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동문화재연구원 /
2010.6.~2011.3.

주요 유구 / 유물
목관묘, 주거지 / 두형
토기, 연질장경호,
연질호

유적은 성주읍 시가지에서 북동쪽에 인접한 지역으로 초전면 방향 905번 지방도와 월항면 방향 33번 국도 사이에 위치한 나지막한 구릉성 평탄지의 해발 45~75m 이대에 넓게 분포한다.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의 목관묘 1기, 주거지 1기, 삼국~통일신라시대 석실묘 6기, 토기가마 1기, 고려~조선시대 주거지, 수혈, 노지, 구, 건물지, 토광묘 등 920기의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목관묘는 제8구역에서 확인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묘광 규모는 길이 2.23m, 너비 0.78m, 깊이 0.39m이다. 바닥에 토양화된 목관의 흔적으로 보아 내부에 목관을 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양장벽부에서 두형토기편, 연질호, 연질장경호, 연질토기저부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소성상태가 연질의 황갈색계통이며. 두형토기의 대각은 '八'자형이고, 장경호의 경우 동체가 구형이며 퇴화된 굽을 갖추고 있는 특징을 보여 대구 팔달동 94호 출토품(영남문화재연구원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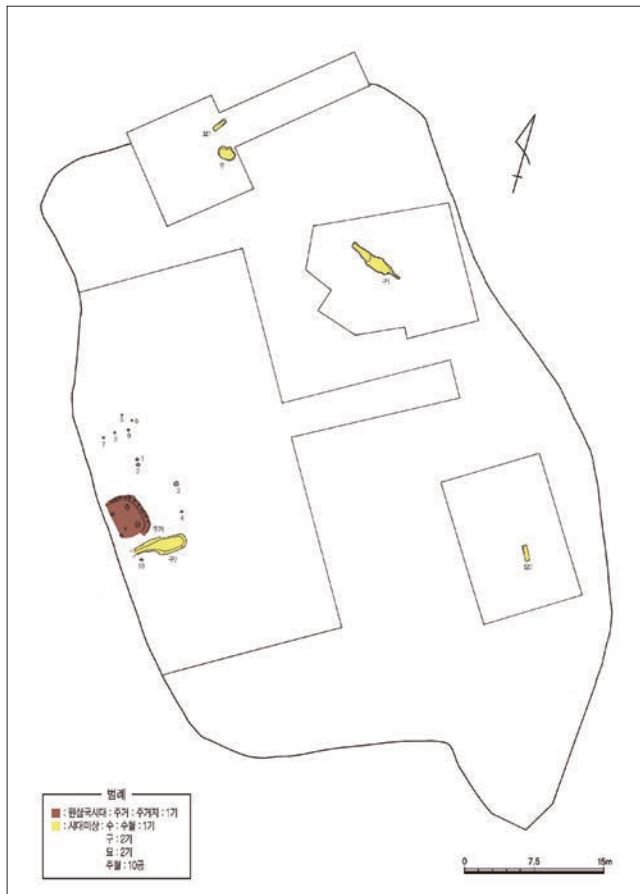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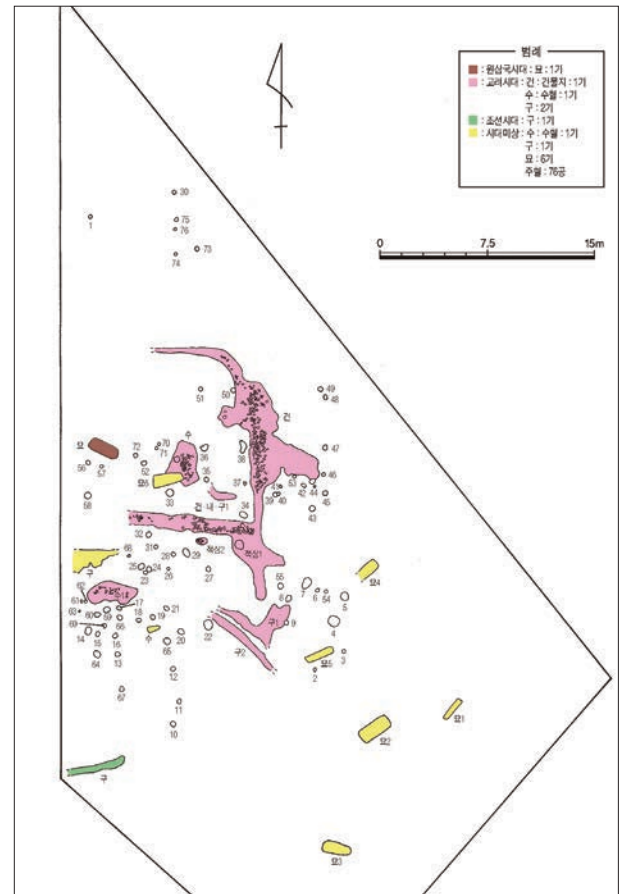
2000)과 비교가능하다. 토기로 미루어 조성시기는 대구 팔달동 Ⅰc단계, 성주 백전 예산동유적 Ⅱa단계와 병행하는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주거지는 제7구역에서 확인되었다. 평면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다. 사면 위쪽에 반원형의 벽구를 갖추었고 그 내부에는 소형의 주혈들이 일정간격을 두고 배치되었다. 벽구로 감싸진 내부공간에는 4주식으로 추정되는 주혈이 배치되었다. 유존규모는 길이 4.92m, 너비 3.6m이고 벽구의 깊이는 0.18m이다. 유물은 연질토기호 구연부·동체부·저부 등이 출토되었다. 내부는 성주 가암리유적과 가장 유사하며, 이밖에도 성주 장학리 장골유적, 경산 임당동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와 비교가능하다. 이 유적들의 방사성탄소연대가 130A.D.(95.4%)400A.D.로 측정되는 것을 신뢰한다면, 예산리유적 주거지도 이와 비슷한 시기한 기원후 2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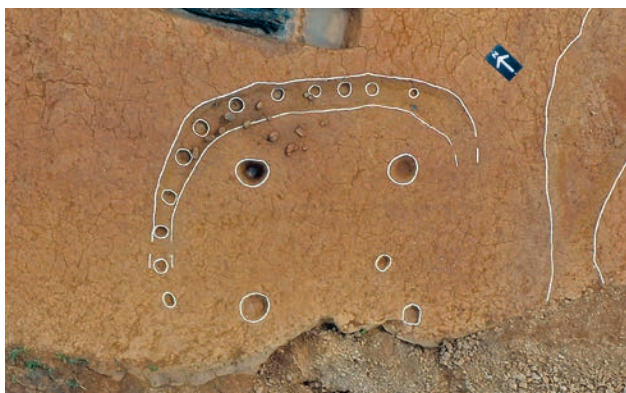
그 외 삼국시대 유구인 석실묘는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완전히 신라화된 경주양식 토기만 부장되어 있다.

유적에서는 목관묘와 주거지가 1기씩만 확인되었으나 인근의 성주 백전 예산리유적과 함께 성산가야가 성립되기 이전 성주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대동문화재연구원, 2013, 『성주 예산리유적』.

7구역 유구 배치도

8구역 유구 배치도

유적 전경

8구역 목관묘(단계별 조사과정)

7구역 주거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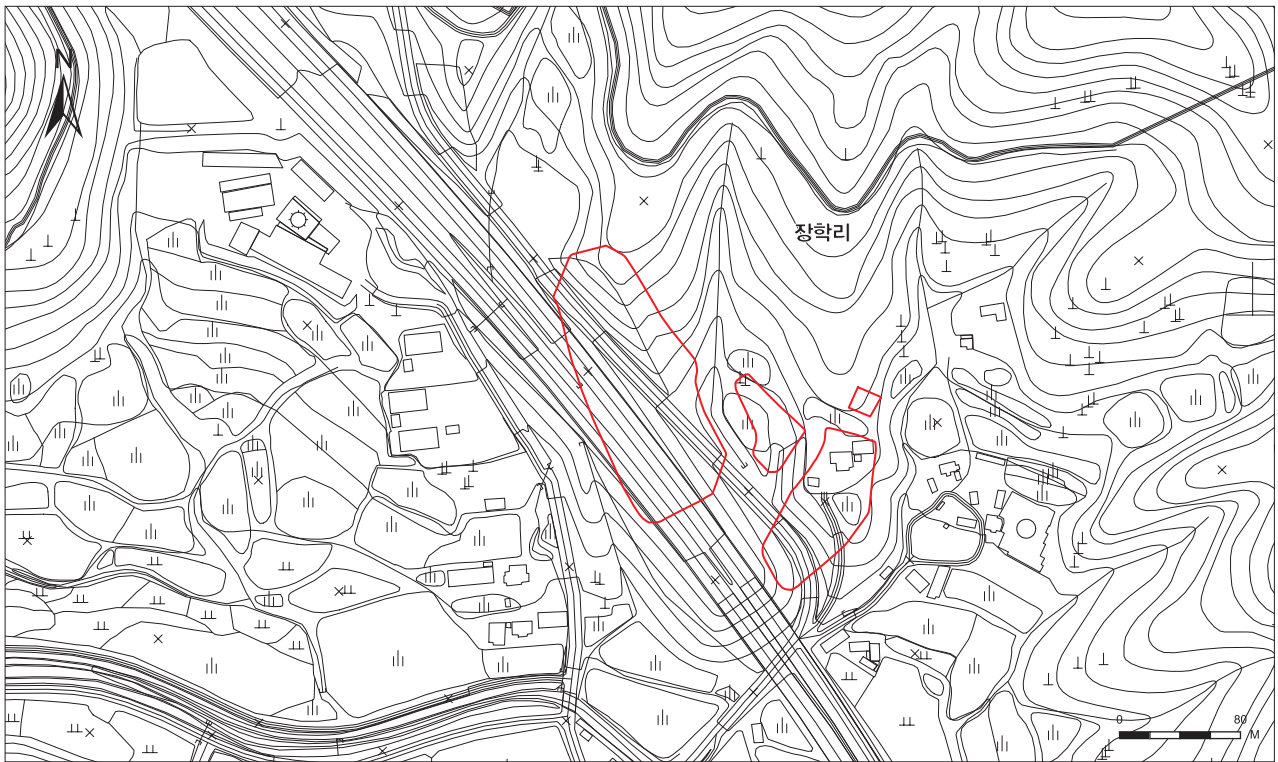
16 성주 장학리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장학리 산18-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1차 2005.2.~2005.4. 2차 2005.4.~200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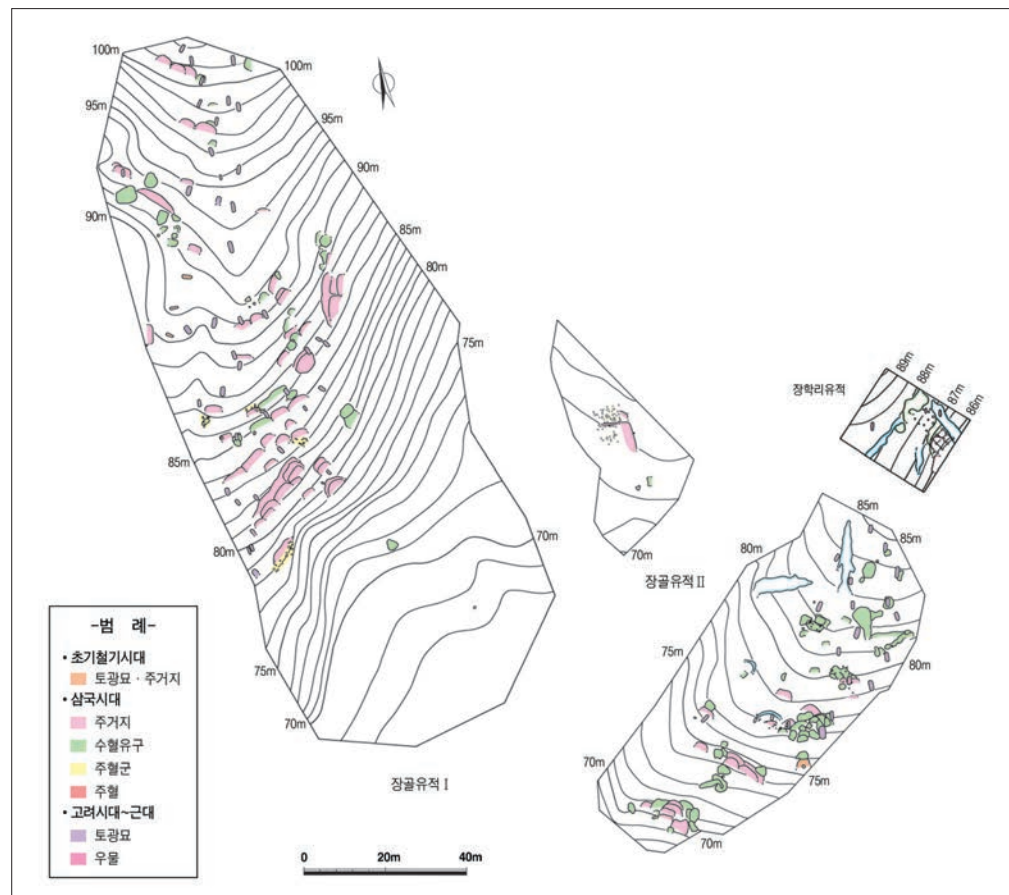
주요 유구/유물
주거지, 수혈, 고상건물지, 주혈군 / 통형기대, 고배, 연질옹, 파수부배, 시루

유적은 성주읍에서 별티재를 너머가는 군도를 따라가다 봉암천 직전의 북편 능선인 해발 68~102m에 위치하는데, 정선부와 남사면 일대에 유구가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김천간 고속도로 건설구간 공사로 인해 실시되었으며, 보고서상 장학리 유적, 장골유적Ⅰ, 장골유적Ⅱ 등 3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장학리유적은 삼국시대의 주거지 2동, 수혈유구 4기, 고상식건물지 1기, 구상유구 3기, 주혈군 1기, 고려~조선시대의 토광묘 3기가 확인되었다. 장골유적Ⅰ은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3기, 삼국시대 주거지 50동, 수혈유구 36기, 주혈군 4개소, 조선~근대의 토광묘 42기, 우물 1기가 조사되었다. 장골유적Ⅱ는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1동, 삼국시대 주거지 18동, 수혈유구 65기, 주혈군 4개소, 구상유구 4기, 통일신라시대 화장묘 2기, 고려~근대 토광묘 20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구릉 남사면에 밀집도가 높게 조성되어 있고 대체로 2~3동이 중복되나

유적 위치도

5~7동이 중복된 것도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장방형, 말각장방형 등 다양하다. 경사면에 조성되어 하단부는 대부분 훼손된 상태이다. 내부시설로는 경사면 위쪽 벽면을 따라 설치된 벽구, 정형성이 없이 확인되는 주혈과 평지식, 수혈식, 아궁이식, 터널식 등 다양한 형태의 노시설이 있다. 바닥시설은 대부분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했으나 일부 다짐한 주거지도 있다. 주거지의 특징은 선축된 주거지를 의식하며 중복조성되어 있다는 점, 유구 수에 비해 내부시설이 양호하게 남은 것이 적다는 점, 경사면 위쪽 벽 상단에 절토면을 마련했다는 점 등이다.

고상건물지는 장학리유적에서 확인되었으며 정면 2칸, 측면 2칸 구조로 각각 3개의 주혈이 3열로 정배치되어 있다. 주혈 규모는 0.38~0.62m이며, 주혈간의 간격은 1.65~1.9m이고 한변의 길이는 3.5~3.8m이다. 장골취락에서 유일하게 정형성을 보이는 주혈군으로 주변부에서 다수 확인된 주혈군 역시 고상건물과 관련된 것임을 잘 보여준다.

구상유구 3기는 장학리유적에서 확인되었으며 유적의 북쪽 경계를 중심으로 부채살처럼 퍼져 분포한다. 1호는 사면방향과 일치하고 삼국~조선시대 유물을 포함하고 있어 유수에 의해 형성된 자연구로 판단되며, 2호와 3호의 경우에는 등고선과 나란하고 바닥면이 일정하여 하단부 취락의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수혈은 주거지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데, 평면형태는 장방형, 말각장방형, 타원형 등 다양하다. 수혈은 일정한 부분에 밀집된 양상을 보이는데, 많게는 14기가 중복조성된 경우도 있다. 내부에는 별도의 시설은 없으며, 토기 편이 다량 포함되어 있거나 바닥면에 소결면이 확인되는 것도 있다. 수혈은 작업장, 토취장, 폐기장 등으로 추정되며 일부는 주거지일 가능성도 있다.

유물은 단경호, 완, 기대, 개꼭지, 고배, 파수 등으로 대부분 생활토기이다. 대부분은 재지계 성주양식 토기이지만 경주양식 토기도 소량 출토된다.

유적의 중심시기는 5세기 후반이며, 7세기 전반까지 70여 동의 주거지군을 중심으로 백 여기가 넘는 각종 생활유구들이 배치된 대규모의 취락이다. 이 발굴성과는 향후 성산가야의 제세력 집단이 구성하던 단위취락 모습과 문화상을 복원·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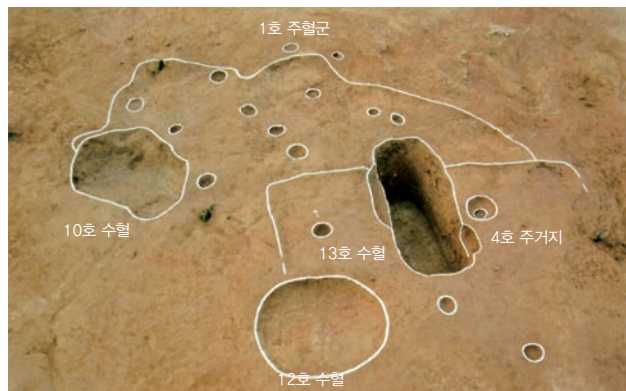
참고문헌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성주 장학리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성주 장학리 장골유적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성주 장학리 장골유적Ⅱ』.

장골유적II 수혈 유구군 전경

장골유적I 9호 주거지

장골유적II 11·13호 수혈유구 및 1호 주혈군

토기류

17

성주 상언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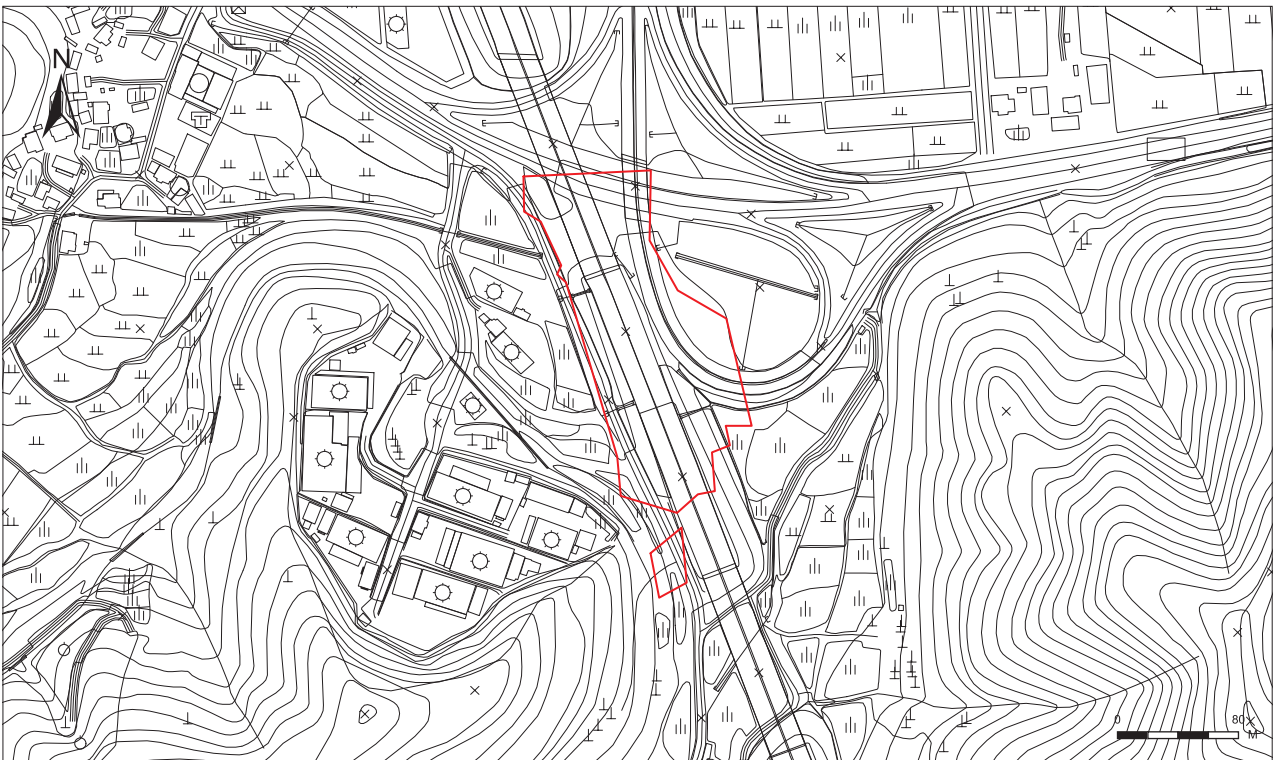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696-3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2004.3.~2004.12.

주요 유구 / 유물
구, 주거지 / 삼각형점
토대토기, 와질토기

유적은 해발 321m인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하는데, 해발 34~45m 정도에 유구들이 분포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김천간 고속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되어 실시된 발굴조사에서는 초기철기시대의 구 2기, 구상유구 2기, 주거지 2동, 부석유구 1기, 주혈군 8기, 수혈유구 2기와 삼국~근대의 수혈유구 2기, 토기가마 1기, 도로유구 2기, 석렬군 1기 등 모두 22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초기철기시대로 보고된 유구 중에는 일부 원삼국시대 전기의 유구로 판단되는 것도 있는데, 제2호 구와 제1·2호 주거지가 이에 해당한다.

제1호 구는 초기철기시대의 자연도랑으로 규모는 길이 70m, 너비 10~20m 정도이며, 내부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옹 및 호, 소형토기, 두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석촉, 석겸, 석부 등의 석기류, 목기류, 씨앗류, 동물뼈 등이 출토되었다. 잘 가공된 목기류는 고무레, 망치 등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용도를 알기 어렵다. 동물뼈는 사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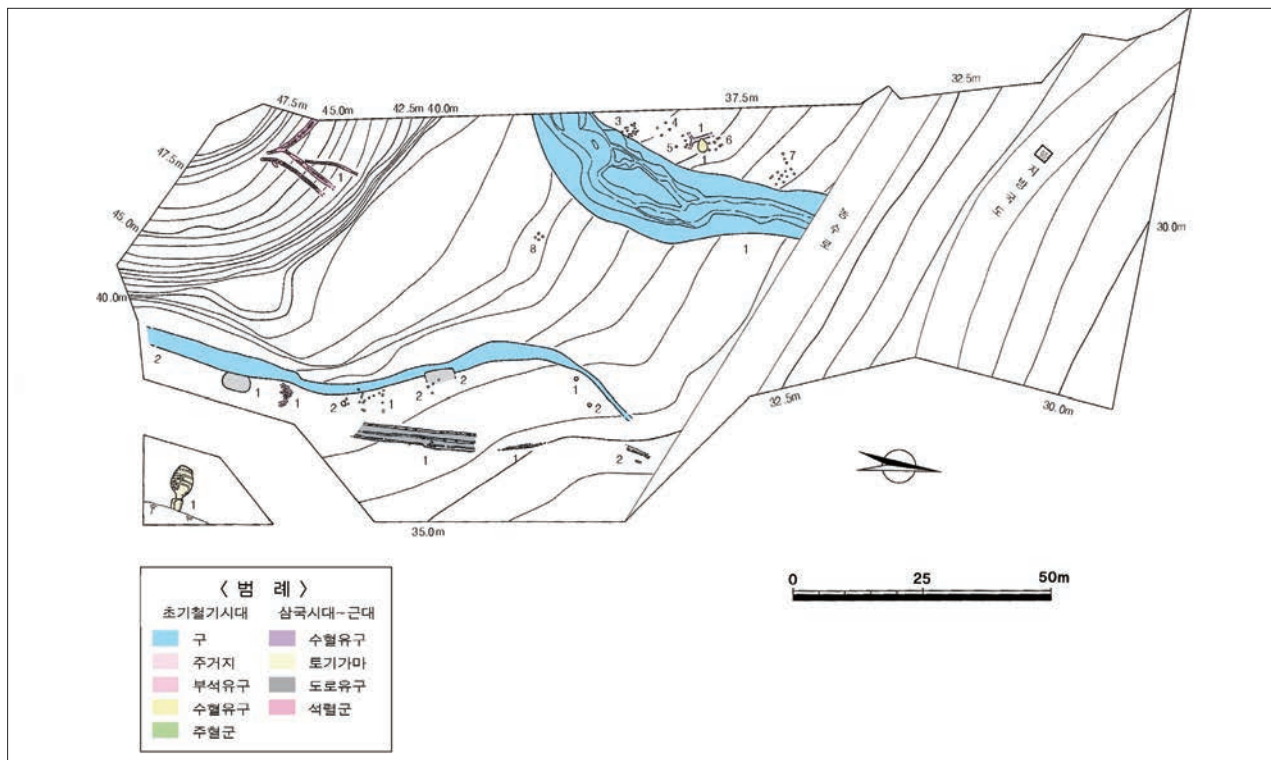
습과 돼지뼈가 많고, 그 외 소와 토끼뼈가 있다. 이런 출토 유물의 양상으로 보아서는 수변제사와 관련된 유구 또는 저습지일 가능성도 있다.

제2호 구의 능선의 동사면 기저부를 따라 조성되었는데, 원삼국시대의 구 또는 환호로 보인다. 조사지 내에서 확인된 규모는 길이 130m, 너비 1~5m, 깊이 0.4~1.0m이다. 3개의 유물포함층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나 모든 층에 원삼국시대의 와질토기를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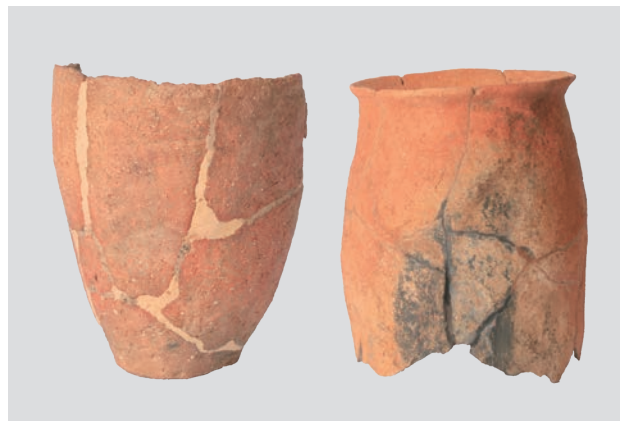
주거지는 2동은 제2호 구를 굴착하고 조성되었는데, 바닥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이다. 잔존상태가 양호한 제1호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6.7m, 너비 4.14m, 깊이 0.24m이다. 평면은 말각장방형으로 내부에는 북장벽쪽에 'ㄱ'자형으로 점토를 이용해 만든 온돌 시설이 있다. 유물은 와질주머니호, 발, 장란형옹, 석부, 지석이 출토되었는데, 주머니호는 조양동 38호 목곽묘에서 출토된 것과 기형이 유사하다. 조성시기는 주머니호로 볼 때 기원전 1세기~기원 전후한 시점으로 원삼국시대 전기에 해당한다.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에서 전기 와질토기로의 전환과정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성주 상언리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1호 주거지·2호 구 전경

토기류

18 성주 마월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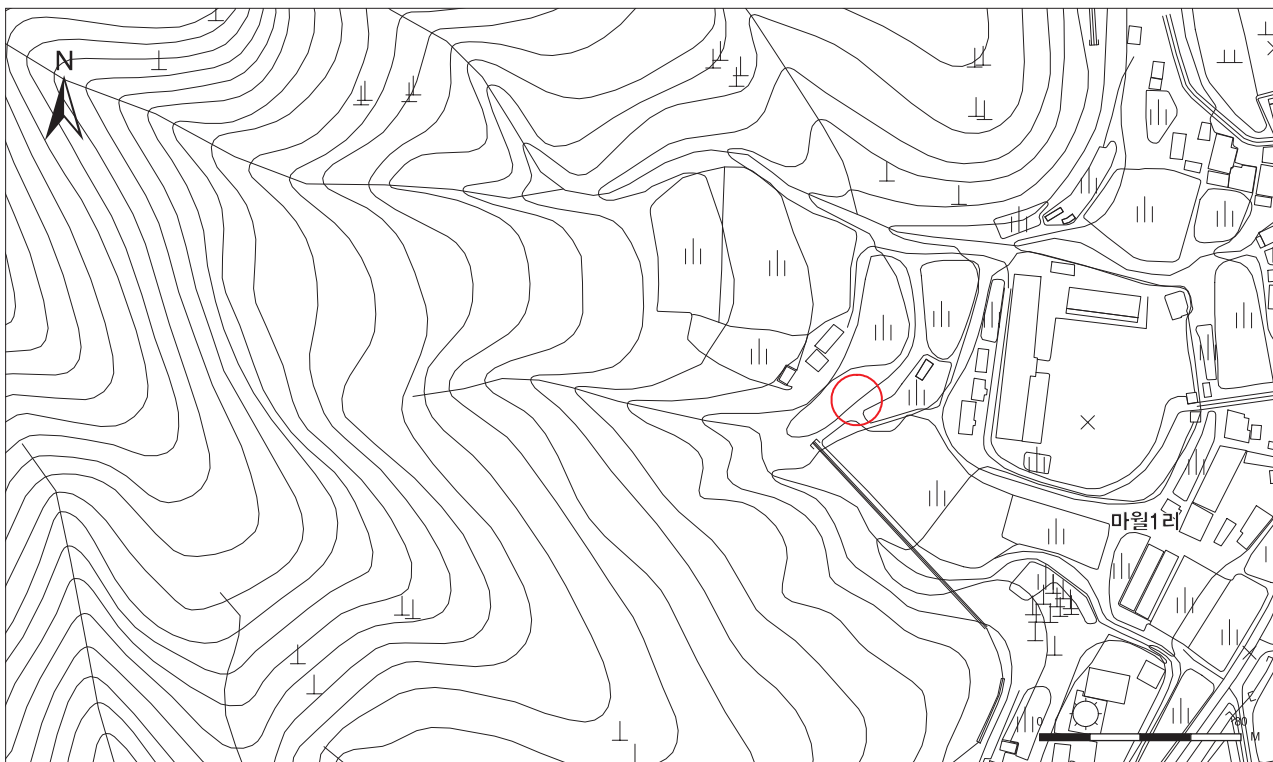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마월리
산139-6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산대학교박물관
/ 1999.7.~2000.1.

주요 유구 / 유물
토기가마, 폐기장, 수혈
/ 장구형수날토제품,
개, 완, 대부완

유적은 북서쪽에 위치한 구릉성 산지(해발 257.8m)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말단부에 접한 경작지 일대에 해당한다. 배후 야산에는 마월리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성주군 농수로 조성사업과 관련한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 토기가마 1기와 관련 폐기장 4기, 작업장 2기 등이 조사되었다. 토기가마는 완만한 남사면에 등고선 진행방향과 약간 비스듬하게 조성되었는데, 주변으로 폐기장이 분포하고, 작업장은 가마에서 다소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토기가마는 암면을 터널식으로 뚫어 지중에 축조한 지하식 구조이다. 규모는 길이 4m, 연소실 너비 1m, 소성실 너비 1.2m 이고 높이는 0.6m 정도로 소형급에 해당한다. 평면은 (세)장방형계에 해당하며, 소성실과 연결되는 연소실의 너비가 다소 좁혀지나 아궁이쪽으로 오면서 약간 넓어지는 형태이다. 구조는 아래쪽에부터 아궁이, 연소실, 소성실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단실 구조이다. 내부는 고온에 의해 회청색으로 환원 소결되

유적 위치도

었으며, 바닥에는 모래를 섞은 점토를 얇게 깔았고 2개층의 소결면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1차례 이상 보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가마의 주변에는 폐기장 4개소, 공방지로 추정되는 작업장 2개소가 확인되었다. 폐기장은 가마의 전방에 1개소, 거기서 동편으로 떨어져 2개소가 위치하며, 가마와 다소 떨어진 북동편에 1개소가 위치한다. 공방지는 지표를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고 바닥에는 불을 피운 흔적이 있다.

유물은 폐기장에서 회청색경질소성의 고배, 개배, 개, 완, 기대, 시루 등과 적갈색연질소성의 발, 호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범신라양식이나 성주지역의 재지적인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다. 그 외 요도구로 판단되는 장구형수날토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토기가마의 운영시기는 5~6세기대로 판단되며, 폐기장에서 출토한 토기류로 보아 대·소형의 기종을 모두 생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출토유물상에 시기차가 있고 폐기장의 분포양상으로 보아 조사범위 밖에 또 다른 가마가 유존할 가능성이 높다. 유적은 5~6세기 성주 용암면 일대의 소규모 토기생산시설로 당시 토기의 생산과 유통, 소비관계를 구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참고문헌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2005, 『개관 10주년 기념 발굴유물 특별전』.

요지 및 폐기장 전경

요지

1호 폐기장

폐기장 출토유물

19

성주 가암리유적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가암리 산24-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1차 2002.11.~2004.4.
2차 2006.3.~2006.6.

주요 유구 / 유물
주거지, 환호, 주혈군 /
단경호, 노형토기,
시루, 토구

유적은 성주읍에서 벽진면소재지로 30번 국도를 따라 5㎞ 정도 가면 일명 소바위고개가 나오는데, 이 고개의 우측으로 300m 정도 떨어진 나지막한 독립구릉에 위치한다.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김천간 고속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되어 조사된 유적이다.

2차에 걸친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의 주거지 47동, 환호 13기, 구상유구 7기, 주혈군 11기, 수혈유구 10기, 건물지 1동, 고려~조선시대의 토광묘 7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구릉 정부를 중심으로 크게 5개의 군으로 나뉘는데, 환호 내부에서 확인되는 주거지군은 3개소이고 외부에서 확인되는 주거지군은 2개소이다. 또한 환호와 주거지 간에 일부 중복을 보이는데, 이는 동시기 존재하거나 시차를 두고 조성한 것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주거지 상호간에는 중복조성된 경우가 대다수이며, 장축은 등고선과 나란하다. 평면형태는 방형과 타원형으로 나뉘는데, 평균적인 규모는 타원형 주거지는 길이 5~10m, 너비 1.2~3.7m이며, 방형은 길이 2~5m, 너비 1~3m 정도이다.

유적 위치도

경사면에 조성됨으로 인해 하단부분이 유실되어 완전한 형태는 알 수 없다. 내부시설은 아궁이, 고래, 노지, 벽구, 주혈, 내구, 수혈 등이 확인되었다. 아궁이 및 고래시설은 전체 주거지 중 11동이 확인되었고 40호에서는 노지도 함께 발견되어 당시의 취사난방시설의 일면을 보여 준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나 일부 점토나 사질점토를 깔거나 불다짐한 경우도 있다.

환호는 주거지군을 둘러싸거나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취락의 경계, 방어시설, 제의적 성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혈군 역시 다양한 시설흔적으로 공동시설, 창고, 목책 등의 용도일 가능성이 있다. 환호 경사면 위쪽에 정연한 배치양상을 보이는 주혈군의 경우 목책일 가능성이 있으며, 주거지가 배치되지 않은 넓고 편평한 정상부에 배치된 주혈군은 공동시설, 가장자리에 일정한 군을 이루며 배치된 것은 창고, 고상주거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출토유물은 삼국시대 타날문단경호, 노형토기, 장란형옹, 연질소옹, 시루, 파배, 파수, 방추차, 토구, 갈돌, 갈판 등 주로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다수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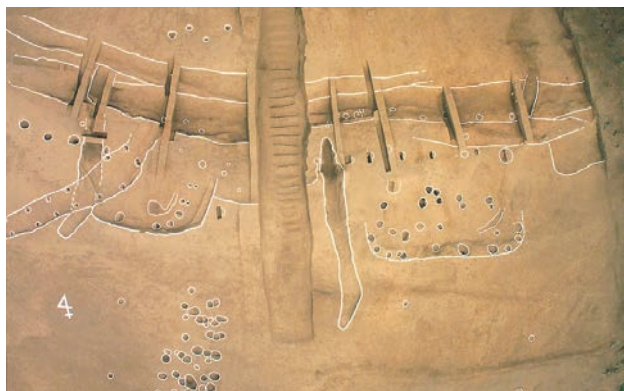
유적은 4세기대에 다수의 주거지군을 중심으로 환호와 공동시설, 창고 등이 적절히 배치된 대규모 취락이다. 이 발굴성과는 성산가야를 구성하던 제세력집단이 구성하던 단위취락 모습과 문화상을 복원·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성주 가암리유적』.

유적 원경

유적 전경

2차 조사지 전경

2차 조사지 세부 전경

1차 조사지 세부전경

17호 주거지

20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 산44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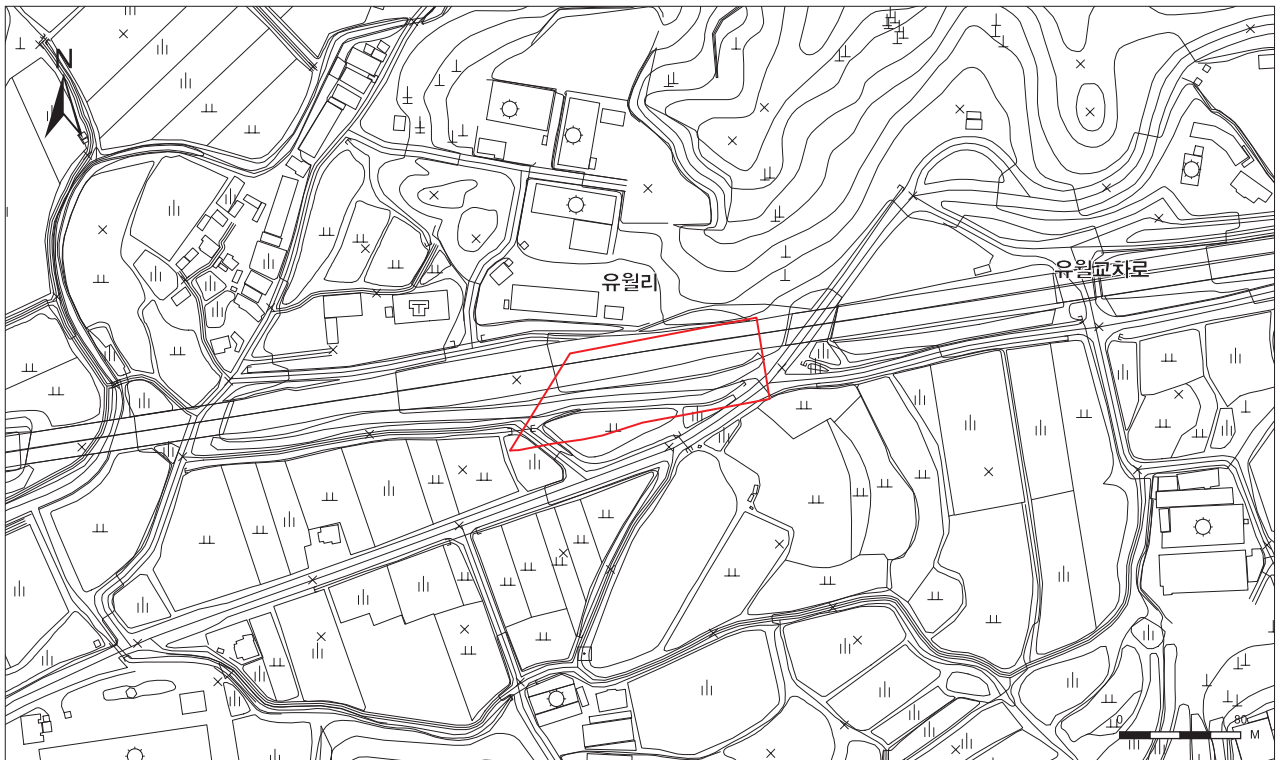
조사기관 / 조사기간
영남문화재연구원 / 2003.7.~2003.11.

주요 유구 / 유물
공방지, 주거지, 수혈 / 기대, 단경호 옹, 시루, 토제품

성주 유월리유적 _ 국도 33호선 성주~왜관간 확장구간 내 유적

유적은 성주 월항면 소재지에서 왜관방향으로 향하는 33번 국도의 확포장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며 월암지의 북편에 해당한다. 북서쪽으로 인접해서는 삼국시대 토기가마 및 폐기장, 고분군이 확인된 유월리 산43-5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2개의 지구의 발굴조사에서 Ⅰ지구에서는 삼국시대 공방지로 추정되는 주거지와 수혈 11기, 구1기, 고려시대의 토광묘 1기, 조선시대의 토광묘 15기, 수혈 2기, 구 6기, 주혈군 1개소, Ⅱ지구에서는 조선시대 수혈유구 1기와 구 1기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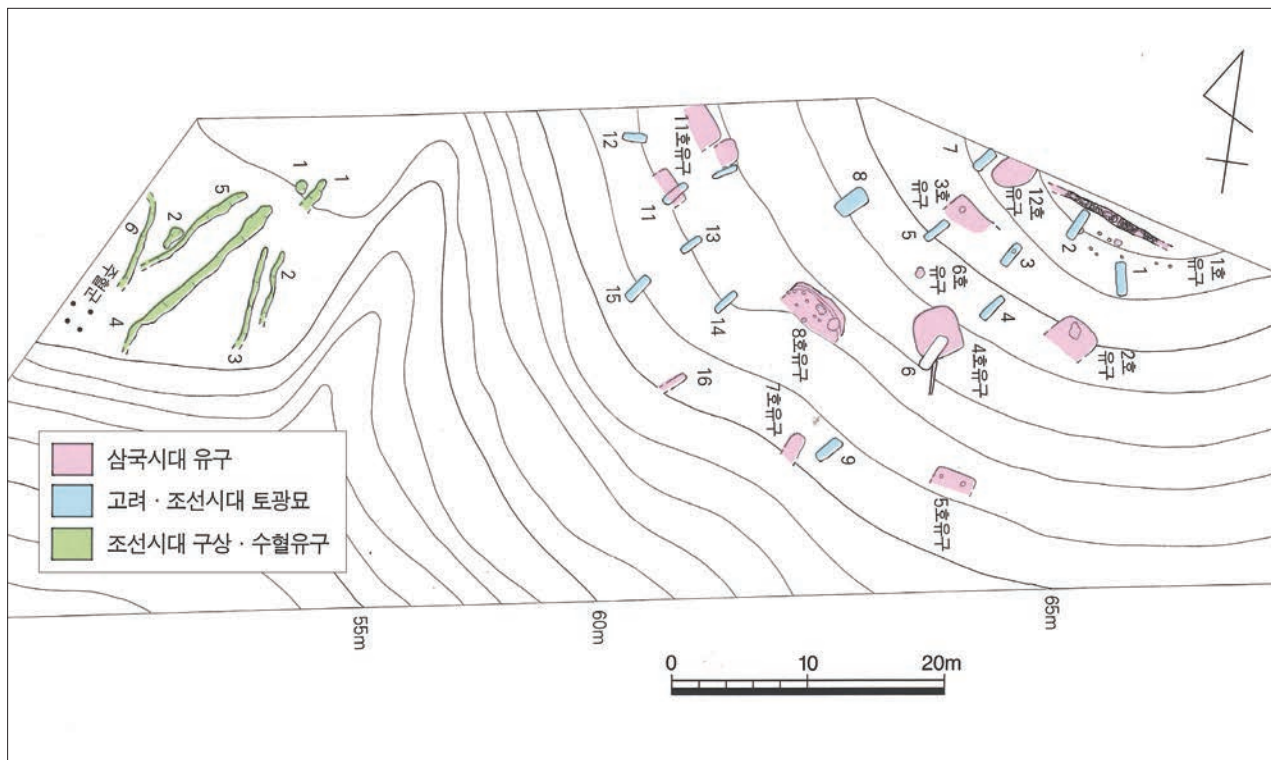
삼국시대의 주거지, 수혈, 공방관련 유구 11기는 용도상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보고서에는 5호, 8호, 10호와 같이 주혈과 노지로 보이는 것은 주거지, 2~4호, 9호, 11호와 같이 일정한 평면형태를 가지고 바닥을 정지한 것은 주거지보다는 공방지와 같은 특수한 구조물, 6호, 7호, 12호처럼 규모가 작은 수혈은 폐기장이나 토취장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방관련 유구와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1.8~5.48m, 너비 1.1~3.6m, 깊이

유적 위치도

0.2~1.5m이며, 수혈은 길이 0.6~3.3m, 너비 0.98~2.3m, 깊이 0.3~0.51m이다. 구상유구의 규모는 길이 9m, 너비 0.5m, 깊이 0.2m 이다.

유물은 대부장경호, 통형 및 발형기대, 단경호, 옹, 대호, 시루, 파수부배, 용도미상토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인접한 유월리토기가마 출토유물과 동일한 기종들로 대부분 생활토기 위주인데 비해 아직 성주지역의 생활토기에 대한 연구가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고서에서는 6세기 중·후반으로 편년하고 있으나 기존 성주지역 토기애 대한 연구성과로 보면 Ⅰ-6호 출토 통형기대는 성산동 59호 기대와 유사하여 5세기 후엽, Ⅰ-12호 출토 대부장경호는 장학리 별티유적 8-1호 대부장경호와 동일한 특성을 보여 6세기 초엽으로 편년해 볼 수 있다. 이 유물들은 모두 재지계 성주양식토기로 성주지역에서 완전한 경주양식 토기가 고분에 부장되는 시점이 6세기 중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적의 조성시기는 5세기 후엽~6세기 초엽으로 보는 것이 좀 더 근거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적은 성주 일대에서 확인된 유일한 공방지 또는 장인마을로 계곡부에 위치하며, 토기가마 6기와 폐기장이 확인된 유월리토기가마군이 결부되어 성산가야의 토기생산모습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더불어 기와소성도를 가지고 4개의 발이 달린 용도미상 토제품이 창녕계성 A지구 제1호분에서 확인된 바 있어 지역간의 교류관계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국도 33호선 성주-왜관간 확장구간내 성주 유월리유적』.

유구 배치도

유적 원경

Ⅰ-4호

Ⅰ-8호

출토유물

21 성주 옥성리 350-1번지 공장신설부지 내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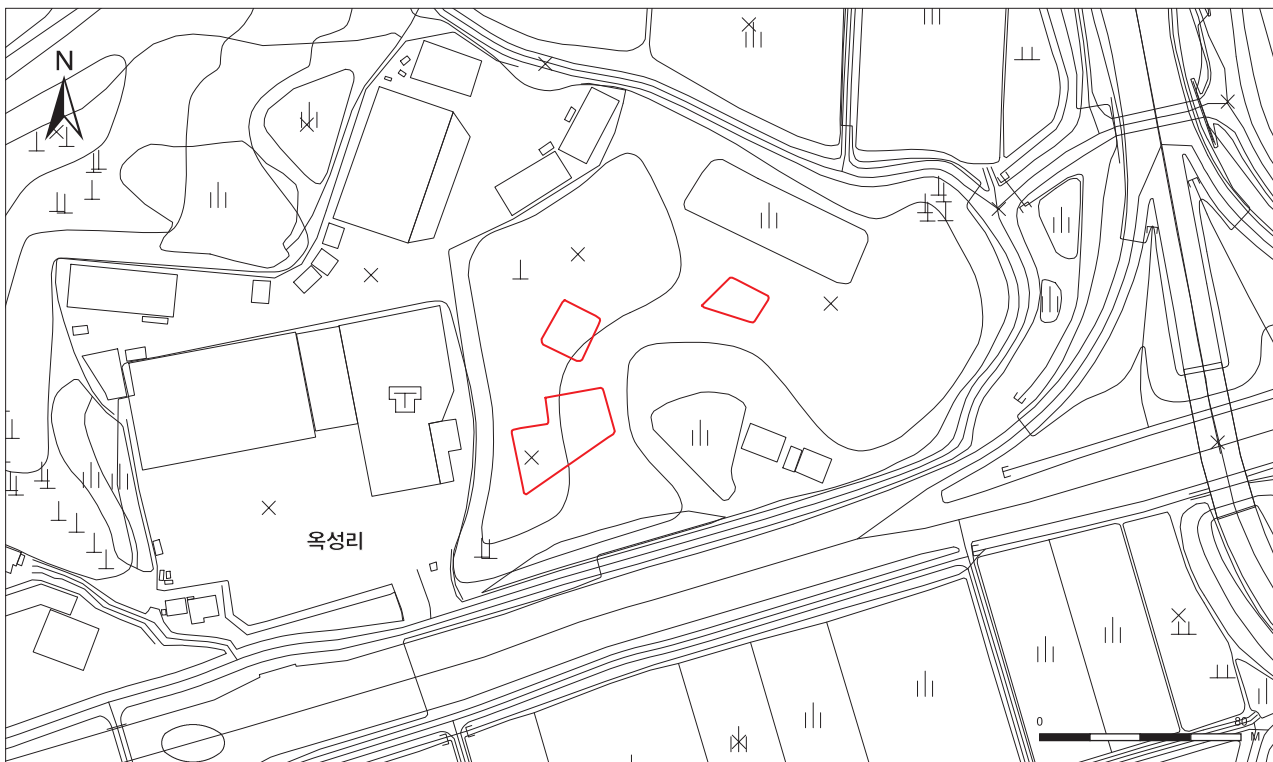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50-1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삼한문화재연구원 / 2016.7.~2016.9.

주요 유구 / 유물
토기가마, 고상건물지 / 연질옹, 연질호

유적은 현풍-김천간 고속국도 성주IC 요금소에서 남서쪽으로 200m 떨어진 구릉 일대로 해발 51~67m 나지막한 야산의 구릉 말단부에 위치한다. 발굴구역은 3개로 나눠지는데, Ⅰ구역에서는 삼국시대의 토기가마 2기와 고상건물지 2동, 고려~조선시대의 구 2기, 수혈 1기, Ⅱ구역에서는 고려~조선시대의 토광묘 3기, Ⅲ구역에서는 고려~조선시대의 토광묘 9기, 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

토기가마는 Ⅰ구역에서 2기가 확인되었는데, 4m 정도 떨어져 분포한다. 2기 모두 평면세장방형으로 장축은 등고선과 직교하며, 1호는 지상식, 2호는 터널식 가마이다. 지상식의 1호는 대부분 훼손되어 요상만 일부 남아 있으며, 규모는 길이 3.6m, 너비 1.32m, 깊이 0.08m이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며, 양 가장자리에서는 목탄이, 중앙부에서는 소토와 목탄이 다량 확인된다. 유물은 중앙부에서 연질 완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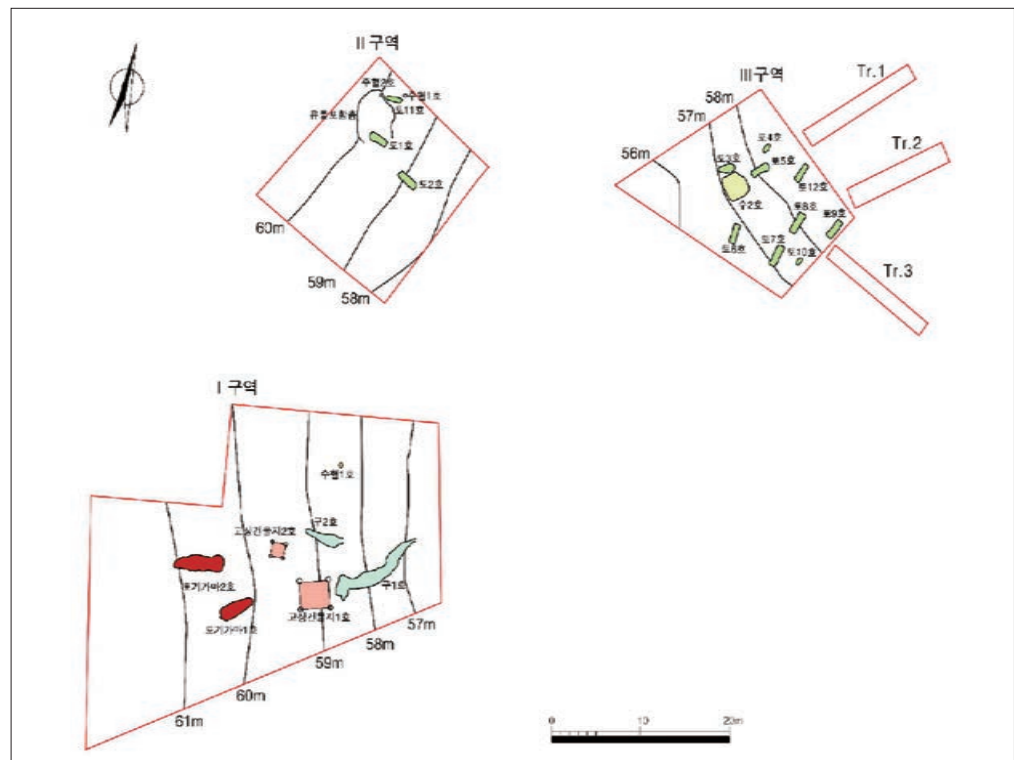
2호는 갈색풍화암반층을 터널식으로 굴착하여 만들었으며, 소성실의 바닥은 편평하

유적 위치도

다. 평면형태는 연도부에서 소성실 쪽으로 내려오면서 폭이 넓어지는 볼록렌즈형이다. 규모는 길이 5.16m, 너비 1.3m, 깊이 0.8m이다. 상면은 대부분 훼손되고, 아궁이 일부와 중앙부의 무너진 천정부만 남아있어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없다. 연소실은 층을 통해 대략적인 위치만 추정되며, 소성실 바닥은 연소실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낮아지다가 연도부 쪽으로 가면서 완만하게 올라간다. 연도부는 상면이 훼손되어 정확한 양상을 알 수는 없다. 내부의 바닥과 벽에서 확인되는 피열흔이 약하고, 연질옹과 연질 호 등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소성된 유물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연질토기를 굽던 전용가마로 판단된다. 조업 횟수는 퇴적층으로 보아 2~3번 정도로 추정된다.

1·2호 가마의 동쪽으로 약 5m 떨어져서는 고상건물지 2동이 확인된다. 평면은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4주식이며, 개별 주혈은 중복 관계없이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다. 고상건물지 1호의 규모는 길이 2.45~3.9m이며, 구조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다. 주혈 크기는 직경 0.45~0.55m, 깊이 0.2~0.6m이며, 단면형태는 'U'자 또는 '凵'자형이다. 고상2호 건물지의 규모는 길이 2.22~2.38m이며, 구조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다. 주혈의 크기는 직경 0.25~0.32m, 깊이 0.08~0.13m이며, 단면형태는 'U'자형이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출토유물로 보아 5세기 초로 추정된다. 연질호와 연질옹 등 생활토기를 생산하던 연질토기 전용가마의 존재를 통하여 향후 동시기 취락들의 연구에 새로운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삼한문화재연구원, 2016, 『성주 옥성리(350-1번지) 공장신설(기린산업외 6개업체)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유구 배치도

I 구역 전경

1호 토기가마

1호 토기가마 세부

2호 토기가마

2호 토기가마 세부

22 성주 유월리 산43-5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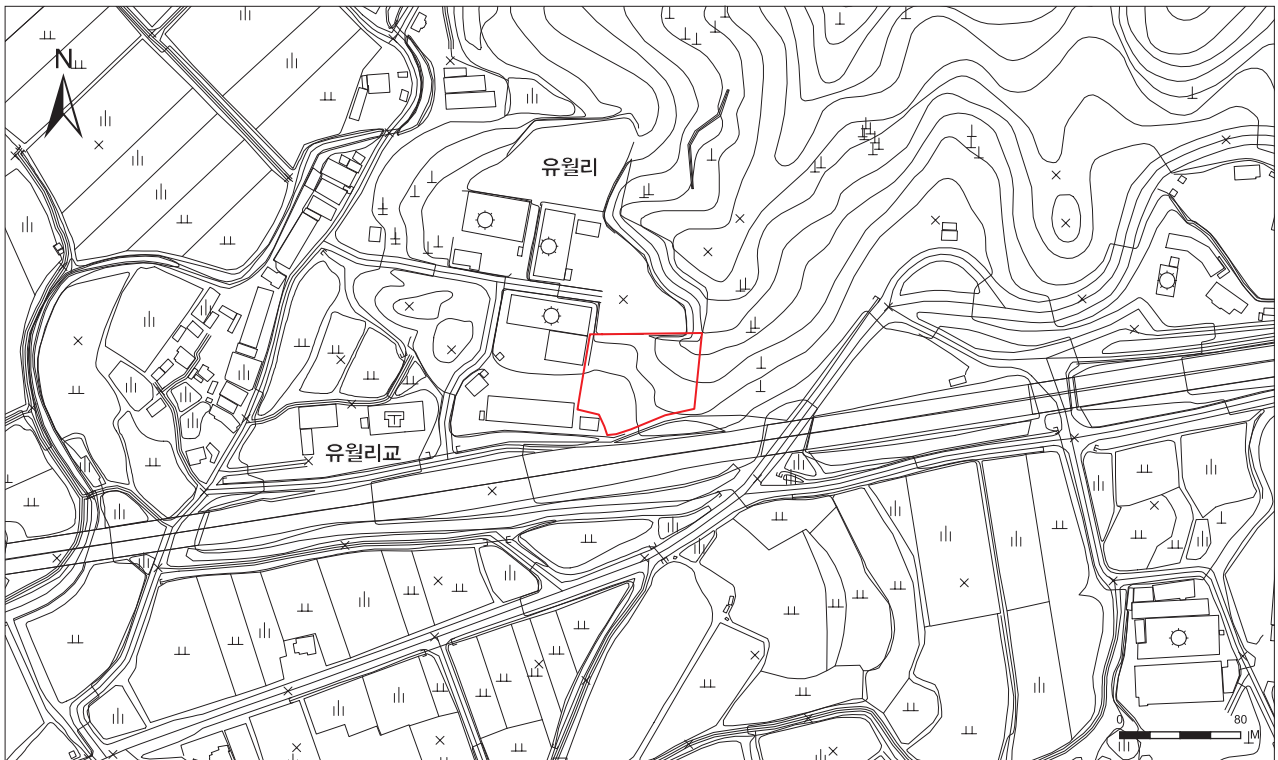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 산43-5 일대

조사기관 / 조사기간
대동문화재연구원 /
1차 2008.9.
2차 2009.8.~2009.9.

주요 유구 / 유물
목곽묘, 토기가마, 수혈 / 고배, 단경호, 토제품

유적은 칠곡군과 군계를 이루는 각산(또는 봉화산, 해발 469m)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말단부 및 골짜기에 해당하는 해발 60~100m에 위치한다. 근린생활시설부지에 해당되어 2차례에 걸쳐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 토기가마 6기, 폐기장 1기, 목곽묘 1기, 수혈 4기, 구 1기, 주혈 3기, 고려~조선시대 고묘 6기, 토광묘 27기 등 모두 49기가 확인되었다. 이후 토기가마가 확인된 부분은 원형보존되고, 나머지 범위에 대한 발굴조사는 덕난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하고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유적은 발굴조사보고서에 소개되지 않은 유월리 토기가마 부분에 대한 것이다.

토기가마 6기는 골짜기에 접한 남동·남서 사면에 일정간격을 두고 분포하고 임도 등에 의해 절토되거나 삭평되어 유존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제1·6호 토기가마와 제3·4호 토기가마의 경우 2~2.5m 떨어져 나란하게 위치하고 있어 동시조업이 이루어졌을 가

유적 위치도

능성이 있다. 토기가마는 지표를 수직상으로 굴착하고 벽체 일부와 천장을 노출되게 구축한 반지하식 구조로 판단된다. 가마의 전체 길이는 시굴조사의 한계로 인해 확인되지 않았고, 너비는 1.6~1.9m, 높이는 0.8~1.3m이다. 내부는 고온에 의해 회청색으로 환원 소결되었으며, 벽체와 천장은 식물성 부재가 포함된 점토를 이용하였다.

제1·2호 토기가마의 전방에는 두텁게 형성된 넓은 범위의 폐기장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토기가마 상부 및 폐기장 확인과정에서 호, 옹, 고배, 대부호, 파수부배, 파수, 완, 시루 등 주로 회청색경질소성의 토기 편이며, 회백색연질소성의 토기 편도 일부 보인다. 이 밖에 경질소성의 용도미상 토제품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와 유사한 토제품은 유월리 산44번지 유적 공방지를 비롯하여 김천 남산리 토기요지, 상주 구잠리토기요지에서 출토사례가 있으며 제기로 추정된다. 한편, 창녕 계성A지구 1호분 제2관에서 출토한 두침으로 보고된 토제품과 유사한 점에서 주목된다.

출토한 토기류는 범신라양식에 해당하고 그 형식으로 보아 중심시기는 6세기대로 추정된다. 유월리유적은 토기가마 및 이와 관련된 공방지 등 부속시설로 이루어진, 당시 성주지역의 주요 토기생산유적 가운데 하나로 판단된다. 당시 이 지역의 토기생산과 유통관계를 구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참고문헌

대동문화재연구원, 2012, 『성주 유월리 산43-5유적』.

유적 전경

가마 노출 전경

1호 토기가마

1·5·6호 토기가마

토기류

경남북부·경북·대구지역 가야 유적 목록

창녕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1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사적 제514호)			12
01-1	창녕 교동고분군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1992)	15
01-2	창녕 송현동고분군 6·7호분	무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2003~06) 경남문화재연구원(2001~04)	18
01-3	창녕 교리유적 -창녕 문화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경남문화재연구원(2004~05)	22
01-4	창녕 송현동고분군 15~17호분	무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06~08)	24
01-5	창녕 교동고분군 -주차장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09~10)	28
01-6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Ⅰ군 7호분 및 주변 고분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11~12)	31
01-7	창녕 교동 신라묘군-창녕박물관 증축부지 내 유적	무덤	삼강문화재연구원(2011)	35
01-8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Ⅰ군 수습조사구간 유적	무덤	우리문화재연구원(2013)	37
01-9	창녕 교동 88호분	무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13~14)	40
01-10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Ⅱ군 39호분 및 주변 고분	무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2014~현재)	43
01-11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제Ⅲ군 1-1호분·8호분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5)	46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7	창녕 초곡리 1002번지 농·어업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한국문화재재단(2017)	91
08	창녕 합리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무덤	두류문화연구원(2017)	93
09	창녕 동리유적 -창녕 군립도서관 건립부지 내 유적	무덤	한겨레문화연구원(2010)	96
10	창녕 우강리고분군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1~02)	99
11	창녕 교리 송현역사문화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7)	102
12	창녕 합리유적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10~11)	104
13	창녕 사리 1119번지 내 유적	생활	두류문화연구원(2014)	106
14	창녕 계성리유적 -창녕 골프장 예정부지 내 유적	생활	우리문화재연구원(2005~06)	108
15	창녕 영산 서리조선묘군	생활	삼강문화재연구원(2010)	111
16	창녕 일리 341-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생활	한국문화재재단(2016)	113
17	창녕 여초리토기가마터	산업·생산	국립진주박물관(1991~94)	115
18	창녕 용소리유적 -창녕 사몰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지구 내 유적	산업·생산	부경문물연구원(2010~11)	118

합천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1	합천 옥전고분군(사적 제326호)			122
01-1	합천 옥전고분군 -1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85~86)	126
01-2	합천 옥전고분군 -2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87~88)	129
01-3	합천 옥전고분군 -3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89)	132
01-4	합천 옥전고분군 -4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91)	135
01-5	합천 옥전고분군 -5차 발굴조사 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91~92)	138
01-6	합천 옥전고분군 -시굴조사 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1994)	141
02	합천 삼가고분군(경상남도기념물 제8호)			143
02-1	합천 삼가고분군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1981)	146
02-2	합천 삼가고분군 -생비량~쌍백 도로확장구간(Ⅰ·Ⅲ·Ⅳ지구) 내 유적	무덤	동서문물연구원(2009~11)	149
02-3	합천 삼가고분군 -생비량~쌍백간 도로확장구간(Ⅱ지구)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11)	152
02-4	합천 삼가고분군 -생비량~쌍백간 도로확장구간(Ⅱ지구 2차)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3~14)	155
03	합천 합천리유적			158
03-1	합천 대야성 정비복원 부지 유적	무덤	동양문물연구원(2009)	160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13	합천 창리고분군	무덤	동아대학교박물관(1986~87)	203
14	합천 어전리유적	생활	경남문화재연구원(2006~07)	206
15	합천 장대리도요지	생활	동서문물연구원(2009~10)	209
16	합천 성산리성지	정치·국방	경상대학교박물관(2009) 동서문물연구원(2013~16)	211

산청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1	산청 생초고분군(경상남도기념물 제7호)			216
01-1	산청 생초고분군 -조각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2002)	218
01-2	산청 생초 M12·M13호분	무덤	경상대학교박물관(2004)	221
02	산청 묵곡리유적	무덤	경남대학교박물관(1996)	224
03	산청 명동유적			227
03-1	산청 명동유적 -단성~산청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Ⅰ지구)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1~02)	229
03-2	산청 명동유적 -단성~산청간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Ⅱ지구)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2)	232
03-3	산청 명동유적 -산청 신안리 휴게소 건립부지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7)	235

거창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01	거창 정장리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2~12)	274
02	거창 말흘리고분군			277
02-1	거창 말흘리고분	무덤	국립진주박물관(1985)	279
02-2	거창 말흘리고분군 -거창 마리면 진산삼거리 주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0)	281
03	거창 무릉리고분군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12~13)	284
04	주상-한기리 국도건설구간 내 유적	무덤	한성문화재연구원(2016~17)	287
05	거창 월평리유적	무덤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9~10)	289
06	거창 송정리유적	생활, 무덤	부경문물연구원(2014~15)	292
07	거창 양평리 생활유적	생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07~08)	295
08	거창 동례리유적	생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0)	297
09	거창 무릉리 월곡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0)	299
10	거창 대야리유적	생활	동의대학교박물관(1987~88)	301
11	거창 지산리유적	생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10)	303
12	거창 송변리유적	생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10)	305

함양

고령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23	고령 쾌빈리 433-11번지 유적	생활	대가야박물관 영남문화재연구원(2004~05)	423
24	고령 쾌빈리유적	생활	대경문화재연구원(2006)	426
25	대가야역사관광순환도로 개설구간 내 유적	생활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07)	429
26	고령 고아리 158-2번지 유적	생활	대동문화재연구원(2008)	431
27	고령 연조동 전 어정	생활	계명대학교박물관(1977)	434
28	고령 낙동강유역 기념숲 조성부지 내 문화유적	생활	불교문화재연구소(2005~06)	436
29	고령 송림리 대가야 토기가마유적	산업·생산	영남문화재연구원(2015)	439
30	고령 주산성(사적 제61호)	정치·국방	대동문화재연구원(2011~15)	442
31	고령 연조리 추정 대가야궁성지	정치·국방, 생활	경북대학교박물관(2000~01) 가온문화재연구원(2017~18)	446
32	고령 봉화산 봉수대 재현사업부지 내 유적	정치·국방	대동문화재연구원(2017)	450

달성

유적번호	유적명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01	달성 성하리유적	무덤	대동문화재연구원(2010~11)	454
02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부지 내 유적	무덤	경상문화재연구원(2009~11)	457

성주

유적번호	유적명(지정번호)	유적유형	조사기관(연도)	페이지
10	성주 명포리 산41-1번지 공장부지 내 유적	무덤	대동문화재연구원(2017~18)	499
11	성주 장학리 별티유적	무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06)	502
12	성주 사곡리 산113번지 유적	무덤	대구보건대학교 인당박물관(2011)	505
13	성주 보암리 780번지 유적	무덤	동양대학교박물관(2013)	508
14	성주 유월리 산43-5번지 유적	무덤	덕난문화유산연구원(2011)	511
15	성주 예산리유적	무덤, 생활	대동문화재연구원(2010~11)	514
16	성주 장학리유적	생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5)	517
17	성주 상언리유적	생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4)	521
18	성주 마월리유적	생활	경산대학교박물관(1999~2000)	524
19	성주 가암리유적	생활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002~06)	526
20	성주 유월리유적 -국도 33호선 성주-왜관간 확장구간 내 유적	생활	영남문화재연구원(2003)	529
21	성주 옥성리 350-1번지 공장신설부지 내 유적	산업·생산, 생활	삼한문화재연구원(2016)	532
22	성주 유월리 산43-5번지 유적	산업·생산, 무덤, 생활	대동문화재연구원(2008~09)	535

가야 자료 총서

Collections of Data on Gaya

가야 발굴조사 자료편 III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III

총괄 김삼기

기획 강동석, 정인태, 민경선, 김지연, 권지현

집필 권귀향, 배성혁, 장상갑, 최경규

편집·교정 강동석, 정인태, 김태희, 김형철, 문정희, 박지연,
윤다혜, 이명훈, 이현아, 정지왕, 정진희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발행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56
055-211-9000
http://nrich.go.kr/gaya

북디자인 예맥

발간등록번호 11-1550160-000040-01
ISBN 978-89-299-1413-4 94910
978-89-299-1408-0 (전7권)

이 책은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Collections of Data on Gaya

Archaeological Research on Gaya Ⅲ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9 788929 914134 94910
ISBN 978-89-299-1413-4
ISBN 978-89-299-1408-0 (전7권)